COMPASS

나침반

청년 대상 인권교육 매뉴얼

2023년 개정판

본 매뉴얼에서 표현된 견해는 저자의 책임이며, 유럽평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 출판물의 저작권은 유럽평의회와 평화인권교육센터에 있다. 유럽평의회 통신국 출판부(publishing@coe.int)의 허락 없이,
본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복사, 기록 또는 저장 매체(CDROM, 인터넷 등)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
허락을 사용받은 매체는 부다페스트 유럽청소년센터(the European Youth Centre Budapest, 1-3 Zivatar utca, H-1024 Budapest, Hungary; e-mail: eycb.secretariat@coe.int)로 사본을 보내야 한다.
본 출판물의 자료 복제는 비상업적 교육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이 때에도 출처에 대한 적절한 인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Pancho의 일러스트는 전적으로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이 매뉴얼의 활동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한,
작가에게 사용권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

원본
저자: Patricia Brander, Laure De Witte, Nazila Ghanea, Rui Gomes, Ellie Keen, Anastasia Nikitina, Justina Pinkeviciute
편집: Patricia Brander, Ellie Keen, Vera Juhász, Annette Schneider
최종편집/진행: Rui Gomes
일러스트: Pancho

한국어판
번역: 박근덕, 백가윤, 이준석, 자원봉사자 다수
교열/교정: 고현희, 손민원, 유수연, 박근덕
편집/진행: 이선영, 박근덕

콘텐츠 특별 기여
Janina Arsenjeva, Éva Borbély-Nagy, Karina Chupina, Hanna Clayton, Oana Nestian_Sandu, Annette Schneider, Györgyi Tóth

나침반(2002) 초판 저자
Patricia Brander, Ellie Keen, Rui Gomes, Marie-Laure Lemineur, Bárbara Oliveira, Jana Ondrácková, Alessio Surian, Olena Suslova

나침반은 유럽평의회 시민참여국(the Directorate of Democratic Participation)의 교육청년부에서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을 위한 여러 출판물 중 하나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coe.int/compass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디자인: Studio1
일러스트: © "Pancho"
사진/표지: Council of Europe / Abdullah Mosaad
사진/내지: 63p: Council of Europe, 281p ⓒ MTI (Nelson Mandela), 281p ⓒ David King Collection (Evgenia Ginzburg)
282p ⓒ MTI (Martin Luther King), 282p ⓒ MTI (Mahatma Gandhi), 283p ⓒ Stiftung Denkmal fu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Berlin), Photo: Marko Priske, 283p ⓒ Tibet Information Network (Ngawang Sandrol),
일러스트: 101,172,173 p Jimmy Kazoya

© Council of Europe, October 2012

1판 2002 / 2판(전면 재편) 2012 / 2판 개정판 2015 / 최근 개정판 2023

한국어판: 나침반 – 청년 대상 인권교육 매뉴얼
© 평화인권교육센터, (사)더나은세상, 2021

한국어판 출판: 바오출판사
2024년 9월 28일 초판 1쇄 발행
등록 2004년 1월 9일 제313-2004-0000004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205, 204-402
전화 031)819-3283 전자우편 baobooks@naver.com

ISBN 978-89-91428-71-3 03300
Printed in Korea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아동과 청년을 위해 단순히 인권을 지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권 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면서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촉진하도록 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침반은 2002년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31개 언어로 번역된 나침반은, 청년 정책과 청년 관련 업무에서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평생 동안 인권으로 살아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인권의식을 만듭니다. 단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러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는 거스르기 힘든 흐름과 당장 벌어지는 현실이 함께 존재하며,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불안과 공포가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응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가 매우 복잡한 문제에도 윤리적 원칙으로 다룰 수 있다는 안도감과 확신을 줍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사람들은 옹호받고 보호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한 지식은 중요한 선물입니다.

나침반이 인권교육 종사자 과업 수행에 계속 지침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리야 페이치노비치 부리치(Marija Pejčinović Burić)

감사의 말

다음의 분들에게 참여와 도움에 대한 기록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나침반(COMPASS) 개정 작업에서의 자문 그룹의 구성원 및 그들의 공헌, 아이디어와 지원
- 인권교육자문단(2009-2010) 구성원 및 그들의 공헌과 돌봄
  Aleksander Bogdanovic, Anna Dobrovolskaya, Thierry Dufour, Caroline Gerbara, Georg Pirker, Annette Schneider, Kostas Triantafyllos and Sara Ufhielm
- 인권교육에서의 COMPASS 고급과정(ACT-HRE)에 참여한 트레이너와 참여자, 그리고 2009년, 2010년 청소년 인권교육 트레이너 양성과정 참여자이며, 과정 자체가 학습 과제가 되었다.
- 인권교육포럼 "인권으로 살고, 배우고, 행동하기(Living, Learning, Acting for Human Rights)" 참가자들, 특히 COMPASS 개정 관련 그룹 참가자들.
- 이들의 공헌한 아이디어와 시간
  Marios Antoniou, Kazunari Fujii, Christa Meyer, Ana Rozanova, Zsuzsanna Rutai, Agata Stajer, Sara Ufhielm and Wiltrud Weidinger
- 유럽평의회 활동 자료에 대한 친절한 제출 및 수정 작업
  Julien Attuil, Regis Brillat, David Cupina, Sandrine Jousse, Brigitte Napiwocka, Yulia Pererva, Miguel Silva, Dennis Van Der Veur, Agnes Von Maravic
- 부다페스트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청소년센터의 COMPASS 교육 자문위원 및 이들의 비판적 피드백, 인내, 지지와 창의성
  Iris Bawidamann, Goran Buldioski, Florian Cescon, Menno Ettema, Gisele Evrard, Laszlo Foldi, Mara Georgescu, Dariusz Grzemny, Sabine Klocker, Zara Lavchyan, Nadine Lyamouri-Bajja, Marta Medlinska,Yael Ohana, Anca Ruxandra Pandea, Annette Schneider and Inge Stuer
- Antje Rothemund의 COMPASS를 인권 학습자가 제대로 된 모국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지와 헌신
- COMPASS를 활용한 인권교육 실행으로부터 가감없이 솔직한 피드백를 보내 준 유럽평의회 청소년부문 트레이너 그룹 구성원들
-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COMPASS 번역에 참여한 번역자와 편집자들
-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용 구성에 도움을 준 모든 이들
- Rachel Appleby의 영문 교열 –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
- Zsuzsanna Molnar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원과 Erzsebet Banki, Nina Kapoor, Jackie Lubelli, Vincenza Quattrone and Gabriella Tisza의 동료로서 지원해 준 도움과 마음들.

우리는 텍스트와 활동의 참고문헌을 추적하여 저자들을 최대한 추적하였으며, 그 공로를 기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드리며, 다음 판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침반 한국어판 발간에 대한 감사의 말

유럽평의회의 나침반(COMPASS)은 인권과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자 중심 인권교육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에서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 이유로 2002년에 처음 출간한 초판의 경우, 한국어판을 출간하기 위해 (사)더나은세상에서 저작권을 확보하고 초기 번역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리고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도 별도로 1차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번역 작업은 한국어판 매뉴얼 출간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나침반은 유럽에서 첫 출간 후 전 세계로 널리 알려져 인권교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었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활동과 내용을 전면적 개편 하여 2012년 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후 정보통신 환경의 발전에 따라,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한 나침반 개정판(제2판, 2023개정판)을 전 세계의 인권교육 활동가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평의회의 한국어판 발간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사)더나은세상의 저작권 공유, 그리고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제1판 번역 자료의 제공으로 마침내 '나침반 2023 한국어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판의 번역과 출간 작업은 평화인권교육센터가 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나침반의 한국어판 출간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오출판사의 도움으로 한국어판을 발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해두고자 합니다.

한국어판 나침반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번역의 경우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정 및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나침반의 출간이 한국의 인권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인권교육 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활동가

박근덕

목 차

2012년판 소개(2015년 중쇄판 포함) 8

제1장 – **인권교육과 나침반 : 소개**

1.1. 인권교육 소개 14
1.2. 나침반의 인권교육 접근법 25
1.3. 인권교육에 나침반 사용하기 40

제2장 – **인권교육을 위한 실천적 활동과 방법**

활동 요약 68
활동 연계표 69
60 가지 참여형 인권 교육 체험 활동 및 방법 74
인권 달력 340
시작 활동 347
마무리 활동 352

제3장 – **인권을 위한 실천**

들어가기 359
3.1. 인권교육과 행동주의 360
3.2. 인권을 위한 간단한 실천 364
3.3. 행동 계획 수립 371

제4장 – **인권의 이해**

들어가기 383
4.1. 인권이란 무엇인가? 384
4.2. 인권의 진화 397
4.3. 인권의 법적 보호 403
4.4. 인권 행동주의와 NGO의 역할 420
4.5. 인권에 대한 질의응답(QnA) 426
4.6. 퍼즐처럼 난해한 문제들 429

제5장 – **전 세계 인권 주제에 대한 배경 정보**(가나다순)

1. 건강 437
2. 교육 438
3. 노동 439
4. 문화와 스포츠 440
5. 미디어 441
6. 민주주의 442
7. 빈곤 443
8. 세계화 444
9. 시민권과 참여 445
10. 아동 446
11. 이주 447
12.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448
13. 전쟁과 테러 449
14. 젠더 450
15. 종교와 믿음 451
16. 차별과 불관용 452
17. 추모/기억 453
18. 평화와 폭력 454
19. 환경 455

부록

주요 국제인권협약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대한민국 및 주변국) 459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유럽문화협약 가입국) 460
UN 461
유럽평의회 470

용어 사전 481

나침반과 수정본 중쇄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침반은 2002년 유럽평의회 청년스포츠국(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의 청년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인간존엄성에서의 평등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의미하는 인권교육(HRE)이, 모든 청년들에게 민주시민권이라는 영역을 형성하고 보편적 인권문화를 증진하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하고 남아있게 하기에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침반은 가치기반 청년 활동 및 비형식 교육에 관련된 많은 이들이 참고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랍어 및 일본어부터 아이슬란드어, 바스크어에 이르기까지 30여 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권리교육을 위한 자료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어떤 국가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나침반을 사용하려는 도전은 종종 대조적인 인권교육 현실과 부딪칩니다. 여기서는 활성화되고 저기서는 배척받고, 누군가는 칭찬하고 다른 누군가는 경멸하고 있습니다.

나침반의 성공은 아동대상 인권교육 매뉴얼인 콤파지토(Compasito)라는 자매지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책자 모두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EDC/HRE)를 위한 유럽평의회 헌장의 실행을 지원합니다.

나침반과 다양한 언어판 책자는 인권을 청년 활동에 의제로 제공하고 많은 학교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어 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더 많은 아동과 청년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교육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이 해왔던 일을 강화시키고자, 몇몇 나라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9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청년대상 인권교육포럼 '인권을 위한 삶, 배움, 행동(Living, Learning, Acting for Human Rights)'은 오늘날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1]:

> 인권은 법적 수단만으로는 보호되거나 증진될 수 없습니다. 인권교육(인권에 대해 배우고, 인권적 방법으로 배우고, 인권을 위해 배우는 교육)은 모든 이가 이해하고, 지지하며, 증진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 청년대상 인권교육 매뉴얼인 나침반을 통해 청년들을 위해 청년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다른 많은 청년들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유럽평의회가 청년들의 관대함, 열정,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 청년 활동과 비형식 학습으로부터의 경험들은 정규 교육 및 비형식 학습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젝트라는 영역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
> 인권교육은 시민단체(NGO)와 청년 단체만의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만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들은 인권교육을 실행할 주요 책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책무는 정규 교육 및 비형식 교육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지원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청년대상 인권교육 경험은 청년 참여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방식을 통합하고 청년 관련 업무 및 정책에서 인권교육을 주류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

'인권을 위한 삶, 배움, 행동 포럼'에서의 메시지

본 매뉴얼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청년은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매뉴얼에서 특별히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구분한 경우에만 이를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표기하였다.

역자주

인권교육을 비정규적으로 실천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침반은 인권교육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교육은 나침반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나침반은 인권교육을 경험하도록 하는 경로와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경로와 방법의 선택은 촉진자,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선택으로 남아있습니다.

나침반은 하나의 인권이 아니지만, 인권교육은 하나의 인권입니다.

나침반은 21세기의 두 번째 10년 기간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처음 10년동안, 나침반은 빨리 확대되는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과제와 도전들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러한 과제 중에는 세계화 과정의 가속화, 테러의 증가 및 세계적 테러 대응, 세계 금융 위기,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 조지아, 우크라이나, 몇몇 아랍국가에서의 아랍의 봄 혁명, 인터넷의 확산,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의 전쟁, 후쿠시마에서의 쓰나미와 핵 재앙 등이 있었습니다. 나침반은 이제 절망적으로 한 위기에서 다른 위기를 가리키게 되었고, 또한 어떤 영역은 구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결과 수정증보하여 2012년판으로 나침반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나침반 2012판을 21세기 두 번째 10년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용자의 평가를 고려했으며, "역사의 가속도"도 고려하였습니다. 2002년에 중요한 사건이 여전히 같은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으며, 다른 많은 문제들이 도드라졌습니다. 그 결과 2012년판 나침반은 이전 내용으로부터 발전되면서, 새로운 내용과의 혼합물이 되었습니다. 독자와 인권 실천가들은 현재의 관심사를 다루는 정보와 활동, 그리고 논쟁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발견하였으며, 학습자를 중심에 두는 겻은 지금도 지키고 있으며, 실천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쇄판의 다른 점

2015년 중쇄판은 2012년 개정판과 제1장에서 제4장까지 동일하며, 다른 부분은 '제5장 광범위한 배경정보'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배경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경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9개 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더 쉽게 업데이트되는 온라인판 www.coe.int/compass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판에서는 주제별 요약을 제5장에 간략히 다루었으며, 피드백을 통해 배경 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관련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중쇄판을 만든 의도는 인권교육을 위한 실습매뉴얼이 충분하고 실용적이길 바라는 실무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유럽평의회 웹페이지에서 배경정보를 구하도록 한 것은 해당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160쪽의 배경정보를 인쇄하지 않아서, 더 가볍고, 더 저렴하며, 종이를 절약하여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나침반은 학습자, 교육자 및 촉진자에게 인권교육에서의 방향성을 제공합니. 하지만 그들 각각은 인권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20세기의 두 번째 10년간에 연관되도록 나침반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나침반에 깔려 있는 핵심 가치와 접근 방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침반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갖습니다:

충분: 사용자는 청년들에게 인권교육을 소개하고 탐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 제안된 활동은 추가 자원이나 긴 준비과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최신 정보: 제시된 활동과 인권 이슈는 아동과 청년들의 관심사와 관점에 쉽게 연결됩니다.

실용적이고 경험에 기초: 모든 활동은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제안을 포함하여, 단순히 인식 차원 이상의 단계로 참여자들을 나아가도록 합니다.

정규 및 비형식 교육에 적합: 비형식 교육 환경을 위한 활동으로 개발되었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예를 들어 활동 시간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어느 정도의 변형을 통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성: 모든 활동은 그들이 '활동하는' 맥락이나 모임 및 사회에 맞출 수 있습니다. 촉진자가 자기맞춤용을 만들도록, 변형에 대한 여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작점: 관심있는 촉진자와 교육자는 특정 이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거나 인권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자 할 때 필요한 풍부한 제안과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이고 통합적: 나침반은 모든 인권 이슈와 모든 학습자의 지식수준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은 가치, 태도, 기술 및 지식을 통합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나침반은 인권교육에 관여하고자 하고,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한 교재입니다. 나침반을 처음 사용하는 이들은,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다루고자 선택한 주제에 대해 아무런 가정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또한 가르치거나 배우는 활동에서의 사전 경험에 대해서도 어떠한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을 운영하는 방법과 학습자의 요구나 실제 상황에 맞게 활동을 맞추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위한 팁에 대한 특별섹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언뜻 보기에 '실천하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제3장에서 개념과 교육과정에서의 개념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나침반은 인권교육을 위한 정보, 도구 및 팁에 대한 자료원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해진 시작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앞의 목차를 보고 매뉴얼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가 활동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지만, 활동을 진행하지 전에 '제1장 3. 인권교육에 나침반 사용하기'를 먼저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많은 분께서 이 2015년판 나침반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원하는 정보나 도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www.coe.int/compass 에 피드백을 올려주시면 향후 개선 보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석

1. 인권을 위힌 삶, 배움, 실천 포럼 참여자인 가반 티틀리(Gavan Titley)의 메시지, 유럽평의회 2010

제1장

인권교육과 나침반: 소개

제1장 목 차

1.1 인권교육 소개 14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14
인권교육의 정의 15
인권교육 자체가 기본적 인권이다 17
UN의 인권교육 18
유럽의 인권교육 19
청년 정책과 인권교육 21
청년과 함께하는 인권교육 23
인권문화로 나아가기 24

1.2 나침반에서의 인권교육 접근법 25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의 인권교육 26
나침반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방법론 기초 28
인권교육, 과정과 성과 31
인권교육과 관련 교육 분야 33
청년 대상 인권교육 관련 FAQ 38

1.3 인권교육에 나침반 사용하기 40

나침반에서 다루는 것 40
촉진하기 41
사용자를 위한 일반적 팁 43
활동 운영에서의 일반적 팁 46
자신의 필요에 따라 나침반 활동 맞추기 52
교사를 위한 특별 안내 55
나침반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방법 57

1.1 인권교육 소개

> “사회의 모든 개인과 조직은 … 이들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 촉진해야 한다.”
>
> 세계인권선언 전문, 1948

“이들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교육을 통하여 증진하는 것”이 인권교육(HRE)의 기본 취지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다루기 전에, 인권교육이 관련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에 대한 간략한 안내로 시작한다.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인권에 대해 배운 바가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권을 사용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

역사를 통틀어, 모든 사회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하여 사회적 결속을 보장하는 제도를 개발해오고 있다. 마침내 1948년 국제 사회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권리 규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것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이다. 1948년 이후로 여러 인권 문서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1950년 체결된 유럽인권협정서와 1990년에 체결된 아동권리선언(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등이 포함된다.

인권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기 위한 필수적 기본 기준을 구성하고 있다. 인권은 평등, 존엄, 존중, 자유와 정의에 대한 것이다. 권리의 예로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생명권, 언론의 자유, 결혼과 가족 구성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들이 있다. (부록에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본문에 제시되어 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영원히 주어진다. 즉 인권은 보편적이어서, 모든 국가의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인권은 양도되거나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다. 즉, 인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며, 모든 권리들은 똑같이 중요하고 상호보완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 참여권과 자유로운 선거참여권리에는 언론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인권에 대해 배운 바가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권을 사용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전문과 제26조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하도록 강화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권문화에 기반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고 권리 자체가 존중받는 문화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문화이며, 인권 침해를 인식하고 다른 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문화이다. 언어, 관습, 예술과 같은 개인적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인권이며, 사는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문화인 것이다.

인권교육의 정의

1948년 이후로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수많은 일들과 다양한 일들이 있어 왔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별로 다르게 세상을 보며, 교육활동가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고 다양한 조직과 공공기관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원칙이지만 다양한 실천의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가르침과 활동에 대한 구상을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개인과 사회조직”의 역할과 관심사항을 살펴보도록 추천한다. 이는 이러한 것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의 핵심과 관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993년 인권에 대한 세계 컨퍼런스에서 인권교육을 “공동체간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관계의 증진과 성취, 그리고 상호 이해, 포용과 평화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선언하였다. 1994년 UN 총회에서 UN인권교육 10년 계획(1995-2004)을 선언하고, 모든 UN 회원국들에게 “보편적 문화로서의 인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훈련 보급 및 정보”를 증진시키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정부들이 인권교육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로 국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들은 국제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의 법과 질서, 그리고 일반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인권교육을 평화, 민주주의, 사회 질서를 증진하는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유럽평의회의 목표는 유럽 대륙 전체에 걸쳐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법적 영역을 만드는 것으로, 기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적 가치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이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무게는 인권교육 정의 전체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지역이나 마을 단위에서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유럽평의회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은 인간 존엄성의 평등에 집중한다.

> “… 다른 문화 학습, 소수자 참여와 자율권 부여 증진 같은 관련 프로그램과의 결합을 통한, **인간 존엄성에서의 평등**[1]을 증진하는 데 맞추어진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들”

유럽평의회 민주시민 교육 및 인권교육 헌장(2010)[2]은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교육, 훈련, 인식 증진, 정보, 실천과 활동으로, 학습자에게 지식, 기술과 이해, 그리고 자신의 태도와 행동의 개발을 통하여, **학습자 사회에서의 보편적 인권문화 구축과 보호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을 꾀하게 된다.

몇 가지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가 또 있는데, 국제사면위원회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인권교육은 사람들이 참여와 상호학습의 틀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인권교육 아태지역센터(The Asia-Pacific Regional Resource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는 인권과 인권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의 삶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인권교육은 일반 대중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인권 지식, 가치관 및 능력에 대한 학습 활동이 신중하게 설계된 **참여 과정**이다.

UN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보편적 인권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인권의 포괄적 교육은 인권과 인권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인권을 증진, 보호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인권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행동을 증진시킨다.

인권을 배우고, 인권에서 살아가고,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문화

인권학습민중연합(PDHRE) 은 인권교육보다 인권학습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인권에 특별히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대신 학습을 강조함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인권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개인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NGO와 풀뿌리 단체를 포함한 다른 사회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정부, 기업 및 기관을 감시하며, 사회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한다. 각각의 NGO는 인권교육에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는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의 해결, 인권침해방지, 차별 철폐, 평등 증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강화"라고 믿고 있다.[3]

인권교육은 성인지를 주류화 해야 하며, 다문화에 대한 학습 차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2009년 10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인권교육과 청년 포럼, 인권으로 살고, 배우며, 실천하기(Living, Learning, Acting for Human Rights)에서, 오늘날 유럽 청년의 상황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기회의 평등을 심각하세 방해하는 신뢰부족과 불안정성 […] 인권, 특히 사회적 권리와 차별로부터의 자유는 거짓 약속은 아니라도 공허하게 들린다. 차별과 사회적 배제라는 상황을 지속하는 것을 허용되어서도 참아서는 안 되는 것"중 하나로 발표되었다. 포럼 참가자들은 기회 평등과 차별에 관심을 갖고 다음에 동의하였다. "인권교육은 젠더 인식과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중심에 두어야만 한다. 더불어 문화 간 상호 학습 관점을 포함해야만 한다; […] 우리는 유럽평의회가 […] 자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수자 이슈들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젠더, 인종, 종교, 믿음, 장애와 성적 지향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와 NGO 단체들은 인권교육을 바람직한 권리와 자유의 형태에서 오는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교육학자들은 비교적 가치, 원칙과 도덕적 선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1995년 인간존엄성을 위한 교육(Educating for Human Dignity)에서 베티 리어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기본 틀은 원칙과 기준에 기초한 사회교육이며 […] 도덕적 선택을 하고 이슈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도록 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 다른 말로 도덕적이고 지적 진실성을 키우는 것이다."[4]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촉진자, 교사를 포함한 인권교육 실무자들은 역량과 방법론 측면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인권교육에 있어서 다른 조직, 교육 제공자, 활동가들이 그들의 철학, 목적, 대상 모둠, 회원에 따라 다른 정의를 사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은 다음의 3가지 차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 인권에 **관한** 학습, 인권에 대한 지식, 인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되는 지.
- 인권을 **통한** 학습, 인권 학습의 맥락과 방식이 인권의 가치(예, 참여, 사고와 표현의 자유 등)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인권교육에서 학습과정이 학습내용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 인권을 **위한** 학습, 학습자가 인권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태도와 가치를 증진하는 것.

인권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사람들이 필요한 지식, 능력과 태도를 어떻게 습득하고, 그래서 그들이 인권문화의 구성원으로서 역할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인권교육은 "가르칠 수" 없고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실제로 인권 경험을 **통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는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방식**과 **공간**이 인권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인권**에서의** 학습). 이는 인권교육의 맥락과 활동이 존엄성 및 평등과 같은 가치를 실천의 본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침반에서는, 그 방법과 활동들이 얼마나 흥미 있고 재미있는지와는 별도로 인권에 관한 사항들이 이에 대한 학습의 신뢰도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제공한다.

인권교육 자체가 기본적 인권이다

인권은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부정의는 개인, 지역 및 전 세계 차원에서 삶의 질을 낮추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입는 옷들이 아시아 아동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유럽 식민지 역사의 유산이 이라크,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종교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필사적인 망명신청자들이 유럽 국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유사하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를 해야만 하는데, 이는 주로 선진 공업국들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가 우리들에게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며; 다른 이를 돌보는 의무는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도덕성이다. 인권침해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일어난다. 이러한 점이 인권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인권에 대한 온전한 인식, 이해와 존중만이 침해받지 않고 존중받는 문화를 키워갈 수 있다. 그래서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는 그 자체로 인권이라고 점차 인식되고 있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인권교육은 도덕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법적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인격의 온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 자유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 민족, 종교 간 이해와 관용, 우정을 증진하고 나아가 평화를 유지하려는 UN의 활동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더욱이,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학교 규칙은 아동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교육은 아동의 개성, 재능과 능력,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삶, 이해, 관용과 평등,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을 기반한 발전이라는 방향을 가져야 한다.

인권은 단순한 영감 그 이상이다.

또한 인권교육은 정당한 정치적 요구이다. '인권을 위해 살고, 배우며, 실천하기(Living, Learning, Acting for Human Rights)' 포럼에서의 메시지는 "유럽평의회의 활동 가이드에서의 가치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 메시지는 인권이 단순한 영감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또한 인권은 국가들 간, 국민들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적용되는 도덕적, 정치적 명령이다

UN의 인권교육

UN은 세계 인권교육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인권증진에 있어 인권교육, 훈련 및 공공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994년 유엔 인권교육 10년 계획(1995.1.1.-2004.12.31.)이 총회에서 선포되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인권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 수립되었다.

10년 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2004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초중등 학교 시스템에서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모든 국가들은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실행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국가별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되고 촉구되었다. 인권이사회는 2단계(2010-2014)에서 고등 교육 과정에서의 인권교육과 모든 교사 및 교육자, 공무원, 경찰, 군인에 대한 인권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다뤘다. 이에 따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준비한 2단계 실천계획이 2010년 9월에 채택되었다. 또한 2단계 실천계획은 회원 국가들에게 초중등학교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형 세계 프로그램은 정부와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실천을 위한 공통적 집단 프레임워크로 남아있다.

"모든 개인과 사회 조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키고자 학습과 교육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천명한다."

유엔 인권 교육 및 훈련 선언문 전문

2011년 12월 유엔 총회는 '유엔 인권교육 및 훈련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특별히 인권교육만을 위한 첫 번째 도구로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지하는 데 매우 가치 있는 도구이기에 획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알고, 찾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권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과 훈련은 모든 이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은 인권에 대한(about), 통한(through), 위한(for) 교육을 포함하는 인권교육과 훈련에 대한 광의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선언은 "인권교육과 훈련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각 국가를 주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다(제7조).

유엔 시스템 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맡고있다.

유럽의 인권교육

유럽평의회

인권에 대한 약속은 인권교육에 관한 약속도 된다. 인권교육에 대한 투자는 만인의 미래를 확보한다: 단기적 삭감은 장기적 손실을 초래한다.

2009년 인권을 위한 삶, 학습, 실천 포럼(the forum Living, Learning, Acting for Human Rights)의 메시지

유럽평의회의 회원국들에게 인권은 단순한 주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인권은 법률체계의 일부분이며 청소년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선언,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크게 공헌했다. 유럽평의회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럽인권협약은 UN의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원리와 영감을 얻었으며 2년 후 채택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인권의 출현은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후의 막대한 인권침해에서 기인한다.

1985년으로 돌아가면 각료위원회가 유럽평의회의 회원국들에게 학교에서의 인권에 관한 교습과 학습에 관해 권고문R(85)7을 공표했다. 그 권고문은 모든 청소년은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의 삶을 준비하는 일부분으로서 인권에 관해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권고문은 1997년의 유럽평의회 제2차 정상회담에 의해 강화되었다. 회원국의 수장들은 "민주사회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솔선해서 진두지휘한다."고 결정했다. 뒤따른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는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 학교 시스템에 인권교육을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인권교육 청소년프로그램의 확립과 나침반(Compass)과 뒤 이은 콤파지토(Compasito)의 출간과 번역은 특히 비정형적 교육과 청소년 정책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

회원국은 "영내의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유럽평의회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헌장

2010년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유럽헌장은 2010년의 권고문 CM/Rec7의 틀 안에서 각료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중등학교의 유치원, 초중등 정규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촉구한다. 이 협약은 또한 회원국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있어서, 특히 비정형 교육에 있어서 비정부기구와 청소년기구의 역할을 발전시켜야 한다. 회원국들은 그들과 그들의 활동을 교육시스템의 귀중한 한 부분으로서 인식해야 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가능한 한 제공하고, 그들이 모든 형태의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한다.

헌장에 따라 "영토내 모든 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권교육 관련 국가 정책과 법률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헌장은 인권교육의 목적과 원리를 제시하고 감시, 평가 및 연구 분야에 있어서의 실행을 권고한다. 헌장에는 그 내용과 실용에 관한 세부사항과 사례를 제시하는 설명서가 뒤따른다.

유럽평의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인권교육의 역할은 1999년의 유럽인권위원회 신설로 더욱 강화되었다. 위원은 회원국의 인권기준의 이행을 지원하고 법률과 실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파악하며, 유럽 전역의 인권보호에 관한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권**교육과 인식**을 촉진"시키는 사명을 띤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위원회은 인권교육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때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유럽기준의 효율적 실행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가진다. 많은 보고서들은 국가 당국의 인권교육 강화를 요구한다. 학교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

와 정부 관리도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교육이 우선이다 – 더욱 확실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관점에서 위원은 “인권가치에 맞는 삶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노동시장에 대비해 준비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어왔다.”고 개진한다. “교육을 통한 인권”과 “교육에 있어서의 인권” 둘 다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럽평의회의 인권교육에 관한 권리 촉진은 각 부문이 횡으로 연결되며 다중적이다.

유럽평의회는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인권 고등판무관, 유럽안보 협력기구(OSCE) 및 유럽연합의 기본 권리기관을 포함한 다른 국제기구들과 인권교육과업을 협력하고 조직화한다. 또 UN의 인권교육 세계프로그램의 광역협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유럽 베르겔란 센터(The European Wergeland Centre)

www.theewc.org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유럽 베르겔란 센터는 다른 문화 간의 이해, 인권 및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는 자원센터이다. 이 센터는 노르웨이와 유럽평의회 간의 협력프로젝트로서 2008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대상 그룹은 교육전문가, 연구원, 의사결정자 및 기타 영향을 주는 이들이다.

베르겔란 센터의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교사교육 담당자, 교사 및 다른 교육자를 위한 연수
- 연구 및 개발 활동
- 인터넷 전문가 토론을 포함한 컨퍼런스와 네트워크 서비스
- 정보, 교육자료 및 좋은 사례의 전파를 위한 전자플랫폼

유럽연합

www.fra.europa.eu

2007년 유럽연합 내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권 보장에 도움을 주는 자문기구로서 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가 설립되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사를 둔 FRA는 EU의 독립된 기구로서 EU와 회원국들이 기본권 문제에 관한 지역법을 시행할 때 지원과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FRA는 유럽 인권협약에 의해 규정된 인권과 EU의 기본권 헌장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켜야 할 임무를 가진다.

EU의 청년 프로그램은 다년간 평등, 적극적 시민 및 인권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청년 및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서 수행되는 여러 청년 프로젝트는 비정형적 학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청년에게 인권의 가치와 인권교육을 발견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정책과 인권교육

유럽평의회는 유럽인통합과정에서 청년들과 협력하고 통합 과정의 필수 요소로 청년 정책을 고려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7년 청년 지도자를 위한 첫 번째 활동이 열렸고, 1972년 유럽청년센터(the European Youth Centre)와 유럽청년재단(the European Youth Foundation)이 설립되었다. 그 이후로 유럽평의회와 청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청년과 청년 단체들이 조직 자체의 목적과 유럽을 위해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활동가이자 파트너로 있어 왔다. 전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이나, 분쟁지역에서의 평화 구축 및 갈등 해결, 인종차별주의, 반세계주의, 외국인 혐오, 불관용 등에 대한 투쟁 등에서 청년과 청년 단체가 유럽평의회에 의지하였으며, 또한 평의회도 이들에게 의지할 수 있었다. 유럽 대륙의 유연하고 깊이 있는 안보는 인권교육과 민주적 참여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유럽평의회의 청년 정책에 대한 명시적 목표는 “청소년, 즉 여성 아동과 남성 아동, 젊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온전히 참여하도록 하는 지식, 기술 및 역량을 개발하도록 한다.”[6]

청년들에게 동등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증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청년과 청소년 단체의 역할은 유럽평의회의 청년 정책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서 명백하게 설명되고 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 청년들이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헌하도록 장려한다.
- 민주주의 절차와 구조에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한다.
-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면에서 모든 청년들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촉진한다.
- 성평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방지한다.
-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청년들에 대한 인식 교육과 실천을 촉진한다.
- 정보와 상담 서비스에 대한 모든 청년의 접근권을 촉진한다.

다양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와 청년들의 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 우선적 주제는 인권교육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유럽평의회의 청년 정책은 아동과 청년 정책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동과 청년이라는 두 그룹은 광범위하게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유럽인권협약 50주년을 맞이하여, 청년체육부서는 자체의 인권교육 청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정책과 사업 및 청년과의 협력에 대한 위원회의 업무에서 인권교육의 주류화를 보장하고 있다. 청년과 청년 단체는 인권 교육자 및 옹호자로서 프로그램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유럽평의회 업무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www.coe.int/act4hre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2002년에 나침반을 출판하였고 이어 3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교육활동가 및 기획자들을 위한 유럽 지역 및 국가 훈련 코스로서의 프로그램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인권교육 교육자와 활동가들의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가 생겨나는 데 기여하였다. 인권교육 청년 프로그램의 성과는 또한 다음과 같은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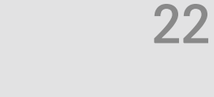
- 국가 기관과 기구의 협력으로 조직되어, 소속 국가의 교사 및 청소년 활동가를 가르치는 교육활동가를 위한 지역 및 국가 단위 훈련 활동에 대한 지원
- 유럽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비형식 학습법을 통한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조직과 교육활동가의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의 발전
- 유럽평의회의 청년 부문 전체 활동에서 인권교육적 접근법과 방법의 주류화
- 인권교육 및 비형식 학습을 위한 혁신적 교육/학습 방법과 교육 기준의 개발, 여기에는 인권교육의 상위 나침반 훈련에 의한 e-러닝 도입 등이 있다.
- 다양성, 인권 및 참여를 위한 유럽 캠페인인 '모두가 다르지만 모두가 평등하다(All Different – All Equal)'를 위한 교육 방법 및 자원 제공
- 문화 간 학습을 위한 방법론으로 '리빙 라이브러리' 보급, 이를 통한 고정관념과 선입견 해소 노력.
- 다문화간 대화 활동을 위한 정치적 교육적 프레임 제공.

이 프로그램은 유럽 청년 재단의 인권교육 시범사업 후원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의 청년이 참여하였다.

2009년에 유럽평의회 60주년을 맞이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청년 포럼 '인권을 위해 살고, 배우고, 행동하기(Living, Learning, Acting for Human Rights)'를 부다페스트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청년센터에서 개최했으며 250여 명이 참가했다.

이 포럼 참가자들은 유럽평의회 장관위원회에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에서 유럽의 인권교육을 위한 원칙과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국가나 지방단위에서의 프로젝트나 파트너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확산을 확보하고, 유럽, 국가 및 지방단위 활동 간 최적화된 소통 방안을 개발.
- 국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 정규 및 비정형 인권교육 활동가와 인권기구 간의 협력체를 모색.
- 청년 파트너의 정부 참여를 확대하면서 비정부 파트너의 역량을 개발.
-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지원.
- 청년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면 폭력과 배제과 같은 특정 인권 주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
- 인간 존엄성에서의 평등이라는 개념에 내재된 성인지 관점과 다문화 차원을 포함.
- 인권교육활동과 청년, 청년 노동, 청년 정책과 비공식 학습활동의 실제와 긴밀하게 연결.
- 아동 및 청년 인권교육에서 필수적 요소의 중복과 보완성을 고려.
- 인권으로서의 인권교육을 인식하고 증진하고, 이에 대한 인식 제고.
- 인권 활동가 및 교육활동가의 자유와 안전 보장을 고려.
- 소수자 문제의 주류화, 여기에는 젠더, 민족, 종교 및 믿음, 성적지향 등을 포함.
- 교육 과정에서 청년과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체성 지지.
- 형식 및 비형식 교육 분야의 인권교육의 장려와 지원에 있어서 국가 및 해당 당국의 책임 인식 제고.



청년과 함께하는 인권교육

청년들이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유럽 청년 대부분은 인권교육에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다. 나침반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청년에 대한 인권교육은 사회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은 사회적 배제, 종교, 민족, 국가 간 차별의 과정이라는 세계화의 단점(과 장점)에 점점 더 직면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며, 다른 믿음과 태도와 가치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그들이 살고 있는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드러나는 간극을 이해하게 한다.

2008년 3월 발표된 유로바로미터 특별 보고서중 "환경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태도"에서 유럽인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96%에 이르는 이들이 환경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거나 상당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청년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 자신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싶어 한다. 한 가지 예로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10만 명이 시위를 했다. 인권교육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를 동력화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청년 프로그램(개별 청년 클럽이나 학교에서 비교적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활동에서부터 유럽평의회나 EU에서 진행하는 주요 국제 프로그램까지)에서 분명하게 보인다.

유럽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이루어 낸 공헌의 예는 소수자권리모임(Minorities Rights Group)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각국 정부, NGO들, 언론과 학계에서 인용되는 이 보고서는 소수자 문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수자 사회의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한 실질적 안내와 권고 사항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권교육은 인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한 발 더 나아간다: 우선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방법이며,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제재 메커니즘을 보장하게 한다. 존중과 평등 가치, 공감과 책임의 태도를 이미 가지고 있고, 협력적으로 일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은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인권교육과정의 교육자나 촉진자로서 활동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 단위에서 인권교육 계획을 개발하는 데 있어 주요 지원 및 자원이 될 것이다.

인권문화로 나아가기

당신이 모든 꽃을 꺾을 수 있을지라도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다.

파블로 네루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구이다. 마치 모든 길이 로마로 이끄는 것처럼, 인권교육을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달성하려는 목표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인권이 이해되고, 옹호되고 존중받는 문화의 형성, 또는 2009년 청년 인권교육 포럼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인권을 배우고, 살며, 실천하는 문화"이다.

인권문화는 단지 모든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아는 문화로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식만으로는 동등한 존중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존중 없이는 침해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인권문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인권문화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 매뉴얼의 저자들은 이 질문들을 연구하여 몇 가지, 그러나 결론을 내지않은 답변을 만들어냈다. 인권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는 것이다:

-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한다.
- 개별적 자기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는다. 인간 존엄에 가치를 둔다.
-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준다.
-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성평등을 실천한다.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존중하고, 이해하며 감사함을 보인다. 특히 다른 국가, 민족, 종교, 언어 등을 가진 소수자와 해당 공동체에 대해 그러하다.
- 역량 있고 능동적인 시민이 된다.
- 민주주의, 사회 정의, 공동의 조화, 국민과 국가들 간의 연대와 우정을 증진한다.
-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관용과 비폭력에 기초한 평화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의 활동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및 정치적 경험과 현실이 사회마다 각기 다르기에 이러한 이상들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인권교육에도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인권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이거나 가장 적절한 방법에 관해서는 당연히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개인, 개인들의 집단, 공동체와 문화는 각기 다른 시작점과 관심 사항이 있다. 인권문화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1.2 나침반의 인권교육 접근법

여러 문화와 언어를 가로질러 인권교육을 전파하기 위해 나침반 활용하기

나침반 초판부터의 경험에 따르면, 전 유럽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매뉴얼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는 장애가 아니라 우리 작업을 풍요롭게 하는 자원이 되었다. 우리 각자는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권리를 부정당함으로써 생기는 굴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인권에 공감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은 보편적이고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문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실천이 항상 사회맥락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로서 인권교육의 목적과 원칙은 또한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

유럽은 그 자체로 다양성의 세계이다. 200여 개의 언어가 유럽 대륙에서 사용되고 있다. 모든 주요 종교들이 유럽에서 발견된다. 유럽 대륙은 민주주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파시즘과 전체주의도 경험했다. 유럽의 과거는 홀로코스트, 식민주의, 노예제로 특징지어지며, 오늘날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은 노벨평화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설 인권재판소를 설립했다.

오늘날 유럽에는 1949년 유럽평의회가 만들어질 때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으며, 수백 년 동안 국경이 거의 변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어떤 곳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국경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분쟁들이 불안정한 국경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에는 일상적 폭력과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비교적 평화, 안보와 번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좋은 조언을 주거나 옳은 길로 안내할 수 있을 뿐이며, 최종적으로 한 개인의 개성이 형성되는 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안네 프랑크

모든 유럽 국가에는 백만장자들이 있으면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각 나라 안에 다양성이 있고, 나라 간에도 다양성이 있다. 유럽의 한 지역에서 교사가 되면, 다른 지역의 교사가 받는 월급보다 많은 급료를 하루 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 교사가 되는 것은 마지막 몇 달 동안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어떨까? 의무 교육 기간은 키프로스와 스위스의 9년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13년까지 다양하다.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구할 가능성도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회적 권리를 가지고 자율성을 가질 가능성 또한 매우 다르다. 유로스탯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네덜란드의 7.6%에서부터 스페인의 44.5%, 라트비아의 43.8%까지 서로 다르다.[7]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은 지역 사회와 국가마다 다르며; 그래서 접근 방식, 내용과 방법의 세부 사항은 이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원칙과 목적은 그렇지 않다.

콤파지토 활동은 더 단순하고, 놀이에 더 가까운데, 활동이 짧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실에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의 인권교육

나침반 초판은 청년 모임이나 단체, NGO에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 회사, 심지어 정부 인력개발부서에서도 활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침반은 매우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모든 연령대에 걸쳐 사용되었다.

나침반은 원래 비형식 교육환경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방과 후 모임, 스포츠클럽, 교회 청소년 모임, 대학교 동아리, 인권모둠, 청년 교환 단체 등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년의 개인적 및 사회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활동들은 통합적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사회적 맥락에서의 지식, 기술과 태도 배양에 기여한다.

반면, 나침반은 또한 학교, 대학과 같은 형식 교육과정에서도 사용되곤 한다. 여기에서는 자주 기술과 태도보다는 지식의 습득에 더 집중하게 된다. 많은 교사들은 나침반을 역사, 지리학, 언어, 시민교육의 교육계획에 사용할 기회를 찾았으며,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하고 통합되면서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력개발 연수교육, 예를 들면 교사, 관리자, 공무원, 사법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은 정규과 비정형 훈련 사이에 위치하는데, 여기서는 많은 교육활동가들이 나침반을 기본 인권에 대한 교육과 기관 내에서의 평등한 기회 부여와 인종주의 같은 주제 교육 모두에서 사용하고 있다.

나침반은 일부 국가의 학교교육시스템에서 공식 학습 교재로 채택되었다. 어린 아동들에 대한 인권교육 도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럽평의회 청년위원회는 아동대상의 콤파지토(Compasito)를 특별히 7세~13세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비슷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침반의 접근과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배우고 연습한다. 나침반의 각 활동들은 스스로 흥미를 가지는 방법과 역동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활동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참가자가 배울 수 있고 배운 바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후속 활동”에서의 제안 중 몇 가지는 배운 바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거나 언론에 글을 쓰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나침반이 비형식 교육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다.

형식 교육에서의 접근방식, 특히 교사가 수행하는 방식과 역할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청년 클럽과 단체의 형태, 철학, 운영방식에 따라 외부교육의 가능성은 국가마다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 부문은 특정한 구조적 차이는 있다.

무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

무형식 교육은 평생학습과정을 의미하며,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의 환경과 일상 경험의 교육적 영향과 자원으로부터 태도, 가치, 기술과 지식을 얻게 된다.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 시장, 도서관, 전시회, 일터에서 놀고 읽고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배운다. 대중매체는 비정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매체인데, 예를 들어 연극과 영화, 음악과 노래, TV 토론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뤄지는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우는 것은 종종 계획되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형식 교육(Formal education)

형식 교육은 초등학교(일부 국가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구조화된 교육 시스템을 말하며, 직업, 기술과 전문적 훈련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형식 교육은 종종 학습자가 습득한 배움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을 개인별 필요와 선호에 맞추는 데 다소 폐쇄적이다. 형식 교육은 일반적으로 인증과 증명으로 이어진다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

지식, 태도, 기술의 상호 관계는 좋은 인권교육과 비형식 교육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2009 ‘인권을 위해 살고, 배우고, 실천하기’ 포럼의 결론

비형식 교육은 형식 교육 교과과정 외에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된 계획되고 구조화된 개인적 및 사회적 교육 과정이다. 예를 들어, 비형식 교육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게임을 하고, 토론하고, 캠핑을 가거나, 음악과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만나는 청소년 단체, 스포츠 클럽, 연극 모임과 같은 모임에서 일어난다. 비형식 교육의 성과는 비록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더라도 대개 확인이 어렵다. 비형식 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자발적이고
- [이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 교육 목표에 따른 조직된 과정을 가지고 있고
- 참여형이며
- 학습자 중심이며
- 삶의 기술을 배우고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준비에 대한
- 집단적 접근과 함께 개인과 모둠 학습을 기초하여
- 통합적 프로세스를 지향하는
- 경험과 실천에 기초한
- 참가자의 필요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형식, 무형식, 비형식 교육은 평생학습과정의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침반의 개별 활동이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형식 또는 덜 형식적 환경이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교육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하지만,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침반의 저자들은 인권교육의 잠재성이 더 많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형식 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또한 나침반은 원래 청소년 활동에 맞추어져 있다). 학교와 대학에 관련하여, 인권교육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따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학교 전체와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교육 기관의 민주적 관리방식은 인권교육 학습과정(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신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8]

이 매뉴얼에서, 인권과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60여 가지 활동도 찾아볼 수 있다. 이 활동들은 단독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인권교육 방법론과 여러 상황에서 활동을 사용하는 방법과 응용 및 발전 방법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두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자신에 관련된 문제에 관여하고 실천하기(3장) 위한 정보와 지침도 있다.

나침반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방법론 기초

인권교육에서, 방법과 내용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의존적이다.

인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사람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함께 하려는 기술과 태도를 발전시켜야만 하며, 전반적인 인권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개인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 심장 및 손발을 사용해야 한다.

총체적 학습

인권문제는 온전한 한 사람(신체, 정신, 영혼)에 관계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모든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전체 세상에서 전체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총체적 학습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총체적 학습은 전인적인 발전을 증진하는데, 이는 지적, 감정적, 사회적, 육체적, 예술적, 창조적, 영적 잠재력을 포함한다. 또한 총체적 학습은 모든 일상의 경험을 포함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학교 교과과정에서 전통적인 주제를 넘나들고 가로지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총체적 접근법은 학습의 인지적, 실용적, 태도적 차원을 이야기하고 포함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배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배운 바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혼자나 다른 이들과 함께 인권을 위한 행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총체적 학습은 차별화된 학습이다. 나침반에서의 학습 활동은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인지적, 정서적 영역 둘 다를 가르치도록 설계되었다.

개방형 학습

개방형 학습은 다중적이고 복잡한 답변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대하도록 구성되었다. 참가자에게는 하나의 "옳은" 답이 주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삶은 흑백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실들은 모호하기 때문이다. 개방형 학습은 의견과 비판적 사고를 표현하도록 자신감을 북돋는다. 이는 인권교육에서 필수적인데, 인권문제는 다른 의견과 이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함께 배우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상반된 결론이나 관점에 이르는 것이 여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가치 규명

참가자들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틀 속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구분하고 명확히 하고 표현하며, 타인과 함께 이들과 맞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참여

참여는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참여한 활동에 책임을 지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지지가 필요하다.

인권교육에서의 참여는 청년들이 인권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를 통해 청년들은 의사결정, 경청, 공감, 타인에 대한 존중,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게 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청년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주제를 다루고 싶은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도자나 교사의 역할이 촉진자, 안내자, 친구나 멘토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식을 전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강사의 역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매뉴얼의 활동들은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참가자는 능동적이고, 참여해야 하며, 누구도 뒤로 물러서 수동적 관찰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 교육, 의식 고취, 의식화운동에서 아우구스토 보알을 비롯한 다른 사회적 선구자들의 작업에 기대어 구성된 방법론이다. 학습자/참가자가 활동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활동을 연기하거나 중지하고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 또한 인권교육의 일부분이다.

참여는 학습자 및 참가자가 자신이 관여하는 활동과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환경을 요구한다. 참가자들에게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중요하며 참여의 한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황을 조작하거나 가상으로 참여를 진행하기보다는 참여에 대한 제한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동 학습

타인을 존중하고 협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권교육의 목적 중 하나이다. 협동 학습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모둠의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찾기 위해 함께하는 것을 배운다. 협동 학습은 보다 높은 성취와 발전된 성과, 증진된 보살핌과 지원, 그리고 헌신적인 관계와 높아진 사회적 역량,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점은 학습이 경쟁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과 대조된다. 경쟁적 학습은 종종 자기 이익, 타인에 대한 무시, 승자에게서 나타나는 오만함 등을 조장하며, 패자는 종종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을 잃곤 한다.

경험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기)

경험을 통한 학습이나 발견에 의한 학습은 인권교육의 주춧돌이 된다.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옹호, 관용 및 존중과 같은 핵심 인권 기술과 가치는 가르칠 수 없고 경험이나 연습을 통해 학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청소년들에게는 인권이 사람들의 욕구에서 어떻게 진화해왔으며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종 차별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상관없는 이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입장은 허용될 수 없다. 다른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세계 모든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나침반에서, 우리는 참가자들이 씨름할 질문과 현재의 문제를 보여주는 역할극과 사례 연구와 같은 활동을 통해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험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강화과정 없이 학습한 것은 곧 잊어버리게 된다.

경험 그자체만으로는 충분한 배움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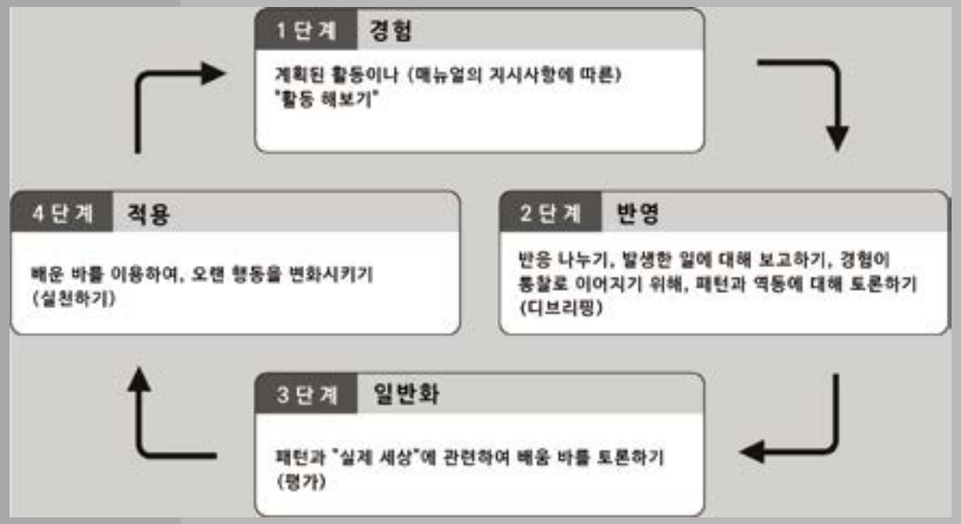
데이비드 콜브의 경험 학습 사이클

1984년 데이비드 콜브는 '경험 학습: 배움과 성장의 원천으로서의 경험(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을 출판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학습과정에는 4단계가 있다.

나침반의 활동 모두는 이 모델에 기초하였다. 어떤 경험(역할극처럼 계획된 사건/자극/활동)에 이은 디브리핑(2단계)과 평가(3단계). 각 활동 설명에는 사람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 반영할 수 있도록 디브리핑과 토론을 안내하는 질문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들이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이미 알고 있던 바와, 보다 넓은 세상에 관련된 것과 경험을 어떻게 비교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단계로 옮겨가는데, 이는 배운 바를 실천으로 이행하는 적용이다. 나침반에서, 청소년들이 배운 바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포함하는 후속 활동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전체 학습 과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반영하는 과정 없이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학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른 단계 없이 단지 나침반의 활동만 한다면 (1단계) 인권교육을 망치는 것과 같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에 놀라거나 행동주의를 장려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인권교육 활동가로서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와 장소에서 행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험 학습 사이클



이 시점에서, 나침반에서의 "활동"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습과정 1단계에서 일어나는 자극, 수단 또는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학습과정 전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활동"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한다. 실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디브리핑과 평가, 실천하기와 후속 활동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학습자 중심

인권교육은 매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권을 위한 역량이 인권교육의 전적인 부분이지만, 학습자 혹은 참가자가 인권교육의 중심에 있다. 중요한 것은 촉진자나 교사가 전달하려는 것보다 그 내용 자체이다("오늘 우리는 사형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학습자/참가자가 중심이 되는 것은 이들이 가르침을 받거나 경험함으로써 배우거나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참가자에게 더욱 적합하고 (또는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되는데 이 또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다) 더 실용적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학습자 중심에는 다른 주장과 결과들도 많이 있는데, 참가자의 현실에 맞도록 내용과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촉진자측의 열린 마음을 포함한다. 우리는 나침반의 집필 과정에서 참가자의 현실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의 시작"이라고 명명하였다.

인권교육, 과정과 성과

나침반에 사용되는 핵심 교육 방법은 협력적인 학습, 참여와 경험을 통한 학습이며, 이는 함께 참여하는 활동과 토론 및 후속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만들어낸다:

-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자신의 의견과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함께 찾고 발견하도록 한다: 인권에 **대한** 학습
- 청년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하고 토론에 기여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도록 북돋는다 : 인권을 **통한** 학습
- 사람들이 자신이 배운 바를 불공정, 불평등과 인권 침해에 거부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지지한다: 인권을 **위한** 학습

효과적인 교육자가 되기 위해, 인권교육 활동가는 목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심지어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더라도 이들이 인권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과 성과로서의 인권교육 간의 차이는 실제 거의 없다; 활동들을 통해 과정과 내용, 방법과 결과가 상호의존적인 통합체가 되는데, 이는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없다. 평화가 그 길이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과 같다.

인권문화의 모습들을 목록화하려고 애쓴 바로 그 때처럼, 또한 매뉴얼의 저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권을 깨우치기 위한 지식, 기술과 태도를 목록화 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역량들은 우리가 활동들의 목표를 개발하는 기초로 사용되었다.

일반적 표현으로 지식과 이해, 기술, 태도의 측면에서 인권교육의 성과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인권 이슈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사람들에게 인권침해를 인식하도록 한다: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습, 이는 국내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보호 책무를 누가 지는지, 어떤 국제 협약이 적용되는지, 참가자/젊은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배운다: 인권에 **대한** 학습
- 당신 자신과 다른 이의 인권을 위해 싸우거나 지키기 위한 기술과 능력, 여기에는 인식 증진, 관련 기관이나 언론에 청원할 수 있다는 인식, 인권옹호 활동과 캠페인 등이다: 인권을 **위한** 학습
-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 하고 참가자들이 인권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도록 한다. 소위 인권의 "수평적 차원"으로 사람 간의 관계에 적용되며, 사람과 국가기관과의 관계, 소위 "수직적 차원"도 해당된다. 이러한 태도는 가족 환경, 동료 간, 학교에서 또는 청소년 조직이나 클럽에서 반영될 수 있다: 인권을 **통해** 그리고 인권**환경에서**의 학습

역량에 기반한 목표

일반적 목표 목록도 유용하지만, 효과적인 인권교육가가 되기 위해 우리들의 목적을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함께하는 청소년들이 개발하기를 원하는 역량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인권 이슈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어떤 유형의 지식이 필요한가? 인권보호를 위해 그들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태도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들의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의 요소들은 나침반을 개발하는 과정과 유럽 전역에서 청소년들과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매뉴얼 활동들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다.

지식과 이해

- 다음과 같은 핵심 개념: 자유, 정의, 평등, 인간 존엄성, 차별철폐, 민주주의, 보편성, 권리, 책무, 상호의존성과 연대.
- 인권이 가족, 학교, 지역사회, 더 넓은 세계에서의 행동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는 생각.
- 자신의 삶에서, 지역사회 생활에서 그리고 전 세계 다른 이들의 삶에서 인권의 역할과 과거 그리고 미래 차원에서의 역할.
-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적/경제적 권리 사이의 구분과 상호 관련성.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지역, 국가, 국제 단위 기구와 NGO, 개인들.
- 다양한 사회에서, 같은 사회내 다른 모둠에서, 종교/도덕/법제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통성의 근거에서 인권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다양한 방법.
- 인권을 인식하도록 만든 주요 사회적 변화, 역사적 사건과 이유들.
- 인권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주요 국제 기구에서 인식하고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세계인권선언(UDHR), 아동권리협약(CRC),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ECHR).
- 자국이나 헌법과 법률에서의 인권보호,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감시를 책임지는 기구들.

실제에서는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과 성과로서의 인권교육이 구분이 없어야 한다.

역량

- 적극적 청취와 소통: 다양한 관점을 듣고,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하는,
- 비판적 사고: 관련 정보 찾기, 증거를 비판적으로 감정하기, 선입견과 편견 인식하기, 여러 형태의 조작성 인식하기,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결정하기.
- 협동하며 갈등을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 사회 모임을 참여하고 조직하는 능력.
- 인권침해를 인식하는 능력.
- 지역적으로 동시에 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행동.

태도와 가치

-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개인적 발전과 사회 변화에의 공헌.
- 호기심,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과 인정.
-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대, 그리고 인권이 위협당하는 이들을 지원하려는 의지.
- 사회, 문화, 언어, 종교적 차이에 상관없이 자기 존중과 타인의 존중을 실현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 정의감; 보편적 인권, 평등과 다양성 존중과 같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열망.

인권교육과 관련 교육 분야

인권은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준다. 세계인권선언(UDHR)을 살펴보면,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들 – 빈곤, 공해,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 에이즈, 낮은 교육 혜택, 인종차별, 전쟁 –이 인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당한 것들 중 어느 것이 다른 것에 비해 더 혹은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지위에 따라 관점이 바뀐다. 사실은 하나나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여야 그들 중 하나를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연관 되어 있다. 인권은 나누어질 수 없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어, 특정 인권만을 골라 수용하고 존중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권교육가들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니다; 존중과 평등이 하나의 표준이 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관계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뭐하고 부르던, 예를 들어 개발 교육, 평화 교육, 지속가능성 교육, 시민교육 등이 있는데, 우리는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관련된 이슈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나침반은 이러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은 정말로 다양해서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방식을 보여주곤 한다! 종종, 특히 청소년과의 활동에서는, 인권교육이라고 지칭할 필요도 없이 청소년들의 책무와 존엄에 대한 감각을 요청할 수 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많은 문제들이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은 목표나 사례보다 보는 관점과 다루는 범위가 다르다.

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위한 유럽평의회 교육헌장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은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고 서로 지지하고 있다. 목표나 실천보다는 바라보는 초점과 범위가 다르다. 민주시민교육은 주로 시민, 정치, 사회, 경제, 법적, 문화적 영역과 관련된 민주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적극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인권교육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넓은 범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것이다."

시민권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은 정치와 정부, 법체계, 언론, 다문화주의와 동등한 기회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나침반은 "민주주의", "시민권과 참여", "미디어", "일반 인권", "차별과 불관용", "젠더"라는 주제를 통해 관련 활동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나침반의 주제는 이주민과 난민이 한 나라의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시민 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게도 유용하다.

개인 및 사회교육

많은 국가들은 사회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부딪힐 개인적 도전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시민권 주제와 겹쳐질 수 있지만, 또한 여가와 관련된 개인적 삶(스포츠, 동아리나 모임, 음악, 미술 등의 여러 형태의 문화 활동)의 측면도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은 대인관계와도 관련 있다. 인권은 이러한 문제에 두 가지 중심적 방법으로 개입한다: 첫째, 개인의 발전과 대인관계에서 인권가치를 지표로 삼아야 하는 도덕적 및 사회적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적, 사회적 삶에 참여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청소년들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나침반은 개인교사들과 사회교육 교사들에게 관련되는 "참여"와 "문화와 스포츠"라는 주제를 다루는 여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가치 교육/도덕 교육

누구도 인권 가치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

가치 교육 또한 많은 나라의 학교 커리큘럼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만, 종종 사람들의 마음에 두 가지 근본적인 우려를 일으킨다. 그러한 교육은 어떤 가치를 목표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사람들에게 강요되거나 다수의 가치로서 인식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인권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정당하며, 유익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인권은 모든 주요 종교와 문화에서 있어 공통적이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는–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더라도– 가치들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그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마다 크게 다를지라도 인권을 이루는 가치들은 보편적이다. 또한 인권은 전 세계 모든 정부들 간의 협상과 합의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권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

세계교육

세계교육 실천가들은 주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하는데, 우리 세계의 사회, 경제, 환경, 정치적 측면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알아야 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에서는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과 인권교육의 성과 사이에 구분이 없어야 한다.

'마스트리히트 세계교육 선언'(The Maastricht Global Education Declaration, 2002)[9]에서 세계교육은 글로벌화 된 세계의 실상에 대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열고 세계가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고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각성시키는 교육"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세계교육은 개발교육, 인권교육, 지속가능성 교육, 평화와 분쟁예방 교육, 상호문화교육 등을 포함한다.

우리 세계의 사회, 경제, 환경, 정치적 측면에 대한 활동을 위해 인권을 시작점으로 가지는 것은 세계교육 실천가들의 가르침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학습자와 교육자가 혁신적인 교육방법론을 통해 세계 이슈에 대해 협력적으로 일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세계교육 활동은 오늘날 세계의 복잡한 현실과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람들이 점점 더 상호연결된 세계의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해주는 가치, 태도,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는 "세계 시민의 글로벌 책무"라는 정신을 함양하게 한다.

나침반에는 "세계화"라는 주제 아래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 많은 인권 이슈들이 매우 중요한 국제적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들어가도 될까요?"라는 활동에서 참가자들이 망명신청자가 되는 모의 경험을 하게 된다.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와 사람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구함으로써, 문화간 인종차별, 불관용, 모욕과 폭력을 종종 일으키곤 한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슬픈 예들은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는 인종차별, 차별 및 폭력의 발생이다.

분쟁의 이유는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과 정치 사회적 권리의 불평등이 불관용과 차별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권리에 기반한 관점은 상호문화교육 활동가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논리적 접근법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나침반과 다른 유럽평의회 자료들에서 풍부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평의회의 청년부서는 특히 유럽청년센터와 유럽청년재단을 통해서 문화간 교육의 영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반유대주의, 불관용에 반대하는 [모두 다르고–모두 동등하다] 캠페인은 1995년에 시작되었으며, 소수집단에 대한 인종차별적 적대감과 불관용이 커가는 것을 다루고 있다.[10] 캠페인을 위해 [모두 다르고–모두 동등하다] 교육 패키지가 만들어졌으며, 여기에는 나침반의 활동을 보완하는 "차별과 불관용"에 대한 유용한 활동들이 많이 있다.

all different all equal

반인종주의 교육

반인종주의 교육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된 인종주의 태도와 이데올로기의 유산을 되돌리고, 모든 시민들이 평등과 정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다문화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표명을 시작점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권리에 기반합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문화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반인종주의 교육 실천가에게 있어 좋은 출발점은 나침반에서 "차별과 불관용"을 다루는 내용의장과 관련 활동들이다. 또래 교육 방법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유럽평의회에서 만든 책인 도미노(DOmino)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유럽평의회는 인종주의에 대한 인권과 교육 및 행동으로서 '유럽 인종차별 위원회: 인종차별 및 불관용 철폐 유럽위원회(ECRI)' 아래 함께 모였다. ECRI의 업무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넓어진 유럽에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반유대주의, 불관용 등과 싸우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유럽인권협약과 추가 의정서 및 관련 판례에서 발견된다.

발전 교육

발전 교육에서 인권은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발전권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에 관한 몇 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진보의 증진, 더 나은 삶의 기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공 영역에 참여할 권리, 적절한 기준의 삶을 누릴 권리, 자기 결정권 등이 있다. 또한 선언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1986년 유엔은 "발전권에 대한 선언"에서 실질적 발전권을 선언하고, 유엔총회 결의 41/128을 채택했다. 1993년 비엔나 선언에서 재확인된 발전권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지는 집단권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권리와는 구별된다.

발전 교육 실천가들은 이미 그들의 활동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권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그들은 반드시 권리의 관점에서 활동하지는 않는다. 발전 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북쪽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과 남쪽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는 경제, 사회, 정치, 환경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발전 교육을 인권적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추가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 제안한다. 추가적인 장점은 나침반에서 제공하는 활동들이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하는 기술, 태도, 가치를 개발한다는 것으로, 이는 발전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노동", '빈곤", "건강", "세계화', "환경"이라는 나침반의 주제는 발전 교육과 가장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환경 교육

우리가 환경 이슈를 인권적 관점으로 다루려면, 세계인권선언 제25조가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제25조는 적절한 의식주를 포함한 적절한 기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다루고 있다. 인류의 삶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와 다음 세대에 걸쳐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고려는 환경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게 된다. 심지어 오늘날 어떤 이들은 별도의 환경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가 한정된 행성에서 살고 있고 인류의 행동이 환경의 상태와 인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에 명백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관한 질문은 인류와 자연계 부담간의 균형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기되어야 한다. 환경 교육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오고 세계의 자연 자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존중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종 환경 교육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은 환경과 발전 이슈에 대한 통합적 시야를 가질 필요도 강조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1992년 리우정상회담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음 세대의 희생 없이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지속가능성은 세상을 돌보고 다음 세대가 살기 적합한 곳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와 평등이라는 인권가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의 핵심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은 사람들이 현재와 앞으로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정에 따른 행동을 하기 위한 태도, 기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유네스코가 주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교육 10년 계획'(2005-2014)은 우리가 21세기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가치, 실천을 모든 교육과 학습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자신과 우리 지구를 위해 정보를 기초한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태도와 기술, 지식을 키워간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발전 교육, 세계교육과 인권교육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세계교육과 발전 교육에 관련하여 위에서 논의한 주제와는 별도로, 나침반은 지속가능한 이슈를 인권적 관점에서 탐구하면서 환경이란 별도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평화 교육

많은 학교와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화교육의 개념상 핵심은 폭력, 폭력의 통제, 축소, 제거에 대한 것이다. 평화 교육은 분쟁 해결 연구, 상호문화 교육, 발전 교육, 세계 질서 연구, 환경 교육 등의 커리큘럼에서 자리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접근 방법은 사회적 불평등, 갈등과 전쟁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일련의 특정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

반면 인간 존엄성과 보편성의 개념적 핵심으로 인권적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평화 교육은, 평화의 보다 깊은 개념으로 보다 수월하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평화는 폭력의 중단만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포함하는 데, 이는 장기적 평화 환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회, 경제, 정치적 시스템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평화 교육은 많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전쟁을 포함하여 신체적 또는 행동적 폭력,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비롯된 가난과 빈곤같은 구조적

인권 관점에서 시작하는 평화 교육은 더 깊은 평화에 대한 개념으로 보다 쉽게 이끈다.

폭력, 반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들을 노예화하고 위협하고 학대하는 억압적인 시스템의 정치적 폭력, 특정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평가절하하고 파괴하는 방식의 문화적 폭력,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민족중심주의, 식민 이데올로기, 그리고 침략, 지배, 불평등, 억압을 합리화하려는 다른 형태의 도덕적 배제와 같은 폭력 등이 있다.

이런 모든 유형의 폭력을 특정 인권 기준을 침해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비판적 사고와 경험적 학습이라는 인권교육 방법론은 단단한 경험의 요소뿐만 아니라 규범적이고 서술적인 차원 또한 가져올 수 있다. 나침반에서는 '평화와 폭력'과 '전쟁과 테러'라는 주제로 실천가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대상 인권교육 관련 FAQ

당신이 청년 관련 종사자이거나, 교사이거나 청년 관련 NGO 활동가라면, 이미 언급한 여러 형태의 '교육'과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권은 당신의 업무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약간 주저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걱정에 대해 답하고 그들의 업무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청년은 권리보다는 책임에 대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답변: 권리와 의무 둘 다 인권의 핵심이며 이 매뉴얼에서도 둘 다 강조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모든… 인류애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제30조는 "…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침반의 활동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고 모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 *보호자, 학교장,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인권교육을 반체제 행동을 부추기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대하지 않는가?*

답변: 인권교육은 아동, 청년, 성인들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참여 역량을 기르는 것과 당파적 정치는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과 참여를 통한 인권교육은 비판 정신과 탐구 정신을 기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청년들을 북돋는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은 시민교육 및 정치 교육과 연관되어 있으며, 청년들이 인권과 사회문제, 교육과 정책들을 연결지어 볼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은 지역 또는 국가 단위 정당에 참여하는 경우 – 혹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정치 참여와 사상, 결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청년 권리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은 청년 본인의 선택으로 남아야 한다.

또한, 다음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량에 덧붙여, 나침반에 예시된 인권교육은 협력, 모둠 활동, 적극적 경청, 말하기 등과 같은 사회 및 의사소통 역량의 개발을 지원한다.

? *인권에 대해 배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가?*

답변: 유엔 회원국들은 모든 형태의 인권교육을 장려할 의무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1)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2) 교육은 인간 개성의 온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는 아동권리협약(CRC) 제28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증진하고 인권을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작업에 있어서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해왔다. 개별 교육자들과 비정부기구들은 학교 및 그 밖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개인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해, 또한 정부를 상대로 인권교육과 관련한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로비도 하고 압력도 행사함으로써 인권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 *자기 나라에서 인권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인권교육이 어떠해야 하는가?*

답변: 어떤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빈번하고 공공연하게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권이 항상 존중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하지만 인권교육은 단지 인권 침해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인권교육은 무엇보다 인권을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하나의 보편적 자산으로 이해하는 것과 관련 있고,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 있다. 이에 더하여, 어느 국가도 인권 침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사실상 유럽평의회 회원국 모두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인권침해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면한 사회 환경이나 지역 사회를 살펴보는 것이다. 누가 배제되어 있는가? 누가 빈곤 상태로 살고 있는가? 어떤 아이들이 아동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나라에서의 인권침해에 여러분의 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이런 예로서, 비민주정권에 대한 무기 판매, 실질적 생산노동자를 착취하는 무역 협정, 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과 주장, 저렴한 가격의 복제약 생산을 막는 약물 관련 특허 등).

1.3 인권교육에 나침반 사용하기

인권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당신이 혁식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지 아니면 비형식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는지,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 청년의 나이, 인권 학습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열의에 따라 달라진다. 분만 아니라 인권 문제와 인권교육에 관련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구도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노자

당신은 청년 노동자이거나, 트레이너, 학교 교사나 성인 교육 지도교사, 교회 토론 모임의 회원, 청년 활동가일 수도 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서 활동하고 있든, 이 매뉴얼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교수법이나 교육 기술이나 사전 지식에 대해 아무런 전제 조건을 두지 않았다.

나침반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원중 하나로 보길 바란다. 인권 증진은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며, 이 책자의 사용자로서의 당신은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제공하는 아이디어들을 당신 자신의 필요와 당신이 함께하는 청년들의 필요에 맞게 이용하고 발전시키길 바란다. 또한 배운 바를 검토해보고, 경험에서의 피드백을 우리에게 보내주길 바란다. 피드백 서식은 www.coe.int/compass에 있다.

나침반에서 다루는 것

내용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 이 매뉴얼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길 강력히 권한다. 특별한 출발점은 없다. 당신에게 관련된 부분을 골라서 선택하도록 의도하였다.

1장: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매뉴얼 사용법.

2장: 여러 활동을 다루고 있다. 선별된 주제에 관련된 인권과 여러 권리를 돌아보는 다양한 수준의 60가지 활동이 제시된다. 이 활동들은 청년대상으로 제공된다.

3장: '실천하기'에서는 '실천'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지역사회와 보다 넓은 세상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위한 아이디어와 팁들을 포함한다.

4장: 인권의 발전 과정에 대한 배경정보와 국제 표준 문서들과 함께 인권의 발전 역사를 제공한다.

5장: 나침반에서 다루는 전체 주제별 배경 정보(www.coe.int/compass)의 요약을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연구 및 정보 평가에 대한 팁도 찾아볼 수 있다.

부록: 주요 선언, 협약과 인권 문서,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용어 등을 정리하였다.

청년과 인권교육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나침반은 훈련/교습 기법 등의 보유 여부를 떠나 인권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씌어졌다. 시작하기 위해 당신이 인권에서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만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인권 주제

이 책에서 모든 인권 주제를 다루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한 일은 청소년들의 삶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이슈를 20개 주제 하에 모았다. 각 주제에 대한 배경 정보는 www.coe.int/compass 5장에 제시되어 있으며, 68쪽 활동 요약으로 활동과 주제 간의 상호 참조표를 구성하였다.

20개 세계적 주제(가나다순):

1. 건강
2. 교육
3. 노동
4. 문화와 스포츠
5. 미디어
6. 민주주의
7. 빈곤
8. 세계화
9. 시민권과 참여
10. 아동
11. 이주
12. 인권 일반
13.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14. 전쟁과 테러
15. 젠더
16. 종교와 믿음
17. 차별과 불관용
18. 추모/기억
19. 평화와 폭력
20. 환경

촉진하기

나침반에서, 활동을 준비하고 보여주고 조정하는 이를 '촉진자'라고 표현한다. 촉진자는 '무엇인가 생겨나게 하고', '도움이 되는' 이로써, 다른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배우고 개발하도록 북돋는 사람이다. 촉진활동으로 사람들이 실험, 탐구, 주고받기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이는 다른 이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가'로서의 지도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이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성장하여야 하며, 참가자나 촉진자도 마찬가지이다.

청년대상 촉진자가 되어 평등과 협력의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유럽내 지역마다 다르다. 형식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 목표와 교육철학, 학습관리 기술 및 교육과정 등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울 것을 정하는 것은 흔치 않고, 교사들이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다. 비형식 교육 부문에서도 똑같이 다양성이 큰데, 여러 조직의 목표와 철학뿐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활동과 기회, 그리고 권위적인 리더십에서 민주적 리더십까지 유형이 다양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국가간 그리고 국가내에서도 나타난다.

우리 모두는 자기 내면의 민족중심주의를 쉽게 간과하거나 잊게 만드는 교육과 사회적 규범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상으로 생각한다. 당신의 촉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타일과 관행 그리고 함께 하는 청년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11]

학습자에게 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준비한다.

지도자 위치에서 통제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인권교육 촉진자로서 당신은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책임을 넘기고 학생들이 당면한 상황이나 문제를 분석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는 모든 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촉진자들은 청년들이 자신의 성숙도와 참여 능력에 적절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활동의 관점에서 보면 조정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촉진자, 교육자 또는 교사들이 더 깊은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권교육 수업이나 과정이 필수과정이고 성과가 관계되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태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 다른 면으로 평가에 관련된 것으로, 많은 정규 교육과정 시스템의 특성인 평가에 대해 학교가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는 다음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교육: 민주시민과 인권교육에 대한 배경 자료원(*Educating for democracy: Background materials on democratic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12].

학교나 교실 환경에서의 촉진의 '기술적' 측면은 비형식 학습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나침반 활동에 대한 지침은 형식 학습과 비형식 학습 둘 다에서 온전히 적용된다.

인권교육을 위한 기초로서의 문제 해결

인권 이슈는 종종 논쟁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권리와 책임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 즉 다른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교육 활동의 기초를 이룬다.

인권교육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 중 첫 번째는 청년들이 이슈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나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 매뉴얼과 활동들은 의견 차이가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많은 비형식 교육 활동에서처럼, 이 매뉴얼의 목적은 모두의 합의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표현하고 의견의 차이를 존중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촉진 활동과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각 활동에는 당신의 활동을 돕기 위해 "촉진자를 위한 팁"과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를 위한 일반적 팁

나침반을 당신의 필요와 함께 하는 청소년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다. 나침반을 인권에 대한 자료 출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1948년에 처음 세계인권선언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이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것과 주요인권 협약 등이 있다. 또한 나침반을 빈곤, 젠더 문제 또는 다른 주제에 관련된 인권에 대한 정보집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인권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활동들이다.

활동 선택 방법

당신이 뭔가를 하기 전에,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마음에서 매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당신의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당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되면서 당신과 청소년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활동을 선택한다. 당신과 당신 모둠에 적절한 수준이면서 사용 가능한 시간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활동을 최소한 두 번 차분히 읽고, 모둠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를 상상해 보라. 원하는 학습 목표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바꾸고 싶을 수 있으며, 특히 '디브리핑과 평가'의 질문 일부를 조정하고자 할 수 있다. 필요한 교육재료 모두를 확인한다. 참가자들이 소모둠별 활동으로 나누어진다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각 활동은 표준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아이콘과 제목은 전체 개요를 쉽게 파악하도록 해준다.

활동 설명에 사용된 상징과 제목들

주제

주제는 나침반에서 제시된 기본적 인권, 빈곤, 건강과 같은 주제에서 선택하였다.

인권 일반

인권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불가분적이며 다양한 주제들과 겹쳐진다. 그래서 하나의 활동은 몇 가지 주제와 관련되게 된다. 우리는 활동과 가장 관련성이 명확한 세 가지 주제를 표시하였다.

난이도

난이도에서는 얼마나 진행 방법이 복잡한지, 그리고 참가자들이 활동을 즐기기 위해 비판적 사고, 분석과 소통 역량이 얼마나 요구되는 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1단계

대부분의 활동은 단순한 방법을 통한 기본적 역량을 요구하며,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뛰어난 의사소통과 사고 역량을 요구하는 활동들은 종종 몇 가지 연속되는 요소로 분할되어, 더 많은 준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1단계 활동들은 짧고 간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가치를 가진다. 활력소(에너자이저), 아이스브레이커, 검토 활동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2단계 활동은 인권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잘 개발된 개인 또는 단체활동 역량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단계의 활동 대부분은 사람들이 소통과 모둠 활동 능력을 개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동시에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되었다.

3단계 활동은 좀 더 복잡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심화된 이해력과 통찰력을 개발하도록 설계되었다. 더 높은 수준의 토론 능력 또는 과 모둠활동 역량을 요구한다.

4단계 활동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좋은 모둠활동과 토론 역량을 요구하며, 참가자들의 집중과 협력을 요구한다. 또한 보다 긴 준비가 필요하다. 주제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포용적이다.

모둠 크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나타낸다. 일부 활동에서 소모둠 활동이 포함되면, 소모둠 크기를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시간

전체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분 단위로 표시한다. 여기에는 디브리핑 및 토론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시된 참가자 수에 맞추어져 있다. 소요 시간에는 후속 활동 단계와 관련된 논의나 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스스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소모임 숫자가 많다면, 전체 발표 시간을 더 늘려 잡아야 한다. 참가자 수가 많다면 모든 이가 디브리핑과 평가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시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개요

관련된 주제와 활동에서 사용되는 기본 방법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활동인지, 미디어의 편견에 관한 것인지, 소모둠에서의 토론이나 역할극을 포함하는지 등이다.

관련 권리

경험과 사건을 특정 인권과 연계시키는 능력은 인권교육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인권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고 개별로 분리되지 않기에, 이슈는 중첩되고 각 활동들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의 요약을 참고하여, 각 활동에서 예시되는 세 가지 권리를 지적하였으며 디브리핑과 평가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목표

목표는 앞에서 서술한 지식, 역량, 태도 및 가치 측면이라는 인권교육의 역량기반 학습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준비물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의 목록이다.

준비과정

활동을 진행하기 촉진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다.

필요한 경우, 촉진자들이 이슈를 숙지하고 www.coe.int/compass 5장에서 찾아보도록 한다. 그래서 각 활동에서 이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운영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지침 목록이다.

디브리핑과 평가

촉진자가 디브리핑과 평가 진행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적어도 당신의 학습 목표 지점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의 질문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안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촉진자용 팁

알아두어야 할 방법과 상황에 대한 지침과 설명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루고 있다면, 현재 구성원 중에 해당 소수자가 있는가?

응용

활동을 다른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와 이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제안일 뿐이다. 촉진자로서 당신은 구성원들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이 원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활동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후속활동에 대한 제안

활동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습이 강화되고 잊히지 않도록 후속 활동이 필요하다. 게다가 인권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실천하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네 도서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전체 모둠에 보고하는 것이다. 또한 다음에 시도해보고 싶어 할 다음 단계의 활동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있다.

실천 아이디어

실천은 인권교육에서 중요한 목표이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행동을 취하기 위한 역량을 제공하길 원한다. 우리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별도로 3장 실천하기를 구성하였으며, 실천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다.

기념일

유엔과 다른 많은 기구에서 인권의 다양한 면에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념일이나 추모일을 두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주요 일자"를 90여 개 모았으며, 이를 당신 자신의 활동에서 하나의 표지로 사용하기를 권한다. 예를 들면, 덴마크 젊은 망명 신청자 모둠이 덴마크 적십자 청년 지부와 팀을 이루어, 지부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에 대중 행사를 열었다.

추가 정보

여기에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추가 배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사례에서 www.coe.int/ compass 5장을 참고하도록 권하는데, 여기에서 활동에서 다룬 특정 주제에 관한 배경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유인물

복사해야 할 역할 카드, 사실 서술서, 토론 카드 등이다. 모둠의 필요에 맞추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활동 운영에서의 일반적 팁

활동이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나침반 활동으로 작업할 때의 도전 과제이자 보상이기도 하다. 당신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빠르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다.

공동 촉진자

가능하다면,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촉진하도록 한다. 교사들은 이를 "팀 교육"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소모둠 활동을 돕거나 개인별 요구사항을 다룰 때 그 책임을 둘이 분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장점이 있다. 두 사람이 한 세션을 진행하면,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지하면서 속도와 리듬을 바꾸기가 더 쉽다. 두 명의 촉진자는 상황이 계획대로 가지 않을 때 서로 도울 수 있으며, 혼자보다 함께 검토 작업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공동 촉진은 촉진자들이 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각자의 역할을 서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팀으로 활동을 개발할 때 효과적이며,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충분한 준비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읽어본다. 가급적이면 두 번 읽어라! 머릿속으로 진행해 본다; 어떻게 진행될지 그려보도록 노력한다. 모둠이 어떻게 반응하고 뭐라고 말할지를 상상해보라, 불가피하게도 당신이 답을 모르는 질문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음처럼 보아야 한다; 당신 또한 청소년들과 함께 배우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 정보를 읽음으로써 잘 알고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오거나 연필이 부러지거나 마커가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것보다 더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시간 관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 하지 마라. 당초 예상보다 활동 시간이 길어지면,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활동시간을 단축시킨다 (17쪽 경험학습사이클 설명 참조). 즉시나 5분내에 중단 혹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참가자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종종 좋은 방안이 된다.

한편, 시간이 충분하면 토론을 질질 끌지 말고 휴식 시간을 갖거나 재미로 짧은 활력소 활동을 한 가지 실시한다.

안전한 환경 조성하기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탐구하고 발견하며, 상호작용하고 서로 공유해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친절하며, 격려하고, 유머를 잃지 마라. 전문용어나 참가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을 쓰지 마라.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알면 안정감을 느끼므로, 활동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는 중요하다. 준비도 없이 갑자기 시작할 수는 없으며, 활동을 설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는 아이스브레이킹이다.

기본 규칙 정하기

모둠원 모두가 참여적이고 경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그 활동에 대해 자기 몫의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사람이 경청하고, 의견을 밝히며,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누구도 편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학급 또는 모둠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할 때를 포함하여 수시로 이러한 규칙을 검토할 수 있다.

명확하게 지시하기

항상 모든 이가 지시를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용어로 이 활동이 무엇에 대한 것이고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시작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이 활동은 역할극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주어진 일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알리고 마칠 시간 5분 전에 다시 알려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토론 촉진하기

토론은 인권교육 과정의 중심을 이룬다. 구성원 중 누구나 원하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모둠에서 무난한 단어와 표현, 언어를 사용하고, 구성원들에게 생소한 단어는 설명한다. 481쪽 부록에 용어가 정리되어 있다. 참가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게 한다. 참가자들이 해당 문제를 자신들의 삶과 직접 관련 있는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의 균형을 유지한다.

때로 토론이 "막힌다"면 당신이 그 원인을 밝혀주도록 한다. 예를 들면, 할 이야기가 다 소진되었거나 너무 감정적으로 흘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질문을 제시할 것인지, 방향을 변경할지, 논의를 바꿀지를 결정해야 한다. 참가자들의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한다. 모둠 자체에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물론 당신 의견이나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모둠 스스로 내려야 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나침반 활동 어떤 것도 디브리핑과 평가 없이 완성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참가자들에게 학습의 핵심을 제공하고 배운 것을 더 넓은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가자들이 활동을 마무리할 시간과, 필요한 경우 맡은 역할에서 빠져나올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다음,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무엇을 배웠는지 토론하게 한다. 각 활동의 마지막 순서는 참가자들이 무엇을 배웠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 더 넓은 세상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다.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디브리핑과 평가를 진행하도록 제안한다:

- 활동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생겼고 무엇을 느꼈는가?
- 스스로에 대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
- 활동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 인권에 대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
- 배운 점에 대해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용할 수 있을까?

검토

반성이 없다면, 사람이 경험으로 부터 배우는 것은 많지 않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과 배운 것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검토가 중요하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당신의 실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 그림을 얻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검토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나 두세 개의 일련의 수업이나 회의 끝에 진행할 수도 있다.

검토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긴장을 풀 시간을 갖고 다음 사항들을 되돌아본다:

- 촉진자의 관점에서 준비, 시기 선택 등 그 활동의 진행은 어떠했는가?
- 참가자들이 무엇을 배웠는가, 학습 목표는 충족시켰는가?
- 결과는 무엇인가? 이 활동을 한 결과로서 모둠은 이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 해당 문제들과 촉진 활동에 대해 여러분 자신은 무엇을 배웠는가?

또한 모둠에서의 주기적 검토 시간은 중요하고 재미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옆으로 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디브리핑 및 평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2장의 '마무리 활동'(352쪽)에서 다루고 있는 신체 언어, 그림 그리기, 조각하기 등을 포함한 몇 가지 기법을 찾아볼 수 있다.

속도 조절

진행하는 동력 유지가 너무 어렵지 않도록 활동 대부분은 9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활동과 디브리핑 및 평가 사이, 평가와 후속 단계 사이에 짧게 휴식을 가지는 것이 사람들의 참여를 돕는다. 활기가 처지면 에너자이저 활동을 사용할 수 있다. 활동을 마친 후, 긴장을 풀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한다.

피드백하기

피드백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견해이다. 피드백 주고받기는 하나의 기술이며, 모둠원들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법을 배우도록 촉진자가 도와주어야 한다. 발언자의 의도가 그렇지 않음에도 피드백을 파괴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피드백에 관한 핵심 어는'존중', '구체적' 그리고 '논거'이다

피드백을 줄 때는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이 한 말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그런 피드백을 주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당신이 방금 한 말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피드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파급되고 고통을 줄 수 있다. 격려하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촉진자의 역할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한다:

- 반드시 긍정적인 말로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한다.
- 타인을 존중하고 어떠한 비하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사람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피드백을 한다.
- 발언하는 피드백에 대한 이유를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 " 저는 ~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시작하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피드백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의견 충돌이 담긴 피드백인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촉진자의 역할은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이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며 비하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입장을 즉각 옹호하려 들지 말고 피드백을 주의 깊게 듣게 한다.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참가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과, 피드백을 수용 또는 거부하기에 앞서 피드백을 평가할 시간을 갖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참가자들로부터의 저항

참여적인 활동으로 이끄는 것은 이만저만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토론이나 그림 그리기, 역할극, 음악 등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하지만, 모든 활동이 모든 참가자에게 항상 적합할 수는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어떤 참가자가 특정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촉진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그 참가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반발'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촉진자는 언제라도 한 번쯤은 참가자들의 반발을 경험한다. 반발은 몇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불안정한 청소년은 자신의 의자를 긁어대거나, 중얼중얼 거리거나, 옆 사람과 떠드는 식으로 방해를 한다. 활동을 방해하는 좀 더 미묘한 방법은 상관없는 질문을 하거나 매사를 농담거리로 삼는 것이다. 반발하는 다른 방법은 "게임"하듯이 "촉진자를 폄훼"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도 청춘인 줄 착각하시나 본데요"라든가 "토론을 하는 것만 빼고 다 괜찮아요. 그냥 활동을 시작하는 건 안 될까요?"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게임"의 세 번째 유형은 학습을 회피하려 드는 것이다. 가령 그런 참가자는 "예 그렇지만…"이라고 말한다.

분명 반발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예를 들면, 모둠원 한 명 한 명을 파악하고, 특정 활동이, 또는 역할극이나 모의실험의 특정 역할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민감한 정서를 파악한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본인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이야기하거나 폭로하도록 그 누구도 결코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참가자에게 알리고 안심시킨다. 어떤 활동이든 사전에 준비할 시간과 활동 후에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을 참가자들에게 허용한다. 디브리핑과 토론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그래야 모두가 자신들의 의견과 참여가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촉진자가 직접 결정해야겠지만, 통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점을 공개하여 모둠 전체가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한다. 모둠원 한 명과 긴 토론이나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다른 참가자들의 분노와 짜증을 불러일으켜 그들의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다.

갈등 관리하기

갈등은 인권교육에서 피할 수 없으며 필수적인 영역이다.

갈등은 적절히 관리된다면 도움이 되고 창의적으로 될 수 있다; 사실 갈등은 인권교육에서 피할 수 없고 필수적인 요소다!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그들의 믿음, 가정, 편견으로 인해 인권 일부로서의 갈등은 사람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협동, 공감, 정의감과 같은 역량과 태도를 개발할 기회를 준다.

갈등은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참가자들이 감정과 가치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한다면 풀기 어려울 수 있다. 모둠 활동에 관련된 역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주제에 대한 다른 접근방식이나 다른 가치관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하다. 차분하고 냉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둠 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에 섞이지 않도록 노력한다.

나침반의 활동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을 필요에 맞추어 신중하게 선택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활동을 통해 문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의견 충돌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고, 인권의 보편성이 모든 사람이 문제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준다.

몇 가지 팁:

- 디브리핑과 토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 필요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한다.
- 참가자들의 입장, 의견과 관심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모둠 내 긴장을 줄인다. 예를 들면,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거나 소모둠으로 3분간 이야기하도록 하거나 현재 상황에 거리를 두고 바라보도록 요청한다.
- 모두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도록 권장한다.
- 참가자들을 분열시키는 것보다 통합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 의견일치를 찾는다. 사람들이 타협하고 원래 입장에서 후퇴하기 보다는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도록 한다.
- 갈등을 "재연"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 갈등 당사자 간에 다음 기회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제안한다.

더 심각하고, 더 뿌리 깊은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책 모색을 미루고 그 문제를 해결할 좀 더 적절한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한편, 촉진자는 그 갈등을 또 다른 각도에서 다루는 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더구나 갈등을 풀려는 시도를 연기함으로써, 그들이 상황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접근방법이나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줄 수 있다.

모둠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더 넓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난해함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기를 수 있다.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다. 국제적 분쟁에 대해 토론하다 보면 우리 가까이서 만나는 갈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나침반 활동 맞추기

나침반의 활동들은 다양한 정규 및 비정형 교육 환경에서 실시되고 시험되었다. 사용자들의 피드백은 아브라함 링컨의 "여러분은 몇몇 사람들을 항상 기쁘게 하거나 모든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처럼 표현되는 데 이러한 관점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나침반은 당신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안내서로 구성되었다; 나침반은 요리책이나 석판에 적힌 계율이 아니다.

나침반의 작가들은 두 가지 주요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첫 번째 과제는 광범위한 청중들과 관련될 만큼 충분히 일반적인 활동이면서, 동시에 특정 모둠이 관련된 주제의 핵심에 연결될 만큼 상세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과제는 대조의 문제이다; 어떤 모둠에게는 문제를 충분히 깊게 다루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모둠에는 관련되지 않거나 너무 민감해서 제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활동들은 당신이 함께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춰 변형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나침반에서 사용되는 "기본 방법"은 57쪽 '나침반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활동 조정에 도움이 된다.

활동 적용하기

활동들은 우리가 함께 작업하는 도구이다. 당신이 선택한 활동이 다루기 원하는 이슈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방법이 모둠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함께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을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수정 및 응용하는 것은 촉진자의 책임이다.

실용성

방법의 적합성을 고려할 때, 실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난이도: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활동을 단순하게 만들 방법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주제를 좁히고, 설명 카드를 다시 쓰거나 디브리핑 및 토론을 위한 질문을 재구성한다. 사람들이 지루하거나 낮은 수준의 활동으로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 활동을 주제를 소개하는 짧고 재미있는 도입으로 다루도록 한다.

모둠 크기: 참가자 규모가 크면, 촉진자와 교육 시간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추가 시간을 배정하려면, 활동 자체나 디브리핑 및 평가 등을 오래 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디브리핑 및 평가를 위해 모둠을 둘로 나누어 진행하고 다시 전체로 돌아와 간략히 보고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역할극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역할을 하거나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다.

참가자 규모가 작고 활동에서 소모둠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모둠별 구성원수를 줄이기보다는 소모둠 수를 줄인다. 이 방식으로 각 모둠 내에서 의견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소요 시간: 두 세션으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또는 시간이 더 주어진 경우에는 그에 맞춰 활동의 운영을 준비한다. 예를 들면 학교 시간표에 두 시간을 이어 수업을 배치할 수도 있다. 청소년 동아리와 함께 한다면, 주말 1박 2일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개요: 여기에는 활동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적 기술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활용에 관한 일반적 팁도 포함되어 있다.

준비물: 발표용 용지로 전지를 준비한다. 방이 작거나 가구들이 많아 움직일 공간이 부족하거나, 소모둠으로 나누어 진행하려 한다면, 충분한 공간을 찾는다.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도 되지 않을까?

준비과정: 창의적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복사할 게 있는데 복사기가 없고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 출력한다.

진행: 어떤 활동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중에서 첫 부분만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응용: 응용 활동이 원래 활동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제시된 질문들이 당신의 필요에 맞지 않으면 다른 질문을 준비한다. 영감을 얻기 위해 배경 지식을 사용한다. 그러면서 항상 인권 주제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추천된 제안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적거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른 활동을 찾는다. 뒤쪽에 있는 활동 요약을 활용해서 후속활동을 찾도록 한다.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추천된 제안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적거나,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3장 "실천하기"를 참고한다.

활동 개발하기

활동을 개발하는 것은 활동을 조정하는 것에 비해 더 진취적이다. 즉 어떤 활동에서 제시되는 상황 카드나 역할 카드의 내용을 좋아할 수 있지만, 보다 적절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74쪽 "1분 토크" 활동에 제시된 일부 상황 카드를 사용하면서 127쪽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활동에서 제시된 진행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망명과 난민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들어가도 될까요?"라는 활동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길 원하지만, 한두 가지 이유로 활동에서 제시된 역할극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전히 모둠을 활동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소모둠으로 나눌 수 있으나, "어항"기법을 사용하여 두 명의 난민과 두 명의 난민 담당이 동시에 논쟁하도록 할 수 있다. 특별히 교사들이 많은 수의 학생들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다른 선택으로 패널 토론을 구성하거나 모든 이가 역할 카드를 읽고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전체 토론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이 학급은 모든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환영받아야만 한다고 믿는다."라는 논쟁을 진행한다.

일반적 조언

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도록 격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그들에게 흥미있는 이슈를 선택한다. 항상 청소년들이 자신이 배우기 원하는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참여시키도록 노력한다. 어떻게 청소년들을 실제로 참여시킬 것인가는 정규 교육과정인지 비정형과정인지, 청소년의 연령대, 제공되는 시간과 자원 등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할 활동 유형을 정할 때 가능하면 참가자들을 참여시킨다.

참여자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신념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러나거나 당혹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도발적인 이슈는 미리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한다. 만약 어떤 문제가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권력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직설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거나 다른 프레임으로 다루는 것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사례를 사용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뒤돌아보게 할 수 있다. 종교, 성소수자 권리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질문들이 222쪽 '신자들' 활동이나 85쪽 '곧 구식이 된다' 활동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어떤 이슈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분열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논란의 여지가 많거나 도발적인 이슈에 관련된 권리를 다루는 경우,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이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러내도록 강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상황 연습이나 사례 연구와 같은 방법은 사람과 주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또 다른 접근법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관점을 찾아보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소수자 관점을 가진 누군가를 모둠에서 강연해달라고 초대할 수 있다. 모둠 내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면, 예를 들어 소수의 모둠이 어떤 주제가 중요하지 않거나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의 정당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이 이 주제를 탐구하는 데 마음을 열도록 당신은 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다. 영화를 보여주거나, (난민센터, 노숙자센터, 소수 민족 가게나 카페 등)을 방문하거나, 발표자를 초대하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다.

청소년들이 실천하기를 고려할 때, 당신은 그들이 하려고하는 것의 결과에 대해 조언할 준비가 필요하다. 그들이 하려고하는 행동으로 가능하거나 있음직한 개인, 사회, 정치적 결과에 대해 온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북돋는 것이 인권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상하는 모든 어려움을 설명해야 하고, 당신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후 조언한다. 어떤 형태의 활동이 부적절하여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 대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3장 '실천하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를 참고한다).

교사를 위한 특별 안내

교사들의 피드백을 통해 나침반이 유럽 전역의 학교에서 언어 수업, 역사 및 시민권, 정치학 수업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언어 수업에서 "모든 평등하고 모두 다르다(165쪽)" 활동에서 인용되는 문구를 어휘력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1분 토크(74쪽)" 활동은 말하기 기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아동 노동, 교육에서의 젠더 격차(www.coe.int.compass 5장의 배경 정보의 다양한 섹션에서 다루어진)에 대한 통계는 수학 수업에서 교과서의 다른 예를 대체하여 사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권 주제에 대한 흥미와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생명의 그물망"은 생물 수업에서 먹이사슬이나 생물 다양성에 관한 수업에서 소개 활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두 도시 이야기"는 사회 수업; "신자들"은 종교 수업; "애시크 이야기"와 "조심하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지리학 수업에서 무역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더해 주고, "인권 수호자들"의 예는 세계정세에 관련된 수업에 흥미를 더해준다. 이러한 가능성은 무한하다.

교실 환경에서 인권교육의 목표달성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실 환경에서 인권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도전 과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수업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단지 아주 짧은 활동만이 가능하거나,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운 바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위치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그들이 배운 바를 적용하기 위한 선택사항이 너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극복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하나의 활동을 2교시 이상으로 연장하여 진행함으로써 시간표의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정상적인 수업표가 잠시 멈추는 "주제 주간" 동안의 기회를 사용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이 교실 관행의 변화를 요구하는 데, 이는 "칠판 수업"(학생들이 외워야 할 정보를 전달만 하는 교사)으로부터 벗어나서 비판적 사고와 보다 독립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요구한다.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지도, 조언이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변화가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만 교사나 학생 둘 다 질의와 표현의 자유가 활발한 민주적 분위기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나침반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기술에 대한 이해는 교사들이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는데 대규모 수업에서 토론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팁도 포함된다. 촉진자 기술을 개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러한 방법에 경험이 있는 이들과 함께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인권조직에서 트레이너를 초대하여 한 과정을 맡기거나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과목의 교사들이 신입 훈련과정과 직무훈련과정에서 관련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어떻게 시민권과 인권교육을 도울 것인가? 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How all teachers can support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a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s)'**라는 책은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13]

덴마크 고등학교의 언어 수업에서 **나침반**과 **'모두 다르고-모두 평등하다' 교육 패키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연구 프로젝트로 실험적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현실적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 자체가 매우 즐거웠다는 점과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켰는지보여준다. 그러나 디브리핑과 평가 단계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드러났다. 학생들이 평상시

인권교육은 강요되거나 지시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교실에서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하고 반 친구들보다 교사에게 의견을 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일반 수업에서 많은 대화,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 또는 또래 간의 학습이 없었다는 점을 의미했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의 의견이나 수정을, 교사가 말할 순서를 지명해주기를 기대했다. 그 결과는 학생들이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에게 의견을 주고받기보다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더욱이 지배적인 학생이 지배하고 재미있는 학생이 장난치는 평상시의 교실 역학구도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결론은 교실에서 이러한 활동을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을 주제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일이지만, 인권교육의 전체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협력과 책임질 역량을 발전시켜 실천하게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인권교육의 결과로서 특정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극적 경청,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와 호기심 등이다. 마찬가지로 언뜻 보기에 실천하기에 대해 학교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많은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고, 교실에서 보면, 일반적인 행동의 개선, 또래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인권 영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는 학생들, 역사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제3장에 있다.

교사들이 많은 활동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인권교육은 또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한다. 예를 들어,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권리의 발전 역사, 법적 문서, 시민사회의 발전과 세계평화를 위한 인권의 관련성, 이 모든 것이 정규 교육 체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인권과 세계적 주제에 대한 배경 정보(4장, 5장과 부록)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교육과 학습 자료를 구성한다.

만 7세에서 13세 사이의 아동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은 이들 학교 수업에 더 잘 맞추어진 **콤파시토(Compasito, 아동용 인권교육 매뉴얼)**을 참고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쓸모없는 인권교육”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인권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지만, 장소나 방식에 있어 인권교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교육을 전달하는 방법은 많지만, 이 장 첫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모든 교육이 인권교육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를 존중하고 학습자도 인권을 존중하고 가치를 둘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만 한다. 인권교육은 강요되거나 지시될 수 없다. 더욱이 인권교육은 교실에서 분리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교실에서 시작하여 학교 전체와 더 넓은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나침반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방법

나침반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방법이나 기법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 활동 진행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활동”이라고 부르는데, 참가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활발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활동 그 이상이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명확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때로는 활동은 ‘게임’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활동이 재미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게임’이라는 단어를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과 연관지어 게임에 깔려있는 진지한 교육적 가치를 잊곤 한다.

기본적 방법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이 개별 활동을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나 여러분 자신의 활동을 개발할 때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운영 방법의 설명을 작성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모둠 활동’, ‘브레인스토밍’, ‘역할극’과 같은 용어를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아래에 이를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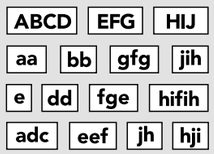
모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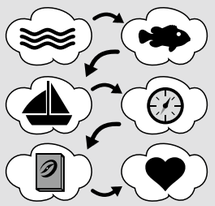
모둠 활동은 여럿이 함께 연습하기 위한 기본으로; 함께 작업을 하게 될 때, 각자의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결합하고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서로의 장점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는:

- 책임감을 북돋는다. 구성원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을 느낄 때, 그 과정에 헌신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신경을 쓴다.
- 소통 기술을 길러준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말하는 바를 경청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생각에 반응하고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 협동심을 길러준다. 구성원들은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협동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금방 배운다.
-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기술을 필요로 한다. 구성원들은 결정을 내리는 최선의 방법이 가용 정보를 모두 살펴보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점을 금방 배운다.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모둠 활동을 방해할지도 모르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성공적인 모둠 활동은 과제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답변이 필요하거나 해결방법이 요구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단순히 “문제를 논의한다”고 말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주제가 무엇이던, 작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참가자들이 전체에 대한 피드백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활동 목표에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의 결과만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요점은 명확하게 정의된 틀에서 함께 작업함으로써 참가자들이 과정을 통해 보다 더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나침반에 있는 대부분의 활동은 활동의 ’진행’단계에서 소모둠 활동을 사용하고, (디브리핑 및 평가에 구성되어 있는) 학습의 ‘반영’ 이나 ‘일반화’ 단계에서 전체 모둠 활동을 사용하고 있다. 소모둠 활동은 모든 이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협동적인 팀워크를 개발하도록 돕는다. 소





모둠의 크기는 전체 참가자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공간이 주어지는 지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에 달려있다. 소모둠은 2~3명일 수도 있지만, 6~8명일 때 가장 잘 돌아간다. 소모둠 활동은 주어진 업무에 따라 15분이나 1시간, 하루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하나의 새 주제를 소개하면서, 창의성을 자극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진행방법:

1. 브레인스토밍할 문제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를 단순한 질문이나 표현으로 만든다.
2.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큰 종이나 보드에 이 질문을 적는다.
3. 자기 생각들을 말하도록 요청한다. 질문이나 표현 아래에 이것을 적는다. 한 단어나 단문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아이디어가 다 나온 듯하면, 브레인스토밍을 마치고, 제안들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요청한다.
5. 요약하고, 새로운 지식을 나누고, 활동이나 토론으로 이어간다.

브레인스토밍 규칙:

1. 새로운 제안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적는다. 가장 창의적이거나 “정상이 아닌” 제안이 가장 유용하고 흥미로운 경우가 종종 있다!
2. 제안 적기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어떤 이가 이미 이전에 나온 아이디를 제안하면, 이에 대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부드럽게 이미 써놓은 것을 가리킨다.
4. 모든 이가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5. 모둠 전체를 독려할 필요가 절실한 경우만 촉진자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6. 제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설명을 요청한다.

벽에 글쓰기

이 활동은 브레인스토밍의 일종이다. 촉진자는 브레인스토밍 할 표현이나 질문을 가급적이면 넓고 빈 벽에 쓴다. 그렇지 않으면 촉진자가 제안들을 쓰는 대신에 참가자들이 작은 종이쪽지(예를 들면 “포스트 잇”)에 각자의 아이디어를 적어 벽에 붙인다. 이 방법의 장점은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용히 혼자 앉아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과 토론 중에 종이쪽지들을 재배열할 수 있어서 비슷한 아이디어들끼리 묶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연상 게임

이 활동은 브레브레인스토밍의 또 다른 형태로서, 아이스브레이킹이나 토론 또는 활동의 소개로 사용될 수 있다. 참가자들이 둥글게 앉고 촉진자가 핵심단어(소개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

을 표현하는 단어)를 말하면서 시작한다. 돌아가면서 차례로 먼저 핵심단어를 반복하고 이 단어에서 연관해서 떠오른 첫 번째 단어를 이어서 말하도록 한다. 응용으로는 전 사람이 말한 단어에 대응해서 자기가 연상한 단어를 이어서 말하는 것이다.

토론 활동

토론은 인권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토론을 통해 정보 분석,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역량 개발, 의견 공유, 경험을 통한 학습 등을 배우기 때문이며, 그래서 “디브리핑과 평가”가 각 활동의 핵심 부분이다.

토론을 운영하는 데에는 다양하고 많은 방법들이 있으며, 특히 어느 정도의 협력과 참여가 요구되는 방법들은 그들 자신의 권리에 대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소모둠 토론은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74쪽 “1분 토크”와 211쪽 “성에 대해 이야기하자”와 같은 활동이 예가 될 수 있다. “토론 활동” 후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이 배운 바를 디브리핑과 평가에서 계속 이어간다.

큰 규모의 모둠에서의 토론

웅성거리는 토론 모둠

전체 모둠 토론에서 더 이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 참가자들에게 2명이나 작은 모둠으로 몇 분 동안 주제에 대해 토론하게 한 다음, 그들의 생각을 전체에 공유하게 한다. 대화로 “웅성거리는”, 제안하며 “웅성거리는” 분위기를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장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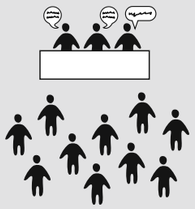
이 기법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데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부드러운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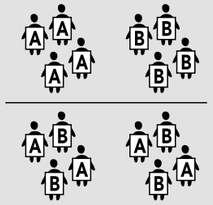
모둠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에 대한 몇 개의 문장(4-6개면 충분)을 준비한다. 두 개의 푯말(“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을 만들어, 6-8미터 거리를 두고 세운다. 그리고 원하면 두 푯말 사이에 끈이나 테이프를 이어서 걸어놓을 수 있는데, 이는 두 극단적인 의견 사이의 연속성을 표현하게 된다.

당신이 준비한 문장 중 하나를 읽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에 따라 해당 위치에 자리해 달라고 요청한다; 결정을 못한 이들은 중간에 서도록 한다. 그들이 원하면, 왜 그 위치에 서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그들이 들은 논거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게 되었다면 위치를 바꾸도록 격려한다.

응용 중 하나는 “관점”이라고 불리는데, 방의 네 벽에 4가지 푯말을 붙인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발언을 원한다”. 앞서와 같이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따라 위치를 정하고 언제라도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어항





이 방법은 참가자들이 촉진자나 교사보다는 자기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몇 명(이상적으로는 4~6명)을 교실 중앙으로 조그마한 원을 그리고 앉아달라고 요청한다. 다른 이들은 바깥쪽에 빙 둘러 앉아서 "어항 속 물고기"에 귀 기울인다. 청취자 중 누군가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면, "물고기" 중 한 명과 자리를 바꾸어 안으로 들어간다. 해당 "물고기"는 나와서 청취자 모둠에 들어간다.

이 방법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주요 장점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말하려고 앞으로 나섬으로써 토론을 조율한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이 너무 길게 이야기하거나 반복적인 발언을 하는 이를 다른 사람이 바꾸어내서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토론

전통적인 원내토론(house debates)은 특히 다른 토론 방법을 사용할 기회가 적은 교실에서 유용하다. 예를 들어 "이 학급은 인권이 서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편적이지 않다고 믿는다"는 내용으로 전체 학급이 토론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사가 아닌 학생 중 한 명이 의장이 된다.

다른 형태의 토론은 패널 토론인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은 청중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초대된다. 이러한 방법은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을 격려하고, 사람들이 다른 관점을 탐구하고, 인권이 복잡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152쪽 "마카족 고래잡이" 활동에서의 역할 카드를 논쟁 중인 4단체 당 2명의 대표인 8명의 자원자에게 준다. 이 8명은 패널로 앉아, 자신의 입장을 위해 카드를 이용하고 나머지 학급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관점을 주장한다. 마지막에는 고래잡이를 허용할지 금지할 지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다.

소규모 모둠에서의 토론

토론 활동이 종종 소모둠에서 가장 잘 진행되는 이유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기회가 잘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다 작은 모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다 편안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토론 활동은 몇 가지 관심 자료로 하는데 보통 카드에 제시된다. 관심 자료의 예로서 TV뉴스, 포스터, 문장 카드, 사례 발표, 사진 등이 있다. 관심 자료를 준비할 때, 목표 모둠에 대해 고려하고 너무 개별적이거나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린 연령대가 모둠의 경우에는 독해 능력의 수준을, 다문화 모둠의 경우에는 언어 능력에 대해 고려한다; 이 경우 사용 언어를 단순하게 한다. 카드에 적힌 정보는 가능한 짧게 하고, 최대한 A4 용지 반을 넘지 않도록 하되, 가급적이면 2-8줄 정도가 적당하다.

AAA BBB CCC

이 방법은 당신의 "가르침" 없이 참가자들의 지식과 이해를 발전시키길 원할 때 매우 유용한 기법이다. 사람들은 주제의 어떤 측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소모둠으로 작업한다. 이어 모둠을 재편성하여 지식을 공유한다.

당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문장이나 질문 카드를 각 모둠별로 준비한다. 각 모둠은 같은 주제의 다른 면을 다루게 된다.

참가자들이 3개의 소모둠(A, B, C)을 구성하게 한다. 각 모둠에게 그들이 합의한 질문이나 문제를 토론할 같은 시간을 제공한다. 그런 후 모둠을 재구성하도록 하며, 새 모둠은 다른 모둠의 구성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새 모둠에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각 멤버들로부터의 의견을 통한 합의를 이루는 과제를 부여한다.

모자 속 문장

이 기법은 주제를 소개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하거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감각적인 방법이다. 문장이나 질문 카드를 만들어 모자 안에 넣어둔다. 모자를 돌리거나 중간에 놓는다. 사람들에게 차례로 카드를 하나씩 꺼내서 카드에 대한 의견을 말하도록 한다.

촉진자가 카드를 만드는 대신, 참가자가 자기 자신의 문장이나 질문 카드를 만들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질문을 익명으로 할 수 있어서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하다.

순위 매기기

소모둠에서 집중 토론을 활성화하기에 유용한 형태의 활동이다. 각 소모둠에는 한 세트의 문장 카드가 필요하다. 9-12개의 문장이 적당하다: 내용을 선별해서 카드 한 장에 문장 하나씩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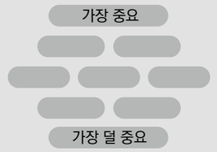
각 소모둠은 문장에 대해 토론한 다음 중요도에 따른 순위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순위는 사다리형이나 다이아몬드형으로 매길 수 있다. 사다리형 순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맨 위에 놓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장이 그 아래에 놓이는 식으로 하여, 중요도가 가장 낮은 문장이 맨 아래에 놓인다.

다이아몬드형 순위는 9장의 문장카드가 필요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참가자들끼리 가장 중요한 진술문이 무엇인지 협의한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진술문을 2가지, 중요도가 중간인 진술문을 3가지 정하는 식으로 이어나간다. 쟁점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 순위 매기기가 보통은 좀 더 적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이 좀 덜 인위적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더 낫다. 또 이 방법은 합의 도출에 더 좋은 기회들을 제공한다. 순위 매기기 방법에 변화를 줘서, 문장을 8가지 작성하고 카드 한 장은 비워 둔 채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사다리형 순위

1. 젠더
2. 노동
3. 교육
4. 건강

다이아몬드형 순위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문제를 보여주는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짧은 "이야기"이다. 문장 카드처럼, 비교육적 방법으로 정보를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참가자와 문제 간의 거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주제에 대한 토론을 덜 위협적으로 만들기에 가치가 있다. 예들 들어 모둠 내에 괴롭힘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당신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사례 이야기를 읽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려고 할 것이다.

드라마

드라마를 통해 아이디어와 이슈를 탐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달리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 생각,

꿈, 창조성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 드라마는 머리, 마음과 손 등의 온전히 사람을 포함하여, 그 사람의 지성뿐만 아니라 감각과 감정까지도 포함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더욱이, 사람들의 모든 학습 스타일 즉 청각, 시각, 운동 감각, 촉각 등에 호소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법이다.

디브리핑은 역할극과 모의실험극을 포함한 드라마 형식의 활동에서 특히 중요하다. 참가자들은 그들이 역할에서의 느낌과 선택한 바에 대한 이유를 토론하기 전에 역할에서 빠져나올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역할극

역할극은 참가자들이 연기하는 짧은 연극이다. 상황에 맞는 역할 연기를 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인생 경험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주로 즉흥적으로 연기한다. 역할극은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묘사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촉진시킬 수 있다. 참가자들이 도전적 상황을 안전한 분위기에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역할극을 할 때는 섬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참가자들이 마지막에 맡은 역할에서 빠져나올 시간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모두가 개인들의 감정과 그 모둠의 사회 구조를 존중해야 한다. 가령, 장애인에 대한 역할극에서는 일부 참가자 본인이 시각장애 등의 장애를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는 친척이나 친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며, 장애를 드러내도록 강요당해서도 안 되고, 소외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중대하게 받아들여 사과하고 해명한다.

또한 고정관념을 갖는 것에 특히 유의한다. 역할극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연기 또는 모방하는 참가자들의 "능력"을 통해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이끌어낸다. 이 점이 역할극을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디브리핑 시간에"여러분이 연기한 인물들이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은 매우 유용하다. 정보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참가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언제나 교육적이다.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배역의 특징 개발의 토대가 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질문하면 좋다.

시뮬레이션(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은 참가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역할을 배역하는 확장되고 구조화된 역할극(동일한 수준의 즉흥성을 포함하진 않는다)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접근성" 활동에서 법정의 경계를 정하고, 배치하고, 참가자들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은 높은 수준의 감정적 이입과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데, 특히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관점을 대변해야 하는 참가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포럼 연극

포럼 연극은 상호작용하는 연극으로, 관객의 참여를 장려하고 문제나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 다양한 선택사항을 탐구하게 한다. 포럼 연극(보알의 연극론으로, "억압 받은 자들의 연극" 혹은 "치료적 연극"으로도 알려져 있다)은 1970년대 초에 아우구스또 보알이 관객들의 역량강화를 기대하며 만들었다.

포럼 연극은 역할극의 한 형태이다. 관객들은 주인공이 극복할 수 없는 압박감이나 장애물과 마주하게 되는 짧은 연극을 본다; 주제는 관객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연극이 공연되고 나면 이를 다시 반복하는데, 관객들이 무대에 올라가 주인공의 연기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연대감과 권한부여 의식 모두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연극식 토론을 창출함으로써 연기자는 관객과 함께 선택의 결과를 탐구한다.

포럼연극은 인권교육을 전달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예를 들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임박한 상황에 대한 시연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시청각적 방법

그림: 사진, 만화, 그림, 콜라주

"사진은 천 마디 말을 한다" 시각적 이미지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자극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그림은 시각적 사고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또한 기억한다. 사진과 그림을 이용하는 활동들의 예는 2장의 "사진 놀이"(96쪽)에 있다.

그림 수집에 대한 팁

그림은 다목적 도구이므로 촉진자들이 그림을 수집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무수한 자원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신문, 잡지, 포스터, 여행안내서, 엽서, 축하카드 등이 있다.

그림의 끝부분을 잘 정리하여 판지에 붙인 다음에 서적 보호용 투명 점착 필름으로 씌운다. 이렇게 하면 내구성이 생기고, 다루기도 쉽고 좋다. 판지를 한 가지 크기로 모두 통일하면 수집한 그림들이 한 세트처럼 보일 것이다. A4 크기가 가장 좋지만, A5도 훌륭하고 실용적인 대안이다.

각 그림의 뒷면에 참조 번호를 적어놓고, 그림의 출처나 원래 제목, 기타 유용한 정보는 다른 곳에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참가자들이 해당 그림만 보게 되고 다른 정보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림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자연 및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지역의 이미지도 선택하도록 노력한다. 다양한 사람 모습의 그림을 선택할 때는 성별, 인종, 능력과 장애, 연령, 국적 및 문화를 염두에 둔다. 뿐만 아니라 크기와 색상 때문에 개별 그림들이 갖게 되는 영향력의 차이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영향은 특정 그림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수집품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서 합리적인 동종의 세트를 갖추도록 한다.

사용하려는 그림이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영화, 비디오 및 라디오 드라마의 활용

영화, 비디오 및 라디오 드라마는 인권교육을 위한 강력한 도구들이며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다. 영화 한 편을 감상한 뒤 벌이는 토론은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다. 토론할 내용은 영화에 대한 참가자들의 일차적 반응, 영화의 내용이 "실생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등장인물들이 현실적으로 묘사되었는지 아니면 한 가지 특정한 정치적 혹은 도덕적 관점을 촉진하려 했는지와 어떠한 인권이 관련되어 있는지 잊지 않도록 한다!

사용하려는 비디오의 저작권이나 공공 상영에 대한 제약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교실이나 청소년 모둠에 대한 상영은 공공 상영에 해당한다.

사진 찍기, 영화나 비디오 만들기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및 휴대폰의 기술 발전으로 이제는 영상 제작과 사진 촬영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었다. 청소년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들은 그들의 관점과 태도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전시물로서도 손색이 없다.

영상 편지

영상 편지는 여러 장벽과 편견을 해소시켜주는 데에 있어 검증된 방법이다. 영상 편지 덕에 다른 방법으로는 얼굴을 마주보며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공유할 수 있다. 한 예로 서로 대화하기를 거부했던 롬인 여성과 롬인 거주지를 만들기로 제안된 지역의 이웃 주민 간의 대화를 다룬 영국 TV 프로젝트가 있다. 서로 대화를 거부했던 이들은 한 중재자의 설득을 통해 서로 일련의 영상편지 발송에 성공했다. 각자 자신의 집을 보여주고 가족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진 영상편지에서, 점차 그들의 삶을 더 많이 드러내면서, 편견은 줄어들었고 이해와 공감으로 대체되었다. 각자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였으며, 마침내 직접 만나기로 동의했다.

미디어: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미디어는 좋은 토론 자료의 확실한 공급원이다. 내용과 그 내용이 제시된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고정관념을 분석하는 일은 언제나 흥미롭다. 미디어 소유권, 정치적 왜곡, 검열, 표현의 자유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 후속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299쪽 "전면 기사" 활동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wwwlcoe.int/compass 5장에서 미디어에 대한 배경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반드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한다.

주석

[1] 편집자 강조

[2]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CM/Rec(2010)7 on the Council of Europe Charter on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3] http://www.amnesty.org/en/human-rights-education

[4] Betty A. Reardon: Educating for Human Dignity – Learn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5] www.fra.europa.eu (accessed on 13 October 2010)

[6] Resolu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 on the youth policy of the Council of Europe, CM/Res(2008)23 United Nations, Plan of Action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First phase, Geneva, 2006

[7] Eurostat figures for December 2009 – Eurostat newsrelease 16/2010 of 29 January 2010

[8] Backman, E. & Trafford, B. (2006) Democratic governance of school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의 예를 참고하라.

[9] Global Education Guidelines – Concepts and Methodologies on Global Education for Educators and Policy Makers,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2008.

[10] A second All Different – All Equal European Youth campaign for Diversity, Human Rights and Participation was run in 2007–2008.

[11] The Training Kits "Training Essentials" and "Organisational Management" provide useful starting points about learning styles and attitudes of trainers and facilitators. T-Kit "Training Essential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2. T-Kit "Organisational Managemen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0. Downloadable from www.youth-partnership-eu.coe.int

[12] Gollob, R., Krapf, P., Ólafsdóttir, Ó., and Weidinger, W. (2010) Educating for democracy: Background materials on democratic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13] Brett, P., Mompoint-Gaillard, P. and Salema M.H. (2009) How all teachers can support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a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제2장

인권교육을 위한 실천적 활동과 방법

활동 요약

	난이도	건강	교육	기억(추모)	노동	문화/스포츠	미디어	민주주의	빈곤	세계화	시민권/참여	아동	이주	인권 일반	장애	전쟁/테러	젠더	종교/믿음	차별	평화/폭력	환경	쪽수
1분 토크	2					✓				✓				✓								74
가정사	3	✓															✓			✓		78
곧 구식이 된다	2		✓							✓								✓				85
관계 맺기	4							✓			✓			✓								89
권리 빙고!	1													✓								93
'그림 연상' 놀이	1													✓								96
꽃의 힘	2											✓		✓				✓				98
나는 누구인가?	2																✓	✓	✓			102
내 삶은 쇼가 아니다	3		✓				✓													✓		105
내 삶에서의 폭력	3	✓														✓				✓		109
내일이 오면	2						✓			✓										✓		112
노사 협상	3				✓			✓			✓											117
능력을 보라!	2											✓			✓				✓			122
당신은 어디에 서있는가?	2								✓		✓			✓								127
도스타(충분해)!	4		✓													✓			✓			130
돌 던지기	2											✓				✓				✓		135
두 도시 이야기	4				✓						✓										✓	138
들어가도 될까요?	3												✓						✓	✓		147
마카족 고래잡이	4					✓				✓											✓	152
메모리 태그	2			✓		✓										✓						160
모두 평등하고 모두 다르다	2						✓			✓									✓			165
모두를 위한 교육?	2		✓								✓	✓										168
모두를 위한 스포츠	2	✓				✓									✓							174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3		✓								✓	✓										179
몸으로 표현하기	2										✓	✓		✓								183
발전소	3										✓			✓						✓		186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	3	✓							✓	✓												189
부정과 왜곡	3			✓			✓												✓			193
사다리에서	3					✓		✓			✓											196
사진 놀이	1													✓								200
생명의 그물망	2	✓								✓											✓	204
선거운동	2							✓			✓			✓								208
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4	✓															✓		✓			211
세 가지 물건	2												✓		✓						✓	215
손가락들	4												✓							✓	✓	218
신자들	3					✓												✓	✓			222
아동의 권리	2		✓									✓		✓								227
안경을 바꿔라	2								✓				✓		✓							232
애시크 이야기	2				✓					✓		✓										236
언어 장벽	2												✓			✓			✓			241
얼마나 필요한가?	3	✓	✓													✓						245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	2										✓						✓		✓			251
연대표	3			✓										✓				✓				254
우리 동네 이슬람 사원	2										✓							✓	✓			258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	3	✓										✓								✓		264
우리의 미래	2	✓										✓									✓	268
의약품 접근성	4	✓								✓									✓			272
인권 수호자들	2						✓				✓			✓								278
인종차별에 맞서기	3					✓													✓	✓		284
일과 육아	2				✓												✓		✓			290
일하고 싶다!	3				✓										✓				✓			293
전면 기사	3						✓			✓											✓	299
조심하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3									✓	✓										✓	304
차별 임금	2				✓												✓		✓			309
차할 대 영국정부	4							✓								✓				✓		314
테러	2									✓						✓				✓		320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4							✓			✓			✓								324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	2		✓														✓		✓			330
한 걸음 앞으로	2								✓					✓					✓			333
향토 유적	2													✓				✓	✓			338
인권 달력																						340
시작 활동	2																					347
마무리 활동	1																					352

활동 연계표

활동	주제	개요	관련 권리
1분 토크	• 문화와 스포츠 • 세계화 • 인권 일반	스포츠와 인권과의 관계에 대해 1분 동안 빠르고 창의적으로 이야기한다.	모든 권리.
가정사	• 젠더 • 평화와 폭력 • 건강	다양한 유형의 가정 폭력에 대한 사례를 다루며,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생명, 자유 및 개인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과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곧 구식이 된다	• 종교와 믿음 • 세계화 • 교육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고, 강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하는지를 토론한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공동체의 문화적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관계 맺기	• 시민권과 참여 • 민주주의 • 인권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 정부, NGO, 언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협상을 다룬다.	정부참여권과 자유선거에 대한 권리. 정보와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가짐.
권리 빙고!	• 인권 일반	간단한 퀴즈로서 "빙고 게임"의 응용이다. 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인권.
'그림 연상' 놀이	• 인권 일반	인권에 관련된 단어를 표현하는 창의적 그림을 그려보는 팀 게임이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꽃의 힘	• 인권 일반 • 종교와 믿음 • 아동	인권에 대한 토론으로 이끄는 창의적 활동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모든 권리.
나는 누구인가?	• 젠더 • 차별과 불관용 • 종교와 믿음	버즈 그룹, 브레인스토밍, 그림 그리기와 모둠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존엄과 권리에서의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권.
내 삶은 쇼가 아니다	• 미디어 • 평화와 폭력 • 교육	일반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폭력, 특히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권. 가정과 통신에 대한 간섭으로 부터의 자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
내 삶에서의 폭력	• 평화와 폭력 • 전쟁과 테러 • 건강	자신이 겪은 사람 간의 폭력을 들여다보는 활동이다.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권.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고문과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
내일이 오면	• 평화와 폭력 • 세계화 • 미디어	범죄로 부터의 사회 보호, 범죄자의 인권, 그리고 사형제에 대한 이슈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활동이다.	생명권. 고문과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존엄 평등권.
노조 협상	• 노동 • 민주주의 • 시민권과 참여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고용주와 고용인 노조대표들 간의 회의를 시뮬레이션 한다.	일할 권리. 공정한 작업환경의 권리. 노조 결성/ 가입할 권리. 파업권.
능력을 보라	•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 차별과 불관용 • 아동	장애가 있는 이들과의 공감을 향상시키는 실용적인 활동이다. 사회통합에 있어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방해 요소와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장애인 인권의 수용 등을 다루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사회보장권.
당신은 어디에 서있는가?	• 일권 일반 • 시민권과 참여권 • 빈곤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존중과 열린 마음을 고취한다.	모든 인권.
도스타(충분해)!	• 추모/기억 • 전쟁과 테러 • 차별과 불관용	참가자들이 인권의 눈으로 롬인의 역사적 박해를 살펴보고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된 롬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계획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 문화권.

활동	주제	개요	관련 권리
돌 던지기	• 전쟁과 테러 • 평화와 폭력 • 아동	사람들이 폭력적 행동에 가담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역할극이다.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권.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두 두시 이야기	• 시민권과 참여 • 환경 • 노동	이 활동은 보드게임으로, 참여자들 이 자신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와 즐기고 싶은 편의시설에 대해 투표하는 형식이다. 사회적 연대, 납세의 의미와 지역 민주주의의 의미 등을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권. 재산권. 적정한 삶을 누릴 권리.
들어가도 될까요?	• 이주 • 차별과 불관용 • 시민권과 참여	한 무리의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한 역할극 활동이다. 망명을 허락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망명자들이 겪는 곤경과 사회 경제적 논쟁을 다룬다.	망명권. 강제송환금지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마카족 고래잡이	• 문화와 스포츠 • 환경 • 세계화	소모둠 활동, 역할극, 토론 및 합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원주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 대해 다룬다.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 식량권과 천연자원 접근권.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권.
메모리 태그	• 추모/기억 • 전쟁과 테러 • 문화와 스포츠	공공 전쟁기념물들에 의해 야기되는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태그 클라우드"를 함께 만든다.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권. 문화적 삶을 누릴 권리. 사상과 양심의 자유.
모두 평등하고 모두 다르다	• 차별과 불관용 • 세계화 • 미디어	이 활동은 짧은 퀴즈로서, 자체로 충분히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효과적인 모둠 토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존엄 평등. 어떠한 차별도 없이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을 가질 권리.
모두를 위한 교육?	• 교육 • 아동 • 시민권과 참여	전 세계 교육의 불평등에 대해 생각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카드를 놓고 맞춘다.	교육받을 권리. 육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권리. 평등권.
모두를 위한 스포츠	•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 차별과 불관용 • 건강	에너지가 넘치는 활동으로, 참여자들은 새로운 게임을 디자인하기 위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휴식과 여가의 권리.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 교육 • 시민권과 참여 • 아동	소모둠에서 전체로 이어지는 토론으로 교육이 무엇이고, 교육이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관해 다룬다.	인권교육을 포함한 교육권.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정부 참여권.
몸으로 표현하기	• 인권 일반 • 아동 • 시민권과 참여	이 연극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각자의 인식을 보여준다.	모든 인권.
발전소	• 평화와 폭력 • 시민권과 참여 • 인권 일반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해본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방안을 찾아본다.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가족, 가정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	• 빈곤 • 세계화 • 건강	부와 권력, 불평등과 빈곤의 불공정함에 대한 투쟁을 시뮬레이션한다.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적정한 삶을 누릴 권리. 건강, 음식 및 주거에 대한 권리.
부정과 왜곡	• 민주주의 • 차별과 불관용 • 추모/기억	특정 역사적 사건이 완전히 잊혀지거나 도구화되거나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성찰에 참가자들을 참여시킨다.	차별받지않은 권리. 의견과 정보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사다리에서	• 시민권과 참여 • 민주주의 • 문화와 스포츠	역할극과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의 의미를 반영하고 그들 자신의 참여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와 자유선거 참여권. 문화적 삶을 누릴 권리. 의견과 정보의 자유.

활동	주제	개요	관련 권리
사진 놀이	• 인권 일반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을 보여주는 그림을 확인한다.	모든 권리.
생명의 그물망	• 환경 • 세계화 • 건강	전세계적 먹이사슬의 연결성을 브레인스토밍한다. 생물과 무생물간의 상호의존성과 모든 인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룬다.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권. 자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 종교와 믿음의 자유.
선거운동	• 민주주의 • 시민권과 참여 • 기본 인권	토론에 기초한 활동으로, 민주주의와 민주적 토론에 관련된 권리와 책임에 대해 다룬다.	정부 참여권과 자유선거권. 의견과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 젠더 • 차별과 불관용 • 건강	동성애 혐오를 포함한 성적지향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며 "어항" 기법을 활용한다.	평등권. 차별로부터의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
세 가지 물건	• 이주 • 전쟁과 테러 • 환경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집에서 도망쳐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토론과 다이아몬드형 순위 매기기를 활용한다.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할 권리. 종교와 믿음의 자유. 의견과 정보의 자유.
손가락들	• 환경 • 평화와 폭력 • 이주	가장 친환경적인 청소년 그룹을 찾기 위한 경쟁 시뮬레이션이다. 그들은 정직할까? 아니면 속임수를 쓸까?	법 앞에서의 평등권. 생명과 생존권. 권리와 자유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한 국제질서에 대한 권리.
신자들	• 종교와 믿음 • 문화와 스포츠 • 차별과 불관용	참가자들은 자신의 다양한 믿음들을 비교하고 대조한다.	종교와 믿음의 자유. 의견과 정보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자유.
아동의 권리	• 아동 기본 인권 • 아동 • 교육	이 활동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과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이아몬드 순위 매기기를 사용한다.	(모든) 아동의 권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 및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안경을 바꿔라	• 빈곤 •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 이주	이 활동은 매우 간단한 야외활동으로, 밖에 나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주위를 탐색한다.	모든 인권.
애시크 이야기	• 아동 • 노동 • 세계화	토론활동으로, 아동 노동에 대한 사례로 출발한다. 참여자들은 아동 노동의 여러 측면들, 원인과 이를 종결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게 된다.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교육권. 휴식과 여가의 권리.
언어 장벽	• 이주 • 전쟁과 테러 • 차별과 불관용	난민들이 망명을 신청할 때 겪는 어려움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난민들이 직면하는 좌절감과 정서적 요소, 신청 절차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과 차별을 다룬다.	망명지를 찾고 향유할 권리. 민족 및 출신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얼마나 필요한가?	• 전쟁과 테러 • 건강 • 교육	토론과 의사 결정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소모둠으로 나누어, 8가지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 군사 예산을 재할당하는 안을 결정한다.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권. 발전권. 건강권과 교육권.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	• 젠더 • 차별과 불관용 • 시민권과 참여	사회화와 문화의 상징으로서의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에 대한 브레인스토밍과 토론, 우리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성에 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살펴본다.	평등권. 차별로부터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연대표	• 인권 일반 • 추모/기억 • 종교와 믿음	기원전 2천 년부터 지금까지의 권리 개념의 발전과 미래를 추정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함께 탐구한다.	인권교육을 포함한 교육권.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권. 종교와 믿음의 자유.

활동	주제	개요	관련 권리
우리 동네 이슬람 사원	• 종교와 믿음 • 차별과 불관용 • 시민권과 참여	시의회에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인 다수인 도시에 이슬람 사원을 새로이 짓는 것에 대한 논쟁을 하는 활동이다.	차별로 부터의 자유. 종교와 믿음의 자유. 의견과 정보의 자유.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	• 평화와 폭력 • 아동 • 건강	개인간 폭력과 집단 괴롭힘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역할극이다.	존엄권.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으로 보호받을 권리.
우리의 미래	• 아동 • 환경 • 건강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관심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한다.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환경적 문제, 지역 발전과 사람들의 필요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	의견 표명권과 정보 접근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발언권을 가질 권리.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약품 접근성	• 건강 • 세계화 • 시민권과 참여	이 활동은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AIDS 치료제 재판에 기초하고 있다. HIV/ADIS를 다루고 있는데, 약물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권리들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	생명과 존엄의 권리. 과학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도덕적 물리적 이익 보호에 관한 권리. 건강권.
인권 수호자들	• 인권 일반 • 미디어 • 시민권과 참여	인권에 관한 영웅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정보 카드를 활용하는 활동이다.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과 잔혹한 대우로 부터의 자유.
인종차별에 맞서기	• 차별과 불관용 • 문화와 스포츠 • 평화와 폭력	인종차별과 편견에 관한 이슈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역할극을 해본다. 특히 롬인에 대한 사례를 다루며, 학교나 다른 교육 기관에서 인종차별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본다.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차별로부터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일과 육아	• 노동 • 젠더 • 차별과 불관용	직장에서의 여성 출산권과 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역할극 활동이다	바람직한 직업과 노조에 가입할 권리. 결혼과 가족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하고 싶다!	•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 노동 • 차별과 불관용	장애인의 고용될 권리에 대한 이슈를 탐구해보는 역할극이다.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전면 기사	• 미디어 • 세계화 • 환경	언론인으로서 신문 전면을 구성해보는 시뮬레이션 활동이다.	사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사생활, 가족, 집, 통신에 있어 방해받지 않을 자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
조심하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 세계화 • 환경 • 시민권과 참여	이 활동에서 면 티셔츠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래서 관련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와 노조에 가입할 권리. 적정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차별 임금	• 노동 • 젠더 • 차별과 불관용	실제 노동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다. 동일노동에서의 차등 임금, 직장 내 차별,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정책 등을 다룬다.	바람직한 일자리와 노조에 가입할 권리. 공정한 임금과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 나이나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차할 대 영국정부	• 전쟁과 테러 • 평화와 폭력 • 민주주의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출된 실제 사건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미니재판)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망명권. 공정한 공개 청문회에 대한 권리.
테러	• 전쟁과 테러 • 평화와 폭력 • 세계화	사례 연구를 통해, 테러행위가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 논의하고 테러의 정의를 구성해본다.	생명, 자유 및 안보권. 고문과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 평화권.

활동	주제	개요	관련 권리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 민주주의 • 시민권과 참여 • 인권 일반	선거에서의 투표와 시민참여에 대한 이슈 탐구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 참여권과 자유투표의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권리.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	• 젠더 • 차별과 불관용 • 교육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다.	성과 젠더에 따른 차별로부터의 자유. 결혼과 가족의 권리. 법 앞에 평등할 권리.
한 걸음 앞으로	• 차별과 불관용 • 빈곤 • 인권 일반	우리 모두는 평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다 더 평등하다. 참가자들은 특정 역할에서의 기회에 따른 역할과 성장을 가져본다.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권. 교육권.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적정한 삶을 누릴 권리.
향토 유적	• 인권 일반 • 차별과 불관용 • 종교와 믿음	참가자들이 자기 주변을 탐구하고 지역 유산을 인권과 연결시킨다.	교육권. 종교와 믿음의 자유.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
인권 달력	• 모두	전 세계 사람들이 인권을 기념하는 날들의 목록; 이런 날들은 인권을 위한 투사들을 명예롭게 하고, 인권 유린을 기억하고, 희망과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주요한 날들은 공식적인 UN의 날, NGO들에 의한 세계의 날, 역사적인 사건의 기념일들로 구성되었다.	모든 권리
시작 활동	• 다른 모든 나침반(Compass) 활동을 지원	여기에 제공되는 시작 활동은 긍정적인 참여자 분위기를 만들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방법으로 인권을 소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권리
마무리 활동	• 다른 모든 나침반(Compass) 활동을 지원	돌아보는 마무리 활동은 경험기반 학습사이클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권교육에 대해 이 매뉴얼이 사용하는 접근법의 기초이다. 제공하는 활동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도록 돕는 쉽고 흥미 있는 방법들이다. 나침반 활동 중 일부 활동만 사용해서 진행할 수는 있지만, 해당 활동의 디브리핑 및 평가는 교체해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권. 참여권.

문화와 스포츠

세계화

인권 일반

2단계

제한 없음

40분

1분 토크

주저하거나 반복하지 않으면서 1분 동안 말할 수 있는가?

주제
- 문화와 스포츠
- 세계화
- 인권 일반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

시간 40분

개요 사람들이 스포츠와 인권의 관계에 대해 1분 동안 빠르고 창의적으로 이야기하는 활동이다.

관련 권리 모든 권리

학습 목표
- 인권의 상호연관성과 불가분성을 이해한다.
- 비판적 생각을 발전시킨다.
- 개인 의견을 표현하는 자신감을 기른다.

준비물
- 질문들, 참가자 당 하나씩
- 모자
- 초침 달린 시계 혹은 타이머

준비 작업
- 아래 첨부된 시트를 복사하여 질문 별로 자른다.
- 가느다란 질문 조각들을 접어 모자 안에 넣는다.

진행

1. 참가자들이 둥글게 앉도록 한다.
2. 모자를 돌리며, 참가자들이 돌리는 모자 속을 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손을 깊이 넣어 쪽지를 한 장씩 집도록 한다.
3. 참가자들은 집은 쪽지에 적힌 질문에 대한 1분짜리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5분의 시간을 준다. 주어지는 규칙은 발표시 주저하거나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4. 돌아가면서 각자의 "연설"을 하도록 한다.
5. 각 "연설" 후에는 2-3분의 짧은 논평 시간을 갖는다. 토론할 내용이 많다면, 이 주제를 기록하고 끝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6. 모든 차례를 마치면 끝내지 못했던 토론을 진행한다.
7. 그리고 디브리핑과 평가로 이어간다.

디브리핑과 평가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제기된 주제들에 대해 토론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권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한다.

- 1분 동안 주제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는가?
- 말하기 어려웠던 주제는 무엇이고 왜 그런가?
- 가장 논쟁적인 것은 어떤 질문이었으며 왜 그런가?
-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했던 정보는 무엇인가?
- 질문 각각에는 어떤 인권이 위협받았는가?
- 스포츠권은 인권인가? 그렇다면 다양한 인권 규약 등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
-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는 자신의 선택으로 스포츠 활동을 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은 아주 다양한 차원에 적용되며 질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더 깊이 생각을 하도록 무언가를 말할 수도 있으나, 이는 여러분이 "특정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위험성이 있다.

아래에 제시된 질문들이 모둠에서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질문으로 구성한다. 모둠이 아주 크다면, 작은 단위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저하는 발표자들은 한 번 시도해보도록 격려한다. 30초나 적게는 20초 정도를 바로 전 발표자의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거나, 순서를 뒤로 미루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설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한다.

계속 진행하는 좋은 방법은 협력 게임을 해보는 것이다. '스포츠', '장애', '올림픽' 과 같은 단어들이 포함된 단어 카드를 준비해둔다.

응용

작은 모둠에서는 두 번 이상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각 라운드마다 하나의 종이 쪽지를 선택한다.

다른 진행방법으로는 진행에서 설명된 대로 모자 안에 카드를 넣어두고, 한 사람이 하나의 질문을 집어서 읽도록 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1분 동안 이야기하는 대신 자신이 원할 때 이야기를 멈추고 다음 사람이 어어가도록 한다. 이때 이전 사람이 사용한 마지막 단어로 시작에서 똑같이 사용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 같은 모자에서 질문을 사용하는 기법은 토론을 원하는 어떠한 주제나 소재도 사용할 수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사람들이 스포츠를 주제로 계속하고 싶어하고 활기가 넘친다면 174쪽 '모두를 위한 스포츠' 활동을 시도한다.

특별히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다른 주제가 있다면, 이 매뉴얼 뒤의 활동목록에서 해당 주제에 관련된 활동을 찾아본다.

모둠이 인권에 대해 유머러스하게 접근하고자 하면, 5장 판초(Pancho) 작가가 그린 그림으로 하는 놀이(사진 또는 그림 놀이)를 할 수도 있고, 교육 패키지 [모두 다르고 – 모두 같다]에 있는 '유로조크 콘테스트(Eurojoke contest)'를 보고 농담하기를 할 수도 있다.

실천 아이디어

다룰 주제 하나를 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합의한다. 선택한 주제에 대한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체와 연계한다. 이 프로젝트를 학습 기회로 사용하고 사람들이 단체 업무 능력과 실천 역량을 얻도록 돕는다.

기 념 일

4월 7일
세계보건의날(WHO)

주

나침반의 20개 주제 각각에 대해 스포츠와 관련된 질문이다. 이는 인권이 상호 연결되고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추가 정보

http://www.athletesunitedforpeace.org

유인물

질문모음지

스포츠와 기본 인권
손흥민 선수는 유엔세계식량계획 친선대사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손흥민: 2022년 유엔세계식량계획 국제친선대사로 임명)

스포츠와 인권 일반
국제 수준의 선수들은 행동규칙에 동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 행사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여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인가?

스포츠와 인권 일반
경찰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축구응원단이 경기 응원을 위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막을 권한이 있다. 이는 이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권 등의 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인가?

스포츠와 인권 일반
올림픽 개최국 선정이 해당 국가의 인권 성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스포츠와 아동
아동에게 몇 시간씩 훈련을 강요하는 야심적인 부모들과 트레이너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청소년의 건강과 자신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지에 대해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스포츠와 시민권과 참여
한 나라에서 태어난 많은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집을 구하고 시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한 나라 대신에 자신의 출생국가 대표팀을 응원한다. 훌륭한 시민은 자신이 속한 현재의 나라 대표를 응원해야 하는가?

스포츠와 문화
문화는 공유된 태도, 가치, 목표 및 관습들의 집합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축구 문화"는 문화인가?

스포츠와 민주주의
당신 나라의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 문제로 부터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기 위해 스포츠 또는 스포츠 행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스포츠와 장애차별주의(disablism)
패럴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어느 정도 타파하는가?

스포츠와 차별과 불관용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선수들의 성별검사는 필요한가? 이 검사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인가?

스포츠와 환경
골프장은 지역주민들이 농업이나 임업에 사용되던 땅을 개발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기에 사람과 환경 모두에 비친화적이라고 자주 비판받는다. 또한 골프장 유지를 위해 많은 물과 제초제와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골프를 인권 문제로 만드는가?

스포츠와 젠더
어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 때문에 수석 코치와 스포츠 행정가 중에 여성이 드물다고 말한다. 여기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스포츠와 세계화
운동화와 다른 많은 스포츠 장비들은 동유럽과 극동지역의 착취된 노동력으로 값싸게 만들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계속 일하고자 하며 보이콧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그들의 착취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스포츠와 건강
스포츠에서의 마약사용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포츠와 미디어
특정 TV방송사가 특정 스포츠 행사의 독점적인 보도권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스포츠와 이주
이주민들을 통합하는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스포츠와 스포츠 활동을 말하고 있다. 당신은 이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스포츠와 평화 그리고 폭력
경쟁적 스포츠는 사람 간의 협력과 이해를 어느 정도로 증진시키는가? 그리고 국수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어느 정도로 악화시키는가?

스포츠와 빈곤
많은 나라에서는, 스포츠 특히 축구는 개인에게 "빈곤에서 벗어나는 여권"으로서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가난한 나라는 축구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스포츠와 빈곤
유럽의 축구선수 대부분은 그들의 일에 대해 매우 높은 보수를 받는다. 이는 정당화될 수 있고 공정한가?

스포츠와 종교와 믿음
많은 스포츠클럽들이 주말에 경기를 한다. 안식일이나 일요일에 자신의 종교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인가?

스포츠와 추모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은 히틀러의 쇼의 일부로서 나치 선전용으로 사용된 1936년 올림픽 경기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많은 이들에게 파시즘의 상징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철거하길 원했고, 다른 이들은 이를 "로마 콜로세움"처럼 서서히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제안했지만, 지금은 보수되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스포츠와 전쟁 그리고 테러
"진지한 스포츠는 페어플레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증오, 질투, 봄내기 등에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규칙에 대한 무시와 폭력을 목격하는 가학적 즐거움이다. 다른 말로 총질을 하지 않는 전쟁이다"(1945, 조지 오웰). 당신은 동의하는가?

스포츠와 노동
프로 운동선수들은 다른 노동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예를 들면, 노동 시간, 세금 납부, 노조 결성권 등이 있다.

젠더

평화와 폭력

건강

3단계

6 – 30
(소모임 2–6)

120분

가정사

경찰은 항상 늦게 온다. – 온다고 해도.

트레이시 채프먼

주제
- 젠더
- 평화와 폭력
- 건강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6–30명 (소모임 2–6)

시간 120분

개요 참가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가정 폭력에서 원인과 예방 방법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 연구를 다룬다.

관련 권리
- 생명, 자유 및 개인 안전에 관한 권리
- 고문과 굴욕적 대우로 부터의 자유
-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목표
- 다양한 형태의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킨다.
- 인권 침해에 대한 토론과 분석 역량을 키운다.
- 가정폭력에 공감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신감을 높인다.

준비물
- 브레인스토밍과 모둠 활동을 위한 큰 종이나 보드, 펜
- 사례나 자기 이야기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며, 참가자별로 돌아가도록 충분히 준비한다.
- ‘모둠 토론 지침서’ 복사물(소모둠당 한 부)

준비 작업
- 당신 나라나 지역공동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는 조직을 만난다.
- 활동 중 다루길 원하는 가정 폭력 관련 이슈를 조심스럽게 고려한다. 너무 개인적인 이슈를 다루게 될 경우, 참여자 일부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진행

1.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폭력”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으로 주제를 소개한다. 참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써넣지만 이 단계에서는 토론은 하지 않는다.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는 곳에 플립 차트 또는 보드를 걸어둔다.
2. 두 명에서 여섯 명 사이로 소모둠을 구성해달라고 한다. 적어도 세 모둠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3. “사례 연구”와 “모둠 토론 지침서” 복사본을 나눠준다.
4. 사례 연구를 읽어보도록 참가자들에게 5분을 준다. 참가자들은 이 사례들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하도록 한다.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토론은 매우 개인적임을 참가자들은 인식해야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도록 압력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1시간 동안 모둠 토론을 진행한다.
6. 디브리핑과 평가를 위해 전체가 다시 모인다.

디브리핑과 평가

모둠 토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례 연구의 그 사건이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발생한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만약 다른 모둠이 다른 사례를 갖고 토론했다면 다른 범죄에 대한 분석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 다음 자신의 삶에 관련된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전반적으로 당신이 사는 지역 사회와 국가에서는 가정폭력이 얼마나 만연한가?
- 어떤 인권이 위태로운가?
- 가정 폭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폭력보다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 더 많은 것은 왜일까?
- 어떻게 가정폭력을 멈출 수 있을까? 다음 주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공공 단체?
  - 지역 사회?
  - 관련자?
  - 친구와 이웃들?
- 토론된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에 대해 돌아본다. 처음의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목록과 비교해본다. 이 목록에 추가될 점들이 있는가?

제기된 이슈에 대해 더 다루고자 하는 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후속 활동이나 실천 등에 대해 토론한다.

촉진자용 팁

가정 폭력과 학대는 차별적이지 않다. 이는 이성애자 커플만아니라 동성애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모든 연령대, 인종적 배경, 경제 수준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여성들이 보다 흔한 희생자이지만, 남성 피해자도 또한 있다 – 특히 언어나 정서적으로 폭력 피해자. 배우자 학대로 알려진 가정 학대는 친밀한 관계나 결혼 상태에서 한사람이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신체적 폭력을 포함하여 가정 학대를 가정폭력이라고 부른다.

폭력적 가정 내 사고 대부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로 가정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가정 문제”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가끔, 드물지만, 여성이 학대자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스 이야기를 사례로 넣었다.

이 활동을 고려할 때, 어떤 참가자는 집에서나 가족 간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감성 및 익명성/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모든 참가자에게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의 필요에 따라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남자 참가자들이 이 활동이나 일부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남성이나 소년들이 다른 남성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것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성들은 억압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한 부분이고, 그 속에서의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가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해 남성이 가하는 폭력이 남자 자신에게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결과를 알아본다.

이 세션을 마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1분 묵념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공감과 연대의식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응용

모둠의 일부를 장면중 하나를 연기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나머지는 관객이 된다. 촉진자는 간격을 두어 연극을 중단하고, 상황을 완화시키고 보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적 행동을 제안하도록 관객을 초대한다.

기 념 일

11월 25일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경찰서를 방문해서 전화로 걸려온 가정폭력 신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본다. 또 다른 가능한 제안은 가까운 여성 지원 단체에 연락하여 지역 사회의 상황에 대한 사실과 수치 등을 발표해줄 강연자를 초대한다.

많은 나라에서 가정폭력과 비슷하게 금기시되는 것이 성, 특히 동성애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해 더 탐구하고 싶다면 211쪽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활동을 보도록 한다.

실천 아이디어

지역 여성 쉼터나 여성인권 지원 조직이나 정보센터를 찾아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추가 정보

비록 여성이 학대자가 될 수 있고 동성애 관계에서의 학대가 점차 알려지고 있지만, 증거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 학대의 희생자는 남성에 의한 여성과 소녀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 채택되었다. 여기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젠더 기반 폭력 행위로서, 이는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의 협박, 강압, 또는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으로, 구타, 가정 내 여자 아동의 성적 학대, 지참금 관련 폭력, 부부강간, 여성생식기 훼손 및 기타 여성에게 해로운 전통 관행; 비결혼 폭력과 착취에 관련된 폭력; 일반적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직장, 교육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의 강간, 성적 학대, 성희롱 및 협박; 여성 인신매매와 강제 매매춘; 어디에서 일어나든,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거나 묵인되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등을 포괄하고 있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여성폭력철폐선언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coe.int/compass의 제5장 젠더편을 살펴보라.

생애 주기로 보는 여성에 대한 폭력

생애주기	폭력 유형
출생 전	성 감별 낙태, 출산결과에 관련된 구타
유아기	여성 유아 살해,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
아동기	아동 결혼, 여성 성기 훼손,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 근친상간, 아동 성매매 및 포르노
청소년기 및 성인기	데이트 및 구애 폭력(예: 황산테러, 데이트 강간), 경제적 강압에 의한 성관계(예: 등록금 지원을 위한 원조교제), 근친상간, 직장 내 성적 학대, 강간, 성희롱, 강제 성매매와 포르노, 인신매매, 교제 폭력, 부부강간, 지참금 학대 및 살인, 파트너 살인, 심리적 학대, 장애 여성 학대, 강제 임신
노년기	경제적 이유로 강제된 "자살"이나 살인,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

자료원: 1997 세계보건기구 – 여성폭력자료집(Violence Against Women Information Pack)

가정 폭력

여성 인권의 침해는 전쟁터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최전방은 가정이다. "가정폭력의 '사적인' 성격은 항상 그리고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과 조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1]

여러 연구보고서에서 여성들이 다른 사람보다 현재 혹은 이전 배우자에 의해 상해나 강간, 죽임을 당할 위험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의 희생자는 여성뿐아니라 자녀인 경우도 많아서 특히 소녀와 젊은 여성들에게서 피해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침묵의 증인전(Silent Witnesses exhibition)

이 활동은 부다페스트 유럽청년센터에서 NANE 여성인권연합(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주최로 열린 가정폭력 피해자의 전시회 사진을 자료로 삼아 여성폭력 문제를 다룬다. 에스더와 케티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전시는 살해당한 여성이 '침묵의 증인'이 되어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잔인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침묵의 증인 전'을 기획하는 것은 당신이 속한 사회, 지역, 나라에서의 가정 폭력을 알리는 매우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증인을 어떻게 만들고 전시회를 어떻게 조직하는 가에 대한 책이 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의 캠페인 첫 해에 대한 다루어진 'Results(결과들)'이라는 책자도 포함되어 있고 사례로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다. 웹사이트는 www.silentwitness.net 이다. 또한 여기에서 이전에 전시회를 열었던 국제적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다.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유럽 최초의 법률.

젠더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 수단에 대한 조직법(The Organic Act on integrated protection measures against gender violence). 2004년 12월 22일, 스페인은 특별법원과 통합형 재활센터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개선된 지원, 위협받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법으로 규정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UN 특별보고관

2009년 6월에 UN은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 조사관을 위한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2010년, 최초의 지명자인 라시다 만주(Rashida Manjoo)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라는 첫 번째 주제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www2.ohchr.org에서 해당 보고서를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추가 자료원

- www.wave-network.org 폭력반대유럽정보센터(The European Information Centre Against Violence)는 유럽 전역의 여성 지원 단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 www.ewlcentreonviolence.org 는 여성폭력반대를 위한 유럽여성로비센터의 웹사이트. 국가보고서를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VAW)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 www.whiteribbon.ca '흰 리본 캠페인'은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하는 가장 큰 남성들의 활동"이다.
- www.europrofem.org 유로 프로펨(EuroPRO-Fem), 유럽 프로페미니스트 남성 네트워크는 남성 지배, 폭력, 여성 억압 등과 관련된 조직과 프로젝트의 네트워크이다.
- www.hotpeachpages.net 가정폭력기관의 국제 목록은 세계 각국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 www.unifem.org UN여성발전기금의 사이트로 젠더 이슈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곳이다.

주:

케티와 에스더의 사례는 모바이 크리스티나가(Morvai Krisztina)가 쓴 [a családban – A feleség-bántalmazás és a jog(Terror in the Family – Wife Battering and the Law), Kossuth Kiadó, Budapest 1998.]라는 책자에서 인용한 것이다.

유인물

사례 연구보고서 1 – 에스더

에스더의 남편은 아내와 말다툼을 시작했는데, 세탁과 요리, 그리고 다른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동시에 아내를 때리기 시작하여 머리와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한 손 가득 머리채를 잡고 신발을 신은 채로 아내를 발로 찼다. 그런 다음 아내의 상의를 찢고 침대에 내동댕이쳤다. 그 상태에서 다시 더 세게 때리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일이 8살짜리 딸 앞에서 일어났다. 딸은 멈추라고 간청했다. 그제서야 멈추고 침대에서 아내를 밀어 버린 채 잠들었다.

에스더는 그날 저녁 사망하였다.

사례 연구보고서 2 – 케티

케티는 날이 갈수록 자신을 더 학대하는 약혼자로부터 도망치려 하였다. 다른 도시로 주거를 옮겼으나 약혼자는 계속 전화를 하고 괴롭혔다. 케티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였다.

하루는 약혼자가 케티의 퇴근길을 미행하여 근처 숲으로 유인하고 그녀의 옷으로 목을 졸라 죽이려 했다. 다음 날 케티는 직장 동료에게 약혼자가 자기를 진짜 죽일까봐 두렵다고 했다.

나흘 뒤 약혼자는 술을 마시고 케티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케티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친척집에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가는 도중 몇 번이나 차를 멈추었다. 케티는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동의했으나 약혼자는 너무 취해있었다.

케티는 더 이상 약혼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화가 난 약혼자는 허리띠로 케티의 목을 졸랐다.

약혼자는 케티의 시체를 끌어 도랑에 버리고 나뭇가지로 덮어놓았다.

사례 연구보고서 3 – 마리아

마리아는 70세였다.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으며, 40세 아들 필립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아들은 실업상태였고 때때로 술에 취해있었다. 마리아는 아들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더 일으키기 싫어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술에 취해있을 때는, 필립은 매우 난폭하기도 했으며 마리아는 가끔 아들로부터 도망쳐 자신의 방에 꼭 숨어 있어야만 했다.

어느 날 필립은 완전히 취해서 집에 왔고, 저녁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화를 냈다. 마리아는 피곤하고 아파서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자, 그는 방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도망칠 힘도 시간도 없었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의자를 던졌다. 마리아는 몸을 보호하려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한 이웃이 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마리아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혼수상태에서 죽었다.

사례 연구보고서 4 – 레안드로

레안드로는 8세였다. 세 살 된 여동생과 엄마, 엄마의 남자친구인 얀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레안드로는 그의 생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레안드로는 학교를 좋아했지만 얀은 싫어했다. 사실, 얀은 폭력적인 면이 있어서 가끔 레안드로를 때렸다. 레안드로는 정말로 얀을 두려워했는데, 잠을 잘 못 잤고 식욕도 잃었다.

레안드로의 학교 선생님은 레안드로가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친구 관계에서 폭력적이기도 하는 등 학교 생활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어머니는 선생님을 만났지만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와서 얀에게 선생님의 말을 전했다. 얀은 매우 화를 냈고 레안드로를 때리기 시작했고, 이때 레안드로의 팔이 부러졌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레안드로가 떨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례 연구보고서 5 – 바나즈

바나즈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었다. 2005년 12월, 아버지가 바나즈를 죽이려 하자 정말로 무서워 경찰서로 갔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바나즈가 한 진술은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나즈는 도망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은밀히 유지하려했으나, 계속 만나면 둘 다 죽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 바나즈는 안전가옥에 머물도록 권유받았지만, 어머니가 있기에 집에서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듬해 1월 24일 바나즈는 사라졌고, 3개월 후 정원에 묻힌 가방에서 부패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재판에서, 아버지와 삼촌은 가족이 결혼을 원하지 않은 남자와 사랑에 빠져 가족을 수치스럽게 했다고 믿기에 살인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바나즈는 겨우 20살이었다.

http://news.bbc.co.uk/2/hi/6722699.stm; 11 June 2007

사례 연구보고서 6 – 아미라

아미라의 가족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소말리아에서 탈출하여 유럽의 한 도시에 정착했으며, 그때 아미라는 4살이었다. 아미라의 유아기는 매우 좋아보였다.

그러던 아미라가 열한 살 나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이모네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으며, 아미라는 또래의 사촌과 놀 수 있었다. 아미라가 몰랐던 것은 어머니와 이모가 딸들에게 할례를 하기 위해 모가디슈로 여행하도록 은밀히 계획했다는 것이다. 어머니와 이모는 이러지 않으면 딸들이 결코 남편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갑자기 어머니와 이모가 아미라를 붙잡았다. “사람들은 나를 꽉 붙잡았고, 만난 적도 없는 여자가 자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비명을 질렀고, 이모는 내 입을 손으로 꽉 막았어요.”라고 아미라는 말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약속해라.”라고 아미라에게 간청했는데, “만약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우리가 배신했다고 말할 것이고, 나는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할 것이다. 어쨌든 나는 부모님이 감옥으로 보내지는 것을 원하진 않아.”

http://www.dailymail.co.uk/femail/article-505796 3 January 2008 and www.fgmnetwork.org 에서 응용.

사례 연구보고서 7 – 데니스

“나는 근친상간의 희생자다; 나는 열다섯 살 때 아버지에게 강간당했다. 이제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임신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매우 아팠고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갔다. 응급실 의사는 내가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렸으며 임신 19주라는 것을 발견했다. 의사는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고통과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태를 거부했다. 아버지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내가 승낙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는 내 바람에 따라 낙태를 거절했다.

아버지는 낙태시술자를 찾아 한 시간 내로 오라고 요청했으며, 병원에 도착했다. 나는 진찰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낙태시술자는 간호사 세 명에게 나를 잡으라고 하고 침대에 묶었다. 몸부림치는 나에게 근육 이완제를 주사하였다. 나는 낙태를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낙태시술자는 나에게 ‘닥치고 소리치지 마!’라고 말했다. 결국 전신마취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www.humanlife.org 에서 응용.

사례 연구보고서 8 – 한스

안토니아는 몇 년 동안 남편인 한스를 괴롭히고 있었고 떠벌리고 다녔다. 한 번은 안토니아가 차로 깔아 뭉게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다. 다른 경우에는 한스가 아이들을 성추행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스를 소아성애자로 비난하는 편지가 이웃 우편함에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혐의를 믿지 않았으며, 안토니아가 그 편지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다.

삼 년 전에 별거에 들어갔으며 일 년 후 이혼했다.

몇 달 전에, 안토니아가 퇴근하는 한스를 따라와 등유를 채운 장식에 불을 붙여 한스에게 던졌다. 장식은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 형사들은 나중에 문과 벽에서 등유 자국을 발견했다.

어느 날 한스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한스에게 뛰어왔다. 탕 하는 소리가 났다. 한스는 비명을 지르며 그 여자에게 벗어나 자기 아파트로 허둥지둥 뛰어 들어갔다. 경찰과 의사는 식당 바닥에서 죽어가는 한스를 발견했으나 목숨을 구할 수 없었다. 총알은 오른쪽 어깨를 관통하여 대동맥에 붙어있는 한스의 폐를 망가뜨렸다.

출처: http://www.seattlepi.com 에서 응용

모둠 토론에 대한 안내

I – 범죄 분석(20분)

1. 보고된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이런 범죄는 어디서 일어날까? 당신 이웃에서도 일어날까?
3.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가?
4. 그럼 범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5. 피해자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했어야 할까?

II – 사회 현실로 돌아보기(40분)

6. 당신은 최근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 알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7. 어떤 형태의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가?
8. 도움이 필요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9. 경찰이 폭력신고를 받는다면 개입을 해야만 할까? 혹은 개인사에 대한 개입으로 인권 침해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10.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가해자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11. 남자가 피해자인 가정 폭력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12. 가정 폭력의 원인 목록을 적어보라.
13. 가정 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을까?
14. 다음의 주체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a. 공적 당국?
    b. 지역 사회?
    c. 관련자들?
    d. 친구와 이웃들?

곧 구식이 된다

지금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0년이 지나면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

콘스탄스 베이커 모틀리

주제
- 종교와 믿음
- 세계화
- 교육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소모둠 5–6)

시간 90분

개요 이 활동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강화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관련 권리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지역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학습 목표
- 믿음에 대한 사회적 구축과정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킨다.
- 비판적 사고와 토론 능력을 개발한다.
- 열린 마음과 질문하는 자세를 구축한다.

준비물
- 문장 카드(소모둠당 한 묶음)
- 소모둠당 큰 용지 한 장과 필기구

준비 작업 유인물을 복사하고, 필요에 따라 문장 카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문장 카드를 재단한다. 소모둠당 카드 한 묶음을 만든다.

진행

1. 이 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다룬다. 처음에 참가자들은 지난 세대들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지만,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나 손주들 시대에는 뒤떨어진 것으로 보게 될 믿음에 대해 토론한다.
2. "믿음"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브레인스토밍한다.
3. 이제 참가자들을 5–6명의 소모둠으로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4. 각 모둠은 큰 용지에 요약 노트를 작성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피드백할 사람을 선발한다.
5. 문장 카드를 보고 할아버지 세대 이후로 변화되었고 함께 다루고 싶은 5개를 고르도록 한다.
6. 선택한 문장 카드를 차례대로 들고 설명문에 대해 조부모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 토론한다.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강화되었을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들은 현명한 믿음이었나? 왜 그런가 혹은 왜 아닌가?
7. 그런 후 당신의 자녀나 손주들의 시대에는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고 그들이 무엇을 믿을 지 의논해본다. 선택된 문장 카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당신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그들은 왜 다를까?
8. 전체로 모여 각 모둠은 자신들의 결론을 간략하게 보고한다.

종교와 믿음

세계화

교육

2단계

제한 없음
(소모둠: 5–6)

90분

콘스탄스 베이커 모틀리(Constance Baker Motley), 우리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앞으로 10년 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966년 미국 최초로 흑인 여성으로 연방판사가 되었다.

디브리핑과 평가

활동에 대한 짧은 리뷰로 시작해서 믿음과 가치가 변화하는 세계화된 세상의 삶에서 겪는 도전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 모둠 내에서 강한 의견 차이는 없었나?
- 여러 모둠의 피드백은 어떻게 비교되나?
-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과거에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지에 대해 일반적인 점이 있나?
- 믿음은 왜 변하는가?
- 완벽한 믿음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 공통의 믿음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
-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제약하는가?
- 무엇이 당신의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 믿음을 바꾸기가 얼마나 쉬운가? 어떤 종류의 믿음이 바꾸기 더 어렵거나 쉬운가? 그 이유는?
- 사람들은 광고와 거짓 주장으로부터, 예를 들면 정치가의 빙빙 돌리는 말, 기후 회의론자의 의심 또는 당신의 돈을 노린 사기 조직의 술책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 의견과 표현의 자유권 제한의 예를 제시한다. 누가 이러한 제한을 결정하는가?
- 당신의 사회, 국가에서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사례를 명시할 수 있는가? 유럽이나 더 넓은 세계에서는?

'말돌리기'은 특정 방식으로 정보나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특히 자신이나 자기 아이디어를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옥스퍼드 사전)

촉진자용 팁

참가자는 비록 소모둠으로 활동하지만 어떤 개인은 그 이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명시하는 데 수줍어 할 수도 있다. 이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서로 편하게 느끼는 친구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소모둠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처음에는 덜 "위협적인" 주제를 제공하고 상호 신뢰가 커짐에 따라 더욱 논란이 많은 주제를 제시한다.

인권을 규범으로 존중하는 세상을 구축하는 과정은 대부분 사람들의 믿음에 이런 저런 방식으로 도전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활동의 요점은 사람들의 믿음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의 산물임을 참가자들이 이해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이 활동의 끝에 가서는 참가자들이 믿음이 깊게 뿌리내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힘든 이유를 더욱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유해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믿음을 변화시키는 명확하고 사실적인 증거와 훌륭한 비판적 사고의 기술을 제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처럼 종종 종교와 관련지어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좁은 의미의 사용이며 참가자가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믿음은 추정된 진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닻을 내리기 위해 믿음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일단 믿음을 만들어내면 그 믿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믿음이 무엇이고 그들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있다: http://changingminds.org

응용

"진술 훈련"기법을 사용하여 전체 모둠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이 응용에서 참가자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그 이슈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듣기만 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토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따라 211쪽의 '성에 대해 말해보자!' 또는 222쪽의 '신자들' 활동에서 대인관계에 관한 믿음을 계속해서 탐구해볼 수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지역에 새로운 이슬람 사원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분쟁을 지역 시의회의 모의 시의회를 통해 알아보는 258쪽의 "우리 동네 이슬람 사원" 활동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권을 지향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다.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친구나 동료와 함께 인근에서 편견을 갖게 하거나 차별하는 집단적 믿음을 찾아낸다. 예를 들면 동성애, 피임 도구 사용, 낙태, 타인과의 관계 또는 남녀의 역할에 관한 믿음 등. NGO나 다른 기구를 초청해서 이러한 이슈들에 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주제로 강연 요청을 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실천할지 결정한다.

또한 선택된 이슈에 관한 연극을 만들어내서 지역사회에서 공연할 수도 있다. 만일 그 공연 시기를 국제적 또는 유럽의 기념일과 일치시킨다면 관중이 와서 관람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점을 명심한다.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게 생각된다면 친구, 가족 및 동료들과 함께 비공식적인 기간에 이 활동을 채택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 특정 이슈에 관한 자신의 의견과 믿음을 질문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특정 이슈에 관해 매우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한다.

추가 정보

믿음은 어떤 제안, 진술 또는 아이디어가 진실이라는 확신이다.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이 진실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것을 알았거나 목격했기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믿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는 사람, 아이디어 또는 사물에 대한 진실성 또는 신뢰성에 있어서의 확고한 믿음이다. 믿음의 형태와 믿음과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믿음이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됨을 발견했다.

- 우리는 어린 시절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상식은 18살까지 취득한 편견의 집합체라고 말했다고 종종 언급된다. 정치적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공통된 정치적 믿음에 가장 크게 의존한다. 대부분의 개인은 어린 시절에 배운 종교를 믿는다.
- 사람들은, 비록 그러한 믿음이 모든 이전의 믿음에 위배되고 자신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할지라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믿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의 직접적 현실을 그 믿음, 모순, 인지부조화로 알려진 상황과 조화시키려고 시도한다.
- 성, 사랑 및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 이미지에 대한 믿음의 연대 사례처럼 반복이 믿음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광고 산업의 주된 요지이다.
- 신체적 트라우마, 특히 머리 외상은 사람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학식 있는 사람조차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에 강력히 집착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에 반할지라도 그 믿음에 의해 행동한다.

2010년 세계교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술리아 네루 기념대학의 프라바카라 쉬쉴라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합리적 사고의 본질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하는가?

기 념 일

10월 5일
세계 스승의 날

유인물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	사형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믿음	혼전의 성관계는 죄악이라는 믿음	처녀와의 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병을 옮김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왕, 국가 또는 종교를 위해 죽는 것이 명예라는 믿음	흡연이 실제로는 건강에 그리 해롭지 않다는 믿음	마약과 알콜의 사용에 관한 믿음	피부색, 얼굴 유형, 두개골 형태, 옆얼굴의 크기, 머리카락의 질감과 색으로 종족을 구별할 수 있다는 믿음
아동의 양육과 훈육에 관한 믿음	종족별로 도덕성과 지능에 차이가 있다는 믿음	정신질환은 수치스럽다는 믿음	가족과 남녀 역할에 관한 믿음
육식에 관한 믿음	경찰이나 공무원을 존경해야 한다는 믿음	쓰나미와 토네이도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신의 형벌이라는 믿음	낙태와 대리모 출산에 관한 믿음
피임과 피임 도구 사용에 관한 믿음	범죄자 처우: 투옥과 갱생에 관한 믿음	음란 외설물과 매춘에 관한 믿음	동성 결혼에 대한 믿음
말기 환자의 자살을 지지하는 믿음	분홍색은 여자 아이, 파란색은 남자 아이를 위한 색이라는 믿음	같은 일을 하는 남녀의 능력에 관한 믿음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는 다른 놀이를 해야 한다는 믿음
미혼 생활의 (혼전) 관계에 대한 믿음	문신과 피어싱에 관한 믿음	혼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믿음	신성 모독에 관한 믿음
무종교에 대한 믿음	누드가 되는 것/ 자연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한 믿음	자위/ 성에 대한 믿음	이혼에 대한 믿음/ 한부모에 대한 믿음

관계 맺기

민주주의는 당신이 편하게 쉬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무언가를 행하고 참여하는 곳이다. 당신이 하기를 멈추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애비 호프먼

주제
- 시민권과 참여
- 민주주의
- 인권 일반

난이도 4단계

모둠 크기 8–20명

시간 120분

개요 이 활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정부, NGO와 언론이 가진 권리와 책임에 관한 협상을 포함한다.

관련 권리
- 정부에 참여할 권리와 거버넌스와 자유로운 투표에 참여할 권리
- 정보와 표현의 자유
- 모두는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다.

학습 목표
- 권리와 의무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개발한다.
- 토론과 협력 능력을 증진한다.
- 시민의 책임감을 키운다.

준비물
- 모둠별 A4 용지 한 장과 연필
- 4장의 A3용지나 플립차트 용지(이중 한 장은 각 모둠의 “기록 시트”용)
- 모둠 당 마커 3개(빨간색, 녹색, 파란색)
- 끈이나 털실 뭉치 4개(모둠별로 다른 색)
- 모둠별 접착테이프 한 롤
- 가위
- 모둠당 플레이 규칙 유인물

준비 작업 끈이나 털실을 색깔별로 1.5미터 길이로 6개씩 잘라 준비한다. (총 24개, 모둠당 한 색이 6개씩)

진행

1.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네 부류의 “행위자” 간의 관계 “지도”를 그리는 것이 이 활동의 목표다.
2. 전체 참가자를 민주주의 사회의 네 부류의 “행위자”–정부, NGO, 언론 및 시민–를 대표하도록 모둠을 구성하며, 각 모둠은 동일한 인원을 배정한다.
3. 각 모둠별로 A4 한 장과 필기구를 나누어 준다. 10분 동안 그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맡은 “행위자”의 역할과 이러한 역할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를 브레인스토밍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5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의한다.
4. 다음으로 “기록지”를 준비한다. 모둠별로 큰 종이(A3나 플립차트 용지)와 빨간색 마커를 나누어 주고, “행위자”를 적고, 아래에 5가지 중요한 기능을 적도록 한다.

5. 모두 모여 모둠별로 작성한 '기록지'를 제시하고 함께 반응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 네 부류 '행위자'의 주요 역할에 대해 합의했는지 물어보고 원한다면 피드백에 따라 목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이제 다시 네 모둠으로 분리하고 초록색 펜을 나누어 준다. 그들 자신이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 15분 동안 서로에게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도록 한다. 시간이 다 되면, 모둠별로 다른 '행위자'에게 요구할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2가지씩 골라 초록색 마커로 별도의 제목 아래에 적는다.
7. 복사해둔 '게임 규칙'을 나눠주어 살펴보게 하고 모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모둠별로 작성한 '기록지'를 방 가운데로 가져오게 하고, 이를 각기 1m 간격으로 배치하도록 요청한다. (도표 참고) 각 모둠의 구성원들은 각 모서리에 자리한다.
8. 각 모둠에게 털실 6가닥, 테이프 하나, 청색펜 하나를 나누어준다.
9. 이제 협상을 시작한다. 각각의 협상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한다.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행위자"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임을 상기시키고, 요구가 수용될 때마다, 책임을 수용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 그 두 종이를 털실로 접착테이프를 써서 연결한다.
10. 끝나면 참가자들은 협상 상태 그대로 앉아서 디브리핑과 평가로 넘어간다.

디브리핑과 평가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지도를 보면서 활동을 평가하도록 한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 NGO, 언론과 시민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웠는가?
- 모둠 내에서 어떤 주장이 수용되고 거부되는 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가?
- 다른 모둠에서 구성한 주장 중에서 책무로 수용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러한 경우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가?
- 각 모둠이 수용은 하였으나,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책무가 있었는가? 이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느끼는가?
- 이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는가? 놀라웠던 점이 있는가?
- 이 활동에서 어떤 권리가 위태로웠는가?
- 세계인권선언 제29조에서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현재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인가?
-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각 행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 모든 사람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각 행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촉진자용 팁

'행위자'별로 색을 구분한 네 가지 색실을 사용하여 지도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관련성의 추적을 더 쉽게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시민의 요구는 노란색, 언론의 요구는 검은색이 될 수 있다.

진행의 5단계에서 모둠이 그들의 역할 목록을 작성한 후, 모둠 전체가 이 문제 토론에 시간을 너무 쓰지 않도록 한다. 이 단계는 바로 이어질 소모둠 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진행한다. 다른 모둠의 역할에 대해 메모를 할 수도 있다.

모둠이 역할을 찾는 데 어려워한다면 해당 "행위자"가 하는 일의 종류와 이러한 일이 없다면 무엇을 놓칠 수 있는 지를 생각해보도록 제안한다. 모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몇가지 예:

- 정부는 법률 초안을 작성하고, 일반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 예산에 맞도록 집행한다.
- 비정부기구(NGO)는 소수자의 이해를 위해 로비하고, 정부(혹은 야당)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입법과정에서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한다.
- 언론은 정부 정책을 보도하고, 이슈를 조사하고, 분석과 비평을 제공한다.
- 시민의 '역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의회 입성에서부터 인권운동에 참여하기, 특정 계층의 보호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 질문하기, 정치 생활에 개입하기 등 아이디어 범위가 다양하다.

요구 사항을 정리하는 단계(5단계)에서는 다른 '행위자'에 대한 요구가 비현실적으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러한 책무는 수용 가능하여야 하며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단계에서, 협상은 '경쟁'으로 진행되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모둠은 다른 모둠과 협력해야 하며 모든 '행위자'가 함께 모두의 만족을 위해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합의는'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요구가 타당해보이면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도록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구의 경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한다.

모둠에서 요구와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론과 시민의 예를 사용할 수 있다. 기자들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대한 제보가 필요하고 시민들은 언론에 알리고 목격자 진술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응용

이 활동은 사회 내의 다양한 '행위자'를 사용하여 더 복잡하게 또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업가', '소수자', '취약계층'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협상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고, 당신은 모든 모둠이 더 많은 상대와 요구 사항을 교환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현실에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다른 범주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민' 대신 '청소년', '정부' 대신 '학교'로 대체할 수 있다.

이 활동은 한 개 이상의 그룹을 빼서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민'과 '정부' 행위자로만 진행할 수도 있다. 참가 인원이 적을 경우 좋은 방법이다.

'기록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활동을 하고자 하면 협상 과정에서, 첫 모둠 중 누군가가 털실의 한 쪽 끝을 잡고, 다른 쪽 끝을 두 번째 모둠의 누군가에게 주어 연결한다. 사람들이 각각의 끝을 잡고 있다면, 이 과정의 끝에는 전체 '사회'가 물리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사회의 다른 행위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지도에 계속 추가할 수 있다('응용' 참고).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지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다른 종이로 옮기기 원할 수도 있다. 당신 자신의 사회에서 어떤 연결이 잘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모둠이 사회가 움직이는 방향, 특히 어떻게 발전하길 원하는 지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미래"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실천 아이디어

이번 활동을 한 번 더 해보되, 지방 정부, 지역 언론, 지역 NGO, 시민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연결이 더 나을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 이것에 '행위자'의 관심을 끈다. 편지를 쓰거나, 블로그나 지역 언론의 기사로 쓸 수 있다. 자신의 조직, 학교, 대학이나 클럽에서의 다른 '행위자'와의 연결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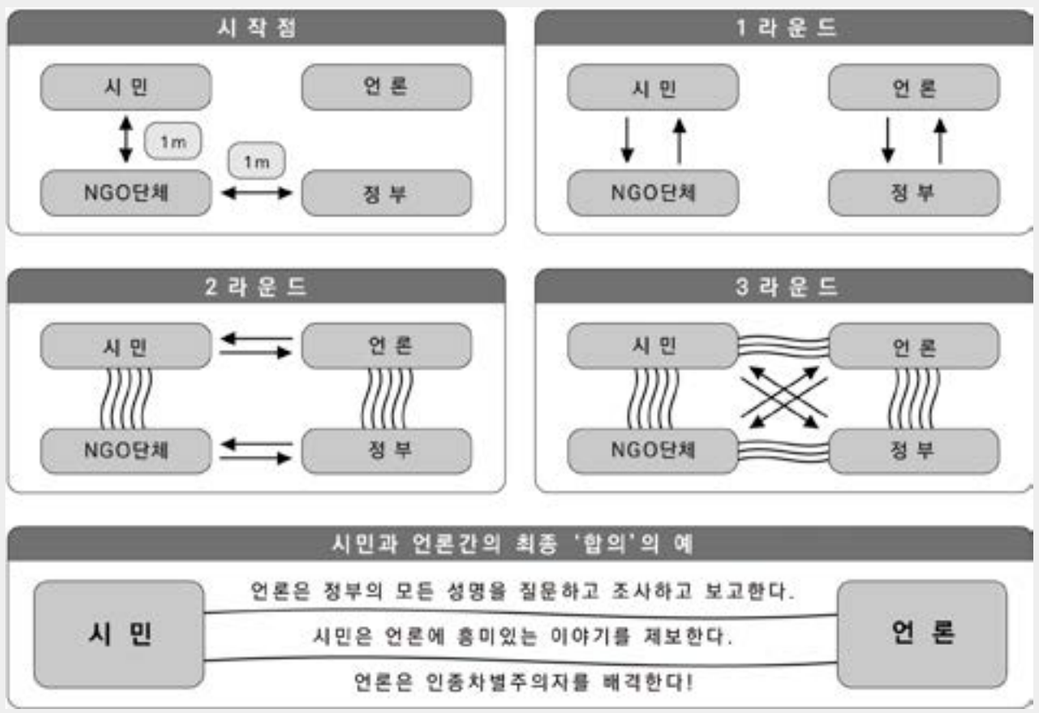
기 념 일

9월 15일
세계 민주주의 날

유인물

게임 규칙

1. 이 활동의 목적은 '행위자'가 각각 다른 '행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요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 협상은 "행위자"간 쌍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이 3 라운드로 진행된다.
   - 1 라운드: 시민과 NGO의 협상, 그리고 언론과 정부의 협상
   - 2 라운드: 시민과 언론의 협상, 그리고 NGO와 정부의 협상
   - 3 라운드: 시민과 정부의 협상, 그리고 언론과 NGO의 협상
3. 매 라운드에서, 행위자들끼리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차례대로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4. 요구사항을 전달할 때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 때 요구사항의 내용과 왜 이러한 요구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즉 이 요구사항이 상대 행위자의 역할 수행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납득시킨다.
5. 상대의 요구를 수락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요구하는 바가 공정한 것인지, 실행 가능한 것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
6.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요구자'의 털실 끈을 이어서 두 '기록지'사이를 접착테이프로 연결한다. 이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용한 모둠은 '기록지'에 파란색 펜을 사용하여 그들의 책임과 합의 사항을 간단하게 메모한다.
7. 만일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한다면, 털실은 옆으로 치워놓는다.
8. 모든 요구사항이 다루어질 때까지 협상을 계속한다.
9. 각 라운드에서, 네 부류의 '행위자' 간에 연결줄이 모두 형성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10. 과정이 끝나면, 이 연결 지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보여주게 된다.
11. 행위자 각각은 완성된 '기록지'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빨간색의 역할 목록, 초록색의 다른 '행위자'들의 요구, 파란색의 다른 '행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합의한 행동 목록이 적혀있다. 요구와 행동은 색실로 표현된다.



권리 빙고 !

당신은 인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주제 기본 인권

난이도 1단계

모둠 크기 8명 이상

시간 60분

개요 단순한 퀴즈와 빙고 게임을 응용한 활동이다.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관련 권리 모든 인권

학습 목표
- 보편적 인권과 인권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 배운다.
- 경청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 사람들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장려한다.

준비물
- 퀴즈 용지 1장과 필기구 하나(1명당)
- 차트용지, 마커

사전준비
- 큰 용지 혹은 차트 용지에 퀴즈 용지를 복사한다.
- 462쪽 세계인권선언(UDHR)과 466쪽 아동권리협약(CRC)에 제시된 기본권에 대해 숙지한다.

진행

1. 퀴즈 용지와 펜을 나누어준다.
2. 둘씩 짝을 짓게 하고, 짝에게 퀴즈 용지의 질문들 중에 하나를 묻게 한다. 답변의 핵심적인 단어만 간추려 해당 칸 안에 기입한다.
3. 다른 참가자들과 짝을 바꾼다.
4. 이 게임의 목적은 질문에 대해 각 칸의 답을 구하는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답을 받아내는 것이다.
5. 제일 먼저 모든 칸을 채운 사람이 "빙고!"라고 외친다.
6.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가진다. 첫 번째 칸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차례로 묻고 참가자들이 받은 답을 공유한다. 차트용지에 핵심단어를 적어나간다. 이 단계에서 짧은 논평을 허용한다.
7. 차트가 완성되면, 각 칸에 적힌 답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갖는다.

디브리핑과 평가

- 모든 질문이 인권과 관련되어 있었는가? 어떠한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가?
- 어떤 질문이 가장 답하기 어려웠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질문이 가장 논란이 많았는가? 왜 권리들이 논쟁의 여지가 많은가?
- 사람들은 인권과 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들은 해당 정보의 출처를 믿는가?

기 념 일

5월 8일
세계 적십자 및
적신월사의 날

촉진자용 팁

활동을 참가자들의 관심과 수준에 맞추기 위해 질문을 자유롭게 바꿔도 된다.

각 질문에 대한 참가자들의 답변을 기록할 때, 핵심단어만 적도록 한다. 차트의 요점은 다음 단계의 토론을 위한 것이다. 각 질문을 마치고 해석에서의 차이와 명확성을 위한 질문을 간단하게 받는다.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표시하여 두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참가자들은 그 사례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사람들에게 특정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으며, 이 정보의 사실성과 신뢰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사실 사람들에게 원칙에 따라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도록 격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어떤 대답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낙태는 생명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면. 일부 참가자들은 이 견해를 매우 강하게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학습 요점은 어떠한 쟁점이든 모든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지지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권리에 대한 견해와 해석의 차이가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 그들의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람은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 학습 요점은 인권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기에 우리가 인권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은 항상 진화하고 있으며 모두의 의견은 권리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에 모두를 위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명시되거나 결정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재평가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논쟁의 여지를 야기하는 한두 개 답변을 골라,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할 때 겪게 되는 현실의 딜레마에 대해 논의한다.

인권을 탐구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꽃의 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이 활동은 많은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정관념에 대한 것으로,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와 차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방식과 인권 측면에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다루어 볼 수 있다. 교육 패키지 [모두 다르고 – 모두 같다]에 있는 “뉴스 만들기”를 시도해본다.

유인물

퀴즈 질문지

인권 선언과 관련된 문서 제목	모든 아동이 가져야만 하는 특별한 권리	인권에 관련된 노래/영화/책
당신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	당신 개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는 인권	인권을 위해 싸우는 단체
우리 인권과 관련된 우리 모두가 가진 의무	차별의 예	때로 여성에게 거부되는 권리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	생명권 침해	사생활에 대한 권리 침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예
종종 청소년에게 인정되지 않는 인권	당신 나라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종종 침해받는 그룹이나 지역사회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 안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예

인권 일반

1단계

8 명 이상
(소모둠 4~5)

45 분

‘그림 연상’ 놀이

또한 화가가 아니라도 권리가 있어!

주제	기본 인권
난이도	1단계
모둠 크기	8 명 이상(소모둠 4-5)
시간	45 분
개요	인권에 관련된 단어를 묘사하는 그림을 창의적으로 그려보는 팀 놀이이다.
관련 권리	•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사상의 자유 • 존엄과 권리의 평동
학습 목표	• 세계인권선언(UDHR)에 대한 지식을 개발한다. • 소통과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 연대의식과 다양성의 존중을 촉진시킨다.
준비물	•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을 적은 벽걸이 차트 • 큰 용지와 점수를 기록할 마커 • 모둠 그림을 위한 A4용지와 펜, 팀 당 회별 당 한 장 • 그림 고정을 위한 스카치테이프나 핀
준비 작업	• 부록에 있는 세계인권선언 요약본을 참고하여, 큰 용지에 적는다. • 스스로를 위한 권리 점검표를 만든다.

진행

1. 참가자들에게 4-5명씩 모여 소모둠을 만들고 각 모둠마다 이름을 선택하도록 한다.
2. 팀별 경쟁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팀당 한 명씩에게 세계인권선언의 조항 하나를 주고, 그려보도록 한다. 팀 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맞힌다. 제일 먼저 알아맞힌 팀이 한 점을 얻는다. 마지막에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팀이 승리한다.
3. 각 팀에게 종이와 연필을 나눠주고 팀끼리 둘러 앉아서 작업할 공간을 찾도록 한다. 팀별로 따로 앉아서 서로 소리를 엿듣지 못하도록 한다.
4. 각 팀에서 한 사람씩을 부른다. 당신이 가진 목록에서 하나의 권리를 알려준다. 예들 들면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5. 자신의 모둠으로 돌아가서 그 권리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다른 사람들은 추측으로 그림이 표현하는 권리를 알아맞혀야 한다. 모양이나 이미지 외에 숫자나 단어는 들어갈 수 없다. 맞는 답을 확인해주는 외에는 말은 하지 못한다.
6. 팀의 나머지 사람들은 추측한 사실만을 얘기한다. 질문은 할 수 없다.
7. 매 회를 마친 후, 그림을 그린 모두에게 그림을 마친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무슨 권리를 그린 것인지 그림에 적게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 쪽에 모은다.
8. 두 번째 회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다른 권리를 주도록 한다. 이것을 7~8 회 한다. 매 회 다른 사람이 그리도록 한다.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 그리도록 한다.
9. 마지막에는 모둠의 그림들을 벽에 붙여 서로 다른 권리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이미지를 비교하고 토론해 본다.

기 념 일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디브리핑과 평가

활동 자체를 검토하고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

- 인권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이 기대보다 쉬웠는가? 혹은 어려웠는가?
- 참가자들은 특정한 인권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어디에서 이미지를 따 왔는가?
-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 침해상황을 그렸다면, 자기 나라에서 이러한 침해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가?
- 권리에 대한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같은 개념을 묘사하고 해석하는 데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는가?
- 모든 그림들을 살펴본 후에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인권에 대해 얼마나 많은 (또는 적은) 인권을 찾아냈고 알고 있는지 질문한다.
- 참가자들은 인권이 자신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가? 어떤 참가자가 그렇게 여기는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 전에 촉진자는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인권의 의미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권은 국제적으로 보장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 존엄성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과 집단으로서의 인간을 보호하고, 인권은 빼앗길 수 없고, 평등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보편적임을 보장받는다.

벽보 차트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참가자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면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차트를 사용하여 그들이 추측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갖도록 한다. 만약 참가자들이 내용을 좀 더 알고 있다면 마지막에 제기되지 않았던 권리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차트를 활용한다.

자신이 그림 솜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술 작품을 원하는 게 아니니 모두 다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인권을 찾아보기 위해서 세계인권선언 요약본을 참조한다. 생명권, 고문에서 자유로울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적을 가지고 유지할 권리, 사상과 종교의 자유, 투표권, 노동권, 건강권, 사유재산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 등이다.

응용

만약 전체가 8명 이하라면 한 모둠으로 놀이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 사람이 첫 회에서 그림을 그리고 다음 회에 누군가가 맞추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림을 그리는 대신, 참가자은 선택된 권리에 마임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98쪽 “꽃의 힘” 활동 또한 권리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오는 지를 탐구하는 데 그림을 사용한다.

모둠이 창조적인 활동에 재미를 느낀다면, 183쪽 “몸으로 표현하기” 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이 활동은 인권의 일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마임을 사용한다.

특정 그룹에 관련된 권리를 돌아보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장애인 인권의 경우, 122쪽 “능력을 보라!” 활동을 사용해본다.

인권 일반

종교와 믿음

아동

2단계

제한 없음
(소모둠 3-4)

80분

꽃의 힘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서 시작한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속담

주제
- 기본 인권
- 종교와 믿음
- 아동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소모둠 3-4)

시간 80분

개요 이 활동의 마지막에 모둠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꽃들로 구성된 벽을 만들게 된다. 이 창조적 활동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토론으로 이끌게 된다: 인권이 뭔지, 왜 있어야 하는지,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관련 권리 모든 권리

학습 목표
- 인간의 욕구, 개인의 행복, 인권간의 연계성에 대해 이해를 발전시킨다.
- 반영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 다양성에 대한 연대와 존중을 강화한다.

준비물
- 모든 그림을 걸 수 있을 정도의 벽 공간
- 1명당 1자루의 연필, 지우개, 함께 사용할 유색 마커
- 스카치테이프
- 플립 차트와 마커

준비작업 1명당 1부씩의 유인물 사본을 준비한다.

진행

본 활동은 인권에 대한 토론으로 발전되며, 인간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1부: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기

1. 인간으로서 온전하다고 느끼려면 일정한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기본적 생존을 위해 우리 모두는 음식과 물, 수면과 숨쉬기 위한 공기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안전이 필요하다: 개인적 안전, 재정적 안전과 건강이 해당된다. 우리는 또한 사랑과 소속감이 필요한데, 우정, 친밀함, 가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또한 존중감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고 소중하게 대해준다고 느끼는 것과 우리 자신의 온전한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2. 참가자들에게 저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필요를 나타내는 꽃을 그리라고 말한다. 꽃에는 다음의 8개 꽃잎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기본적 필요
   - 개인 안전
   - 재정적 안전
   - 건강
   - 우정
   - 가족
   - 자존감
   - 개인적 성취감

   꽃잎의 크기는 8개의 필요가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맞추도록 한다. 플립차트에 예시를 그리되, 이것은 단지 예시에 불과하며 그래서 사람들의 꽃은 각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종이, 펜, 컬러 마커를 나눠주고, 각 참가자에게 주변에 여백을 남겨두고 종이 중앙에 자신만의 꽃을 그리도록 한다. 여기에는 맞고 틀리거나, 좋고 나쁜"답"이 없다; 모든 이의 꽃은 각기 독특한 것이다.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지 않도록 한다. 이 단계를 위해 10분을 준다.

4. 이제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온전한 인간으로 꽃피고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러한 조건을 나타내는 잎을 그리고 그 위에 핵심 단어를 쓰도록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10분을 준다.

5.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전시를 위해 작업물을 벽에 붙이도록 한다.

2부: 인간 필요를 인권에 연결하기

6. 참가자들에게 그 꽃들을 볼 시간을 준다. 이어서 3-4명으로 소모둠을 나누어, 다음 질문에 대한 토론을 한다:
   - 인권과 꽃과 잎과의 관련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 그 관련성은 무엇인가?
   - 인권은 중요한가? 왜 그런가?
   - "인권"이라는 말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 각 모둠에게 의견을 달라고 하고, 이어서 디브리핑과 평가 단계로 넘어간다.

디브리핑과 평가

활동에 대한 짧은 리뷰로 시작하고, 이어서 소모둠 토론을 리뷰하고 참가자들이 인권에 대해 배운 바를 찾아본다:

- 이 활동을 즐거웠는가? 왜인가? 아니라면 왜 그런가?
- 꽃잎의 크기를 정하기 어려웠나? 충족된 삶을 위해서 8가지 필요 모두가 중요한가?
- 꽃잎에 나타나지 않았던 필요가 있는가? 즉 추가 하고자 하는 꽃잎이 있는가?
- 꽃 중앙에 무언가를 쓴 이는 있는가?
- 다른 사람들의 꽃잎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놀랐는가? 이러한 점이 인권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손상된 꽃잎을 가진 개인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 다른 꽃잎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참가자들은 나뭇잎에 무엇을 썼는가?
- 나뭇잎에 쓰여진 것과 인권에 대한 생각 사이에 관련성은 있는가?
-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배운 바는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인권과 관련되는가?
- (당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꽃피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권이 가장 필요한가?
- 다른 인권에 비해 어떤 인권은 더 중요한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왜 경계해야 하는가?
- 인권을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기존 인권협약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니즈가 있는가?

촉진자용 팁

아래에 그려진 꽃은 단지 예로만 제시된 것이다. 참가자들이 각 꽃잎을 얼마나 크게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기 다른 부분에 대한 색 선택 또한 개인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꽃 중심에 주의를 두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떠오른 핵심적 중요한 무언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더 많은 꽃잎을 그리는 것도 비슷한데, 문화적 안전, 삶의 모든 면에서의 선택 자유, 분배의 공정성, 참여, 정체성, 종교와 믿음 등이 예가 되며,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전개한다. 각각의 경우에서, 필요간의 관련성,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충족되었을 때의 장점, 그리고 어떻게 인권법과 문서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를 도출해본다.

4단계에서 사람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나뭇잎들이 햇빛, 물, 이산화탄소에서 꽃으로 영양을 공급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 금융시스템, 노조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세계인권선언(UDHR) 제23조에서의 '일할 권리'를 더할 수 있으나, 참가자 스스로 인권과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의 필요와 인권사이의 연결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충족되는 세상을 위해 인권이 어떻게 기초가 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둠에서 462쪽 세계인권선언 서문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한다. 여기에는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로서 인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 평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개념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언론과 믿음의 자유, 공포 및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일반 대중의 가장 높은 열망으로 묘사하고 있다.

응용

이 활동을 줄여서 하려면, 1-4단계를 하고 전체 모둠으로 인권에 대한 일반적 토론를 이어가면 된다. 이러한 응용은 개념적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워하는 어린 참가자들에게 적합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다른 크기의 꽃잎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은 인권과의 관련성을 찾은 것을 다소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찾아낸 인간의 어떤 필요를 어떤 인권이 보호하고 있는 지를 찾아보도록 활동을 확장할 수 있다. 462쪽 세계인권선언 요약본을 활용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인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새로이 제기되는 권리'들을 참가자들이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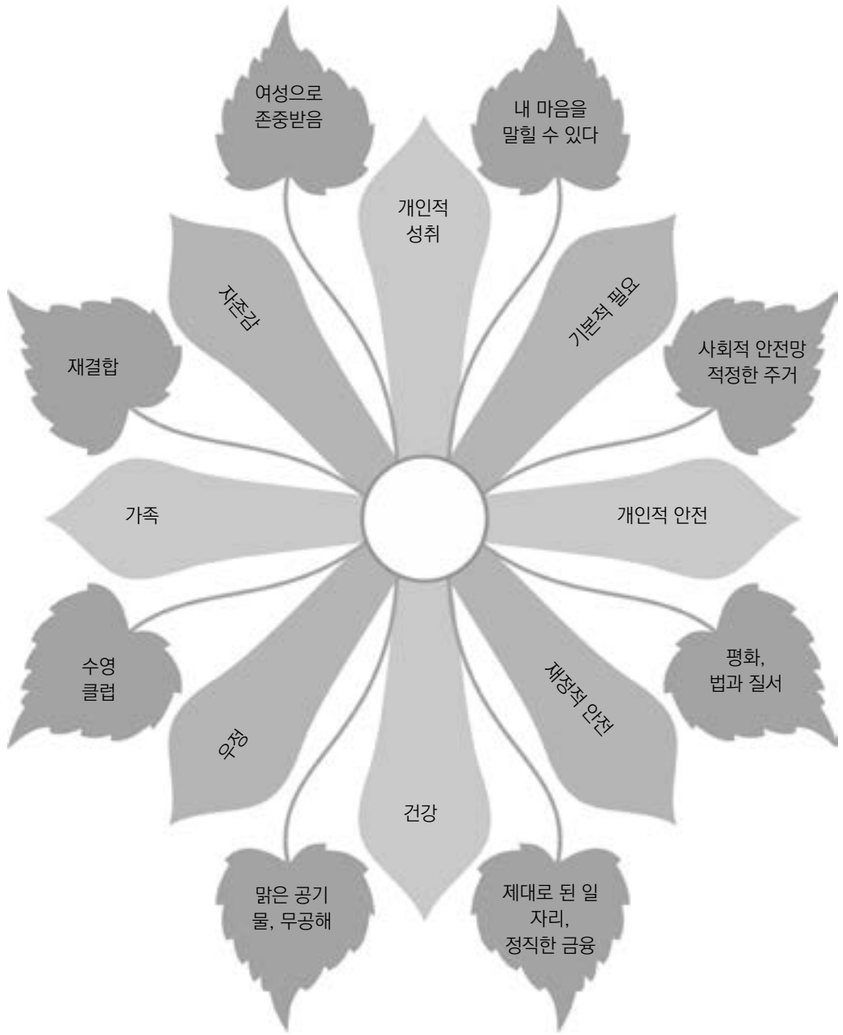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222쪽 '신자들'이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탐구해 보는 것도 좋다. 또는, 일상생활과 인권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93쪽 '권리 빙고!'를 좋아할 수도 있다. 새롭게 제기되는 권리에 관심이 있다면, 환경에 대한 권리를 돌아보는 218쪽 '손가락들'이 있다.

실천 아이디어

참가자들이 인권에 대한 토론을 위해, 자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과 이 활동을 하자고 제안한다.

추가 정보

이 활동에서 사용된 충족된 인간이 되기 위한 필요라는 아이디어는 매슬로우(Maslow), 그리고 그리핀과 티렐의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Human Givens)에서 나온 것이다. 기본적 필요는 우리 몸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개인 안전은 주거지(집, "지붕이 있는 곳")를 갖고 강도나 갱단, 전쟁이나 테러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적 안전은 당신이 실직하더라도 안전망이자 적절한 생활수준을 위한 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은 좋은 건강상태와 함께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정은 모임이나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친구와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가족은 강제로 가족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하는 일 둘 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고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잠재력을 충족시키는 것을 "자기실현"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사용하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위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 념 일

5월 28일
유럽 이웃의 날

젠더

자별과 불관용

종교와 믿음

2단계

8 명 이상

25 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타인과 맺은 모든 관계로서의 존재다.

알버트 재쿼드

주제	• 젠더 • 차별와 불관용 • 종교와 믿음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8 명 이상
시간	25 분
개요	이 단원은 버즈 모둠, 브레인스토밍, 그림 그리기, 모둠 토의를 통해 정체성 문제를 탐구하는 활동이다.
관련 권리	•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생명권, 자유와 개인 안보를 누릴 권리
학습 목표	• 정체성 개념의 이해증진과 자기인식의 확장 •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한다. • 연대와 존중을 촉진시킨다.
준비물	• 유섹 펜과 유색마커, 가능하다면 참가자마다 다른 색으로 준비한다. • 1명당 종이 1장. • 차트용지, 유성마커

진행

1. 가벼운 준비활동으로, 2명씩 버즈 모둠(buzz group)을 구성한다. 서로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로에게 자신을 소개하도록 한다.
2.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이 흥미롭거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이어서 그 정보의 일반적인 범주를 브레인스토밍 한다. 예를 들면, 이름, 성별, 국적, 가족관계, 종교, 나이, 젠더, 민족성, 직업, 학력, 음악적 취향, 취미, 스포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이 있다.
3. 이제 참가자들은 서로 얼마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종이와 펜을 나누어 준다. 첫 번째 단계로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형을 그린다. 자신을 별이라고 생각한다. 별에서 나가는 광선은 사회를 향해 뻗어가는 자기 정체성의 한 단면이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단면을 8개에서 10개까지 생각해서 별을 그리도록 한다.
4.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별'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도록 한다. 자신과 같은 광선을 가진 사람을 찾았다면, 자신의 광선 옆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쓴다. (예를 들어 만약 연우와 은우가 "래퍼"라는 광선을 가지고 있다면 각자 자기의 별에 있는 '래퍼' 광선 옆에 서로의 이름을 쓴다.) 이 활동은 15분간 진행한다.
5. 이제 전체로 모여 서로의 개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어떠한 면이 공통적이었고 어떤 것이 독특했는가?
   - 서로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 사람들은 서로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은가?
6.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선택한 정체성의 측면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측면을 브레인스토밍 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차트용지에 2줄로 쓴다.

디브리핑과 평가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서로에 대해 발견한 것은 무엇인지, 인권의 함의는 무엇인지 토론을 진행한다.

- 참가자들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그들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는가?
- 별을 서로 비교한 결과에 놀랐는가? 스스로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간의 공통점이 있었는가?
- 참가자들 사이의 다양성에 대해 모두 어떻게 느꼈는가? 다양성으로 인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즐거워졌는가? 아니면 더 어려워졌는가?
- 다른 참가자들이 강하게 거부감을 표현하며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예를 들면 "난 축구팬이 아니다, 테크노 음악의 팬이 아니다,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동성애자가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등과 같은 정체성의 단면이 있었는가?
- 정체성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어떠한 면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어떠한 면이 타고난 것인가?
- 성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단면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어떠한 면이 태생적인 것인가?
- 참가자들은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쓰는가?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이 모두 동등하다는 의도인가?
-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평가받는가? 자신이 소속된 집단으로 평가받는가?
-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자유로운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 특히 평등과 존중에 관한 인권에 있어서 그것의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의 이름은 틀린 것이 아니다. 참가자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이다. 만일 이 게임을 수행하는 동안 배경음악을 원한다면 프랭크 자파의 노래 "현재의 자신이 바로 당신이다"를 활용할 수 있다.

준비활동 시, 참가자들에게 권리 광선을 쓸 수 있다는 조언을 주도록 한다. 당신 자신을 예로 들어주거나, 다음과 같은 상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활용한다.

각 참가자들에게 서로 다른 색깔의 펜을 지급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독특하고, 참가자들이 정체성의 무지개로 이루어져있다는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이다. 참가자 수가 많다면 2-3명 정도는 같은 색을 써야 한다. 대신 글씨체를 다르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원한다면, 이 활동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본다. 자신만의 별을 만들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사적이라고 느끼는지, 공적이라고 느끼는지에 따라 광선을 길게 또는 짧게 그려본다. 광선이 길수록 사회에 더 깊숙이 도달하며 공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6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도중 다음 몇 가지 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

-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체성의 단면: 이름, 친구, 직업, 소속정당, 좋아하는 음악, 옷 입는 스타일, 지지하는 축구팀, 사는 곳
- 내가 가지고 태어난 정체성의 단면: 성별, 나이, 키, 눈 색깔
- 다음과 같이 논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정체성의 단면도 있다. 국적, 성정체성, 종교, 소수자 모둠의 회원

기 념 일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체성의 어떤 면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며 어떤 면이 생태적인 것인가에 대한 토론, 특히 종교와 성에 관련된 측면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신이 성장해온 과정을 돌아보고, 자신의 정체성의 단면들이 수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가능하면 이미 확립되었다고 생각하는 정체성의 측면까지 고려해보도록 한다.

토론을 통해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낸다. 예로 들면, 인종, 피부색, 재산, 태생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양도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을 가진 인간이다.

응용

진행의 3번째 요점에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별 중앙에 별의 자식으로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거나 자신의 사진을 붙이도록 한다.

만일 별에 이름이 빠져있다면 참가자들이 어느 별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추측해본다.

추가 정보

유럽평의회의 교육 패키지 [모두 다르고 – 모두 같다]는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풍부한 정보와 더 많은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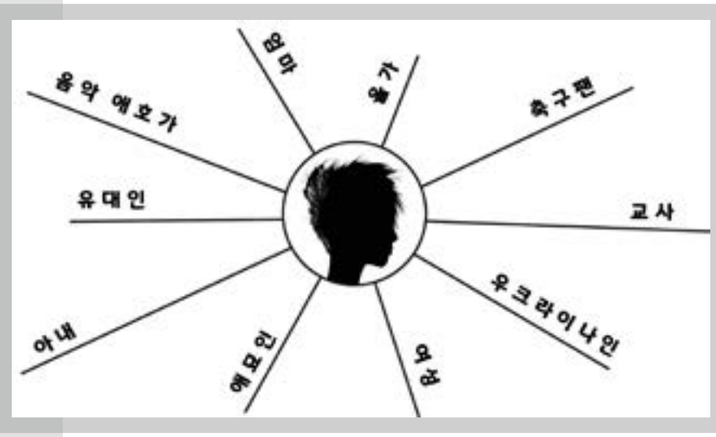
이러한 활동을 친구, 동료 및 가족과 해본다.

이 활동은 여러 다른 토론을 하기 전에 맛보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인권의 보편성, 차별과 외국인 혐오, 아동의 권리와 시민권에 관한 질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체성과 젠더의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251쪽 '여자 영웅과 남자 영웅' 활동을 단원을 추천한다.

만일 정체성 토론에서 개인의 존엄 평등권과 일반적인 인권으로 이동하기를 원한다면 96쪽 '그림 연상 놀이' 활동을 제안한다.

만일 모둠이 다문화적이어서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서로 다른 문화에 관한 호기심을 고취시키고 싶다면 교육 패키지 [모두 다르고 – 모두 같다]의 '나의 이야기'라는 훌륭한 후속 활동이 있다.



내 삶은 쇼가 아니다!

몽둥이와 돌멩이는 내 뼈를 부러뜨릴 지도 모른다 – 그리고 말 또한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1]

주제
- 미디어
- 평화와 폭력
- 교육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4–30명

시간 90분

개요 이 활동은 일반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폭력, 특히 사이버 집단괴롭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목적하고 있다.

관련 권리
- 사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사생활, 가족, 가정과 통신에 대한 간섭으로 부터의 자유
-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

학습 목표
- 휴대폰과 인터넷을 사용한 폭력 행위에 대한 인식 증진
- 창의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 "사이버 범죄"와 싸우는 방법 모색
- 공감과 연대감 높이기

준비물
- 플립차트와 필기구
- 진술 문장 목록
- 바닥에 길게 줄을 표시할 테이프나 끈

준비 작업 촉진자용 팁을 읽고 사이버집단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폭넓게 알아본다. 자기 나라에서 사이버집단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에 대한 기본적 아이디어를 찾아본다.

진행

1. 집단괴롭힘에 대한 간략한 브레인스토밍으로 시작한다. 참가자들에게 집단괴롭힘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몇 분간 생각할 시간을 준다. 그런 후 그들의 답변을 모아 플립차트에 적는다.
2. 이번에는 사이버집단괴롭힘이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는 지에 대해 같은 작업을 새 플립차트 종이로 진행한다.
3. "예스 라인"이라고 부르는 선을 바닥에 테이프나 끈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참가자들에게 "예스 라인" 양쪽으로 두 줄로 서도록 한다.
4. 사이버집단괴롭힘에 대한 몇 가지 진술 문장을 읽어준다.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답해야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진술 문장에 "예"라고 답하기 위해 "예스 선"으로 한 발짝 다가서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정직하게 반응해야 한다.
5. 첫 진술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준다.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반응할 시간을 준다. 그 후, 둘러보고 "예스선"에 얼마나 많은 이가 있는지 메모하도록 한다.
6. 사람들에게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하고, 다음 문장을 읽어간다.
7.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동그랗게 모아서 디브리핑과 평가를 진행한다.

[1] "몽둥이와 돌멩이는 내 뼈를 부러뜨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로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말은 미국 노예제 시기 종종 노예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 생각은 감독관이 당신에게 단지 욕을 하고 굴욕적으로 부르더라도, 그의 잔인한 채찍질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이었다.

디브리핑과 평가

진술과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이어서 여러 종류의 집단괴롭힘이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이 활동 전 사이버집단괴롭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 모든 진술 문장이 사이버집단괴롭힘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했나? 왜? 아니라면 왜 그런가?
-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이버집단괴롭힘은 있는가?
- 자기 나라, 지역사회에서 사이버집단괴롭힘은 얼마나 흔한 일인가?
- 사이버집단괴롭힘은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가?
- 사람들은 왜 집단괴롭힘을 하는가? 사람들은 왜 피해자가 되는가?
- 피해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간혹 다른 이를 괴롭히는 것은 왜 그런가?
- 사이버집단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무엇읋 할 수 있는가? 피해자들이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가?
- 사이버집단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사람들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위태로운 인권은 무엇인가?
-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는 제한이 있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제한의 결과는 무엇이며, 누가 제한을 정해야 하는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촉진자용 팁

집단괴롭힘과 사이버집단괴롭힘은 민감한 사안이며 누군가는 그 나쁜 경험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감정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데,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 지를 완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집단괴롭힘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스스로 잘 준비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지를 고려한다.

집단괴롭힘에 대응하는 예는 아래와 같다:

- 협박 또는 모욕적인 메시지에는 회신하지마라.
- 블랙리스트 이메일 계정을 만든다.
- 이메일 주소를 바꾼다.
-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를 바꾼다.
- 휴대폰 번호를 바꾼다.
- 욕설 메시지를 증거물로 보관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문제를 의논한다. 당신이 아동이라면, 적절한 시점에 어른과 상의해야 한다.
- 어떤 상황에서는 집단따돌림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다. 중재자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들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고자 한다.
- 어떤 경우에는 지역 경찰서에 알리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괴롭힘을 괴롭힘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당신에 대한 민사나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컴퓨터 연결 시간을 제한한다 – 항상 온라인으로 두지 않는다.
- 모르는 출처의 이메일은 절대 열지 않는다.
-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꾼다.
- 프로필에 많은 개인 정보를 넣지 않는다.

참가자들이 이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하거나 목격한 때마다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우선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고 일단 일어나면 이를 막는 열쇠이다. 메카니즘은 복잡하고 각 사례별로 원인이 다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작동시키는 사회적, 심리적 영향 요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수줍고, 예민하고, 불안하고, 자신 없을 수 있고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피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신체적 특징은 과체중, 작은 키, 장애가 있거나 다른 인종. 종교 또는 다른 사회 집단에 속해있다.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에서 자신이 더 우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한자면, 그들은 이러한 일이 인기 있거나 “멋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집단괴롭힘은 또한 주의를 끌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그들이 질투하는 이를 벌주는 방식이기도 하다.

응용

집단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집단괴롭힘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책무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술 문장을 읽은 후, 같은 진술 문장에 근거해서 괴롭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두 번째 라운드를 진행한다. 사람들이 “예스선”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줄에 서서 숙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을 열어본 적이 있는가?”, “동의 없이 다른 이의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이다.

집단괴롭힘이 사회적으로 인식된 문제라면, 해당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루어도 좋다. 토론연극은 집단괴롭힘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을 소모둠으로 나누어 집단괴롭힘의 실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한다. 자신이 경험했거나 아는 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각 모둠은 진행할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괴롭히는 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추정해보도록 하고, 집단괴롭힘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 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어서, 모둠은 이러한 활동 내용을 다른 모둠에게 보여줄 짧은 연극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공연을 마치고, 마지막 장면인 “결과로서 일어난 일”을 다시 보여주고, “관중”에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행동에 대해 제안해 달라고 요청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사이버집단괴롭힘 방지 캠페인을 위한 슬로건을 만든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동아리에서의 사이버집단괴롭힘 방지 정책을 만들거나, 이미 있는 정책을 검토한다.

109쪽 ‘내 삶에서의 폭력’ 활동을 통해 폭력의 다른 면을 탐구할 수도 있다.

실천 아이디어

위에서 제시한 두 번째 응용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다른 반이나 청소년 동아리나 부모들에게 연극을 보여준다.

많은 교사와 보호자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클럽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위험과 남용에 대한 지역 정보 캠페인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러한 캠페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추가 정보

사이버집단괴롭힘은 이메일, 문자, 채팅, 호출기, 휴대폰, 기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 들이 포함될 수 있다:

기 념 일

2월 둘째 화요일
안전한 인터넷의 날

- 협박하기
- 도발적인 모욕이나 인종 또는 민족적 비방하기
- 동성애자 맹비난하기
- 피해자의 컴퓨터에 바이러스 심기
- 이메일로 말도 안 되는 메시지 쏟아 붓기
- 어떤 사람을 직접 해하거나 또는 명예를 해칠 목적으로 관련 정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유포하기
- 누군가를 부추겨 데려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놀리기
- 누군가인척 가장하여, 자신이 믿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보이도록 가장하기
- 당사자의 허락 없이, 특히 난처한 상황의 사진을 공유하기.
-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이메일 공유하기
-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를 제외하도록 다른 이에게 압력을 가하기
- 고약하고, 비열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기

사이버집단괴롭힘은 종종 아동들이 행하곤 하지만, 아동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사이버집단괴롭힘을 퇴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가해자가 익명이라는 점으로 추적하기 어렵게 한다.

사이버집단괴롭힘을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는 많이 있다. 검색을 통해 지역 기구들을 알아보라. 다음의 웹 사이트에서 일반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http://www.stopcyberbullying.org/
- http://yp.direct.gov.uk/cyberbullying/
-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

사이버범죄에 대한 유럽평의회 협약

이 협약은 2004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인터넷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 검퓨터 관련 사기, 아동 포르노, 네트워크 보안 위반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 검색 및 개입과 같은 일련의 권한과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다. http://conventions.coe.int 에서 조약번호 185번을 검색한다.

진술문

- 당신이 동의 없이 당신의 이메일을 열어본 사람이 있는가?
-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문자(SMS) 메시지를 읽은 사람이 있는가?
- 누군가 모욕적인 문자, 불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당신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는가?
- 당신의 동의 없이 누군가 당신의 정보 / 사진 / 비디오를 보낸 적이 있는가?
- 당신의 동의 없이 누군가 당신이 관련된 사진이나 정보를 웹사이트나 사회관계망에 올린 적이 있는가?
- 당신의 동의 없이 누군가 당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조작하거나 변형한 적이 있는가?
- 다른 누군가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
- 대화형 게임이나 채팅에서 누군가 당신을 모욕한 적이 있는가?
- 악의적이거나 방해가 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가?
- 당신의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람이 있는가?
-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당신에 대한 허위 / 악의적인 / 소문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 사이버집단괴롭힘의 피해자를 알고 있는가?
- 이런 종류의 폭력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내용에 대해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옳은가?

내 삶에서의 폭력

3R을 지켜라: 자신에 대한 존중(Respect), 타인에 대한 존중(Respect),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감(Resonsibility)

달라이 라마

주제	• 평화와 폭력 • 전쟁과 테러 • 건강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
시간	90분
개요	대인폭력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활동이다.
관련 권리	• 생명권, 자유권 및 개인 안보권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고문 및 굴욕적인 대우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 목표	• 폭력의 대상 그리고 폭력의 원인이 되는 것에 관한 지식과 이해의 개발 • 폭력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킨다. • 관용과 책임의 가치를 발달시킨다.

진행

1. 이 단원은 참가자들이 폭력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에 관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기회임을 설명한다. 여기에서의 폭력이란 참가자 본인이 폭력을 가했거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 모두를 말한다.
2. 조별활동의 규칙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조별활동을 할 때는 모든 조원은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말하는 내용은 비밀로 하고, 누군가를 언짢게 할 수 있다는 압박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3. '폭력' 이라는 단어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일상의 폭력에 대한 실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테면 욕설, 모욕, 빈정댐, 새치기, 불쑥 끼어들기, 어린이에 대한 폭행, 집단 협박, 절도, 좀도둑질 또는 소매치기, 공공기물 파괴 등
4. 다음의 개인적인 사건들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보도록 5분의 시간을 준다.
   a. 누군가 자신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했던 기억
   b. 자신이 누군가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했던 기억
   c. 누군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으나 개입하지 않았던 기억
5. 모둠이 함께 고려해 볼 자신의 경험 사례를 제시할 지원자를 찾는다.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느꼈는지 말하게 한다. 가, 나 및 다의 각 범주의 사례를 2개씩 확보하도록 한다.
6. 플립차트에 그 사건에 대한 간략한 메모를 써 놓는다.

디브리핑과 평가

본 활동 전체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하며 시작한다. 활동이 어렵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이어서 다양한 사건들의 원인과 효과를 분석한다.

- 폭력적인 상황은 왜 발생했는가?
- 당신은 왜 그런 방식으로 행동했는가?
- 유사한 상황에서 모둠의 다른 구성원은 어떻게 행동하였겠는가?
- 당신은 다르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모둠의 나머지 구성원은 어떤 제안이 있는가?
-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
- 상황 C의 경우, 왜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는가?
- 그 사건의 일반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또는 그 사건들은 모두 독특한가?
- 얼마나 많은 사건이 오해나 고통, 악의 또는 질투의 결과로 일어나는가? 얼마나 많은 사건이 문화나 관습, 의견이나 믿음의 차이로 발생하는가?
- 관용의 의미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 다른 이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 무조건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 관용이 인권의 증진을 위한 핵심가치인 이유는 무엇인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의 목적이 폭력의 원인을 인지하고 그 느낌과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폭력에 대처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초점은 폭력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비폭력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지 개인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폭력을 겪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를 도와 전문 상담가를 찾아줄 수 있을 때에는 그 후에야 당신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말해준다.

놀라움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 활동이 어렵다거나 당혹스러워하는 사람을 지원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배경을 알 수 없거니와 그들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났는지도 알 수도 없다. 어떤 참가자는, 예를 들면 아동학대, 가정폭력, 심리적인 또는 감정적인 학대, 사이버 폭력, 성적학대, 인종차별, 학교 또는 직장에서 집단괴롭힘, 운전자 폭행, 자해, 자살시도, 증오범죄, 테러, 집단학살, 전쟁, 전쟁범죄 및 폭력 범죄와 같은 폭력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상기시킨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따라 서로 행동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 조항을 따르길 바란다면, 우리 자신도 또한 이 조항을 따라야 한다.

만일 모둠의 인권이 10명을 초과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작은 모둠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응용

좋은 연극 활동으로 응용할 수 있다. 2-4명의 참가자에게 사건에 대한 짧은 역할놀이를 하도록 한다. 나머지 참가자는 역할극을 관람한다. 역할극을 간간이 멈추고, 청중에게 역할극을 어떻게 계속해야 할 지 의견 또는 제안을 구한다. 또는 직접 개입해서 배우 역할을 넘겨받아 대안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토론연극 대신에 “영상극장”을 시연할 수도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폭력을 반영하기를 원할 때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조각가로 하여금 다른 참가자를 활용해서 그들의 신체를 조각해서 특정 장면 재현을 만들어 내거나 폭력 상황을 조각해서 총체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한다. 조각이 끝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견해를 밝히고 질문한다. 다음 단계는 그 제시를 긍정적이고 비폭력 이미지의 상황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관용의 한계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관용의 원칙에 대한 UN선언문의 모순을 토론해본다. “관용은 인권의 존중과 일치한다: 관용의 실행이 사회적 불평등 또는 자신의 확신의 포기나 약화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신을 고수할 자유와 타인의 소신 고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둠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도록 요청한다. 만일 “관용의 실행이 사회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동시에 “타인이 자신의 소신을 고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특히 그것이 인종차별주의 또는 심한 편견인 경우에는?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를 찾아본다. 예를 들면 전화 상담 서비스나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와 같은 단체를 찾는다. 또는 지역사회에서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찾아본다.

만일 평화와 폭력에 관한 주제를 계속 탐구해보고자 한다면 가정에서의 폭력을 살펴볼 78쪽 ‘가정사’ 활동을, 사이버 폭력에 관한 105쪽 ‘내 삶은 쇼가 아니다’ 활동을, 집단괴롭힘을 탐구한 264쪽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비폭력을 증진하기 위해 일하는 조직을 접촉 해보고, 자신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추가 정보

세계보건기구(WHO)는 첫 번째 폭력과 건강에 관한 세계보고서(2002)에서 폭력을 “자신과 타인에게 또는 모둠이나 공동체에 위협적이거나 실질적으로 물리적 힘과 능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부상, 죽음, 정신적 위해, 발육장애 또는 박탈감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정의했다.

관용의 원칙에 대한 UN 선언

제1조 – 관용의 의미

1.1 관용은 우리의 세계문화, 표현형태 및 인간적임의 방식의 풍부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정 및 공감이다. 그것은 지식, 열린 마음, 의사소통 그리고 사상, 양심 및 믿음의 자유에 의해서 발전된다. 관용은 다름에 있어서의 조화다. 그것은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법률적 필요조건이다.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덕목인 관용은 전쟁 문화를 평화 문화로 대체시키는 데 기여한다.

1.2 관용은 양보, 겸손 또는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관용은 무엇보다도 타인의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식에 의해 촉발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이러한 기본적 가치의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관용은 개인, 모둠 및 국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1.3 관용은 인권, 다원성(문화적 다원성을 포함하여), 민주주의 및 법의 규정을 옹호하는 책임감이다. 그것은 독단과 절대주의의 거부를 포함하며 국제인권 문서에서 제시된 기준을 지지한다.

1.4 인권의 존중과 일치하는 관용의 실행은 사회적 불평등 또는 자신의 소신을 포기 혹은 약화를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은 자신의 확신을 고수할 자유가 있고 타인이 자신의 소신을 고수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외양, 상황, 말, 행동 및 가치관이 본연적으로 다양한 인간이 평화롭게 있는 그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UN의 세계비폭력의 날은 교육과 대중의 인식을 통해 비폭력을 촉진시키는 세계 기념일이다. 그 기념행사는 유명한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생일과 일치하는 매년 10월 2일에 개최된다.

기 념 일

10월 2일
국제 비폭력의 날

평화와 폭력

세계화

미디어

2단계

제한 없음

60분

내일이 오면

이 체제가 당신을 판단했던 방법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드와이트 애더난두스

주제
- 평화와 폭력
- 세계화
- 미디어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

시간 60분

개요 이 단원은 다음의 쟁점을 탐구하기 위해 자료와 토론을 활용한다.
- 범죄로부터 사회 보호
- 범죄자의 인권
- 사형

관련 권리
- 생명권
- 고문과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존엄의 평등권

학습 목표
- 범죄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사형제의 함축된 의미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본다.
- 청취 능력과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개발한다.
- 인간 존엄성과 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

준비물
- 배포자료 '내일이 오면' 1명당 1부
- 큰 종이와 연필 1명당 한 자루
- 전체 회의에서 구성되는 요약을 정리하기 위한 전지나 큰 종이, 그리고 펜

진행

1단계

1. '내일이 오면' 1부를 크게 읽어준다. 다 읽었다면 이 글의 중요 요점을 5분 동안 정리하여 자신만의 표현 방법으로 종이에 쓰도록 한다. 이어서 옆에 있는 참가자와 종이를 교환해 읽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2. 몇 명의 참가자에게 자진해서 자신이 쓴 글을 읽도록 한다. 이어서 이들 글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을 기억했는가? 원래 이야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었는가?
3. 이 이야기에 대한 느낌을 묻는다. 이 글의 화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단계

4. 신문 기사와 내년의 이야기 중 2부를 읽어준다.
5.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과 새로운 글에 관해 10-15분 동안 토론한다. 참가자들이 본문의 요점을 되짚어가며 이야기하고자 할 경우 배포자료 '내일이 오면'을 복사해 나눠준다

6.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 드와이트와 내년이 사형수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참가자들의 의견이 바뀌었는가? 어떻게? 왜 그런가?
   - 드와이트가 말했던 "이 체제가 당신을 판단했던 방법으로 당신이 다른 이를 판단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에 동의하는가?
7. 이 질문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전체 토론을 시작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이 단원을 통해 심화활동이나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많은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의 촉진자를 위한 조언을 참고할 것)

- 이 활동을 통해 당신 자신에 대해 배운 것이 있는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의견이나 믿음을 재고하게 되었는가?
- 이 활동이 의도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활동이 목적을 달성했는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생명권에 관해 이 활동이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토론에서 제기된 또 다른 인권이 있는가?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논제들을 큰 종이나 차트용지에 정리해둔다.

촉진자용 팁

1부를 읽어준 후 있었던 첫 번째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두 남자의 처지에 대해 아무 힌트도 주지 않는 것이다. 두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감동을 끌어내도록 하되,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그 이유는 참가자들이 두 인물의 인간적인 면만 볼 수 있도록 하고 과거사나 그들의 처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1부의 1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자신이 쓴 글을 서로 바꾸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기억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마치 '시험'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강조한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글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한다. 오히려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용도로 이용한다. 다른 참가자와 글의 내용이 철저히 다른 경우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 왜 글의 내용이 이렇게 다른지, 이를테면, 왜 다른 사람은 빠뜨린 특정한 정보를 어떤 사람은 기억하는지에 대해 묻는다.

진행하는 동안 이 활동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슈를 파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토론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계속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토론이 사형제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 토론은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 우리와 국가, 모두는 그들이 저질렀다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해 그들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아마도 "국가가 드와이트와 내년을 판단하는 식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드와이트의 의중이었을 것이다 국가는 그들이 과거에 했던 일, 또는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을 근거로 그들에게서 인간이라는 칭호를 효과적으로 지워버렸다.
2. 소위 '상습적인 범죄자'조차도 그들의 타고난 인간성-드와이트가 언급했던 동정심이나 친절함 뿐 아니라 내년이 유폐의 결과를 묘사했던 절망과 우울함 또한 가지고 있다.

'생명권'에 관해 토론할 때는 토론이 '이 두 사람이 여전히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람은 어떻게 생명권을 상실하는가'를 중심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들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

기 념 일

10월 10일
세계 사형제 반대의 날

"세계를 뒤흔든 노래 11" Songlines (World Music Magazine, 2009년 3월호)에서 인용

Free Nelson Mandela – Jerry Dammers and The Special AKA
From Little Things Big Things Grow – Kev Carmody and Paul Kelly
Get up, Stand up – Bob Marley
Gracias a la Vida – Mercedes Sosa
Al Atlal – Oum Kalthoum
Biko – Peter Gabriel
Didi – Khaled
Imagine – John Lennon
Zombie – Fela Kuti
Nkosi Sikelel' iAfrika – a Methodist hymn, composed by Enoch Sontonga in 1897
Djelem Djelem – the Roma anthem, composed by Jarko Jovanovic on a traditional Romani melody.

주

"내일이 오면" 전문은 CADP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캐나다 연대) 웹사이트에서 발췌하였음. http://www.ccadp.org.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노래는 항상 사람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강력한 도구가 되어왔다. 모둠은 자유와 정의를 위한 노래를 듣거나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를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줘도 좋다. 우리의 제안은:

- 〈데드 맨 워킹〉 -팀 로빈스 감독, 1995. 사형수의 친구가 되어준 헬렌 자매의 이야기에 대한 미국 영화다.
- 〈십계 5: '살인하지 말라'〉 -크쥬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 1988. 주연은 20세 청년으로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국가가 그를 야만적인 방법으로 처형했다. 그 드라마는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도 죽임을 당해 마땅하지 않다고 보여준다.
- 〈심연 속으로〉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 2011. 사형수 수감자 마이클 패리와 범죄 피해자들간의 대화를 다루고 있으며, 왜 사람과 국가가 살인이라는 처형을 집행하는 지를 다루고 있다.

제시카 블랭크와 에릭 젠슨의 희곡 〈무죄판결〉(The Exonerated)와 같은 연국의 희곡을 읽어보거나 연극를 해볼 수도 있다(theexonerated.com). 이 연극은 일인칭의 독백과 법정 그리고 형무소 장면을 바꾸면서 미국 형사법정 제도가 끔찍하게 잘못한 6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는 내용이다.

이 단원의 마지막에 제기된 쟁점을 연구해본다. 형식을 갖춘 토론회를 조직해보거나, '선거운동' 방법을 이용한다. 주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처벌: 범죄자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사형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또는 범죄자들을 교화하기 위함인가? 복수인가 죄의 응보인가?
- 사형제: 사형제에 대한 찬반 주장은 각각 무엇인가?
- 국가 안보 대 개인의 안전: 극악한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를 다룸에 있어 정부가 가진 한계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국가 안보를 근거로 개인에 대한 고문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아동인권과 관련해서 사형에 관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아동이 사형선고를 받고 있으며 사형이 집행되기도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청소년 사형수'를 검색 엔진을 입력하고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검색할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사형제에 반대하는 캐나다 연대(CCADP, Canadian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의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수형자들의 글을 더 읽어본다. (www.ccadp.org) 또 사형수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편지를 써본다. (CCADP 웹사이트에서 펜팔 정보를 찾아보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지부에 연락한다.)

내넌 윌리엄즈(Nanon Williams)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아직도 살아가는(still surviving)"을 찾아본다.

www.nawisa.ch에서 내넌 윌리엄즈에 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고 그의 사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추가 정보

유럽평의회는 사형제 폐지를 회원자격의 전제 조건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1997년 이후 회원국 영역 내에서는 사형집행이 발생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아무도 사형집행을 당하지 않은 첫 해는 2009년이다. 그러나 2010년 3월 벨라루스는 2명을 사형집행 했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의 웹사이트 www.amnesty.org에서 국제 사형제폐지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사형선고와 집행 2014'에 따르면 2014년에 55개국에서 최소 2,466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것은 57개국에서 1,925명의 사형선고를 기록한 2013년과 비교해서 23%의 증가를 보여준다. 이 증가는 대체로 이집트(2013년 109명에서 2014년 509명으로)와 나이지리아(2013년 141명에서 2014년 659명으로)에서의 사형선고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 두 국가는 법정에서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대규모의 사형선고를 시행했다.

2014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최소19,094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믿어진다.

사형 집행은 줄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자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국제인권 감시기구는 2015년 4월 1일에 2013년 아동 범죄에 대한 사형이 증가했다고 명시했다.

이란이 청소년 범죄자 사형집행에 있어서 거의 확실하게 세계 선도자다. 2014년에 14명의 사형집행, 지난 10년간 77명이나 집행했다. 이란은 또한 지난해에도 아동범죄자에게 계속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전체적으로 최소한도 160명의 청소년 범죄자가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이집트와 스리랑카에서는 작년에 아동범죄자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리고 몰디브, 나이지리아, 파카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및 예멘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로 남아있다 (미집행 상태).

2013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 명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었으며 이란과 예멘의 집행 가능성이 있다.[1]

내넌 사건과 실수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murderpedia.org/male.W/w/williams-nanon.htm을 참고하라.

내넌 윌리엄즈(Nanon Williams)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http://www.ccadp.org/nanonwilliams.ht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https://www.hrw.org/node/268526/printable/print

유인물

내일이 오면, 내넌 윌리엄스(Nanon Williams)

1부

드와이트 애더난두스가 죽은 후 나는 진실로 삶을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삶이 어떠하길 바라면서. 이때가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루했던 매일매일 저에게 항상 미소를 지어주던 한 친구에 대해 생각하며 누웠습니다.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서서히 움직여 문 앞에 놓여있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문에 그 친구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자 심장이 바늘로 계속 쑤시는 듯 아파옵니다. 가끔씩 그 친구는 운동장을 빙빙 돌면서 소리치곤 했습니다, "꼬맹이 잘 지내니?" 그러면 저는 제 주위를 둘러보고 그를 쏘아보며 말합니다. "이봐 누구한테 꼬맹이래," 그러고 나서 둘 다 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있는 구역에서 가장 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당시를 떠올리면, 글쎄요.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운동장에 나가더라도, 항상 화가 잔뜩 나있는 제 얼굴의 주름을 펴주는 드와이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수년이 흘러가고, 제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 제가 더 나은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치 드와이트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나약했던 순간들, 그때마다 저는 드와이트가 이뤄낸 일에 놀라워하며,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억해 이 체제는 네가 허락할 때만 네 게 다가올 수 있어. 너의 신과 함께 평화를 찾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네 인생을 살고 네 인생에 감사해야 해." 그리고 말을 이어 갑니다 "꼬맹이, 난 네가 왜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란 건 알아…"

2부

"… 사실상, 여기 사형수 감옥에 있을만한 사람이란 없는 거야. 강간범, 납치범, 강도범, 아동 성추행범이나 변태들은 너한테는 관심도 두지 않아. 하지만 넌 그런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나 친절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들을 바꿀 방법도 가지고 있어. 난 네가 항상 그걸 기억해줬으면 해.' 그는 사형되기 몇 주 전에 이 말을 내게 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해. 이 체제가 너를 심판했던 식으로 네가 남을 판단한다면, 너는 사형판결을 내린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단다." 이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왜 그리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뜻에 수긍했다. 하지만 수긍한다는 것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납득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난 그때 그가 나를 불렀던 호칭처럼 정말 꼬맹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의미를 납득하게 됐을 때, 진실은 고통스럽다.

이 감금이라는 제도는 사람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생겨나게 하고 결국에는 좌절하도록 만드는 고문이며, 그 자체가 심리적 무기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과 의지가 계속해서 존재한다. 드와이트는 사형수 감옥에 살면서도 그러한 영혼을 잃지 않았다. 그 영혼으로 이 체제의 무덤 안에서 살아있는 시체처럼 썩어가는 다른 이들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 꼬맹아. 하지만 인생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매일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해. 너희들이 이 길의 끝에 있는 불빛을 볼 수 있는 한, 그 힘이 너희를 안내할거야." 눈물 어린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면서 그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다. 나는 감히 그 말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의미를 추측해 보고, 지난 수년간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찾았고, 또 그 힘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살아갈 것이다. 난 절대 내 원칙이나 내 가족처럼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그 어느 날의 내일은 아마도 사랑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넌 윌리엄스는 1992년 17세에 1급 살인혐의로 텍사스 주법원으로 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였고 2005년의 청소년 처형을 금하는 로퍼브이 시몬스의 미국 대법원 판결의 결과로서 종신형으로 감형될 때까지 13년을 사형수 감옥에서 지냈다. 2010년 연방법원은 배심원에게 제시되었던 위증과 1992년 재판에서의 부적절한 방어권을 이유로 내년의 석방을 명령했다.

자료원: 사형제에 반대하는 캐나다 연대(CCADP, the Canadian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뉴스기사 스크랩

1997년 10월 2일, 헌츠빌에서 강도죄로 복역 중이던 죄수에 대한 사형이 수요일 밤 집행되었다. 그는 9년 전 은행 강도를 하고 도주하던 중 자신을 붙잡은 샌 안토니오의 한 사업가를 총으로 사살한 죄로 복역 중이었다. 향년 41세, 애더난두스는 1988년 2월 28일 샌 안토니오 북부에 위치한 은행 로비에서 버논 하난과 격투를 벌이다가 가슴에 총을 쏜 죄로 사형이 언도되었다.

노사 협상

정당하게 하루 일을 했다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주제
- 노동
- 민주주의
- 시민권과 참여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10–15 명

시간 120분

개요 이 단원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노동조합 대표가 함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하는 회의의 모의실험이다. 이 활동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다룬다.
- 노동조합의 역할
- 사업장에서의 단체 협상
- 노동자의 권리

관련 권리
- 일할 권리
- 공정한 작업환경의 권리
-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권

학습 목표
- 시민사회에 있어 노동조합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의 확장
- 합의와 의사결정 능력을 기른다.
- 참여의식, 책임감, 연대의식을 촉진시킨다.

준비물
- 참가자 1명당 배포자료 1 '상황 설명서' 1부
- 참가자 1명당 배포자료 2 '노동관련 용어의 간략한 설명' 1부
- 신분 확인을 위한 표지(선택사항)
- 종이, 컬러 유성 마커와 펜(선택사항)
- 교실 두 개(있는 것이 좋으나 선택사항)

준비 작업
- 배포자료를 포함한 활동을 숙지해서 활동 도중 어떤 참가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의자 다섯 개를 둥글게 배치한다. 이 의자들은 서로 다른 단체의 대표자들과 의장을 맡을 사람을 위한 자리다. 이 의자 뒤편으로 나머지 참가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배치한다.

진행

1. 활동을 설명한다. 한 편에는 고용주, 다른 편에는 고용인과 노동조합 대표 간의 회의의 모의실험임을 설명한다. 이 활동의 목적은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의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2. 준비운동으로 모둠에게 그들이 설정하고자 하는 회사의 이름과 업종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것은 실제의 또는 가상의 제품을 제조하는 실제의 또는 가상의 회사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이름도 정하도록 한다.

3. 참가자를 2:1 비율로 두 모둠으로 나눈다. 작은 모둠은 고용주가 되고 큰 모둠은 고용인과 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4. 배포자료 1 “상황” 및 2 “몇 몇 노동관련 용어의 간략한 해설”의 사본을 나눠준다. 10분간 자료를 읽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5. 모의 활동이 어떻게 운영(진행)되는지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한다. 고용주들이 주최자이며 그들 중 한 사람이 그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제안을 먼저 상정한다. 그리고서 노동조합과 고용인들의 대표가 자신들의 제안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모든 당사자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한다.
6. 참가자들에게 회의절차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예를 들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가 발언 시간의 제한 – 가령 최대 2분? 총 협상 시간의 제한?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구성원들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짧은 휴식 시간을 갖는 절차 등. 대표자들 외에 다른 누가 발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자들만이어야 하는지.
7. 참가자들을 두 모둠으로 나눠 30분간 협상을 준비시킨다. 고용주들은 대표 두 명과 의장 한 명을 선정한다. 고용인들과 노동조합은 대표자 두 명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양 쪽 모둠은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 새로운 제안을 구체화하여 회의에서 상정한다.
   - 대표자들이 어떤 협상력을 가져야 하는지 결정한다.
   -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와 협상의 수용가능 최저선과 같은 핵심 사항을 결정한다.
8. 준비되면 대표자들은 안쪽의 원형으로 배치된 5개의 의자에 앉히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그들 뒤에 앉도록 한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한다.
9. 회의가 끝나면 각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잠깐 휴식을 취한 후, 디브리핑과 평가 시간을 갖는다.

디브리핑과 평가

이 활동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간략하게 검토한 후 이어서 어떤 일일 있었으며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한다.

- 두 모둠은 자신의 처음 제안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했는가?
- 자신이 처음 제안서를 만들면서 자기 자신들만의 이익을, 아니면 회사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였는가?
- 모둠은 협상 전략을 개발하였는가?
-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발언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발언 기회를 가졌는가?
- 쌍방은 상호간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는 인권으로 인정된 권리다.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부정된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는가?
-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노동조합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가?
- 참가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장단점은 무엇인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조합을 향한 국내 여론의 동향과 일반적인 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탈 공산주의화한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을 '공산주의 학파'로 간주하던 시절의 잔재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분석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좋다. 참가자에게 정보 수집을 위해 현지의 노동조합을 접촉하고, 자국의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를 해보도록 시킬 수도 있다. 정치체제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언급할 수도 있다.

참가자 모둠에 따라 협상과정에 관한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참가자에게 자신의 입장과 제안을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약간의 조언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 현 상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가 임금인상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 궁극적으로 해고가 이행되어야만 한다면 어느 범주의 노동자를 해고할 것인가?
- 그 제안은 현실적인가? 회사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회의와 협상이 운명을 마주하게 하자! 협상하는 동안에 만일 고용주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제안을 파업을 통해 지지받기를 원한다면 파업할 사람들에게 피켓용 포스터를 그릴 종이와 펜을 제공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못 들어가게 차단하려 한다면, 즉 공장폐쇄를 한다면 노동자들이 들어갈 다른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는 단체교섭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 그런 법령을 확인해서 참가자들이 이 활동을 최대한도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항들의 사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응용

권리에 관한 협의를 포함하는 상황의 또 다른 사례로는 문제 학생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 회의가 있다. 한편에는 학생과 부모, 다른 한 편에는 교장과 학부모회 간의 회의가 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실제 노동조합의 구성원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역 전화번호부에 노동조합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청소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며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된다.

만일 모둠이 아이디어를 토론하기를 즐긴다면 다음 활동도 즐길 수 있다. 129쪽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활동에서는 일련의 인권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방어해야 한다.

실천 아이디어

자국의 노동자의 권리에 관해 숙지한다. 상근직 직업을 가졌든, 용돈을 벌려고 일하는 단시간 근무제, 학생 직업 또는 계절 직업이든 자신의 권리에 관해 숙지한다. 예를 들면 야간이나 주말 동안에는 보수를 더 받아야 하고, 세금과 보험이 신고되어야 하며 적절한 설비를 갖춰야 하는 등. 또한 보건과 안전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현지의 노동조합과 함께 청소년 사이에서 노동조합주의에 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추가 정보

국제노동조합연맹은 151개 국가와 지역의 일억칠천오백만 노동자를 대변하며 301개의 국가부속기관과 제휴하고 있다. 이 연맹은 권리제한에 관한 상세한 상황보고서로서 매년 노동 조합권 침해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노동조합 가입, 파업권, 공동교섭 및 고용인의 보호 등의 제한에 관해 조사한다. www.ituc-csi.org.

2010년 3월23일 ITUC는 세계 노동조합 과업을 청년의 취업과 조직화에 연결시키는 캠페인을 착수했다. 이 새로운 청년 캠페인은 특별한 캠페인 안내책자 뿐만 아니라 비디오, SNS, 포스터 및 웹사이트를 포함한 일련의 다른 도구들을 사용한다.

청년과 노동조합회원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coe.int/cpmpass의 5장 업무에 관한 배경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 념 일

5월 1일
노동절

주

이 활동은 영국의 GMO노동조합, 유럽 노동조합대학(ETUCO) 및 신기술의 영향에 관한 유럽 노동자 연수회(AFETT)와의 협업으로 개발되었다.

유인물

유인물 1. 상황 설명

장면은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합의 시도가 교착상태에 빠진 고용주, 고용인 및 노동조합(TU)간의 회사 미팅이다.

공장은 1년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전체 노동자는 생산직에서부터 관리직까지 1,000명이며,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회사는 현재 재정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파산할 정도는 아니다. 수익은 아직 높으나 그 부문 전체가 침체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임금은 실질적으로 3% 감소했으며 직원 수는 10% 축소됐다.

노동자는 산업의 다른 부문의 인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자(관리자)는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직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개별계약으로 12개월간 통상임금의 4%인상(물가상승률은 현재 연2%).
- 매일 또는 주간 노동시간이 아닌 연간 노동시간에 기초한 지급과 초과근무의 폐지.
- 직원 감축(직원의 10% – 주로 단시간, 임시직 및 수습직– “후입선출”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자진 명예퇴직.

경영진의 제안은 노동자 총회에서 거부되었다. 그들은 그 제안이 그들의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리라 우려했다. 현재 고용인의 40%가 초과 근무수당으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받고있다. 노동조합과 고용인은 경영진에게 반대 제안을 제시했다.

- 2년간 9% 임금 인상
- 초과근무와 상여금 유지
- 현재의 직원 수를 유지하며 정리 해고된 고용인은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재교육을 받는다.
-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

그 반대 제안 즉 노동조합과 고용인의 제안은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영진에 의해 거부되었다.

협상은 현재 2달 동안 계속되어 왔다.

회사의 정책은 2달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특별 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의는 모의실험의 기반이다. 양측은 상호간의 만족스러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의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협상 테이블에는 총 5명이 있어야 한다. 2명은 경영진 대표, 1명은 고용주가 지명한 사회자, 그리고 2명은 노동조합의 대표. 특별 총회이기 때문에 모든 고용인이 참여할 수 있다.

유인물 2. 노동 관련 용어 요약

단체 교섭:	이것은 임금 및 작업조건과 같은 문제를 단체로 합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용주와 고용인 대표간의 협상 과정이다.
공장 폐쇄:	공장폐쇄는 고용주의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과격한 수단 중 하나이다. 고용주가 고용자의 작업장 입장을 거부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고용인이 경영자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시도로 그들을 내쫓는 것이다.
정리해고:	노동자는 고용주가 사업을 폐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해고 되었을 때 정리해고가 성립한다. 고용인은 보상으로서 정리해고 수당의 자격이 주어진다.
퇴직 수당:	만일 정규직 사원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에 기초해 해고된다면 퇴직수당이라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퇴직수당의 금액은 종종 고용인이 받는 급여에 기초한다. 예를 들면 근무연수에 주급금액을 산정한다든가.
파업:	파업할 권리는 성공적인 단체협상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기본적·사회적 인권이다. 파업은 고용인에 의한 작업의 거부 또는 작업의 방해이다. 노동자는 파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확실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마다 다르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임금과 작업조건을 포함한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 있어서 고용주와의 협상에 있어서 노동자를 변호한다. 노동조합은 연맹으로 조직화되었다.

능력을 보라 !

장애가 아닌 능력을 보라!

관련 주제
-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 차별과 불관용
- 아동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6-36명

소요 시간 120분

개요 장애인에 대한 공감을 증진시키는 실천적인 활동으로 다음 이슈를 다룬다:
- 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장애들
- 기본적 인권으로서 장애인 인권의 수용

관련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 사회보장권

목표
- 장애를 가진 이들이 직면하는 일상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 장애인이나 이들의 필요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운다.
- 공감과 연대를 증진시킨다.

준비물

1부 도입 단계에서:
- 참가자 당 종이 한 장과 펜 하나

2부, 한 쌍당:
- 비닐봉투 – 양배추 혹은 상추잎, 연필, 분필, 나뭇잎, 색종이, 음료수 병 혹은 캔이 각 하나씩 들어 있음
- 눈가리개 하나
- 종이 한 장과 펜 하나

3부, 한 쌍당:
- 역할 카드 1장
- 종이 한 장과 펜 하나

4부:
- 휠체어, 8명당 하나
- 장애 코스를 만들 공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좋다. 대체 방안으로는 야외 공간을 추가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장애물. 예를 들면, 탁자와 의자, 널판지 더미, 신문지 더미 등
- 큰 종이 한 장 혹은 보드, 그리고 마커펜
- 시계나 타이머

준비 작업
- 역할 카드를 만든다. 이 활동에서 제공하는 상황 중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독자적인 상황을 만든다,
- 가능하면, 장애물 경주를 위한 공간을 다른 방에 미리 준비거나, 보다 까다로운 지형에서의 장애물 코스를 체험하도록 야외 공간도 검토해둔다.
- 실내에 설치한다면, 테이블과 의자를 사용하여 좁은 통로를 만들고 널빤지 더미 혹은 신문지 더미를 바닥에 두어 자연스럽게 어려운 지형을 대신하도록 한다.

진행

이 활동은 4부로 구성된다: 1부 안내, 2부 눈 가리고 걷기, 3부 노래 부르기, 4부 휠체어 경주로 구성된다.

1단계. 안내(10분)

1. 세 가지 특정 장애에 대해 초점을 맞춘 활동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시각 장애, 청각/언어 장애, 신체 마비 장애
2.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장애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 –혹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몇 분의 시간을 주도록 한다. 그런 후 몇 개의 핵심 단어를 적게 한다
3.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된다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도록 한다.
4. 이러한 작업이 완료되면, 참가자들에게 작성한 종이를 제출하게 하고 "실제 체험"으로 진행할 준비를 하도록 한다.

2단계. 눈 가리고 걷기

1. 참가자들에게 2명씩 쌍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눈가리개를 나누어준다. 각 쌍에서 한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도우미 역할을 한다. 도우미는 항상 짝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도우미는 짝의 안전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예" 혹은 "아니오"라는 답변만 할 수 있다.
2. 도우미에게 짝과 함께 5분 정도 걷도록 하되, 가능하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야외에 나가보라고 한다.
3. 교실로 돌아오면, 도우미들에게 짝을 의자로 안내하도록 한다. 하지만 의자 위에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다! 비닐 봉투!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4. 시각장애인 역할을 맡은 사람은 내용물을 식별하도록 한다. 도우미는 그들이 추측한 것을 받아 적는다.
5. 그리고 눈가리개를 벗고 물건들을 확인하도록 한다. 시각장애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모아 각자의 경험과 놀랐던 점 등을 서로 간략히 나누도록 한다.
6.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몇 분 준 후에 3단계로 넘어간다.

3단계. 수화하기

1. 서로 역할을 바꾸어 한다; 안내자는 장애인 역할, 이번에는 언어 장애를 가진다. (말을 못하는). 짝은 비장애인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2. 장애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상황 카드를 나눠 준다. 그들은 이 카드를 도우미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한다. 도우미에게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준다.
3. 언어 장애인 역할을 맡은 이는 자기 도우미에게 자신의 문제를 전달해야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으며,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도우미는 이 전달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적도록 한다.
4. 언어 장애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의사소통을 다 한 후에, 도우미에게 자신의 역할 카드를 보여준다. 두 사람은 자신의 의도, 문제와 좌절감 등을 간략히 나누도록 한다.

4단계. 휠체어 장애물 경주

1. 참가자들에게 장애물 코스를 보여준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마치는 이가 승자가 된다. 도중에 장애물에 부딪치면 벌금이 부과된다.
2. 결과를 큰 종이에 기록한다.
3. 모든 희망자가 한 차례 끝나면, 짧은 휴식을 취하고 나서 디브리핑과 평가로 이어간다

12월 3일
국제 장애인의 날

디브리핑과 평가

전체가 함께 진행한다. 활동의 2, 3, 4단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사람들이 처음 알고 있었던 것과 경험의 결과로 배운 것을 이야기한다.

1. 눈 가리고 걷기로 시작한다: 눈 가렸던 사람들과 도우미들이 다음 질문에 자신의 공유한다:
   - 이 활동 동안 어떻게 느꼈는가?
   - 가장 불편한 것은? 가장 재미있는 것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인가?
   - 상대를 믿고 상대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나?
2. 그리고 2단계 싸인 보내기를 검토한다:
   - 이 활동 동안 각자 어떻게 느꼈는가?
   - 가장 불편한 것은? 가장 재미있는 것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인가?
   - 싸인을 보냈으나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좌절스러웠는가?
   -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좌절스러웠는가? 아니면 창피했나?
3. 다음으로 휠체어 장애 경주를 검토한다:
   - 그렇게 거동이 불편해져서 어떻게 느꼈는가?
   - 가장 불편한 것은? 가장 재미있는 것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인가?
4. 이제 이 활동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보여준 두려움과 기대를 검토한다. 그들이 적은 핵심 단어들을 돌아본다.
   - 그들이 적은 두려움 중 어떤 것들이 활동을 통해 확인되었는가?
   - 자기 파트너를 돕기 위해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했는가?
   -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떠했는가?
   -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수월한 일인가?
5.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그들의 두려움이 기초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는가?
6. 사람들이 이 활동을 통해 배운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7. 시각 장애가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등 당신이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의 사회생활은 어떠한가? 다른 이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8. 주변 건물과 거리의 환경을 살펴본다. 얼마나 "장애 친화적"인가?
9. 장애를 가진 이들의 평등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행해져야만 하는가?
10. 장애인 권리도 인권의 문제인가? 세계인권선언에서 어떤 권리가 특별히 관련되어 있는가?
11. 당신의 학교, 협회나 지역 청소년 단체 등은 장애를 가진 이들의 평등권과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촉진자용 팁

4단계에 사용될 장애물 코스를 너무 길게 만들지 않는다. 2-3분 정도면 충분하며, 특히 준비된 휠체어가 2-3대만 있다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루해질 수 있다. 지역 병원이나 일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휠체어를 빌리도록 노력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참가자들에게 신체적 장애를 즉흥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큰 고무장화를 서로 반대쪽 발에 신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지는 대상 그룹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참가자들이 다양한 "현실의 모의실험"을 통해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느낌과 반응에 대한 경험 기회를 갖게 됨을 이해시킨다. 이 목적은 누군가를 놀리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당혹감을 불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 그들은 과장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어떤 순간에는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해롭거나 위험한 일은 없다고 안심시킨다.

모든 "현실의 모의실험"을 할 시간이 없다면, 한두 가지만 한다. 아마도 눈 가리기 활동은 이 활동 중에서 가장 개인적 도전이고 다가가는 활동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 활동을 선택하길 추천한다. 참가자들이 역할을 교대해서 모두가 장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인식해야 하는 두 번째 목적물을 설정해야 한다.

이 활동은 진지한 활동이지만 여러 재미있는 상황을 예상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도록 두길 바라며,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거나 장애인에 대한 조롱섞인 말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개입하거나 의견을 제기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디브리핑과 평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언제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놀리는가? 누가 왜 그러는가?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농담이 별문제가 되지 않는 때는 언제인가? 좋은 유머와 모욕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응용

잘 보이지 않는 다른 장애를 모의실험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둠의 현실에 가장 밀접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른 학습 장애나 언어 장애가 있다. 또 다른 제안은 나이에 따른 장애 상황을 모의실험해 보는 것이다. 이는 젊은이들이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존엄한 삶의 조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만일 아동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아동권리협약 23조를 참조한다: "장애 아동은 온전하고 적절한 삶을 누리기 위한 특별 돌봄,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정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자신이 속한 사회환경(가족을 포함하여)에서 찾아보도록 한다. 어떤 서비스나 규정들을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보다 자세히 조사할 수도 있다. 당신의 청소년 그룹이나 협회, 학교에 장애 아동들이 있는가?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왜 그런가?

모둠이 역할극을 즐긴다면, 장애를 가진 이들이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장벽에 관해 문제를 탐구하는 293쪽 '일하고 싶다!'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다.

모둠이 다른 형태의 '일상적인' 차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다루고 싶어 한다면, 예를 들어 284쪽 '인종차별에 맞서기'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참가자들이 취약한 그룹을 확인하여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혹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지침과 아이디어를 위해 본 매뉴얼의 "실천하기"를 참조한다. 장애단체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장애인 스스로 정의하고 확인한 장애인들의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 정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은 나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표면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평등과 사회적 연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가에 더 관련이 있다. 상황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보청기를 사회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추가 통신 장비를 위한 규정이 있거나 없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전동휠체어가 필요한데, 때로는 지자체나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에 관한 정보는 배경 정보 '장애와 장애차별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인물

역할 카드

상황 1.
말을 하지 않고, 친구에게 자신이 폭력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한 무리의 비행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당신을 공격하고, 당신 가방을 훔치고 구타했다. 경찰서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다.

당신은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그림을 그릴 수도 없다.

상황 2.
당신은 식당에 있다; 아마 학교나 청소년센터에 있는 식당이다. 요리사에게 당신이 비건 채식주의자이기에 볼로네즈 스파게티를 먹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당신은 고기뿐만 아니라 계란, 유제품(우유, 치즈 등)도 먹지 않는다.

당신은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그림을 그릴 수도 없다.

주

이 활동은 모니카 마다이 박사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녀는 코조스 소르(Közös Sors,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촉진을 위해 일하는 헝가리 NGO)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국제 청소년 트레이너이고 선천적 장애가 있는 관계인이다.

당신은 어디에 서있는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집, 음식 및 기본적 필수품을 갖는 것이 정말로 더 중요한가?

주제
- 인권 일반
- 시민권과 참여권
- 빈곤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

시간 50분

개요 이 토론 활동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옹호한다.

관련 권리 모든 인권

학습 목표
- 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한다.
- 토론과 논증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 존중과 열린 마음 자세를 발전시킨다.

준비물
- 진술문 사본
- 큰 종이 또는 차트용지, 펜
- 끈이나 분필(선택사항)
- 461쪽 세계인권선언 요약본(선택사항)
- 사람들이 움직일 공간

준비 작업
- 포스터 두 장을 준비한다. – 포스터 한 장에는 “나는 동의한다”, 다른 한 장에는 “나는 반대한다”라고 쓰고 교실의 양쪽 끝 바닥에 붙여 놓고 참가자들이 두 포스터 사이에 일렬로 설 수 있게 한다. 포스터 사이에 분필로 줄을 긋거나, 대신 끈을 놓아도 된다.
- ‘인권의 세대’에 대해, 그리고 시민·정치권과 사회·경제권이라는 두 범주로 이야기를 나누려는 이유를 스스로 숙지한다.
  촉진자를 위한 팁과 제4장을 살펴보라

진행

1. 시민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 사이의 차이점에 간략히 소개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2. 5분간 각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인권을 브레인스토밍 한다. 차트용지에 시민 정치적 권리와 사회 경제적 권리라는 표제를 달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인권을 적어본다.
3. 이제 참가자들이 적극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련의 진술을 읽어줄 것임을 설명한다.
4. 양쪽 끝 위치, “ 나는 동의한다”와 “나는 반대한다”라고 쓰인 벽보가 있는 극단의 위치를 가리킨다. 벽보까지의 가상의 선을 따라 아무 지점에나 자리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자신의 관점과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뒤에 서도록 노력한다. 참가자들이 제자리를 찾는 동안에는 간략한 논의가 허용된다.
5. 진술문의 내용을 차례로 읽어준다.

6. 반응과 토론을 유도한다. 끝 지점에 위치한 사람에게 그 극단의 자리에 위치한 이유를 묻는다. 그 중앙 가까이에 서 있는 참가자에게는 혹시 자기주장이 강하지 못하거나 내용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지 묻는다.
7. 다른 참가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한다.
8. 진술문 활동이 끝나면 다시 전체로 모여 디브리핑 활동을 이어간다.

디브리핑과 평가

-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고, 이어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토론한다.
- 참가자들이 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질문이 있었는가? – 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인가? 아니면 질문의 문구가 부정확했기 때문인가?
- 토론을 하면서 사람들이 위치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 쟁점에 찬성하지 않는 정도를 확인하고 놀랐는가?
- 인권에 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 여러 가지 진술에 옳은 대답과 틀린 대답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단지 개인적 견해의 문제인가?
- 인권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 두 세대의 인권. 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어떤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우리에게 또 다른 인권이 필요한가? 3세대 인권이 등장할 것인가?

촉진자용 팁

다양한 관점에 대한 토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활동의 줄서기 부문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서 두 세 개의 진술을 선택해서 전체 모둠에서 상세하게 토론한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 관해서 그리고 타인의 위치와 관련된 자신의 위치에 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단원은 모든 인권을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 경제적 권리, 예를 들면, 노동과 여가에 관한 권리, 보건권과 기본적인 삶의 수준에 관한 권리에 관한 활동이다.

아래에 제시한 진술문은 시민 정치적 권리와 사회 경제적 권리 간의 차이에 대해 야기되는 논쟁을 다루기 위해 고안되었다. 토론 과정에서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중심 화두로 등장하기 때문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활동의 의미나 내용에 대해 너무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지점은 소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민·정치적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투표할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 등과 같은 시민권과 정치적 문제에 관련된 것이며, 사회·경제적 권리는 홈리스, 부적절한 의료, 빈곤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과 관련된 요구라는 것이다.

둘째 요점은 어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두 권리 사이에 근본적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사회·경제적 권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비해 덜 중요하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동안 참가자들이 기억을 되살려보도록 461쪽 세계인권선언 요약본을 배포하도록 한다. 또는 세계인권선언 조항 몇 개를 읽어주고 각 조항이 정확하게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묻는다. 16조, 22조 – 29조는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권리로 간주된다.

기 념 일

12월 5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 자원봉사자의 날

응용

다른 진술들을 작성한다. 또는 참가자들이 직접 진술을 만들도록 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한 가지 쟁점을 가지고 형식을 갖춘 토론회를 조직한다.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토론이 끝나면 투표를 한다. 토론회에는 참가자들 이외의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게 한다.

인권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시민이 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208쪽 '선거운동' 활동은 당신의 생각을 남에게 납득시키는 문제를 다룬다.

인권에 관해 말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그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게이"라고 할지 "동성애자"라고 할지, 또는 "장애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용어를 사용할지. 모둠은 교육 패키지 [모두 다르고 – 모두 같다]의 "하얀 미래" 활동을 통해서 솔직한 연설과 정치적 정당성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인권이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단체에 연락해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추가 정보

이 책 4장은 3세대 인권을 포함한, 인권의 다른 세대에 대한 배경지식을 담고 있다.

유인물

진술문

-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보다, 거처할 집과 음식 그리고 기본적 필수품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사람은 노동의 의무를 가지고 있을 뿐,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 모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모든 시민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는 잘 사는 나라 국민이나 향유할 수 있는 사치이다
- 국민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스스로의 책임이다.
- 우리의 시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는 국제사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 가난한 나라는 국민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 걱정하기 전에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에 집중해야 한다.
- 경제적 양극화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다.
- 사회·경제적 권리는 미래에 대한 이상일 뿐, 오늘날 세계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 어떤 권리는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있다.
-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노숙자가 된다.
-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 빈곤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우리는 권리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획득할 뿐이다.

추모

전쟁과 테러

차별과 불관용

4단계

제한 없음
(소모둠: 2-3)

60분

도스타(충분해)!

역사로부터 배운 유일한 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헤겔

주제
- 추모
- 전쟁과 테러
- 차별과 불관용

난이도 4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소모둠 2-3명)

시간 하루

개요 이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인권의 시각으로 롬인에 대한 역사적 박해를 돌아보고 홀로코스트의 롬인 희생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동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관련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생명권
- 이동의 자유

학습 목표
- 홀로코스트 기간동안 롬인에게 가해진 박해를 인식하기
- 대중적 행동을 선택,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기술 연습하기
- 인간 존엄성과 정의감을 기르기

준비물
- 챠트용 용지와 마커
- "롬인 박해의 간략사" 복사본
- 2부용: 행동에 대한 선택과 계획을 위해, 인터넷이나 인쇄 참고 자료를 활용한다.
- 3장의 행동 프로젝트 흐름도 예시 복사본 (선택사항)

준비 작업
- 시작 전 모둠에게 홀로코스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어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말하도록 한다.
- 유인물을 복사하여, 소모둠당 한 부씩 나눠준다.
- 3장의 "실천하기"를 참고한다.

진행

1부: 모둠 준비(90분)

1. 참가자들이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2-3명의 소모둠을 만들도록 요청한다. 민족이나 국적 또는 참가자들과 관련된 다른 면의 정체성일 수도 있다. 자신의 소모둠에서 이 정체성에 대한 그들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몇 분의 시간을 준다.
2. 유인물 "롬인 박해의 간략사"를 나누어준다. 유인물을 읽고 시간표에 설명된 행동의 대상이 된 인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적도록 요청한다.
3. 소모둠별로 서로의 답을 공유하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 특정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는 시작이 어떻게 더 많은 제한을 용이하게 했으며, 결국에는 생존권을 침해로 이어졌는가?

   - 최근 역사의 어느 시점에 "당신이 속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조치 대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느끼겠는가? 1번에서 선택한 모둠의 정체성에 집중하도록 요청한다.
   - 이러한 시간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역, 국가, 국제적으로 가장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 예를 들어,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의 지원은 무엇일까?
4. 이제 서로 답을 공유하기 위해 소모둠끼리 짝을 짓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짝을 지은 모둠에 15분을 더 주고, 이런 종류의 처우를 경험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제안의 목록을 만들도록 격려한다.
5. 전부 함께 모이게 하고 다음 질문을 기초하여 디브리핑(조사요약)을 한다:
   - 롬인이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았던 대표적 집단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 나치와 협력자들이 집단학살 대상으로 한 다른 집단은?
   - 이 집단들은 당신 나라에서도 박해를 받았는가? 어떻게?
   - 시간표상의 조치와 관련된 권리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나?
   - 일부 권리의 침해가 더 많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이 활동이 도움이 되는가?
   - 이를 겪으면서 살아온 공동체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역사적 박해가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특정 집단이 다수와 관계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롬인들은 여전히 유럽에서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당신의 국가나 지역에서 있었던 최근 사례를 말해 줄 수 있는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는가?
6.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나라와 유럽 전역에서 오늘날 롬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물어본다. 그들이 겪을 것 같은 인권 침해는 무엇인가?
7. 도스타 캠페인에 대해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캠페인을 지지하는 행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2부: 행동 프로젝트 선택하고 계획하기

이 활동의 2부는 본 매뉴얼 3장 실천하기에 기초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보다 자세한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다.

1. 그들이 구성할 행동 프로젝트는, 1부에서 제기된 이슈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롬인(집시)공동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구체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임을 설명해준다.
2. 참가자들에게 모둠에서 달성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제안을 플립차트에 적어보도록 한다. 제안을 빼거나 다른 것을 덧붙일 수도 있다.
3. 제안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합의한다. 3장에 있는 행동 프로젝트 흐름도를 활용한다.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그들이 찾아낸 조치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인가?
   - 주어진 모둠 내 자원과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을 고려할 때 해당 활동은 현실적인가?
   - "해결"은 충분히 구체적이어서 그들이 그것을 성취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가?
4. 의사 결정서를 작성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5. 시작하라!

3부: 행동 프로젝트 수행하기

기 념 일

4월 8일
세계 롬인의 날
8월 2일
롬인과 신티 인종학살 추모의 날

디브리핑과 평가

행동에 대한 질문:

- 전반적으로 행동 과정에 만족하는가? 왜? 아니라면?
- 당신 자신의 공헌에 대해 무엇을 느꼈는가? 모둠 활동에 대해서는?
- 활동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초기 설정된 목표와 일치하는가?
- 좀 다르게 해서 더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오.
- 어떤 실수를 하였는가?
- 어떤 주제든 또 다른 행동을 조직할 경우 주요 '학습 포인트'로 무엇을 목록에 올리겠는가?

학습 과정에 대한 질문:

1.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어쨌든 자신의 견해나 태도가 변화되었다고 느끼는가? 당신의 의견을 설명해주세요.
2. 첫 세션에서부터 행동자체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활동에서 당신이 가장 어려웠던 건 무엇이었는가?
3.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4. 당신이 한 일을 기초로 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가? 당신은 이것을 할 의욕을 느끼는가?
5. 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대해 배운 바는 무엇인가?
6. 인권 캠페인은 어려웠나? 이 연습을 마치고 인권 캠페인에 참여하겠는가?
7. 롬인(집시)이 주장하는 권리가 "예외적"인가?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 당신의 의견은?
8. 추모에 관련된 일이 인권교육에 왜 중요한가?
9. 당신 나라에서는 홀로코스트 교육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촉진자용 팁

1부 '모둠 준비'에 90분, 2부 '행동 프로젝트 준비'에 90분, 4부 '디브리핑과 평가'에 60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3부 '행동 프로젝트'는 취할 행동에 따라 필요 시간이 정해진다! 1,2,3부는 연속으로 혹은 각기 다른 날에 진행할 수도 있다.

조직이나 내용에 대한 관점 모두에서 해당 활동이 복잡하게 될 요소가 많이 있다. 여러분은 모둠 구성과 활동에 대한 그들의 예상되는 반응에 대해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 중 누군가의 친척이 홀로코스트의 표적이나 다른 유사한 사건의 희생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껴 빠지고 싶은 지를 사전에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당신은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민감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참가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어떤 논의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모둠이 이러한 문제를 직면한 것이 처음이라면, 1부 전체에 90-120분 정도로 주고, 2-4부로 진행되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1부 1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런 경우 범주의 목록을 제공하여 하나의 범주를 선택해서 모둠을 구성하도록한다. 예를 들면 특정 축구팀의 팬, 프랑스어 사용자,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 힙합, 테니스, 수영을 좋아하는 이와 같은 목록을 제공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으로 짝을 지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가능하면 그룹 X에 대한 논의 없이 1부의 2, 3단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요점은 참가자들이 부당함에 격분하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X가 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러한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롬인(집시)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해서 일부 참가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그들이 받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있는 롬인 홀로코스트 연대기 요약에서, 롬인이나 '집시'에 대한 언급은 X로 대체되어 있다. 이 정보를 사용할 때, '그 그룹'이라고 언급하거나 심지어 참가자 자신의 소모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상상하도록 할 수도 있다.

참가자들에게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정체성을 고르도록 하는 목적은 그들이 표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도록"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롬인에 대한 강한 편견으로 인해, 롬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여전히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당신은 이 문제를 분명히 다루어야 하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다루기 위한 1부 3단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한다. 유럽의 롬인 인구의 75% 내지 80%정도가 홀로코스트 기간 중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무려 90%에 달했다는 점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준다. 그들에게 자신이 속한 사람들의 90%나 국민의 90%를 잃는다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보도록 할 수 있다. 20명의 모둠이라면 단지 2명만이 남아있게 된다.

가능하다면 계획과 실제 행동 전 단계에 롬인 공동체의 구성원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길 강력히 권장한다. 최소한 당신 모둠에서 계획한 실천행동이 롬인 구성원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롬인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거나 지원하는 지역 단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참가자들이 계획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맞게 된다면, 3장에서 제공하는 흐름도의 예를 사용할 수 있다.

응용

유대인이나 홀로코스트 기간에 자행된 다른 집단에 대한 박해의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또는 또 다른 집단 학살이나 사건을 모두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두개의 박해 시간표를 선택하여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순서에 따라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어갔는지, 사건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다면, 고통을 비교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고, 개량화될 수도 없고, 계량화되어서도 안된다.

또 다른 대안은 그들의 어려움이 체제적으로 무시되는 사람들, 집단, 공동체를 다루는 것이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참가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나 사회 취약계층의 눈을 통해 이웃을 돌아보고자 한다면, 232쪽 '안경을 바꿔라' 활동을 진행해본다.

대안으로는 모둠이 역할극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폭력적 행위에 관여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135쪽 '돌 던지기' 활동을 진행해본다.

참가자들은 193쪽 '부정과 왜곡'활동을 이어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활동은 특정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완전히 잊혀지는 지, 도구화되거나 평가절하되는 지를 탐구한다.

추가 정보

'도스타'는 롬어로 '충분한'을 의미하며, 롬인 시민들에게 다른 시민들이 더 가깝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의 이름이다. '도스타!' 캠페인에 대한 정보는 http://dosta.org 에서 볼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면, 참가자들이 이 사이트를 보는데 얼마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롬인 대학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른 사이트들도 있다. https://www.romasintigenocide.eu. 롬 역사: https://www.coe.int/en/web/roma-and-travellers/roma-history-factsheets

홀로코스트 교육을 위한 관련 자료는 –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협회(IHRA: International Holocaust Remembrance Association) www.holocaustrembrance.org, EVZ재단(추모책임미래재단) www.stiftung-evz.de 및 기타 많은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롬정보사무소는 유럽의 롬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http://www.erionet.org

유럽롬인권센터는 롬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활동을 하는 공익법 단체이다.
http:// www.errc.org

유인물

롬인 박해사 요약

1890	“집시 쓰레기”에 대한 독일에서 조직된 컴퍼런스가 열렸다. 군대에 롬인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909	“집시 문제”에 대한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모든 롬인들에게 식별이 용이한 낙인을 찍는 것을 권고하였다.
1920	두 명의 학자가 “살 가치 없는 삶”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롬인을 살균하여 국민국민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922	(그리고 1920년대 내내): 독일 영토내 모든 롬인들의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었다.
1926	독일에서 “집시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해당 조치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
1927	독일 바이에른주에 롬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 수용소가 지어졌다. 이 수용소에 8천 명의 롬인이 수용되었다.
1928	모든 롬인들은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되었다. 더 많은 수용소가 롬인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1934	주사와 거세로 멸균 처리된 롬인들은 다하우, 프랑크푸르트, 작센하우스 등의 수용소로 보내졌다. 같은 해에 발효된 두 개의 법률에서 독일인이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1938	6월 12-18일 사이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수백 명의 롬인들이 체포되고, 구타당하고, 투옥되었다. 롬인은 학교에 가는 것이 금지된 첫 번째 대상이 되었다.
1939	인종위생국은 “모든 집시들은 유전적으로 병든 존재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일한 치료는 제거뿐이다. (따라서, 목표는 이 결함 있는 집단을 주저 없이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40	첫 번째 홀로코스트 집단 학살: 부켄발드 강제수용소에서 시안가스 시험을 위해 250명의 롬인 아동들이 실험용 동물로 사용되었다. 같은 해 롬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고용도 금지되었다.
1941	7월에 “모든 유대인, 집시, 정신질환자를 죽이기 위한” 나치의 최종적 해결책이 실시되었다. 12월 24일 밤 크림반도에서 800명의 롬인이 일시에 살해되었다.
1944	8월 2일, 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4,000명의 롬인이 일시에 가스실에서 소각되었다.
1945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롬인의 70-80%가 나치에 의해 사라졌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어떤 롬인도 증언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을 대신하여 증언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배상이나 보상에서 제외되었다.
1950	독일정부의 지난 수년 간 ‘롬인들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선언한 여러 성명중 첫 번째 성명이 있었다.
1992	독일은 롬인 망명 신청자들을 루마니아에 2,100만 달러를 주고 “팔아넘겼으며”, 이들을 11월 1일에 수갑을 채워 루마니아로 수송하였다. 일부 롬인들은 그렇게 가기보다 자살을 선택했다. 독일 언론당국은 서방 언론에게 “퇴거”라는 용어가 “불편한 역사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2010	프랑스 대통령은 롬인들을 그들 주거지가 매춘과 아동 착취 범죄가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프랑스 당국은 100개 이상의 주거지를 해체하고, 1,000명 이상의 롬인들을 주로 루마니아 등지로 추방했다.

이 유인물은 이안 행콕(Ian Hancock)이 저술한 “간략한 롬인 학살 연대기”를 편집한 것이다.
전체를 보고 싶으면 http://www.osi.hu/rpp/holocaust.html를 참고하라.

돌 던지기

돌과 다투면 계란이 항상 틀렸다.

아프리카 속담

주제
- 전쟁과 테러
- 평화와 폭력
- 아동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12-20명(소모둠 6-7)

시간 90분

개요 사람들이 폭력 행위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역할놀이를 활용한다.

관련 권리
-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의 권리
- 법 앞에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학습 목표
- 무엇이 사람들을 난폭하게 만들고 그 폭력의 결과에 대한 이해 증진
- 폭력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능력 개발
- 연민, 정의 및 책임감의 촉진

준비물
- 유인물 사본, 소모둠당 한 부
- 돌(선택사항)

준비 작업
- 유인물의 사본을 소모둠당 1부
- 소모둠별 예행연습 및 전체대상 소규모 역할극을 시연하기 충분한 공간

진행

1. 참가자들에게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꼈던 그리고 어떤 파괴적인 욕구를 느꼈던 사건을 상기하도록 한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몇 분간 침묵의 상태로 놔둔다.
2. 몇 명의 지원자에게 무슨 일이 있어났고 그 때의 감정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사건을 공유하도록 요청한다.
3. 이제 돌을 던지려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역할 놀이를 소개한다. 당신의 자세는 극단적인 분노나 좌절감에 의도적으로 돌을 던지려는 사람을 표현해야 한다. 그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한다.
4. 참가자를 6-7명의 소모둠으로 나눈다.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행동으로 끝나는 짧은 역할놀이를 준비하도록 30분을 준다.
5. 고려해야 할 질문의 사본을 배포하고 이것이 그들의 역할놀이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다.
6. 30분 후 소모둠을 다시 모아 전체 모둠에게 자신의 역할놀이를 보여주도록 요청한다. 각 시연 후 관중이 본 것에 반응하고 질문하도록 몇 분씩 시간을 남긴다.
7. 이어서 디브리핑과 평가로 이어간다.

전쟁과 테러

평화와 폭력

아동

2단계

12-20명
(소모둠: 6-7)

90분

디브리핑과 평가

- 서로 다른 역할 놀이를 이해했는가? 무엇이 돌을 던지도록 유발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 서로 다른 역할놀이에서 공통적이었던 느낌이나 감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하게 폭력적으로 되려는 욕구를 생기게 하였는가?
- 사람들이 때로 누군가나 어떤 것을 훼손시키거나 해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훼손이나 해함을 일으키는 행동은 실제로 그 행동을 일으킨 무언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왜인가? 왜 아닌가?
- 이 활동은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누군가의 폭력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어떻게?
- 당신이 전해 이해할 수 없는 폭력행위가 있었는가? 무엇이 사람을 전쟁에서 싸우고 건물이나 사람을 폭파하게 이끄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
- 일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테러의 위협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폭력행위를 일으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폭력행위 뒤에 놓여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인가? 왜 아닌가?
- 폭력행위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더 큰 폭력으로 대응하거나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각각의 역할놀이에 있어서 위태로웠던 인권은 어느 것인가?

촉진자용 팁

만일 참가자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한다면 첫 번째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과제를 생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개인적 반영의 첫 부분을 운영할 수 있지만 참가자들이 그러기를 원한다면 소모둠 내에서 그들의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내버려 둔다.

역할놀이에서 참가자가 실제 좌절을 말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서두르지 않고 더욱 탐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각 역할놀이 사이에 몇 분의 시간을 허락해서 각 모둠이 이해받는다고 느끼고 발표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라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요하는 토론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모든 역할놀이를 다 지켜본 후에 그 모두에서 일어난 일반적 이슈로 토론을 옮겨가는 것이 최선이다.

디브리핑에서 테러리스트의 폭력에 관한 이슈를 직접 제기하거나 젊은이들이 스스로 제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용한지 알게 된다. 처음에는 바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테러 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행위로 부터의 발생 가능한 결과로부터 그러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심리적 원인을 분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둠활동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나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개인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연관 짓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행위를 특히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두 입장 모두가 인권이라는 생각에 부합한다. – 둘 모두 폭력과 상호 불신의 순환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필요하다.

응용

돌을 던지는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미디어가 보도한 매우 어린 아동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군인에게 돌을 던지는 영상과 연결된다. 그것만으로 또는 후속편으로 전쟁이 아동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반영하는 각본으로 역할극을 해 볼 수도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당신의 지역사회 내에서 폭력의 실제 사례를 선택해서 폭력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한 해설을 준비한다. 각 사건에서 다른 사건에 이르는 시간표로 제시할 수도 있다. 시간표에서 폭력이 방지되거나 그 갈등이 단계적으로 줄여질 수 있었던 요점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테러라는 주제는 314쪽 '차할 대 영국정부' 활동에서 더 알아볼 수 있다.

돌 던지기는 때로는 돌을 던져 처형하는 관습과 연계된다. 종교적 문화적 관습과 인권 간의 관계는 항상 흥미롭고 종종 논란이 많다. 만일 관습과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탐구해보고 싶다면 85쪽 '곧 구식이 된다' 활동을 살펴본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버 폭력에 의한 폭력을 탐구하기 위해 105쪽 '내 삶은 쇼가 아니다' 활동을 활용할 수도 있다.

실천 아이디어

활동에서 확인한 지역사회의 폭력행위 사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어떤 기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돕는 일을 하는지 알아본다. 모둠이 그 다양한 폭력행위를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2008년 세계적으로 25만 명이 넘는 아동병사가 있다고 추산했다. 폭력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되는 아동에 관해 더 알아보고 미성년자를 군인으로의 이용을 저지하는 많은 캠페인 중 하나에 참여한다. 전 아동군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기구의 업무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아동병'을 검색 엔진에 넣거나 www.warchild.org, human rights watch, www.hrw.org 혹은 www.redhandday.org.에서 시작한다.

추가 정보

'문제의 나무'는 문제의 분석을 위한 유용하고 시각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브레인스토밍(창조적 집단사고)과 마인드맵 기법의 조합이다. 나무의 몸통은 문제에 해당된다. 뿌리에 의해 표시되는 문제의 원인 확인으로 시작해서 가지에 의해 표시되는 결과를 계속해서 확인한다. 문제와 결과는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추가 정보는 www.thechangeagency.org 와 'problem tree analysis'에서 찾아본다.

유인물

고려해야 할 질문

역할놀이를 계획할 때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 이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에 또는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가?
- 돌을 던지는 사람과 그들이 돌을 던지는 목표 또 사람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 그들에게는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홀로인가?
- 만일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 사건에 적어도 어떻게 관여했을까?
- 그 사람은 돌을 던짐으로써 무엇을 달성하고자 했는가?
- 돌을 던지도록 한 사건은 무엇인가?: 충동적인 몸짓이었는가? 또는 계획된 것이었는가?
- 돌을 던지는 결정을 일으킨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가?
- 돌을 던지려고 준비할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느낌이 지나갔을까?
- 이러한 행동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기분 또는 좌절감이 들었을까?

기 념 일

2월 12일
소년병 반대의 날

국제 소년병 반대 캠페인을 지지하는 기구:
국제인권감시기구,
국제앰네스티,
독일청소년적십자,
인간의 대지 및 플랜 인터내셔널.
www.redhandday.org

주

이 활동은 〈불장난〉(Playing with Fire, 플로나 맥배스와 닉 파인 저, 뉴소사이어트 출판, 1995)의 아이디어에 근거한다.

시민권과 참여

환경

노동

4단계

4-10명

90분

두 도시 이야기

문명이라는 것은 삶의 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코라손 아키노

주제
- 시민권과 참여
- 환경
- 노동

난이도: 4단계

모둠 크기: 4-10명

시간: 90분

개요: 이 활동은 자신이 살고 싶은 도시와 누리고 싶은 생활편의시설에 대해 투표하는 보드 게임이다. 여기서 다루는 이슈는 아래와 같다.
- 사회적 연대
- 세금 납부의 함축적 의미
- 지역 민주주의의 가치

관련 권리
- 사회보장권
- 재산권
- 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

학습 목표
-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사회복지의 중요성 이해
- 소통 및 협력 능력 개발
-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와 책임감의 가치관 촉진

준비물
- 보드 게임 사본 1부
- A3 크기 종이 혹은 보드지(선택사항이나 있으면 좋다)
- 주사위 1개
- 두 가지 색으로 구분되는 종이 이름표(예-빨간색 파란색), 1명당 1묶음 이상을 같은 개수로 준비
- 가위
- 재접착 가능한 스티커나 점착제
- 교환 카드 4세트
- 봉투 2개
- 모의 화폐(참가자당 6,000 Ems)
- 도시 재정담당 업무표 2부
- 게임 재정담당 업무표 1부
- 종이와 펜
- 타이머
- 규칙을 보여줄 프로젝터(선택사항)

준비 작업
- 보드, 교환 카드, 게임 규칙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설명서를 읽는다.
- 두 묶음의 교환 카드를 오려 준비한다. 그리고 각각 A와 B로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봉투에 넣는다. 나머지 교환 카드 2부는 시의회 회의 참고용으로 사용한다.
- 보드의 사본은 단단하고 내구성 있도록 판 또는 빳빳한 종이에 붙인다.
- 은행가를 3명을 선택한다. 각 도시별 은행가와 게임 은행가가 필요하다. 두 도시별 은행가에게는 도시 재정담당 업무표를 주고, 게임 은행가에게는 게임 재정담당 업무표를 준다. 게임 중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은행가는 이름표를 단다.
- 나머지 사람들을 정확히 같은 수의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에게는 빨간색 이름표를 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파란색 이름표를 준다.
- 참가자는 작은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자기가 속한 도시 색깔의 종이 집게에 고정한다.
- 356쪽에 있는 모의 화폐 서식을 복사하고 잘라서 모의 지폐를 만든다. 각 참가자/시민 당 6000Ems씩 배포한다.

진행

1. 이번 활동은 보드게임이라고 설명하고 보드를 보여준다. A도시를 나타내는 길을 따라가 보고, B도시의 진행경로도 따라 가본다. 두 길은 교차하기도 하는데 서로 만나는 칸에서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며, '바꾸기 찬스'를 얻기도 한다. 이것은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그 다른 도시에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2. 배포한 유인물을 보며 게임 방법을 설명한다. 모든 사람이 게임 규칙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언제 게임을 끝낼지 정한다.
3. 참가자들이 게임동안 자신의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가들은 간단한 식별 표지로 이름표를 단다.
4. 게임을 시작하자! 게임이 끝나면 디브리핑과 평가로 넘어간다.

디브리핑과 평가

게임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돌아보고, 사람들이 배운 바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작한다.

1. 참가자들은 게임이 즐거웠는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싫었는가?
2. 시작할 때 다른 이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는가? 게임이 끝난 지금도 그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가?
3. 시의회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졌고, 민주적이었나?
4. 시의회에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
5. 누가 다른 도시로 옮겼는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6. 시의회에서 자신의 돈을 공동체의 사회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기부를 한 이가 있는가?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7. 게임의 시작에서 A도시와 B도시의 사회적 조건은 같았다. 그들은 어떻게 끝났는가? 어떠한 차이가 있었나? 있었다면 무엇이었나?
8. 어떤 도시에 살기를 더 선호하겠나? 이유는 무엇인가?
9.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공동체 생활을 만들기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낼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번 돈 모두를 지켜서 필요하거나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사용하기를 선호하는가?
10. 게임의 끝에서 두 도시에 관련된 상황은 무엇이었나? 사회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부담할 돈을 준비하는 공공의식이 높은 거주자들이 함께 하는 '함께 잘사는 마을(이퀄타운 Equaltown)'이었나? 아니면 개인주의적 윤리관으로 사회편의시설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주자들이 있는 '혼자 잘 사는 마을(에고타운 Egotown)'이었는가?
11. 1부터 10사이에서(1은 극단적 이기적 마을, 10은 극단적 평등 마을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는 어디쯤 위치하는가?
12. 보드에 적혀진 각 구역을 차례로 살펴본다. 해당 구역에서 어떤 인권이 침해되었나?
13. 당신 나라에서는(세계인권선언 제25조)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적절한 생활환경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회공동체나 집단들이 있는가? 그들은 누구이며 왜 그러한가?

http://www.gmlets.u-net.com/

촉진자용 팁

보드 게임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이 활동이 꽤 수월하겠지만, 촉진자는 게임의 규칙과 게임 진행 방법을 설명하는 데 신경 쓰도록 한다. 큰 차트에 규칙을 쓰거나 프로젝트로 보여주거나 게임규칙을 나눠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민 역할 참가자가 10명 이하일 때 가장 효과적인 게임으로, 게임 시작단계에서 두 도시 시민의 수는 같아야 한다. 만약 참가자가 16명이라면 재정담당 역할을 두 명이 쌍으로 맡길 수도 있다. 참가 인원이 많다면 게임을 둘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준비물을 두 배로 준비하고 두 번째 게임을 맡을 공동 촉진자를 두도록 한다.

조언 한 가지: 게임을 지도하기 전에 친구나 이웃과 먼저 게임을 해본다. 그러면 가르침을 주거나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330쪽 '평등 세상으로 가는 길' 활동에서, 더 공평한 사회로의 발전을 돕거나 가로막는 요소들을 더 탐구할 수 있다. 268쪽 '우리의 미래' 활동은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과 관련된 이슈들을 탐구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도록 격려한다.

실천 아이디어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 개발 계획의 사본을 구해서, 모둠에서 토론해본다. 당신과 관련된 이슈를 조사해본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이러한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 계획을 찾아본다. 다른 방식으로 장애인 접근성이나 안전한 거리, 안전한 자전거 사용을 촉진할 계획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공청회에 참여하거나 블로그를 만들거나, 신문에 기고하거나, 공개회의나 인식 증진 이벤트를 조직하여 당신의 의견을 당국에 제시할 수 있다.

모둠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고 전 세계의 지역공동체에 의해 시작된 사례로부터 고취될 것이다. 또한 전환마을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다른 이들과 함께 기후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맞는 지속가능한 적응을 위한 지역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추가 자료

'주민참여예산제'는 공공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 결정에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민주적 참여 과정이다. 이러한 예산의 예는 지역 환경 프로젝트, 공동체 시설, 도로 안전 조치 또는 지역범죄 방지계획 등이 있다. 관련 사이트를 찾으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검색해본다.

전환마을(www.transitiontowns.org)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기후변화와 석유 고갈의 위험과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의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에너지 자립을 높이는 것과 함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계획 중에는 채소를 키울 공동체 정원 만들기, 기업들 간의 폐기물 교환(한 기업의 폐기물을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다), 오래된 물품을 버리기 대신 고쳐서 사용하기,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하기 등이 있다. LETS – http://www.gmlets.u-net.com

주

세금을 징수하고 도시 자금을 관리하는 이를 '은행가'라고 부르고 있다. 실제 은행가는 이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 용어는 인기 보드게임인 모노폴리 등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은행가'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재정담당'과 같은 다른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라.

유럽 사회보장법

유럽평의회의 유럽사회보장법은 1968년에 시행되었다. 2010년 3월 현재 21개 회원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넓은 범위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

- 의료: 일반 의료, 전문 의료, 응급 의료
- 실업 수당
- 노인 수당
- 장애 수당

유인물

게임 규칙

참가자 수

7명-13명. 3명은 재정담당 역할을 맡는다. 시작단계에서는 각 도시에 같은 수의 시민이 있어야 한다.

게임의 최종 목표

게임이 끝났을 때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

진행 방법

1. 세 명이 은행가를 맡는다. 두 명은 도시 은행가이고 한 명은 게임 은행가이다.
2. 은행가를 정하고 남은 참가자를 반으로 나누어, 한 쪽은 빨간색 이름표, 다른 쪽은 파란색 이름표를 배분한다.
3. 게임 시작 단계에서 빨간색 이름표를 가진 참가자들은 A도시의 도로를 돌고 파란색 이름표를 가진 참가자들은 B도시의 길을 돌도록 한다.
4. 모든 참가자는 '시작 및 월급' 칸에서 여행을 시작한다.
5. 참가자는 게임 도중에 '바꾸기 찬스' 칸에 멈췄을 때만 도시를 바꿀 수 있다.
6. 모든 참가자는 지정한 색에 따라 월급을 받는다.
   - 파란색 이름표: 500
   - 빨간색 이름표: 100
7. 주사위를 던져 누가 먼저 시작할지를 정한다. 숫자가 제일 높은 사람이 먼저 시작하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순서대로 돌아간다.
8. 각자 자신의 차례가 오면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수만큼 자신이 속한 도시의 길을 따라 전진한다. 도착 한 칸의 진행을 크게 읽고 지시에 따른다.
9. 주의: 지시에 따라 후진할 때에는 해당 칸에 도달하면 멈춘다. 후진하여 도착한 칸의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
10.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낼 충분할 금액이 없으면, 그 칸에 멈추고 걸인이 된다.
11. 두 명 이상의 참가자가 동시에 같은 칸에 멈출 수도 있다.

특별 구역

세금납부

참가자는 '세금납부' 칸을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 그 칸에 멈추지 않고 통과만 할 때에도 세금을 낸다. 세금 액수는 참가자의 월급과 어떤 도시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A 월급이 500 이상일 때 40%
월급이 100 이하일 때 10%

도시 B 월급 액수에 관계없이 10%

※ 주의: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실업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는 도시에 상관없이 실업 수당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징수된 세금은 해당 도시 은행가에게 낸다. A도시 참가자는 A시 은행가에게, B도시 참가자는 B시 은행가에게 세금을 낸다.

월급

참가자가 "시작 및 월급" 칸을 통과할 때마다, 혹은 멈추지 않고 통과만 해도 게임 은행가로부터 각자 월급을 받는다. 참가자가 실업상태이고 그 도시가 사회보장시스템을 가진 경우에는 도시 은행가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바꾸기 찬스

'바꾸기 찬스'에 도착한 이는 도시를 선택할 수 있다 (A도시에서 B도시로, 또는 B도시에서 A도시로).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시민들과 은행가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기만 하면 되고, 다음 차례에서 다른 도시의 길을 따라 간다.

도시를 바꾼 시민은 이전과 같은 월급을 계속 받지만, 내야 할 세금의 액수는 바뀐 도시의 세금 체계에 따른다.

시의회 회의

모든 시민은 시의회에 참석한다. 회의에서 시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

회의는 다섯 번째 세금 납부자가 지날 때마다 열 수 있다. 도시 재정담당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금 납부 칸을 지나갔는지를 기록으로 남긴다. 다섯 번째로 시민이 지나가면 회의를 소집한다.

그 도시의 시민들이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의회가 열릴 동안은 게임을 멈춘다. 다른 도시의 시민들은 회의가 끝나고 게임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회의 참가자들은 5분 동안 도시에 필요한 것과 변경할 정책을 결정한다. 교환카드에 정책안들이 제시되어 있고 시민들은 교환카드 페이지에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참고할 수 있다.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도시의 세금으로 교환카드를 사야 한다. 비용은 카드에 기재되어 있다. 시의회는 그 돈을 내야만 정책을 바꿀 수 있다. 시 은행가는 해당 금액을 게임 은행가에게 내야 한다. 시민들은 원하는 만큼 정책들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

재정적인 곤란을 겪는 시의회는 결정에 따라 한 개 이상 교환카드를 게임 은행가에게 되팔 수도 있다.

이 때 "되파는" 가격은 원래 가격의 50%이다.

부유한 시민은 원한다면 교환카드를 사기 위해 시에 재산을 헌납할 수 있다.

게임 은행가는 탈부착접착제를 사용하여 교환카드를 정해진 칸 위에 붙인다.

교환카드

17개의 교환카드에는 정책이 표시되어 있어 시의회가 선택할 수 있다. 교환카드는 게임 은행가에게서 살 수 있고 가격은 카드에 적혀 있다. 일단 카드를 구매하면 도시 은행가는 해당 카드를 보드의 시민들이 정한 칸 위에 붙여 둔다.

어떤 칸으로도 '교환'할 수 있다. 교환 시점에 해당 칸 위에 시민이 있을 경우 그 시민은 새로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새로운 정책은 그 칸에 새로 오는 시민부터 적용이 된다.

시의회에서 시민들은 시의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교환카드 구매를 결정한다. 모든 교환카드는 정해진 돈을 내고 사야 한다.

걸인

세금이나 도착한 칸의 비용을 낼 돈이 없는 시민은 '걸인'이 된다. 그러나 그 도시에 집 없는 사람을 재워주는 쉼터가 있는 경우, 걸인은 칸 위가 아닌 쉼터 칸에서 잘 수 있다. 이동을 해도 걸인의 부채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걸인은 자신이 위치한 곳에 도착하는 모든 시민에게 돈을 구걸할 수 있다. 걸인에게 돈을 주고 안 주고는 각 시민의 선택이다. '걸인'이 자신의 공과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으면 다음 순서를 기다렸다가 세금을 내고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대로 이동한다.

걸인은 자신의 순서가 올 때마다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로 주어지는 찬스는 다음과 같다.

주사위 윗면 6 — 50Ems를 쓰레기통에서 줍는다.

주사위 윗면 5 — 20개의 빈 맥주병을 주워 팔아서 50Ems를 얻는다. – 시에 재활용 센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사위 윗면 4 — 걸인 다음에 오는 사람이 걸인에게 10Ems를 준다.

주사위 윗면 3 — 술을 마시고 다음 순서가 올 때까지 잠을 잔다.

주사위 윗면 2 — 공원에서 잠을 자고 벤치 밑에서 10Ems를 줍는다. 시가 공원을 개량했다면 20Ems를 줍는다.

주사위 윗면 1 — 강도를 당한다. 다음에 받은 돈을 시 은행가에게 넘겨준다.

걸인에게 주는 돈은 걸인이 속한 도시의 은행가가 지급한다.

언제 게임이 끝나나?

참가자들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게임을 종료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첫 주자가 20회를 마친 다음 종료시간을 지정한다.
- 예를 들어 45분 후에 종료

※ 주: 한 도시가 파산하면 게임은 자동 종료된다.

승자는 게임 끝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교환 카드

공원 개량, 수영장과 아동 놀이터 설비 비용: 200Ems	공원 청소 비용: 100Ems	현 도로상태는 양호하지만 도로를 완전히 새롭게 정비합니다. 세 칸 앞으로 가십시오. 비용: 400Ems	도로의 상태는 현재 사용 가능하나, 임시로 수리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다음 시회의 때까지만 지속됩니다. 비용: 200Ems	당신이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의 30% 입니다. 시는 1000Ems의 예비비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플 때 공공병원이 보조금으로 전액을 지원하고 환자는 10Ems만 납부하면 됩니다. 비용: 600Ems	당신이 아플 때 공공병원은 보조금으로 일부만 지원합니다. 환자는 치료 때마다 30Ems를 부담합니다. 비용: 400Ems	해변 무상 이용! 무상이용 공공보조금: 100Ems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교통문제를 완화합니다. 자전거 도로 비용: 150Ems	학교 파업이 타결되었습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지세요. 인상된 임금 충당 비용: 400Ems
새로운 극장과 영화관이 개장했습니다. 비용: 400Ems	당신의 아버지가 퇴직했습니다만 어떠한 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당 제도를 도입합니다. 비용: 400Ems	당신은 독서하기 위한 도서관을 원합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지세요. 도서관 설립 비용: 200Ems	더 이상의 길거리에 떠도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육원을 건설합니다. 고아원 비용: 200Ems	재활용 시스템은 쓰레기를 줄입니다. 3칸 더 앞으로 가세요. 재활용 시스템 비용: 150Ems
당신에게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2칸 더 앞으로 가세요. 비용: 200Ems	더 이상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는 없어야 합니다. 쉼터를 오픈합니다. 비용: 200Ems			

이 게임에서 사용할 '모의 화폐'는 356쪽에 있다.

도시 은행가 업무표

두 도시 모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모든 수입은 세금납부 칸을 지나는 납부자들로 부터 걷는 세금에서 나온다.

1. 도시 은행가는 차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금납부” 칸을 지나는지를 기록하고 다섯 번째 납부자가 지나갈 때마다 시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2. 도시 은행가는 자신의 시민이 “세금 납부” 칸을 지날 때마다 세금을 걷는다.
※ 주: 도시를 바꾼 시민은 해당하는 도시의 바뀐 세금을 낸다.

   도시별 세금체계는 다음과 같다.

도시 A	월급이 500 이상일 때 40%
	월급이 100 이하일 때 10%
도시 B	월급 액수에 관계없이 10%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실업자는 세금을 면제한다.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는 수당의 10%를 세금으로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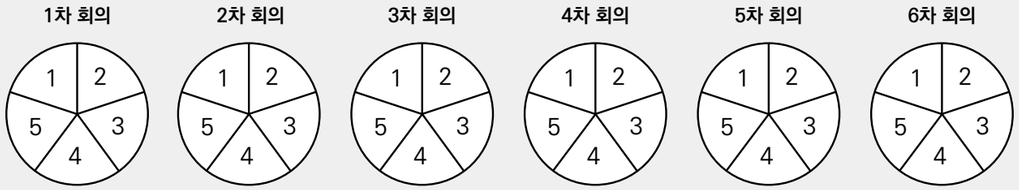
3. 도시 은행가의 기타 업무
   - 도시의 돈을 관리한다.
   - 교환카드 구입 시, 게임 은행가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다.
   - 구매한 교환카드를 시의회에서 시민들이 합의한 칸에 맞춰 보드 위에 붙인다.
   - 시가 설립을 결의하면 실업기금을 운영한다.
   - 시가 사회보장시스템을 설립하는 데 동의하면 자격이 있는 시민들에게 실업 수당을 지급한다. 시스템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에 1,000Ems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한다.
   - 자신의 도시에 사는 걸인을 지켜보고 걸인이 주사위를 던진 결과에 대해 정확히 돈을 지급한다.

주사위 윗면 6	50Ems를 쓰레기통에서 줍는다.
주사위 윗면 5	20개의 빈 맥주병을 주워 팔아서 50Ems를 얻는다. – 시에 재활용 센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사위 윗면 4	지나가는 사람들이 각기 10 Ems를 준다.
주사위 윗면 3	술에 취해서 다음번 차례에도 그냥 잔다
주사위 윗면 2	공원에서 잠을 자다가 벤치 밑에서 10Ems를 줍는다. 공원 리모델링을 한 도시라면 20Ems를 줍는다.
주사위 윗면 1	강도를 당하여 그자리에 머물면서 다음 번 수익 모두를 잃게된다

※ 주: 걸인이 공원이나 쓰레기통에서 돈을 주웠을 때 도시 은행가가 지급한다. 강도를 당했을 때 걸인에게서 돈을 받는다.

세금 납부 기록

시 은행가는 시민이 ‘세금납부’ 칸을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걷고 다음 다섯 개의 원 중 비어 있는 첫 번째 원의 한 칸씩을 체크한다. 5명이 세금을 내면 시의회를 소집한다. 다시 게임이 시작되면 순서대로 다음 원의 칸을 채워 간다.



게임 은행가의 업무표

게임 시작 때 게임 은행가는 모든 돈을 갖고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 게임이 잘 진행되도록 한다.
   - 게임을 시작한다.
   - 참가자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한다.
   - 모든 시의회 진행 시간을 잰다. 회의가 최대 5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미리 정한 시간이 되거나 첫 주자가 정해진 회차를 다 돌게 되면 게임을 종료한다. 사전 협의에 따른다.

2. 기록을 보관한다.
   - 게임 시작 때 각 참가자의 이름과 색, 도시를 기록한다.
   - 각 참가자가 얼마나 많이 ‘시작 및 월급’ 칸을 통과했는지를 기록한다.

3. 게임 시작 때와 이후 참가자들이 ‘시작 및 월급’ 칸을 통과할 때마다 매번 월급을 지급한다. 월급은 참가자가 속한 도시에 관계없이 색상대로 지급한다.
   - 파란색 참가자: 500Ems
   - 빨간색 참가자: 100Ems

4. 도시 은행가에게서 교환카드 대금을 받는다.

검수표

참가자의 색상에 따라 빨강과 파랑 펜으로 이름을 기록한다. 바를 정자(正) 획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이렇게 하면 라운드를 쉽게 합산할 수 있다. 따라서 14개를 세면 다음과 같다. 正正下

게임 시작기준 A 도시 참가자	
참가자 이름	“시작”지점을 지나간 횟수(20번까지)

게임 시작기준 B 도시 참가자	
참가자 이름	“시작”지점을 지나간 횟수(20번까지)

들어가도 될까요?

"난민들, 집으로 돌아가!" -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갈 것이다.

주제
- 이주
- 차별과 불관용
- 평화와 폭력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6-20명

시간 60분

개요 다른 나라로 도피하려는 난민 그룹에 관한 역할극이며, 다음에 대해 다룬다:
- 난민들의 곤궁한 처지
- 망명 허가와 거부에 관련된 사회, 경제적 논쟁

관련 권리
- 다른 나라로 망명할 권리
- 강제송환 금지권
  (난민이 박해를 받거나 죽을 위험이 있는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권리)
- 차별로 부터의 자유

학습 목표
- 난민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고 이해하기
- 의견을 제시하고 판단을 내리는 능력 익히기
- 갑자기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연대하기

준비물
- 역할 카드
- 플립차트 또는 글을 쓸 보드
- 분필과 출입국관리소를 구성할 기구
- 펜과 종이(관찰자들이 메모할 필기구)

준비 작업
- 정보 역할 카드를 복사한다. 이민국 직원, 난민, 관찰자 역할별로 각각의 카드를 준비한다.
- 역할극을 위한 무대를 설치한다. 예를 들면, 바닥에 선을 그어 국경을 표시하거나 가구를 배치하여 검문소를 나타낼 수 있다. 테이블을 출입국관리소 데스크로 설정한다.
- 난민과 현재 난민의 세계적 상황을 숙지한다.

진행

1. 이 활동은 안전을 위해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는 난민 그룹에 대한 역할극임을 설명한다.
2.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으로 시작한다. 큰 종이나 플립차트 용지에 요점을 적어보고, 이것을 나중 토론 시에 참고한다.
3. 방 안의 무대 세팅을 보여주고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X국과 Y국 사이 국경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추우며 눅눅한 밤입니다. 많은 난민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국경을 넘어 Y국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지쳤으며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국 P, Q 및 R로부터 먼 길을 왔습니다. 가진 돈도 거의 없고 여권이나 다른 증빙 서류도 거의 없습니다. Y국 출입국사무소 직원들 상황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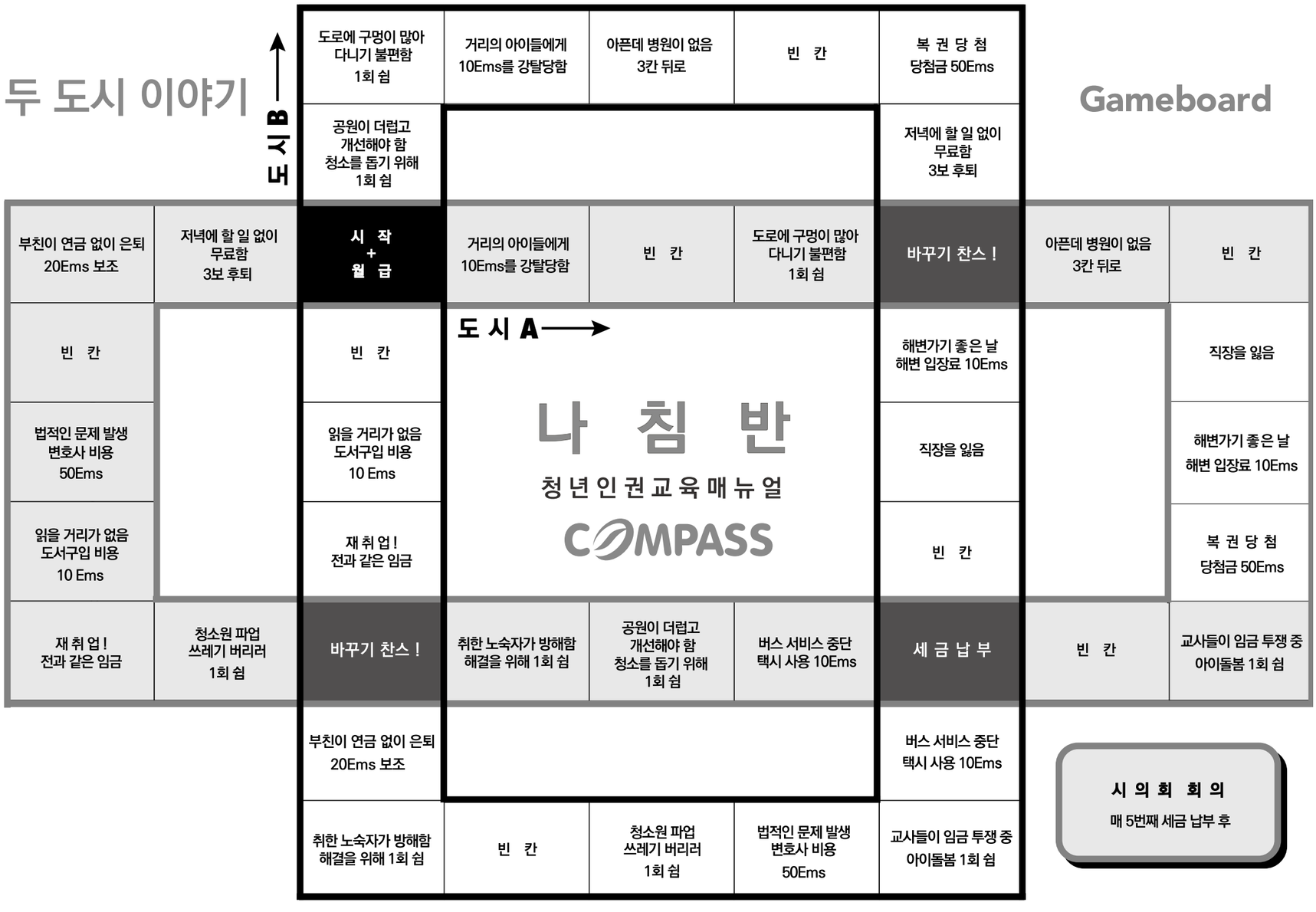
차별과 불관용

평화와 폭력

3단계

6-20명

60분



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고 몇 가지 논거를 사용해서 이들을 설득하여 입국하려 합니다."

4. 참여자들을 세 모둠로 나눈다. 첫 번째 모둠은 난민 역할을 맡고, 두 번째 모둠은 Y국 출입국사무소 관리가 되며, 세 번째 모둠은 관찰자가 된다.
5. "난민"과 "출입국사무소 관리"에게 각자 자신의 역할과 논리를 준비하게 한다. 관찰자에게는 피드백에 관해 조언한다. 배포 자료를 나눠 주고 15분의 준비 시간을 준다.
6. 역할극을 시작한다. 언제 멈출지는 촉진자가 판단하며, 약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7. 관찰자 모두에 피드백을 준비하도록 5분의 시간을 준다: 이이서 디브리핑과 평가를 시작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관찰자가 역할극에 대해 전반적인 피드백을 하면서 시작한다. 그 다음 참여자들로부터 난민이나 출입국사무소 관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들어보고 주제와 오늘 배운 것에 대한 전체 토론에 들어간다.

- 난민에 대한 처우는 얼마나 공정한가?
- 세계인권선언 제14조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난민들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난민들에게 이러한 보호권이 주어졌는가? 주어졌다면 왜? 아니라면 그 이유는?
- 국가는 난민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가? 언제? 어떤 이유로?
- 당신이 출입국사무소 관리라면 돌려보낼 것인가? 그들이 귀국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할 것 인가?
- 오늘날 난민들이 유럽으로 피난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난민들이 탈출하려했던 때가 있었나?
- 난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 과거로부터 배운 바를 말해줄 수 있나?
- 당신 나라의 국경에서는 난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인권의 침해가 있는가? 어떤 인권이 침해당하나?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난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고 해야만 할 일은 무엇인가?

촉진자용 팁

난민의 상황은 유럽의 나라마다 현저하게 다르다. 촉진자는 이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목적을 충족시키는 시나리오 설정과 활동 적용의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허구의 나라들에 대해 간단한 배경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무대가 설정된 X국과 Y국, Y국 너머에 있는 Z국, 그리고 난민의 원인 국가인 P, Q 및 R국 난민과 망명신청자의 정의에 관해 숙지한다.

이주에 관한 배경의 장을 살펴보라. 난민의 주요 원인국들과 인접한 국가들의 난민 수를 메모해둔다. 또한 자국과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있는지 검토한다. 이 모든 정보가 unhcr.org에 있다.

왜 난민이 존재하고, 무엇이 그들이 고국을 떠나게 하는지, 어디에서 오며, 어느 나라로 가는지에 대해 참여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어떻게 디브리핑 및 평가를 안내해야 할지, 또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도와준다.

참가자 중 실제 난민이 있다면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만일 그들이 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을 자료 제공자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

세 모둠의 구성원이 동수일 필요는 없다. 서너 명을 관찰자로 선택하고 나머지 참여자가 모두를 적극적인 역할 연기자로 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출입국 관리자보다 난민이 더 많은 경향이 있으며 이것을 역할 연극에 반영할 수도 있다. 관찰자에게 디브리핑의 한 부분으로서 보고서를 정리해야 하는 "기자" 역할을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 활동에서 무엇을 성취하길 원하는지 숙고하고 어떻게 무대를 설정할지 생각한다. 난민은 매우 지치고 굶주리고 절박한 사람들인가? 만일 그렇다면 숲속 야외에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만일 구멍 난 보트를 타고 무리지어 왔다면 강가나 호숫가에서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실내에서 어둡고 추운 밤의 장면을 설정하고 싶다면 조명을 끄고 창문을 연다. 그렇지 않고 적은 수의 난민이 정식으로 국경 통과를 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직원이 난민의 여권을 간단히 검사하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볼 수 있는 '사무실'을 설정한다.

역할 카드를 검토해서 필요에 따라 적용시킨다. 역할극이 매우 혼돈스러워질 수 있음을 주의한다. 이런 경우에는 행동을 중지시키고 (포럼 연극에서와 같이) 기자로 하여금 난민과 사무소 직원을 인터뷰하도록 요청한다. 이것이 모두를 진정시키고 더 주의깊게 경청할 수 있게 해준다.

응용

디브리핑 후에 두 번째 역할극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의 역할을 바꾼다. 관찰자들은 첫 번째 역할극과 두 번째 역할극에서 차이점을 찾아 기록하는 새로운 의무를 받는다. 특히 난민 권리에 대한 보호가 더 개선됐는지에 주목한다.

경찰과 관료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돕고 싶으나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시민 역할의 네 번째 모둠을 만들 수도 있다.

X국에서 온 난민을 돕기 위해 UNHCR이나 적십자의 정규 파견팀을 역할을 함께 구성한 역할극을 이어 만들어 본다.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귀하의 나라에서의 난민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그들의 실제 일상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참여자들은 지역난민기구에 연락하여, 난민이나 직원, 자원봉사자를 인터뷰할 수 있다.

덴마크로 온 망명자와 난민들이 쓴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www.newtimes.dk). 하나의 이야기를 선택하여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본다.

영국 적십자에서는 난민에 대한 정보와 활동을 Positive Images project에서 찾아본다: www.redcross.org.uk.

모둠은 자신의 난민 지식에 관해 테스트할 수 있다. www.proprofs.com

학교 수업에서는 UNHCR www.unhcr.ch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고 다음 주제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 출입국사무소 관리에게 난민들이 입국을 허용하도록 설득한 논리
- 출입국사무소 관리의 부적절한 행동
- Y 나라가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권고

현재의 유럽 상황에 대해 토론한다. 정치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난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정책은 어떠하며 왜 다른가? 예를 들어, 난민들에 대해 국경을 폐쇄한 나라들과 난민에 대한 약속을 존중하는 나라들간의 정책을 비교해볼 수 있다. 모둠을 나누어 각 소모둠이 서로 다른 국가를 대표해서 이 위기를 다루는 유럽의 계획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자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일반인의 태도는 어떠하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는 틀림없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보편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른 질문들로 이어진다. 편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해보는 것도 유익한 활동이다.

제네바협정이 현재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갱신이 필요한지 논의한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망명신청자들이 개별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핍박을 받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이거나 전쟁터에서 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기후 난민들도 제네바협약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 념 일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가져갈 물건을 챙길 시간도 없이 갑자기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15쪽 '세 가지 물건' 활동을 해볼 수 있다. 난민이 국경을 넘어 망명신청한 후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활동을 하고 싶다면 241쪽 '언어 장벽' 활동을 해볼 수 있다. 또한 난민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는 콜라쥬나 포스터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96쪽 '그림 연상 놀이' 활동을 참고한다.

실천 아이디어

자국에 거주하는 난민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또는 국가 기관을 접촉해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본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외롭고 해당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새롭게 친구를 만나고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을 고마워할 것이다.

가족 없이 홀로 망명을 온 아이들은 특히 취약하다. 이 비동반 아동들에게 자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친구 되기, 언어 학습과 교육을 돕기, 축구하기 그리고 함께 외출하기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의와 통계 www.coe.int/compass의 5장 이주민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난민을 위해 일하는 NGO나 난민도 학교나 모임에 초대하여, 이 나라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망명 과정과 지금의 삶에 대해 자세 알아보도록 한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 웹사이트는 학교나 모임에서 난민에 대한 워크숍을 조직하기 위한 많은 정보, 전단지, 비디오 등을 제공한다. http://www.unhcr.org

추가 정보

난민이란 자신의 생명을 구하거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주해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사실 종종 정부가 박해하고 위협하곤 한다. 만약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 또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나 권리도 없이 어두운 곳에서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도록 내몬 것이 된다.

유용한 사이트:

http://councilforeuropeanstudies.org/; http://www.refugeesinternational.org/

유인물

난민 역할 카드

난민의 주장과 선택사항

당신은 다양한 난민 집단을 역할하게 된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 각자는 자신의 신원을 결정해야 한다: 연령, 성별, 가족 관계, 직업, 재산 종교 및 소지품. 또한 P, Q 및 R의 어떤 국가에서 왔으며 박해와 인권 침해 때문인지 또는 다른 이유를 결정한다. 당신은 근거와 전술을 준비해야 한다; 근거를 집단적으로 제시할지 아니면 각자가 진행에 따라 차례로 제시할지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거나 당신이 생각하는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 우리에겐 망명을 할 권리가 있다.
- 우리 애들이 굶주리고 있다; 당신은 우리를 도울 도덕적 책무가 있다.
- 우리는 돌아가면 살해될 것이다.
- 돈이 한 푼도 없다. 유일한 소지품은 정서적 가치가 큰 보석류 두 개 뿐이다.
- 나는 다른 어느 곳도 갈 데가 없다.
- 나는 고향에서 의사/간호사/기술자였다.
- 나는 단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피난처가 필요할 뿐이다.
- 다른 난민들은 당신 나라에 입국을 허락받아 왔다. 우리는 왜 아닌가?
- 여기가 어디냐? 밀수업자들은 우리를 Z국으로 데려다주기로 했다.
-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 나를 입국시키도록 하겠다.
- 내가 가고자 하는 Z국으로 가는 길에 있는 Y국에 어머니와 형이 이미 입국했다, 나는 Y국에 머물길 원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 사항:

-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가? 진짜인가? 위조품인가?
- 만약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요구한다면 집단을 나누겠는가?
- 당신을 돌려보내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갈 수 있는 난민촌이 있다면? 여권을 만들 방법이 있는가? 밀매업자를 찾아 비용을 줄 수 있는가? Y국에 들어갈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관찰자 역할카드

당신의 역할은 역할극을 관찰하는 것이다. 역할극이 끝나면, 전반적인 피드백을 요청받을 것이다. 모둠에서 대표자를 선택하도록 한다.

지켜보면서 무엇보다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난민과 출입국 관리 양쪽에서 주어진 다른 역할
- 그들이 사용하는 도덕적 및 법률적 주장과 이것들을 제시하는 방법
- 인권 침해 사항

당신은 모든 사항을 어떻게 요약할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모둠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출입국 관리, 다른 그룹은 난민을 대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출입국사무소 관리 역할카드

출입국 관리의 주장과 선택사항

자신의 논리와 전술을 준비해야 한다; 집단으로 아니면 각 개인으로 논의에 참여할 지를 결정한다.

아래 사항 등을 참고하거나 자신의 논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

- 그들은 절실하다; 그들을 돌려보낼 순 없다.
- 만약 그들을 돌려보내서 체포되거나 고문 받거나 죽게 된다면, 우리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
- 우리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책무가 있다.
- 그들은 돈이 없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 여권이나 신분을 증명할 수단이 있는가? 이 서류는 진짜인가? 아니면 위조인가?
- 진짜 난민으로 보이는가? 어쩌면 단지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여기로 온 건 아닐까?
- 우리나라는 그들 출신국의 일부와 군사적 경제적 협력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없다.
-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는가?
- 우리나라에는 이미 난민들이 충분히 많다. 우리는 자국민을 돌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보다 부유한 나라로 가야 한다.
- 그들에게 입국을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들을 들여보내주면, 다른 이들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 이들은 우리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다른 종교를 갖고, 다른 음식을 먹는다; 우리 사회에 통합되기 어렵다.
- 그들 중에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
- 우리는 P국의 전쟁에서 도피해왔다는 사람만을 입국시키도록 지시받았다.
- 그들은 Y국에의 망명요청을 원하는가?
- 그들은 망명요청 검토기간 동안 머무는 비용을 부담할 돈이나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가?

역할극을 시작하기 전, 다름의 선택사항에 대해 생각해본다:

- 난민 모두를 국경을 넘어오도록 해야 하나?
- 이들 중 일부를 넘어오도록 하겠는가? 누가 그리고 어떤 이유로?
- 이들을 나이, 직업, 재산 등으로 분류하겠는가?
- 대신 다른 무언가를 할 것인가? 무엇을?

주

이 활동은 'First Steps: A Manual for starting human rights education, (국제앰네스티, 1997)에서 가져왔으며, 이 활동의 최신 버전은 www.amnesty.org 에서 "On the Borders Of Europe Workshop"를 참고하라.

"Refugee go home! He would if he could"는 UNHCR 캠페인에서 사용된 슬로건이다.

문화와 스포츠

환경

세계화

4단계

14명 이상
(소모둠당 5명)

150 분

마카족 고래잡이

옷은 마음대로 입어도 된다 – 포경은 살인이고 살인은 잘못된 것이다.

고래 및 돌고래 보호협회

주제
- 문화와 스포츠
- 환경
- 세계화

난이도 4단계

모둠 크기 14명 이상(소모둠 5명)

시간 150분

개요 다음 주제에 대한 소모둠 활동, 역할극, 토론을 통한 합의 도출로 구성되어 있다:
-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원주민의 권리

관련 권리
-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참여할 권리
- 식량권과 천연자원 접근권
- 생명, 자유, 개인 안보에 관한 권리

학습 목표
- 문화적 삶을 가질 권리와 환경보호라는 상충하는 주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 비판적 사고와 주장을 제시하고 합의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 문화적 차이에 대해 열린 마음가짐을 키운다.

준비물
- 유인물
- 모둠별로 메모할 수 있는 필기도구와 종이

준비 작업
- 모든 유인물을 읽고, 본 주제에 관한 정보를 숙지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역할카드를 복사해 두어, 참가자들은 각자의 역할카드를 가지도록 한다.

진행

이 활동은 2부로 나뉜다. 1부는 30분간 진행되며 본 활동을 소개하고, 관련된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슈를 소개한다. 2부는 90분간 진행되며 마카족과 포경반대 단체 간의 함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보는 가상 회의 활동이다.

1부.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슈 소개(30분)

1. 본 활동이 환경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활동임을 설명한다. 고래잡이를 재개하려는 마카족의 요청과 환경보호론자 등의 반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마카족에 대해, 그리고 이들이 몇 년 동안 대립하면서 지속적인 결과 없이 법적비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둠에게 이야기한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자신과 다른 이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모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마카족 일부는 불만을 품고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포경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에게 매우 불만족스러우며 모두가 함께 모여 합의점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때 인 것으로 보인다.

기 념 일

8월 9일
세계 원주민의 날

3. 참가자들에게 다음 질문들에 대해 '높고 낮다'를 표시하여 답하도록 요청하면서 몇 가지 이슈를 소개한다(이 기법의 사용법은 마무리 활동 중 하나인 353쪽 '높고 낮다' 활동을 참고한다). 다음 문장을 하나씩 차례로 소리내어 읽는다:
   -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관습은 존중되어야 한다.
   - 음식을 선택할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들이 극단채식주의자이거나 채식주의자이거나 육식주의자이든.
   - 우리가 먹는 음식은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 동물 사육에 집약적 사육이나 잔인한 도축과 같은 잔인한 방식은 배제되어야 한다.
   - 문화적 전통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 비록 문화적 이유라 할지라도 고래잡이는 금지되어야 한다.

2부. 마카족과 포경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모의 회의(90분)

1. 문자 그대로 법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점을 모둠에게 상기시킨다. 이 활동은 크레스트(문화, 권리, 환경, 지속가능성과 대화)라는 가상의 조직이 주최하는 모의 회의이다. 크레스트는 환경문제에 인권적 관점을 부여하는 독립적 조직이다. 그들은 대화를 통한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 모의실험은 크레스트가 주재하는 다음 4개 그룹간의 만남이다:
   a. 포경 재개를 바라는 마카족
   b. HLA(북극 연합, High North Alliance), HLA는 고래사냥과 바다표범 사냥을 대변하며, 해양 문화의 미래와 해양 포유류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활동하는 연합조직이다. HLA는 마카족을 지지하고 있다.
   c. 바다의 수호자(Sea Shepherd), 시셰퍼드는 해양생물종을 보호하는 국제법, 규정 및 조약의 위반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단체이다. 그들은 마카족의 요청에 반대하고 있다.
   d. 그린피스, 포경에 반대하는 환경 운동가
2. 크레스트의 역할은 논의를 촉진하는 것으로 아래 다섯 질문에 집중하도록 한다.
   - 왜 고래가 중요한가?
   - 회색 고래는 멸종위기종인가?
   - 왜 마카족이 고래 고기를 먹는 것을 중단해야만 하는가?
   - 마카족의 고래 사냥 의식을 수정할 수 있는가?
   -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고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감시가 필요한가?
3. 크레스트를 대표하는 4명의 지원자를 요청하고, 모둠의 나머지 사람들을 4그룹으로 균등하게 나눈다. 역할 카드를 나누어준다. 각 모둠별로 정보를 논의하고 5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지지 논거를 준비하기 위해 30분을 준다.
4. 그룹별로 준비를 마쳤으면, 전체가 모인다. 의장직은 크레스트를 대표하는 사람이 맡는다. 이 회의는 60분 동안 지속된다.
5. 크레스트는 토론에서의 인권과 환경 프레임에 대한 짧은 설명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틀에 따라 이 이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슈를 토의하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킨다. 뒤를 이어 마카족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이어서 공개 토론을 한다.
6. 토론 마지막에 크레스트가 요약한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뒤 디브리핑과 평가로 넘어간다.

디브리핑과 평가

- 토론과 질문 중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도록 요청한다. 이어 일반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한다.
- 다른 역할을 맡았다면 어려웠을까?
- 토론을 통해 배운 것 중 무엇이 가장 흥미로웠나?
- 가장 훌륭한 주장은 무엇이었나? 감정에의 호소였나? 아니면 합리적, 논리적 주장이었나?

- 주장의 다른 면을 보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는가? 받아들이기는 얼마나 힘들었나?
- 다섯 질문 각각에 공통점이 얼마나 있었나?
- 실생활에서, 무례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타인의 문화 관습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운가?
- 문화적 충돌은 어느 지점에서 차별이 되는가?
- 문화적 차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기 얼마나 어려운가?
-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문화를 사라지게 하는가? 변화된 문화는 잃어버린 문화인가? 문화의 변화를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긍정적인 과정으로 볼수 있는가?
- 이번 활동에 어떤 인권이 위태로웠는가?
- 권리에 관련된 법률소송은 보통 법정에서 해결된다. 이러한 방식이 인권 문제 해결에 공정한 방법인가?
- 식량과 생명, 환경 보호와 종의 보존 등에 대한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고래잡이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는지를 보기 위해, "높게 또는 낮게"를 한 회 더 하면서 마치도록 한다. 1부에서와 동일한 질문을 반복한다.

촉진자용 팁

이 활동에서 다루는 문제의 복잡성은 높은 토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그룹에 가장 적합하다. 이해해야 할 정보가 상당히 많고, 역할카드의 내용은 어느 정도 인권과 환경 용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졌다. 활동을 2부로 중간에 역할카드를 읽고 쟁점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도 고려한다.

본 활동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는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의 문화 관점이 가지는 한계를 직시하고 야생생물들의 지속가능한 생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재고하게하는 것이다. 고래잡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감정적인 문제로서, 그들은 종종 매우 강력한 입장을 견지한다. 이런 점이 다루기는 어렵지만 도전적인 주제가 된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문화, 삶, 전통에서 중요한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 두 번째 목표는 합의도출 능력기술을 기르는 것이며, 가상의 조직, 크레스트(Crest; Culture, right, environment, sustainability and Talk '문화, 권리, 환경, 지속가능성 및 말'의 머릿글자 조합)에 의해 조정되는 회의를 설정한 이유이다.

진행의 2부 1단계에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수도 있다.

- 고래는 왜 중요한가? 경제적, 역사적, 환경적, 영적 이유를 고려한다.
- 회색 고래는 멸종위기종인가? 과학적 증거는 무엇인가?
- 마카족이 고래 고기를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과 무슬림은 문화적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
- 마카족 고래잡이 의식은 수정될 수 있을까? 문화적 관습은 변화할 수 있고 그래왔다는 점을 명심한다. 예를 들어 에이즈 전염에 대응하기 위해,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으며, 성과 관련된 관습 예를 들어 과부 청소와 같은 일들은 도전받고 변화하였다.
-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고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감시체계가 필요한가? 공개적인 정보접근권을 고려해서 특정 연도에 고래 개체수는 적정한지 부정행위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지를 파악할 중재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참가자들이 역할 카드에 소개된 일부 개념이나 용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원주민

원주민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분명하고 빠른 구분점은 없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이 오기 전, 그리고 국경이 그어지기 전부터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을 일컫는다. 그들은 자신의 국가에서 항상 주변부에 있었으며 종종 부족단위로 있다. 2007년 원주민 권리 선언은 그들의 자기결정권,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그들 문화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예방의 원칙

예방의 원칙이란 "어떠한 활동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해 위협을 준다면, 과학적으로 특별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의 위험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위 당사자들이 그 위협의 과학적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잠정적 위해 행위에 대한 대안의 분석;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1989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속가능한 이용"은 재생 가능한 자원에만 적용되는 용어로서, 자원의 재생 능력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세계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원칙이 있다.

응용

인원이 적다면 두 모둠만으로 진행하여도 된다. 마카 부족과 북극연합을 한 편으로 하고, 그린피스와 시셰퍼드를 상대편으로 구성한다.

이 활동을 두 개로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둠이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입장을 고려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활동은 패널 토론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마카족, 북부 연합, 시셰퍼드, 그린피스 각 그룹 당에서 한 명씩을 뽑는다. 각각 자기 사례를 제시하고, 전체로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마지막에 다섯 질문에 대한 투표를 한다. 이 방식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인권, 문화, 환경적 측면에 대해 고려해보도록 하지만, 합의 구축 요소는 부족할 것이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문화 변화에 대한 생각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85쪽 '곧 구식이 된다' 활동을 해본다.

실천 아이디어

물건을 구매하여 원주민을 도울 수 있다. 상점에서 '공정무역'을 통해 판매하는 많은 수공예품은 원주민이 만든 것이다. 다음에 선물을 살 기회가 있다면 들러보기를 추천한다.

추가 정보

〈〈마카족 고래 사냥과 리바이어던의 죽음: 현대 시대의 전통 재창조와 진정성 논쟁〉〉(The Makah Whale Hunt and Leviathan's Death: Reinventing Tradition and Disputing Authenticity), 롭 폰 진켈 (Rob van Ginkel), 암스테르담 대학.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다. (검색엔진에 제목을 입력)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국제토착민업무그룹 www.iwgia.orgdmf, 2007년의 원주민 권리선언 전문은 www.un.org에서 볼 수 있다.

북극연합(High North Alliance):
www.highnorth.no

국제 시셰퍼드(The Sea Shepherd International):
www.seashepherd.org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www.iwcoffice.org

마카족 공식 사이트(Makah Nation):
www.makah.com

그린피스(Greenpeace):
www.greenpeace.org

동물의 권리와 모든 지각있는 생물체에 대한 친절과 존중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 있다: www.uncaged.co.uk

유인물

촉진자용 일반 정보

마카족(또는 마카, 마카인이라고도 부름)은 미국 워싱턴주 올림픽 반도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보호구역에 살고 있다. 현재 보호구역은 약 27,000에이커 정도이다. 1999년 7월 부족 인구 조사에서 마카족으로 1,21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호구역에는 1,079명이 살고 있다. 평균 실업률이 약 51%정도이다. 보호구역내 가구의 거의 49%는 연방 빈곤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단위로 59%가 표준이하 상황이다.

이러한 암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통이 매우 강해서 대학을 졸업한 많은 마카족이 보호구역으로 돌아와 마카족을 위한 일, 지역 보건소, 공공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http://www.statemaster.com/encyclopedia/Makah

최근 분쟁에 대한 간략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 1997년 10월: 국제포경위원회 협약에서 마카족에서 1년에 4마리의 회색 고래 사냥을 할당했다.
- 1999년 5월 10일: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카족 첫 고래사냥이 있었다. 시위자들은 사냥을 방해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다.
- 1999년 5월 17일: 고래 한 마리를 잡았다.
- 2000년 6월 9일: 제9회 순회 항소법원은 새 환경평가가 나올 때까지 사냥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 2001년 7월: 새 환경평가가 제시되었으며, 사냥은 다시 승인되었다.
- 2002년: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 사냥 할당을 5년 추가 연장하는 마카족 요청을 승인했다.
- 2002년 12월: 제9차 순회법원 재판관 3명은 완전한 환경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사냥 허용을 무기한 보류하였다.
- 2005년 2월: 마카족은 고래 사냥을 허용하도록 해양포유류보호법 포기를 국립해양수산청에 공식 요청하였다.
- 2007년 9월: 진척사항이 없자 좌절한 부족 일부 구성원이 불법으로 고래를 사냥했다.
- 2008년 5월: 수산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발표했다.
- 2009년 중반: 최종 영향평가도 포기 요청에 대한 결정도 없다.

자료: www.historylink.org

역할 카드

크레스트 역할 카드

고래잡이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중립적이다. 당신의 역할은 인권과 환경 법규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그룹 간 중재를 하고 마지막에 요약한다. 당신의 업무는 회의의 촉진자로서 토론이 당면한 과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잘못된 개념이나 오해를 명확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그룹이 서로의 차이를 벗어나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돕는다:

- 고래가 중요한 이유는?
- 회색 고래는 멸종위기종인가?
- 왜 마카족이 고래 고기를 먹는 것을 중단해야만 하는가?
- 마카족의 고래 사냥 의식을 수정할 수 있는가?
-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고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감시체계가 필요한가?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토론 방식을 설정한다. 2분 동안 이 이슈에 대한 인권과 환경적 측면을 요약하는데, 원한다면 바로 다음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다. 이 모임의 목적을 재확인한다: 현재의 분쟁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전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마카족에게 고래잡이를 재개하려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한다. 50분간의 토론을 갖고 나서, 이를 간략히 요약하고, 다음 회의에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된 요점들을 열거한다.

인권·문화·환경에 관련된 배경 정보 일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1993년 비엔나선언 서문에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분리되지 않으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동등한 기점과 같은 강조를 전 세계적으로 하며….국가와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1981년 국제포경위원회는 원주민 생계 포경(ASW)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래잡이와 고래 사용에 전통적 의존이 지속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가족, 사회, 문화적 강력한 유대로 이어지는 원주민이나 토착민에 의해서나 이들을 위해 행해지며 원주민 소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고래잡이"라고 정의된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일반 원칙중 하나는 재생가능한 해양 자원의 최적의 지속가능한 활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는 멸종위기에 놓인 회색 고래에 대한 어업을 중지하도록 선언하였다. 1994년 개체 수는 약 21,000마리로 회복되었고, 미국 멸종 위기종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마카족 역할 카드

당신의 역할은 북아메리카의 북서해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 마카족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래잡이는 마카족의 중요한 문화적 전통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매년 회색 고래 5마리를 잡을 권리이다.

당신은 기존의 인권과 환경 관련 기존 지식과 다음의 정보를 함께 사용하도록 한다:

- 마지막 고래잡이가 있은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의식, 관습, 노래와 이야기가 전승되어 살아있다. 사냥을 중심으로 사회 구조 전체가 세워졌다.
- 지금은 일부 마카족이 연어와 은대구 낚시를 하여 지역 가공공장에 팔지만, 가족과 친구사이에 나누는 옛 방식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 고래의 개체수를 고갈시킨 것은 유럽인과 미국인에 의한 산업적 포경이었다. 현재는 개체수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미국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 우리 젊은이들은 자신의 문화와 역사에 기반한 정체성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랜 전통의 일부가 되는 것은 미국의 대다수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이다.
- 우리는 회색 고래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목적은 의식과 음식이자 호구지책이다.
- 우리는 회색 고래 5마리를 요청했지만, 5마리 다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
- 우리는 전통 손작살을 사용하고 작은 연안 어선에서 낚시를 한다. 우리는 알래스카 작살총에 사용하는 화살촉에 작은 폭탄을 장착한 변형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 우리는 회색 고래가 멸종 위기종 목록에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고래잡이와 마카족에 대한 추가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www.historylink.org (makah whaling을 검색하라)

시셰퍼드와 고래 및 돌고래 보존협회 역할 카드

'시셰퍼드 인터내셔널'은 비영리 NGO기구로서, 해양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국제법, 규정 및 조약의 위반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하고 있다. '고래 및 돌고래 보전협회(WDCS)'는 모든 고래, 돌고래와 쇠돌고래의 보존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가장 활발한 자선단체이다.

다음의 정보와 함께 인권과 환경 문제에 대한 당신의 기존 지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 "옷은 마음대로 입어도 된다 – 고래잡이는 살인이며 살인은 잘못된 일이다."
  – 고래는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보다 못하지 않다. 고래를 죽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은 "모자란" 인간의 대략학살을 받아들이는 것과 겹쳐진다.
  – 심오한 의미에서, 고래를 비롯한 몇몇 지각이 있는 포유류들은 인권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인도적 권리"를 가진다.
- 마카족 문제 발의의 진정한 이유는 고래 고기가 일본에서 kg당 80달러로 거래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래 한 마리는 거의 백만 달러에 거래된다.
- 마카족에게 허용하는 것은 노르웨이, 일본, 러시아, 아이슬란드에게 선례로 보이기에 수천마리의 고래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오랜 전통 방식을 계승하여 역사적 권리를 존중하려는 것과 고래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이해 간의 균형을 잡으려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 1995년 러시아의 회색고래 사냥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데, 이 고래 고기는 원주민이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우털 농장에서 사료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문화는 변화한다. 지금 알라스카 북부 에스키모인들은 한 세기 전 고래잡이를 하던 때와는 경제적으로 매우 다르다. 섬유 개발로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왔으며, 현대 설상스키와 헬기를 이용한 사냥은 원주민이라는 정의를 변질시켰다.
-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상업적 고래잡이 재개라는 뜨거운 주제로 계속 논쟁하고 있는 동안에,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와 돌고래, 쇠돌고래류가 원주민 사냥으로 몰래 죽어가고 있다.
- 야생동물의 관점에서, 예방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린피스 역할 카드

그린피스는 보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달성하는 법이라는 비전을 위해 전 세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다음의 정보와 함께 인권과 환경 문제에 대한 당신의 기존 지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 전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고래를 신성시하고, 각각의 종을 존중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 고래는 수많은 고래관찰자들에게 기쁨을 준다.
- 그린피스는 어떠한 포경도 지지하지 않지만, 사업적 요소가 없는 한 자급형 포경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 회색 고래는 매년 광활한 거리를 이동하며 마카 해역을 잠시 지나갈 뿐이다.
- 한 부족이 5마리의 회색고래를 사냥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수용한다면, 캐나다와 알래스카의 몇몇 다른 부족들도 "그래, 그들이 사냥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래야 돼."라고 말할 것이다.
- 다양한 고래 개체군에서 실제 고래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개체수는 ±50% 이상으로 오차가 있다. 변화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단 몇 년간의 연구로 개체수 증감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업적 포경으로 인한 고래 수의 감소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극 연합 역할 카드

북극연합(HNA)는 캐나다, 그린란드, 페로 제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고래사냥 및 바다표범사냥을 대표하는 연합조직이다. HNA는 해안 문화의 미래와 해양 포유동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정보와 함께 인권과 환경 문제에 대한 당신의 기존 지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 마카족은 2,000년 동안 고래잡이를 해왔는데, 백인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고래를 빼앗았고, 마카족 전통과 삶의 방식을 파괴했다.
- 지금 고래는 다시 풍부해졌지만, 백인들은 이 자원의 사용 모두를 금지하고 우리의 권리를 부정하고자 한다.
-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떤 동물은 특별하고 어떤 동물은 식사용으로 가장 적합한 지를 결코 합의할 수 없을 것이다. 노르웨이 북부 사람들은 아이더오리를 특별한 관계로 대하고 있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아이더오리를 별미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고래는 다르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 바다포범 사냥과 마찬가지로, 고래잡이도 원주민들이 하고 비상업적이고 오직 "전통적인 사용"만을 위한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한다. 아래 같은 이유로 불공평하다:
  – 무엇이 "전통적인가?"라는 정의를 외부인들이 하는 경향이 있다.
  – 고래잡이와 바다표범 사냥을 비상업적 용도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 어떠한 문화도 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래잡이금지 정책은 이 상황을 "동결"시켰다. 이는 사실상 진화하는 문화를 고정적인 박물관의 대상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 국제포경위원회(포경을 통제하는 기구)에서 대다수의 정부는 상업주의 자체를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자유무역의 강력한 지지자인 정부들이 표현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 현재의 활동중단, 즉 "고래에 손도 대지 않는(절대 금지)" 정책은 논리적 주장으로 방어하기 어렵다. 농업, 어업, 임업 등에서도 분명하게 지속가능하지 않는 관행이 많지만, 이들 산업분야에서는 전면적인 금지는 없다.
- "해양 포유류는 해양생태계의 생물자원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위협받을 때 보호받아야 하고, 사냥을 허용할 수 있을 만큼의 개체수가 확실할 때에만 사냥할 수 있다. 해양 생태계에서의 개체수 과잉과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도 사냥은 필요할 수 있다." (1993년 6월12일, 유럽평의회 해양포유류 보고서)
- 고래잡이는 국제적 협력이 과잉 착취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국제적 협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낼 수 있었다.

기억/추모

전쟁과 테러

문화와 스포츠

2단계

10-15 명

120분

메모리 태그

사자들이 자신들의 역사가를 갖기 전까지, 사냥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냥꾼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아프리카 속담

주제
- 추모
- 전쟁과 테러
- 문화와 스포츠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10-15 명

시간 120분

개요 참가자들은 함께 "태그 클라우드"를 만들어 공공 전쟁 기념관이 불러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관련 권리
- 생명권, 자유권 및 개인 안보권
-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 사상과 양심의 자유

학습 목표
- 과거 전쟁에 대한 국가적 사실과 신화, 그리고 공공 전쟁기념관의 역할에 대해 돌아본다.
- 독립적 사고를 위한 창의력과 능력을 개발한다.
- 상상력과 연민을 키운다.

준비물
- 플립차트 용지
- 접착테이프
- 다양한 색의 마커
- 전쟁기념물 사진들(선택사항)
- 태그 글라우드 예시(선택사항)

준비 작업 여러 장의 플립차트 용지와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큰 용지를 만든다.(가로 세로 약 1.5미터 정도로 모든 참가자가 둘러앉을 수 있을 만큼 커야 한다.
가운데에 희미한 선을 그려둔다.

진행

1. 모든 사람들에게 "태그 클라우드"에 대해 확실히 이해시키고, 모둠이 공공 전쟁 기념물이 일깨운 연상과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비전자식 태그를 만들게 한다.
2.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지역의 국가기념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였는지 회상하고 그 기념물이 일으킨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감정, 생각 및 연상을 확인한다.
3. 모두가 유색 마커를 가지고 종이 둘레에 자리 잡도록 한다. 여전히 개별적으로 작업하는데,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따라 공동의 종이 위에 개별 "단어 써넣기"를 하도록 한다:
   a. 태그는 전적으로 개인적이다: 태그는 단지 당신이 특정 대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보여준다.
   b. 부정적 연상은 중앙선에서 왼편에 쓰도록 한다. 부정성이 클수록 더 왼편 가장자리로 적도록 한다.
   c. 긍정적인 감정은 종이의 오른편에 쓰도록 한다. 긍정성이 클수록 더 오른편 가장자리에 적도록 한다.
   d. 기념물에 의해 촉발된 느낌이 강할 경우, 약한 경우보다 더 크거나 굵은 글씨로 적는다.
4. 참가자들이 태그를 모두 기록하였다면, 자리로 돌아가 앉아 함께 결과를 보도록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a. "클라우드"에 강력한 메시지나 패턴이 있나?
   b. 어떤 태그에 놀랐는가?
   c. 떠오른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이 더 많은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d.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느낌을 촉발시키는 경향이 있는가?
   e. 이런 식으로 전쟁을 미래세대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놓쳤으며 어디에서 그 균형을 바로잡아야 하는가?
5. 이제 참가자들에게 다시 마커를 가져가도록 한다. 이번에는 실제 존재하는 기념물이 아니라 상상의 기념물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는 시간이다. 전쟁에 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참가자들 각각에게 보낼 기념물이다. 앞에서 했던 태그 작업을 반복하도록 하며, 첫 번째 메시지를 써놓은 동일한 용지에 개별적으로 써넣는다. 첫 번째 태그 클라우드는 이제 공공장소가 되어 지울 수 없으므로 새로운 태그는 앞선 태그의 위에 배치하도록 적어 넣는다.
6. "클라우드"가 완성되면, 참가자들에게 전체 그림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이어서 디브리핑과 평가 과정으로 넘어간다.

디브리핑과 평가

태그 클라우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해서, 추모와 인권에 관련된 이슈로 넘어간다:

- 최종의 클라우드의 모습에 당신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었다고 느끼는가? 당신이 알리고 싶은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다른 메시지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는가?
- 두 번째 클라우드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활동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의논하거나 "태그를 만들 때" 힘을 합치고 싶었는가?
- 다른 이의 태그와 종이 위에 이미 적혀 있는 태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가?
- 완성된 클라우드는 첫 번째 클라우드와 얼마나 다른가? 주요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 최종 클라우드는 미래 세대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메시지를 첫 번째 클라우드보다 더 잘 나타내는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아니라면 왜 그런가?
- 공식 기념관이 전쟁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이 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심지어 전쟁 중 전투상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제네바협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항목을 제시해줄 수 있는가?
- 전시에 군인들이 생명권을 사실상 잃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 공적 기념관은 상대편 "적"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는가? 오늘날 이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다른 유형의 기념물을 상상하기는 쉬운가? 이러한 기념물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무엇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 기념물이 과연 전쟁 참상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이 떠올리도록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전쟁을 겪었거나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은 전쟁 기간의 역사가 기억되길 바란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태그 클라우드는 당신의 것과 다를까?
- 당신이 전쟁에서 가까운 이를 잃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며, 전쟁에 대해 다음 세대에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 이 활동으로 당신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었는가? 어떻게 확대되었는가?

COMPASS

기 념 일

5월 8-9일
제2차 세계대전
사망자 추모의 날

촉진자용 팁

여러 색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부정적인 연관어를 검은색으로 표시하고, 긍정적인 연관어를 다른 색으로 표시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또는 중앙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옅어지는 그림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첫 번째 클라우드에 대비하여 두 번째 클라우드가 두드러지도록, 첫 번째 클라우드는 한 가지 색을 사용하고, 5단계에서 추가되는 태그 모두는 다른 색을 추가할 수도 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면 기념물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태그 만들기를 참가자들이 기억으로부터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메시지가 가장 오래 가는 지를 보면 입증될 것이다.

첫 번째 디브리핑(4번째 지점)을 짧게 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에 관련된 다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다른 유형의 기념물에 대해 창의적인 사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이용한다. 만약 사람들이 첫 번째 클라우드가 사건들이 기억되길 바라는 방식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www.coe.int/compass 5장 추모 배경정보에서 아이디어 일부를 사용해보도록 한다.

두 번째 태그를 만드는 단계 동안 기존 클라우드를 원하는대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결국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도 서로 논의할 수 있다.

2번째 라운드에서 새로운 단어를 추가할 공간이 충분해야 한다. 클라우드가 점차 어지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생활에서의 태그를 써넣으면서 생기는 일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이가 미리 써놓은 태그에 매이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단어를 그전 단어위에 두는 것은, 인식이라는 것이 매우 문화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모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모둠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분석하는 것을 더 쉽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두 개의 분리된 클라우드 태그를 만드는 것을 편하게 느낄 수 있다.

응용

종이에 직접 쓰는 대신, 사람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 태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유사한 태그를 서로 가까이 두어 더 두드러지게 할 수도 있다.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적절해 보이는 사건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 제1차 세계대전, 내전이나 지역 전쟁을 다룰 수 있다. 단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공적인 방식으로 기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해당 전쟁을 겪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첫 번째 태그 클라우드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참가자들이 미래 세대에게 전쟁이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는지, 기존 전쟁 기념비들이 그들이 보기에 만족스러운지 등에 대해 기성세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전시회를 위한 시각적 자료를 수작업 또는 온라인으로 만들고 싶을 때, 태그 클라우드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다른 많은 나침반 활동의 후속 작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체해서 다룰 수 있는 기념일로, 예를 들어, 1월 27일 홀로코스트 기념일, 8월 23일 세계노예무역 철폐기념일 등이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군 지휘관이나 유명한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이름이 붙여진 거리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평화를 위해 활동했던 유명인을 기리는 거리는 얼마인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거리 이름이 결정되는지 알아보고, 기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안한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태그 클라우드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싶다면, http://www.wordle.net/create 사이트 화면에 태그들을 입력해달라고 2명의 지원자들에게 요청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출력하거나 기념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기록으로 보전하기 위해 공공 갤러리에 저장해둔다.

74쪽 '1분 토크' 활동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추모와 히틀러시대의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 관련된 문제와 해당 건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찾아볼 수 있다.

모둠에서 우리들의 남성 영웅과 여성 영웅에 대해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존중하고자 한다면, 251쪽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다만 일회성 과정으로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이전 세대와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정보를 얻도록 격려한다.

평화를 위해 활동했던 영웅을 추모하는 추모 행사를 연다. 이는 음악과 춤이 있는 축제, 전시회나 추모를 위한 집단 기념비를 세우는 것 같은 "해프닝"일 수 있다. 이벤트를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추모를 상징하는 아이템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흰 양귀비꽃, 전쟁으로 잃은 친척 사진, 당신 나라에 처음 도착하여 망명을 요구했던 사람의 당시 신발 등이다.

추가 정보

'태그 클라우드'나 '워드 클라우드' 또는 시각디자인에서의 '가중치 목록'은 '태그' 또는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어들은 알파벳순으로 나열되는데 태그의 중요성은 글꼴 크기와 색으로 보이게 되어, 태그 클라우드는 창조적인 그래프로서 간주된다. 아이디어가 발전하는 인터넷상에서는, 태그는 대개 태그와 관련된 항목이 모여있는 곳으로 바로 가는 하이퍼링크이다.

다음 쪽의 유인물에서 태그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유인물

진행 지침

- 종이 중간에 가는 선을 그린다.
- 부정적 연관어는 중앙선 왼편에 쓰도록 하며, 더 부정적일수록 더 왼편 끝에 위치하도록 한다.
- 긍정적 느낌은 종이의 오른편에 쓰도록 하며, 더 긍정적일수록 종이의 오른편 끝에 위치하도록 한다.
- 기억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강할수록 단지 약한 느낌을 주는 경우에 비해 더 크거나 굵은 글씨를 사용한다.

태그 시트의 예

모두 평등하고 모두 다르다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평등하면서 특별히 다르다. 보편적인 평등과 특별한 차이 모두 존중받아야만 한다.[1]

주제
- 차별과 불관용
- 세계화
- 미디어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6-60명(소모둠 3-4)

시간 40분

개요 흥미를 끌어내는 짧고 집중시키기 쉬운 퀴즈형식 활동으로, 효과적인 모둠 토론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관련 권리
- 존엄성으로서의 평등
- 권리와 자유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
- 국적을 가질 권리

학습 목표
-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정보를 독립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키운다
- 참가자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있는 자민족중심주의와 편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상호문화에 대한 학습능력을 키운다

준비물
- 유인물
- 필기구(1명당 1개)
- A3용지나 플립차트, 마커펜

준비 작업 참가자당 한 부씩 유인물을 복사한다. 아니면 칠판에 적거나 프로젝트로 보여주도록 한다.

진행

1. 다음 활동은 퀴즈 형식이지만, 누가 맞고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단지 시작점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2. 두 개의 인용문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게시한다. 참가자들이 읽는 시간을 5분 준다.
3. 이어서 각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결정하도록 한다:
   a) 첫 인용문의 출처는 정확히 어떤 책이나 문서인가?
   b) 두 번째 인용문을 적은 사람은 어느 나라/지역 출신인가?
4. 모두 준비되면, 참가자들이 3명 정도씩 모여 소모둠을 구성하도록 한다. 20분 동안 각자의 선택에 대해 토론하고 분석하게 한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 논의하여 되도록 공동의 답을 만들도록 한다.
   - 왜 다른 답보다 해당 답을 선택하였는가?
   - 저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 왜 작가가 이러한 글을 썼는가?
   - 이 문장에 대해 당신은 뭐라고 언급하겠는가?

[1] 청년들이 제안한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1989)

5. 소모둠 활동을 마치면, 각 모둠은 질문 a)에 대한 답변을 돌아가면서 대답하도록 한다. 각각의 선택에 대해 이유를 설명한다. 이어서 질문 b)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한다. 플립차트에 답변들을 기록한다.
6. 스페인 출신 저자 사이드 안달루시(Said Al-Andalusi)를 소개하고, 디브리핑과 평가 단계로 넘어간다.

디브리핑과 평가

활동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 모둠이 준비가 되었다고 보면, 편견과 자민족중심주의의 개념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의 질문을 나눈다. 필요에 따라 전체 모둠이나 소모둠 단위로 진행한다.

- 답이 의외였는가?
- 참가자들의 처음 선택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어림짐작하였거나 직관에 의한 것이었는가? 혹은 실제 지식에 근거하였는가?
- 소모둠 토론 과정에서 사람들의 선택이 변하였는가?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었는가? 동료간 압력인가 혹은 제대로 된 토론인가?
- 소모둠 토론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옹호하였는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극적이었는가 아니면 강하게 집착했는가?
- 저자는 북쪽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왜 그러한 방식으로 묘사하였는가?
- 두 번째 인용문이 저자에 대해, 그의 외모와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려주는 힌트는 무엇인가?
- 자민족중심주의와 편견은 얼마나 저자의 관점에 영향을 끼쳤는가? 혹은 그 당시 북유럽의 문화가 그가 속한 문화보다 덜 '문명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가?
- 다른 이들이 유사한 방법으로 언급되는 것을 듣거나 읽을 던 예를 참가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가? 열등한 어떤 존재로 간주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그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 종종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역사 속에서 실례를 찾아볼 수 있는가? 현재는?
- 편견의 영향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어떤 이들이나 그룹이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나를 들어본다면?
- 교육은 편견과 싸우는 방법 중 하나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촉진자용 팁

발췌한 책의 저자는 지금은 스페인에 속하는 안달루시아 지방 코르도바출신의 유명한 학자로 1029년(이슬람 기원 420년)에 태어났다. 지혜와 지식으로 저명한 학자로 문명과 과학은 코란을 더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는 종교뿐만 아니라 아랍의 문학과 의학, 수학, 천문학 등 기타 과학에 대해서도 뛰어났다.

저자에게 있어서 당시 지중해 지역, 특히 아랍 왕국이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유념한다. 사이드가 '북쪽'이라 부른 북유럽은 페르시아, 중국, 인도와 같은 수준의 지식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

모둠에 따라 예문을 더욱 비판적으로 읽도록 독려해야 한다. 두 번째 예시문에서는 외모나 문화 등 저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곱슬곱슬한 머리와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저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왜 썼는지를 포함하는 글의 맥락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 뉴스, 시, 가사 등의 모든 메시지를 읽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다.

자민족중심주의 문제를 소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어두운 얼굴색과 곱슬곱슬한 머리를 가진 저자가 '대조'에 대해 대부분의 유럽인들을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훌륭한 정의를 내렸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토론 전반에 걸쳐 문화적 차이가 사람들을 남들보다 '우월하게' 혹은 '열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킬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각자 '표준'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을 갖고 있어서 편견 없이 남들을 보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우리 자신이 가진 자민족중심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남들이 가진 똑같은 문제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단계이다.

단원 마지막에 제기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토론하기 위해 시간을 남겨 놓는다. 예를 들어 역사교육과 다른 문화권에 대해 학교에서 실제로 얼마나 배웠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해볼 수도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보다 깊이 다루고 싶다면, 창의성과 연극을 포함하고 있는 183쪽 '몸으로 표현하기' 활동을 활용한다.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당신의 나라/지역사회에서 일어난 현재나 과거의 사건에 대한 다양하게 다른 내용을 문서나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다. 다른 관점이나 이해집단의 보고서를 비교해본다. Voxeurop 웹사이트에서 여러 나라의 여러 신문들에 보도된 기사를 다양한 언어로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voxeurop.eu/eu

다른 사이트로는 Indymedia인데, 독립언론기구연합으로 수백명의 언론인들이 풀뿌리, 비영리 보도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언어로 제공된다. http://www.indymedia.org

유인물

a) 다음 글의 출처는 어떤 책이나 문서일까?

"동서남북의 지구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 이들은 행동, 신체적 형태, 언어라는 3가지 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다음의 답변 중 하나를 고르시오:

a) CE 1995년, 〈유네스코 인종차별에 대한 선언〉
b) BCE 198년, 헤로도투스, 〈역사〉
c) BCE 3천년, 인도, 〈베다〉
d) CE 1996년, 유럽평의회, 〈모두 평등하고 모두 다르다: 청소년 캠페인 보고서〉
e) CE 1029년(이슬람력 420년), 사이드 안달루시(Said Al-Andalusi)
f) CE 1300년rud, 마르코폴로, 〈여행기〉
g) 답 없음

b) 다음 문장의 저자는 어느 나라/지역 출신일까요?

"[유럽] 최북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고통받고 있다. 공기는 차갑고 하늘은 흐리다. 그래서 그들의 기질은 차갑고 행동도 무례하고, 몸은 거대하고 피부는 창백하고 머릿결은 곧게 늘어진다. 그들은 이해와 인식의 예리함을 잃었다. 그들은 무지와 게으름에 굴복하였고, 피로와 어리석음에 휩싸였다."

다음의 답변 중 하나를 고르시오:

a) 중국 b) 유럽 c) 인도 d) 아프리카 e) 페르시아 f) 해당 없음

'모두 평등하고 – 모두 다르다' 퀴즈

기 념 일

5월 5일
유롭 통합의 날

주
발췌문들은 다음의 책에서 인용되었다. "국가분류서-중세시대의 과학(Book of the Categories of Nations - Science in the Medieval World)" Said al-Andalusi 저, Sema'an I. Salem 과 Alok Kumar 역,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1991

교육

아동

시민권과 참여

2단계

6 – 30명
(소모둠 4–5)

90분

모두를 위한 교육?

기억력이 좋으신가요? 이제 그것을 시험해봅시다!

주제
- 교육
- 아동
- 시민권과 참여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6–30명 이상(소모둠 4–5)

시간 90분

개요 참가자들은 세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생각하고, 지속개발목표(SDGs)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카드를 배치하고 짝을 맞추는 활동이다.

관련 권리
- 교육권
- 온전한 신체, 정신, 영혼, 도덕 및 사회적 발전에 관한 권리
- 평등권

학습 목표
- 교육과 교육이 삶의 전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지식 형성
- 기술과 비판적 분석을 위한 능력 개발
- 인간 존엄성과 정의감에 대한 책임감 장려

준비물
- 참가자 3–4명당 게임카드 1묶음
- 2부에서 사용할 종이와 펜 등

준비 작업
- 모든 카드를 숙지한다.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4번과 그 목표에 익숙해진다. (교육에 관한 배경의 장을 살펴본다.)
- 게임카드를 복사하여 두꺼운 종이에 붙여 튼튼하게 하고 잘라 카드 40장을 만든다.

진행

참가자들에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묻는다. 필요하면 SDGs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SDG 4번이 2030년까지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활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1부 기억력 게임, 2부 이슈에 대한 보고.

1부. 기억력 게임(10분)

1. 20쌍의 카드가 있으며, 각 쌍은 주제 카드와 그림 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제는 서로 쌍이 되는 카드를 찾는 것이다. 모든 카드의 주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4와 인권과 교육에 관련되어 있다. 명조체로 된 질문들은 이후 토론에서 사용된다.
2. 참가자들에게 집중력, 기억력, 펠멘식 기업 게임 또는 짝 맞추기 게임을 아는지 물어본다. 4인 1조로 모둠을 만들어 이 게임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게임 규칙을 함께 검토한다: 카드를 뒤집어 방바닥이

나 테이블에 엎어 섞어 놓는다. 자신의 차례가 오면, 참가자는 두 장의 카드를 뒤집는다. 만약 뒤집은 카드 중 하나 혹은 두 개의 주제 카드는 카드를 뒤집은 사람이 제목과 설명을 읽는다. 다만, 명조체로 쓴 질문은 2부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제외한다. 카드가 짝이 맞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가져오고 다음 카드로 계속한다. 만약 카드가 서로 짝이 맞지 않으면, 다시 정확한 원래 자리에 뒤집어 놓는다. 다음 순서인 사람이 또 두 개의 카드를 뒤집는다. 모든 카드가 없어지면 게임은 끝난다. 우승자는 가장 많은 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부. 주제 발표(60분)

1. 주제들을 플립차트에 정리한다. 이것들을 적는 동안 카드의 주제를 지원자가 읽어줄 것을 요청한다.
2. 모둠에게 가장 흥미 있는 주제 4–6가지를 고르게 한다.
3. 4–5명씩 모둠을 만든다. 각 모둠이 토론하고 싶은 주제 두 가지씩을 고르도록 한다.
4. 토론할 주제가 정해지고 배정되면 두 개의 주제에 대해 20분 동안 토론할 시간을 준다. 토론의 시작은 카드에 명조체로 적혀진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한다.
5. 20분이 지난 후 전체 인원이 함께 피드백의 시간을 갖는다. 각각의 주제를 순서대로 다룬다. 각 모둠에게 5분씩 피드백 시간을 주고, 질문에 추가로 5분 이내의 시간을 허락한다.
6. 모든 모둠이 자신들의 주제에 관해 보고하고 나면 디브리핑 단계로 넘어간다.

디브리핑과 평가

주제에 관해 이미 충분한 토론을 마쳤으므로 이제는 게임 자체에 대한 평가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본다:

- 즐겁게 게임에 참여하였는가?
- 교육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되었는가?
- 모둠의 토론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참여할 수 있다고 느꼈는가?
-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권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이 권리를 위해 무엇이 따라야 하는가?
- 교육이 직면한 과제들이 너무 많은가?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인가?
- 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하나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 당신 나라,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교육권에 관하여 중요한 도전과제는 무엇인가?
- 당신 나라나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 4번을 달성하기 위해, 당신, 당신이 속한 그룹,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교육이 문해력과 수학, 그리고 기술 및 직업 기술 교육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그처럼 크다면,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가 "잊힐" 위험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에서 게임의 형식을 빌린 이유는 토론할 주제에 대해 흥미롭게 정보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활동은 비교적 단순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임에서 짝을 제대로 알려 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작 전 모든 카드를 읽어보고 어떤 카드가 어떤 문제와 짝을 이루는지 확인해야 한다. 게임 방법을 설명할 때 한 짝을 서로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준다. 진술과 질문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해둔다.

카드 짝을 찾기 위해, 서로 다른 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야하기 때문에 이 게임은 "기억 게임"이라고 불린다.

2부에서 두 모둠이 같은 주제를 토론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즉 소모둠 별로 어떤 주제를 논의해야 할지를 협상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KEY DATE

9월 8일
국제 문해의 날

활동의 어떤 지점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 4번 목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둠에 제공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언제 어떻게 할지는 이 활동을 수행하는 모둠과 주어진 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활동을 소개할 때나 디브리핑에 들어갈 때 할 수 있으며, 더 나은 개요를 얻기 위해 목표들을 요약하길 원할 수도 있다.

카드를 복사할 때, 확대하면 읽기에 수월한 좋은 방법이다. 출력 후 빳빳한 종이에 붙이면 완성된 카드가 더 견고하고 다루기 쉬워질 것이다. 일부 카드는 약어가 있으며, HRE(인권교육)가 그 예이다. 게임을 소개할 때, 약어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도록 한다.

카드 중 1/3정도는 2015년 UN에서 수용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 4번에 관련된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 카드는 인권과 교육 문제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달성을 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응용

2부를 시행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대신 "1분 토크"활동의 방법을 활용해 본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고른 카드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에 대해 1분간 얘기하되 주저하거나 반복해서 말하지 않도록 한다. 참가자들의 발표 기술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

2부에서, 관련 제목이 적힌, 크게 확대된 그림 카드 묶음을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 후 요약을 쓰는 대신 이 카드들을 붙이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시간도 절약하지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기억 게임에서 나온 여러 주제들은 다른 활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 다른 사회적 요구를 위한 예산을 군비로 낭비되는 예산에 비교해서 다루고 싶다면 249쪽 "얼마나 필요한가?" 활동을 진행한다. 아동 노동과 교육 접근성 부족을 다루고자 한다면 240쪽 "애시크 이야기"활동을 탐구해 본다.

실천 아이디어

이 기억 카드는 2030년까지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에 있어 방해하는 수많은 문제를 보여준다. 모둠은 이중 하나를 연구주제로 선택할 수 있고,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본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3장의 실천하기를 참고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 4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편지를 국회의원에게 쓰는 것은 어떤가?

추가 정보

교육권은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무료의 기본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국가들의 일반적 동의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무상교육은 모두가 아닌 소수만을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4.1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권리가 실현되기 위한 유엔의 가장 최근의 계획을 보여준다.

과거에도 세계적으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다른 계획들이 있어왔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다. 그후 2000년에 국제사회는 세네갈 다카르에서 모여 세계교육포럼(WEF)를 열었으며, 초등교육 제공에 대한 경과 검토와 함께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노력을 다시 활성화시켰다. 164개국에서 온 약 1,100명의 참가자는 2015년까지 내실 있는 초등교육을 목표로 하는 [실천을 위한 다카르 선언]을 채택하였다. 유네스코가 나라간 조율과 세계적 동력을 유지하는 전반적 책임을 위임받았다.

WEF 구상은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UN에서 채택함과 동시에 구체화되었다. 8개 새천년개발목표 중 2개가 교육에 관련되어 있다: 목표 2.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달성, 목표 3. 젠더 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ESCO.org 를 참고하라.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서는 www.un.org/millenniumgoals 를 참고하고 교육/훈련 및 교육 관련 국제적 정책 및 협력에 대한 정보는 www.norrag.org 를 참고하라.

2015년에 UN총회에서 새천년개발계목표를 계승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공식 승인하였다. SDGs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얼마나 필요한가?' 활동에 부가된 추가 정보를 참고하거나 www.undp.org 를 참고하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4는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SDG 4는 다음과 같은 7개 세부 목표를 두고 있다.

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다음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 국제 '모두를 위한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www.unesco.org/en/efareport
- 국제 교육 캠페인(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www.campaignforeducation.org
- 교육권 프로젝트(The Right to Education Project): www.right-to-education.org

돈과 교육

재정이 없다면, 정부는 그들의 공약을 지킬 수 없다. 또한 이는 표준의 문제이다. 저임금 교사와 자료의 부족은 교육의 질을 위태롭게 한다.

'돈 없으면, 교육도 없다!'에 동의하는가?

젠더 평등과 교육

많은 국가들이 젠더 평등이라는 목표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점이 SDG 4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가?

식품과 교육

교육을 위한 음식제공(FFE) 프로그램은 가난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학교 급식 또는 가정 식비를 제공한다.

FFE 프로그램이 SDG 4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요소인가?

모두를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초등교육이라는 이전 계획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제 SDG 4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 기회 보장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분명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약물과 교육

많은 학교/대학에서 음주, 흡연 및 기타 약물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남용은 학생의 배움을 막고 폭력을 증가시킨다.

약물 남용에 대한 강력한 학교 정책이 답인가?

군사력과 교육

많은 나라에서 군사비 예산에 많은 부분을 할당하여, 사회부문 특히 교육 부문 예산이 부족하다.

안보가 교육보다 중요한가?

교사와 교육

양질의 교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에서는 교사의 훈련과정이 최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모든 학교 교사에 대해 교사 학위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있어야만 할까?

이주와 교육

교육의 수준을 높을수록, 이주해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의사, 교사, 엔지니어와 IT 전문가들이 유럽으로 일하러 온다.

유럽국가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나라로부터 인재를 빼 와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도덕적인가?

무료 교육

정부는 모두에게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진다. 현실은 많은 나라에서 가난한 가정은 학교 수업료를 부담할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학교 교육을 모두에게 완전히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현실적인가?

인권 교육

"세계인권선언을 명심하면서, 모든 개인과 사회의 모든 기관들은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학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UN 총회

어떤 "사회 기관"이 인권교육을 전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가?

세계화와 교육

국제적 가치 체인은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 특정 기능에 집중하도록 작동한다. 예를 들면, 업무관련 훈련이나 교육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 의류 제조가 있다

세계화는 교육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가?

평화와 교육

평화를 위한 교육은 정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지 비정형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규 교육과정에 평화교육을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인터넷과 교육

많은 나라에서, 정보기술은 교육 과정의 핵심 영역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조사와 숙제에 필수적이다.

만약 세상의 모든 아동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가능성이 열릴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스포츠와 교육

스포츠는 항상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스포츠는 다른 과목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가르친다. 스포츠는 신체와 마음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기술과 기능 교육과 같은 과목들에 우선 순위를 두는데 동의하는가, ?

대학 (고등) 교육

SDG 4.3은 2030년까지 적절한 기술적, 직업적 및 고등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실제 "동등한 접근권" 과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사회적 배제와 교육

일부 유럽국가에서, 단지 롬인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지체 아동반에 배정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롬인을 위한 분리되고 열악한 학교나 학급을 두고 있다.

롬인 아동들을 교육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환경과 교육

SDG 4.7에서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도록 보장하고 있다.

교과과정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가?

평생 학습

SDG 4.6에서 2030년까지 성인 대다수가 문해력과 산술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고 있다.

미래 투자로 기초 교육에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성인 문해력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훈육과 교육

각 나라 학교에서는 훈육을 위해 각기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체벌, 정학, 보충수업, 퇴학, 학교/대학 위원회 참석 등의 방법들이 있다.

훈육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이즈/HIV와 교육

"AIDS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전투는 AIDS를 둘러싸고 있는 침묵과 오해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

HIV/AIDS 퇴치에 있어 교육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문화와 스포츠

건강

2단계

제한없음 (소모둠 6-8)

120분

모두를 위한 스포츠

휠체어 농구를 지치도록 해본 적 있나?

주제
-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 문화와 스포츠
- 건강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소모둠 6-8)

시간 120분

개요 에너지 넘치는 활동이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관련 권리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 휴식과 여가의 권리

학습 목표
-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인식을 증진한다.
- 함께 일하는 협동 능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특히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포용력을 증진한다.

준비물
- 넓은 공간
- 모자
- 역할 카드
- 붕대(압박붕대가 좋다)
- 나무 토막이나 비슷한 재질의 블록(약 30cmx12cmx10cm 크기로, 발에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된 블록)

아래의 항목은 소모둠 당 한 세트가 필요하다.
- 큰 쓰레기통이나 양동이
- 두꺼운 실이나 끈으로 만든 공
- 공
- 신문
- 분필(경계 표시용)
- 가위와 테이프(장비구성용)
- 눈가리개와 귀마개

준비 작업
- 활동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장애에 대해 결정하고, 이에 대한 역할 카드를 준비한다. 안대, 귀마개, 붕대 등을 함께 모아둔다.
- 역할카드 묶음을 준비하고, 각 모둠에 준비된 묶음을 준다.
- 나머지 장비를 하나로 모아서 소모임당 한 묶음씩 분배한다.

진행

1. 세계 도전의 날에 대해 설명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임을 설명한다. 유일한 채택 기준은 참가자들의 심박수를 연속 15분간 증가시키는 육체적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소모임으로 나눈다.
3. 각 모둠에 차례로 역할카드가 들어 있는 모자를 돌려, 모둠 참가자들이 카드 한 장을 선택한다. 장애 카드를 선택한 사람들은 몇 분 안에 해당 역할을 준비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안대를 쓰거나 등에 한쪽 팔을 고정한다.
4. 소모둠 별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스포츠 종목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고안하는 데 30분이 주어진다. 그들은 제공되는 장비의 일부나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게임의 목표와 규칙은 소모임에서 결정한다. 모둠 내 모든 구성원이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다.
5. 이제 서로의 게임을 해본다.

디브리핑과 평가

서로 다른 모둠의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소통했고 해당 활동이 즐거웠는지 검토하면서 시작한다. 이어서 활동 자체와 참여 및 장애차별에 대해 토론한다.

- 어떻게 그 게임을 설계했는가? 고려한 요소는 무엇인가? 모둠에서 장애인과 함께한 것이 어떠한 차이를 만들었는가?
- 모둠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민주적이었는가? 아니면 한 사람이나 몇 명이 결정을 했는가?
- 장애인에게: 당신의 역할을 하기 어려웠나? 현실적으로 그 종목을 해냈다고 생각하는가? 최종 결과에서의 당신 기여에 대해 행복한가?
- 비장애인에게: 장애인들의 온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막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의에서 어떠한 고려가 있어야 했는가?
-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고 진정으로 말하기 위한 게임을 구상할 때, 어떠한 타협들을 하였는가?
- 당신 나라에서 청소년 장애인은 그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직면하게 되는 특정한 어려움은 무엇일까?
-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실제, 특정 그룹이 어떻게 스포츠로부터 배제되고 있는가? 이러한 배제는 인권침해인가?

촉진자용 팁

구성원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주지한다.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으며, 안경을 쓴 사람, 성별, 나이, 운동능력 등.

각 모둠 당 장애인이 두 명이 넘지 않도록 역할을 나눈다. 각 모둠의 장애인은 똑같은 장애이거나 다른 장애여도 된다. 각 모둠이 유사한 장애를 가진 이들로 구성된 경우, 나중에 그들이 비슷한 도전과제를 어떻게 수행해내는지 비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다른 장애를 가진 그룹들 간의 활동을 통해, 자기 모둠에 해당된 특정 장애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모든 장애를 포함하도록 설계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흥미롭다.

모둠에 따라,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에 관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게임은 명확한 목표와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게임은 특정 위치 내에서 진행되고 총 20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모둠이 해당 과제를 마치지 못하거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활동 혹은 모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된 요인은 디브리핑 활동에서 토론하도록 한다.

5월 26일
세계 도전의 날

디브리핑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배제와 차별이 실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키 큰 사람들은 농구를 하려하고, 비활동적인 사람은 당구나 체스를 하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들만이 경쟁적인 종목에서 모든 관심과 기회를 가져간다면 재미를 위해 그 종목을 하고자하는 사람의 기회는 더욱 적어질 것이다. 어떤 종목들은 가진 부에 따라 배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장비 또는 개인교습비가 아주 비싸기 때문이다.

응용

모둠별 그룹의 협동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이 활동을 사용하길 원하면, 한 모둠에는 협동적인 게임을 고안하도록 하고, 다른 모둠은 경쟁적인 게임을 고안하도록 한다. 디브리핑에서 각 게임이 어떻게 재미가 있었는지 비교할 수 있다.

이 활동의 "게임의 규칙"으로 평등, 정의 그리고 인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신은 "장애" 요소를 배제하고 사람들이 함께 게임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장애인이나 다른 모둠을 포함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토론에서 다루도록 미루어 둔다.

인권과 같은, 좋은 규칙은 특정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게임이 공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규칙들은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선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많은 규칙들은 의무와 함께 권리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는 공을 찰 권리는 있으나 동료 선수를 찰 권리는 없다. 규칙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주어진다.

규칙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실제 생활"에서의 법률 개정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령, 입법 활동, 국민투표나 NGO 등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디브리핑에서 다음에 대해 토론한다:

- 참가자들은 어떤 게임을 가장 즐겼나? 무엇이 "좋은 게임"으로 만드는가?
-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공정한 규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 세계인권선언의 조항들은 다양성의 세계를 살아가는 규칙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규칙인가? 예를 들어, 이것들이 전세계를 통틀어 모든 선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규칙이 충분한가 아니면 너무 많은가? 공평한가? 모든 나라의 모든 선수들이 규칙에 따라 경기하는가?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만약 참가자들이 평등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보기를 원하면, 성평등에 관련된 334쪽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193쪽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이라는 모의실험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이 활동은 기회의 평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직면한 환경과 연관지을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협력형 "스포츠의 날"을 조직해서 다른 동아리의 청소년들을 당신의 새 게임들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행사를 가능한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타피사(TAFISA, 세계생활체육협회)에 연락해서 당신의 게임이 "세계 도전의 날"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장애인 지원단체에 연락하여, 당신이 참여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학교, 동아리나 회의 장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보다 장애인 친화적인 장소가 될 수 있는 간단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추가 자료

타피사(TAFISA 세계생활체육협회)는 전 대륙의 130여 개국의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선도적 국제 조직이다. 타피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스포츠체육협의회(ICSSPE), 유네스코(UNESCO)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조직하고 있다.

http://www.tafisa.net

티파사가 조직하는 '월드 챌린지 데이(WCD, 세계 도전의 날)'은 전 세계 공동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육체적 활동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친화적 국제 경쟁 프로그램이다. 어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월드 챌린지 데이는 단지 몇 천 명의 공동체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에게까지 열려있다. 목적은 신체적 활동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증진하는 것으로, 경쟁적인 스포츠나 이미 적합하고 활동적인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형태의 운동과 모든 연령, 성별, 능력에 따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일한 기준은 게임이 참가자들의 심박수를 15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활동이다. www.tafisa.net

청소년 올림픽: 청소년 올림픽(YOG)의 비전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참여하여 올림픽 정신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고취하는 것이다.

http://www.olympic.org

패럴림픽: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는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우수성을 달성하고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초보자부터 최정예 수준까지 스포츠 능력을 개발할 기회제공에 헌신하고 있다. 더불어 IPC는 용기, 결단력, 영감과 평등이라는 패럴림픽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www.paralympic.org/IPC

당신은 자신이나 참석자들을 위해 농인(Deaf), 청각장애인(deaf)과 난청 사이의 다음과 같은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농인(Deaf): 많은 청각장애인들에 의해 구성된 문화적, 언어적, 정치적 정체성으로 농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속한 그룹의 독특한 문화적 규범, 가치관과 전통을 따른다. 구성원들은 전형적으로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

청각장애인(deaf): 일반적인 말과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을 나타낸다; 청각 손상에 대한 의학적 표현이다.

난청(Hard-of-hearing): 주로 구어 소통에서 다양한 수준의 청력 상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독순술(입술 읽기)이 보조된다. 난청이 있는 이들은 청각보조기구들을 사용하곤 하는데, 달팽이관 이식이나 보청기를 이용한다. 그들은 의학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이 될 수 있지만, 기술적 도움과 통합적인 양육과 교육으로 난청으로 분류한다.

장애차별(disablism)의 정의와 정보는 www.coe.int/compass 5장의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부문에서 볼 수 있다.

유인물

역할 카드

당신은 청각장애인입니다.
귀마개를 한다. (들을 수는 없지만) 당신은 말할 수 있다.
과장하거나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당신은 난청입니다.
당신의 귀에 귀마개를 넣는다.
과장하거나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당신은 휠체어 사용자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익힌다.
과장하거나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당신은 한 팔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붕대를 이용하여 한 팔을 등에 고정한다.
과장하거나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당신은 팔이 없습니다.
붕대를 이용하여 양 팔을 고정한다.
과장하거나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당신은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입니다.
붕대를 이용하여 한 쪽 발을 나무토막에 묶어서, 한 쪽 다리가 다른 쪽에 비해 길게 느껴지도록 한다.
과장하거나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당신은 한쪽 다리만 있습니다.
붕대를 이용하여 한 발을 허벅지 뒤로 묶어서 한쪽 다리가 무릎 아래를 잃은 것처럼 만든다. 목발을 사용한다.
과장하거나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당신은 학습 장애가 있습니다.
신경질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당신에게는 매우 세심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과장하거나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당신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눈가리개를 착용한다.
과장하거나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당신은 농인입니다.
귀마개를 한다. 당신은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소통할 수 있다.
과장하거나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당신은 비장애인입니다.
과장하거나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교육한다는 것은 변화를 믿는 것이다.

파울로 프리어

주제
- 교육
- 시민권과 참여
- 아동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8–50명(소모둠 6–8)

시간 120분

개요 이 활동은 소모둠 단위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주제에 대한 토론 활동이다.
-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 내용과 방식
- 의사결정 과정 참여

관련 권리
- 인권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자기 나라 거버넌스에 참여할 권리

학습 목표
- 교육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지 알아본다.
- 학교와 동아리 차원에서 협력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능력을 키운다.
- 정의감과 포용을 키운다.

준비물
- 큰 종이나 플립 차트 용지 4장과 펜(4명의 소모둠당)
- 여분의 용지, 메모를 위한 용지

준비 작업 유인물을 복사하여 소모둠당 한 장씩 제공한다.

진행

이 활동은 두 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35분)는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토론이고, 2부(60분)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민주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1부.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교육을 원하는가?(35분)

1.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토론으로 시작한다. 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학교나 대학에서 하는 것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규 교육, 비정규 교육, 비정형 교육간 의 차이를 제시한다. 참가자들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인권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 자기 나라의 학교 교육에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플립차트에 키워드들을 적어 본다.
3. 키워드를 간략히 검토하고 목록에 실린, 예를 들면 교육과정, 학급 규모, 복장에 관한 학교 규정, 과외 활동에 등에 관련된 교육 시스템이 왜 현재와 같은지 생각해본다.
4. 참가자들에게 4–5명씩 소모둠을 만들도록 요청한다. 아동권리협약 제18조 조문을 나누어준다. 모

듬 별로 교육받을 권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15분의 시간을 가진다. 예를 들어, 초등교육은 우리 사회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가 배제되고 있으며 왜 그런가? 어떠한 형태의 규율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 교육과정은 모든 이의 인격, 재능 및 역량의 발전을 촉진하는가? 교육의 중점과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훌륭한 시민이나 숙련된 노동력을 키우는 것인가? 인권교육도 포함되어 있는가?

5. 전체 인원이 모두 모여 토론에 대해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2부. 사람들이 발언권을 가지는 민주적 체제를 발전시키기.(60분)

1. 자신들이 받는 교육의 종류에 대해 누가 결정하는지 모둠에게 묻는다.
2. 소모둠으로 되돌아가 학교에서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누가 교육 내용과 과외 활동을 결정하는가? 학교나 대학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예산과 지출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정책은 어떻게 개발되고 합의되는가? 청소년은 얼마만큼 발언권을 갖고 있는가?
3. 그들에게 교육받을 인권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아동권리협약(CRC) 제12조에 따르면, “아동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견해는 적절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
4. 각 모둠에게 지역차원에서의 교육에 대해 결정을 하는 학생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선출 조직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5. 다음 단계는 모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의 학교에 협의회(학생회)가 없다면, 어떤 종류의 협의회를 원하는 지, 관할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만들 수 있을 지를 모둠에서 결정해보도록 한다. 만약 당신의 학교나 대학이 이미 협의회가 있다면, 이 협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SWOT분석 방법을 설명해주고, 모둠에서 큰 종이에 실행계획을 구성하기 위한 30분의 시간을 주도록 한다.
6. 다시 전체로 모여 각자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이전 여러 단계의 토의 과정에서 이미 많은 논점을 다루었을 것이다. 통합적으로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 그리고 전반적인 학습 요점을 돌아보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계획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라.

- 참가자들이 이 활동을 재미있어 했는가? 유용했나? 왜? 아니라면 그 이유는?
- 현재의 의사 결정 구조가 그런 모습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적 선례는 어떠했나? 과거에는 그런 구조가 충분히 제 기능을 수행하였는가? 지금도 적절한가?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 의사 결정 구조와 절차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각 모둠의 실행 계획을 비교해보니 어땠는가?
- 시간과 노력,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가?
- 그것은 얼마나 현실적인가?(주의: 큰 이상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목표를 향해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 “아동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견해는 적절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국가 교육 커리큘럼에 관련하여 현실적인 요구인가? 어떻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가?
- 교실에서 제12조는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 “당신의 발언에” 주어지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
- 롬인(집시)의 예와 같이, 어떤 그룹은 교육받을 권리를 종종 침해당해왔다. 왜 그러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보다 교육에의 접근이 수월해질 수 있는가?
- 당신 학교에서는 인권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인권 및 여러 협약에 대해 배우는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는가?

기 념 일

10월 15일이 속한 주
유럽 민주주의
지역 주간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은 “학교 또는 대학 협의회”에 대해 학교와 대학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이런 점이 비정형 교육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활동은 청소년 동아리와 단체에 속한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관련성이 있다. 이 단체들은 운영조직으로서 위원회보다는 이사회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를 적절히 조정한다.

466쪽 아동권리협약(CRC) 제12조와 제28조를 숙지한다. 18세 이상의 청소년들 과 활동하는 경우라면, 세계인권선언(UDHR) 제26조(교육권)을 참고한다.

www.coe.int/compass의 제5장의 배경 정보에서 교육과 인권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정규 교육, 비정규 교육, 비정형 교육 간의 차이점에 대해 찾아볼 수 있다. SWOT 분석 기법에 대해서는 371쪽 “실천하기” 부분에서 설명된다.

왜 학교 협의회를 가져야 하는가?

학교협의회/학생협의회는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학교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협의회를 설립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에는 아래와 같이 많은 이유가 있다. 같은 주장이 청소년 단체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도 적용된다.

학생 중심 혜택

학교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적 또는 개인적 성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촉진한다:

- 협의회는 시민권 학습, 정치적 효능과 민주적 태도를 증진시킨다.
- 협의회는 사회적 신뢰와 개인적 가치를 증진한다.
- 학생들에게 권위에 도전하도록 역량강화를 한다.
- 학생들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
- 학생들은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제한된 예산이나 침묵하는 당국과 일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실용적인 혜택

- 민주적 경영 방식은 독재적 방식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책임감을 북돋아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협의회는 협력을 장려하고, 에너지를 활용하고 소외감을 줄인다.
- 협의회는 학교 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다. 교사들은 더 신뢰받고, 규칙은 더 공정하게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 외부의 사회적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제약이 무엇이든, 학생협의회는 학생들에게 직원들의 선의와 특정 가치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활동 중에 나온 아이디어를 진전시켜 보고 5장 교육에 관한 ‘실천하기’ 부문에서 팁을 얻어서, 학교나 대학, 모임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더 많은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약 모둠이 그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즐긴다면, 128쪽 ‘두 도시 이야기’라는 보드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참가자들이 투표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324쪽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활동을 찾아보라.

실천 아이디어

참가자들이 자신의 지역, 국가 단위 또는 국제적으로 다른 학생회와 연결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 정보

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는 나이와 결정해야 할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유용한 모델에 대해 로저 하트의 청소년 참여의 사다리 www.freechild.org를 참고한다. 제5장 시민권과 참여에서 참여의 사다리 대해 자세한 정보가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예산에서는 정책결정이나 지출 우선순위에서 사람들의 관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자문 활동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심도 있는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http://www.participatory budge –ting.org.uk. 하나의 예가 영국 뉴캐슬의 참여 예산 결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은 2008년 5월에 도시의 225만 파운드 아동기금을 위한 재정활동에 20%의 표를 얻었다. 아동과 젊은이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을 인식해서 이 프로젝트는 기금의 혜택이 가장 많이 주어지는 도시 내 젊은이들에게 배분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발언권을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유럽학교학생연합조직(OBESSU)은 유럽 내 학교학생조직의 연합체이다.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 다양한 교육 기관과 시스템을 지향하는 유럽 학교 학생의 관점을 대표한다.
- 유럽의 교육의 질과 교육에의 접근성, 교육적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개선한다.
- 학교 학생의 확대된 연대, 협력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유럽 내 중등학교의 환경을 개선한다.
- 유럽 각국의 교육 시스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과 불공정을 종식시킨다.

유인물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의무적이며 모두에게 접근가능하고 무료인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며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여 모든 아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규율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과 능력,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 평화, 우정, 이해, 관용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에 맞추어져야 한다.

몸으로 표현하기

당신이 말하는 “인권”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줘!

주제	• 기본 인권 • 아동 • 시민권과 참여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9명 이상(소모둠 4-5)
시간	90분
개요	이 연극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일반적 개념에 관한 각자의 인식을 표현한다.
관련 권리	모든 인권
학습 목표	• 인권에 대한 개념과 일반적 생각 탐구 • 문화 간 의사전달 기술 계발 • 협동심과 창의성 계발
준비물	• 소도구: 연극용 의상, 장난감, 생활용품 등 • 종이와 유색 마카, 크레용 • 접착제, 끈, 카드

진행

1. 이 활동의 목표가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인권에 대한 일반적 관념과 생각을 연극적 묘사로 제시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2. 말은 할 수 없고 몸짓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자료나 소도구를 사용할 수는 있다.
3. 4명에서 6명씩 소모둠을 만들고 각 모둠에 큰 종이와 크레용, 마카를 나눠 준다.
4. 모두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10분 동안 인권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무언극(마임)을 통해 구성원들이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2-3가지 핵심 쟁점을 결정하도록 한다.
5. 그 다음 각 그룹끼리 무언극을 만들고 연습하도록 30분의 시간을 준다.
6. 30분이 지나면 그룹을 모두 불러 모아 발표를 시작한다.
7. 각 공연이 끝날 때마다 약간의 시간을 두고 피드백과 토의를 거친다.
8. 관객들에게 방금 본 공연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고 공연이 의도한 핵심 아이디어를 찾게 한다.
9. 각 모둠은 피드백 시간에 언급되지 않은 점들을 간단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다. 각 공연마다 이 순서를 되풀이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활동을 검토하고 인권에 대해 배운 것을 이야기한다.

- 참가자들은 이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어려웠는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혹은 가장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 인권에 대해 무엇을 새로 배웠는가? 인권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이 알게 되어 놀라웠는가?
- 모둠 간 발표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은 있었는가?
- 모둠 내에서 인권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는가?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 발표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인권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공유된 특성이 무엇이었는가?

촉진자용 팁

사람들이 인권의 개념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촉진자는 인권에 대한 설명을 적게하는 것이 보다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것이다. 활동의 주목적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미 접해보았던 인권에 대한 인상과 지식을 끌어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을 통해 참가자들이 인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정한 인권 몇 가지보다는 "일반적 인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참가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한다. 일반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특정 권리를 다루기로 정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인권들에서도 보이는 공통점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여야만 함을 명심해야 한다. 세션의 마지막에는 보는 이들이 "무엇이 인권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기에 서툰 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모두가 참여할 역할이 충분히 있고, 연기에서 모두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냄비, 장난감 차, 모자, 베개, 돌멩이, 쓰레기통 뚜껑과 같은 몇 가지 특이한 소품들은 공연에 생기와 창의적 표현을 북돋을 수 있다.

시작하거나 토론을 마치는 시점에 힌트를 주어야만 한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도록 제안한다:

- 인권은 단순히 인간이기에 가지는 권리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 모든 사람에게 있어 인권은 평등하고, 보편적이고, 영원하다.
- 인권은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다: 당신이 "덜 중요하다"거나 "필수적이지"않다는 이유로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 인권은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기준이다.

응용

참가자들이 마임을 어려워한다면, 대신 집단적 "조형물"을 만들어보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촉진자가 사진을 찍어 "집단적 이미지" 모음을 만들어 두면 다른 교육의 토론 시작점이나 전시회에서 활용할 수 있다.

대안으로는 이 활동을 그림그리기로 할 수 있다: 모둠이 인권에 대한 주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포스터 하나를 만들도록 한다. 대신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그 다양한 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한다.

모둠을 특정 개념에 집중시키기를 원하면, 3, 4단계 진행을 잘라내고 모둠별로 핵심단어(예를 들어 평등, 평화, 빈곤, 연대 등)를 주도록 한다. 각 모둠별로 다른 단어를 주어 다양한 개념을 다루거나, 모둠별로 같은 단어를 주어 표현의 다양함을 흥미롭게 볼 수도 있다.

이 활동을 시작 단계로 사용하기보다는 본 매뉴얼의 다른 활동을 한 다음이나 스스로 연구를 한 다음에 생각을 구성하거나 명확히 하는 데에 사용해보도록 한다.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인권을 주제로 하는 다른 연극이나 문학작품 등을 찾아보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다.

일반 인권에 대해 더 다루고자 한다면, 98쪽 '꽃의 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는 그룹이 더 나아가 특정 인권들에 대해 더 살펴보고자 한다면, 227쪽 '아동의 권리' 활동을 통해 아동들을 살펴보는 것은 좋은 선택이다.

이 활동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참가자들이 인권 개념이 자신에게 무엇인지를 나누는 짧은 편지를 쓰는 것이다. "모두 다르고 모두 평등하다(All Different-All Equal) 교육 패키지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쓰기(Dear Frined)' 활동을 참고한다. 편지 쓰기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대답을 불러내고 대화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편지는 모둠 내 누군가에서 보내질 수 있거나, 학교 간이나 청(소)년 모임 간에 사용될 수 있다.

Domino의 4부에서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관련성에 대해 토론할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참가자들이 마임을 더 다듬거나 참가자 전체가 함께하여 외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 포스터 제작이나 '함께하는 이미지'로 진행했다면, 포스터나 사진 전시회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세계인권의 날 기념행사로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마임과 같은 퍼포먼스를 비디오로 찍어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도 있다.

기 념 일

12월 10일
세계 인권의날

평화와 폭력

시민권과 참여

인권 일반

3단계

10명 이상
(소모둠 3-5)

90분

발전소

이 발전소는 창의적인 인간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주제
- 평화와 폭력
- 시민권과 참여
- 기본 인권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10명 이상(소모둠 3-5)

시간 90분

개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력행위를 브레인스토밍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본다.

관련 권리
-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에 관한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가족, 가정과 통신에 대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

학습 목표
- 폭력 행위 및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살펴본다.
- 협동심과 공동작업 능력을 기른다.
- 타인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감을 키운다.

준비물
- 길고 튼튼한 끈이나 밧줄: 이는 전선을 나타내며 교실의 폭과 같아야 한다.
- 2가지 색의 A4 용지 여러 장, 예를 들면 빨간색과 녹색
- 마커, 소모둠 당 한 자루
- 소품: 소리가 큰 벨이나 경적, 딱딱한 모자, 흰 코트, 전선 절단기(실제 절단기 혹은 종이 모형)
- 접착테이프 2롤
- 교실 2실(선택사항, 선호됨)
- 보조진행자 1명, 종, 조명, 기타 특수 효과 조작

준비 작업 '발전소'로 사용할 방 하나를 준비한다. 가운데 공간을 비운다. 전선을 나타내는 줄을 방 가운데를 가로질러 두되, 어깨 높이 정도로 양쪽을 고리로 단단히 고정한다.

진행

1. 참가자들은 발전소에 근무하게 된다. 일반적 발전소는 우라늄, 석탄, 가스, 쓰레기, 바이오 연료, 태양, 바람, 파도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하지만 이 발전소는 폭력행위로부터 에너지를 만들고 그래서 잠재적 위험이 있으므로 폐쇄하거나 다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한다. 당신(촉진자)은 발전소의 관리자이고 참가자들은 기술자이다.

1부. 폭력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2. 참가자들에게 "자기 주변의 폭력"에 대해 짧게 개인적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한다. 테러나 대량학살과 같은 "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청소년 모임, 길거리나 집과 같은 우리가 일상적 생활에서 보게 되는 폭력행위를 다룬다.
3. 참가자들을 3-5명씩 소모둠으로 나누고, 빨간 종이 3장과 마커를 소모둠 별로 나누어준다. 참가자들이 브레인스토밍한 내용을 공유하고 어떤 유형의 폭력이 다루기에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합의하도록 한다. 이를 종이 한 장에 하나씩 큰 글씨로 쓰도록 하는데, 키워드나 아주 짧은 문구로 표현한다.
4. 종이를 모아서 중복된 것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한다. 중복된 것은 버린다.
5.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동안, 참가자들에게 5분의 휴식시간을 준다. 종이는 50cm 간격으로 전력선에 걸어놓는다. 줄에 테이프로 제자리에 고정시켜 놓는다.

2부. 발전소에서

6. 모든 "폭력 유형"이 줄에 걸리고 준비가 되면, 보건안전집행위로부터 참가자-"기술자"들이 대체 연료를 찾을 수 없다면 발전소는 폐쇄될 것이라고 방금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7. "기술자들"을 "발전소"로 초대한다. 이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녹색 종이 여러 장과 마커, 접착테이프 한 롤씩을 나누어 준다.
8. 전력선과 폭력행위를 나타내는 종이들을 지적한다.
9. 이 발전소가 이처럼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폭력으로 발생되는 에너지가 매우 고르지 않고, 자주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전체가 폭발하는 것을 막는 유일하고 빠른 방법은 전력선을 잘라버리는 것이며, 이 과정은 매우 위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급증이 형성되면 경고등이 깜박이고 벨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면 축적된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기 위해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전력선상의 폭력 행위를 긍정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10. 이 활동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벨소리를 듣고 경고등이 깜박이는 것을 보게 된다. 당신은 케이블의 잘라야 할 곳을 가리키고 자를 지점 양쪽 빨간 종이 두 장에 써 있는 단어를 읽는다. 두 팀은 1분 동안 두 종류의 폭력을 다루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각각의 제안을 메모하여 이를 별도의 녹색 종이 위에 적고, 자르려고 하는 줄에 먼저 붙이기 위해 경쟁한다.
11. 이제 발전소를 가동시켜 1-2분 동안만 돌아가도록 둔다. 보조자는 벨을 울리고 경고등을 깜박인다. 특정 지점에서 절단기로 전력선을 자르려는 마임을 한다. 두 형태의 폭력을 크게 읽고 팀들이 구조작업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12. 1분 후, 벨과 경고등을 멈추고 절단기는 옆에 놓아둔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해결책"에 쓰인 방안을 읽는다. 제안 방안에 대해 전체와 간략히 토의한다. 검토에 따라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은 수정하거나 폐기하도록 한다. 두 "형태의 폭력" 용지를 제거하고 안도감을 표현한다.
13. 모든 "형태의 폭력"이 제거되고 해결책 용지로 대체될 때까지 11번과 12번 단계를 반복한다.
14. 마지막으로, 전력선에서 모든 "해결책"을 떼어내어 벽의 다양한 폭력 표현 옆에 붙인다.

디브리핑과 평가

활동 자체를 되돌아보면서 디브리핑을 시작하고 이어서 각각의 폭력적인 표현과 제안된 해결책의 내용을 다룬다:

- 이 활동 과정을 어떻게 느꼈는가? 즐거웠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 다양한 유형의 폭력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동의했는가?
- 확인된 특정 폭력적 표현의 원인은 무엇인가?
- 제안된 해결책과 조치는 현실적인가? 단기적 해결방안인가, 장기적인가?
- 이러한 해결책을 실현하려 할 때, 어떠한 저항이나 도전 과제에 직면할 것인가?
-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적인 대안을 지켜낼 수 있을까?
- 폭력은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가?

COMPASS

KEY DATE

11월 4일
1950년
유럽인권조약이
체결됨

촉진자용 팁

참가자의 브레인스토밍은 약 10분, 발전소에서의 활동은 약 60분, 디브리핑 및 평가 시간은 20분 진행한다.

초기 브레인스토밍과정에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개인에 대한 폭력 행위의 예를 들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괴롭힘, 욕설, 빈정거림, 저속한 농담, 모욕적인 전화와 문자 메시지, 개인 물품 훼손 등이 있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한 행위가 아닌 영화나 음악 가사 속 폭력을 제시할 수도 있다.

11번 단계에서 팀이 각 유형별 폭력을 다루기 위한 두세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한 가지로도 충분하다. 단 해결책은 현실적이어야만 한다.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비결 하나는 전력선이 절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 분위기와 긴박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기계 작동음과 알람 소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관리자로서 당신은 흰색 코트를 입거나 안전모를 쓸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기술자들도 작업복을 입도록 한다. 또한 배수관이 있는 지하실에서 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당신의 연기력이 어느 정도 재미를 더할 것은 분명하지만,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매 회 사이에 간략하게 논의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디브리핑 시간에는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문제 해결책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아내야 할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집단 괴롭힘'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집단괴롭힘에 대한 인식 워크숍을 열거나 또래중재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다. 'TV 속 폭력'에 대한 해결책으로 폭력물 영화 상영을 밤 11시 이후로 한정시키거나 TV 시청을 대체하는, 아동을 위한 활동을 조직한다.

전체 인원이 적으면, '기술자' 그룹을 하나로 진행할 수도 있다. 두 팀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통해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 요소를 추가하여 활동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려면, 각 팀에게 다른 색 종이를 주어 어떤 팀이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확인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차별이나 젠더와 관련된 문제가 이 활동에서 제시될 수도 있다.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정체성, 존엄성, 존중으로서의 평등권에 대한 문제 탐구에 관심이 있다면, 102쪽 '나는 누구인가?' 활동을 참고한다.

실천 아이디어

이 활동에서 제시된 문제들 중 하나를 다루어본다. 예를 들면, 집단괴롭힘이 선택된 문제라면, 참여 그룹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워크샵을 조직하고 이를 주변 학교나 학생협회협의회의 의제로 제안한다.

추가 정보

'발전소'는 폴란드의 그워구프(Glogów)에서 활동하는 아동과 청소년 연합(Chance)소속의 그젬니 다리우시(Dariusz Grzemny)가 개발한 활동에서 개발되었다.

주
이 기법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

어떤 이는 꿈을 위해 투쟁하고, 어떤 이는 부와 권력을 위해 투쟁한다!

주제
- 빈곤
- 세계화
- 건강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8–25명

시간 90분

개요 부와 권력을 위한 투쟁, 빈곤의 불평등과 불공정함에 대한 모의실험 활동이다.

관련 권리
-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 적정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
- 건강, 음식 및 주거에 관한 권리

학습 목표
-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나타나는 불공정함을 이해한다.
-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운다.
- 인간 존엄성애 대한 존중과 정의감을 촉진시킨다.

준비물
- 동전 120개
- 양말 3–4켤레
- 큰 종이 2장과 마커
- 종이와 필기구
- 빈 공간

준비 작업
- 진행 지침을 읽고 전체 활동에 대한 개요를 이해한다. 이 활동은 다음의 3부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주목한다. 1부는 투쟁(10분), 2부는 기부(10분), 3부는 경제적 공평함 만들기(40분)로 구성된다. 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 동전 20개를 집어 한쪽에 둔다.
- 이주민 역할을 할 세 명을 선택한다.
- 게임 참가자의 재산을 기록할 벽 차트를 만든다(그림 참고).
- "영예로운 기부자"라는 제목의 차트를 준비한다.

진행

참가자들에게 이 활동은 모의실험 게임이며, 참가자들이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을 분배받게 됨을 설명한다.

1부. 투쟁(10분)

1. 이 게임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동전을 모으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규칙만이 있다: 누구든, 언제든 모둠 내 다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처벌을 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동전 한 개를 지급한다.
2. 이주민 역할을 하고 있는 이를 제외한 사람은 모두 둥글게 바닥에 앉는다. 게임을 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따로 챙겨둔 동전 20개를 참가자 4-5명에게 나눠준다.
4. 다른 참가자 4명에게는 양말을 한 켤레씩 지급한다. 그들은 양말을 게임이 진행되는 내내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 동전과 양말을 나누어주는 이유에 대한 토론은 디브리핑 활동에서 다루도록 미룬다.
5. 동전 100개를 원 중간에 고르게 흩어놓는다.
6. 시작이라고 외치면, 참가자들은 최대한 많은 동전을 주워 담는다. 제한시간은 2분을 준다!
7. 동전을 모두 가져가면, 자신이 모은 부(동전)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보고한다. 부 차트에 각자의 이름과 동전의 개수를 기록한다.
8. 이 동전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동전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들의 필요(예: 음식, 주거, 옷, 건강관리, 기초 교육)와 그들의 욕구(예: 고등 교육, 자동차, 컴퓨터, 장난감, TV, 휴일과 기타 기호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의미는 아래와 같다:
    - 동전 6개 이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적 필요와 욕구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 동전 3-5개: 사람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 동전 2개 이하: 질병, 영양결핍, 부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기에 부족한 교육으로 인해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부. 기부(10분)

1. 참가자들이 원한다면 가지고 있는 동전을 다른 이에게 주어도 된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이에게 동전을 나누는 사람은 기부자라는 명예를 얻고 "영예로운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2. 원하는 이들이 동전을 나누는 데 3-4분의 시간을 준다.
3. 동전을 나눈 참가자의 이름과 기부한 동전의 개수를 "영예로운 기부자" 차트에 기록한다.
4. 동전을 주고받은 결과로 위의 범주가 바뀐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변화를 차트에 화살표를 이용해 기록한다.

3부. 경제적 공평함 만들기(40분)

1. 소유하고 있는 동전의 수에 따라 참가자를 3모둠으로 나눈다: 상류층, 중간층, 빈곤층
2. 이주민을 한 명씩을 각 모둠에 배치한다. 다른 모둠이 아닌 그 모둠에 배치될 때의 이주자의 반응을 메모해둔다. 하지만 끝에 하는 디브리핑 활동 전까지는 배치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아껴둔다.
3. 종이와 펜을 나눠준다. 각 모둠에게 부와 권력의 서로 다른 범주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전(전 세계의 부)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임무를 준다. 각 모둠의 실천 계획은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필요하다면 어떤 필요를 충족하여야 하는 지를 설명한다.
    - 모둠이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한다.
    - 그들의 계획이 왜 공정한지를 보여준다.
4. 계획을 세우는 데 10분을 준다. 계획 작성을 너무 깊이 있게 다룰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행 가능한 조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5. 모둠별로 대변인을 임명하여 다른 모둠에게 계획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제안할 계획은 큰 종이에 적는다.
6. 이제 어떤 계획을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공지한다. 투표권은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 "상류층" 모둠의 각 참가자- 5표씩
    - "중류층" 모둠의 각 참가자- 2표씩
    - "빈곤층" 모둠의 각 참가자- 1표씩
7. 투표를 실시한다. 큰 종이에 투표 결과를 기록한다. 어떤 계획이 실행될 것인지 발표한다.
8.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필요하다면 부를 재분배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먼저 활동 자체와 활동이 즐거웠는지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을 한다. 이어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무엇을 배웠는지, 활동이 인권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제시한다.

- 동전이 획득되고 분배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공정하게 처리되었는가?
- 동전을 나눠준 이는 왜 그렇게 하였을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인가? 죄책감을 느껴서인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
- 2부에서 동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감사했는가? 동정받은 느낌이었는가?
- 양말을 든 참가자들은 어땠는가? 양말을 든 참가자가 대표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결국 어떤 모둠에 속하게 되었는가?
- 이주민이 되어 각 조에 배정된 세 참가자들은 어떠한가? 공평하게 대접받는다고 느꼈는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비슷한가?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가? 단지 우연히 거기 있었을 뿐인가?
- 공정한 배분을 위해 제안된 계획에 서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계획들은 제안을 한 모둠의 부를 반영했는가?
- 왜 어떤 사람은 투표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세계에서 권력의 격차를 정확하게 대변한 것인가?
- 부와 권력에서의 그러한 차이를 볼 때, 인권이 침해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인권인가?
- 세계에서, 당신 나라에서, 당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은 누구인가? 왜 그들은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었는가?
-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안보, 경제, 도덕이나 종교, 정치적인 이유인가? 왜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돈이나 자원을 주어야 하는가? 이것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가?
- "가지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와 우리나라에서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해 온 활동에는 무엇이 있나?
- 당신은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이 재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만약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변화를 위한 당신의 제안은 어떠한 원칙을 따르고 있는가?
- 부의 새로운 재분배를 지지하는 데 인권 담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또 그것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촉진자는 참가자의 사회적, 경제적 구성요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에 맞게 토론도 진행하여야 한다.

실제 생활에서처럼, 자신의 동전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신의 재산과 재산이 가져다주는 특권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가자들이 게임에 몰입하여, 정말로 동전이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한다. 동전을 가지고 스스로 보관하도록 허용하며, 활동 후나 휴식시간 동안, 동전을 이용하여 과자나 음료수를 "구입"할 수 있다. 양말을 사용하기에 날씨가 더우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사람들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참가자들은 게임 시작 후 15-30초 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 있도록 한다. 3부 "경제적 공정성 만들기"에서 다음과 같은 특권이나 불이익을 느끼도록 한다:

- 부유한 이들: 탁자, 의자, 물잔, 과자 등
-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진 이: 의자
- 빈곤한 이들: 사람들이 앉도록 바닥에 표시한 원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다.

기 념 일

10월 17일
국제 빈곤퇴치의 날

부 차트

막대한 부와 권력 (동전 6개 이상)	부와 권력 어느 정도 있음 (동전 3-5)	부와 권력 거의 없음 (동전 2개 이하)

디브리핑과 평가에서의 질문은 복잡하고 매우 깊고 긴 토론이 필요할지 모른다. 시간은 별로 없고 참가자가 많다면, 소모둠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 소모둠은 "혼합"되어야 하는데, 즉 각각의 부에 따른 범주의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이들이 모든 질문을 듣고 돌아볼 수 있도록 전체에게 각 모둠의 피드백을 하도록 한다.

응용

이 활동에서 서로 엉켜있는 부분은 장애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선수는 등 뒤로 한쪽 손을 묶고,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을 사용하도록 한다거나 그 반대로 한다. 어떤 이는 눈을 가리고, 어떤 이는 바닥에 누워있고, 어떤 이는 아래로 숙여야만 해서 의자에 앉아야 하고, 어떤 이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움직이지 말아야 하거나, 어떤 이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도록 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부'의 개념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빈곤한지, 사망률, 인간개발지수(HDI) 등이 있다. 당신 모둠의 구성원들에게 '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토론회를 구성한다. 개발관련 NGO의 구성원을 초대하여 기여하도록 한다.

당신은 이 주제로 더 토론하거나 참가자들에게 보고서를 쓰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안된 주제들은:

- 부와 권력이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향유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 부와 권력을 가지는 것에 관련된 책무는 있는가?

모둠은 245쪽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활동을 통해 부와 분배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룰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연락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본다.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해보도록 한다.

때때로 어떠한 쟁점에 대해 단순히 '말을 퍼트린다'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만들어 가는 좋은 시작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부모와 친구들과 함께 부의 분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제안해본다.

추가 정보

지역통화운동(LETS)은 대개 지역적으로 자체 통화를 사용하는 거래 네트워크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협력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LETS를 더 많이 가진 이가 자신의 자원의 공정한 몫보다 더 많이 권력을 가지거나 소비할 수 없다. 이 시스템은 특히 침체된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입증되었다. 검색엔진에서 "지역통화운동(LETS)"을 찾아보거나 http://www.gmlets.u-net.com/에 들어가 본다.

여러 가지 부와 빈곤을 측정한 통계는 5장의 '빈곤'에서 찾을 수 있다.

공정무역 제품을 가는 것은 개발도상국 생산자를 지원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공정무역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적절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을 위한 더 나은 삶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http://www.fairtrade.net/ http://www.european-fair-trade-association.org

부정과 왜곡

잊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모욕적일 것이다. 죽은 이들을 잊는 것은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

엘리 비젤

주제
- 민주주의
- 차별과 불관용
- 기억/추모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12–35명

시간 90분

개요 참여자들에게 특정 역사적 사건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도구화되거나 중요성이 축소되는 방식에 대한 성찰에 참여시키는 활동이다.

관련 권리
-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표현과 정보에 대한 자유권
- 교육권

학습 목표
-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무지한 부정과 왜곡된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과 왜곡의 결과를 성찰하도록 북돋는다.
-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과 왜곡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도록 고무시킨다.

준비물
- 전지 용지, 펜과 마커(참가자 수와 동일하게 준비)
- 책상 4개와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준비 작업 책상마다 전지 용지 2장씩 붙여둔다(총 8장).

진행

1. 이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역사적 기억, 보다 구체적으로 역사적 과거의 특정 부분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주제가 참가자들에게 매우 친숙하지 않은 경우, 교육자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로서 너무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용 및 제거용 수용소의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홀로코스트 부정, 다른 나라에서의 협력자들이 수행한 역할의 축소 시도, 노예제 역사에 대한 왜곡, 노예들이 가족처럼 대우받는 것을 묘사하는 것–전혀 그렇지 않았다–과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인신매매되고 착취된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것,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직면했던 위험을 경시하는 것 등이 있다.
2. 참가자들에게 4–5명으로 소모둠을 만들게 하고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하도록 요청한다:
   - 당신 나라의 역사에서 정부나 특정 정치/이념 집단이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부분이 있는가?
   - 자신들이 특정 집단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축하받는 '국민 영웅'들이 있는가?
   - 노예제, 홀로코스트 또는 기타 대량학살과 같은 과거의 만행조차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역사적 사건으로 덮으려는 극단주의 단체가 있는가?

- 개인사나 가족사 중에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로부터 부인되고, 왜곡되고, 무시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가?

3. 참가자들을 가장 중요한 주제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과 왜곡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책상 네 개로 준비된 침묵의 토론장으로 초대한다. 네 책상 위에는 각각 큰 종이-두 장을 붙이면 된다-를 놓고 각 책상 중간에 질문 한 개씩을 적어둔다:
   - 특정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와 생존자는 부정과 왜곡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 그 역사적 사건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정과 왜곡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 피해자와 생존자의 후손들은 부정과 왜곡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 부정과 왜곡은 사회의 진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참가자들이 돌아다닐 책상 사이가 충분한 거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각 책상에 6-7개의 마커/연필을 놓고 참가자들을 초대하여 4가지 질문 각각에 대해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깊이 생각한 바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들은 다른 참가자의 글에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데, 댓글을 달 수 있고, 링크를 만들 수 있지만, 이미 쓰여진 것을 지우거나 덮어 써서는 안된다. 만약 그들이 특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글 옆에 댓글을 달 수 있다. 그들이 동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참가자들은 이 활동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원하는 책상에서 시작할 수 있고 다른 책상으로 이어 계속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각 책상을 여러 번 방문하고 다른 참가자들이 그 동안 쓴 것을 읽도록 한다. 각 참가자는 각 책상에서 원하는 만큼 많이 쓸 수 있다. 그룹의 크기와 참여도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20-30분의 시간을 준다.

디브리핑과 평가

먼저 활동 자체와 활동이 즐거웠는지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을 한다. 이어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무엇을 배웠는지, 활동이 인권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제시한다.

-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과 왜곡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웠는가?
- 다른 참가자들이 제시한 예시에 놀랐는가?
- 침묵 속에서 "토론"하는 기분이 어떠했나?
- 부인되거나 왜곡된 경험을 한 적이 있나? 만약 겪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 역사적 사건들의 부정과 왜곡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이러한 일들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침묵의 토론에서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나?
-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과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촉진자용 팁

침묵의 토론 파트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같은 책상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 중 대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쓰기/읽기를 마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 디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 파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수도 있다. 배경음악을 사용한다면, 일부 사람들이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음량을 낮게 유지하고 악기로만 연주하는 곡을 선택한다.

특히 참가자들이 난민이거나 차별을 받은 역사가 오래된 다양한 집단에 속한 경우,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부정과 왜곡 또는 최소한 해고를 경험했을 수 있다. 참가자들이 디브리핑 토론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도록 초대되었을 때, 교육자는 감정적인 지원과 참가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응용

참가자들이 여러 역사적 사건을 다루도록 두는 대신, 당신은 하나의 사건에 집중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하도록 한다.

침묵의 토론 파트를 동일한 질문을 바탕으로 한 모둠 토론으로 대체한 후, 전체 대상 보고로 진행할 수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참가자들은 "당신은 어디에 서있는가?"라는 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실천 아이디어

소셜 미디어에서 부정과 왜곡을 보고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추가 정보

역사적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고,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과거의 만행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묘사하는 것은 모두 비인간화와 2차 가해의 형태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현상들은 종종 우리 사회에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마주칠 수 있다. 홀로코스트를 보면, 두드리지게 많은 양의 증거와 문서가 있어 충분해 보이지만, 심지어 주류 담론에서조차 홀로코스트에 대한 왜곡 표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홀로코스트 왜곡은 반유대주의의 한 형태이며, 그것은 한 국가의 영광스럽고 긍정적인 역사의 서술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세계관과 과거를 덮고자 하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

홀로코스트 부정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상황을 말한다. 하지만 홀로코스트에 대한 엄청난 양의 증거를 고려할 때, 홀로코스트 부정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점이 바로 그들이 홀로코스트 왜곡에 뛰어드는 이유이다. 그들은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홀로코스트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독일인"에 의해 자행되었기 때문에(따라서 협력자들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함), 특정 나라의 역사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거나, 다른 방식으로는 독일의 책임을 무시하면서 전적인 책임을 다른 나라들에게 전가한다.
- 유대인들을 대량학살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하거나 이익을 위해 유대인 대학살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재정적 이익 또는 이스라엘 국가 수립과 관련된).
- 홀로코스트와 지금의 모습이 관련성이 적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희생자 수를 대폭 최소화하는 것.
- 홀로코스트 가해자를 미화하거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서 홀로코스트에 대해 왜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이나 국가기관이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그 동기와 상관없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왜곡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와 생존자들에게 깊은 모욕감을 주는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한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풍부한 공간과 전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홀로코스트 부정은 유럽인권협약의 보호를 받지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기 념 일

1월 27일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사다리에서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개입하고 관여할 의무가 있다. - 상황을 변화시키는 이는 시민이다.
주제 사라마구

주제
- 시민권과 참여
- 민주주의
- 문화와 스포츠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12–30명

시간 120분

개요 이 활동은 역할극과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청(소)년 참여의 의미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관련 권리
- 정부 참여권과 자유선거 참여권
- 문화적 삶을 누릴 권리
- 의견과 정보의 자유

학습 목표
-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과 그들의 참여를 막거나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조직, 실천하기 위한 역량 개발하기
-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키우기

준비물
- 유인물 "참여의 사다리" (www.coe.int/compass 5장의 시민권과 참여라는 배경 정보 참조)
- 큰 용지, 마커와 가위
- 벽에 붙일 "포스트잇"이나 작은 종이와 테이프
- 빈 벽

준비 작업
- 유인물 준비(소모둠 당 1부)
- 6개 표지판: 장애물, 통제 있음, 통제 없음, 활성화 요소, 통제 있음, 통제 없음

진행

1부. 참여의 사다리는 무엇인가?(45분)

1. 참가자들에게 "청년 참여"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2. '참여의 사다리' 도표를 나누어주고, 참여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다양한 수준에서의 참여를 간략히 논의한다.
3. 8개의 소모둠으로 나눈다. 각 모둠별로 참여의 각 단계를 배치하고 그들에게 할당된 참여를 보여주는 역할극을 준비하도록 2-3분의 시간을 준다.
4. 모둠별로 준비가 되면, 차례로 역할극을 보여주도록 초대한다. 참가자가 원할 경우, 서로 다른 역할극 막간에 질문이나 논평의 시간을 가진다.

2부.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나?

5. 참가자들에게 5분 동안 개별적으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삶에서 8단계의 참여별로 관련된 예를 최대한 많이 찾도록 한다. 그들 삶의 모든 면 –집, 학교, 동아리, 직장, 가족, 친구–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6. 참가자들이 4-5명씩 소모둠으로 모여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한다. 사례를 논의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과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활성화 요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한다. 각각의 아이디어를 각기 다른 "포스트잇"에 적도록 한다.
7. 모둠별로 토론하는 중에 벽에 '장애물'과 '활성화 요소'라는 표제를 2미터 정도 떨어뜨려 벽에 붙여둔다. 그런 후 모둠을 전제로 모이게 하고 벽의 표제 밑에 자신들의 "포스트잇"을 붙이도록 한다.
8. 참가자들과 두 개의 목록을 검토한다. 모호한 글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청하고 글의 위치에 대해 참가자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도록 한다.
9. 이제 '통제 있음'과 '통제 없음' 표제를 첫 번째 표제 아래 벽에 붙이고, 참가자들에게 각 목록을 두 개의 하위 목록 아래로 분류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분류는 해당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들이 통제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나눈다.
10. 마지막으로 네 개의 목록을 검토하고, 디브리핑과 평가로 넘어간다.

디브리핑과 평가

- 이 활동으로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당신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생각해보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나?
- 당신이 다니는 학교, 동아리, 지역공동체에서 전반적으로 청소년 참여가 높은가? 또는 낮은가? 이유는 무엇인가?
- 젊은이들이 활발히 참여하는지 아닌지가 문제인가? 왜 그런가?
- 참여가 낮은 것은 주로 내부(심리적) 요인 때문인가? 아니면 외부 요인의 결과로 보는가?
-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가능할 때 달리 말하면 요식행위가 아닐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 모든 참가자들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참여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영역인가? 그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 모든 참가자들이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의 "단계"로 참여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영역인가? 그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 현재보다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몇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몇인가?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 인권 문서들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어떠한가?

촉진자용 팁

2부에서, 참가자들이 다양한 참여방법을 가능한 많이 생각해내도록 촉진하라. 아이디어에 관련하여 배경정보의 시민권과 참여를 참고한다.

참여의 사다리를 소개할 때, 이 모델의 '가장 높은' 단계가 항상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의 전문성, 가용한 시간, 관심의 수준 등에 따라, 참여의 적정한 수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문이나 대표로서의 참여, 특정 상황에서의 단순 상담 또는 단지 정보를 제공받는 것 자체가 '잘'"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조작, 장식, 요식 행위라는 아래 세 단계의 참여를 '참여'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는 관여나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점을 강조하고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모둠이 활성화 요소와 장애물에 대해 생각하고자 할 때, 가능한 많은 문장을 "통제 가능" 분류에 두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당신은 "장애물"이 신체적이거나 구조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일 수도 있다는 예를 보여주거나 상기시킬 수 있다. 토론에서 참가자들이 장애물로 보이는 것들의 해결 방법을 찾도록 격려한다. 예를 들어 "관계자(동아리나 대학의 교사나 이사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에게 물어보려 노력했는지 확인한다!

만약 그들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지 묻는다!

그들이 "그건 부모님/선생님/지역당국이 화낼 뿐이야"라고 말한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 언급한 관계자가 달리 반응할 수도 있도록 한다.

이 활동을 일반적인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서의 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로 사용한다. 당신이나 참가자들의 더 큰 참여와 자신의 입장에서의 솔선수범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모둠 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일으켰거나, 심도있는 참여를 막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나눔으로써 또래 압력과 집단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응용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의 사례를 생각하는 것 대신으로, 시작단계에서 역할극을 사용해 장애물 요소와 활성화 요소를 탐구할 수 있다. 각각의 공연 뒤에 토론 연극 기법 을 사용하고 참가자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연기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활동이 그들 자신의 삶과 유사한 생활에서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막는 장애물을 직면하는 방법을 탐구하도록 할 것이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모둠으로 함께 행동 계획을 구성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고 학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감과 통제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304쪽 '조심하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활동은 개인적 행동과 책임감을 증진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실천 아이디어

모둠에서 지역사회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것의 목록을 구성해보도록 한다. 그런 후 이 목록에서 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한두 가지 항목을 찾아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이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천하도록 격려한다!

추가 정보

청소년의 참여는 그들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말하고 역사적으로 청소년이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활동의 계획 수립과 의사 결정에의 높은 수준의 참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스포츠, 학교, 동아리, 협회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활동 등이 있다.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영향이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즉 청소년 자신들 외부와 그 너머에까지 미치는 어떤 조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청소년의 참여를 의미한다.

www.coe.int/youth/haveyoursay

유럽평의회는 지방 및 유럽 지역 생활에서의 청년참여에 대한 유럽헌장 개정판에 대한 매뉴얼 '당신의 의견을 말해요(Have your say)'를 가지고 있다. 이 매뉴얼은 청소년 참여에 대해 훌륭한 자료이며, 활동영역을 따로 가지고 있다.

유럽에는 청소년 참여와 대의권이라는 굳건한 전통이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참여 강화에 대한 유럽평의회의 공헌은 청소년 부문에 대한 공동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 청소년자문위원회는 국제 청소년 NGO와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30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부문 정부 관료와 함께, 우선순위와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향후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유럽평의회 내 청소년 관련한 어떠한 사안에도 의견과 제안을 구성한다.

청년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Youth)

유럽청소년포럼(European Youth Forum): www.youthforum.org

유럽청소년포럼(YFJ)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청소년 주도 플랫폼으로, 100여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국제청소년조직을 대표하고 있다. 유럽청소년포럼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유럽 기구, 유럽평의회와 UN에 대해서 청소년과 청소년조직의 필요, 이익을 대표하고 옹호한다. 유럽청소년포럼은 "참여 문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청소년에게 관계되고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 참여 증가가 청소년 정책 의제와 맞물려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2년 로저 하트는 "아동의 참여 – 형식적 참여에서 시민권으로"라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탈리아 피렌체 유니세프 Innocent Research Center)

참여:

- 8단: 공유된 의사 결정
- 7단: 청소년 주도와 시작
- 6단: 성인 주도, 공유된 의사 결정
- 5단: 청소년 자문과 공지
- 4단: 청소년 배정과 공지

비참여:

- 3단: 청소년 형식적 참여
- 2단: 장식으로서의 청소년
- 1단: 조정당하는 청소년

인권 일반

1단계

제한 없음

30분

사진 놀이

한 장의 사진은 천 마디 말을 하고, 카메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

주제 • 기본 인권

난이도 1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

시간 30분

개요 이 활동은 세계인권선언(UHDR)의 조항을 설명하는 이미지들을 찾아본다.

관련 권리 • 모든 권리

학습 목표
- 일상에서의 인권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시각적 판단” 능력, 경청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 인권 존엄성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촉진한다.

준비물
- 번호를 매긴 20-30장의 사진 모음
- 큰 테이블
- 세계인권선언(UDHR) 조항 요약본(461쪽)을 기록할 벽걸이용 차트

진행

1. 큰 테이블에 사진을 펼쳐 놓는다.
2. 참가자들에게 개별 활동이라는 점을 말한다.
3. 세계인권선언(UDHR)의 조항 하나를 소리 내어 읽고, 보드나 차트지에 그 내용을 적는다.
4.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진 하나를 고르도록 한다.
5. 그리고 순서대로 그들이 고른 사진과 선택한 이유를 말하도록 한다.
6. 어떤 사진을 골랐는지 메모한다. 보드에 해당 사진의 번호를 적어둔다.
7. 세계인권선언의 다른 조항으로 위 과정을 4-5회 더 진행한다: 시민권,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경제적 권리가 혼합된 조항을 선택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먼저 활동 자체를 검토하고 이어서 참가자들이 배운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 개별적으로는 각기 다른 조항에 대해 다른 사진을 골랐는가, 아니면 한두 개의 사진이 해당 조항들을 말해준다고 생각했는가?
-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조항에 대해 같은 사진을 뽑았거나, 사람들이 권리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다른가? 이러한 점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각자의 방식에 대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 차트에 적힌 목록을 검토한다. 어떤 사진이 가장 자주 선택되었는가? 이 사진들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자주 선택된 이유는? 크기나 색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었나, 아니면 그 사진에는 중요한 무엇이 담겨 있는가?
- 여러 인권을 나타내는 데 선택된 개별 사진이 있었는가?
- 특정 사진에 대한 다른 사람의 해석에 동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 결코 뽑히지 않는 사진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은 인권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가? 어떤 인권인가?

기 념 일

10월 25일
국제 예술가의 날

촉진자용 팁

하나의 특정 사진이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사진 하나가 한 가지 인권 조항에 반복적으로 선택될 수 있고, 다른 조항에서도 선택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진 한 장이 여러 사람에게 같은 인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인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의 사진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1장의 “기본 방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활동을 위한 사진들은 “지구상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도록 한다. 개인과 집단, 다양한 연령대, 문화 및 능력을 다루는 사진을 포함하도록 한다. 농촌과 도시, 공업과 농업,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일과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어야 한다. 번호를 매길 때 종류에 따라 붙이려고 하지마라. 숫자를 매기는 목적은 단지 사진들이 쉽게 구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과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를 항상 유념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 사진을 분석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어야 하는지 참가자 그룹과 그들의 ‘시각적 이해력’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사진 한두 장을 함께 분석해보는 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래의 “추가 정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문을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응용

참가자들에게 여러 사진 중 인권의 일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을 한 장 고르도록 한다. 모두 고르고 나면, 각자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5장 판쵸의 주제별 카툰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에게 해당 그림이 어떤 인권을 반영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다.

사진 대신 비디오를 사용하길 원하면, 드라마를 사용하여 인권의 개념을 탐구하는 “몸으로 표현하기” 활동을 해보고, 모둠에서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고려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카메라를 빌리거나 할인행사를 할 때 일회용 카메라를 하나 장만한다. 그리고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인권에 관한 시선’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시작해본다.

232쪽 ‘안경을 바꿔라’ 활동은 인권의 관점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탐구하고 사진을 찍도록 한다.

이미지가 꼭 사진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에서도 나온다. 333쪽 ‘한 걸음 앞으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차별을 ‘볼’ 수 있도록 해본다.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인권에 관한 시선’ 프로젝트를 통해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래의 다른 제안들로부터 포스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전시회에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사진 놀이 방법들

사진의 일부

준비물/준비

- 간단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진을 찾는다. 사진을 두 부분으로 자르는데, 나뉜 부분의 이미지가 전체로 볼 때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보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른다.
- 사진의 잘린 두 장을 한 봉투에 담는다. 참가자 당 봉투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진행

1. 참가자들은 두 명씩 짝을 만든다.
2. 한 쌍의 참가자에 두 개의 봉투를 나누어 준다
3. 봉투를 교대로 열어보고 봉투 안의 잘린 사진의 한 장을 상대에게 건네준다. 짝에게 이 사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누가 주제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게 한다.
4. 그런 다음, 사진의 나머지 부분을 주고, 전체 그림에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5.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 여기서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 우리는 본 것만 그대로 믿어버리고, 이것이 “전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얼마나 자주 잊는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은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

캡션 달기

준비물/준비

- 번호를 붙인 5장의 사진 모음
- 참가자당 5줄이 그려진 종이와 펜 1개
- 테이프나 풀
- 큰 종이(A3) 혹은 차트 용지 5매

진행

1. 테이블에 사진들을 놓고, 참가자들이 각자 또는 짝을 이루어 사진마다 캡션을 써본다. 종이 한 줄에 하나의 캡션만 쓴다.
2. 모두 다 썼다면, 사진을 하나씩 들고 참가자가 자기 캡션을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3. 사진을 큰 종이의 중앙에 붙이고, 참가자들에게 사진 주위로 캡션을 붙이도록 하여 포스터를 만들도록 한다.
4. 포스터를 벽에 붙인다
5. 다양한 사진과 캡션들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6. 좋은 캡션을 만드는 비결은 무엇인가?
7. 사진 한 장이 천 마디 말을 한다면, 캡션은 왜 필요한가?

촉진자용 팁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반영하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캡션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진을 선택한다.

제5장 판초의 주제별 삽화는 이 활동에 좋은 재료가 된다.

말풍선

준비물/준비

- 그림, 2명당 그림 한 장(2명 이상의 짝은 같은 그림을 받도록 한다)
- 종이와 펜(2명당 하나씩)
- 풀

진행

1. 참가자들에게 짝을 지어달라고 요청한다. 사진, 종이와 펜을 나눠준다.
2. 받은 사진을 보고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로 분석하도록 요청한다.
3. 사진을 종이에 붙이고, 사진 속 인물을 위한 말풍선을 써넣는다.
4. 서로 작업을 공유해보고 짧은 디브리핑을 한다:
   - 사진을 분석하고 말풍선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 같은 사진을 받은 쌍에 대해, 서로의 분석이 어떻게 비교되는가?
   - 사진과 말풍선에서 참가자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발견했는가?

촉진자용 팁

인물 사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동물이 있는 그림을 포함시키면 어떨까?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이 방법이 매우 유익할 수 있다. 얼마나 자주 동물들이 카툰에서 고정관념의 캐릭터로 나오는지 지적하면서 시작할 수 있고, 이어서 자신들의 그림과 말풍선에서 고정관념화하는 예를 찾아보도록 한다.

5장의 삽화 중 일부는 이 활동에 좋은 재료가 된다.

틀에서 벗어나라!

준비물/준비

- 종이, 색연필, 마커
- 큰 용지(1쌍당 한 장)
- 콜라주 용 재료(선택사항)
- 사진

진행

1.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진을 배치한다.
2. 사진작가와 편집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에 관람자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사진에서 어떻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지 설명해준다.
3. 가자들이 둘이 짝이 되어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하도록한다. 사진을 분석한 후 큰 용지에 붙이도록 한다. 이어서 그림의 경계선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려 넣도록 한다. 즉, 그림에서 잘려지니 부분을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4. 자신들의 작업결과를 나누고 다음을 논의한다:
   - 사진가와 편집자는 왜 사진을 잘라내는가?
   - 잘라내는 것을 검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가?

촉진자용 팁

참가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사실적이거나 환상적으로 그림을 넓혀가는 과정이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컴퓨터의 디지털 그림을 사용하여 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환경

세계화

건강

2단계

10명 이상

30분

생명의 그물망

자연에서 하나를 잡아당겨보면 그것이 나머지 모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주제
- 환경
- 세계화
- 건강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10명 이상

시간 30분

개요 참가자들은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 먹이 그물망 연결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한다. 다음 내용에 대해 탐구한다.
-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 의존성
-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필연적인 영향과 그 결과

관련 권리
-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권
- 자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
- 믿음과 종교의 자유

학습 목표
-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 배운다.
- 협동적으로 일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킨다.

준비물 얇은 끈 뭉치나 질긴 털실뭉치

진행

이 활동은 1부-생명의 그물망의 탄생, 2부-생명의 그물망의 파괴, 3부-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활동의 3부분으로 나뉜다.

1부

1. 참가자들이 원을 만들어 서도록 한다.
2. 이제 생명의 그물망 모델을 만들게 된다.
3. 당신이 먼저 시작한다. 실뭉치를 손에 들고 녹색채소 이름을 댄다. 예를 들면 양배추라고 한다.
4. 실 끝을 잡고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에게 실뭉치를 던진다. 누군가 그 실뭉치를 잡으면 이제 원 안에 직선이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다.
5. 실뭉치를 받은 상대방은 양배추를 먹는 동물 이름, 예를 들면 애벌레를 말하고 다시 3번째 사람에게 실뭉치를 던진다.
6. 3번째 사람은 애벌레를 먹는 동물 이름을 생각해야 한다. '새'라고 해도 되지만, 새 종류를 안다면 개똥지빠귀처럼 정확한 이름을 말해도 된다. 이어서 실뭉치를 4번째 사람에게 던진다.
7.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 실뭉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의 그물망을 상징하는 완전한 교차 그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2부

8. 각 참가자에게 차례로 생명의 그물망을 훼손하는 특정된 예를 제시하도록 시킨다. 예를 들면 농지에 건설된 자동차 도로, 어류 남획 또는 화석 연료의 연소 등이다.예를 들 때 마다 잡고 있는 실을 놓는다.
9. 예를 하나씩 들 때마다, 그물의 선 하나씩을 자른다. 모든 사람이 다 예를 들면 참가자들에게 바닥에 쓸모없이 놓여있는 헝클어진 실가닥 더미를 도록 한다.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이라고 말해준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 있다.

3부

10. 참가자를 차례로 불러내어 세상을 구하기 위한 간단하고 현실적인 약속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대기 상태보다는 전원을 끔으로써 전기를 절약하고 고기를 적게 먹거나 비행기를 더 적게 탄다.
11. 각 참가자는 약속을 하고 그 즉시 바닥으로부터 임의로 실 한 가닥을 집어 든다.
12. 끝에 잠시 새로운 망을 바라보고 그것은 이전의 망과 똑같지 않음을 지적한다. 너무 늦었다. 소멸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하다.

디브리핑과 평가

처음에 생명의 그물망이 파괴되고 이어서 새로운 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활동과 관련된 이슈에 관해 이야기를 진행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 이야기한다.

- 그물이 점차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 서로 다른 먹이그물에서 동물이나 식물 이름을 대는 것이 쉬웠는가? 자연사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 예를 들면, 만일 10년 후에 북극곰이 멸종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상관이 있는가?
- 새로운 망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꼈는가?
- 환경에 대한 우리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개인적 실천을 생각해 내기는 쉬웠는가?
- 개인의 실천은 어떻게 효율적인가?
- 환경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UN, 정부, NGO, 개인의 책임
- 자연의 균형은 매우 복잡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이 가져오는 전 지구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지구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예를 들면 곡물을 재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숲을 개간한다면? 숲에서 생계를 얻는 사람은 농경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의 대가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위태로운 형평의 원칙이 적용된다.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조에 따르면 "모든 인민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의존해 먹을 음식과 숨 쉴 신선한 공기를 얻는다. 건강한 환경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건강한 환경은 우리 삶을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을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환경을 보호할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마치 우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기후 변화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어떤 새로운 인권이 필요한가?

기 념 일

10월 2일
국제 자연재해 감소의 날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은 10-15명 사이의 인원이 가장 효과적이다. 만일 더 많은 참가자가 있다면 몇 개의 모둠으로 활동을 운영한다.

각각의 먹이사슬은 실제로 가능한 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풀-양-인간, 또는 플랑크톤-고래, 또는 플랑크톤-청어-돼지(돼지는 보통 어분으로 사육한다.)-인간-호랑이'. 동물이 죽으면 박테리아가 동물의 사체를 부패시키고, 그 무기질은 다시 녹색식물이 흡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하여 생명의 순환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한 수십억의 순환이 서로 연결되어 생명의 그물망을 만들고 있다.

참가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여러 가지 먹이사슬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산림지의 예를 생각해본다, 숲, 산, 황야, 습지, 연못, 강, 해양서식지를 생각해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개입해도 된다. "이제 무기질이 바다로 씻겨 들어가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다시 그 무기질을 흡수한다." 또는 해양 생태계에서 다시 육지 생태계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제 바다갈매기가 해안가의 게를 먹고 내륙으로 날아가 농지에서 쓰레기를 뒤지다가 그대로 죽었다." 만일 어떤 참가자가 다음 연결고리를 생각해내지 못할 경우, 다른 조원에게 제안하도록 요청한다.

2부에서 실을 놓을 때 처음 몇 개를 놓아서는 그물망이 서로 잘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물망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물의 실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 갈수록 무력하게 서있는 사람들의 원에 둘러싸인 바닥에는 쓸모없는 실더미만 남게 된다.

3부에서 촉진자는 질문에 몇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답변들을 준비한다. "무엇이 생명의 그물망을 훼손하는가" 라는 질문의 예를 들면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먹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촉진자는 그 관점을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을 참가자들에게 묻는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큰 논쟁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게임을 일단 마친 후에 디브리핑과 토론 마지막에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한다.

토론에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활동의 목표를 염두에 두도록 한다.

성공한 이야기의 좋은 사례를 www.ecotippingpoints.org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정보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포르투갈에서는 Quercus 협회(www.quercus.pt) 가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와 환경에 우리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 – 더욱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사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영 TV를 활용해 정규적으로 제공한다.

인권과 환경의 관련성에 관해 질문을 던지기 전에 www.coe.int/compass 5장에서 그 배경 정보를 읽어볼 수 있다.

이 활동은 과학 수업과 함께 하면 좋은 활동이다.

응용

2부에서 참가자에게 생명의 그물망을 훼손하는 특별한 사례들을 제시하도록 할 때, 각 사례에서 가위로 생명의 끈을 자르도록 한다. 점차 망은 파괴되고 결국에는 발치에 쓸모없는 실더미만 남게 된다. 그 파괴된 망은 매우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지구 환경은 참으로 암울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앞에 놓인 일에 직면해서 절망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적어도 간단한 브레인스토밍 활동이나 현재 환경 보호를 위해 행해지는 진행상황에 관한 토론을 덧붙일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act-intl.org/goodpractice/TCC.pdf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환경보호에 대한 지역적/세계적 성공 사례를 브레인스토밍해본다. 전부 절망적이지는 않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있다. 국제연맹 행동수칙에 의해 만들어진 "기후변화를 저지하고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만들자"는 이를 위한 훌륭한 자원이다.

이 활동은 인권과 환경에 관한 논쟁의 시작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좋은 생각일까? 환경은 환경이 가진 도구적 가치보다 더 높은 상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동물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www.coe.int/compass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 시간, 노력과 돈이 필요하다. 모든 나라들이 군비를 줄여가면서 환경교육, 과학연구 및 현실적인 환경보호계획이라는 방법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만약 참가자들이 이 쟁점에 대해 더 탐구해보고자 한다면, 245쪽 '얼마나 필요한가?' 활동을 추천한다.

기후변화는 모든 곳의 생명체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홍수, 사막화 및 해수면 상승의 심각한 영향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저주 장소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으며 이주해야만 함을 의미한다. 만일 기후관련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탐구하고 싶다면 215쪽 '세 가지 물건' 활동을 경험해 볼 수도 있다.

실천 아이디어

지역의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접촉할 수 있는 NGO는 많다.

- 유럽 청소년과 환경(YEE). YEE는 유럽전체의 자연환경을 연구하고 보호하는 40개 이상의 지역자치, 국가자치 청년조직들의 상부조직이다. www.tigweb.org
- 유럽기후행동 네트워크(CAN-E). CAN-E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문제에 노력하는 유럽의 선도 네트워크로 인정된다. 유럽 25개국에 127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다. CAN-E는 유럽에 있어서 위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 정책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뭉쳤다. 지구의 친구 www.foei.org
- 사람과 자연이 지구 천연자원에 있어서 자신의 정당한 몫의 범위 내에서 번창하도록 전 세계의 정부, 사업체 및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WWF 네트워크, www.wwf.org

개인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라. www.cutco2.org에서 많은, 매우 실질적인 팁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해결책 탐구 청소년 단체의 페이스북에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다.

추가 정보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은 생명의 순환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그 예로 탄소 순환과 물의 순환을 들 수 있다. 먹이사슬은 이들 순환의 일부이다. 먹이사슬은 녹색식물이 햇빛으로부터 빛에너지를 이용하고 토양과 물에서 무기질을 흡수하며 직접 먹고 자랄 양분을 만들면서 시작된다. 예를 들면 양배추와 같은 녹색식물이 누군가의 먹이가 되면 배춧잎에 저장되어 있던 무기질과 에너지가 애벌레와 같은 포식자에게 이동해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쓰이게 된다. 각 동물들이 차례로 서로 먹고 먹히면서 에너지와 무기질은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동물이 죽게 되면, 그 동물의 사체는 부패하여 박테리아의 먹이가 된다. 사체에 있던 무기질은 다시 녹색식물의 먹이가 되고 이렇게 먹이사슬은 다시 시작한다.

민주주의

시민권과 참여

인권 일반

2단계

제한 없음

60분

선거운동

당신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나요?

주제
- 민주주의
- 시민권과 참여
- 기본 인권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

시간 60분

개요 이 활동은 다음에 대한 토론 중심 활동이다:
- 민주주의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
- 민주적 토론

관련 권리
- 정부와 자유로운 선거에 참여할 권리(정부참여권과 자유선거권)
-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사상의 자유

학습 목표
- 민주 사회의 논쟁적 측면들을 고려한다.
- 경청, 토론과 설득의 역량을 연습하고 개발한다.
- 협력과 오픈 마인드를 북돋는다.

준비물
- 열린 공간, 긴 벽과 2개의 의자
- 표지를 만들 카드(A4 크기)와 유색 펜
- 접착 테이프
- 메모용 작은 카드와 펜(선택)

준비 작업
- “동의”, “부동의”의 두 표지를 만들어, 긴 벽의 각 끝에 붙인다. 벽을 따라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 방 중앙에 50cm 정도 간격을 두어 의자 두 개를 두고, 주위에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다.
- 아래에 제시된 문장을 선택하거나, 자신만의 문장을 만든다.

진행

1. 벽 양 끝에 붙여둔 두 개의 표지를 가리키면서,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참가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주게 됨을 설명한다.
2. 목록에서 한 문장을 뽑아 사람들에게 읽어 준다.
3. 사람들에게 지금 문장에 대해 자신이 찬성하는 혹은 찬성하지 않는 “정도”만큼 벽을 따라서도록 한다. 만약 전적인 찬성이나 반대라면 벽의 양 쪽 끝에 서고 중간 정도의 찬성과 반대라면 벽의 가운데쯤에 위치하게 된다.
4.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잡으면 양 쪽 끝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여 가운데 준비된 의자에 앉도록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의자 주위로 둘러서되, 자신과 의견이 “가장” 같은 이의 뒤에 선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선다.

5. 의자에 앉은 두 사람들에게 제시된 문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1분씩 말하게 한다. 누구도 말을 끊거나 동조하거나 할 수 없으며 모두 조용히 듣기만 한다.
6. 두 사람의 말이 모두 끝난 후 결정하지 않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한 편 뒤에 서 달라고 요청한다(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찬성’ 혹은 ‘반대’에 속하게 된다. 두 그룹에 각각 10분씩,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의논 시간을 주고 이것을 발표할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뽑도록 한다.
7. 10분이 지나면 모두를 불러 모으고 새로운 두 명의 발표자를 의자에 앉게 하고 ‘지지자’들을 그 주위에 자리 잡게 한다.
8. 발표자에게 각각 3분의 시간을 주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게 한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은 상대편의 논리가 그럴 듯하다고 여겨지면 반대편으로 옮겨갈 수 있다.
9. 두 그룹은 다시 또 5분 동안 상대방을 설득할 논리를 준비하고 세 번째 발표자를 뽑는다. 발표가 끝난 후 또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
10. 모두 함께 디브리핑을 시작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이제 형식에 반영된 토론의 절차와 목적에 대한 반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다원주의 사회에 가치를 두는 이유를 돌아본다. 제시되었던 이슈 자체에 대한 토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 토론과정에서 마음이 바뀐 이는 없었나? 있었다면, 그들이 설득된 주장은 무엇이었나?
- 사람들이 실제 토론 내용보다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또래의 압력이나 감정적 선동 혹은 경쟁적인 기분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 토론 과정에서 끝까지 원래 입장을 고수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세히 논의해보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원래의 입장을 바꾸게 할 만한 어떤 증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가?
-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일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의견이 허용되어야만 하는가?
- 토론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변하고, 반대로 대변인이 되어 지지자들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가?
-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삶에서 대리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또는 참가자의 조직이나 협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학급 대표가 된다는 것은?
- 이 활동에서 어떤 인권이 위태로울 수 있는가?

촉진자용 팁

활동의 첫 부분에서, 참가자들이 벽을 따라 자리를 잡는데 2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한다. 단순히 ‘시작 위치’를 정하는 것뿐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의 입장이 어느 위치인지 알게 하는 것뿐이다.

이 활동은 이슈 자체를 충분히 생각해보는 것만큼이나 토론에서의 의사소통과 설득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의견의 내용과 발표뿐만아니라 상대방을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자신의 ‘편’으로 끌어와야 한다. ‘발표’사이에 휴식시간을 갖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것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제시되는 문장 이외의 주제도 토론의 내용으로 다룰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문장에 대해 토론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므로 만약 다른 문장으로도 진행하고 싶다면 시간을 더 배정해야 함에 주의한다.

모둠의 강점과 약점, 토론의 활기에 따라, 진행의 정확한 순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기 념 일

9월 19일
여성 참정권의 날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 각 모둠이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간격을 한두 개 더 추가하여, 다른 발표자들이 자신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전에 같은 모둠과 이 활동을 작업해 본 적이 있다면, 혹은 처음으로 함께 하는 경우라도, 첫 번째로 발표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각 줄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있는 두 사람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 발표를 준비하는 중에 각 발표자의 "지지자"들에게 반대편 발표자와 같이 작업할 수 있는지 – 달리 말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편과 반대되는 입장의 발표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참가자들이 처음 가졌던 생각에서 변화가 없었다면 이는 흥미로운 응용방법이 될 수 있다.

발표자가 다른 주장에 대해 기억하고 발표 중 언급하기 위해 간단한 메모를 적은 엽서 크기 종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다원주의"나 표현의 자유에 관련하여 관대한 사회에서도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제나 파시스트나 국수주의자에게도 허용되어야만 하는가 같은 주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여러분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특히 언론의 역할을 다루고자 한다면, 299쪽 '전면 기사'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고정관념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한다면, 교육 패키지 [모두 다르고 – 모두 같다]에 있는 활동 'Cultionary' 를 다루어 본다.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투표에 관련된 문장을 선택했다면, 자기 지역에서의 선거 관행에 대한 조사를 다루는 활동을 이어서 진행해 볼 수 있다. 324쪽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활동을 참고한다.

추가 정보

9월 19일은 (여성)참정권의 날로서, 1893년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을 기념한다.

유인물

토론용 문장

- 우리는 선거에서 투표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 우리는 모든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심지어 불공정한 법일지라도.
-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정치가들이다.
-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다." ("사람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지도자를 얻는다.")
- 정부의 일상적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 표현의 자유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네오파시스트정당은 금지되어야만 한다.
- 극단주의자들은 대중 연설이 금지되어야만 한다.
- 투표는 의무가 되어야만 한다.
- 학교 위원회에 참여할 대표를 뽑는 것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위원회는 단지 토론하고 권고만 할 수 있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너와 나에 대해 이야기하자.[1]

주제
- 젠더
- 차별과 불관용
- 건강

난이도 4단계

모둠 크기 10–15 명

시간 60분

개요 이 활동에서는 동성애 혐오를 포함한 성적지향에 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어항 기법'을 사용한다.

관련 권리
- 평등권
- 차별로 부터의 자유
- 표현과 결사의 자유

학습 목표
-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관련된 이슈와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성적지향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운다.
-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공감을 증진한다.

준비물
- 의자 3개
- 촉진자 2명(되도록)
- 참가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 보드나 플립차트, 그리고 마커
- 작은 종이와 펜
- 모자 하나

준비 작업
-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에게는 성은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 주의한다. 주제나 방법론 둘 다에서 대응 준비를 한다.
-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포함한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해 솔직히 말한 유명인을 몇몇 찾아본다.

진행

1. 상황을 설정한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적지향은 사적인 문제로 보고 있지만,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 활동은 성적지향에 대한 태도, 특히 동성애와 이성애주의에 대해 탐구하는 기회이다. 그리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발표하였던 유명인을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2. 종이와 펜을 나누어 주고 동성애나 일반적으로 성적지향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보도록 하고, 이를 모아 모자에 넣어둔다. 질문은 익명으로 하도록 한다.
3. 이 활동은 성적지향에 대한 태도, 특히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관습에 맞거나 그렇지 않거나,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사람들은 비웃음이나 경멸받을 두려움 없이 자신이 동의하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제목은 미국 힙합밴드인 솔트앤페파의 히트송 (1991)에서 따왔다.

젠더

차별과 불관용

건강

4단계

10–15 명

60분

4. 모둠 앞에 의자 세 개를 반원으로 배치한다. 이 세 개의 의자는 “어항”에 있는 세 명의 대담자를 위한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관찰자가 된다.
5. “어항!”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두 명의 자원자를 초대한다. 어느 시점이든 참여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3명만이 가능하기에 누군가는 교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앞으로 나와 “대담자”중 한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도록 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자리를 교체하고, 원래의 “대담자”는 관찰자가 된다.
6.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환영받지만, 또한 자신의 의견이 아닌 의견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논쟁적인 관점이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거나” 상상하기 어려운 의견들이 공론화될 수도 있고 해당 주제가 많은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히 논의될 수 있다. 모둠 내 개인에 대한 공격적이거나 상처가 되는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7. 지원자에게 모자에서 무작위로 질문지를 선택하게 하고 그 질문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한다. 사람들이 주제를 다 소진해서 요점이 반복될 때까지 토론을 진행한다.
8. 다른 세 명의 지원자에게 전과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질문에 대해 토론을 시작한다.
9.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질문을 토론한다. 디브리핑과 평가로 가기 전에, 사람들이 “어항”에서 빠져나올 시간을 잠시 가진다. 이 과정은 토론이 격렬하고 논쟁적이었다면 특히 중요하다.

디브리핑과 평가

사람들이 “어항” 안과 밖에 있었을 때 느낀 점을 간략히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사람들이 표현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활동에서 배운 것을 토론한다:

- 놀랍거나 충격적인 견해가 있었는가? 어떠한 의견인가? 왜 인가?
- 당신의 지역 사회에서는 성생활에 대해 일반적으로 얼마나 개방적인가?
- 젊은 남녀들이 특정 성적지향과 역할에 순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어느 역할에?
- 이러한 기대를 벗어난 (젊은)이들은 어떻게 인식되고 대해지는가?
- 어떤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더 개방적인가? 그 이유는?
- 우리 자신의 성적지향이 개발되는 데 어떤 힘이 영향을 주는가?
- 사람들의 성적지향에 대한 가치관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 참가자들의 성적지향에 관한 태도가 자신의 부모, 조부모와 차이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당신 나라에는 상호 동의한 성인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이 있는가? 있다면, 법이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가? 그런 법이 왜 존재하는가? 당신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서,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성적 지향”은 “인종, 국적, 종교”의 목록에 포함되지 못하였는가? 그래야만 하는가?
- 어떤 나라에서는 법과 사회적 압력이 개인의 존중과 존엄성이라는 인권,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의 사랑, 자유로운 결혼 등등의 인권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촉진자용 팁

당신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하게 활동을 조정한다.

이 활동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성과 우리 사회의 규범에 대해 살펴보게 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용을 가지고 대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관점을 설득하거나 합의된 결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촉진자는 www.coe.int/compass 5장의 젠더에 대한 배경 정보를 읽고 스스로 준비하도록 한다. 어떤 주제들이 나올지 생각해본다. 자주 나오는 질문과 이슈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동성애는 무엇인가?
- 이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동성애는 질병인가?
- 어떻게 게이나 레즈비언이 되는가?
- 에이즈에 걸릴 위험은?
-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허용되고 동성배우자와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에 처한다.

또한 촉진자로서 자기 자신,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에 대한 당신 자신의 가치관과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가치가 당신이 행동하고 말하는, 그리고 당신이 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모든 것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가자들이 그들 자신의 가치관의 뿌리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촉진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편견을 인식하고 이러한 가치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해 솔직히 말했던 유명인들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성적지향에 대해 토론할 때 개방적으로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와 같은 용어를 명확히 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이다. www.coe.int/ compass 5장의 배경 정보를 살펴본다.

이 활동에서 촉진자의 역할은 전반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 방법 중 하나는 두 명의 촉진자를 대담자로 하여 시작하는 것이다. 그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한다. “너 혹시 들었니? 피터가 게이라고 커밍아웃했다고 하던데?” 다른 이가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 나는 생각도 못했어. 내 말은 피터는 게이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은 이 대화가 공동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주변 이야기” 수준이며 이론적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여는 것을 돕는다.

관찰자 중 한 명이 빠르게 촉진자를 대체하여, 당신이 토론에서 빠져나오고 참가자들에게 토론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당신은 관찰자로 계속 참여하고 대담자로서 다시 참여할 기회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토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참가자를 재치 있게 빼내기 위해 토론을 조정할 기회를 따로 열어두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면, 어떠한 특정 관점이라도 한 번만 제시할 수 있다는 규칙을 도입할 수 있다. 이것은 주제에 대해 일부 측면만을 다루는 토론을 막고 대중적인 편견을 반복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모둠에서 토의할 질문에 대한 이이디어가 필요할 경우, 다음을 제안할 수 있다:

- 동성애자들에게는 합의 연령(결혼이나 성관계)이 달라야 하는가?
-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은 결혼하여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아니라면 왜?
-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여성에 비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 사실인가?

모둠이 클 경우 모든 문제를 다루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질문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션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질문을 벽에 붙일 수 있다. 이것은 참가자들이 그들 자신의 시간에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동기화시킨다.

기 념 일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응용

이 방법은 여러 이슈에 대해서 적용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종차별, 교육, 기후변화 등이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언론에서 성적지향 특히 동성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신문, 잡지, 인터넷에서 사진을 수집해서 이에 대한 캡션이나 말풍선을 쓰도록 해본다. 200쪽 '사진 놀이' 활동 마지막에 '또 다른 사진놀이 방법'을 참고한다.

85쪽 '곧 구식이 된다.' 활동은 성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많은 태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실천 아이디어

당신 나라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와 성전환자를 위한 조직에 연락해서 대표 중 한 명을 모둠을 위한 연사로 초대해서 어떤 평등과 권리의 문제가 가장 절박한지 알아본다.

추가 정보

인간의 성적지향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이다. 우리의 성은 자신의 성격 및 사회적, 개인적, 감정적, 심리적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리의 성적지향은 성과 젠더 특성 및 많은 다른 복합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평생의 역동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성 다양성과 인권

언뜻 보기에 이 두 주제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나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에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시민권과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구조라는 공공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분야의 연구는 시대와 문화를 가로질러 성정체성과 성적 욕구의 표현 방식이 사회 질서의 유지에 있어 얼마나 잠재적인 파괴력을 갖는지 보여준다. 어떤 맥락에서는 동성이나 모호한 성적 욕망은 전통적이거나 종교적 믿음에 대한 도전이나 파열로 간주되고 다른 맥락에서 이를 정신 질환으로 여긴다.

주장하건대 인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회적, 종교적 헤게모니가 분명히 있다. 이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성욕의 "정상적"인 방식이며, 그래서 또한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형태의 성적 표현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제도화된 추정이 있다.

주: 게이와 레즈비언 인권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채택함. www.iglhrc.org

세 가지 물건

산다는 것은 선택이다.
그러나 잘 선택하기 위해선 네가 누구인지, 어디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왜 가고 싶은지를 알아야 한다.

코피 아난

주제
- 이주
- 전쟁과 테러
- 환경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소모둠 5-6)

시간 30분

개요 이 활동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토론과 다이아몬드형 순위매기기를 활용한다.

관련 권리
-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할 권리
- 종교와 믿음의 자유
- 의견과 정보의 자유

학습 목표
- 자신의 집에서 달아나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의사결정과 합의구성 능력을 연습한다.
- 피난민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조성한다.

준비물
- 포스트잇이나 조그만 사각 종이(약 8cm X 8cm), 참가자당 3장
- 필기구, 참가자당 하나

진행

1. 사람들이 다른 곳에 살기 위해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이주에 대한 주제를 소개한다.
2.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것을 상상하도록 하는 이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브레인스토밍의 내용을 참고하고 사람들이 도피하게 되는 요인인 전쟁, 자연 재해, 박해나 테러와 같은 "압박 요인"을 제시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있는지 추측해 보도록 한다.
3. 이제 소모둠으로 나눠 모이도록 하고 작은 종이와 연필을 나눠준다.
4. 모두에게 그들이 특정 이유로 갑자기 집에서 달아나야 하는 상황을 상상하고, 단지 3가지 것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가져가는 3가지 물건은 무엇일까? 각자 한 장의 종이에 하나씩 적도록 한다.
5. 다음으로, 각자 자신의 선택한 것을 보여주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6. 이제 모둠별로 참가자들이 함께 그들의 선택과 이유를 토론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아이템들을 다이아몬드형 순위매기기를 사용하여 순위를 매긴다.(61쪽 참고)
7.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각 모둠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각 모둠별로 순위를 매긴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무엇을 배웠으며 관련된 인권은 무엇인지 토론한다.

- 참가자들이 선택한 아이템 중에서 놀라운 것이 있었는가?
- 순위를 매기는 것이 쉬웠나? 모둠 내에서 의견들의 어떤 차이점을 볼 수 있었나?
- 모둠별 순위에서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 사람들은 얼마나 현실적이었나? 사람들이 주로 신체적 생존만을 생각했는가? 아니면 감성적이거나 영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생각했는가?
- 만약 당신이 정말로 도망쳐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 사람들이 대피한 후에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 주변에 자신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을 아는가?
- 이 활동은 현실적인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가져갈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어떤가? 부모님들이 짐을 쌀 때 이들의 특정 욕구들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가?
- 우리 사회 또는 전 세계에 걸쳐있는 피난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어떤 인권이 난민을 특별히 보호하는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을 소개할 때, 참가자들에게 이주에 대해 개괄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사람들이 이주하는 이유의 예는 공부와 직장 때문에, 삶의 방식, 홍수, 지진이나 가뭄, 전쟁과 박해 등이 있다. 브레인스토밍의 끝에, 각각의 이유를 두 가지 목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압박'(조국에서의 전쟁이나 박해)이나 '유인'(다른 나라에서의 보다 나은 학업이나 직업의 기회) 요소이다.

UNHCR에 의하면 2022년 말 현재 3,530만 명의 난민, 6,250만 명의 내부 난민과 540만 명의 무국적자가 있다.

단계4에서는 참가자들이 동일한 프레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설정해야 한다. 모둠에 가장 적절하거나 흥미 있는 상황을 선택한다. '전쟁'은 아무도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도전 과제일 수 있으며, 테러 공격이 포함된 시나리오가 보다 더 현실적인 상황일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보도록 한다. '홍수'를 원인으로 선택했다면, 당신의 마을은 계곡에 있을 것이고, 강의 수위가 올라가고 홍수가 다리를 쓸어내려가고 물이 주변 전체로 넘쳐나가는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언덕이나 산악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강수에 의해 마을을 휩쓰는 산사태라는 위험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되돌아갈 수 없고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아마도 영원히)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아이템과 그것들이 얼마나 실용적인지는 참가자들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또한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날씨, 계절이나 도망치는 이유 등이다. 예를 들어, 홍수가 나서 수영을 할 수 없다면, 뗏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갈 수도 있다. 개인적 선택과 선호에 있어서, 맞고 틀린 답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어떤 선택이 다른 선택에 비해 더 현명하고 실용적인 선택일 수 있더라도.

주:

"난민", "내부 난민", "망명신청자" 및 "이주노동자"의 정의와 차이의 설명은 www.coe.int/compass 5장의 이주에 관한 배경정보를 참조하라.

전쟁과 박해로부터 덴마크로 도망쳤던 망명자들은 모두 최우선 순위로 돈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여권이나 신분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위조 서류를 살 수 있었어요."라고 그들은 말했다. 같은 이유로 따뜻한 옷과 음식도 돈으로 구할 수 있었다. 몇몇 사람들에게 경전은 영적인 욕구를 지탱하기 위한 우선사항이었다.

다이아몬드형 순위와 포스트잇을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절대 순위를 선택하는것이 어렵고 부자연스러우며, 둘째로 수단은 정해져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종이(그리고 생각)는 쉽게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용

이 방법은 모든 주제의 양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 아동: 행복한 어린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 시민권과 참여: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 문화와 스포츠: 당신의 문화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 측면은 무엇인가?
- 민주주의: 원활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는 무엇인가?
-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많은 장애인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3가지 개선안은 무엇일까?
- 차별과 불관용: 긴 기차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객차를 타고 가야 한다.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3가지 국적을 선택한다. (활동에 함께 하기에 가장 원하지 않는 3개의 국적을 추가할 수도 있다.)
- 교육: 사람들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아동들에게 세계어로 가르쳐야 할 언어 3가지는 무엇인가?
- 환경: 세계자연기금(WWF)이 다음 캠페인에서 다루어야 할 멸종위기종 3가지는 무엇이어야 할까?
- 젠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3가지 주요 원인의 이름 은 무엇인가?
- 세계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중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무엇인가?
- 건강: 담배, 코카인, 알콜, 대마초, 에페드린, 비아그라? 당신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약물 3가지는 무엇인가?
- 언론: 지난 10년 동안 인권 증진에 가장 기여한 언론분야에서의 3가지 혁신은 무엇인가?
- 이주: 당신이 나라로부터 도피해야 한다면, 당신이 가장 가고자 원하는 나라 3곳은 어디인가?
- 평화와 폭력: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 3가지 무엇인가?
- 빈곤: 빈곤퇴치에 가장 성공적인 3가지 단계나 활동은 무엇인가?
- 종교와 믿음: 원리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3가지는 무엇인가?
- 추모: 여러분의 마을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리는 기념비나 기념되지 않는 역사적 사건을 생각해보라. 이 사건이 왜곡이나 오역 없이 기록되고 배울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세요.
- 전쟁과 테러: 현재 지뢰금지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다. 다음으로 금지해야 할 무기 3가지는 무엇인가?
- 노동: 당신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3가지는 무엇인가?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참가자들이 집을 떠나 망명처를 찾는 것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147쪽 '들어가도 될까요?' 또는 241쪽 '언어 장벽' 활동을 해보도록 한다.

온갖 종류의 기억을 떠올리는 과거 사건들을 생각해 본다; 만약 모둠이 공공전쟁기념관에 의해 관련 기억들을 어떻게 떠올리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160쪽 '메모리 태그' 활동을 해본다.

실천에 대한 아이디어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가져갈 물건 3가지에 대해 질문하고, 인권과 피난처에 대한 토론을 유발시킨다.

망명 신청자와 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지역 조직을 찾아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KEY DATE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환경

평화와 폭력

이주

4단계

제한 없음
(소모둠 5)

60분

손가락들

우리는 모두 다른 배를 타고 왔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제
- 환경
- 평화와 폭력
- 이주

난이도 4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소모둠 5)

시간 60분

개요 가장 친환경적인 청년 모둠을 찾아보는 경쟁형 시뮬레이션 활동이다. 그들은 정직하게 행동할까 속임수를 쓸까?

관련 권리
- 법 앞에 평등할 권리
- 생명권과 생존권
-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학습 목표
- 협력 가치, 그리고 합의 내용에 대한 감시와 검증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협력의 역량을 구축한다.
- 정의감과 공정심을 촉진한다.

준비물
- 모둠당 진행표 한 부
- 모둠당 점수표 한 부
- 모둠당 점수기록자를 위한 펜
- 소모둠 활동을 위한 공간

진행

장면 설정: 마을 또는 학교나 학급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청소년 클럽을 찾는 대회가 있다. 각 참가자는 각기 다른 청소년 클럽을 대표하여 참여하였고, 이 경기를 통해 다음 단계로 누가 진출하는지를 보는 결정전 경기이다. 목표는 가능한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것이다.

1. 참가자들에게 5명씩 작은 원을 만들도록 한다.
2. 네 사람이 네 개의 청소년 클럽의 대표로 경기를 하고 한 명은 점수를 기록한다. 점수기록자는 매 라운드의 경기 진행을 위해 사인을 주고 심판을 본다. 기록자는 점수판에 점수를 기록하고 참가자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할 책임을 진다.
3. 누가 점수기록자를 맡을 지를 모둠별로 결정한다.
4. 각 모둠의 점수 기록자에게 진행표를 전해준다. 점수기록자는 모둠 구성원들에게 진행표를 읽어주고,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할 것인지, 점수를 얻기 위한 규칙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경기 진행표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붙여 놓아 점수 획득 방식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한다.
5. 각 모둠이 게임을 할 준비가 되면 연습게임을 한 번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명확히 알게 한 후, 경기를 시작한다.
6. 모둠별로 경기를 10회 마치면, 각 모둠별 점수기록자에게 모둠별 총점을 산출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이서 디브리핑과 평가 과정으로 가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우선 소모둠 별로 하고 이어 전체로 진행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소모둠 별로 참가자들에게 다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한다:
- 누가 가장 많은 점수를 얻었나?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는가?
- 누가 가장 적은 점수를 얻었나? 그때 기분은 어땠는가?
- 누군가 속았다고 느꼈나? 왜인가?
- 5회, 8회, 10회를 진행하기 전에 합의를 이룬 것이 있는가? 무엇을 합의했는가?
- 합의를 깬 사람은 있는가? 왜인가?

전체 모임에서:
- 점수기록자들은 모둠 내 최고점자와 최저점자의 점수와 모둠의 합계점수를 보고한다. 이 점수들을 차트에 명확하게 기록한다.
- 어떤 모둠이 전체 모둠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는가? 그 모둠의 참가자들은 협동을 잘 하였나, 아니면 누군가 속임수를 썼는가?
- 이 게임은 현실 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도록 한다.
- 사람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동의했을 때, 어떻게 하면 모든 참가자들이 실제로 공정하게 활동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
-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장 친환경적"인 모둠이 되는 것이 날이 되는가?
- 2009년 COP 15 기후변화회의에서 정치인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지 못한 이유의 하나는 각 국가가 검증에 대한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어떤 인권침해들이 있는지 살펴서 실질적인 세부 사항에 주목하여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면 도움이 되었을까? 왜인가?
- 기후 변화에 관련하여 누구의 권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가?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부유한 나라가 환경문제를 일으켰으며, 가난한 나라가 더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이 형평성 문제를 공정하게 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기후 변화 모델에서 예측한 악천후의 증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 나라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인권교육이 할 역할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촉진자용 팁

게임의 결과는 협력하여 플레이를 한 모둠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게 될 것이다. 누군가 속임수를 쓰는 모둠은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한 개인이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잘 해나갈 수 있으나, 다른 이의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이 활동의 학습 요점은 만일 사람들이 협력한다면 그들이 모두 승리한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협약의 약점, 정부 지침과 법률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참가자들에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기는 없지만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정보 캠페인에 대해 고려해 보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 타이디 브리튼 그룹(Tidy Britain group, 영국 환경자선단체)은 '내 작은 포장지는 별 변화도 만들지 않는다.'는 제목의 캠페인을 벌였다. 그 캠페인은 사탕포장지로 어질러진 거리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많은 포장지의 말풍선들에 "나는 별 변화도 만들지 않을 거예요."라는 슬로건이 쓰여 있다. 당신이 이 포스터를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 만약 내가 내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려 노력한다면 거리는 더 깨끗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엄지 하나와 세 손가락
- 만일 우리 중 몇이 그렇게 한다 해도 결국 전체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고 만일 누군가가 버리는 쓰레기양이 실제 증가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엄지 두 개와 손가락 두 개
-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돌보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거리는 좀 더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항상 다른 사람의 노력에서 혜택을 보지만 계속 쓰레기를 버리는 누군가는 있다. 왜 그들은 '무임승차'를 즐기는가? : 엄지 세 개와 손가락 하나
- 누구도 하지 않는데, 왜 나만은 해야 하는가? : 손가락 네 개

기 념 일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COP 15"는 UN 기후변화 협약(UNFCCC) 당사군의 제 15차 총회의 약어이다. 또한, 2009년 유엔 기후변화회의로 알려져 있다.

다음의 예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내 작은 차는 어떤 변화도 만들지 않는다.”(CO2배출 감소를 위해) 또는 “빨래를 옷걸이에 말리는 대신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별 변화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람들이 가장 쉽게 관련 지을 수 있는 사례를 찾는다.

여러 도시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도로를 개 분뇨로 더럽히면 벌금이 부과된다: 자발적 행동은 효과가 없다. 일종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의 COP 15 정상회의 결과인 코페하겐합의가 가지는 취약점의 하나가 CO2배출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방법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학교나 청소년 모임, 지역사회, 가정에서 규칙을 어기는 이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처벌의 효과를 모둠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이 규칙을 잘 따르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참가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방법은 그들이 모두 엄지손가락을 들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유사한 경우는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차 운전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CO_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 최대 1 시간만 TV를 시청하게 하고(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첨단 기기(예: 휴대폰,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 또는 비디오 게임 콘솔)의 구입 대수를 최대 1회로 제한하고(자원 절약을 위해) 그리고 채식주의자가 되도록(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동물 폐기물에서 CO2 및 NOx 생산을 줄임) 요구할 수 있다. 모둠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을 들어야’만 하도록 말할 수 있는 입법안 예를 찾을 수 있을까?(교통 규제가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예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어떤 인권과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지 물어본다.

189쪽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 활동은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부터 야기되는 불공정함을 다루는 또 하나의 모의실험 활동이다. 만일 당신이 자연의 균형과 이러한 균형의 파괴 등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204쪽 ‘생명의 그물망’ 활동을 시도해본다.

실천 아이디어

모둠은 지역 내 환경 이슈를 찾아보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지역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모둠원들이 국제 정치에 관심이 많다면 COP 15에서 합의에 실패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국가 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할지 방법을 모색해 본다.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의 필요성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모둠이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기후 변화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개인 소비에 맞춘 사용자의 활동을 돕는 사이트 www.footprintdiary.com과 휴대전화와 웹 어플을 시작한다.

추가 정보

국제 지도자들이 회의 막바지에 회의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투명성이 COP15의 주요 주제였다. 이전 COP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감소를 “감시, 보고 및 검증” (줄여서 MRV)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MRV개념은 특별하게 개발도상국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적인 적절한 완화 조치”에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서 급속한 산업화로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는 특별히 감시와 검증을 위한 체제를 설정하고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데 관심을 갖는다.

공정한 감시 과정에 대한 동의 실패는 이 문제의 복잡함을 보여주는데, 특히 정의와 공평성에 관련되어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대, 특히 중국의 반대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은 1인당 배출량 책정은 매우 불공평한 제안이고,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은 그들에게 있으며, 배출량의 감소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 다루어졌으며, 개발도상국의 실천을 지원하고 강력한 추적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한다는 배출감소의 장기적 목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정의재단은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환경보존의 필요성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만들어 낸다. http://www.ejfoundation.org

자발적인 행동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않는 것보다 낫고, 당신 사례가 길을 인도할 수 있다. 이는 WWF의 기후보호계획의 토대이다. 목적은 회사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http://www.worldwildlife.org/climate/business.html

이 활동은 “Let’s take the world in hand” 에서 가져옴. © Woodcraft Folk 1993

유인물

진행표

이 게임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점수를 획득해 이기는 것이다.

게임방법:

- 점수관리자가 셋을 세면 주먹을 내밀고 엄지나 손가락을 펼친다. 모든 라운드에서 “엄지”나 “검지” 중 하나만 사용한다.
- 5, 8, 10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을 제외하고 다른 경쟁자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
- 10라운드까지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

점수 계산 방법

- 점수는 경쟁자들의 ‘엄지’와 ‘검지’의 조합에 따라 정해진다.
- 4명의 경쟁자가 ‘엄지’를 들면, 각 플레이어는 +1점을 획득한다.
- 3명이 ‘엄지’를 들고, 한 명이 ‘검지’를 들면, ‘엄지’를 든 사람은 각 −1점을 받고 ‘검지’를 든 사람은 +3점을 받는다.
- 두 명이 ‘엄지’를 들고, 두 명이 ‘검지’를 들면, ‘엄지’를 든 사람은 각 −2점, ‘검지’를 든 사람은 각 +2점을 받는다.
- 한 명이 ‘엄지’를 들고, 세 명이 ‘검지’를 들면, ‘엄지’를 든 사람은 −3점, ‘검지’을 든 사람은 각 +1점을 받는다.
- 모든 참가자가 ‘검지’을 들면, 각 −1점이 받는다.

아래의 표에 이것을 정리하였다. 엄지와 검지의 조합, 이에 따른 각자의 점수를 정리

엄 엄 엄 엄	엄 엄 엄 검	엄 엄 검 검	엄 검 검 검	검 검 검 검
+1 +1 +1 +1	−1 −1 −1 +3	−2 −2 +2 +2	−3 +1 +1 +1	−1 −1 −1 −1

- 5, 8, 10 라운드는 보너스 라운드이며, 다음과 같은 추가점을 얻는다:
- 5 라운드 – 해당 점수에 3을 곱한다.
- 8 라운드 – 해당 점수에 5을 곱한다.
- 10 라운드 – 해당 점수에 10을 곱한다.

* 각 라운드를 마치면, 점수기록자는 점수판에 점수를 기록한다.

점 수 표				
참가자 이름				
라운드				
0(연습)				
1				
2				
3				
4				
5(점수 x 3)				
6				
7				
8(점수 x 5)				
9				
10(점수 x 10)				
총점(1–10)라운드:				

종교와 믿음

문화와 스포츠

차별과 불관용

3단계

제한없음
(소모둠: 4-5)

180분

신자들

인권은 보편적 기준이다. 모든 종교와 모든 문명에서의 구성요소인 것이다.

시린 에바디

주제
- 종교와 믿음
- 문화와 스포츠
- 차별과 불관용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소모둠 4-5)

시간 180분

개요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믿음에 대해 비교하고 대조해본다.

관련 권리
- 종교와 믿음의 자유
- 의사표현과 정보의 자유
- 차별로 부터의 자유

다루는 이슈
- 종교적 다양성
- 종교에 대한 인식과 그것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 다양한 종교와 영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대한 그들의 계율에 관한 지식

학습 목표
- 다양한 믿음 체계와 종교에 대해 배운다.
- 비판적 사고를 키운다.
- 다양한 믿음과 종교에 대한 수용성을 양성한다.

준비물
- 문장 카드 묶음(소모둠당 한 묶음)
- 소모둠이 앉아 토론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 소모둠당 한 명의 촉진자

준비 작업
- 문장 카드를 오려둔다.
- “5장 종교와 믿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읽는다.

진행

1. 이 활동에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토론하게 됨을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고, 다른 사람은 덜 그렇거나 종교가 없다. 이 활동의 목적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개인적 관점을 공유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함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이르는 것이다.
2.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종교적 상징뿐만 아니라 종교적 믿음에 대한 모욕과 폄하로부터의 보호는 종교의 자유라는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보호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어야만 하며 신앙에 대한 비판으로 부터의 무조건적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편견과 차별의 동기가 없다면 솔직하고 개방적인 질문은 허용되어야 한다.
3. 참가자들을 4-6명 단위로 소모둠으로 나누고 자신들의 개인적 신앙에 대해 3-4분씩 이야기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교리와 의식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말하도록 한다.
4. 그런 후, 아이스브레이킹 방식으로 참가자들에게 종교 의식에 처음으로 참여했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5. 이제 모둠의 중간에 카드를 엎어놓는다. 참석자들에게는 한 시간이 주어지며, 가능한한 많은 카드를 다룰 수 있도록 토론을 간략히 해달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이 그 문제들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할 것이며, 이후에 특별히 관심 갖게 될 주제를 더 알아볼 수도 있다.
6. 매 라운드마다 한 참석자가 카드 하나를 들고, 크게 읽은 후 이 카드에 적힌 문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그런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종교나 경험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7. 다른 참가자가 다른 카드를 들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한다.
8. 모든 카드를 다 다루었거나 시간이 다 된 경우, 동일한 모둠으로 요약단계로 넘어간다.

디브리핑과 평가

- 함께 다루기 어려웠던 문장이 있었는가? 왜 어려웠는가?
- 여러분을 놀라게 했던 여러분 자신의 인생관에 대한 어떤 사실, 믿음이나 태도가 있었는가?
- 각자의 인생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
- 사람들의 인생관들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가? 이러한 차이는 조화시킬 수 있었는가?
- 다른 사람들의 인생관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당신은 이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가? 이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만 할까?
- 종교와 믿음의 자유가 인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당신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인생관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 다양한 인생관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상호 이해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보는가?
- 당신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왜 그런가? 혹은 왜 아닌가?
- 당신의 나라에서는 종교와 믿음의 자유에 대해 어떠한 유형의 침해가 있는가?
- 보다 넓은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다양한 신앙 공동체내의 독특한 관행이 사상의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예에는 종교지도자 위치에 대한 여성의 위치, 아동과 관련된 전통적인 의식, 세례, 이혼 또는 장례에 관한 법률, 창시자 묘사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소풍, 스포츠 행사, 주말 주택 등과 같은 구성원 전체 행사를 기획할 때 종교나 믿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 때로는 행사 진행에서 종교나 신앙에 따른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떻게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가? 타협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에 우선순위를 매기겠는가?
-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운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에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편안한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편한 환경이 도움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거나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이상을 말해야하거나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다는 것을 알거나 그렇게 느끼도록 확실히 한다.

참가자들의 헌신과 한계를 존중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이러저런 일들을 실행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특정 종교 내에서 자라고 교육되었다면 더 그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문화와 아주 비슷하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관과 문화적 패턴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기 념 일

11월 16일
국제 관용의 날

또래의 압력에 주의한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종교와 믿음에 대해 방어적 입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어떻게 당신은 그런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어…?"와 같이 누군가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너무 많은 세부사항에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 카드 더미를 잘 살피고 이 카드 대부분을 다룰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한다. 질문이 소진되거나 도를 넘을 위험이 있거나 "지배적" 태도가 표면에 드러날 경우에만 개입하고 토론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한다.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토론을 도울 준비를 하는데, 특히 모임에서 제시되지 않은 종교에 대한 것이나 '논쟁을 위해 고의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의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소모둠의 토론과 디브리핑을 이끌기 위한 각 모둠활동에 공동 촉진자와 함께 진행한다. 공동 촉진자가 없다면, 참가자 중에서 당신을 도울 자원자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모임에 따라, 모든 사람의 참여와 경험을 존중하고 디브리핑이 건설적으로 확실하게 되게 하기 위해 중요할 수 있다. 공동 촉진자에게 도움받을 수 없다면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요약활동을 하도록 한다.

당연히 믿음은 이성적 논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 논쟁으로 종교적 믿음을 다루려는 시도는 제한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믿는 바를 존중하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믿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권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며, 다양한 인생관을 비교해보는 것으로 누군가의 사상의 선택이 다른 이의 선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유념한다. 이 토론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 또한 이것은 모든 학교나 전통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종교적 광신주의와 불관용성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경직성과 다원성의 거부로부터 나온다. 어떠한 종교도 유일무이하지 않으며, 그래서 한 종교에서의 하나의 서술이 모든 다른 종교의 전통에 대한 서술이나 해석에 대해 권위나 대표성을 가지거나 홀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응용

활동을 여러 소모둠으로 진행한다면, 마무리는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소모둠을 정리하여 전체 모둠으로 들어가지 전에, 모둠별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보고할 준비를 하도록 요청한다:

- 당신 나라의 종교적 그리고 비종교적 전통에 대한 무지와 편견의 예를 들어보라.
- 무지와 편견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단일 종교 그룹과 함께 이 활동을 진행한다면, 추가 토론을 위한 풍부한 범위의 내용이 있다. http://www.religioustolerance.org 에서, 종교와 비신학적 종교, 윤리 체계에 대한 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한다. 모둠에게 이에 대해 얼마나 많이 들은 바가 있는 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다.

역사 시간표를 만들어 다양한 신앙 발달사를 탐구해볼 수 있다. 258쪽 "연대표" 활동의 "응용"을 참고한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교육하는 것은 변화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둠에서 교육이 무엇이고, 교육이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면, 183쪽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활동이 흥미로울 수 있다.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당신과 참가자들이 살거나 일하는 곳의 상황에 따라, 다른 종교/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청소년 단체와 만나 가능한 공동행동에 관해 논의하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 다음의 일을 논의해 볼 수 있다:

- 세계인권의 날 행사(12월 10일)
- 중요 종교 축제/축하 행사에 상호 초청
- 빈곤층을 위한 연합 활동

추가 정보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믿음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고 선언하고 있다.

이 활동의 목적을 위해, 가장 많은 종교 체계를 포함하기 위해 www.religioustolerance.org 에서 다루는 종교의 정의를 사용하고 한다: "종교는 종교 의식, 윤리 강령, 삶의 철학을 포함하는 신에 대한 특정한 믿음 체계이다." "종교"라는 용어는 공동 신앙에 관련된 개인적 실천과 집단 의식, 그리고 공유된 믿음에 기초한 의사소통 모두를 말한다. 종교에 대한 대안으로 무신론, 회의론, 자유사상, 인본주의 등이 있다.

이 활동에서, 우리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즉, 종교를 따를지 말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생관"이라는 용어는 종교나 종교에 대한 대안 모두를 포괄하는 공유 라벨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한 편을 지지하고자 하는 차별은 없다. 우리는 "인생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사고의 틀을 의미한다. 많은 인생관은 명백히 종교적인데, 예를 들어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이 있다. 어떤 인생관은 비종교적인데, 예를 들어 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아인 랜드의 객관주의, 인본주의 등이 있다. 불교나 유교와 같은 또 다른 인생관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종교로 분류되지만, 많은 추종자들은 이러한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데, 불교와 유교는 그들의 믿음체계에 신이 포함되지 않으며 하나의 철학이라고 주장한다. "인생관"이라는 개념은 이 모두를 아우른다.

전 세계를 아울러 실천되는 주요 신앙에 대한 기초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정보는 the United Religions Initiative(www.uri.org)와 the Ontario Consultants on Religious Tolerance(www.religioustolerance.org)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활동은 청소년분야에서의 유럽공동체(EC)와 유럽평의회간의 협력의 틀에서 출판된 Mosaic, the T-kit on Euro-Mediter ranean youth work에서의 "신자들" 활동을 발전시킨 것이다.

카드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인생관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장례와 매장에 대한 특별한 의식과 규범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생관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예를 들어 의식을 주관하는 경우에 구분된 기능과 역할이 있다.	우리는 정해진 일자에 특정 시간 동안 단식을 한다.
범죄와 차별이 자기 인생관이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졌거나 현재도 일어난다.	우리는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배웠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 특정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특정 옷이나 상징을 입는다.
우리 인생관은 결혼과 성생활에 대한 특정한 도덕적 규범과 명령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낙태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인생관은 신성한 책이나 문서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는다
우리 인생관은 다른 종교와 믿음에 대한 관용을 가르친다.	우리 인생관은 신의 메시지의 전달자로 인식되는 예언자들에 의해 심오하게 형성되어 왔다.
우리는 사후의 삶과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	우리나라에는 휴일로 기념되는 중요한 축제가 있다.
우리는 적어도 일 년에 한번은 죽은 사람을 기리고 묘지를 방문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달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시민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 우리의 새해는 1월 1일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인생관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와 수업을 구성한다.	우리는 삶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필수적인 영적 영역도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만의 창세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누구는 결혼해야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생관은 영적인 것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기능해야만 하는 지를 가르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이유로 차별/박해를 받았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일하지 않아야 하는 날이 주 1일이 있으나, 우리 신앙을 축복하는 특별한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우리는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이유로 다른 이들을 차별/박해했다.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영생의 탐구라고 믿는다.	사랑은 우리 인생관에서 필수적인 가르침이다.
우리 인생관은 윤리적 틀을 제공하고, 도덕적 가치들은 명확하게 제시된다.	영성적으로 우리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에 속하게 되는 경이로운 느낌은 우리 인생관에 따른 의식들을 통해 발견된다.

아동의 권리

이질적인 세상에서, 아동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통된 윤리관을 따르도록 해주는 통합의 힘이다.
그라사 마셀 만델라

주제
- 아동
- 기본 인권
- 교육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소모둠 3-4)

시간 60분

개요 이 활동은 아동권리협약(CRC)에 대한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이아몬드 순위표를 사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다룬다:
-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아동의 특별한 권리
- 협약에 따른 의무와 책무
-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관련 권리
- 아동 권리(전체)
- 협약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권리
-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휴식과 여가 및 자기 고유문화를 향유할 권리

학습 목표
- 아동권리협약(CRC)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일상 경험에 연관시키는 능력을 개발한다.
- 책임, 연대, 정의 및 평등 의식을 고취시킨다.

준비물
- 선언문 카드(소모둠당 한 묶음씩)
- 벽에 붙일 큰 용지와 마커
- 소모둠이 자유롭게 활동할 충분한 공간

준비 작업
- 466쪽 아동권리협약(CRC) 요약본을 참고한다. 벽에 큰 종이로 조항을 적어둔다.
- 아동권리협약을 참조하여 아래에 제시된 선언문 카드를 검토한다. 모둠의 가장 흥미로운 토론을 촉진할 조항을 선택한다. 구성원들과 가장 연관이 많고 논쟁적인 주제를 선택한다. 적절한 경우 다른 권리를 선택하여 직접 카드를 만든다.
- 소모둠 당 카드 한 벌씩을 복사하여, 섞이지 않도록 각각의 봉투에 담아둔다.

진행

1.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간략한 검토로 단원을 시작한다. 사람들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차트를 짚어가며 핵심 조항을 설명한다.
2. 3-4명씩 소모둠을 만들게 하고 선언문 카드가 담긴 봉투를 나눠 준다.
3. 다이아몬드 순위표 만들기에 대해 설명한다. 각 소모둠은 9개 선언문 카드에 대해 토론하고 어떤 조항이 그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선언문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 그 밑에는 옆으로 다음으로 중요한 두 개의 선언문 카드를 놓는다. 또 그 밑으로 그 다

음 중요한 세 개의 선언문 카드를 놓고 네 번째 줄에는 두 개의 카드, 다섯 번째 줄에는 가장 덜 중요해 보이는 한 개의 카드를 놓아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게 배치한다.

4. 중요도 순위를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참가자들에게 25분의 시간을 준다.
5. 모든 소모둠이 마치면, 각 모둠이 어떤 순위를 매겼는지 알 수 있도록 참가자 모두 한 바퀴 둘러보게 한다. 그 다음 디브리핑을 위해 모두 모인다.

디브리핑과 평가

각 모둠마다 돌아가며 토론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참가자들이 활동을 즐겁게 참여했는지, 배운 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 모둠 간에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다른가? 유사한 것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왜 사람들마다 우선순위가 다른가?
-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특정 권리가 다른 권리에 비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권리가 그 자체로 다른 권리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런가?
-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순위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바꾸기를 원하는 이가 있었나?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주장은 무엇이었나?
-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권리가 제일 존중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되야 한다고 여겨지는 다른 중요한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왜 아동들은 그들 자신만의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아동들에게 자신만의 협약이 있어야 한다면, 18세에서 30세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협약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협약에는 어떤 특정 권리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아동권리협약으로 아동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동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
- 아동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권리를 주장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면, 참가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지금 당장 가정과 학교, 동아리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권리가 모둠 내 청소년에게 특별히 관련있는가?
- 마을 공공장소 어딘가에 청소년들을 쫓아내기 위해 "모기음향"장치가 설치된 적이 있는가? 청소년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 아동이 자신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는가?

촉진자용 팁

제1장 "매뉴얼 사용법"에 다이아몬드형 순위 매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에게 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 옳고 그른 것은 없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적용하게 되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각 모둠은 순위에 대해 합의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 결국 현실에서 이슈는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모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게 되어 있다.

참가자에 대한 지침과 평가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삶에서의 권리에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권리 자체의 중요도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인권은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교육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옳지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언론은 있지만 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응용

순위를 매길 9개 조항을 다 나눠 주는 대신에 8개의 카드만을 주고 한 개 카드는 직접 채워보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모자 안에 선언문 카드를 넣고 한 사람씩 순서대로 꺼내어 그 카드의 내용에 대해 1분 동안 말하게 한다. 74쪽 "1분 토크" 활동에서 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 모둠에게 자신들이 선택한 조항에 대해 짧은 이야기를 만들거나 역할극을 해보도록 요청한다. 언론이나, 영화, 연극에서 접한 사건 또는 책이나 잡지에서 읽은 것을 토대로 한 이야기나 역할극을 꾸며도 좋다. 역할극 도입부에서 사건으로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 특정 사건의 예방이나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판사, 변호사, 검사, 아동보호단체의 대표, 아동심리학자, 인권보호관(옴부즈맨), 단체 활동가 등 아동권리협약(CRC)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 강의 전에 아동인권 침해 사례들, 예를 들어 아동학대, 성착취, 방치 및 집단 괴롭힘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지역 사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나 경찰, 상담센터, 사회복지사 중에서 연사를 찾아본다. 아이를 학대하는 이웃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목격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얻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는 배려, 관심 및 주의 등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모둠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이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들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 지를 보다 더 자세히 돌아보도록 한다. 또한 침해된 권리를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제토론방에서 토론을 해볼 수 있다. 제안된 주제의 예로는: 아동노동 퇴치를 위해 제재하기, 자식들은 생물학적 부모를 알 권리가 있는가? 학교에서의 콘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폰 사용,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 음주 연령을 낮추는 것 등이다. 이것을 포함하여 여러 이슈에 대한 논쟁을 http://debatepedia.idebate.org/en/index.php/ Category:Youth에서 볼 수 있다.

청소년관련 유럽평의회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검색엔진에서 "Building a Europe for and with Children (아동을 위한 아동과 함께하는 유럽 구축)"을 찾아본다. 활동을 통해 청소년 참여에 관련된 여러 이슈를 다루어보려 한다면, 196쪽 '사다리에서' 활동을 해본다.

아동과 청소년은 종종 차별을 느끼곤 한다. 차별에 대한 이유를 모둠에서 다루고자 한다면, 165쪽 '모두 평등하고 모두 다르다'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아동권리협약에 관하여 학교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의 운영정책과 커리큘럼 등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학생의 인성과 재능,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지식을 주입하고 시험을 잘 보는 것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타낼 권리를 가지는가? 학생들의 의견이 정당하게 반영되는가? 바꿔 말하면 학생위원회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학교의 규율이 학생의 존엄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학교가 인종차별 사건과 집단괴롭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문제를 개선할 여지는 어디에 있으며 문제를 다루기위해 어떤 수단을 택할 수 있고 택해야만 하는지 토론한다. "행동하기"에서 사례를 찾아보고 프로젝트를 기획해 본다. 앞뒤 생각 없이 달려들거나 불필요하게 교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사들을 분노시켜서 당신(촉진자)에게서 권력을 다시 빼앗아갈 수 있다면 말이다!

기 념 일

11월 20일
세계 아동의 날

청소년 동아리이나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회원들에게 조직 내 운영 정책과 참여 기회 등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http://debatepedia.idebate.org(category: youth)에서 토론참여하기.

추가 정보

협약의 전문과 세계 아동에 관한 연례 유니세프 문서, 그리고 아동권리와 관련된 다른 책이나 자료를 구하고 싶다면, www.coe.int/compass 5장 배경 정보 중 아동에 관련한 장을 참고한다.

유럽평의회 의회는 '청소년 퇴치(모기음향)' 장치의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0년 6월에 열린 회의에서 의회는 청소년을 차별하는 모든 음향 기기의 사용 금지를 요청하였는데, 청소년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세 이하의 거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25세를 넘으면 거의 듣지 못하는 강력한 음향 신호를 발생하는 모기음향 "청소년 퇴치" 장치가 해당된다. 유럽평의회 모든 회원국의 의원들이 함께 모이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권고안에서, "매우 불쾌한" 장치로 청소년을 "해충이나 유해 조류"인 것처럼 대하면서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생활의 권리나 집회의 자유 같은 권리 침해일 수 있고 "음향적인 고통"을 일으키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되기도 한다.

"16세가 폐수 배출 산업에서 나온 오염된 물을 마실만한 나이라면, 정부가 만든 쓰레기 소각장의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나이라면, 끔직한 마약과 범죄 정책으로 위험해진 거리를 다닐 만한 나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한 삶을 살아도 될 만한 나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공중 보건을 가진 나라에서 병에 걸릴 수 있는 나이라면, 그리고 충분한 재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에 다녀도 된다면, 그렇다면 16세라는 나이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역할하기에 충분한 나이이다."

레베카 틸센, 14세, 1991년 미국 미네소타 하원 소위원회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은 의견을 내었다.

유인물

선언문 카드

다음 표를 복사하고 재단하여 선언문 카드를 만든다.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의견은 합당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아동이 가진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은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자신의 명예나 평판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두에게 의무적이고 이용 가능한 무상의 초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의 규율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및 능력의 발달을 지향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평화와 우정, 이해, 관용 및 평등의 정신 안에 자유로운 사회의 책임 있는 삶의 개발을 지향하며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을 고취해야 한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며 자유롭게 문화생활과 예술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경제적 착취, 아동의 삶과 발달에 해로운 노동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모든 종류의 성적 착취와 학대, 매춘이나 포르노 공연 및 불법적 성적 착취 자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무력 분쟁에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범죄행위를 이유로 기소된 모든 아동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대상이며 법정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연령에 맞는 환경과 대우를 제공받으며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8세 이하 범죄자에게 벌금형과 석방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언도할 수 없다.

빈곤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이주

2단계

제한없음

90분

안경을 바꿔라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방식으로 본다는 것을 안다.

라우렐 리[1]

주제
- 빈곤
-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 이주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

시간 90분

개요 이 활동은 아주 간단한 외부 활동으로,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탐구한다.

관련 권리 모든 인권

학습 목표
-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 높이기
- 관찰력과 상상력 개발하기
- 정의를 위한 활동에 대한 연대와 동기 부여

준비물
- 안경들, 중고가게나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오래된 안경, 안경테만 있어도 됨.
- 큰 용지와 펜
- 콜라주를 위한 오래된 잡지, 우편 엽서나 물건들, 풀
- 사진을 걸어놓을 테이블
- 사진을 찍을 디지털 카메라 혹은 휴대폰 ; 이상적으로 1명당 1대씩 준비해야 하나, 모둠당 하나 이상
- 컴퓨터와 프린터

진행

1. 모둠이 함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나 사회 내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브레인스토밍해본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노숙자가 있다.
2. 참가자 각자에게 그들 중 관심이 가는 한 대상을 선택해서 밖으로 나가 그 사람의 눈으로 주변 지역을 탐구하도록 한다.
3. 해당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닌, 밖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예를 들어 그는 지역 내 모든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을까? 살 여유가 있다면 어디에서 빵을 살 수 있을까?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4. 안경이 준비되어 있다면 나누어준다! 참가자들에게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기록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을 사용하여 사진을 찍도록 한다. 모두가 돌아올 시간을 합의한다.
5. 돌아오면, 각 참가자들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 2-4장을 선택하여 출력한다. 이것들을 큰 용지에 배치하고 벽에 붙인다. 그림들에 제목을 붙이지는 않는다.
6. 모든 사진들이 배치되고 나면, 모두에게 사진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추측해보도록 한다. 그 후 각 참가자들은 차례로 자신의 사진을 제시하고 그들이 "보기로" 선택한 특정 집단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설명한다.

[1]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방식으로 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 라우렐 리는 29세에 암진단을 받았었다. 의사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세 자녀를 키우고 여행과 글쓰기를 하면서 20년을 더 살았다. 그녀의 경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받아드리지 않은 것은 영감이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기 념 일

10월 두번째 화요일
세계 시각의 날

디브리핑과 평가

전시회를 보고나서 참가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과 본 것을 차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무슨 일이 있었는가? 활동은 즐거웠는가? 그렇다면/아니라면 왜?
- 당신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건 무엇인가?
- 당신이 그 예를 왜 선택했나?
- 당신이 선택한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점이 당신이 "보고자 선택한" 것과 활동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 이 활동은 당신이 취약계층에 대해 어쨌든 공감하도록 했는가? 그렇다면/아니라면 왜?
- 당신 자신에 대해 배운 것은 뭔가?

이제 좀 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방식으로 본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믿음이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가?
- 집단 전체에 대한 일반화에 따라 누군가에 대해 가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 한두 사례를 근거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일반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 참가자들이 다룬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다른 예에서 특별히 어떤 인권이 보호되는가?
- 이러한 사람들의 권리는 어떻게 가장 자주 침해되는가?
- 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은 전체 프로그램의 시작 활동이나 주 활동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연습모임에서 이 활동은 사람들에게 잠시 흐름을 쉬고 분위기 전환에 사용될 수 있는데, 또는 참가자들의 자유시간의 활동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진행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소모둠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모둠의 크기와 카메라의 유용성은 활동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실질적 사항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소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둠의 크기에 따라, 각자가 전시하려는 사진의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한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예로는 어린 자녀를 둔 싱글맘, 연금수급자, 이주민, 휠체어 사용자, HIV/AIDS 환자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예로는 노숙자, 미등록 이주민, 문맹, 정신장애인이나 롬인(북부 인도 유래 민족으로 유럽 전역에 살고 있으며 오랫동안 박해와 차별을 받아왔다) 등이 있다. 예를 든 이들에게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불이익 집단이나 취약계층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시달리며 종종 어떤 식으로든 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유로 적절한 주택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자신의 시각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상상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참가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고정관념과 공감의 감정을 활동으로 가져오는 것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참가자들이 인식해야만 한다. 또한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한 집단에 대한 이해에 유용한 일반화라는 점을 아는 것과 더불어, 집단 내에서도 폭넓은 차이가 있으며 일반화가 개별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고정관념은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고정관념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정보는 배경 정보의 www.coe.int/compass 5장 '차별과 불관용' 주제를 참고한다.

응용

진행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수에 따라 소모둠이나 전체 단위로 진행할 수 있다.

각각의 포스터를 만드는 대신, 사진 모두를 함께 모아 “취약한 삶”과 같은 제목을 붙인 전시회나 슬라이드쇼를 구성할 수 있다.

사진을 찍는 대신, 참가자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에 대한 상상의 이야기를 구성해보거나 마임을 구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다른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길 원한다면, 새 안경과 함께 새 신분을 제공하도록 한다. 다른 언어가 다른 사람으로 상상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설명대로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상하고, 나아가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노력하는 활동이다. 대안으로는 밖으로 나가 관찰한 후 상상력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그려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바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제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동네로 가서 5분 내에 따라갈 사람을 선택하도록 요청하다. 이 때 신중하게 행동해야하고 목표로 하는 사람을 당황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누구나 “흥미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마도 우리 자신과 매우 다른 사람을 선호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특정인의 첫인상과 선택 이유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이제 목표를 따라가면서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상상하고 그들의 삶을 그려본다. 예를 들어:

- 이름은 뭘까?
- 나이는?
-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어디로 가는가?
- 어디서 살고 있을까?
- 동거인이나 가족이 있을까? 아니면 혼자 살까?
- 취직은 했나? 직업은 무얼까? 아니면 미취업인가?
- 어떤 일이 그를 행복하게 할까?
- 취미가 있을까? 뭘까?
- 무엇을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나?

예를 들어 30분 후에는 모두 자기 경험을 나누기 위해 돌아오는 것에 동의하도록 한다. 자신이 쫓아간 사람들의 삶을 말이나 그림으로 설명한다.

“한걸음 앞으로” 활동에 적혀있는 역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본 활동의 훌륭한 소개나 적절한 후속 활동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333쪽 ‘한 걸음 앞으로’에서 기회 불평등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느낄 수 있다.

138쪽 ‘두 도시 이야기’ 활동에서는 사회복지 재정 확보에 대한 선택이 지역사회의 삶에 미치는 방식을 탐구할 수 있다.

사회취약계층이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장애가 있거나 이주민이라면 이러한 것이 어려울 수 있다. 293쪽 ‘일하고 싶다!’ 활동에서 이 같은 문제 몇 가지를 탐구해 볼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가족, 친구 또는 동료들과 함께 활동을 해보고 인권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사람을 만나보는 과정을 통해 당신 자신의 추정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리빙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통해서나, 노숙자이나 난민에 관심이 있다면, 쉼터나 이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볼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 취약계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나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정보

이 활동의 맥락에서 우리는 “불이익을 받는”이라는 용어는 스스로 부양하기 힘들어서 자급자족이 힘들어 재정적으로 의존을 해야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다. 미혼모, 이주민, 장애인이 예가 될 수 있다. 주류 사회가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하기에, 사람들은 종종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사람과 집단은 사회 주류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건강, 교육, 정보, 고용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까지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불이익을 받는 이들은 자율성, 동기, 책임감과 자존감이 약해질 수 있다. 자급자족에 대한 어려움은 자원의 접근성의 문제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용과 재원의 부족 또는 신체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의 접근성 부족이다. 접근불가능은 또 다른 장벽이다: 비용, 형편없는 설계, 거리, 홍보 부족과 집단을 위한 사회적 관심 부족 등이다. 어떤 자원은 특정 집단이 싫어하거나 혐오하기 때문에 또는 내재 가치에 반하기에 접근할 수 없을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또한 ‘취약지역’에서 살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취약지역’을 우리는 물리적 위치보다는 개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 취약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사회 참여에서 배제된다. 취약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예로는 전과자, 노숙자, 정신장애인이나 롬인 같은 특정 집단들이다. 예를 들어, 노숙자은 우편주소가 없기에 투표 등록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그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투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통치되는지 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발언권이 없어 사회 밖에 남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문맹인들인데, 이들은 지원요청 양식이나 취업지원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

리빙라이브러리는 2000년 덴마크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로, 유럽평의회는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말라!(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라는 책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리빙라이브러리는 정확히 일반적 도서관과 비슷한데, 독자가 와서 정해진 기간 동안 “책”을 빌린다. 책을 읽은 후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고 원하면 다른 책을 빌릴 수 있다. 단 하나의 다른 점은 리빙라이브러리의 책은 사람이며, 독자는 개인적 대화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리빙라이브러리에 있는 책은 종종 편견과 고정관념을 직면하고 있는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며, 종종 차별이나 사회적 배제의 희생자 들이다.

불이익을 설명하는 체계와 사회적 조치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하면, 다음의 책을 권한다: 스티븐 이 메이어(Steven E. Mayer, Ph.D), ‘취약집단’이란 무엇인가? (What is a “Disadvantaged Group?”) www.effectivecommunities.com/articles

주:

이 활동은 2009년 5월 프랑스 디난의 다문화협회의 라이더 스포크의 폭발이론의 실험과정으로 개발된, ‘인권교육 관점에서, 비공식적 시간과 순간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훈련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만들고 시험한 활동이다. http://www.blasttheory.co.uk

아동

노동

세계화

2단계

5명 이상

90분

애시크 이야기

아동 노동은 가족과 지역을 위해 필요한 수입을 만들고 있다. 이를 빼앗으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아동이 아닐까? 동의하지 않는가?

주제
- 아동
- 노동
- 세계화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5명 이상

시간 90분

개요 토론 활동으로, 시작점은 아동 노동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참가자들은 아동 노동의 여러 가지 면을 돌아보고, 원인과 아동 노동을 없앨 방안을 알아본다.

관련 권리
-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 교육받을 권리
- 휴식과 여가의 권리

학습 목표
- 아동노동에 관한 이해를 넓힌다. 특히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관련하여 알아본다.
- 복합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하는 역량을 개발한다.
-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있어 정의감과 책임감을 키운다.

준비물
- 애시크의 삶에 대한 유인물(참가자당 1부)
- 펜이나 마커(소모둠당 1개)
- A3용지 혹은 플립차트

준비 작업
- “해결 아이디어” 기록을 위해 A3크기의 용지를 복사하여 소모둠 당 시트를 구성하고 복사하여 소모둠당 하나씩 배포한다. 전체를 위해 하나 더 준비한다.
- 아동 노동에 대해 학습한다. 아동 노동의 정의 및 아동노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행해지는지를 알아본다.
- 자속가능한개발목표(SDGs)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높인다.

진행

1. 참가자들에게 아동 노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2. 이 활동은 파키스탄 벽돌공장의 아동노동자인 애시크의 연구 사례에 기초하며 활동의 목표는 애시크의 상황 변화를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임을 설명한다.
3. 워밍업으로 ‘구성된 스토리텔링’을 다루는 라운드를 한다. 애시크의 하루 생활을 상상하여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차례로 돌아가면서 각자 한 문장씩 더하도록 한다.
4. 참가자들을 최대 5명 이하의 소모둠으로 나눈다. 모두에게 애시크 사례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이것을 읽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10분 가진다.
5. 각 모둠에 ‘해결 아이디어’ 사본을 제공한다. 애시크를 포함한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브레인스토밍으로 찾아보게 한다. 각 문제를 해결가능하도록 하는 과정들을 해당 칸(‘내일까지’, ‘다음 달까지’, ‘2030년까지’)에 적도록 한다. 이 과제를 완성하고 보고할 대표자를 지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30분을 준다.
6. 전체 모임에서, 차례로 각 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이것을 큰 용지에 정리한다.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을 허용하되, 시간 제약에 유의한다!
7. 표가 완성되면, 충분한 토론과 디브리핑 단계로 진행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토론의 깊이는 참가자들의 일반적 지식에 달려있지만, 가능한 해결책과 아동노동에 대한 그들의 견해 두 가지 모두를 포함시키는 질문에 노력해야 한다.

- 이 활동에 참여하기 전 사람들이 아동노동의 존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어디로부터 정보를 얻었는가?
- 자신이 사는 나라/지역에는 아동노동이 있는가? 아동들이 어떤 일을 하며 왜 하고 있는가?
- 아동들이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 “아동 노동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필요한 소득을 만들어낸다. 그것을 뺏으면 아동들이 가장 고통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 말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 소비자로서 우리는 아동 노동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가?
- 아동 노동의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단계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내일까지”, “다음 달까지”, ”2030년까지“라는 세 칸 중 채우기 가장 어려웠던 칸은? 그 이유는?
- 아동 노동에 관한 국가적 및 국제적 선언과 회의가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세계에는 이런 광범위한 문제가 왜 여전히 존재하는가?
-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은 착취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 누가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가? 다른 색 펜을 사용하여 플립차트에 제안을 적는다.
-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SDGs(지속가능한개발목표) 특히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와 보편적 기초 교육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언제, 어떻게?

촉진자용 팁

참가자들이 아동 노동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다면, 아동 노동과 그 결과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제공하면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재미있는 방법으로 아래 “추가 자료”에 있는 차트나 사실 박스에서의 통계를 가져와 짧은 퀴즈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의 목표시점이 2020년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는 2015년 종결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남겨놓은 지점에서 이어간다는 점을 설명한다. 17개의 SDGs 목표는 인간개발 이슈가 복잡하고 상호 교차한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애시크의 상황과 관련된 3가지는:

- 목표 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결시킨다.
- 목표 3. –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촉진시킨다.
- 목표 8. – 일관된, 포괄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시킨다.

SDGs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245쪽 “얼마나 필요한가?” 활동과 www.undp.org를 참고한다.

모둠들은 처음의 두 칸(내일까지, 다음 달까지)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 다음 문장을 읽어줌으로써 격려해줄 수 있다.

“해당 과제는 크지만, 다루기 힘들거나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 재정적 영향은 하나의 조절장치와 같다. 왜냐하면 그 돈은 결국 더 나은 인도를 구축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 아동노동이라는 문제의 원

KEY DATE

6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날

인은 실제로 노동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 때문이다. 이것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머리를 모아 함께 노력해서 아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아동을 도와야 한다."
M.C.메타 대 타밀 나두 주, 1996년 인도 대법원 판례

보통 참가자들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원인을 분석하면 해결책이 더 분명해진다.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둠에 이를 알려준다. 다음중 한두 가지를 제시하여 해결 방법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아동 노동의 필요를 줄이기 위해 빈곤 상태를 줄인다.
- 아동 노동의 필요가 줄어들도록 성인의 임금을 올린다.
- 아동에게 보다 적절하고 매력적인 교육을 개발한다.
- 아동 고용에 대한 국제기준을 만든다.
-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물건을 금지한다.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자격 요건으로서 최소의 국제 노동 기준을 만든다.

아동 노동에 대한(지역 혹은 국제적) 최신 뉴스를 활용하여 단원을 더 시사적이고 흥미 있게 만드는 것도 좋다.

응용

활동에 앞서 아동 노동 개념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식을 높이고 싶다면, 퀴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unicef.org , thinkquest.org

'구성된 스토리텔링'(진행 3단계)으로 워밍업을 하는 대신, 참가자들을 5명 이내의 소모둠으로 나눈다. 각 모둠에게 A3 종이를 5장씩 나누어 주고 애시크의 삶에서의 전형적인 일상에서 일어나는 5가지 사건을 그려보고 이것을 하나의 컷만화로 구성하도록 한다. 모둠들이 마치면, 각 스토리를 발표시킨다.

만화를 잘 그리는 촉진자는 애시크 이야기를 삶의 각 장면을 한 칸씩 채운 하나의 연결 만화처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기본적 정보를 포함하는 단순한 그림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것을 복사하여 모둠당 1부씩, 칸 단위로 잘라 제공한다. 모둠별로 한 묶음씩 제공하고 짧은 문장이나 말풍선을 더해 애시크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모둠이 마치면, 그 이야기를 발표하도록 한다.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12살 캐나다 소년이 12살 또래 파키스탄 공장 노동자의 살해 신문기사를 읽고, 친구들과 함께 아동노동에 반대하는 '아이들이 아동을 해방시킬 수 있다(Kids can free the Children)'라는 단체를 설립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참가자들이 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운동가가 되도록 격려한다. http://en.wikipedia.org/wiki/Free_the_Children

페루 아동노동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전국페루청년노동자운동조직(the National Movement of Peruvian Young Workers' Organisations)을 조직했는지 찾아본다: http://mnnatsop-natsperu.blogspot.com/ 333쪽 '한 걸음 앞으로'라는 활동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다.

SDGs에 관해 더 알아보고 애시크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돈과 전 세계 군사비로 소비되는 돈을 비교하길 원하면, 245쪽 '얼마나 필요한가' 활동을 살펴본다.

자신과 가까운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애시크와 같은 아동을 착취하는 고용주와 용돈이나 학비를 위해 저녁이나 토요일에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터무니없는 낮은 임금을 주는 고용주와의 구분선은 어디에 있는지 모둠에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자식들을 집안일이나 가족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부모는 어떤가?

참가자 자신의 경험은 무엇인가? 참가자들이 더 알아보고 싶어하면 교육 패키지 [모두 다르고 – 모두 같다](All Different–All Equal Education Pack)에 있는 '나의 어린 시절' 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실천 아이디어

몇몇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http://www.cleanclothes.org 에서 원산지 국가를 고려하여 사고자하는 옷이나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 2013년 ILO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자의 수는 2000년의 2억 4,600만 명에서 1억 6,800만 명으로 3분의 1정도 줄었다. 그들 중 반이 넘는 8,500만 명(2000년에는 1억 7,100만 명이었다)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추가 정보

아동 노동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에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행은 많은 국제기구에서 착취로 간주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는 불법이다. 아동 노동은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용돈이나 학비 보조금 충당을 위해 하는 임시직이나 알바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용돈을 버는 이들이 착취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www.coe.int/compass 5장의 아동과 노동에 관한 배경 정보를 다루는 섹션에서 아동 노동, 아동 노동 주제를 다루는 절에서 아동 노동, 아동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 아동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 아동 노동에 관한 국제 법, 아동에 있어 아동 노동의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개발국 아동 5명중 1명은 아동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다음 도표에서 아동 노동에 종사하는 5–17세 아동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고용, 아동 노동 및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아동, 5–17세 그룹, 2012 년

지역(a)	아동 고용		아동 노동		위험 노동	
	(천명)	%	(천명)	%	(천명)	%
아시아 · 태평양	129,358	15.5	78	9.3	33,860	4.1
중남미	17,843	12.5	12,505	8.8	9,638	6.8
사하라남부아프리카	83,570	30.3	59,031	21.4	28,767	10.4
중동아시아 · 북아프리카	13,307	12.1	9,244	8.4	5	4.7
전세계 총합 2012	264,427	16.7	167,956	10.6	85,344	5.4

자료원: 국제노동기구(ILO) 2000–2012 아동 노동 금지의 진척 상황 추정치와 동향에 대한 표1과 표2
주: (a) 세계 총계에는 위의 4개 지역외 국가들도 포함되므로 위 통계치보다 세계 총계 가 더 많다.

환경정의재단의 보고서 "우리 목화 뒤의 아동들"은 약 1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일부는 다섯 살 밖에 안 되었다– 극한의 더위와 추위 속에서 하루 12시간의 노동을 견뎌야 하는 충격적인 작업환경을 상세히 알린다. 많은 아동들이 신체적, 언어적 그리고 때로는 성적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 http://www.ejfoundation.org/page481.html

유인물

유인물 1: 애시크의 삶에 대한 사실들

개인 정보

이름: 애시크 하시미르

나이: 11세

국적: 파키스탄

가족: 부모, 조부모 2, 누이 1, 형제 3

가족 수입 : 월 약 10만 원

"직업" 정보

"직업": 벽돌 공장 노동자

노동 시간: 하루 12-16시간(30분 휴식) - 주 6일 근무

생산량: 일 약 600장

임금: 벽돌 1,000장당 2천 원 정도 그러나, 이 중 50%는 가족의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

5세 때부터 일함.

기타 정보

애시크 가족은 약 6000 파키스탄 루피(약 16만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2년 간 가족이 채권 담보로 되어 있다. 지금은 대출이자로 인해 약 4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애시크는 아버지가 3개월 동안 학교에 보냈는데, 공장주가 자퇴시키고 다시 일을 시켰다. 아버지는 이 때문에 처벌받았다.

가족 수입이 너무 적어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적절한 음식과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자료원: http://www.freethechildren.org

유인물 2: 해결 방안들

애시크의 상황(그리고 다른 아동노동)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일까지?	다음 달까지?	2030년 까지

언어 장벽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나요? 당신의 망명 신청은 받아들여질까?

주제
- 이주
- 전쟁과 테러
- 차별과 불관용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

시간 60분

개요 이 활동은 난민들이 망명을 신청할 때 겪는 어려움에 관한 모의실험이다. 겪는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다:
- 난민들이 겪는 좌절과 정서적 요소
- 언어 장벽 극복
- 망명 신청 절차에서의 차별

관련 권리
- 망명지를 찾고 향유할 권리
- 출신 민족이나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권리

학습 목표
- 국경 경찰 및 출입국 당국의 차별 인식 제고
- 문화간 소통 능력 증진
- 난민과 망명 희망자와의 공감대 키우기

준비물
- "망명 신청서" 유인물 사본(참가자당 1장)
- 펜(1명당 1개)

준비 작업 책상 뒤에 앉아 형식적인 관료적 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한다.

진행

1.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누구에게도 인사하거나 그들의 존재감 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2. 예정된 시작 시간보다 몇 분 동안 기다리고 나서 참가자 각각에게 "망명신청서"와 펜을 나누어 준다.
3.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5분의 시간을 주되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질문과 항의 모두 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소통해야 한다면, 다른 언어(또는 만든 언어)와 몸동작을 사용한다. 모든 소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난민의 문제는 당신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한다. 당신의 업무는 단지 그 신청서를 나누어주고 다시 모으는 일이다!
4. 늦게 오는 사람에게 무뚝뚝하게 인사한다. 예를 들어, "지각입니다. 이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작성하세요. 몇 분 안 남았습니다."
5. 5분이 지나면, 웃거나 어떤 개인적 접촉 없이 신청서를 수거한다.
6.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의 이름을 불러 앞으로 나오도록 한다. 신청서를 작성된 내용에 대해 지적한다. 예를 들어, "8번 문항에 답변이 없군요." 나 "6번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변했군요. 이 경우 신청은 기각됩니다."라고 말한다. 해당 사람에게는 돌아가라고 말한다. 어떤 논쟁도 가지지 않고

다음 사람으로 바로 넘어간다.

7. 이 과정을 몇 번 진행한다. 모두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참가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계속한다.
8. 이제 역할극을 마치고, 모든 참가자를 모아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이 활동 중에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배운 것이 무엇이며, 인권과의 관련성이 무엇인지로 이어간다.

- 이해하기 어려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참가자들의 느낌이 어땠는가?
- 망명신청자들이 겪는 경험과 비추어 얼마나 현실적인가?
- 당신 나라에서는 망명신청자가 신청 과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왜? 아니라면 왜?
- 신청이 거절된 망명신청자는 어떻게 되는가?
- 참가자가 마주하고 있는 공무원, 경찰관이나 검표원과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어떤 느낌이었나?
- 이 활동은 어떤 인권이 위협받았는가?
- 망명신청자들이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 보호를 주장할 가능성은?
- 당신 나라에는 망명신청자가 얼마나 되나? 당신 나라는 난민을 공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가?
- 당신 나라에서 무시되고 있는 망명신청자의 권리는 무엇이 있는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은 꽤 촉진하기 쉬운 활동이다. 당신에게 주되게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역할이며 당신은 진지하고, 냉정하고 관료적이어야 한다. 망명신청자의 어려운 처지는 당신 관심사가 아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 요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로의 난민 유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입국 관리들은 난민들을 걸러내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한 이들만 입국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난민들이 종종 해당국 언어를 잘 못하고 양식을 작성하기 매우 어려워한다. 또한 이들은 힘들고 감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신청이 자주 기각되며 기각 사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망명 신청서"는 크레올 언어로 되어 있다. 크레올은 공동의 언어가 없는 두 민족 간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언어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혼성어이다. 예를 들어, 자메이카 크레올은 주로 서아프리카 문법에 사투리 발음이 겹쳐지는 영어 단어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크레올 언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파푸아 뉴기니, 세이셸과 같은 태평양및 인도양 섬에 여러 가지 크레올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 크레올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를 알고 있는 유럽인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크레올 언어를 말할수 있는 참가자가 있다면, 그에게 국경수비대나 출입국 관리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난민 입국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주장들을 보고 싶다면, 147쪽 '들어가도 될까요?' 활동을 참고한다.

유럽으로 오는 많은 망명신청자들은 모국에서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 제공에서 전 세계의 불평등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168쪽 '모두를 위한 교육' 활동을 사용할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당신 나라에서 망명신청자가 들어올 때, 어떤 절차가 있고 실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지를 더 자세히 알아본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첫 번째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가? 아주 초기단계부터 통역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공식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찾아보고, 출입국 관리를 초대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망명 신청자들을 면담하여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보는지, 특히 초기 서류 작성 절차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듣는다. 이러한 정보는 난민 인식개선 캠페인에 사용될 수 있고, 출입국사무소나 유엔난민기구나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와 같은 단체에 전달될 수 있다.

망명을 신청하는 아동, 특히 부모나 가까운 친척 어른을 동반하지 않는 아동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비동반 아동에 대해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 당국이 요구하는 문서의 번역에 도움을 주거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하였다.

추가 정보

난민

"난민"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 안전처를 찾는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1951년 제네바협약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정확하고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망명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난민이 되고자 하는 이를 말한다. 이러한 용어의 공식적인 정의는 용어편에 있으며, "들어가도 될까요?" 활동의 추가 정보 섹션에서 더 자세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정보들은 유럽평의회 난민 및 망명자 위원회(ECRE)로부터 제공된다, www.ecre.org.

난민들이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망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심지어 강력한 국제적 보호 요청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공정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 국경수비대와 출입국 당국은 망명신청자들을 받아들일 의무에 대해 이해해야 하고, 법적인 지원과 통역 서비스를 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2005년 12월 1일자로 EU 망명 절차 지침이 적용되었는데, 여기에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회원국의 절차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입국절차를 포함한 절차에 대한 접근권, 구금, 신청서 심사, 개인 인터뷰, 법률 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ECRE의 견해에 따르면, 해당 지침이 "망명 신청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기준으로서 모자라고 … 지침 자체의 원칙과 보장을 훼손하는 출입국 절차에서의 제제 등을 포함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2009년 유럽 망명 시스템을 보다 더 조화롭게 하기 위한 지침 개정이 있었다.

아동 망명 신청자

유럽인권위원회는 2010년 4월 20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비동반 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핵심은 이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이들을 자동적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이익을 대변할 보호자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신매매범의 악용에 대한 그리고 현지 당국의 과실 가능성으로부터 최선의 보호방안이다." http://commissioner.cws.coe.int

기 념 일

2월 21일
국제 모국어의 날

영국 적십자사에서 제작한 툴킷에서 난민에 대한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다.

www.redcross.org.uk에서 Positive Images를 검색하라.

이 활동은 The Uprooted (Donahue, D. and Flowers, N.저, Hunter House Publishers, 1995.)에서 차용하였다

Handouts
망명신청서

망명신청서	
1. Appellido	
2. Primer nombre	
3. Fecha de nacimiento	
4. Pais, ciudad de residencia	
5. Ou genyen fanmi ne etazini?	
6. Kisa yo ye pou wou	
7. Ki papye imagrasyon fanmi ou yo genyen isit?	
8. Eske ou ansent?	
9. Eske ou gen avoka?	
10. Ou jam al nahoken jyman	

얼마나 필요한가?

사람은 같은 경로를 밟지 않고도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아마두 함파테 바

주제
- 전쟁과 테러
- 건강
- 교육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소모둠 5–6)

시간 60분

개요 이 활동은 토론과 의사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소모둠으로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은 4가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군사 예산을 어떻게 재할당할지를 결정한다.

관련 권리
-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에 대한 권리
- 발전권
-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건강권과 교육권

학습 목표
-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킨다
- 전 세계적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의 연대와 의지를 구축한다.

준비물
- 다음 단위의 나침반 '화폐'(소모둠당 한 묶음, 돈 서식 356쪽).
  - 100 Ems 8장
  - 50 Ems 15장
  - 10 Ems 20장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 3, 4, 6이 도해로 그려진 카드(소모둠당 한 묶음)
- 봉투(소모둠당 한 개)
- 플립차트와 두 가지 색의 펜
-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포스터

준비 작업
-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포스터를 만든다: 250쪽 SDGs의 차트를 확대 복사한다.
- SDGs 2, 3, 4, 6의 로고를 복사하여 10cm X 10cm의 카드를 만든다.
- 배포하기 위해 봉투에 돈과 카드를 한 묶음씩 넣어둔다.

진행

1. 이 활동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활동이다.
2. 참가자들에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얼마나 많은 주제를 말할 수 있는가?

전쟁과 테러

건강

교육

3단계

제한없음
(소모둠: 5–6)

60분

3. 포스터를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SDGs와 이에 대한 UN의 약속을 간략히 설명한다.
4. 참가자들을 5-6개 모둠으로 나누고 상황을 설정한다: 경제학자들은 SDGs의 재원 조달 방안을 열심히 찾아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 수많은 UN 실무그룹중 하나인 "당신"은 목표 2(기아 퇴치), 목표 3(양질의 건강), 목표 4(양질의 교육), 목표 6(깨끗한 물과 위생)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추가 재정(자금 부족)으로 1조 7500억 달러가 충분한지 추정해보도록 한다. 1조 7500억 달러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도록, 참가자들에게 2014년 전세계 GDP 합계는 77조 달러이며, 미국 GDP는 17조 5000억 달러, 독일은 3조 8500억 달러, 소말리아는 57억 달러라는 수치를 제시해준다.
5. SDGs 카드와 돈을 담은 봉투를 나눠준다. 1EM은 10억 달러에 해당한다.
6. 모둠에게 4가지 SDGs를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급할지를 생각하도록 요청한다. 목표 카드 각각에 돈을 배치하도록 한다. 다른 13가지 SDGs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할 수 있기에 배정된 돈을 모두 다 쓸 필요는 없다.
7. 각 모둠에 SDG 각각에 얼마를 배정했는지 보고하고 플립차트에 기록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토론을 하지 않으며, 결정 이유 등은 전체 토론을 위해 남겨둔다.
8. 이제 매년 이러한 자금 격차를 메우기 위한 해외개발기구(ODI)에서 산출한 추정치를 제시한다:

   목표 2(기아종식) : 500억 달러

   목표 3(건강) : 400억 달러

   목표 4(양질의 교육) : 400억 달러

   목표 6(물과 위생) : 300억 달러

   다른 색 펜으로 플립차트에 이를 적고, 모둠별로 각자 지급할 돈을 적절하게 할당하고 얼마나 돈을 남겼는지 계산하도록 한다.
9. 그리고 전체에게 주어진 1조 7500억 달러라는 돈이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 금액은 2014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규모이다.

디브리핑과 평가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무엇을 배웠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어떻게 진행하였는가? 우선순위와 예산금액에 합의하기 쉬웠는가?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해소했는가?
- 지속가능목표 2, 3, 4, 6에 대해 추가로 요구되는 재정 수치에 대해 의견이 있는가? 총 1조 7500억 달러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가 아니면 모자라는가?
- 군사비를 줄이고 이 돈을 SDG를 충족하기 위한 자금 부족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나머지 13개 목표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재정은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 나머지 1조 5900억 달러를 쓸 것인가?
- 안보는 분명히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인간 안보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위협은 무엇인가?
- 지금 전세계에서 군비로 사용되는 1조 7760억 달러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을까?
- SDG 16(평화와 정의), SDGs 2, 3, 4, 6에 관련된 인권은 무엇인가?
- SDGs를 알리기 위해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촉진자용 팁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2015년에서야 도입되었는데, 재정부족(추가재정 필요분)은 잠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한다(odi.org). 참고로 이 활동은 2016년에 개발되었으며, 당시에는 기타 SDGs를 충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수치가 없었다.

진행 4단계에서, 세 나라를 예로 들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GDP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높고, 소말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GDP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겪고 있어 목록에 넣게 되었다. 참가자들과 관련된 국가의 GDP를 제시한다면, 활동이 더 매력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worldbank.org)에서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참가자들이 배경지식 없이 현실적인 추가 재정 부족분의 현실적인 추정치를 찾으리라는 기대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초해서 최선을 다해 추측하도록 격려한다.

전 세계 군사비 수치와 예산은 실질적인 이유에서 뭉뚱그려졌지만, 그럼에도 실제 수치에 가깝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org)에 따르면, 2014년 군사 예산은 1조 7760억 달러였다. SDGs 2,3,4,6에 대한 국제개발기구(ODI)에서 나온 예산 부족분은 연간 각기 502억 달러, 370억 달러, 380억 달러, 268억 달러였다.

모둠별로 자금을 할당하고 재분배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의 요점은 그들이 '실체적 모습'을 이해하고 실제 얼마나 적은 돈이 요구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하는 것이다.

디브리핑 과정에서 SDGs 2, 3, 4, 6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추가 재정이 1750억 달러이며, 이는 전 세계 연간 군사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안보에 대한 토의에서 아래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

- 구식 군사 방어에 대한 사고는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위협을 다루지 못하는데, 여기에는 HIV,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초국가적 범죄, 사이버테러, 조직범죄, 테러, 기후변화 등이 속한다.
- 이전보다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강력한 국방만이 안보를 지켜주지 못한다.
- 1994년 유엔인간개발보고서는 7가지 제목으로 인간 안보에 대한 위협을 다루고 있다. 정치, 경제, 건강, 식량, 환경, 개인 안보, 지역 안보 7가지 주제를 제시했다. 많은 면에서 SDGs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서의 차별과 침해는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깊은 분노와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 어떤 상황에서는 집단적 폭력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 시민권과 정치권에 대한 침해는 종종 분쟁의 방아쇠가 되곤 한다. 정치적 참여권에 대한 부정은 내부 갈등과 연결된다.
- 인격적 청렴권의 오용은 특히 압제 정권에서는 갈등(충돌)을 초래한다.
- 온전한 민주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존중 전통이 없는 체제보다 분쟁이 덜하다.
- 드론에 의한 감시, 공공장소에서의 비디오카메라, 인터넷 도청 등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감시는 얼마나 필요하며, 이 때문에 어떤 권리가 침해되며 어떤 권리가 보호되는가?

16가지 SDG와 인권간의 연관성은 '평화와 폭력'에 관한 배경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응용

이 활동을 군사비와 SDGs를 위한 예산 협상을 위한 역할극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사람들을 소모둠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데, 정부 대표, 빈곤, 에이즈, 교육 관련 NGO 단체, 군 장성, 군수산업 대변인, 군수공장 노동자 대표, 병사 대표, 다른 이해관계자 대표 등이다. 각 역할을 위해 다음의 예와 같은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 시민단체: 군비 비출을 대폭 줄이고 빈곤국의 채무를 없애는 것이 우선시된다.
- 군수산업 대표: 당신의 우선순위는 시장과 수익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만, 협상할 준비는 되어 있다.
- 군수산업 노동자 노동조합: 우선순위는 더 잘 살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지만, 또한 실직의 두려움이 있다.

기 념 일

12월 20일
국제 연대의 날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전 세계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킨다; 16개 SDG 중 10개의 목표를 적시한 카드를 만들어 소모둠에서 다이아몬드 순위를 매기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들이 전 세계 안보를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생각해보도록 하고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각각은 어떤 인권과 연관되어 있는가?

참가자들에게 자기 나라 또는 유럽 전체의 GNP(국가총생산)과 HDI(인권개발지수)를 개발도상국 또는 아프리카 전체와 비교해 보도록 하고,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의 불평등의 원인을 찾아보도록 한다. 부유한 나라들은 다른 저개발 지역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

272쪽 '의약품 접근성', 이주민에 관한 147쪽 '들어가도 될까요?'이나 189쪽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 활동들은 빈곤과 저개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보완하고 심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학교나 다른 행사의 일부로, 이 활동을 퀴즈로 바꿀 수 있다. 자기 자신의 퀴즈를 만들거나 인터넷상의 퀴즈, 예를 들어 www.boombox.com 혹은 17goals.org/quiz를 사용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로고와 목표 목록을 큰 포스터로 제작하여 행사 방문객들에게 의견을 요청한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SDGs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국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찾아보고 당신의 유럽의회 의원에게 글을 쓴다.

추가 자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2015년 9월 UN에서 합의되었다. 이것은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진행된 것에 이어서 나아가는 것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빈곤, 굶주림 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평화와 정의의 보장으로 인권이 모두에게 존중되고 향유되는 세상이다. MDGs가 다루던 8가지 목표에서 지금은 17가지 SDGs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인권 개발 문제가 복잡하고 상호 교차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MDGs와 SDGs간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불안정이나 폭력이 발전을 제약하고 이에 수반해서 평화와 안정이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이다.

SDG 16(평화와 정의)는 10개 목표를 가지고 있다: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
16.3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6.5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
16.6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이행한다.
16.7 모든 차원에서 즉시 반응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와 대표성을 가지는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16.8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6.9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정체성을 부여한다.
16.10 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다음 자료들은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기회비용과 UN 개발의제,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www.IPB.org
- 진보를 위한 지출(Paying for progress): 2015년 이후 새롭게 떠오르는 목표들을 위한 새로운 원조 환경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www.odi.org
- 인권침해가 내전을 유발하는가?(Do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 Internal Conflict?) Oskar N.T. Thoms & James Ron in Human Rights Quarterly 29 (2007)
- 2030년까지 빈곤퇴치를 위한 자금조달(Financing an end to poverty by 2030), 인포그래픽 자료 www.odi.org
- 안보: MDGs가 놓친 바닥(Security: The missing bottom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ww.odi.org

유인물

1. **빈곤**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음식** –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3. **건강**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4. **교육**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여성** –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6. **물** –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에너지** –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경제**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사회기반시설** –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10. **불평등**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주거**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소비**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3. **기후**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해양 생태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15. **생태계** –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 · 복원 · 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제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지속가능성** –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의 활성화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

그녀가 나의 영웅이야! 너의 영웅은 누구인가?

주제
- 젠더
- 차별과 불관용
- 시민권과 참여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소모둠 5–7)

시간 60분

개요 여기서는 다음 주제에 관해 개인별 작업과 소모둠 작업, 전체 토론,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다.
- 사회화와 문화의 상징으로서의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
- 성적 고정관념이 우리의 역사, 문화 및 일상생활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되었는가?

관련 권리
- 평등권
- 차별로부터의 자유
- 의견과 표현의 자유

학습 목표
- 역사적 사건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되돌아본다.
- 비판적 분석 능력을 개발한다.
- 호기심, 열린 마음 및 정의감을 발전시킨다.

준비물
- 종이, 펜(1명당 빨간 펜과 파란 펜 하나씩)
- 플립차트용지, 마카

진행

1.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특히 존경하는 역사적이거나 생존해있는 국가적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을 생각해보도록 5분의 시간을 준다.
2. 종이와 펜을 주고 두 개의 칸을 만들어 처음 칸에 빨간 펜으로 여성 영웅 3–4명의 이름을 적고 그들이 누구인지 국가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적는다. 그 밑는 여성 영웅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단어를 적는다.
3. 남성 영웅에 대해서도 똑같이 작업한다. 두 번째 칸에 파란 펜으로 3–4명 남성 영웅의 이름을 적고 간략한 설명을 덧붙인다.
4. 참가자들을 5–7명까지 소모둠을 만들게 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의견을 모아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 네 명씩을 선택하도록 한다.
5. 다시 전체로 모여 각 그룹이 선택한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을 플립차트의 두 칸에 나누어 적는다. 각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들도 함께 적는다.
6. 모범 모델로서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의 특성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단어들과 그 단어들이 얼마나 고정관념에 치우친 것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서 디브리핑으로 넘어간다.

디브리핑과 평가

활동을 검토하고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에 대해 배운 것을 이야기한다. 고정 관념과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 평범한 사람, 혹은 왕이나 여왕? 그들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참가자들은 그들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들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이 상징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서로 같은 가치를 상징하는가? 혹은 차이가 있는가?
- "고정관념"이라는 말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정관념은 어느 정도 진실일까? 고정관념은 항상 부정적인 것인가?
- 개인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고 보는가?
- 참가자들은 그러한 고정관념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느끼는가? 어떻게?
- 이 단원에서 나온 특성들이 국가적인 특성과 유사하다고 느끼는가?
- 사회적 문화적 장벽이 어느 정도로 고정관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 성별 고정관념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는가?
- 어떤 인권문서와 조항이 사람들을 그들의 성별로 인한 차별로부터 보호해주는가?
- 고정관념은 선택권과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장벽으로 작용한다. 참가자들은 집이나 학교, 클럽이나 직장에서 어떠한 성 관련 장벽을 경험했는가?
- 이러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문화적 기준과 가치를 깨기 위한 전략을 세워 볼 수 있는가?

2단계에서 만들어진 예시(우크라이나의 그룹 활동)

여성 영웅	남성 영웅
올하 공주 – 키이브루스의 최초 기독교도	키이브루스(우크라이나의 옛 이름)의 블로디미르 왕자 – 세례를 받았다.
젊은 여성, 록셀라나 – 튀르키예에 의해 억류되어 술탄의 아내들 영역에서 살았다. 그녀의 신분을 정치에 활용했다.	해트만 마제파 – 독립투사
여성 시인, 레샤 우크라인카 – 우크라이나인의 주체성과 여성해방에 대해 썼다.	남성 시인, 세브첸코 – 자유를 찬양했다
• 강인한, 정교한, 부드러운, 여성스러운, 강한, 아름다운	• 강력한, 강한, 용감한, 용기있는, 단호한, 완강한

촉진자용 팁

'여성 영웅'과 '영웅'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사회에서는 다르게 인식된다. 이를 명심하고 그 의미를 조심스럽게 소개해야 한다. 롤모델인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진행 단계 5에서 각 그룹이 작업한 것을 배놓지 말고 모두 다 차트에 옮겨 적는다. "여성적"혹은"남성적"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모두 받아 적고 디브리핑 시간에 그 뜻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목표 그룹과 상황에 따라서 만일 참가자에게 인권관련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그들의 생각에 국가와 세계에 변화를 만들어낸 수호자, 활동가, 사람) 찾으라고 한다면 인권과 연계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인권의 발전과 인권의 지역, 광역 및 국제법, 딜레마에 관해 토론한다.

이 활동은 문화적 요소가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에 다문화적 환경에서 실행하기 좋은 활동이다. 그룹들을 섞고 참가자들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나 출신 나라에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이 있는지 말하게 한다.

응용

젊거나 어린 사람들과 작업을 할 때 새로운 종류의 영웅들, 예를 들어 만화책이나 영화의 주인공, 스포츠 스타 등을 예로 들 수도 있다. 만화책을 읽으며 단원을 시작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팝 스타나 스포츠 스타의 사진을 선택해서 말풍선을 써넣거나 그림을 추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영웅의 종류를 한정짓지 않고 온전히 열어두게 되면 유익한 토론을 이끌어 낼 흥미로운 놀라움을 찾아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의 부모님들에게 유리 가가린, 헬로 키티, 넬슨 만델라 또는 베토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한 사람은 여성, 한 사람은 남성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매우 존경하는 두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 디브리핑 활동 중에 그들의 목록에 남성이 많은지 아니면 여성이 많은지 헤아려보게 한다. 참가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한다.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참가자들이 인권 영웅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면 278쪽 '인권 수호자들' 활동을 진행한다.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의한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자신에 의한 편견을 만드는 고정관념을 더욱 세심히 인식하겠다고 개인적으로 맹세한다.

당신 국가에 기여했지만 국제적인 맥락에서 일하고 있다면 세계에 기여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을 찾아낸다. 학교 혹은 클럽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역 신문에 이 여성에 관한 기사를 쓰거나 인터넷에 간단한 영상을 올릴 수도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계획한다.

여성 문제에 관한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 캠페인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신매매 또는 전 세계적인 아동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캠페인 등.

추가 정보

고정관념이란 사람들이나 생각들에 대한, 그것이 편견과 차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지나친 단순화, 일반화 그리고 종종 무의식적 선입견을 말한다. 이는 한 집단의 일부가 가진 특성을 전체 집단의 특성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태리 사람은 오페라를 좋아하고 러시아 사람은 발레를 사랑하며 검은 가죽점퍼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젊은 남자는 위험하며 흑인들은 모두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생각 등이다. 역할이 여성 또는 남성에 적합하다고 하거나 그의 성별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기대는 소위 "젠더 고정관념"이라 불린다.

성(sex)과 젠더(gender)는 혼동되기 쉽다. 성은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적 차이를 나타내며 이 차이는 보편적이며 변하지 않는다. 젠더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되고 획득된 사회적 성향이다.

그러므로 젠더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향, 역할, 행위, 의무 등을 말하며 어떤 특정한 사회 속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특정한 시간과 사회배경에서의 여성(여성적인)과 남성(남성적인)에 관계되는 것이다.

기 념 일

7월 18일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출처

유엔개발계획(UNDP: Gender in development programme, learning and informationpack),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여성 주류화로서의) 성주류화 프로그램과 진입 프로젝트. 2001년 1월

인권 일반

추모/기억

종교와 믿음

3단계

제한없음

60분 이상

연대표

역사는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라마틴

주제
- 인권 일반
- 추모/기억
- 종교와 믿음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

시간 60분 이상

개요 참가자는 기원전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권리 개념의 발전을 나타내는 집합적 연대표를 만들고 미래를 추측한다. 이 방법은 특정 집단의 역사를 탐구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권리
- 인권교육을 포함한 교육권
- 생명, 자유 및 개인 안보권
- 종교와 믿음의 자유

학습 목표
- 역사를 통해 인권 발전에 관한 지식을 개발한다.
-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개발한다.
- 인권에 대한 호기심과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약속을 촉진시킨다.

준비물
- 마스킹 테이프 한 롤
- 10-12 미터의 긴 벽
- 3가지 색의 포스트잇 묶음
- 플립차트와 여러 색의 유성 마커

준비 작업
- 인권의 발전사 개요를 이해하기 위해 4장을 읽어본다.
- 마스킹테이프로 벽에 눈높이의 긴 줄을 표시한다. 왼쪽 끝에서 약 50cm 떨어진 부분에 “기원전 2000년”, 오른쪽 끝에서 약 50cm 떨어진 부분에 “2010년 (또는 당해 연도)”를 쓴다. 기원전 1000년, 0년, 서기 1000 년을 표시한다.
- 다음과 같이 표시된 포스트잇 4장을 준비한다.

  “이집트 및 중국 문명”

  “앗시리아, 바빌로니아, 미노아 문명이 번성했다.”

  “롬인들이 주요 권력자였다”

  “서유럽의 왕국들과 동부의 비잔틴 제국”

진행

1. 참가자들에게 연대표를 소개한다. 약 4000년 전(기원전 2000년)에 이집트와 중국에서 첫 번째 문명이 번영했음을 설명한다. 기원전 1000년경 앗시리아, 바빌로니아 및 미노라 문명이 번창했다. 서기 0년경 로마가 주요 권력자였으며 서기 1000년에는 서유럽에 많은 왕국이 있었고, 동부의 많은 지역을 비잔틴제국이 지배했다. 오늘 날짜를 표시한다.

기 념 일

8월 23일
세계 노예무역 철폐 기념의 날

2. 이 연대표를 인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채우는 것이 소모둠의 과제임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법을 만들거나 정의를 설파하거나, 정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의 생일과 사망일,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반응을 유발한 사건의 날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나 협약을 만든 날짜 등이다.
3. 참가자에게 여러 색의 포스트잇을 준다. 다른 색은 다른 범주를 표시함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청색은 인권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 노란색은 중요한 사람이나 기구, 초록색은 중요한 문서나 법. 이 지시를 앞으로의 참고를 위하여 플립차트에 기록한다.
4. 사건은 지역적, 광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참가자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건 및 하나의 법 또는 각 협약에 대해 생각하며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그들은 그 사건의 날짜와 명칭 또는 사람 이름을 적합한 색의 포스트잇에 적고 연대표에 붙인다.
5. 목표는 각 개인이 3개의 포스트잇을 붙이고 소모둠 전체가 가능한 한 많은 서로 다른 사건을 붙이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특정 사건이 이미 붙여진 것을 발견하면 다른 사건을 생각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친구와 상의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해볼 수 있다.
6.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붙인 사건들에 의해 영감을 받도록 격려한다.
7. 이 활동의 속도가 늦춰지면 참가자들을 둥글게 모여 붙여진 것들을 검토하게 한다. 모둠원들에게 자신들이 선택한 사건들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자세히 말하도록 한다.
8. 오늘 활동을 여기서 마치고 모두가 다음 시간에 충분히 검토하고 요약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 연대표를 위한 정보를 찾기가 쉬웠는가? 무엇이 좋은 정보원이었는가?
-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가장 재미있고 놀랍게 또는 충격적으로 보는가?
- 유사 이래 인권의 발전 뒤에는 어떤 중요한 힘이 있었는가?
- 인권의 역사에 관해 아는 것이 중요한가? 왜인가?
-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권리가 필요하게 될 것인가?

촉진자용 팁

만일 모둠 안에 역사 전문가가 있다면 그에게 연대표를 점검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달력에는 40개가 넘는 다른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 이슬람, 힌두, 히브리, 페르시아, 불교 달력 등등. 그러므로 날짜는 혼동스러울 수 있다; 기독교 달력에서 2010년은 이슬람 달력에서는 1432년이다. 그러므로 날짜에 대한 혼동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이 혼동을 문화 간의 차이로 언급하는 데 사용한다.

응용

아래 주어진 날짜와 사건이 기록된 포스트잇을 준비해서 퀴즈로 활용한다. 사람의 이름, 사건 또는 법을 소리 내어 읽고 참가자에게 그 날짜를 추정하도록 한다. 그리고서 그 포스트잇을 연대표에 붙인다. 이들 획기적인 사건들이 모둠에 영감이 되도록 한다.

참가자에게 인권을 증진시킨 유명한 사람, 음악, 미술과 문학 및 스포츠 경기의 사례에서 인용구를 찾도록 하고 이것들을 연대표에 추가한다.

이 활동은 열린 공간(세미나 중이나 학급에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연대표는 언제라도 완성할 수 있다.

그 방식은 한 사람의 추억과 역사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방법이다.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로마시대’ ‘아르메니아 연대표’ 또는 ‘삼미 라플란드 연대표’를 검색엔진에 입력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연대표상 한 날짜를 다른 모둠들과 함께 인권 홍보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구실로 사용한다.

만일 모둠이 어떤 현대의 인권 영웅에 대해 더 알아보기를 원한다면 278쪽 '인권 수호자들' 활동을 해볼 수 있다.

만일 그 모둠이 오랜 시간에 걸쳐 생각들이 어떻게 변하고 발전했는지에 흥미를 가진다면 85쪽 '곧 구식이 된다'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

실천 아이디어

연대표에 사진 또는 카툰을 삽입해서 기념행사에 전시한다: 또는 공개행사에 연대표를 준비해서 대중을 초대한다.

추가 정보

인권역사와 일반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의 일부에 대한 부분 요약:

기원전 1760년, 바빌론에서 함무라비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제정한다. 커다란 돌에 새겨진 그 법전은 "왕국에서 정의를 실현한다…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고 약속한다.

기원전 1440년(경), 모세율법은 그 칙령 "살인하지 말라"의 위배에 대한 자세한 처벌을 포함하는 10계명을 이스라엘 종족에게 제시했다.

기원전 528–486년, 인도, 부처가 도덕성, 생명 존중, 비폭력 및 옳은 행위를 설파한다.

서기 26–33년, 예수가 도덕, 관용, 정의, 용서 및 사랑을 설파한다.

서기 613–632, 선지자 마호메트가 코란에 드러난 평등, 정의 및 연민의 원리를 가르친다.

서기 930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회기구인 아이슬란드 국회가 아이슬란드에 설립되었다.

서기 1215년,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 조인되었다. 이 문서는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자유인에게 귀족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서기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프랑스 인권선언: 국민의회는 자유, 평등, 재산, 안보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선언에 동의한다.

서기 1791년, 미국 권리장전: 미국 헌법을 개정해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믿음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권리장전에 미국 의회가 동의한다.

서기 1807년,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도 반대법이 통과된다.

서기 1859년, 솔페리노 전투, 앙리 뒤낭이 국제적십자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고취시켰으며 첫 번째 제네바 협약(국제인도법에 관한)으로 인도한다.

서기 1863년, 국제적십자위원회 창설

서기 1864년, 제네바협약 채택

서기 1899년, 첫 번째 헤이그 협약이 체결된다. 제네바 협약과 함께 국제인도법의 근간을 형성한다.

서기 1893년, 뉴질랜드가 여성에게 세계 최초로 투표권을 부여한다.

서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종결

서기 1945년, 국제연합(UN) 창설되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서기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UN에 의해 채택되다.

서기 1950년, 유럽인권협약이 유럽평의회에 의해 채택되다.

서기 1961년, 자유를 위해 건배한 죄로 7년 간 투옥된 포르투칼의 두 학생을 석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의 결과로서 국제사면위원회가 창립되다.

서기 1965년, 모든 형태의 민족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9년 발효되다.

서기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그리고 경제, 사회 및 문화권에 관한 국제 규약, 1976년에 발효되다.

서기 1969년, 아메리카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1978년부터 발효되다.

서기 1976년, 남아프리카에서 해방투쟁의 전환점이 된 소웨토항쟁

서기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81년 발효되다.

서기 1981년, 인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아프리카 통일기구 – 현 아프리카 연합에 의해 채택되다.

서기 1984년, 고문방지협약, 1987년 발효되다.

서기 1989년, 아동권리협약, 1990년 발효, 가장 널리 비준된 인권조약이다. 단지 미국만이 인준하지 않았다.

서기 1990년, 이슬람권에서 카이로 인권선언(CDHRI)

서기 1992년, UN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컨퍼런스: 리오선언

서기 1990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RMW), 2003년 발효되다.

서기 2007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은 UN협약 역사상 개시일에 가장 높은 숫자의 서명을 받았다. 2008년 5월 발효되다.

http://www.gwu.edu/~erpapers/humanrights/timeline/
http://www.hreoc.gov.au/info_for_students/essentials/timeline/index.html

종교와 믿음

차별과 불관용

시민권과 참여

2단계

15–30명

2–2 ½ 시간

우리 동네 이슬람 사원

당신이 어떤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에든 속아넘어갈 것이다.

말콤 엑스

주제
- 종교와 믿음
- 차별과 불관용
- 시민권과 참여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15–30명

시간 2–2.5 시간

개요 이 활동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에 대한 마을 위원회 회의에서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

관련 권리
- 차별로부터의 자유
- 종교와 믿음의 자유
- 의견과 정보의 자유

학습 목표
- 다양한 지역사회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갈등을 경험한다.
- 종교와 믿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탐구한다.
- 논쟁과 문석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다.

준비물
- 이름표로 사용할 종이
- 플립차트 종이
- 시계
- 시장 역할을 위한 작은 종

준비 작업
- 266쪽의 역할카드를 복사한다. 문제와 토론규칙을 적고 복사한다(선택가능).
- 회의에서 대변할 서로 다른 편이나 단체의 이름표를 준비한다.
-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플립차트에 서로 다른 역할의 목록을 나열한다.
- 전체 '마을위원회 회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모둠별로 미리 그들의 입장을 논의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을 확보한다.

진행

1. 266쪽 유인물에 있는 논의할 문제의 설명을 소리 내어 읽는다.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 동네 주민이고 시 소유 공터에 회교사원을 지어도 될지에 대해 갈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한다.
2. 참가자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 목록을 보여주고 그중 하나를 고르게 한다. 역할 카드와 문제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나누어 주고 사람과 모둠이 사전에 모이는 장소를 안내하고 나중에 "마을위원회 회의"가 열릴 장소를 알려준다.
3. 회의 중에 사용되는 토의에 대한 이 활동의 끝에 있는 규칙을 설명한다.
4. 실제 회의 전 30분 동안 시간이 주어지며, 다른 시민을 만나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견을 준비할 수 있다. 마을위원회 회의는 40분간 진행될 것이며, 참석자가 많아 실제 발표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점을 한두 가지로 요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준비 단계에서 "마을위원회 회의" 공간을 준비한다. 사람들이 반원이나 말굽형으로 앉고, 시장은 앞 약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이상적이다.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며, 책상 앞에 이름표를 붙인다.
6. 30분 후 회의를 소집한다. 또는 시장이 소집하도록 한다. 시장은 사람들에게 토의의 기본 규칙을 상기시키고 회의를 안내하는 짧은 연설을 하도록 한다.
7. 회의가 끝나면(40분 후), 시장은 투표를 진행하도록 한다. 투표수를 집계하고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 종료를 선언한다. 그리고 요약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동그랗게 의자를 놓도록 요청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활동에서의 역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본명으로 인사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피드백을 시작한다. 디브리핑 활동 전에 해야하는 중요 활동이다.

참가자들에게 방금 진행한 과정에 대해 느낀 점을 묻는다:

- 투표 결과에 놀랐는가? 그리고 당신이 맡은 역할의 입장이 반영되었는가?
-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의 역할이 결과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 다른 사람이나 모둠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이나 태도를 바꾸었는가?
- 당신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수월했는가? 왜인가 또는 왜 아닌가?
- 실제 삶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생각나는 유사한 경우가 있는가?
- 이러한 상황이 당신의 거주지에서 발생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활동을 통해 당신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는가?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이해했는가? 이 권리가 거부된 역사 혹은 오늘날의 사례를 알고 있는가?
- 왜 종교의 자유가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가?
-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권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얼마나 준수되고 있다고 보는가?

촉진자용 팁

가능하면 공동 진행자를 두도록 한다. 활동과정에서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활동의 각 단계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다.

이 활동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모임에서 가능한 시간을 더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세션 동안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역할을 미리 할당하거나 임의로 배치할 수도 있다.

준비단계에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만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지 혹은 회의 중 무엇을 말할지 계획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역할을 할당할 때, 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시장은 회의를 촉진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모두에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언을 중지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 역할극 전에 시장 역할을 맡을 이와 전체 흐름에 대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후 촉진역할은 시장 역할자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시장 역할을 맡은 이가 당신의 신뢰를 느끼고 참가자들이 당신보다 시장 역할을 맡은 사람을 존중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모의실험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시장역할자의 권한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의실험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 예를 들면, 사람들이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는 등 –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합의에 도달할 수 없으면, 이러한 것이 실제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활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것에 대해 마지막 디브리핑에서 활용할 수 있다.

디브리핑 동안, 그러한 모의실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겪은 일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벗어나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촉진자는 참가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역할이 아닌 자신의 정상적인 "모자"를 쓰고 되돌아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디브리핑 및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종교와 믿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

응용

당신이 진행하게 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이 활동을 적절하게 재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슬림 지역에서는 "우리 동네의 기독교 교회"나 "우리 동네의 절"과 같이 또는 다른 조합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활동에 뉴스 리포터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리포터가 모둠과 논의하게 하려면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한다. 아래 제안 참고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자신의 나라에서 발생한 종교와 믿음의 자유의 양상, 사회적 긴장에 대해 토의한다. 뉴스에 나온 중대한 사건(사례 이야기)은 특히 작은 모둠의 토론에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22쪽 "신자들"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이것이 청소년의 삶에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화된 탐구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뉴스 리포터 역할을 추가했다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과정에 대한 그들의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언론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기 위해 리포터들 간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는 것도 유용하다. 299쪽 "전면 기사" 활동으로 의견들이, 특히 언론매체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 지를 탐색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기반으로 하는 208쪽 "선거 운동" 활동을 디브리핑하고 진행함에서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이 많거나 편파적인 의견들에 대한 토론, 분석과 설득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실천 아이디어

참가자들에게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종교 공동체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범위를 살펴보도록 독려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대표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그들의 권리가 존중받는지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한다.

당신과 참가자들이 살거나 일하는 지역과 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현 이슈와의 맥락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정치적 토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역의회를 방문하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

추가 정보

국제 인권법에서의 종교에 대한 권리: 인권을 위한 청년회, 우리 동네 무슬림 협회의 구성원들에게 다음 정보의 복사물을 제공할 수 있다.

유럽인권조약(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9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믿음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믿음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자기의 종교 또는 믿음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믿음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하여 종교나 믿음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아동권리협약 제30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집단 혹은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민족의 아동 혹은 원주민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아니한다.

이 모의실험 활동이 허구임에도, 유럽 전역과 그 너머에 종교적 소수집단을 위한 예배 장소를 짓는 일에 관련된 비슷한 논쟁이 많이 있다. 2009년 11월, 스위스에서는 이후로 첨탑 건설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로 승인하였다. 이러한 투표 결과는 이슬람교도들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중심적인 내용인 예배, 가르침, 실천과 준수를 통한 종교 활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게다가 유럽과 그 외 여러 국가들이 공공장소에서의 이슬람 베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최근 만들었거나 입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rticle 19(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 캠페인)는 인권단체인데, 전체 얼굴을 가리는 베일과 인권에 대한 금지에 관련된 법률적 견해를 출판했다(www.article19.org). 또한 여러분은 다른 종교적 소수자들이 유럽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기 념 일

9월 21일
세계 평화의날

이 활동은 유럽평의회가 출간한 동반자(Companion)-다양성, 인권 및 참여의 변화에 관한 교육 및 학습 캠페인 지침서-의 "우리 동네의 회교사원" 활동에서 개발되었다. 이 활동은 2000년 수잔 울리히(Susanne Ulrich)가 고안한 [인식+관용]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회의 참석자 명단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이들의 숫자를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 각각의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이들도 동일한 숫자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많은 "일반 시민"을 배정할 수 있다.

- 시장
- 시 의회 의원: 3개의 정당이 필요하며, 각 정당은 1-2명의 대표자를 둘 수 있다.
- "인권을 위한 지역청년회": 2-4명의 대표
- "과거와 현재 협회": 2-4명의 대표
- "지역 무슬림 협회": 2-4명의 대표
- 일반 시민들: 필요한 만큼
- 선택사항: 회의를 취재하는 1~2인의 언론인

토의 규칙

모임의 규모나 할애된 시간에 따라, 아래의 규칙들을 조정할 수 있다.

- 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모든 사안에 대한 시장의 결정이 최종안이다.
- 발언을 원하는 경우, 손을 들고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발언은 짧아야 하며, 2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 회의는 40분이 경과하면 중지하고, 이슬람사원의 건축여부에 대해 투표한다.
-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나 토론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인물

역할 카드

우리 동네 이슬람 사원(모든 참석자용)

여러분은 약 8만명 정도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 지난 60년간 인구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젊은이들은 보다 나은 직장을 위해 대도시로 이주하고자 하고, 많은 수의 이주 가족이 유입되었으며,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 왔다. 이 가족 중 일부는 3대째 이곳에 살고 있으나, 도시의 대다수 주민들에게 여전히 "이주민"으로 대우받고 있다. 이제 그들은 전체 인구의 15%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지금 마을을 분열시키고 있는 이슈는 시 소유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슬람교도의 바람에 대한 것이다. 이 땅은 공지로서 주 쇼핑 거리 근처로 공공기물 파손과 마약 등으로 몇 년 동안 정기적인 의회 민원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한 부유한 사업가가 해당 문제를 의회에서 분리해서 해결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시장은 행운이 왔다고 생각했다! 의회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해당 부지에 새로운 회교 사원 건립비용의 20%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업가가 해결하지 못한 건립비용의 나머지 10%를 무슬림 지역 공동체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이번 주에 착공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화난 주민들의 민원들이 폭주했다. 그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자 모두가 초대된 특별 회의를 소집했으며, 회의는 30분 후에 열리게 된다.

역할 카드: 시장

당신은 회의 의장이며 회의가 시작되면,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토론 규칙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회의 동안 모든 이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정인이 너무 오랫동안 발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경우가 초래한 나쁜 평판을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 회의 전 그들의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설득하려 한다.

역할 카드: 시 의회 의원: 전통주의당(1-2명)

당신은 시 의회에서 전통주의당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슬람 사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나라와 지역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예배 장소에 의회의 토지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민자들은 이 마을에 살 수 있게 특혜가 주어졌으며, 그들은 손님으로서 이 나라에 다른 생활방식을 강요하려해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 또한 이슬람 사원이 테러리스트를 모집하는 회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역할 카드: 시 의회 의원: 대중주의당(1-2명)

당신은 시 의회에서 대중주의당을 대표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에 이슬람 사원을 건설하자는 원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무슬림 공동체가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왔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내에 불필요한 분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다음 선거에서의 결과가 신경 쓰여, 논란이 가장 적은 선택을 지지하려고 한다.

역할 카드: 시 의회 의원: 다양성주의당(1-2명)

당신은 시 의회에서 다양성주의당을 대표하고 있다. 당신은 세계 각지에서 온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시의 문화와 이익을 증대시켜주었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이 오랫동안 자신의 종교생활을 할 기회를 박탈당해왔다는 점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버려진 땅이 시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시 자체에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재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역할 카드: "과거와 현재 협회" 회원(2-4명)

당신은 이 이슬람 사원의 설립에 반대하는 대표적 그룹의 구성원이다. 이 마을의 전통적인 (비무슬림의)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대부분이 평생을 보내온 이 마을의 원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기로 한 장소는 시의 중앙으로 시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보일 것이다. 특히, 이슬람 사원이 중심 교회의 마을광장으로부터의 전망을 막게 될 것이다. 당신 고향의 특성들이 최근에 이주한 이들에 의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느낀다. 타지에서 이 나라에 유입된 이들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규칙하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역할 카드: "인권을 위한 지역청년회" 회원(2-4명)

오늘날 우리 마을에서 생겨나는 최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결성하였다. 당신은 이슬람 사원의 건축이 무슬림의 예배를 위한 장소의 필요성을 충족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땅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당신은 이 이슬람 사원의 건립을 지지하지만, 의회가 건축비용에 기여하기로 함으로서 소홀할 수 있다고 보는 다른 사회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 간 청년을 위한 예산이 이 도시의 필요에 못 미치는 수순으로 삭감되었다.

역할 카드: "지역 무슬림 협회" 회원(2-4명)

당신은 몇 년 동안 무슬림 공동체를 위한 예배 장소를 요청해왔으나, 항상 재정적 이유로 거절당했다. 대부분의 무슬림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고, 기독교 교회는 11개나 있으면서도 이슬람 사원에 비해 사용빈도가 낮기에, 무슬림 사회가 건축비용의 10%를 요청받은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주민들이 그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고, 이 이슬람 사원에 대한 거절도 그렇다. 이것은 의회가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종교적 예배라는 기본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역할 카드: 일반 시민들

당신은 우리 마을을 덮치고 있는 갈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투표를 위해 시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고자 한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할지 모르는 바로 지금, 가능한 한 많은 다른 그룹과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정할 계획이다.

평화와 폭력

아동

건강

3단계

9–24 명
(3개 소모둠)

90분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

나는 진실로 그것에 관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주제
- 평화와 폭력
- 아동
- 건강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9–24명(소모둠 3개)

시간 90분

개요 이 활동은 다음 주제에 대한 역할극이다.
- 개인간 폭력
- 집단괴롭힘

관련 권리
-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자유
- 존엄의 권리
-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습 목표
- 집단괴롭힘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개발한다.
- 문제를 직면하고 풀어가는 능력을 개발한다.
- 집단괴롭힘의 피해자에 대해 공감한다.

준비물
- 역할극에 쓰일 장면 내용의 복사본(소모임당 한 장면씩)
- “실제 이야기” 복사본
- 역할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진행

1. 활동을 소개한다. 소모둠으로 나누어 집단괴롭힘을 주제로 한 짧은 역할극을 하게 된다.
2. 모든 사람이 집단괴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동의했으며 그것이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와 그것은 모든 학교, 대학, 동아리, 조직 또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괴롭힘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다.
3. 참가자를 3개 소모둠으로 나누고 각각에 장면 한 부씩을 나눠 준다. 15분 동안 역할극을 준비하고 연습해볼 시간을 준다.
4. 준비가 되면 순서대로 각 모둠이 공연을 펼친다.
5. 모든 모둠의 공연이 마치기 전까지 논평을 하지 않고, 마친 후에 전체가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역할극을 돌아보며 정리를 시작한다.

- 각 모둠은 이야기 전개를 위해 어디에서 자료를 구하였는가? 집단괴롭힘에 관한 이야기나 영화에서 따왔는가? 혹은 경험에 기초했는가?
- 그 장면들은 현실적이었는가?

- 장면 1에서, 어떤 것이 건설적이고 상황에 도움을 주었으며, 어떤 것이 상황에 방해가 되었다고 말하는가?
- 장면 2에 관련하여, 괴롭힘 가해자인 친구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웠는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이 긍정적 효과를 내고 어떤 전략이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는가?
- 장면 3에 관련하여,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친구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웠는가? 집단괴롭힘의 희생자가 받아들일 만한 해결책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 참가자중 3명에게 3가지의 “실제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요청한다. 이 사례에 대한 개략적 의견을 들어 보고 집단괴롭힘의 원인과 해결하는 방법,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해 얘기해 본다.

- 집단괴롭힘를 당한다면 어떤 느낌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 왜 집단괴롭힘을 하는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학대함으로서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가?
- 집단괴롭힘은 폭력인가?
- 집단괴롭힘은 권력과 관련된 것인가?
- 집단괴롭힘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 당신이 괴롭힘을 받는 사람의 친구라면, 당신의 친구가 비밀로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해도, 권한 있는 책임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까?
- 집단괴롭힘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흔한 편견은 무엇인가?
- 집단괴롭힘 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당신이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이것을 멈추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가?
- 다양한 사례 이야기에서 어떠한 인권이 위태롭게 되었는가?

촉진자용 팁

집단괴롭힘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직접적인 괴롭힘은 욕을 하거나, 조롱하고, 밀거나 잡아당기고, 때리거나 폭행하고, 가방이나 소품을 빼앗아 여기저기 던지거나 돈이나 소지품을 갈취하고, 그들의 종교, 피부색, 장애 또는 습관을 이유로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것이다. 간접적인 괴롭힘은 어떤 사람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기 위해 루머를 퍼뜨리는 등의 행동을 말한다. 이런 행동들은 특정 대상에 대해 한 두 사람이 먼저 시작하기 마련이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집단괴롭힘의 기본 요소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학대를 만들어내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위협이다.

당신이 봉사활동 단체나 동아리, 대학교 또는 직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면, 이들의 특정 상황에 적합한 장면들을 채택해야 한다. 모둠 내에 집단괴롭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청소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둠을 짜고 장면을 나누도록 한다.

응용

역할극 대신, 세 모둠이 각각의 장면을 분석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하나의 장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각 모둠에 동일한 시나리오를 작업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각 모둠이 각기 다른 가능한 해결책과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에 대한 그들 자신만의 견해를 보여주게 한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해당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과 더 많은 해결책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역할극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좁다면, 실제 이야기를 소모둠별 토론의 사례로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상황을 반영하고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고,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려하도록 한다.

기 념 일

6월 4일
세계 침략 희생
어린이의 날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지역사회 내에 갈등조정에 관해 또래 교육가(청소년 자원봉사자)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본다. 강사에게 강연을 요청하고 당신의 학교나 직장 또는 동아리 내에서 또래중재자 체제의 설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또래 교육의 모범 사례에 관심이 있다면, Domino의 5장 1절 '중재자 프로젝트, 독일 오펜바흐, 학교에서의 또래 중재 사례(The peacemaker project in Offenbach, Germany, an example for peer mediation in schools)'를 참고한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 찾아보려면, 105쪽 '내 삶은 쇼가 아니다' 활동을 참고한다. 또는, 모둠에서 자신이 속한 학교나 조직에서의 집단괴롭힘 방지 정책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반인종차별 정책을 만들어 가는 방법에 대해 284쪽 '인종차별에 맞서기' 활동에서 설명된 방법은 집단괴롭힘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에도 적절하다.

Domino 제4절 '청소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집단괴롭힘을 당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를 통해 반유대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자국에서 집단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나 집단을 찾아보고, 이 단체를 지원한다.

당신이 특별히 창의적인 단체를 안다면 자신만의 장면을 대본으로 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공연할 것을 제안한다.

모둠의 멤버들이 각각 자신의 학교나 공동체에서 집단괴롭힘를 주제로 토론을 이끌거나 조직할 수도 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자신의 학교나 공동체에 지원 그룹을 만든다.

추가 정보

괴롭히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마도 누군가를 놀리거나 우스꽝스러운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단지 "좋은 웃음거리일 뿐!" 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방식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누군가를 놀리는 것은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 가끔 괴롭히는 이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자신을 멋있어 보이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누군가를 또는 그들이 보이는 모습을 질투했을 수도 있다. 아마 그들은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에 익숙한데, 누군가 그들의 각광을 가져가면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상대를 해하려 하는 것이다. 종종 괴롭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역량이 부족하고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모르곤 한다.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폭력이나 서로 못되게 구는 것을 목격하면 이것을 따라한다.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느끼면 다른 이도 또한 기분 나쁘도록 상처주길 원한다. 또한 교사의 체벌도 집단괴롭힘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폭력이 갈등 해결이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허용되는 적절한 전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체벌을 중단시켜려는 유럽평의회의 캠페인을 찾아볼 수 있다: www.coe.int "Abolish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questions and answers(아동 체벌 폐지, QnA)"

괴롭히는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이 괴롭히는 원인을 이해하고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이에게 상처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과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괴롭히는 일에서 멀어지게 할 새로운 관심사를 찾고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실용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부심을 높여주고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 좋은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도록 도울 것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bullying.co.uk, www.bullying.org, www.bullyonline.org를 방문하거나 검색엔진에 '집단괴롭힘'을 검색하라.

자료원

www.bullying.co.uk
www.bullying.org
www.bullyonline.org
www.bullybusters.org.uk
www.kidshealth.org
www.teenhelp.org
www.breaktheabusecycle.com
www.bullying.com.

유인물

역할극 장면

장면 1

어떤 학생이 교장에게 자신의 친구가 집단괴롭힘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한다. 교장은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다. 교장은 기준이 없고 요즘 젊은이들의 행동 대부분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학급의 담임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한다. 다른 교사들은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다. 지역의 관련 공공기관은 관심이 있지만 업무량이 많아 지금 당장 개입할 수가 없다.

장면 2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하급생을 괴롭히는 친구에게 말하려 하고 있다.

장면 3

여러 학생이 모여 상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들은 친구를 돕고 싶어 하며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이야기

이야기 1

"나는 12살이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 매일 나를 욕하는 애들이 있다.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창피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한다. 가장 친한 친구도 이제는 나와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놀리는 친구들과 사귄다. 그 애가 밉고 정말 외롭다. 정말 부모님이 나를 창피하게 생각할까봐 겁이 난다."

로잔나

이야기 2

"처음으로 대학교에 등교한 날 여학생들이 나를 이상하게 대한다고 느꼈다. 남학생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굴기 때문이었다. 사물함 문에서 협박 편지도 받았고 욕하는 전화도 받았다. 내 책을 훔쳐가고 지난주에는 3명의 여학생들이 화장실로 따라와 내게 소리를 지르고 칼로 위협하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했다. 나를 매춘부라고도 불렀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무섭고 화가 난다. 교장에게 말했지만 내 문제에 진실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

리즈베스

이야기 3

"제일 친한 친구가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애를 돕고 싶어서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말을 했다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둘 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우리를 놀리고 비열한 장난을 하고 때리겠다고 협박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사태가 악화될까봐 우리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안드레

아동

환경

건강

2단계

6명 이상
(소모둠 3-4)

60분

우리의 미래

우리 발전의 기준은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있는 가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주고 있는 가에 있다.

플랭클린 루즈벨트

주제
- 아동
- 환경
- 건강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6명 이상(소모둠 3-4)

시간 60분

개요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우리 세대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관심사항에 대해 그려보고, 숙고하며, 토론한다. 다음의 이슈들을 다룬다.
-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
- 지역개발이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는가?
- 개발을 추진하는 동력

관련 권리
- 의견 표명권과 정보 접근권
- 최선의 아동 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들을 권리
- 적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학습 목표
- 공동체 생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공개 토론, 팀워크, 비전 확립 등에 대한 기량을 연마한다
- 청소년 모두가 중요하게 보고 참여하는 것에 미래가 있다는 믿음과 관심을 키운다

준비물
- 초안 구성을 위한 종이
- 최종 디자인을 위한 큰 용지
- 물감, 붓, 필기구와 마커
- 콜라주 재료(예: 색종이, 잡지, 작은 가지, 쌀, 콩, 낙엽, 조개껍질, 빨대 등)
- 가위
- 풀과 테이프
- 10년 또는 20년 전 이웃이나 마을의 사진이나 그림(선택사항)
-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의 지도, 오래된 지도와 새 지도(선택사항)

진행

1. 시간에 따른 변화의 개념을 소개한다. 참가자들에게 어렸을 당시 살았던 집과 동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보도록 하고,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생각해보도록 한다. 학교나 지역 센터의 어떤 방의 실내장식이 바뀌었는가, 시설이 새로 바뀌었는가 혹은 새 가구가 있는가? 동네 인근에 새 건물이 생겼는가? 예를 들어 쇼핑센터, 주택단지, 도로, 놀이터, 자전거길 등이 생겼는가?

2.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 누가 새롭게 바꾸는 것과 어떻게 바꿀지를 결정했는지에 대해 물어본다. 예들 들어, 특정 주택계획이 매우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저비용으로 제공되는 것인가 아니면 금융회사가 투자로 지은 고급 지역 주민 아파트나 휴가용 주택인가?
3. 한두 가지 예를 간략히 토론한다: 개발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 사람들이 통제 하에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4.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인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과 연결시켜 본다. 인권이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체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미래에는 의사결정자에 있어 인권이 더 중요해질까? 덜 중요해질까? 왜 그런가?
5. 지금 이 순간이 기회이다.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숙고하고 영향을 주는 변화를 시작할 기회이다.
6. 3-4인의 소모둠으로 모이도록 한다.
7. 종이와 필기구를 나눠주고, 이상적인 이웃/마을의 미래 모습에 대한 아이디어를 초안을 만들거나 스케치해보도록 한다. 어떠한 규칙도 없으며, 한계는 단지 자신의 상상력일 뿐이다.
8. 각 소모둠이 초안에 대해 합의하면, 이를 큰 종이에 옮기고 색을 칠하거나 콜라주 재료로 완성한다.
9. 모든 작업을 마치면, 각 모둠마다 돌아가면서 계획을 발표하는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말한다. 각각의 발표마다 짧은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되, 일반적 토론은 디브리핑에서 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모둠에서 사람들이 함께 노력했던 방법에 관해 검토하고 이어서 그 계획이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환경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켰는지 또 못시켰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 모든 사람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고 느꼈는가? 서로 다른 소모둠은 어떻게 그 구성원 개인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했는가?
- 자신들이 만든 계획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
- 다른 모둠의 계획을 평가를 할 때의 기분은 어떤가?
- 만일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의 욕구와 영감을 충족시키는 학급이나 모둠의 계획을 설계해야만 한다면 자기 이상의 일부를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그 계획은 환경보호를 계산에 넣어서,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재생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며 재활용하는 것을 고려했는가?
- 참가자들이 '미래의 설계자'가 된 기분을 즐겼는가? 이러한 이상들이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가? 왜인가? 왜 아닌가?
- 참가자가 만든 계획이 어른들이 논의해 줄 만큼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아닌 이유는?
- 발표한 계획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 미래 시민으로서 권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 미래 시민으로서 의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청소년은 자신의 학교(동아리 또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립이나 일반적 정책수립에 있어서 발언권이 있는가? 그들이 자신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가?
- 자신의 삶과 미래를 형성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영향을 주기 위해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 모든 사람의 건강, 휴식 및 여가와 문화적 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지역 편의시설이 필요한가?

기 념 일

8월 12일
국제 청소년의 날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의 제목은 “우리의 미래”이다.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의도는 미래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상과 열망을 반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여러 개의 가능한 미래와 도전이 주어진다.

변화라는 개념을 강화하기 위해, 10년이나 20년전의 마을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오래된 사진을 보여준다. 또한 전 세계적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한다. 예를 들면, 30년 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오는 소재였으나, 그 후 몇 년 이내에 세계의 모든 학교와 도서관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만일 참가자들이 미래의 마을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려워하면, 다음 질문을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다.

- 여기에 누가 살게 되는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인가? 여기 살게 될 사람의 나이는 어느 정도일까? 가족을 이뤄 살게 되는가?
- 이들의 일상은 어떨까? 식료품은 어디서 사는가? 어디를 돌아다닐까?
-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병원이나 치과와 같은 복지 시설은 무엇이 있는가?
-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 어떻게 여행을 할까?
- 집은 어떤 모습일까?
- 그들의 사회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여가 활동으로 무엇을 할까?
- 반려동물을 기를까?
- 어떤 일을 할까?
- 어떤 첨단 기술 제품이 있을까?
- 환경은 어떨까? 자연환경은?

응용

콜라주 대신, 폐자재를 이용하여 모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골판지 상자, 포장재, 휴지심, 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건물용으로 레고 블록을 이용할 수 있다.

자기 지역의 모습에 대한 일반적 계획을 세우는 대신, 참가자들이 현재 사용되지 않으며 개발될 여지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본다. 모둠이 지역사회의 다른 영역에서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지방 의회에 제출할 제안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 장소에 배치할 선택사항으로는 쇼핑센터, 레저센터, 학교, 주택, 주차장, 개방 녹지, 놀이터, 스포츠장, 노인용 좌석이 배치된 조용한 장미공원, 도시텃밭, 야생동물보호구역, 놀이공원, 여행자용 공간이나 잔디 볼링장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프로젝트를 원하면, 3장에서의 실천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에 대한 정보를 참고한다.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당신이 사는 지역이 석유 고갈 및 기후변화라는 도전에 어떻게 적응하고자 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전환 마을(Transition Town) 계획은 자신의 지역사회의 모든 측면(식량, 에너지, 교통, 건강, 심신, 경제와 생계 등)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에 확정되고, 지역사회에 적용되는 15-20년 간에 걸친 ‘에너지 감축 실천 계획’을 시작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계획은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식량 생산을 위한 지역 텃밭 만들기, 한 분야의 산업 쓰레기를 다른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쓰레기 전환, 오래된 물품을 폐기하기보다는 수리하기, 지역화폐시스템(LETS) 만들기 등이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보려면, www.transitiontowns.org 를 참고하거나 검색엔진에 ‘전환마을(Transition Towns)’을 검색한다.

또 다른 후속 아이디어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대형 지도를 개성 있고, 특이하며, 삽화와 주석을 달아서 자신에게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도록 한다. 예를 들어, 벽 그래피티, 도로변 특정 나무, 도시내 지름길로 사용되는 비공식 통로 등이 있다. 무언가의 존재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이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첫 단추이다; 이것이 미래의 “개발”로 철거되는 것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www.commonground.org.uk 와 해당 사이트 내 교구 지도 프로젝트를 참고한다.

한 지역 내 자원, 특징, 풍경, 주요 토지 이용에 대한 위치와 분포를 찾아보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세계은행의 빈곤과 사회적 영향분석에서 사용되는 “가로질러 걷기(transect walk)”로 알려진 도구가 있다. 전원지역으로 나가고 싶다면 오후에 이것을 해보라! http://web.worldbank.org 에서 “가로질러 걷기(transect walk)” 검색.

지역개발 계획 과정과 이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여 학교, 클럽, 협회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더 나아가 선거에 출마한다. 미래를 위한 선택사항을 찾아보는 데 유용한 몇 가지 활동들이 있다. 예를 들어, 330쪽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 활동은 젠더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더 원한다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해 활동하는 179쪽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활동을 한다.

우리 미래에 대해 꿈을 꾸면서, 우리는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을 만들 수 있다. 모둠에서 집단괴롭힘의 문제를 돌아보고, 모두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키우고자 한다면, 264쪽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콜라주 전시회를 열고 지역 의원을 초대하여 당신의 견해를 들려준다.

당신 지역사회를 위한 전략 계획(연간 및 장기 계획)을 복사한다. 모둠 내에서 분석하고 이를 친구와 가족에게 자문을 받는다. 블로그를 만들거나, 지역 신문에 글을 쓰고, 해당 주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열거나, 해당 당국이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제공한다.

지역 의제 21(Agenda 21)이나 환경단체에 연락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건강

세계화

차별과 불관용

4단계

16-40명

190분

의약품 접근성

관심있는 시민들의 노력들이 모여 변화를 만든다.
자키 아흐맛, Treatment Action Campoaign(TAC, 의료 행동 캠페인)

주제
- 건강
- 세계화
- 차별과 불관용

난이도 4단계

모둠 크기 16-40명

시간 190분

개요 이 단원은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난 2011년 “AIDS 치료약” 소송을 모의 진행하는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HIV/AIDS)와 약품 접근성
- 상충하는 권리의 조율

관련 권리
-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
- 과학적 산물로 부터 발생하는 도덕적, 물질적 이익 보호에 관한 권리
- 건강권

학습 목표
- HIV/AIDS치료와 예방, 저렴한 의약품 제공 등에 관련된 건강권에 대한 인식 향상
- 소통, 협력과 합의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 습득
- 정의에 대한 연대와 이상의 증진

준비물
- 플립차트와 펜
- 법정 역할카드
- 진행방법 지침서, 1인당 한 부
- 작은 카드(10cm x 6cm). 참가자당 빨강과 초록 카드 각 1장
- 전체 인원 및 소모둠 활동에 충분한 공간

준비 작업

1부용:
- 법정 역할 카드를 복사한다. 1인당 한 개의 역할 카드

2부용:
- 참가자 수만큼 소모둠 진행 방법을 복사한다.
- 참가자 한 사람이 빨강/초록 카드 1장씩 갖도록 한다.

진행

이 단원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법정 소송의 모의실험이고, 2부는 합의형성과정이다.

1부. 소송(총 65분)

1. 장면을 설정한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HIV/AIDS)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심각한 전염병으로 특히 아프리카에 많이 퍼져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많은 수의 빈민이 비싼 약을 살 돈이 없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일한 선택은 값싼 복제약을 쓰는 것이다. 유수의 제약회사들은 복제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나라에서 복제약을 만들거나 그들의 약품을 싼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HIV/AIDS치료약을 복제하여 값싸게 배포하고 판매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였다.
2. 참가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01년에 있었던 소송의 모의실험 1부 또는 법률 예심에 참가하게 된다. 문제는 재산권이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권과 위엄을 유지할 권리를 위협해도 될 만큼의 가치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다.
3. 사람들을 동수의 4모둠으로 나누어 각각 제약회사, 남아프리카 정부, 치료행동캠페인(TAC)의 회원 및 판사 역할을 맡게 한다.
4. 역할 카드를 해당 모둠에 나누어준다.
5. 25분 동안 각자의 역할 카드를 읽어보고 소송에 대비하여 사례와 질문을 준비하게 한다. 각 모둠에서 한 사람씩 모둠을 대표할 발표자를 선발하고 한두 명의 자료 제공자를 뽑아 심리에서 발표자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돕도록 한다.
6. 모든 모둠이 준비가 되면 전체 회의를 소집하는데 기존 4모둠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한다.
7. 제약회사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TAC 모둠이 각각 5분씩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다. 판사는 각 모둠을 소개하고 차례로 말할 기회를 준다.
8. 이제 판사가 10분 동안 각 그룹이 제기한 모든 질문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절차상의 질문에 답하며 서로 다른 논점과 입장에 관하여 요약 정리한다.

2부. 합의형성 단계(총 100분)

1. 참가자들을 소모둠으로 나누어 4명씩 모이게 한다. 각 그룹마다 제약회사 직원,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공무원, TAC 직원, 판사가 한 명씩 있어야 한다.
2. 소모둠용 지침서를 복사해 나눠 준다. 각 참가자에게 빨강과 초록 카드를 각 한 장씩 나누어 준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 색깔 카드의 목적과 사용 방법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3. 상충되는 주장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30분의 시간을 준다.
4. 전체 인원을 다시 불러 모으고 각 그룹의 결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다. 각 그룹은 5분 동안 결과를 보고한다. 플립차트에 주요 해결책과 이슈를 적는다.
5. 모든 그룹이 자신들의 입장/해결책을 보고하고 나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사회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 쉽게 합의에 도달하였는가?
   - 그룹이 선택한 접근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해결책에 동의를 구하는 노력과 모든 구성원을 그 결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노력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가?
   - 가장 뜨거운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6. 다음의 2001년 4월 19일 법원 판결의 발췌문을 읽는 것으로 이 단원을 끝내도록 한다.

   “약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은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의도이다. 국가의 의무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적 책무는, 품위 유지와 생명 유지의 권리(다른 모든 권리의 원천이 되는)를 포함한, 기본권의 존중, 보호, 촉진, 충족에 있다. 동법에 대한 어떤 도전(예를 들어 제약회사들이 시도하는)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

디브리핑과 평가

2부의 토론 과정에서부터 이미 평가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전체 가정을 되돌아보고 이어서 소송의 배경에 있는 주요 인권문제를 확인하도록 한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이전에 이러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기 념 일

12월 1일
세계 AIDS의 날

-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어떠하였는가?
- 이 단원을 통해 처음 생각이 변화했는가?
- 사람들은 적대적 의사결정 방법과 합의적 의사결정 방법을 비교하였는가? 어느 방법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었는가? 결과가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권은 무엇인가?
- 종종 서로 다른 권리의 주장이 상충하는데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
-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사용하겠는가?
- 당신 나라에 그 HIV환자 소송의 판결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예를 들면 복제약을 구할 수 있는가?
- 당신 나라에서는 HIV/AIDS에 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더 실행되어야 하는가?

촉진자용 팁

주제가 복잡하고 참가자들이 주제에 내해 깊이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원이다. 두 파트를 같은 날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각기 다른 세션에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빨강과 초록 카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참가자들이 어떤 것이 의사결정을 돕고 어떤 것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2부 토론 마지막과 협상 단계에서 모든 참가자가 초록 카드를 들고 해결책에 동의하는 것이다.

2부에서 어떤 그룹은 합의에 다다르고 어떤 그룹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토론 과정에서 합의적 의사결정 과정의 장단점을 모두 체험하게 한다. 합의에 도달한 그룹에게는 그들의 최종 결론뿐 아니라 논의 과정 중의 입장 차이도 설명하도록 한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그룹은 어떤 것이 의견차를 좁힐 수 있게 했는지 어떤 것이 분열하게 했는지를 설명하게 한다. 주: www.coe.int/compass 5장 평화와 폭력에 대한 배경정보에서 합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HIV/AIDS 환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활동에 적용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제약사 회사들의 연합체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파머사(Pharma Inc.)라는 이름을 이 활동에서 사용하고 있다.

응용

이 소송을 취재하는 기자팀을 만들어 보고자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추가 사항이 필요하다: 카메라, 컴퓨터와 프린터. 소송 마지막에 기사를 보여줄 정해진 제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시간은 그들이 선택한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신문, 라디오, TV방송 또는 블로그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응용을 선택하려면, 언론인용 역할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위한 추가 15분이 있어야 하며, 언론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한 추가 10분이 더 있어야 한다.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건강이라는 주제에 관련하여 자기 나라에서의 생명권과 인간존엄에 관련된 점들을 논의한다. 뉴스 속 중대 사안(사례 이야기)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소모둠 토론에서 효과적이다.

전 세계적 건강과 인권문제에 대해 학습한다. 주요 NGO들(MSF, TAC, Christian Aid, Oxfam, Save the Children)과 국제기구(WHO)의 웹사이트 방문하거나 책자들을 찾아본다. 건강 이슈들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활동들을 찾아보고 플립차트에 정리한다.

TAC는 매우 성공적인 캠페인을 벌였으며, 남아프리카와 주변에서는 여전히 매우 활동적이다(참고 www.tac.org.za). 불행히도 모든 캠페인이 TAC가 목표를 이룬 것 같은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빈약한 조직과 비효율적인 홍보가 원인일 수 있다. 참가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고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캠페인 기법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304쪽 '조심하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혹은 130쪽 '도스타(충분해)!'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자신의 지역에서 건강 문제에 기여하는 인물을 찾아보고,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추가 정보

이 활동은 2001년 남아프리카 고등법원에서 다루었던 소송에 기초하였다. 남아프리카 제약사협회(The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South Africa)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와 TAC을 기소했다. AIDS로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의 시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HIV 치료제의 특허를 무시하고 값싼 복제약을 수입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양 측의 상반된 이해와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남아프리카 제약사협회 측은 재산권과 평등권, 또는 통상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인 정부와 TAC는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의 권리 등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내세웠다.

역사적인 재판에서 법원은 재산권이 인간 존엄성과 생명권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권리이므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하였고 제약업자들은 패소하였다. 이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의료 접근권을 위해 싸우는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승전보처럼 들렸다(NGO 연합 언론 배포 자료, 2001년 4월 19일). "이것은 강력한 다국적 제약회사를 상대로 얻어낸 가난한 이들의 귀하고도 매우 의미 있는 승리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도전과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약회사와 정부 모두와 함께 해야 한다"(케빈 왓킨스, 옥스팜). 2001년 3월 5일자 타임지(Time.com)에 이 소송에 대한 요약이 있다. 검색창에서 "AIDS Drugs Case Puts Our Ideas About Medicine on Trial(소송으로 의약품에 대한 우리의 이상을 보여준 에이즈 약품 사례)"로 찾을수 있다.

에이즈와 국제적 경향

부유한 나라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HIV/AIDS) 환자들은 국가가 무료로 공급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도움으로 상태가 좋아지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에 반해 남반구의 나라들은 약품을 구하지 못해 더 많은 사람이 HIV에 감염되고 더 일찍 죽는다. 이 나라들에서 에이즈 환자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인당 미화 10달러에 그치는 데 반해 북반구 나라들에서는 환자 1인당 사용하는 비용은 3가지 요법을 통해 연간 10,000달러에서 15,000달러에 이른다.

빈곤, 교육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전염병의 확산을 가속시키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서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제약회사를 포괄하는 도전과제이다. 에이즈에 대한 싸움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핵심 국제기구와 조직들에 주목해야 한다. 이 중 먼저 생각해 볼 곳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서비스무역협정(GATS)과 WTO의 법정 역할을 하는 분쟁해결기구 등이 있다.

HIV/AIDS를 해결하는 것은 UN새천년개발목표 중 하나이다.

유인물

법정 역할 카드

법정 역할 카드: 제약회사

당신은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인 파머사의 임원이다. 당신은 HIV/AIDS에 대한 핵심 치료약의 상용화 권리를 구매하였다. 당신은 이윤을 유지해야 하고 주주 배당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및 생산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판매가를 책정할 회사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 다른 회사에서 단순히 제품을 베껴 싼 값에 제품을 판다면 이윤뿐만 아니라 회사의 존립 가능성도 위협받을지도 모른다. 어떤 나라에서도 당신 회사의 약을 베끼거나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유수 제약회사들과 손을 잡고 연합을 형성하였고 필요할 경우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기소함으로써 소송을 시작하였다.

당신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논거를 준비해야 한다. 소송 중에 발표 시간 5분을 가지게 된다.

법정 역할 카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당신은 남아공 정부의 고위관료이다. 당신 정부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약 회사의 요청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파머사는 어떤 나라에서도 자신들의 약품을 복사하여 당신들이 정한 소비자가 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당신은 파머사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치료행동 캠페인(TAC)에서 이끄는 대중운동은 약품에 대한 접근권, 특히 HIV/AIDS 치료약에 대한 접근권 보장이 정부의 현 법상 책무라고 주장한다. 당신은 대중적 정치 압력을 수용하여 인도네시아 등에서 제조한 값싼(복제) 치료약을 수입하도록 허용하였다.

당신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논거를 준비해야 한다. 소송 중에 발표시간 5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법정 역할 카드: TAC(치료행동 캠페인)

당신은 남아공에 있는 TAC의 활동가이다. TAC는 약품에 대한 접근권, 특히 HIV/AIDS 치료약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응답하여 다른 나라에서 값싼 치료약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당신은 HIV /AIDS와 싸우는 환자와 단체들에게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공 정부는 제품 복제를 방지하고 저가 판매를 막으려는 제약회사에 의해 제소를 당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 약을 공급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옹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당신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논거를 준비해야 한다. 소송 중에 발표시간 5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법정 역할 카드: 판사

당신은 세계적 제약회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베껴 염가에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주재하는 판사이다. TAC의 활동가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당신의 역할은 각 당사자를 순서대로 불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게 하는 것이다. 진술의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거나 결론을 내지 않도록 한다. 당신의 역할은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상반되는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인권에 관한 상충되는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피고측(정부와 TAC)은 생명권과 존엄권을 주장하고 원고측(파머사)은 재산권을 주장한다. 법원의 공식기록은 다음과 같다:

"생명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는 인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다른 모든 권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식에 기반한 사회에 자신을 헌신하여, 다른 모든 가치보다 생명권과 존엄권이라는 두 권리를 소중히 보호해야 한다. 이 원리는 또한 범죄자의 처벌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어야 한다."

VS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 제25조에 의해 재산권이 보호된다: 재산 25(1). 일반적인 적용의 법칙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어떠한 법도 재산의 임의적 박탈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당신은 세 당사자에게 던질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데 필요한 10분이 주어진다.

법정 역할 카드: 언론인(선택 – 위의 "응용" 참고)

당신은 기자단의 일원이며, 이 소송을 취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당신의 임무는 소송을 보도하고 모든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은 판사, TAC, 정부, 파머사 등 각 당사자별 회의를 별도로 참여할 수 있다. 회의에 참여할 때는 단지 관찰만 허용된다; 모둠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회의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개별 면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진을 찍거나, 작업을 위해 컴퓨터, 인터넷,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재판 마지막에 자신의 취재 결과를 제시하며 보도 형식을 고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블로그, 신문 기사, 라디오나 TV방송 등이 있다. 보도의 설명을 위해 10분이 주어진다.

2부용 소모둠용 지침서

당신은 각기 다음 네 그룹을 대표하는 네 명의 구성원 중 한 명이다:

- 파머사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 TAC 활동가
- 해당 소송의 판사

지침

1. 각 참가자는 순서대로 자신과 자신이 대표하는 측, 즉 자신이 맡은 역할을 소개한다.
2. 다음으로, 각 참가자는 소송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느꼈던 것을 발표한다. 해결책을 찾기 쉬웠다고 생각하면 초록 카드를, 어려웠다면 빨간 카드를 보여주도록 한다. 카드를 사용하는 목적은 합의 형성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모두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3. 이제 당신의 역할은 구성원 4명의 합의를 토대로 한 만족스러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돌아가면서 토론하고 판사가 의장을 맡아 진행하되 자신의 의견은 끝에 제시하도록 한다.
   - 1차 토의: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다.
   - 2차 토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 3차 토의: 제안된 해결책들을 협상한다.
4. 서로의 의견을 경청한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도달하기 위해 각각의 의견 제시후에 참가자들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색카드를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5. 합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전체 앞에서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인권 일반

미디어

시민권과 참여

2단계

제한없음
(소모둠 3-4)

60분

인권 수호자들

내가 이것를 위해 살고 이루고 싶은 하나의 이상이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내가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상이다.

넬슨 만델라

주제
- 기본 인권
- 미디어
- 시민권과 참여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소모둠 3~4)

시간 60분

개요 이 활동에서는 인권 영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정보카드를 사용한다. 다루게 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정치적 탄압
- 20세기 인권운동가들
- 다양한 나라에서의 권리를 위한 투쟁

관련 권리
- 의사 및 표현의 자유
- 법 앞에서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고문과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자유

학습 목표
- 여러 나라에서 인권을 위해 싸운 사람들에 대해 알아본다.
-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기술 협동 및 단체 작업의 역량을 키운다.
- 인권에 관한 존중, 책임감 및 호기심을 증진시킨다.

준비물
- 소모둠당 30개 카드 1묶음
- 가위
- 봉투
- 선택사항: 카드를 튼튼하게 만들 때 사용할 빳빳한 종이조각과 접착제

준비 작업
- 참가자들이 소모둠 단위로 작업할 수 있도록 방을 배정한다.
- 소모둠별 카드 복사본 한 묶음을 준비한다.
- 30장의 카드 묶음을 잘라서, 잘 섞은 후 봉투에 넣어둔다. 묶음 별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행

1. 참가자들에게 3-4명씩 소모둠을 만들게 하고 각 모둠에게 봉투에 들어 있는 카드를 한 벌씩 나눠 준다.
2. 카드를 꺼내어 바닥에 앞면이 밑을 향하도록 하여 섞어 놓는다.
3. 각 카드는 여섯 명의 인권운동가의 생애애 있었던 사건들을 묘사한 내용이다. 모둠은 각 인물이 겪은 사건과 해당하는 인물을 짝짓도록 한다. 다 모으면 운동가에 대한 약력을 구성한다.
4. 인물별로 "5장 묶음"로 구성되어 있다. (즉, 1개의 "A", "B", "C", "D", "E")

기 념 일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5. 참가자는 순서대로 한 번에 한 장씩 카드를 집고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한다.
6. 자기의 카드를 조용히 읽어 볼 시간 몇 분을 준다.
7. 그런 다음 … 각 모둠에 시간을 주고 선택한 인물을 구축하기 위한 모둠별 전략을 짜도록 한다.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주어진다.
8.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각 모둠별로 대표가 그 인물 중 한 명에 대해 자신들만의 말로 소개하도록 한다. 차례로 모둠마다 한 인물씩을 발표하면서 모든 인물에 대해 발표를 마친다. 인물에 해당하는 " 조각"들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1. 활동이 얼마나 쉬웠는가? 모둠별로 각 인물과 사건을 연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였는가?
2. 어떤 인물이 이미 사람들이 들은 바 있었고, 어떤 인물이 새롭게 알게된 인물이었나? 인물들 중 누구는 들은 바 없고, 어떤 이는 매우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사람들은 어떤 정보에 놀랐는가? 가장 놀랍거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나?
4.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인용구를 선택하고 자신이 만약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게 한다.
5. 각기 다른 "투쟁가"들은 특히 어떤 인권을 주장했는가?
6. "영웅주의"는 인권수호를 위한 행동으로 적절하지 못한 방침인가?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유용한가?

촉진자용 팁

각 인물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으며,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의 일대기도 있다. 여기서 다른 인물 이외에도 수많은 인권 운동가가 있다.

만약 나침반의 예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함께 작업할 청소년에게는 동떨어진 인물로 보인다면, 짧은 소개 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당신 나라에서 잘 알려진 유엔 명예대사 4, 5명의 사진을 구해 큰 종이에 출력하여 벽에 붙인다. 구성원들에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묻고, 이들이 유엔대사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도록 한다.

또한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가들이 취한 입장을 따르도록 하는 "압박"을 전혀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주도록 한다. 인권을 위해 싸우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기 자신의 믿음과 능력에 따라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NGO를 통해 활동하거나, 청원활동을 조직하거나 직접 로비를 할 수 있다.

응용

소모둠 별로 빈 카드를 주고, 스스로 선택한 권리수호자의 짧은 전기를 적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모둠끼리 서로 카드를 교환한 후, 상대방의 "투쟁가"를 추정해달라고요청한다. 응용에서 깜짝 놀라게 투쟁가로 유명 인사나 팝스타들을 포함시키는 준비를 할 수도 있다. 모든 제안을 수용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성취했는지를 강조한다. 인권에 관해서 주어진 인물들의 기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참가자의 설명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이 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강력히 추천하는 바는 역사 속에서 인권을 위해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지식을 넓히도록 여기에 나온 인물들 외에 다른 인권운동가들에 대해서도 찾아보는 것이다. 자신만의 인권활동가들의 '초상화 갤러리'를 만들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의 여섯 인물을 시작으로 사진과 인용문과 약력이 적힌 카드조각을 붙이고 실내에 전시할 수도 있다. 각 참가자에게 다른 인권운동가를 조사하여 추가로 진열할 수 있게 한다.

여기 소개된 여섯 명은 모두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분야의 운동가들이다. 그러나 당신은 사회적, 경제적인 차원의 인권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치코 멘데스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데에는 몇 가지 통로가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89쪽 “관계맺기” 활동을 해보도록 한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 패키지 [모두 같고 – 모두 다르다]에 있는 “저녁 손님(Guess who’s coming to dinner)” 역할극을 통해, 당신 부모님에게 “적절하지 않은” 이성 친구를 데려올 경우 일어날 일을 다루는 장면을 연출해본다.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현재의 정치범이나 활동가 중 누군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가 “양심수”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해당된다. 편지를 쓰거나 캠페인을 조직하여, 사람들에게 이들의 존재를 알리고 관련인들에게 이들을 석방하도록 입력을 넣도록 한다.

추가 자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 운동을 지지하는 인권챔피언(Human Rights Champions)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https://www.standup4humanrights.org/en/human-rights-champions.html

유인물

토론 카드

A

“나는 백인들의 지배에 맞서 싸워 왔다. 나는 또한 흑인들의 지배에도 반대해 왔다. 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갖고 조화 속에 함께 살아가는 자유 민주 사회의 이상을 꿈꾼다. 이를 위해 살며 이루고 싶은 이상이다. 나는 이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

넬슨 만델라

A

“고통스러운 그러나 동시에 위안을 주는 어떤 조우의 결과로, 깊고 깊은 야만의 바닥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나는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울부짖었으며 고통의 피해자가 어떻게 자신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예브게니아 긴즈버그

B

움타타 근처 촌락에서 태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치러진 민주선거의 결과로 76세의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그의 삶은 아파르트헤이트 대항에 헌신하였으며,

B

1906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나 1977년에 모스크바에서 사망하였다. 교사와 언론인으로 조용히 살다 스탈린 정권에서 날조된 재판으로 테러분자로 낙인찍혔다.

C

이는 대다수인 흑인을 억압하기 위해 전 백인 정부가 사용했던 인종차별제도이다.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하는 투쟁에 헌신하였다. 여러 형태의 억압에 고통받았으며, 회합 참가를 금지당하고 가택에 연금되었으며,

C

무죄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밀고를 거부한 죄로 18년간 가혹한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혀 살았다. 처음 일 년 동안은 독방에 갇혀서 운동과 말하는 것, 노래하거나 낮에 눕는 것을 모두 금지당했다.

D

또한 체포되어 44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28년을 철창 속에서 가족과 자녀와 떨어져 지내야 했다.

D

나중에는 동료 죄수를 도운 죄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일 가혹한 시베리아의 다른 노동캠프로 보내졌다.

A

“나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이 나라가 우리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자명한 원칙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 원칙 안에 진실로 우뚝 서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자신들의 가진 개성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B

1929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다. 법률에 의해 흑인들은 버스와 극장, 영화관에서 별도의 자리에 앉아애 했고 백인들과 다른 우물을 사용해야 했던 시기였다.

C

그가 28세일 때 흑인 교회를 연합하여 인종분리에 대항하는 비폭력 행진을 조직하였다. 앨라배마 버밍햄에서 열린 이 시위에는 수백 명의 젊은 학생들이 지지를 표하기 위해 노래를 하였으며,

D

거리를 가득 채웠다. 경찰은 개와 고압 소방호스로 시위를 진압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

A

“비폭력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그것은 인류의 독창성이 만들어낸 그 어떤 파괴의 무기보다도 강력하다.”

마하트마 간디

B

영국제국이 인도를 강점하고 있던 1869년에 구자라트에서 힌두교 신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면서 몇 번이나 체포되고 수감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확고한 믿음인

C

비폭력과 종교적 관용을 어기지 않았다. 인도 내부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영국의 식민지배에 대항한 폭력 사태가 일어나자 폭력 사태가 끝날 때까지 단식하였다. 241마일의 인도 대장정을 이끌었으며,

D

추종자들에게 경찰과 군대의 가혹한 진압에 보복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2,338일 동안을 감옥에 있었으며 평생을 평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A

“나는 종종 울고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내 감정을 삼켰다.”

“꿈꿀 때 나는 아우슈비츠에 돌아와 있곤 한다.”

질리 슈미트

B

1924년 독일 튀링겐에서 신티족 순회공연자 가족으로 태어났다.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생존자로서, 나치 정권이 롬인들에게 자행한 일을 세상에 알리는 데 헌신해왔다.

C

질리는 1939년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체포되었다. 경찰 기록에는 “죄명: 집시”로 되어 있다. 현재는 체코가 된 레티에 있는 형무소로 보내졌으나 가까스로 탈출했다. 그 후 곧 다시 체포되었으며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로 추방되었다.

D

‘집시 가족 캠프’에서는 굶주림, 갈증, 질병, 폭력 및 죽음이 일상이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캠프에 살아있는 아동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음식과 옷을 훔쳤다. 가스실 목록에 두 번이나 이름이 올랐다. 다시 두 번째로 탈출했다. 모든 가족들은 나치에 의해 가스실에서 죽었다.

A

“알라여, 내 마음 속의 슬픈 노래를 죄수를 돕는 자에게 바칩니다. 이 어두운 시절의 느낌 – 절대로 가혹한 고문의 기억을 잊지 않으리라.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이런 비참함을 모르기를…….”

아왕 상졸(Ngawang Sangdrol)

B

티베트의 독립운동가로 불가의 승려이다. 단지 티베트 독립을 위한 평화시위에 참가한 죄로 중국 정부에 의해 열 살에 처음으로 체포되었다.

C

15살에 다시 체포되어 3년형을 받았다. 독립운동에 관한 노래를 부른 죄로 형기가 연장되었고,

D

감옥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티베트에 자유를”이라고 외친 죄로 다시 8년을 더 선고받았다. 현재 가혹한 고문 탓으로 신장에 문제가 있다.

차별과 불관용

문화와 스포츠

평화와 폭력

3단계

4-30명
(소모둠 4-5)

120분

인종차별에 맞서기

모든 이는 인종혐오와 인종차별사건을 감시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다!

주제
- 차별과 불관용
- 문화와 스포츠
- 평화와 폭력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4-30명(소모둠 4-5)

시간 120분

개요 이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아래 이슈를 알아보는 중대 사건들에 대한 역할극을 한다:
- 인종차별, 고정관념, 문화적 차이
- 일정 유형의 인종차별과 편견의 확산, 특히 롬인(집시)에 대한 확산
- 학교를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인종차별을 다루는 법

관련 권리
-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학습 목표
- 문화적 차이와 제도적 인종차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 민주적 참여, 소통 및 협력에 대한 능력을 개발한다.
- 책임감, 정의 및 연대의식을 촉진시킨다.

준비물
- 큰 종이나 차트용지, 마커
- 역할 놀이를 할 4명의 지원자
- 역할 카드
- 중대 사건 카드
- 촉진자 지침
- 인종차별 사건에 대한 학교 정책 및 지침: 2명 당 하나 이상
- “실용적 고려 사항”을 복사하거나 큰 종이에 요점을 적어 활용한다.
- 종이와 필기구

준비 작업
- 중대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자기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 4명의 지원자를 뽑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중대 사건에 대한 아주 짧은 역할극을 준비하도록 요청한다.
- 중대 사건 장면 카드 5부(역할극 배우 및 촉진자용)
- 촉진자 지침서 사본 1부

기 념 일

3 월 21일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진행

이 활동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1부는 우리가 인종차별이라는 용어에 의해 이해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2부는 당신의 학교, 동아리, 조직에서 인종차별 사건을 다루는 정책안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1부. 검토: 우리가 인종차별이라는 용어로 이해하는 바는 무엇인가?

1. “인종차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2. 인종차별 사건과 잠재적인 다문화간 오해는 매일 일어난다. 사람들이 인종차별자로 구별되는 일상적 사건과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브레인스토밍한다.
3. 역할극을 연기할 자원자 4명을 요청한다. 그들에게 중대 사건 카드와 역할 카드를 주고 15분 동안 준비할 시간을 준다.
4. 다른 사람들은 모두 관찰자 역할을 한다. 종이와 펜을 나눠 받고 3개의 짧은 장면을 보게 된다. 관찰자들이 자신의 반응을 요약해서 키워드를 적도록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5. 자원자들의 역할극 시연을 요청한다.
6. 마지막에 짧은 디브리핑을 진행한다:
   a. 첫 번째 휴식 시간에는 무엇을 적었는가? 참가자들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가?
   b. 두 번째 휴식 시간에는 무엇을 적었는가? 참가자들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가?
   c. 마지막에 참가자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추정을 하고 있었는가?
7. 교사들, 귤라의 아버지와 교장이 정당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토론한다.

2부. 인종 차별 사건을 다루는 정책 초안 만들기

1. 2부는 학교에서 인종차별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고 학교 정책을 입안하는 활동이다.
2.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짧은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학생, 교사, 학교장, 청소담당직원, 사서, 학교버스 기사, 운동부 코치 등이 있다.
3. 다음으로 참가자들을 4-5명씩 소모둠을 구성하도록 하고 인종차별 사건에 관련하여 서로 다른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모둠에게 30분 동안 토론하고 핵심을 정리하여 차트 용지에 적도록 한다.
4. 참가자들이 전체로 모여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한다. 촉진자는 칠판이나 차트 용지에 핵심을 정리한다.
5.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학교에 이미 시행되는 정책이나 지침을 검토하도록 한다.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6. 이제 참가자들에게 정책을 개발하도록 격려한다. 각 소모둠 별로 한 가지 측면(단계나 수단)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만약 인종차별과 차별에 관한 학교 기본 성명이 필요하다면, 한 모둠은 성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전체 모둠들은 이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느낌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콜라주, 신체 조형 등을 활용한다.
7. 전체로 모여, 자신들의 결과를 보고하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토론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활동 자체와 위험에 처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어서 사람들이 무엇을 배워야하고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논의한다.

- 당신이 다니는 학교와 크게는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어떻게 퍼져있는가?
- 당신이 다니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

- 다른 집단보다 더 자주 목표가 되는 집단이 있는가? 어떤 집단인가? 왜 그런가? 20년이나 50년 전에도 같은 집단이 목표가 되었는가?
- 당신 나라나 유럽 내 다른 나라에서 롬인(집시)은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가?
- 당신의 롬인(집시)에 대한 고정관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한 고정관념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 중대한 사건에서는 어떤 인권이 위태로운가?
- 본 활동을 통해 무엇이 인종차별 사건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이 바뀌었는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예를 든다면?
- 당신 학교나 조직에서 인종차별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 인종차별 사건을 다루는 정책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없다면 더 좋지 않을까? 당신 학교나 크게는 사회에서 인종차별적 행동의 근본적 원인을 뿌리 뽑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할까?

촉진자용 팁

참가자들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라 활동을 조정한다. 자신들 현실 문제를 다루게 되면 사람들은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결과로 나타날지 모를 참가자들의 감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스스로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참가자들의 감정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레인스토밍이 활동을 시작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인종차별적 농담을 던짐으로서 참가자들을 활발하고 도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학급이나 모임에서 해당되지 않는 집단에 대한 농담을 고르도록 해야 한다. 모든 나라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농담하는 전통이 있다. 모둠에게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인종차별적 농담과 비인종차별적 농담 사이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간다. 예를 들어, 롬인(집시)이나 유대인에 대한 농담은 민족주의적인가? 인종차별적인가? 이러한 논쟁은 인종차별적 농담과 인종차별 사건의 정의에 대해 이어갈 수 있다. 아래의 '추가 정보'를 참고하라.

1부 5단계에서, 토론 연극이나 이미지 연극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1부 6단계에서, 참가자들이 매우 감정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이는 참가자들이 각 장면의 마지막에 하게 되는 메모에 반영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역추적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당신이 이를 더 명확히 하고 배우들이 해야 할 바에 대해 집중한다면 더 잘 진행될 것이다.

2부 4단계의 마지막에서 만들어진 결론이 참가자들이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히 모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현실적 요점들"이라는 유인물을 사용하여 모둠이 첫 4가지 단계를 수행하도록 격려한다.

응용

이 활동은 '집단괴롭힘'같은 문제를 다루는 데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만일 '집단괴롭힘'이 주제라면, 집단괴롭힘 방지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 264쪽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라는 활동을 우선 해볼 수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예들 들어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해당 상황과 정책을 검토한다. 정책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정책들이 변화하는 도전과제를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캠페인을 하고자 한다면, 130쪽 '도스타(충분해)!' 활동이 캠페인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선입견과 차별에 대해 다루는 다른 활동으로는 105쪽 '내 삶은 쇼가 아니다'가 있다. 이 활동은 사이버 집단괴롭힘을 다루고 있다. 참가자들이 쟁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보고자 한다면 174쪽 '모두를 위한 스포츠'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자신의 학교나 조직에서의 인종차별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본다. 참가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인종차별반대 운동에 연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인종차별 없는 학교(Schools Without Racism)'가 있는데, 학교구성원의 60% 이상이 서명하고 인종차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http://members.multimania.nl/astrada/szr/swr.html

추가 정보

인종차별의 정의

인종차별은 일반적으로 피부색이나 문화 또는 인종적 기원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행동, 말이나 관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교묘한 형태의 인종차별도 공공연한 인종차별만큼 피해가 크다.

제도화된 인종차별은 피부색이나 문화, 인종적 기원을 이유로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의 포괄적인 실패를 말한다. 이는 소수민족에 대한 자신도 모르는 편견, 무지, 몰상식,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통한 차별로 불이익을 주는 절차, 태도, 행동에서 보이거나 감지될 수 있다. 인종차별 사건들과 괴롭힘은 어느 조직에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민족 구성원의 수와는 상관없다.

인종차별 사건이란 피해자나 다른 제3자에 의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인식되게 되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신체적 학대: 소수자 집단의 아동과 성인들에 대한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적인 공격과 같은 보다 명백한 예와 함께, "사소한" 협박과 같은 사건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사건도 여기에 포함된다.

언어적 학대: 소수자 집단의 사람들을 향한 욕설, 특정인의 배경과 문화를 조롱하는 행위(예: 음악, 복장, 식단)는 가장 명백한 예이다. 다른 유형의 언어적 학대들도 있는데, 덜 명료하지만, 교사, 학생이나 다른 성인들이 별생각 없이 내뱉는 인종차별적 표현들이 듣는 이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경우이다.

비협조와 무례함: 학교나 교육기관 내에서 소수인종 출신의 학생, 교사, 코치, 청소년 지도자 등에 대해 사람들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존중하기를 거절하는 행위는, 인종차별적 동기의 증거가 있거나 "피해자"가 인종차별적 동기가 있다고 인식한다면, 인종차별 사건에 해당된다. 또한 무례함도 경솔한 행위가 되는데, 예를 들어, 교사나 코치는 피해자가 괴롭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학생의 문화적 행태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기타 사건들: 인종차별적 농담과 인종차별적인 어휘의 사용, 인종차별적인 휘장이나 배지를 차고 티셔츠 등을 입는 행위, 인종차별적 낙서, 인종차별적 인쇄물이나 포스터의 배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인종우월주의 단체나 파시스트 단체의 존재,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성인에 의한 고정관념을 만드는 행위.

많은 인종차별 사건들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처리하기도 어렵다. 학생들이 저지르는 인종차별 사건은 교사나 성인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학교 당국이 인종차별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인종차별 사건에 대해 민감해지고 책임감을 가지며, 보고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반집시주의, 롬인(집시) 혐오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coe.int/ compass의 5장 "차별과 불관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인물

역할 카드

교장 역할 카드

당신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안전과 도난에 관련된 학교의 평판이다.

교사 1 역할 카드

당신은 학교에서 돈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지난 주 귤라가 휴대폰을 가지고 학교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사 2 역할 카드

당신은 귤라의 담임이다. 귤라에 대해 꽤 잘 알고 그를 좋아한다. 귤라는 열심히 공부하는 친절하고 사려 깊은 소년이지만, 친구가 없다.

아버지 역할 카드

귤라는 좋은 애이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항상 귤라가 숙제를 마치고 축구하러 가는 지 확인한다. 지난주는 귤라의 생일이었다.

중대 사건

각 장면은 교장실에서 일어난다.

장면 1: 교장, 교사1, 교사 2

교장, 교사 1과 2는 최근 학교에서 분실사건이 급증한 것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예를 들어, 펜이 없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어서 몇 가지 것들도 분실되었으며 대부분 돈이었다.

누가 그랬는지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범인으로는 롬인(집시) 아동인 귤라이다.

휴식 시간: 3-5분

장면 2: 교장, 귤라의 아버지, 교사 1

교장은 귤라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압박한다. 아버지는 귤라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사과하고 훔친 돈을 갚겠다고 제안한다.

교장과 교사는 이 상황이 어색하다고 느끼면서 이것을 비밀로 하자고 약속한다. 귤라는 학교에 남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잘 감시하기로 한다.

휴식 시간: 3-5분

장면 3: 교장, 교사 1, 2

교장과 교사 1은 학교 내 개선된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서 기뻐하고 있다.

교사 2 입장: 경찰이 교문에서 소매치기 혐의로 귤라가 아닌 학생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 다른 학생이 돈을 모두 훔쳤다고 명백하게 자백했다.

이들은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휴식 시간: 3-5분

촉진자용 가이드라인

지원자들이 역할극을 시작하도록 한다. 장면 사이 휴식 시간마다 질문을 던지고 발표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요약하여 몇 개의 핵심 단어로 간추려 적도록 한다.

첫번째 휴식 시간: 관찰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 만약 당신이 교장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두번째 휴식 시간: 관찰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 사건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세번째 휴식 시간: 관찰자들에게 세 번째 질문: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인종차별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실질적 사항.

인종관련 괴롭힘과 인종차별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정책 개발과 시행에서 전체 학교(조직) 단위의 접근이 요구된다. 인종차별 사건에 대한 접근방식은 학교/조직의 일반 정책 및 관행과 맞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슈는 "특별하지만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실무적 지점은 다음과 같다:

- 인종차별 사건이나 인종관련 괴롭힘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정책 성명이 필요하다.
- 정책상에서, 학교는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처리 절차와 같은 명확한 문건을 만들어야 한다.
- 사건 처리를 위한 절차와 합의 활동을 포함하는 전체 학교의 접근방식은 학교 공동체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되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교육감, 교직원(교사 및 직원), 보호자,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생, 방문객이 포함된다.
- 학교 공동체의 모든 이들은 인종 관련 괴롭힘과 사건을 감시하고 해결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 관련자 모두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 수 있도록 접근방법에서 일관성이 주어져야 한다.
- 사건이 발생하거나 보고되는 시점에 바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사건에 대한 모든 후속 조치는 합의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원: http://www.northants-ecl.gov.uk/apps/IPS/msc/rig/hme.asp

노동

젠더

차별과 불관용

2단계

10-25 명
(소모둠: 5)

90분

일과 육아

직업을 갖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아이 갖기는 포기하세요!

주제
- 노동
- 젠더
- 차별과 불관용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10-25명(소모둠 5)

시간 90분

개요 다음 이슈를 다루는 역할극이다.
- 직장에서의 출산권
-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관련 권리
- 바람직한 직업을 가질 권리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 결혼과 가족의 권리
- 차별로 부터의 자유권

학습 목표
- 여성의 출산권에 관한 지식을 발전시킨다.
- 비판적 사고와 토론의 능력을 개발한다.
- 열린 마음, 정의감, 사회적 책임감을 발전시킨다.

준비물
- 큰 종이, 차트용지 또는 칠판, 마커
- 소모둠 활동과 역할극이 가능한 공간
- 역할극을 위한 소도구, 탁자와 의자, 펜과 종이

준비 작업 시나리오를 칠판에 쓰거나 큰 종이 또는 차트용지에 적는다.

진행

1. 이 단원은 직장에서의 여성의 출산권에 대한 역할극임을 설명한다. 참가자들이 여성의 출산권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2. 소모둠으로 나눈다.(소모둠 별로 5인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상황 카드를 읽어준다.
4. 소모둠 별로 20분을 주어 이야기의 결론을 만들고 역할극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역할극은 마리아와 인사담당자의 면담에서부터 시작하며 5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각 소모둠이 모여 역할극을 진행한다. 코멘트는 디브리핑 시간에 하도록 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각 소모둠이 자신들의 역할극을 개발한 방식의 피드백과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논평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어서 이러한 종류의 차별에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 이 상황에 놀란 사람이 있었는가? 이러한 상황이 당신 나라에서도 일어나는가?
- 각 모둠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는가?
- 결말이 현실적인가? 마리아가 상황에 대처한 방식에 있어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약점인가? 이 상황의 경우 공격적이거나 순종적이기 보다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 당신 나라에서, 임신한 여성이 직장에서 가지는 인권은 무엇이 있는가?
- 왜 회사 측은 마리아에게 그러한 조건을 부과하길 원하는가? 그 조건은 공정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인권이 침해되었는가? 침해되었다면 어느 인권이?
- 만약 마리아가 남자였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 이유는? 아닌 이유는?
- 남자는 여자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가?
-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촉진자용 팁

소모둠에 성별 균형을 맞출지 말지 고려한다. 경험에 의하면 단일 성별로 조를 편성하면, 더 도발적인 결론과 풍부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출산권"이라는 용어와 친숙하지 않다면 몇 가지 아이디어로 이 인권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출산권은 다음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감염과 질병에 대한 공포가 없는 성관계를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권리
- 자녀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선택
- 여성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하며, 사생활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공감하는 낙태 제공을 통한 가족계획 서비스 제공.
- 성교육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가에 대한 디브리핑 활동에서의 질문은 낙태에 관한 여성의 출산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 논쟁의 여지가 많은 문제임을 명심하라. 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특히 인권 교육과도 관련이 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마음을 열고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려야 하며, 비판적 사고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인권문제의 타고난 복잡성을 잘 시사할 수 있는 주제이다. 만약 이 논쟁이 제기된다면, 촉진자는 이 과정을 이와 관련된 다른 인권 토론과정으로 미루도록 한다.

응용

67쪽 포럼 연극 기법을 사용한다. 소모둠으로 나누는 대신 두 명의 자원자를 뽑아 마리아와 블래드스톡 씨의 역할극 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관중을 맡는다. 역할극을 진행할 때는, 역할극 도중에 막간을 두고 역할극을 관람하고 있는 참가자들에게 이 다음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는 관객이 배우 역을 대체해 상황을 다른 각도로 조명하고, 역할극의 방향을 바꾸어도 된다.

역할극 내에 다른 역할을 삽입해도 된다. 마리아의 남편이 등장할 수도 있고, 남편이 노동조합 대표역을 해도 된다. 역할극은 인력개발팀 면담을 넘어설 수도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평범하게 쓰이는 이름을 자유롭게 붙여도 된다.

역할극 놀이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연하기를 해도 된다. 참가자를 작은 모둠으로 나누고 이야기 사본을 나눠준 후 토론하고 자신의 연극 결말을 작성하도록 한다. 그 뒤에 총회에 되돌아와 그 서로 다양한 결말을 비교한다.

기 념 일

5월 15일
세계 가정의 날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만일 성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의 한 부분이라면 선생님에게 이 290쪽 '일과 육아' 활동을 수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묻는다. 대체안으로 이 활동이 사회학 연구나 역사 교육 또는 여성의 날(3월 8일) 혹은 세계 가정의날(5월 15일) 기념행사와 함께 실행될 수도 있다.

모둠은 자신의 나라에서의 출산권에 대해 연구를 더 해볼 수도 있다. 뒤이어 여성과 고용주를 모두 인터뷰하여 법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자신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성교육이 임신출산권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루는가?

직장에서 일어나는 다른 형태의 차별에 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면, 309쪽 '차별임금' 활동을 해 본다.

실천 아이디어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연합회 등에서 출산권 문제를 다루어본다.

여성의 출산권을 위해 일하는 지역 NGO를 조사해서 그들의 토론과 캠페인에 참여한다.

추가 정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시민적 권리 이슈와는 별도로, 이 협약은 여성의 가장 필수적인 관심사, 즉 출산권에 가장 주의를 기울인다. 협약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논조를 잡는다.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역할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관심사이다. 예를 들면, 제5조 "모성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서 육아 책임에 대한 남녀분담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와 육아를 위한 법 규정을 핵심적인 권리로 선언하고 고용문제, 가족법, 보건, 교육을 포함한 협약 전체에 담겨있다. 보육시설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여성이 가정에 대한 의무와 직업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사회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에서 협약은 또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다. 특히 가족계획을 언급한 유일한 인권협약이다(제10조 h항). 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가족법 제정을 권장한다.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에의 접근권"(제16조 e항)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법의 제정.

www.un.org/womenwatch

유인물

시나리오

마리아는 거의 일 년 동안 고용되지 못했으며 열심히 직장을 구하고 있다. 열흘 전에 꿈꾸던 직장의 면접을 보러 갔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찾아왔던 직장이었다. 모든 일은 잘 진행되었고 자리까지 제안받았다. 회사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인사담당자를 면담하도록 했다. 면담에서 이미 마리아는 취업 조건과 기타 직무관련 문제들을 논의했다. 마리아가 계약서에 막 서명하려는 순간이었다. 인사담당자는 마리아가 향후 2년간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말했다.

일하고 싶다 !

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주제	•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 노동 • 차별과 불관용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20명
시간	120분
개요	본 활동은 역할극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될 권리에 대한 이슈를 탐구한다.
관련 권리	• 일할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학습 목표	• 직장과 사회에서 장애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것을 이해한다. • 자기 옹호의 기술을 익힌다. •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키운다.
준비물	• 역할카드 사본 • 관찰자들을 위한 펜과 종이 • 역할극을 위한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 관찰자들을 위한 의자
준비	역할카드를 복사해 둔다.

진행

1. 참가자들에게 '일할 권리'에 대해 물어본다. 아직 장애의 측면에 대해 다루지 않으면서, 이 활동의 뒷부분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인권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2. 이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장벽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다.
3. 참가자들에게 당신은 작은 회사의 고객서비스부서의 사무보조를 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면접을 하는 역할극을 할 것이라 설명을 한다. 신청자 각자는 하나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면접을 보는 고용주의 역할을 할 5명과 신청자 역할을 할 5명의 자원자를 요청한다.
4. 역할카드를 나누어 준다. 각 역할을 맡은 이는 자기 역할의 개발을 도와줄 한두 명의 친구를 선택하도록 한다. 준비를 위해 10–15분 정도를 준다.
5. 방 중앙에 테이블과 2개의 의자를 배열한다. 나머지는 관찰자로서 각자 자리에 있도록 한다. 한 관찰자에게 시간을 재도록 요청한다.
6. 역할극을 시작한다. 첫 번째 고용주에게 첫 지원자를 부르도록 한다. 면접은 간략하게 5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7. 두 번째 고용주는 테이블 뒤쪽에 자리를 잡도록 하고, 두 번째 지원자의 면접을 본다.
8. 모든 면접이 끝났을 때, 참가자는 역할에서 빠져나와 관찰자와 함께 디브리핑과 평가를 함께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면접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이 역할극 동안 어떻게 느꼈는가? 좋았던 것과 그렇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 당신의 역할에 얼마나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다음으로, 면접을 했던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

- 이 역할극 동안 어떻게 느꼈는가? 좋았던 것과 그렇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 당신의 역할에 얼마나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다음으로, 관찰자에게 의견을 묻는다:

-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 면접을 하는 사람은 면접을 보는 사람에게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었나?

이제 모든 사람들과 토론을 시작한다:

- 당신은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의 일할 권리가 실제로 보장된다고 생각하는가?
- 장애인들이 실업비율이 높은 주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공정한가?
- 누가 장애인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할 책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을 경험한 이를 알고 있는가? 당신은 이런 차별을 경험했는가?
- 어떻게 사회 내 차별적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어떤 인권과 관련되는가?

촉진자용 팁

참가자는 그들의 역할을 과장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실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가능한 한 가깝게 행동하도록 노력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악덕’ 고용주의 역할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면접을 하는 동안 역할극에 참가하지 않은 참가자는 조용하게 관찰하다. 역할에서 묘사하는 방식과 고용주나 신청자 입장에서 받는 특정 어려움에 대해 주목을 한다.

장애인을 위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해야 하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예시가 포함되어 있는 역할 카드의 정보를 면접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장애인과 청소년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태도를 바꾸려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행동 과정을 논의해 볼 수 있다. 또한 역할극을 하면서 ‘고용인’이 장애나 장애인에 대해 보여주는 전형적인 태도의 정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를 제시할 수 있다:

- 직장에서의 장애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의 부족
- 장애인들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의 부족
- 많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저급한 일들
- ‘잘못된’ 근거에 따른 고용(예: 법/할당량을 준수하지만 편의제공은 하지 않음)
- 새로운 기술과 기술 적응에 대한 두려움
-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숨기려 하는 경향

자기 변호를 하여 고용주의 책임과 장애인의 책임 둘 다 강조하도록 한다. 당신은 장애인들이 종종 고용과정에서 자신의 장애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하고 싶을 수도 있다. 참가자들은 이런 예를 알고 있는가?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는가?

응용

참가자들에게 업무설명과 개인 프로필을 담은 구인 광고를 미리 작성해보도록 할 수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모둠 구성원들의 가능한 시간과 장애과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다음의 권장사항을 개발해보도록 한다:

- 고용주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노동권에 대한 태도와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 운영

30분 동안 모둠별로 토론하고 플립차트를 작성하게 한 후, 각 모둠은 5분 동안 플립차트를 발표한다.

만약 이 모둠이 역할 놀이를 즐기고 워킹맘의 차별에 관한 문제를 탐색하기 원한다면, 290쪽 ‘일과 육아’ 활동이 좋을 것이다.

일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또 다른 활동은 117쪽 ‘노사 협상’이다. 이 활동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노조 대표들과 함께 임금과 고용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회의의 모의실험이다.

장애인들의 노동 환경은 정치인들에 대한 강경한 로비를 통해 개선되었다. 당신이 어떤 정치인을 뽑을지는 정말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시민 참여에 대한 태도를 알아내기 위해 조사하기 원한다면, 324쪽 ‘투표할 것인가, 말것인가?’ 활동을 이용한다.

실천 아이디어

지역 내 단체나 회사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한다. 모둠에서 그 조직이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요구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해볼 수 있다.

추가 정보

장애관련 상세 정보(유럽 장애인 포럼)

- 유럽연합 내 장애인 수: 6,500만 명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실업률이 2-3배 높다.
- 업무에서 제한이 있는 이들 중 단지 16%만이 작업 보조를 지원받는다.
- 많은 장애인들은 “실망실업자”로서 노동시장 진입조차 시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노동시장의 참가가 낮아진다. 비장애인은 68%가 일하는 반면, 중증장애인의 20%만이 일을 한다.
- 유럽전역에서 16-34세의 장애인중 38%는 수입이 있는데, 이는 비장애인 64%가 수입이 있는 것과 비교된다. 장애인의 소득은 비장애인의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다.

출처: www.edf-feph.org

기 념 일

10월 7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행동의날

유럽평의회의 회원국의 인구는 8억 명 정도로 추정되며, 유럽 내에 8천만 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0억 명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가 있다고 추정한다. 전쟁과 파괴, 건강하지 못한 생활환경, 장애와 그 발생원인,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 여성, 아동, 노인, 고문 피해자, 난민 및 실향민,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은 특히 더 취약하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여성은 성별과 장애라는 두 가지 이유로 더 차별을 받는다.

일할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일할 권리를 인정하며 (…)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유럽사회헌장(ESC)

제1부

누구나 자유롭게 (…) 자신의 직업을 통해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 조건을 가질 권리가 있다.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은 2007년 3월 서명으로 체결되었으며 2008년 5월에 발표되었다.

제27조: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노동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작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

합리적인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직무 수행 및 직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제공되는 편의를 동동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일이나 업무 환경, 업무 수행 방식의 변경이나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타자원은 일반적인 컴퓨터와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제공 개념을 개발하였다. 업무 현장의 일부 측면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때, 고용주는 근로 환경을 “균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협약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그러한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간주된다.

장애 및 인권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hrea.org을 참조하십시오.

유인물

역할 카드:

지원자 1:

당신은 난청이 있다. 좋은 조명 상황에서는 입술 모양을 잘 읽는다. 항상 당신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예를 들면, "내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회사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면, 회의실에서 인덕션 루프(소리를 보청기로 직접 전달해주는 무선장치), 증폭기가 달린 전화기와 조명이 있는 알람과 문자전화장치가 필요하다.

면접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요청할지, 그리고 어떻게 요청할지를 생각해본다.

지원자 2:

당신은 듣지 못하며 수화를 사용한다. 면접에는 통역자가 필요하며, 이는 면접시간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근무 공간에서는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문자전화장치(일종의 전신타자기 – 전화선을 통해 음성대신 텍스트를 사용하는 장치)나 문자중계서비스(청각장애인, 난청, 언어장애인 또는 농인은 키보드나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 일반전화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운영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면접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요청할지, 그리고 어떻게 요청할지를 생각해본다.

주의: 다른 참가자에게 통역자가 되어 달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지원자 3:

당신은 시각장애인이다. 면접장까지 이동하려면 활동지원사가 동행하여야 하며, 이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터에서는, 특수 키보드와 화면을 “읽어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돌아다니기 위해서 안내견도 필요할 것이다. 당신은 고용주들이 당신이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대한 비용과 유용성 때문에 당신을 고용하기 꺼린다는 점을 알고 있다.

면접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요청할지, 그리고 어떻게 요청할지를 생각해본다.

주의: 동행할 다른 참가자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지원자 4:

당신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 건물 가까이에 주차공간이 있고, 휠체어를 타고 모든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사무실, 그리고 공용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물이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 구역으로 가는데 계단이 있다면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휠체어가 들어가는 책상을 포함한 개조된 업무 환경이 필요하다.

면접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요청할지, 그리고 어떻게 요청할지를 생각해본다.

지원자 5:

당신은 난독증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읽고 쓰기가 필요한 일을 찾고 있는 중이다. 직장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만큼 읽고 쓰는 데 능숙하지만, 시끄럽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과 짧은 기한을 가진 일을 마치기는 어려워한다. 지원 과정의 일부로 완성해야 하는 글쓰기 테스트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면접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요청할지, 그리고 어떻게 요청할지를 생각해본다.

고용주 역할 카드:

고용주 1:

당신은 난청이 있는 이를 면접하게 된다. 입을 반 쯤 닫은 채로 면접을 진행하며, 자주 시선을 돌리고, 입을 잘 보기 힘들 정도로 조명이 어두운 곳에 앉아있다. 말을 빨리하고 참을성이 적으며, 지원자가 요청한 해명 질문에 답하기를 꺼린다. 지원자가 질문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하면, 마지못해 과장되게 말해서, 지원자가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게 한다.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을 생각해본다.

고용주 2:

당신은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이를 면접하게 되며, 수화통역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면접에서 지원자가 아닌 통역사에게 말을 한다. 당신은 서두르며 당신의 말이 통역되거나 지원자가 통역사에게 말을 전달하는 동안의 기다리는 시간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자주 청각장애인의 말을 끊는다. 당신은 청각장애인이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고, 당신은 면접에서 수화통역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또한 당신은 청각장애인은 직장에서 항상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며 신청자가 이를 부인하더라도, 당신은 사무실에 추가로 누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을 생각해본다.

고용주 3:

당신은 시각장애인을 면접 보게 되며, 그 일에 시각장애인이 절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신은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술에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어쨌든 시각장애를 보완하기 어렵다고 믿는다. 또한 다른 직원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걱정한다.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을 생각해본다.

고용주 4:

당신은 휠체어를 탄 사람을 면접 보게 된다. 그들은 휠체어 접근성에 대해 물어볼 것이고 건물은 휠체어 사용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지 그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에, 장애를 이유로 들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 지원자가 해당 업무에 매우 적합하다고 정말 믿지만, 다른 변명과 이유를 찾고자 한다.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을 생각해본다.

고용인 5:

당신은 난독증이 있는 이를 면접하고 있으며, 그의 이런저런 요청사항에 짜증이 난다. 모든 지원자들은 그들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시험을 보았고 당신은 이 지원자에게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당신은 그들이 주어진 시간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조건하에서 글을 쓸 수 없다면 그들에게 그 일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을 생각해본다.

전면 기사

자유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비판의 부재이다.

웰레 소잉카

주제
- 미디어
- 세계화
- 환경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10–24명(소모둠 4–8)

시간 180분

개요 이 활동은 곧 인쇄될 신문 전면을 준비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모의실험이다. 참가자들은 소모둠으로 나누어 다음 주제를 다루게 된다.
- 언론에서의 편견, 고정관념, 객관성
- 인권 관련 보도에서 언론의 이미지와 역할

관련 권리
- 사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사생활, 가족, 가정 및 서신왕래에 간섭 받지 않을 자유
-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학습 목표
- 언론과 인권 이슈를 다루는 언론의 접근법에 대해 인식을 넓힌다.
- 의사소통과 협동 능력을 개발한다.
- 사회적 변화에 대한 책임감과 기여를 키운다.

준비물
- 두세 개의 소모둠 활동과 전체 활동을 위한 충분히 큰 공간
- 신문이나 잡지에서 가져온 40–45개 사진
- 기록을 위한 종이와 펜
- A3 나 플립차트용 큰 종이와 마커
- 소모둠당 가위와 풀
- 모둠별로 종이를 펼쳐놓고 작업할 수 있는 넓은 테이블들

준비 작업
- 잡지나 전국단위 신문에서 40–45장의 사진을 선택한다.
  주의: 같은 사진을 3장씩 준비하여, 각 소모둠 당 한 묶음씩 제공한다. 각 신문 등을 3부씩 구입하거나 선택한 사진을 복사한다.
- 테이블 사진 한 벌씩을 진열해둔다.

진행

1. 활동을 소개한다. 어느 날 저녁 신문사에서 다음날 신문의 전면을 준비하는 기자들에 대한 모의실험이라고 설명한다. 지역 단위 신문이지만 인권을 비롯한 국제 시사에 정통한 독자층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2. 신문 전면의 예를 보여주고 전형적인 전면의 특징과 배열을 확인한다.
3. 사람들에게 진열된 사진들을 보여준다. 이 단계에서는 말이나 평가없이 테이블을 돌아보도록 한다. 이 사진들로 작업을 하는데,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4. 이제 참가자들을 6-8명씩으로 3개 소모둠으로 나눈다. 각 모둠은 각기 다른 신문의 편집팀이라고 상상한다. 그들의 업무는 내일 아침 신문의 전면을 디자인하고 배열하는 것이다.
5. 각자 신문의 이름을 정하도록 한다.
6. 이제 편집 작업을 시작한다. 각 모둠으로 종이와 펜, 풀, 가위를 나누어 준다. 그러나 아직 사진은 나누어주지 않는다.
7. 아래 지시 사항에 따라, 각자의 신문 전면의 틀을 구성한다.
8. 각 모둠에 게시하고 싶은 뉴스 4-5개를 선택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준다. 전면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실제의 전체 이야기를 말하기 보다는, 그림과 기사 제목, 중간 제목과 간단한 소개글 정도로 충분하다. 기사 본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음영 처리된 박스로 해당지면에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9. 그들의 보고서에 포함되길 원하는 주제나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0분 후에 '인쇄부'로부터 사진을 받게 된다.
10. 작업을 시작한 지 약 10분이 지나면 각 모둠에 뉴스 사진 한 벌씩을 나눠 주고, 작업을 완성하기 위한 50분을 준다.
11. 모든 모둠이 전면 작업을 마치면,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전시하고 디브리핑과 평가 과정으로 이어간다.

디브리핑과 평가

활동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하여 언론, 인권문제와 책무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간다.

- 각 모둠은 어떻게 활동을 조직하였는가? 한 단위로 일했는가 아니면 각각의 "이야기"를 개인별,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 작업했는가? 다루고자 하는 스토리와 활동하는 방식을 어떻게 결정했나? 리더가 있었는가 아니면 함께 결정하였는가? 모두가 참여하고 기여했다고 느끼는가?
- 어떤 방법으로 함께 작업할 주제를 선택하였는가? 사진과 주제 중 무엇이 우선하였나? 즉, 주제를 먼저 정하고 적당한 사진을 선택하였는가? 혹은 사진에서 먼저 영감을 얻어 그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 어떤 주제나 이슈를 다루었는가? 인권에 어떻게 관련되는가? 누군가 다루고자 했었는데 다루지 않은 이슈는 있었는가? 왜 다루지 않았나?
- 각 신문의 전면들은 어떻게 다른가? 동일한 주제나 사진을 사용하였는가?
- 다른 모둠에서 같은 이미지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였는가?
- 사람들은 신문이나 TV, 라디오, 혹은 인터넷을 보고 얼마나 뉴스를 신뢰하는가? 왜 사람들이 뉴스를 믿거나 혹은 믿지 않는가?
- 이 활동에서 전형적인 신문 1면을 따라하려 하였는가 아니면 새롭게 면구성을 하였는가? 독자의 주의를 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실생활 언론에서 어떤 종류의 뉴스가 지배적인가?
- 대체적으로 언론이 인권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기사에서 얼마나 자주 인권 이야기가 제시되는가?
- 언론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언론의 "객관성"이다. 참가자들은 뉴스를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가능한가? 바람직한 일인가?
- 그 다양한 이야기들은 어느 인권을 또는 어떤 인권 침해를 묘사했는가?
- 그들은 기사에서 원인과 결과, 남북 문제, 개발과 환경, 부유함과 빈곤 등을 연결하려고 하였는가? 실제 매체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 참가자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 청소년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가난한" 국가의 청소년은? "부유한" 국가 청소년은?
- 제시된 사진집에서 빠져있는 중요한 주제나 이슈가 있는가?

촉진자용 팁

활동에서 사용할 사진을 선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주제의 사진을 고르도록 하고 고정관념화된 이미지는 피하도록 한다. 실제 뉴스에서는 대개가 살인이나 전쟁, 재앙 등에 대한 보도로 가득차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는 잘 찾아보기 어렵다(특히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전쟁과 기아 이외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참가자들이 '나쁜' 뉴스뿐만 아니라 '좋은' 뉴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고를 기회를 주는 사진들을 선별한다. 나이, 성별, 인종, 문화적 집단, 지리적 위치 등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유념하여 사건과 유명인에 관한 화제의 뉴스와 연관된 이미지를 포함시킨다.

기 념 일

5월 3일
세계 언론 자유의날

TV뉴스 진행자 – 여성	산업 연기 기둥	주경찰	게릴라
세계	광고: 바티다(칵테일)	낙서(그래피티)	사망한 두 병사
제3세계 카메라팀	커피가 가득한 카트	반인종주의 콘서트	농장과 무기
필립스 광고 속 구두닦이 소년	광고: 코카콜라	의회	쌓여있는 곡식
돌 던지는 아동	해변가 판매상	마약	제3세계 상품 판매
댐 만드는 여성	제3세계 시장	유명한 정치인, 예: 미국 대통령	여성회의
실업 수당	홀로 된 여성	만델라	가족계획
아프리카인 광부	브뤼셀 빈민가	COP15의 세계 지도자 회담	AIDS 예방
공장식 양계장 닭	제3세계 슬럼가	난민 캠프	군중
살충제	넘치는 쓰레기통	대사관 내 난민	대중교통
햄버거 식당 광고	캔 분리배출	에릭 칸토나	전범재판소
열대우림지역 벌목	쓰레기폐기장의 냉장고들	난민센터 내 아동들	차 전시회
메마른 토양	기타 치는 흑인소년	축구 선수	교통 체증
물에서 노는 아동들	닌텐도	국제사면위원회	사이클리스트들의 행동
조사	록스타	필리핀에서의 시위	마이크를 든 청년
세차	길거리 아이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우주왕복선 발사
연료유	다문화 파티	활동 중인 소말리아 해적들	태평양 섬의 침수
그린피스 활동	모로코 소녀	F16 폭격기	

활동을 소개할 때, 전형적인 전면 레이아웃의 특징과 형태를 지적한다: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쓰인 눈에 띄는 헤드라인, 필자명의 줄(예: "우리 환경 특파원, 모하메드 슈미트") 등이다. 그리고 기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짧은 소개에 이어 본문을 다루게 된다. 이야기를 뒷받침하거나 독자의 주의를 끌기위해 그림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한다. 또한 그 사진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다! 사진작가나 사진 편집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에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또한 캡션이 작성된 방식도 지적한다. 외국어 신문을 사용하여 이러한 것을 시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내용을 무시하고 대신 영향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쉽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이것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 창의적으로 하도록 격려한다. 글을 쓰고, 그림을 잘라 내거나 만화를 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신문은 진지하거나, 유머가 있거나, 역설적일 수도 있다. 모둠에 따라, 당신은 해당 활동에서 얼마나 말을 할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 지켜보기만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응용

이 활동을 보여주는 다른 방법으로 라디오나 TV 뉴스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TV 방송을 하기로 했다면, TV를 시청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어두운 방에서 스크린에 컴퓨터 화면을 빔 프로젝터나 슬라이드 프로젝터로 보여주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웹페이지나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 있다.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자신들의 뉴스를 위해 선택한 권리의 측면을 토론한다. 예를 들어, 당신 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참가자들은 지역 신문이나 라디오, TV방송국에 연락하여, 그들이 언론의 객관성과 언론에서 제시되는 국제적 이슈와 인권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작업하고 논의하는지에 대해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모둠이 사진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이 언론에서 어떻게 사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는지에 관심이 있다면, 96쪽 '그림 연상 놀이' 활동의 끝부분에 소개되는 '사진으로 하는 더 다양한 놀이'에서 설명하는 '사진 일부', '캡션 달기' 같은 활동을 해보도록 한다. 모둠이 빠른 두뇌회전을 포함한 활동을 즐긴다면, 스포츠와 인권을 다루는 74쪽 '1분 토크' 활동을 해본다.

또한, 모둠이 긴장을 풀고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문화, 음악, 언어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교육 패키지 [모두 다르고 – 모두 같다]에 있는 '나이스나 블루(Knysna blue)'를 찾아본다.

실천 아이디어

많은 지역 라디오 방송들은 지역사회 내 단체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들을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둠 프로젝트로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든다. 예를 들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와 같은 제목이다.

www.newtimes.dk를 보면, 덴마크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이 어떻게 언론을 이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자신의 나라에 있는 난민신청자 또는 다른 소수자 집단을 돕기 위해 유사한 일을 할 수도 있다.

지역 언론(라디오, 신문)을 이용하고, 하이파이브, 페이스북, 트워터, 블로그를 포함한 국제적 수단들과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용한다.

추가 정보

활동 중에 제기된 이슈 중 일부를 아래에 제시한다:

a) 언론

1.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끊임없이 여러 언론에 의해 대량의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량의 정보를 접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인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2. 언론이 점점 더 상업화되고 기사가 단순해지고 있는데, 이 고정관념과 선정주의는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 양질의 뉴스를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가?
3. 불평등에 관련한 양질의 뉴스를 찾는 것이 특히 어렵고,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뉴스에서 그러하다. 서구 외 지역에 대한 뉴스는 흔히 서구적 시각으로만 다루어지곤 한다. 아주 종종 부정적이고 음울한 뉴스로 나타난다. 편파성과 부정성이 일상적이다. 이에 동의하는가?
4. 인터넷 사용의 증가는 저널리즘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 전직 워싱턴포스트 특파원이었으며, 현재 UC 버클리 대학의 언론학 교수인 닐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기술적 격동 속에서 공익에 봉사하는 진실추구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로서 쇠퇴하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다. 확장되고 있는 뉴스와 정보 시스템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윤리적 가치에 따라 실천되었던 전문 저널리즘이라는 세상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웹으로 빠져나갔던 것과 같다. 한편 뉴스가 아닌 '뉴스'를 검색하고, 지하 블로거의 최근 괴상한 뉴스, 정부 관료들의 가짜 뉴스 보고, 오직 판매만 바라는 광고주에 의해 언론으로 위장한 교묘한 PR이 판치는, 그러면서 노련한 언론이 점점 없어지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5. 인터넷의 블로거와 포스트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해준다. 원재료는 강력하다; 지진, 다른 재난 그리고 전쟁지역으로부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라오는 개인적 영상물이나 게시물의 신속성과 충격을 생각해보라.
6. 인터넷은 모든 나라의 정보원으로부터의 뉴스와 정보에 전 세계 사람이 접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검열을 더욱 어렵게 한다.
7. 객관성이 확보되는가? 또는 요구되는가? 자기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야기의 양면을 모두 말하는 균형이 실제로는 정보편향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인간 활동이 지구 기후에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는 즉시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말하길…"과 같이 소수의 지구온난화 회의론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크게 증폭시키도록 했다.

b) 인권 이슈

대중의 인권의식을 일깨우는 데 있어 언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 관련 이슈가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것이 보도되고 어떤 것이 보도되지 않는지, 또 어떤 식으로 정보와 사실을 보도하는지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정치적 관점에 따라 한 전쟁의 투사가 어떤 신문에서는 정의의 수호자가 되고 어떤 신문에서는 테러분자가 된다.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도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이누이트는 이글루에 살며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지키려 싸우는 이국적이고 강인한 사람들로 언론에 묘사되지만 고래잡이를 얘기할 때면 그들은"도살자"가 되는 것이다.

c) 약속

모의실험에 사용하는 사진들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교사, 젊은 노동자 등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청년들을 유인할 만큼 매력적인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소년들이 선택한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시사하는 점을 찾을 수도 있다.

주

이 활동은 "The News Factory"로부터 개발되었다. 이는 원래 네덜란드에서 로브 안드리안센과 플라망어 발전 NGO플렛폼인 NCGO의 그리니치팀에 의해 설계되었다. 이후 유럽문화학습연맹 EFIL의 의뢰로 Nele Hiers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고 채택되었다.

세계화

환경

시민권과 참여

3단계

제한없음
(소모둠 5-8)

1부: 45 분
2부: 가변적
3부: 가변적

조심하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에드먼드 버크

주제
- 세계화
- 환경
- 시민권과 참여

난이도 3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소모둠 5-8)

시간 1부-45분, 2부-가변적, 3부-가변적

개요 이 활동에서 참가자들이 면 티셔츠의 사회, 경제, 환경적 비용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위한 계획과 실행으로 나아간다.

관련 권리
- 바람직한 일과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학습 목표
- 의류 산업의 세계화에 의한 특성을 배우고 우리가 구입하는 의류의 실제 비용을 이해한다.
- 정보 분석, 계획수립, 실천을 위한 역량을 개발한다.
- 창의력, 상상력과 행동주의의 헌신을 증진시킨다.

준비물
- 플립차트와 마커 펜
- 유인물

준비 작업
- 정보 자료 복사본을 준비한다(참가자당 1부).
- 사람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인식한다!

진행

1부. 문제 파악하기

1.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사서 입는 의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의 선택이 미치는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설명한다.
2. 사람들에게 자신의 티셔츠나 스웨터의 라벨을 보고 어디서 만들어졌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게 한다. 가격은 얼마였나? 차트 용지에 해당 국가와 가격 목록을 작성한다.
3. 돈만이 고려대상이라면, "면의 진짜 비용을 추적하기"와 "면 티셔츠의 진정한 가격"의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읽도록 5분을 준다.
4. 이어서 그 정보로 떠오르는 이슈를 브레인스토밍 한다. 예를 들면 아동노동을 포함한 노동권, 자원의 사용(물과 연료), 농약이나 다른 독소에 의한 환경 파괴, 세계화의 결과 등이 있다.
5. 이러한 지식에 비추어 티셔츠를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모둠에게 물어본다.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행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한다. 예를 들어 옷이 빨리 해어지지 않게 관리를 더 잘하거나, 앞으로 공정무역 티셔츠만을 구입하거나 또래들의 해당 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역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 등이 있다. 가장 추진하고 싶은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한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2부. 실천에 대한 결정

6. 참가자들이 연구를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할 지 합의하도록 한다.
7. 그들이 취하고 싶은 행동 유형에 따라 소모둠을 구성하도록 하고, 다음을 포함하는 간략한 개요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 명확한 목적과 목표
   - 선택 이유를 포함한 제안 활동(보이콧, 콘서트, 방송 프로그램, 길거리 공연,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한 설명
   - 활동 준비와 실행을 위한 시간표
   - 활동을 할 장소(학교, 공공건물 등)
   - 추정 비용과 필요 자원
8. 각 모둠은 제안을 제출하고 모두가 의견을 내고 개선안을 만들도록 한다.

3부. 실행

- 전체가 참여할 하나의 활동을 선택하거나, 소모둠 별로 각자의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실천이나 캠페인을 마치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무엇을 이루었는지 검토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1부를 마친 후:
- 돈이 가장 중요한 비용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아닌가?
- 사회, 경제, 환경적 비용은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것에 비해 더 중요한 것이 있나? 어떤 인권이 침해당하는가?
- 티셔츠 한 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 좋은 캠페인의 요소는 무엇인가?
-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UN기구, 반세계화운동 단체등과 같은 노동자 권리 보호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구들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아니라면 그 이유는?

2부를 마친 후:
- 실천 계획에 합의하기 쉬웠는가? 소모둠에서 결정하는 방법에 모두가 행복했는가? 그렇다면 왜? 아니라면 왜?
- 그들이 하기로 결정한 행동을 선택한 이유는?
- 과정에서 모두가 참여했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왜? 아니라면 왜?
- 각 모둠은 어떤 인권 침해를 대상으로 했는가?

3부를 마친 후:
- 행동이나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계획대로 진행되었나? 그렇다면 왜? 아니라면 왜?
- 다음을 위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건 무엇인가?
- 모두가 참여하고 그들의 능력이 활용되었다고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다음에 더 나아지기 위해 무엇이 있어야 할까?
- 이 활동과 실천을 통해 배운 또 다른 것은?

기 념 일

5월 두번째 토요일
세계 공정무역의날

촉진자용 팁

잘 준비하도록 한다. 실천하기와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대략적 개요에 대해 제3장의 해당 섹션을 읽는다. 또한 시민권과 참여에 관한 배경정보에서 하트의 참여 사다리를 www.coe.int/ compass 5장에서 읽어 본다.

www.coe.int/compass 5장의 세계화에 대한 배경 정보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 "클린의류캠페인"(CCC, Clean Clothes Campaign)이나 유사한 조직이 자국에 있는지 알아본다.

CCC가 실행중인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CCC에서 제공하는 기성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실천하기 쉽게 해줄 것이다. 예를 들면,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자체 제작을 하기보다, 단체의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스포츠웨어에 대한 CCC의 캠페인 비디오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목적 중 하나는 참여와 창의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종류의 새로운 캠페인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만약 탄소발자국으로 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면, 에코메트리카(Ecometrica)에서 예를 들어 팬티 3벌을 하나의 묶음으로 의류에 대한 탄소발자국 평가를 구성하고 있다. 팬티와 티셔츠는 비슷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주장하건데 비록 팬티를 좀 더 자주 세탁하겠지만 아마 다림질은 덜할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져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7kg이 된다. 에코메트리카 사이트(www.ecometrica.co.uk)에서 "의류 팩트 시트(apparel fact sheet)"를 검색해 본다.

응용

진정한 비용에 대해 보다 깊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1부 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1.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티셔츠의 가격에 대해 물어보고, 평균가격을 합의하도록 한다.
2. 다음으로, 티셔츠가 어디서 왔는지 라벨을 보고 찾아보도록 한다.
3. 그리고 소모둠별로 면화생산에서부터 옷가게에서 팔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목록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4. 전체로 이 목록들을 비교하여 하나의 공통된 목록을 작성하되 수송, 노동 비용, 에너지 사용 등과 같은 일반적 제목별로 다양한 요소를 요약하도록 한다.
5. 다시 소모둠에서 각 항목별 비용을 매기도록 한다. 예를 들면 면화 재배, 총 노동비, 수송 등.
6. 다시 전체로 추정된 비용에 대해 논의한다.
7. 마지막으로 정보 시트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한다.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자기 나라의 CCC활동을 하는 단체를 방문해보고 참가자 그룹이 시작해볼만한 일을 구성해 본다.

운동화에 대한 공정 무역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 운동화의 진정한 비용에 대한 통계는 http://www.vetementspropres.be 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문제와 딜레마에 대해 탐구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자선활동과 이벤트가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회사들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화 제작자이자 평화의 날(Peace One Day) 설립자인 제레미 길리(Jeremy Gilley)의 다음 말에서 제기된 이슈를 토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화의 날'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기업의 후원 없이는 존재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다.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우리는 '내부에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느낀다. 공급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여 국제 인권/무역법을 100% 준수하는 회사를 찾는 것은 몹시 바라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렵거나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예에 관련된 정보는 www.peaceoneday.org 그리고 http://www.clearingthehurdles.org 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둠이 바람직한 일과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236쪽 '애시크 이야기' 또는 1117쪽 '노사 협상' 활동을 실행해볼 수 있다. 스포츠의류에 관련된 이슈가 쟁점이 되어서 스포츠에 관련된 인권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면, 74쪽 '1분 토크'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시작한 활동을 다른지역 이익단체들과 함께 세계공정무역의날을 기념함으로써 이어갈 수 있다. http://www.wftday.org/ 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방금 한 일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모둠이 관심있는 다른 이슈에 대한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인권 이슈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의 권리에 대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등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함으로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를 보여주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재미를 느끼고 배움을 가질 수 있다.

추가 정보

공정 생산과 공정 무역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많은 조직이 있다.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당신 지역에서 그러한 조직을 찾도록 한다. 다음의 조직들은 많은 유럽 국가에 파트너들을 두고 있다:

- www.cleanclothes.org 에서는 많은 정보와 당신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CCC의 관련 조항: "아동 노동이 당신 셔츠를 만들었는가?" http://www.organicconsumers.org
- 국제적으로 공정무역 패션의 선구자로서의 People Tree : http://www.peopletreefoundation.org/
- 환경정의재단(The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의 보고 "우리 솜 뒤의 아동(Children behind our cotton)"은 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아동들이 견뎌내고 있는 충격적인 환경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어떤 아이는 5세였고, 극심하게 춥고 더운 날씨에도 매일 12시간을 일했으며, 상당수는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간혹 성적 학대를 겪고 있다: http://www.ejfoundation.org
- 공정의류재단(The Fair Wear Foundation)의 사명은 의류산업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http://fairwear.org
- 공정거래자원네트워크(Fair Trade Resource Network)는 공정거래를 증가시키고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보 허브이다: www.ftrn.org
- 플레이페어 캠페인(The Play Fair campaign)은 노동권 단체의 연합체로 올림픽게임 제품을 생산하는 스포츠웨어 브랜드에 공급망에 있는 노동력 착취 환경을 폐지하고 노동권을 존중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www.clearingthehurdles.org

유인물

면 티셔츠의 실제 가격 추적

면 티셔츠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며, 여러 다국적 기업의 생산물이다. 다음은 하나의 예이다:

부르키나파소의 전형적인 목화 농장에서, 한 가족이 약 6~8헥타르 자기 소유의 땅을 경작한다. 부르키나파소의 원면 1킬로그램의 가격은 300원이다. 많은 면화 생산업자들에게 면화를 팔아서 얻는 현금은 그들이 일년 내내 받는 유일한 돈이다.

면화는 농장에서 공장으로 운반되어 면섬유를 만드는 데, 킬로그램당 750원의 비용이 든다. 노동자는 2주마다 9만8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면화는 현재 토고 항구인 로메 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상인들에게 킬로그램당 1,170원에 판매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 팔린다. 상하이와 같은 항구를 위한 화물선에 실려 현지 방적 공장으로 키로당 1,300원에 판매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가난한 지역 출신으로 광활한 시골 오지 출신이다. 그들은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살며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한다.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많은 브랜드, 종종 실을 잣기도 하고 의류도 만드는 거대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의류들은 이제 항구로 옮겨져 수출을 위해 적재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티셔츠의 평균 가격은 1,460원이지만, 맨해튼의 한 시내 백화점에서는 두 개에 약 2만 원에 판매된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면화는 킬로그램당 750원에서 시작하여 킬로그램당 약 2만5000원의 가치를 가진다.

출처: BBC 뉴스 프로그램 "면 티셔츠의 실제가격을 찾아서(Tracking the true cost of cotton)", 2007. 5. 2

면 티셔츠 한장의 실제 가격

- 물 사용: 2,157L(경작에 45% 사용)
- 에너지 사용: 8kWh(방적과 제봉에 쓰이는 전기), 41.6~110L 연료(육상 및 해상 운송)
- 이동 거리: 8,851~15,128km
- 배출 가스: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실 가스),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휘발성 화합물등
- 독성 물질: 1~3g의 농약, 디젤 배기가스, (염료 속) 중금속
- 아동 노동: 17개국, 평균 일당 500원
- 기타: 53~91g 비료

출처: Earth Intelligence Network, http://true-cost.re-configure.org/ http://forum.re-configure.org

차별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주제
- 노동
- 젠더
- 차별과 불관용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6명 이상

시간 60분

개요 노동 시장의 현실에서 사람들이 직면하는 것에 대한 모의 실험 활동이다.
- 동일 노동에 대한 차등 임금
- 직장 내 차별
-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정책

관련 권리
- 바람직한 일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와 동일 노동 – 동일 임금의 권리
-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학습 목표
- 직장 내 차별 실태에 맞서기
- 불의에 대응하고 권리를 지키는 능력 키우기
- 연대, 평등 및 정의감 향상

준비물
- '임금요율표' 복사본 1장
- 참가자당 라벨 하나
- 모의화폐

준비 작업
- 라벨을 준비한다. 라벨에는 노동자의 성별과 연령만 표시한다. 노동자 임금요율표를 참고한다.
-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생각해본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할 장비나 비품 등을 함께 준비한다.

진행

1.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노동자이며 고용주인 '나'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걱정하지 말라, 모두 임금을 받는다. 노예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
2. 무작위로 한 사람당 한 장씩 라벨을 나눠 준다.
3. 직무를 설명해서 모두 자신이 할 일을 무엇인지 알도록 한다.
4. 자 모두 일을 시작하자!
5. 일이 모두 끝났으면 임금을 받기 위해 줄을 서게 한다. 노동자 임금요율표에 나온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모두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금액을 말하며 지급한다.
6. 만약 참가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면 "이유"를 말해주되 토론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

7. 어디까지 진행할지는 촉진자 재량이지만, 논의가 격해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 모두에게 진정하고 역할에서 빠져나올 시간을 준 다음 이어서 둥그렇게 둘러앉아 디브리핑 단계를 시작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단계별 토론을 한다. 모의실험 자체에 대한 검토로 시작한다:

- 모두 똑같은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임금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임금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받는가? 기준은 뭐라고 보는가?
- 다른 사람들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 더 적게 받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
- 당신 나라 혹은 지역 사회의 근로현장에서도 이런 종류의 차별이 있는가?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 남자와 여자가 한 똑같은 일에 대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아니라면 그 이유는? 언제 정당하고 언제 정당하기 않은가?
- 남자가 여자보다 일을 더 잘한다면 여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나은 자격을 갖췄다면 남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 남자만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아니라면 왜 그렇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일들인가?
- 여성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아니라면 왜 그렇지 않은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인가?
-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 조치 또는 우대 조치의 실행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가?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 당신 나라에도 연령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 존재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이런 정책을 적용할 때,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이런 종류의 정책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필요한가? 혹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
- 어떤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위태로웠는가?
-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촉진자용 팁

참가자의 수가 임금요율표에 나온 숫자보다 많거나 적을 때는 그에 맞춰 임금요율표를 수정해야 한다. 성별과 연령이 고루 분포되도록 조정한다. 만약 참가 인원이 많고 두 종류의 차별에 대해 분리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원한다면 그룹을 둘로 나뉘어도 좋다. 한 그룹은 성별에 따른 차별에 대해 토론하고 다른 그룹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 대해 토론한다.

이 활동에는 어떤 종류의 일이 적합한가? 모든 노동자에게 정확히 똑같은 일을 시켜야 한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동시에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음 사항을 검토해 본다:

- 실외에서 하는 일이라면 실외활동이 가능한 계절인가?
- 공간이 충분한가?
- 다른 연령대와 다른 성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동등하게, 쉽게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일인가?
- 안전한 일인가?
- 사람들이 민망하다고 느끼거나 윤리적 이유로 거부하지 않겠는가?

-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 많은 기술이 필요한가?
- 여러 번 되풀이할 수 있는 일인가?

업무의 예:

- 칠판을 지우고 주어진 문장을 칠판에 깔끔하게 쓴다.
-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 상자 안에 넣는다. 상자를 방의 다른 쪽으로 들고 가서 두 번째 책꽂이 위에 책을 진열한다.
- 종이접기로 비행기와 모자를 만든다.
- 작업실이나 정원의 정해진 구간을 청소한다.
- 인근의 지정된 구역 내 쓰레기를 수거한다.
- 당신이 만나는 곳 학교나 빌딩의 창문을 닦거나, 교사 혹은 코치의 차를 닦는다.
- 세 종류의 잎을 모아서 종이 위에 쌓는다.
- 단어의 정의를 찾아서 종이에 적는다. 인권에 관련된 각기 다른 단어를 선택하면, 나중에 간단한 용어집을 만들 수도 있다.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차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할 때, 이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실제 일어난 일을 토대로 할 수도 있고 어처구니없는 이유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 일이 서툴러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
- 잘 웃고 행복해보여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
- 그냥 금요일이니까!

응용

촉진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참가자 두 명이 회계담당을 맡을 수 있다.

선택한 업무에 따라, 공장에서의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주어진 업무가 매우 단순하거나 6명 이하로 배치된다면, 하루 작업을 1회로 하는 3-4회 작업을 진행한다. 각 회를 마친 후, 노동자들은 은행으로 가서, 문서에 사인을 한 후, 일당을 받게 된다. 일부 참가자들이 임금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재빠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불평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그들을 해고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일하게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준비한다. 참가자들은 흥분하지 않고 원래의 학습 목표를 주시하도록 한다.

이 활동이 모의실험으로 진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 정보들을 토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각 노동자마다 그들이 하는 일과 연령, 성별, 임금을 정리한 "자료표"를 만든다. 학력이나 경력과 같은 정보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심층사례연구를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토론이 모의실험을 통해 생긴 격한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

만약 참가자들이 역할극을 재미있어 하고 공정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지켜내는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면 117쪽 '노사협상' 활동을 해볼 수 있다. 290쪽 '일과 육아' 역할극 활동에서 직장에서 평등 문제와 여성의 권리를 살펴볼 수 있다.

실천 아이디어

당신 나라의 노동자 권리와 관련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저녁, 주말 또는 휴일에 용돈벌이로 일하고 있다면,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확실히 알아본다. 예를 들어 야간이나 주말에 더 높은 임금을 받

기 념 일

4월 두번째 화요일
유럽 평등임금의날

고 있는가? 보험에 가입했는가? 사용하는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며, 보건과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미신고”의 결과 즉, 당신과 당신 고용주가 세무당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결과를 찾아본다.

추가 정보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적게 벌기 때문에 같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유럽 평등 임금의 날은 화요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화요일은 전 주에 남성이 번 보수를 여성이 벌기 위해 추가로 이번 주에 얼마나 더 일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준다.

노동자의 임금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각 나라마다 다르고 또 그 핵심이 성차별인지 연령차별인지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다. 성에 기반한 차별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증명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예는 구직자의 선별과 면접, 승진의 차별, 평균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 등이 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은 일을 할 때 여성이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이것은 공정한 보수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 또한 공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라별로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다르다. 일반적으로 성인들보다 청년실업의 비율이 높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보수는 특별한 사례로 생각되어 왔고 많은 나라들에서는 청소년들이 같은 일을 하는 성인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용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은 두 가지 이유로 정당화된다.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일찍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현재보다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도록 학교에 머물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주에게는 아직도 경험이 없고 미숙련의 청소년 노동자가 매력적이며, 특히 학교 중퇴자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라도 고용되지 못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면 말썽을 일으키고 사회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적용해서 청년실업률 감소에 성공한 사례는 나라마다 모두 다르다.

유럽사회권위원회(유럽사회헌장의 실행기구)는 그 차이가 합리적이고 그 간극이 빠르게 좁혀진다면 청년들의 낮은 임금이 수용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15세에서 16세 청소년의 초임이 성인들보다 30% 정도 낮다면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러나 16세에서 18세인 경우는 그 차이가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청년들의 임금이 항상 낮지는 않다. 실제로 학력이 높은 청년들은 많은 돈을 벌고 일부 사람들 눈에는 너무 많은 돈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신기술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은 은퇴 연령의 나이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다.

공정한 보수에 대한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유럽사회헌장

제7조 제5항 나이 어린 노동자와 견습생들이 공정한 보수를 보장받도록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제8조 제3항 보수에 있어 남녀 노동자의 비차별 보호를 위한 고용된 여성의 권리.

유인물

성과 나이에 따른 노동자 임금지불표

	성별	연령	임금(Ems)
1	남성	35세	100
2	여성	16세	30
3	남성	22세	70
4	여성	32세	90
5	남성	16세	50
6	여성	19세	60
7	남성	26세	100
8	남성	20세	70
9	여성	24세	80
10	남성	37세	100
11	여성	17세	30
12	여성	23세	80

전쟁과 테러

평화와 폭력

민주주의

4단계

제한없음

120분

차할 대 영국정부

그는 돌아가면, 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주제
- 전쟁과 테러
- 평화와 폭력
- 민주주의

난이도 4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

시간 120분

개요 모의 미니 재판으로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다루었던 실제 사례를 보여준다.

관련 권리
-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 망명권
- 공정한 공청회에 대한 권리

학습 목표
- 난민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역할과 인권법 조항으로 보호되는 사항에 대해 배운다.
- 의견을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논쟁을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 정의감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느낌을 성장시킨다.

준비물
- 역할 카드
- 필기도구
- 촉진자용 정보 카드

준비 작업
- 정보 카드를 복사하여 오려둔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역할카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되도록 판사, 영국정부 변호인, 차할씨 변호인을 같은 수로 두도록 한다.
- 각 모둠의 카드에 번호를 붙인다. 1,2,3,4…
- 각 '법정'(3명) 별로 서로 분리되어 앉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진행

1. 이 활동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출되었던 사건을 다룬다. 참가자에게 이 재판소와 유럽인권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대해 물어본다.
2. 사례 카드에 있는 정보를 읽고 모든 사람들이 다음 질문을 이해하도록 한다. "차할을 추방하는 것은 제3조 위반인가?"
3. 참여자들을 동수의 3 모둠을 나눈다.
   - 모둠 A : 차할 대리인
   - 모둠 B : 영국정부 대리인
   - 모둠 C : 유럽인권재판소 판사
4. 해당되는 역할카드를 각 모둠별로 나누어주고 참여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논의하고 명확하게 할 시간으로 30분을 준다. 모둠 A와 B는 이 시간 동안 자기 주장을 준비하도록 하고, 모둠 C는 양쪽에 제시할 질문을 준비하도록 한다.
5. 30분 후에 모든 참여자를 다시 모둠 구성한다: 숫자 1 카드를 가진 이들이 하나의 모둠, 숫자 2는 다른 모둠 순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각 새롭게 구성된 모둠은 차할 대리인 한 명, 영국정부 대리인 한 명, 판사 한 명으로 구성한다.
6.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모둠은 각각 작은 법정을 나타낸다. 각 법정은 양 쪽의 논증을 듣고 판사가 질문을 하는 20분의 시간을 가진다.
7. 20분이 지난 후, 각 법정의 판사는 차할을 추방하는 것이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전체 모둠으로 돌아와서, 각자 판결과 그 이유를 밝힌다.
8. 결정된 판결에 대해 두 그룹별 대표(영국 정부, 차할)가 말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실제 이 사례에 대한 유럽 법원의 판결을 말해준다. 아래의 '유인물' 정보 카드를 참고한다.
9.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의견을 구한 후, 디브리핑과 평가를 진행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 이 사례에서 가장 어려웠던 측면은 무엇인가?
- 당신의 역할은 하기 어려웠는가?
- 당신이 속한 소모둠에서 "판사"는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최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 유럽인권협약은 심지어 비상상황에서도 고문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고문이 상황에 따라 허용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 모든 것이 "테러와의 전쟁"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 유사한 활동이나 사례를 알고 있는가?
- 유럽인권재판소는 왜 필요한가?
- 당신 나라의 사례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된 경우를 알고 있나?
- 누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사건 접수할 수 있는가?

촉진자용 팁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4번 지점에서, 실제 법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모둠으로 나누어 진행한다는 점을 미리 말해줄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사례의 자세한 부분을 다른 이들과 토론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자신의 첫 발언을 준비하는 데 일부 사용하도록 한다. 판사는 사건의 세부적인 면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양측으로부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재판정의 양측은 그들이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최선의 방어를 재판관에서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서로 다른 "법정"을 각기 다른 방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6번 지점). 아니면 적어도 법정 간의 소리를 엿듣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

판사에게 "재판" 시간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한다. 질문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주고, 양측에게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양측에 대략 같은 시간을 주어야 하지만, 논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시간이 각기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자들이 아직 이 사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비밀구금과 관타나모수용소의 수용 환경에 대한 딕 마티의 보고서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관여된 비밀 구금 및 불법 억류자들의 이송: 두 번째 보고서'의 끝 부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배경정보로 www.coe.int/compass 5장 '전쟁과 테러'를 참고한다.)

COMPASS

기 념 일

6월 26일
UN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날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320쪽 '테러' 활동은 몇 가지 테러 활동의 예를 사용하여 테러를 정의하는 데 있어 다른 방법들을 돌아보고 있다. 또한 112쪽 '내일이 오면' 활동에서는 제한될 수 없는 인권인 생명권을 돌아볼 수 있다. 이 활동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감방에 수용된 젊은이가 쓴 글을 사용하고 있다.

추가 정보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인권 존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1950년 유럽인권협약(ECHR)에 따라 설립된 국제사법기관이다. www.echr.coe.int

유럽인권재판소와 활동에 대한 아주 간략한 요약이 있다.
www.abouthumanrights.co.uk

재판소는 영국정부가 차할에게 예정된 추방을 강행할 경우, 제3조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들의 추론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중 하나를 담고 있다 … 본 법정은 현대의 국가들이 테러집단으로부터 자신의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협약은 피의자의 행동에 상관없이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나 처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협약 및 의정서 제1조 및 제4조의 주된 조항과 달리, 제3조는 예외 조항이 없고 심지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제15조에 따라 예외 조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
>
>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금지는 추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조에 반한 처우로 다른 국가로 송환되면 개인이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입증될 때에는, 추방 조치에 관여되는 조치에 의한 당사자의 안전보호는 계약국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된 개인 활동은 아무리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하더라고 고려대상이 아니다."

유예. 법률 조항에서 면제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유럽인권협약의 경우, 특정 조항에 대한 회원국의 법적 의무를 유예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유럽인권협약 제15조는 회원국이 "전쟁이나 기타 공공 비상시에" 유예를 허용하고 있지만,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사전에 알려야하고 유예는 "상황의 위급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에만 국한된다. 또한 제15조는 제3조, 제4조 제1항, 제7조에 대해서는 일절 허용되지 않고, 제2조의 경우에는 "전쟁 중 합법적 행위의 결과로 인한 죽음"에만 국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년간, 영국은 제5조 일부를 유예하였으며,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한 후, 영국도 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1년 11월 유예를 갱신하였다. 영국은 미국의 9.11테러를 이유로 한 유예권을 사용한 유일한 회원국이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협약과 양립하기 어렵고 차별적이라는 영국 상원의 결정에 따라 2005년 철회되었다.

유럽인권협약 요약본은 이 책의 부록(470쪽)에 실려 있다.

실천 아이디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협약 위반을 주장하는 판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 www.echr.coe.int 에서 "HUDOC database"를 검색하면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유인물

진행 2단계용 사례 카드

사례

카람지트 싱 차할은 인도 시민이지만 영국에서 살고 있다. 그는 시크교도이고 인도 펀자브지역의 시크 주 독립을 위한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차할씨를 인도로 추방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시크 독립에 대한 그의 지지와 그의 과거 활동을 보면, 특히 테러 활동에 관한 현재 활동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 그는 영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차할씨는 인도로 돌아가면 고문을 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에 추방에 대해 제소하였다. 그는 추방 조치가 제3조 위반이 되어서 정부는 그를 추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카람지트 싱 카할 역할카드

인도 시민이지만, 현재 영국에서 살고 있다. 시크교도이며 인도의 펀자브 지역에서의 독립적 시크 국가를 위한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테러 활동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 당신의 시크 독립에 대한 지지와 과거의 활동이 영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영국정부는 당신을 인도로 돌려보내려 한다.

당신이 인도로 돌아간다면,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랬고, 당신 자신이 인도에 마지막으로 있었을 때처럼, 고문을 당할 것이 확실하다. 불과 6년 전 일이었으며, 21일간 펀자브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이 기간 동안 끔찍한 상황에서 수갑을 차고, 의식이 없을 때까지 구타당했고, 신체의 여러 부분에 전기고문이 가해졌으며, 모의처형을 당했다. 후에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

당신은 다음을 주장한다:

1. 당신은 인도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지지하기 때문에, 영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2. 인도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다시 고문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며, 이제는 당신은 분리주의자로 더 알려졌기 때문이다.
3. 영국 정부가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유럽인권협약 중 해당 조항:

제3조: 고문 방지

누구도 고문이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비상시의 유예 허용

1. 전쟁이나 기타 공공 비상 상황에서, 해당 정부는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국한한다.
2. 제3조, 제4(i)조 제1항, 제7항에서의 권리는 결코 제한될 수 없다. 생명권은 전쟁 중 합법적 행위에 의한 사망을 제외하고 제한될 수 없다.

영국 정부 역할카드

사례

카람지트 싱 차할은 인도 시민이지만 현재 영국에서 살고 있다. 그는 시크교도이고 인도 펀자브지역의 시크 주 독립을 위한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다.

당신은 영국정부를 대표하여, 차할씨를 추방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시크 독립에 대한 그의 지지와 그의 과거 활동을 보면, 특히 테러 활동에 관한 현재 활동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 그는 영국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차할씨는 유럽재판소에서 추방에 대해 제소를 하였는데, 그는 인도로 돌아가면 고문을 당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협약 제3조 위반이 되어서 정부는 그를 추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신은 다음을 주장한다:

차할씨가 고문을 당할 심각한 위험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에 있던 때 이후 인도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으며, 인도 정부가 차할씨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크교도 독립 운동에 대한 그의 활동으로 이곳 영국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문 받지 않을 그의 권리는 제한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국가안보의 위협 가능성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유럽인권협약 중 해당 조항:

제3조: 고문 방지

누구도 고문이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비상시의 유예(Derogation) 허용

전쟁이나 기타 비상 상황에서, 해당 정부는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국한한다.

제3조, 제4(i)조 제1항, 제7항에서의 권리는 결코 제한될 수 없다. 생명권은 전쟁 중 합법적 행위에 의한 사망의 경우를 빼고는 제한될 수 없다.

판사 역할카드

사례

카람지트 싱 차할은 인도 시민이지만 현재 영국에서 살고 있다. 그는 시크교도이고 인도 펀자브지역의 시크 주 독립을 위한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차할씨를 영국으로 추방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시크 독립에 대한 그의 지지와 그의 과거 활동을 보면, 특히 테러 활동에 관한 현재 활동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 그는 영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차할씨는 인도로 돌아가면 고문을 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에 추방에 대해 제소하였다. 그는 추방 조치가 제3조 위반이 되어서 정부는 그를 추방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고문 가능성: 다른 자료원에서의 정보

1995년 UN고문특별보고관은 경찰 구금 시 고문 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고질적이 아니라면, 형사 고발되는 사건은 드물고 가해자가 유죄판결되는 경우는 더욱 적다."

최근 국제사면위원회(국제엠네스티)보고서에 따르면, 펀자브 경찰의 경찰관들이 본국 밖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시크교도 분리주의자들이 아직도 종종 펀자브 경찰에 의한 "실종", 기소나 재판 없는 구금, 고문, 사법적 처형 등의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인권협약 중 해당 조항:

제3조: 고문 방지

누구도 고문이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진행 8에서 촉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카드

차할 대 영국정부 판례(22414/93) [1996] ECHR 54(1996년 11월 15일) 요약

사건: 제소자는 불법 입국한 시크교도이지만 이후 불법 입국자에 대한 일반 사면을 통해 영국 체류가 합법화되었다. 그는 영국 내 시크교도 공동체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국제 시크교도 청소년 연합의 창립과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당시 인도 총리를 살해할 음모로 체포되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며, 후에 폭행과 난동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긴 했으나 이것은 별도의 건이었다. 그의 정치 활동과 그에 대한 범죄 수사에 따른 추방 명령이 내려졌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전까지 구금되었다.

소장: 제소자는 인도로 추방되면 유럽협약의 제3조에 위배되는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판결: 유럽재판소는 제3조, 제5조 제4항, 제13조를 위반한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이유: 제3조는 추방 건에 대해 절대적인 보장을 포함하고 있어, 영국은 국가 안보 이익을 이유로 제소자의 추방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제소자는 인도로 추방될 경우 실질적인 부당 대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정은 중요하고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가 안보 이익에 대한 주장은 국가 법원에 의한 효과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영국 법원의 절차는 본 협약 제5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http://www.hrcr.org/safrica/citizenship/Chahal.html

테러

테러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우리는, 법의 지배와 인권에 대한 우리의 존중에 있어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핑계로 사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테러와 맞서 싸워야 한다.

안나 린드

주제
- 전쟁과 테러
- 평화와 폭력
- 세계화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소모둠 4–5)

시간 90분

개요 사례연구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은 무엇이 테러 행위를 만들어 내는지 토론하고 테러에 대한 정의를 만든다.

관련 권리
- 생명, 자유 및 안보권
- 고문과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
- 평화권

학습 목표
- 테러의 원인과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의 심화
-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의 개발
- 반성적 태도와 독립적 사고의 장려

준비물
- 사례카드
- “고려할 사항“ 인쇄물
- 소모둠을 위한 A4 용지와 필기구
- 플립차트와 마커

준비 작업
- 사례카드의 복사와 재단, 각 모둠당 한 셋트
- ‘고려할 사항’의 사본, 각 모둠당 한 장

진행

1. 모둠에게 ‘테러리즘’이란 단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질문한다. 몇 개의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한 후 누군가 실질적인 정의를 제시하는지 살펴본다. 제안을 플립차트에 기록한다.
2. 비록 테러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제조약이 있지만 그들 중 어느 것도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실질적으로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참가자에게 말한다. 그 한 가지 이유는 UN의 회원국들은 종종 진행 중인 갈등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어떤 행위가 테러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3. 용어 정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참가자의 모둠과 같은 비회원국 모둠일 수도 있음을 제시한다. 이 활동이 끝나갈 때까지 이 활동이 참가자들을 테러에 대한 자신의 정의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4. 참가자들을 4–5명의 소모둠으로 나누고, 각 소모둠에 사례카드 세트와 종이를 한 장씩 지급한다. 각 사례 진술을 차례로 논의해서 그것이 테러의 사례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결정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5월 21일
세계 반테러의날

5. 약 20분이 지난 후 모둠을 다시 함께 모아 결과를 취합한다. 어떤 사례를 테러의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된 이유에 주목한다.
6. 각 모둠에 결정을 설명할 기회를 주면서 모둠 간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토론한다. 어떤 사례가 판단하기에 가장 어려웠는가를 묻는다.
7. 참가자들에게 다시 이전의 소모둠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앞서 만들었던 결정에 따라 또는 토론에서 소개된 고려사항에 따라 테러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만들도록 한다.
8. 10–15분 후 그들의 제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어서 디브리핑과 평가를 진행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 ‘테러리즘’을 정의하는 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는가? 아니면 쉬웠는가?
- 그 사례가 실제였다고 느꼈는가? 어느 사례가 실제의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식한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건인가? 그것이 당신의 판단에 변화를 가져왔는가?
- UN회원국들이 정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어떤 방식으로 – 만일 있다면 – 테러행위는 전쟁행위와 다른가? 하나가 다른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국가를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정된 기본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양측 모두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가? 무엇인가?
- 어떤 사례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가?
- 당신이 토론한 사례와 관련된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어떤 사례가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사람들은 왜 테러리스트가 되는가? 목표가 타인의 고통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 어떤 종류의 사람이 테러범이 되는지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고려해야 할 어떤 것에 관한 충분히 강렬한 느낌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테러범의 생명은? 누군가의 생명은?

촉진자용 팁

이 이슈는 명백하게 아주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접근하는 방식의 결정은 자신의 지역이나 모둠의 특성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당신은 부적절할 수 있는 사례카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하며 디브리핑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백히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모둠의 일상 현실에 관련된 다른 사례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 활동이 유익해지기 위해서는 참가자는 촉진자나 다른 구성원의 비난 없이 자신의 진실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 시작할 때 이것을 말하고 비밀 유지에 관해 모두의 동의를 얻는다. 이 활동의 목적은 우리의 감정이 사람들의 올바른 대답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활동을 시작할 때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사실과 숫자를 원한다면 www.nationmaster.com에서 테러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를 찾아볼 수 있다.

테러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시도하는 요점6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명시하기 위해 이전의 사례와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참가자가 정의에 착수하기 전에 “고려할 요점”이 배포되거나 끝에 다양한 정의를 시험해보기 위한 질문을 활용할 수 있다.

테러의 인권 차원을 토론할 때 참가자가 다음 이슈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a) UDHR의 제3조, 유럽인권협약의 제2조 및 다른 국제문서에 의해 보장되었듯이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갖는다.

b) 전시에도 – 국제인도법(IHL)에 의해 교전수칙이 인도될 때 –민간인을 목표로 한 의도적인 공격을 금한다. IHL은 무력 분쟁 시 양측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 규칙을 제시한다. 추가 정보는 다음을 살펴보라.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사례에서 더 많은 것을 찾아내고, 테러의 다른 역사적 사건을 생각해보고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생각해보도록 독려한다.

만일 모둠의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싶어 한다면 135쪽 '돌 던지기' 활동을 살펴보게 한다. 만일 폭력에 관한 다른 이슈를 탐구해보고 싶다면 109쪽 '내 삶에서의 폭력' 활동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추가 정보

세계인권법과 세계인도법의 관련조항:

인권법: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안보의 권리를 갖는다." (제3조)

유럽인권협약: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제2조)

국제인도법: 구분의 원칙

국제인도법(IHL)은 무력 분쟁 기간 중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본체이다. IHL은 한 쪽이 자기 방어에 의한 행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력 충돌의 모든 당사자 쪽에 적용된다. 그것은 국제적인 분쟁, 비국제적인 분쟁에 적용되며 무장 모둠의 국가에 대항한 싸움 그리고 그 국가 자신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IHL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구분의 원칙"이다. 전쟁 중인 양측은 민간인과 전투원 그리고 민간 목표와 군사적 목표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제네바 협정의 선택의정서:

"개인, 민간인뿐만 아니라 주민은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 사이의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의 폭력행위나 위험을 금한다."(제51조2항)

국제인도법: 테러행위의 금지

4차 제네바 협약:

"집단적 처벌과 위협 또는 테러와 유사한 모든 수단을 금한다."(제 33조)

제네바 협약 선택의정서 1, 2:

민간인뿐만 아니라 주민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 사이의 공포 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폭력 행위나 위협을 금한다.(제51조2항, 선택의정서 1; 제13조2항, 선택의정서 2)

IHL의 다른 조항들은 인질을 잡거나 예배장소에 대한 공격을 금한다.

테러와의 싸움 및 인권 존중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 테러에 관한 유럽 평의회의 직무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coe.int/compass 5장의 배경정보를 살펴본다.

유인물

사례 카드

사례 1: 한 단체가 전체주의 정부를 제거하기 위해 무장 테러를 벌였다. 국방부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했고 12명을 살해했다.	**사례 2:** 특정대상이 된 홀어머니가 아이를 협박하는 편지를 받았다. 폭력사례가 보도되진 않았지만 너무 겁을 먹어서 밖으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다.
사례 3: 양국간 전쟁에서 한 쪽이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약 10만 명의 주민을 살해했다.	**사례 4:** 큰 화장품 회사의 임원에게 우편물 폭탄이 보내져서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 익명의 폭탄범은 그 회사를 동물학대로 비난했다.
사례 5: 한 단체는 오랫동안 군 시설에 대해 폭발물을 사용한 시위를 정기적으로 해왔다. 많은 군인이 살해되었다.	**사례 6:**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시위로 소수민족 구성원은 정기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폭탄을 터뜨린다. 폭파 전 사람들이 건물을 비울 수 있도록 경고를 하지만 민간인들이 살해되었다.
사례 7: 어떤 국가가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만일 다른 나라가 위협한다고 느끼면 그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사례 8:** 한 범죄단체가 은행을 침입하여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잡았다. 그 후에 흔적을 덮기 위해 인질들을 사살했다.
사례 9: 국수주의자 단체가 주요 도시를 순찰하고 통제하면서 정기적으로 다른 민족 사람들을 때리거나 위협한다.	**사례 10:** 전체주의 국가가 국민을 공포로 통치한다. 이에 맞서는 이들은 체포된다. 정기적으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처형된다.
사례 11: 조직범죄자 단체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돈을 갈취한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재산을 불태우거나 때로 살해된다.	**사례 12:** 반대세력과의 전쟁과정에 점령군이 무인 비행기로 마을을 공격했다. 여러 사상자가 보도되었고, 전 가족이 살해되기도 했다.
사례 13: A국에서 온 노동자가 매일 B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B국 국경경비대는 항상 철저한 신분증 검사와 몸수색 등으로 종종하여 A국 시민을 괴롭힌다. 그들은 자주 A국 사람을 마음대로 억류한다.	**사례 14:** 10년간의 내전 중, 19살 여성이 반대 세력 조직 10명과 길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조직 대표가 그녀를 먼저 강간하고 이어서 부하들에게 강간하도록 명령했다.
사례 15: 시에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 경찰에게 언제라도, 누구든 체포하고 12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사례 16:** "더 열심히 해. 무덤은 아직 가득차지 않았다." 르완다 라디오의 촉구하는 목소리.

고려할 사항

토론 동안 고려해야 할 사항:

- 테러 행위는 항상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
- 테러의 어떤 행동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가?
- 국가(정부)는 테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또는 테러는 항상 국가의 공식적 기관에 반하는 행위인가?
- 테러는 항상 민간 사상자를 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가? 또는 군사적 목표물이나 재산을 목표로 할 수 있지 않은가?
- 테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민주주의

시민권과 참여

인권 일반

4단계

제한없음

270분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투표는 시민의 성스러운 의식이다..

테오도르 헤즈버그

주제
- 민주주의
- 시민권과 참여
- 인권 일반

난이도 4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

시간 270분

개요 선거에서의 투표와 시민참여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관련 권리
- 정부와 자유선거에 참여할 권리
- 의견과 표현의 자유
-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권리

학습 목표
- 선거에서 당신의 표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깨닫는다.
-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찾아내는 능력을 기른다.
-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민의 개인적 기여에 대해 평가한다.

준비물
- 한 쌍당 설문지 1과 2 한 부
- 한 쌍당 설문조사 수행방법에 관한 주의사항 한 부
- 각 참가자당 펜 혹은 연필
- 큰 종이(A3) 또는 차트용지, 마커
- 접착테이프

준비 작업
- 설문지를 더 큰 종이에 복사해서 설문조사 교육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
- 차트용지에 설문지 1과 2를 복사하여 결과의 집계에 사용한다.
- 본 활동의 시간표를 짠다. 1단계(설문조사 소개)에 60분을 배정하고, 2단계(설문결과)에 최소120분, 3단계(설문 결과 분석과 활동 평가)에 90분 배정한다.

진행

1부: 설문조사 소개

1. 사람들에게 투표를 한 이유,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본 조사의 기본목적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참가자들에게 다음 선거에 (처음으로?) 기회가 있다면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다. 손을 들게 하고 투표를 하려고 하는 모둠은 A조, 그렇지 않은 모둠은 B조로 나눈다. '모른다'고 하는 참가자는 임의로 두 모둠의 인원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모둠별로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이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목록을 작성해 큰 종이에 쓰도록 한다. 목록을 작성하는 데에 15분 준다.

4. 다시 참가자 전체를 모아 A모둠과 B모둠의 대표에게 목록을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가 끝나면 짧은 토론 시간을 주고, 각 모둠의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은 더 적도록 한다.
5. 설문지를 나눠준다. 미리 크게 복사해둔 설문지를 이용해 첫 번째 설문지는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설문지, 두 번째 설문지는 투표를 한 사람을 위한 설문지임을 확인한다. 문제 2번을 제외하고는 질문이 비슷한 점을 지적하고, 분명히 모두가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6. 이제 설문을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참가자들에게 배포자료의 예시를 보여주고, 숫자를 집계할 때 '정(正)자'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 준다
7. 설문조사 수행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한 쌍에 한 부씩 나누어 준다. 세밀히 읽고 다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어떻게 해야 인터뷰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택할 수 있을까?
   - 각 쌍마다 몇 명씩 설문을 해야 할까? 많을수록 좋다!
   - 설문조사는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가?
   - 조사는 언제 완료하는가?
   - 돌아와 결과 토론을 할 시간은 언제인가?

2부: 조사

1. 모든 참가자가 직무를 명확히 알게 하고 나서 조사를 진행시킨다.
2. 복귀시간을 합의한다.

3부: 결과 분석

전체 참가자들은 다시 모여서 설문결과를 정리하여 분석하며 토론한다. 이 과정에는 60분을 배정한다.

1. 조사에 참가해 얻은 모든 결과를 합산하고 그 결과를 두 장의 차트용지에 통합한다. 이런 방식으로 각 모둠의 정보가 정리되고 전체 모둠이 합계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응답자들이 응답한 '이유'도 모두 기록하도록 한다. 만일 같은 답변이 여러 차례 나왔다면 그 빈도를 기록하도록 한다. 이때 '정(正)자'를 이용한다.
2. 모든 자료를 정리하였다면, 다음 통계를 계산해보도록 한다:
   - 전체 설문조사 수
   - 투표여부에 따른 응답자 비율
   - 설문 응답자 중 남녀 비율
   - 각 연령대의 응답자 비율
   - 투표를 했던 응답자 중 가장 적은 연령대
   - 투표를 했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
   - 투표를 하지 않은 응답자의 이유 중 가장 많은 대답
   - 투표를 한 응답자의 이유 중 가장 많은 대답
   - 인물 또는 정당에 관련된 이유를 댄 경우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가?
3. 설문조사활동 과정이 즐거웠는지, 어떠한 경험을 얻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결과에 대한 전체 토론에서 수많은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 설문조사를 할 때, 참가자들의 기분은 어땠는가? 사람들은 설문에 기꺼이 응답해주었는가?
- 조사가 어려웠는가? 참가자들은 조사가 즐거웠는가?
- 전체 인구의 대표적인 표본을 얻었다고 보는가? 대표적 표본을 얻어내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가?

기 념 일

3월 18일
보편적 참정권을 행사한 유럽내 첫번째 선거일 (1917년 핀란드)

-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가?
- 참가자들이 특별히 놀란 통계가 있었는가?
- 설문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가?
- 응답자들의 의견이 당신 조의 의견과 대체로 비슷하였는가? 당신이 속한 인구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설문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면, 무언가 다르게 해보겠는가? 실수가 있었는가?
- 당신의 조사 결과를 통해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투표 행태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닌 이유는?
- 결론을 신뢰할 수 있는가? 혹은 잠정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 통계는 보통 어떤 주장에 대한 논거로 쓰인다. 사람들은 통계에서 어떤 점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가?
- 이 활동을 하기 전에 가졌던 투표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뀌었는가? 어느 쪽으로든 생각이 바뀌었다면, 어떤 주장이 생각을 움직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는가?
- 우리는 투표할 인권을 가지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인권 문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촉진자용 팁

1부의 조사 기획단계는 2부의 실제 설문을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활동을 시작할 때 민주적 절차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임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투표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보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활동이 끝날 때쯤에는 모든 참가자가 자기 자신만의 결정에 도달하기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표에 대해 존재하는 다양한 이유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1부의 4번에서, 가능한 투표 여부를 이 토론의 주제로만 유지하고 '투표한다는 사람'이 '투표하지 않는다는 사람'을 설득하도록 조장해서는 안 된다. 토론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한다. 이 활동은 설문조사를 위한 장면 설정을 위한 것이다.

1부 7번, 설문조사 수행방법에 관해 논의할 때는, 이러한 설문조사 중 겪게 될 여러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질문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친구나 지인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설문지 작성 예시

설문지 1: 투표하지 않는 사람용

질문 1. 당신의 나이는?(선택 문항)

	25세 미만	25 – 40 세	40 – 60 세	60 세 이상	무응답
남성	正正下	正正下	正正一	正丁	正正下
여성	正丁	丁	正丁	丁	丁

질문 2. 지난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내 투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B. 지지하는 인물이 없었다	C. 제시한 공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D. 귀찮았다	E. 기타(상세히 기술):
正正下	正丁	正正正正下	正	투표일에 다른 지역에 가 있었다.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누군가 투표하지 말라고 했다.

아주 중요한 점은 참가자들이 얼마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일이다. 참가자들이 계산에만 매달려 있지 않도록 하려면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많다면 각 쌍마다 더 적은 수의 응답자를 인터뷰하도록 배정한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www.coe.int/compass 5장의 민주주의에 관한 배경 정보를 읽어보고, 또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한 날이 언제인지 찾아본다. 또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확인하도록 한다.(예를 들면, 아동, 이주민, 죄수 등) 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는 이유, 또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변경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다른 모둠이나 집단과 토론을 준비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190쪽 "발전소"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실천 아이디어

당신의 나라에서 여성이 선거권을 부여받은 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조직해본다.

만약 당신의 사회에서 선거권이 없는 집단을 발견했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의 우려를 전달하는 편지를 쓰도록 한다. 다른 사람들의 서명도 함께 받도록 노력한다.

추가 정보

투표에 의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민주주의에 관해 배우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다. 평등한 기회와 참여적 단체 의사 결정 과정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확립된 편리화된 방식이다. 참가자는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그들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각 아이디어 밑에 점을 찍어 놓는다. 최종 결과는 모둠의 집단적 선호성의 그래프 모양의 시각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http://www.dotmocracy.org/

유인물

설문조사 수행방법에 관한 주의사항

인터뷰대상자 찾기

가능한 인터뷰대상에게 임의로 접근한다. 즉 인터뷰 대상의 나이나, 외모, 성별 등으로 선별해서는 안 된다. 편견은 버리도록 한다.

우선 몇 가지 설문에 응답해줄 수 있는지 묻고 이어서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이 설문은 익명이며, 설문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이번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한다.

인터뷰 기록하기

만약 접근한 대상자가 설문에 참여의사를 밝혔다면, 지난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1번 설문지 "비투표자"를 사용하고, "예"라고 대답하면 2번 설문지 "투표자"를 사용한다.

질문 1: 응답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자신의 나이를 밝힌다. 밝히지 않은 경우, 연령대의 마지막 칸에 체크를 하도록 한다.

질문 2: 응답자들에게 선택지를 알려주고, 하나를 고르도록 한다. 선택지에 없는 답변을 한다면, 그 내용을 빈칸 E에 기입한다.
주: B와 C의 다른 점은, B는 특정 인물과 관련된 이유이고, C는 정당과 관련된 이유라는 점이다.

나중에 계산할 수 있도록 체크는 분명하게 한다. 하나의 설문지 내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등록되도록 한다. 한 응답자가 각각의 질문에 대한 표시는 반드시 하나만 하도록 한다.

설문지 1: 투표하지 않은 사람

설문 1. 당신의 나이는 ?(선택 문항)

	25세 미만	25 – 40 세	40 – 60 세	60 세 이상	무응답
남성					
여성					

질문 2. 지난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내 투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B. 지지하는 인물이 없었다
C. 제시한 공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D. 귀찮았다
E. 기타(상세히 기술):

A	B	C	D	E

설문지 2: 투표한 사람

설문 1. 당신의 나이는 ?(선택 문항)

	25세 미만	25 – 40 세	40 – 60 세	60 세 이상	무응답
남성					
여성					

질문 2. 지난 선거에서 투표를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투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나의 의무라고 느낀다
B. [OOO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싶었다
C. [OOO 당]에 투표를 하고 싶었다
D. 나는 [OOO 후보자 / OOO 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E. 기타(상세히 기술):

A	B	C	D	E

젠더

차별과 불관용

교육

2단계

4명 이상

120분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

장애물이 곧 길이다.

선문답

주제
- 젠더
- 차별과 불관용
- 교육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4명 이상

시간 120분

개요 성평등과 여성 차별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소모둠별로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이다.

관련 권리
- 성과 젠더로 인한 차별로부터의 자유
- 결혼과 가족에 대한 권리
-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학습 목표
- 평등이 규범인 미래 세상을 그려본다.
- 소통, 상상, 창조력, 그리고 협력 능력을 발전시킨다.
- 공정성과 존중을 증진시킨다.

준비물
- 소모둠 별 A3크기 용지나 차트용 종이 2장
- 여러 색의 마커(소모둠 별로 충분한 수량)
- 지도 한 장(되도록이면 등산용 지형도가 좋다. 산, 계곡, 강, 숲, 마을, 다리 등의 지형이 있다.)

준비 작업 지도와 지도에 사용되는 기호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진행

1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15분)

1. 사람들에게 3-5명씩 소모둠을 구성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종이 한 장과 필기구를 나누어준다. 종이에 동일하게 3칸으로 나누는 세로선을 그린다.
2. 평등세상에서는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나라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브레인스토밍해보도록 한다. 모둠 내 한 사람이 첫 번째 열에 이 내용을 메모한다.
3. 이제 참가자들에게 현재의 삶은 어떤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고, 첫 번째 열의 각 요점에 대해 성찰하고 미래의 평등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하도록 한다. 두 번째 열에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적어간다.
4. 다음으로 평등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마주할지 모르는 장애물과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한다. 이를 세 번째 열에 적도록 한다.

2부. 지도 그리기(40분)

1. 지도의 모습에 대해 간략히 검토한다. 등고선이 그려지는 방식, 산과 강의 모양, 숲, 황야, 건물, 전력선 등을 표시하는 기호를 알려준다.

기념일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

11월 3일
세계 남성의날

2. 이제 다른 기호들의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참가자들에게 도덕적 이상을 찾아 떠나는 이의 여행이라는 은유를 사용하는 민간설화나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예를 들어, 어두운 숲은 악마의 은유로 사용되고, 빨간 장밋빛 사과는 유혹을 나타내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여행자는 거친 강을 헤엄쳐 건너는 도덕적 강인함이나 고통받는 동물을 도우며 겸손함을 나타낸다.
3. 각 모둠에 두 번째 큰 종이를 나누어 준다. 모둠별로 현재와 미래의 풍경과 이를 연결하거나, 사이를 가로지르는 길을 나타내는 상상의 지도를 만들도록 한다. 현재에서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을 떠나는 여행자를 방해하거나 도움이 되는 지리적 특징과 방해물에 대해 그들만의 기호를 만들도록 한다.
4. 전체로 다시 모여 참가자들이 자신의 지도들을 공유하도록 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무엇을 표현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과 지도를 그리는 방식을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해 다른 모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론을 시작한다. 이어서 현실 세계에서 평등세상은 어떻게 보일지, 이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은 무엇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활동은 즐거웠는가? 즐거웠던 이유는?
- 가장 쉬웠던 질문과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 평등 세상의 주된 특징은 무엇인가?
- 성평등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기적 수단으로서 우대 조치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남녀 기회 평등을 점수로 매긴다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당신 나라는 1-10점 중 몇 점을 주겠는가? 1점은 매우 불평등하고, 10점은 가장 이상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 여성 인권에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여성과는 별개로, 당신 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이 차별받고 있는가? 그러한 차별은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어떤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가?
- 취약계층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역량강화에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 인권교육은 역량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촉진자용 팁

각 모둠에게 반드시 평등세상에서의 삶은 어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생각하도록 한다. 모둠은 그들만의 예를 생각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를 어려워하면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줄 수도 있다. 국회에서의 여성의 수, 민간 기업가 중 여성의 수, 소득차이, 남녀 간 하루 노동시간과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 지, 가사분담, 시간제 노동자의 수, 가정폭력, 학교나 직장에서의 괴롭힘, 미디어에서의 남녀 묘사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유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징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그려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이 교육이라는 다리를 이용하여 편견이라는 강을 건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만족을 얻은 남성의 예를 들 수도 있다. 물론 당신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예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응용

"쓰레기"를 이용해 풍경 모형을 만들어도 된다. 이때는 작은 상자, 통, 튜브, 종이, 돌, 견과류, 끈이나 실, 종이 집게 등과 또한 접착제와 모형 바닥으로 사용할 판재 등의 충분한 수집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는 지도를 그리는 방법은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사고하여 원하는 대부분의 문제에 응용할 수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현재와 미래에서의 성평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모둠은 유명한 여성들에 대해 254쪽 '연대표' 활동에서의 '되돌아보기'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는 역사를 통해 성평등의 개념과 실천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구해보도록 돕는다. 인터넷에서 '유명 여성의 연대표(timeline famous women)'를 검색해본다.

다른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 안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차별에 대한 이슈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면 156쪽 "마카족 고래잡이"라는 활동을 해보도록 한다.

실천 아이디어

당신이 다니는 학교, 동아리, 직장의 정책을 성평등 관점으로 살펴보고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평등세상의 지위를 얻기 위해 어떤 변화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토론해본다.

'동등 민주주의를 위한 논쟁(arguments for parity democracy)'을 검색엔진에 넣어, 가장 실천적인 유럽여성로비(European Women's Lobby: EWL)에서 로비와 실천 키트의 링크를 찾아본다. 또한 www.iknowpolitics.org에서 정치에서의 여성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추가 정보

이 활동의 근간 개념은 '역량강화(Empowerment)'이다. 역량강화는 제대로 번역하기 어렵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심지어 영어로도 그렇다! '역량강화(Empowerment)'는 어떤 이들은 '해방의' 교육이라고 부르는 교육학의 수단이자 결과물이다. 옥스팜의 정의로는 역량강화(Empowerment)는 여러 형태의 억압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억압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불평등한 조건이나 자신의 인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강요한다.

한 걸음 앞으로

모든 것은 타인의 권리와 이를 존중하려는 의무의 영속성으로부터 나온다.

엠마누엘 레비나스

주제
- 차별과 불관용
- 빈곤
- 인권 일반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10–30명

시간 60분

개요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더 평등하다. 이 활동에서는 참가자들이 특정 역할을 맡게 되며, 역할에 따른 삶에서의 기회 등에 따라 앞으로 한 걸음 나가는 활동을 한다.

관련 권리
-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 교육권
- 양호한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학습 목표
-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를 개발한다.
- 불우 이웃에 대한 공감을 키운다.

준비물
- 역할 카드
- 열린 공간(복도, 큰 방이나 외부 공간)
- 음악 씨디플레이어와 부드럽고 편안한 음악
- 모자 하나

준비 작업
- 진행사항을 주의 깊게 읽는다. "상황과 사건" 목록을 검토하고 작업 중인 그룹에 맞게 조정한다.
- 참가자 한 명당 한 장씩의 역할 카드를 만든다. 손으로 쓰거나 복사해서 각 카드로 자른다. 카드를 접어서 모자에 넣는다.

진행

1. 부드러운 배경음악을 틀어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음악 대신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2. 역할 카드를 모자에서 1명당 1장씩 집도록 한다. 역할 카드는 몸에 지니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한다.
3. (가급적 바닥에) 모두 앉아서, 자신의 역할 카드를 주의 깊게 읽는다.
4. 이제 각자 맡은 역할에 몰입하도록 한다. 도움을 주기 위해, 아래의 질문을 읽는다. 각 질문 후에 잠시 멈춰 생각할 시간을 주어 역할 속 인물과 인물의 삶을 그려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당신의 유년기는 어땠는가? 어떤 집에 살았는가? 어떤 놀이를 하고 놀았으며, 부모님의 직업을 무엇이었는가?

- 현재 일상의 삶은 어떠한가? 사회활동을 하는 공간은 어디인가?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가?
- 당신의 생활 방식은 어떠한가? 사는 곳은 어디이며 월 소득은 얼마인가? 여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휴일에는 무슨 일을 하는가?
- 당신은 무엇에 흥분하는가?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5. 이제 서로 열을 맞추어 서서 조용히 대기한다(마치 출발선에 선 것처럼).
6. 상황이나 사건의 목록을 읽어준다. 한 문장을 듣고 나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다.
7. 한 번에 한 문장씩 읽는다. 각 문장 사이에 잠시 멈춰 참가자들이 앞으로 나아가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과 다른 참가자들의 상대적 위치를 기억하도록 한다.
8. 모든 문장이 끝나면,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최종위치를 기억하도록 한다. 이어서 전체가 모여 디브리핑 시가을 가지기 전에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몇 분 주도록 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참가자들에게 활동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활동에 대해 느낌이 어땠는지를 물어보면서 시작한다. 이어서 활동에서 제기된 문제와 각자 배운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 앞으로 나아갈 때/또는 그러지 못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 종종 앞으로 전진하는 이들은 어느 지점에서 다른 이들이 자신만큼 빨리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는가?
- 자신의 기본적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이 있는가?
- 서로의 역할을 추측할 수 있는가? 이 토론 중에 서로 자신의 역할을 밝히도록 한다.
-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쉬웠는가? 아니면 어려웠는가? 자신이 한 역할은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상상했는가?
- 이 활동이 어떤 점에서 사회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반영하는가?
- 각 역할에서는 어떤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가? 그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지 않으며, 인권에 접근권조차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사회에서 불평등이 사라지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촉진자용 팁

이 활동을 야외에서 한다면, 특히 참가자 수가 많은 경우 촉진자의 말이 모두에게 들리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인원이 많으면 질문을 멀리까지 전달하기 위해 공동촉진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초반에 역할을 상상하는 단계에서, 자신이 연기하려는 역할의 삶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니 상상력을 이용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해준다.

이 활동의 강점은 참가자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실제로 본다는 충격에 있다. 특히 활동이 끝날 때에는, 빈번히 앞으로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거리가 매우 멀어진다.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자 각자의 삶을 반영한 역할을 수행해 보도록 한다. 역할을 이렇게 직접 만들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즉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역할은 최소한도로 줄여야 한다. 참가자가 많아서 역할을 더 만들어야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디브리핑과 평가를 하는 동안, 참가자들이 자신이 연기한 역할의 특성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신문이나 책을 통해 얻은 정보인가? 자신들이 그 특성에 대해 가진 정보와 이미지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이러한 방법으로,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작용하는 방식을 소개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서로 다른 세대의 인권('시민/정치적 권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을 서로 연결하고 해당 인권에 대한 접근권에 특별히 관련된 활동이다.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공식적 권리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난민과 망명자에게도 후자(사회적/경제적/문화적)의 권리가 존재한다. 문제는 그 권리들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권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응용

첫 번째 응용은 불평등의 상징에 대해 더 나아가 보는 것이다. 쉽게 끊어질 가늘고 긴 끈이나 종이 리본이 필요하다. 참가자들이 출발선에 줄을 섰을 때, 당신은 리본을 풀면서 출발선을 따라 걷는다. 참가자 각각을 지나면서 리본을 잡도록 하여, 모든 이들이 이 리본을 통해 "결합"하게 된다.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야 할 때, 어떤 참가자들은 움직일지 말지, 줄을 끊어야 할지 말지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리본을 끊어버린 것에 대해 남겨진 다른 이들이 비난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 라고 답변한 경우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규칙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라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 머물러야만 한다.

두 번째 응용: 앞서 서술한 방식으로 첫 라운드를 진행하고 나서, 과소평가된 역량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두 번째 라운드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그들의 상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해둔 문장들을 읽어간다. 예를 들면:

- 당신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말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 당신은 개인적 신체나 정신적 장애를 극복했으며, 이를 통해 실직 상태를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과 내적 힘을 얻고 있다.
- 당신은 불치병을 앓고 있고, 다른 이들에 비해 삶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다.
- 당신은 깊은 산골에서 자라서 기후변화의 결과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위기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 당신은 적은 예산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가장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이 방법을 다른 많은 관심 분야에서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물에 대한 접근성, 정치사회적 생활에서의 참여, 젠더 이슈 등이 있다. 만약 다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다른 역할과 문장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럴 경우, 잠재적으로 민감한 역할과 진술에 유의해야 한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은, 우선 소모둠 활동을 하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전체 활동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공동 촉진자가 거의 필수적이다. 이 방법으로 모둠별로 디브리핑의 두 번째 부분-각자의 역할을 공개한 후-을 진행해본다.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어떤 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거나, 더 적은 기회를 갖는지 탐구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다른 방법으로, 전체 역할 중 한 캐릭터를 선택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즉, 자신, 사회, 정부의 책무는 무엇인가?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다루고자 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특정 문화 혹은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단체의 대표를 초청하도록 한다. 그들이 현재 지향해서 투쟁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당신과 청소년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같은 대면 만남은 토론을 통해 드러난 고정 관념이나 선입견을 돌아보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참가자들이 전 세계에서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보다 더 알고자 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한다면, 168쪽 '모두를 위한 교육' 활동을 살펴보기 바란다.

기 념 일

10월 16일
세계 식량의날

주

이 활동은 '다른 것들'(엘스 반 모리크)과 여러 활동으로 부터 학습된 것이다.

모둠은 '한 걸음 앞으로' 활동에서 제시된 역할들에 대한 고정 관념을 다루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교육 패키지 [모두 다르고 – 모두 같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Euro-rail 'a la carte'"를 다루어 볼 수 있다. 이 활동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과 객차를 함께 타고 싶고, 어떤 이들은 함께 타고 싶지 않은지를 묻고 있다.

실천 아이디어

후속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은다. 당신과 청소년들이 사회, 문화적 소수자에 대해 활동하는 조직이나 모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에 옮기도록 한다.

유인물

역할 카드

당신은 실직한 한부모 엄마입니다.	당신은 집권여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당신은 지방은행 관리자의 딸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패스트푸드 사업에서 성공한 중국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과 함께 사는 무슬림 소녀입니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의 딸입니다.
당신은 의무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무역회사 사장입니다.
당신은 휠체어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청년입니다.	당신은 신발공장을 퇴직한 노동자입니다.
당신은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17세 룸인 소녀입니다.	당신은 마약에 중독된 젊은 예술가의 여자 친구입니다.
당신은 에이즈에 걸린 40대 성매매여성입니다.	당신은 22세의 레즈비언입니다.
당신은 첫 직장을 구하고 있는 대학졸업생입니다.	당신은 아프리카 출신의 패션모델입니다.
당신은 24세 아프카니스탄에서 온 망명자입니다.	당신은 27세 노숙자입니다.
당신은 말리에서 온 미등록 이민자입니다.	당신은 19세로, 산골 농부의 아들입니다.

상황과 사건

다음의 제시된 상황을 크게 읽는다. 각 상황을 읽고 나서 참가자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주위 사람들과 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 당신은 한 번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본 적이 없다.
- 당신은 전화기와 TV가 있는 적절한 집을 가지고 있다.
- 당신의 언어, 종교와 문화가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 사회와 정치적 이슈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중요시되고 견해에 대해 사회가 귀기울여준다고 느낀다.
- 다른 이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당신에게 자문을 구한다.
- 경찰이 당신을 불러 세운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
- 필요할 때, 조언과 도움을 구할 곳을 알고 있다.
- 당신은 결코 출신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다.
- 당신의 필요에 대해 적절한 사회적 • 의료적 보호를 받는다.
- 일 년에 한 번씩 휴가를 갈 수 있다.
- 친구를 집의 저녁식사에 초대할 수 있다.
- 사는 게 재미있고, 미래의 전망이 밝다.
- 공부할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느낀다.
- 길거리에서나 언론매체에 의해 모욕당하거나 공격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 당신은 국가 및 지방단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가장 중요한 종교 축제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
- 당신은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화나 연극을 보러갈 수 있다.
- 당신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 두렵지 않다.
- 적어도 석달에 한 번은 새 옷을 살 수 있다.
- 당신은 원하는 이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
-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당신의 능력이 인정받고 존중되고 있다고 느낀다.
- 인터넷을 잘 이용하고 있다.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 검열의 두려움 없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향토 유적

유산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유네스코

주제
- 인권 일반
- 차별과 불관용
- 종교와 신념

난이도 2단계

모둠 크기 12-35명

시간 120분

개요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고 유적지와 인권을 연결하는 활동이다.

관련 권리
- 교육권
- 신념과 종교에 대한 자유권
- 지역 사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학습 목표
- 자신이 속한 마을이나 생활 환경에 있는 유적을 인식하기.
- 추모 및 유적지를 인권과 연결하기.
- 지역사회의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기.

준비물
- 응용을 사용한다면, 각 사이트에서 논의할 질문 목록
- 그룹들이 탐색할 지역의 지도(선택 사항)

준비 작업
- 모둠이 걷게되는 마을의 특정 지역을 확인해둔다. 모둠 자체적으로 탐색할 지역을 고르도록 할 수도 있으며, 선택할 옵션을 제공하면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다.
- 모둠이 걷거나 탐색할 영역을 구분해둔 지도 사본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보낸다.
- 참가자들이 적절한 복장과 물이나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해, 야외 활동을 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려준다.

진행

1. 참가자들을 5-6명으로 모둠을 구성하도록 하고 마을에서 좋아하는 건물/장소/조각/상징물을 좋아하는 이유와 함께 간단히 공유하도록 한다.
2. 참가자들에게 같은 모둠끼리 마을의 특정 지역에서 한 시간 동안 걸으며 마을 유산의 일부인 건물, 조각상, 상징물, 거리 이름, 명패 등을 찾을 것이라 것을 알려준다. 여러분은 그들이 가기를 원하는 마을의 특정 지역을 구성하여,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각 모둠이 마을의 각기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3. 그들의 임무는 온라인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각 사이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찾는 것이다. 정보를 적고, 사이트의 사진을 찍도록 한다.
4. 모둠이 돌아오면 30분 동안 정보를 처리하고 찾은 것(사진 포함)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시간을 준다.
5. 각 모둠은 마을 투어에서 찾은 내용과 배운 정보를 간략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디브리핑과 평가

1. 유적의 관점에서 이 마을을 탐색하는 기분은 어땠나?
2. 온라인에서 장소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웠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했나?
3. 당신이 파악한 사이트와 관련된 인권은 무엇인가?
4.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에 놀랐는가? 어떤 것들인가?
5. 다양한 문화/종교 집단들을 관련된 사이트를 찾았는가? 이 집단들은 현재 유럽에서 그들의 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가?
6. 여러분은 이 마을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 유적과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왜 그런가?
7. 여러분은 공공장소에 유산에 관련된 것들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그러한가? 왜 유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촉진자용 팁

많은 사람들이 그들 마을에 있는 문화유산을 지나치고 그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꽤 흔한 일이다. 일부 문화유산은 매우 잘 알려진 반면, 다른 것들은 완전히 무시된다. 예를 들어,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그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유대교 회당이나 이슬람 사원이 파괴되고 그 자리를 표시하는 표지판만 남은 곳을 찾을 수 있다. 나그네들은 표지판들을 쉽게 놓친다. 당신은 함께하는 청년들 모임을 따라하면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하거나, 혹은 그들이 찾아보아야 하는 특정 장소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이 인권에 매우 익숙하지 않은 경우, 참가자들에게 세계 인권 선언 요약본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으로 그들이 보고 있는 장소가 어떤 권리와 관련이 있는지를 더 쉽게 파악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참가자들이 탐색 중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할당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가야 하는 장소가 꽤 멀다면, 하루중 마지막 활동의 첫 부분(탐색)을 하고 다음 날 일찍 발표와 디브리핑을 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응용

특정 사이트를 모둠에 미리 알려주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 각 사이트에서 논의할 질문 목록을 모둠에 제공할 수 있다. 또는 보물 찾기 스타일로 이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룹의 첫 번째 작업은 사이트에 가서 사진을 찍고 사이트에 대해 논의한 다음 특정 질문에 답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각 사이트 옆에 팀원이 배치되고 그룹은 답을 주거나 작업을 보여주며 두 번째 사이트에 대한 지침과 함께 봉투를 제공받도록 한다.

여러분은 오직 거리나 광장의 이름을 탐구하는 것에만 활동을 집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그들을 기리는 장소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어떤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기억되는지를 탐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면들을 분석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표현이 있는가? 이 사람들 중 누구라도 인권의 문화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들은 인권의 오용과 침해에 기여한 적이 있거나 또는 관련이 있는가? 디브리핑에서 여러분은 또한 참가자들이 인권에 대한 그들의 기여로 어떤 이들이 거리 이름으로 명예를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논의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후속 활동을 위한 제안

기억과 기억의 측면을 더 탐구하고 싶다면 160쪽 '메모리 태그' 활동을 실행할 수 있다.

유럽의 문화 유산에 참여하고, 유럽 공동 공간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며, 유럽차원에서 유럽 전 역의지역 유산이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는 "유럽 유산의 날(European Heritage Days)"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https://www.europeanheritagedays.com.

실천 아이디어

참가자들은 거리나 광장에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를 조사하여 새로운 이름이나 이름을 대체하기 위한 제안을 지역 당국에 할 수도 있다.

인권 달력

아래 달력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인권을 기념하는 날들을 모아 최신의 목록을 구성해보고자 한 것으로,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이를 기리고, 인권이 유린된 사건들을 기억하여, 희망과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이다. 주요한 날들은 공식적인 UN 국제기념일, NGO들이 인정한 세계기념일, 역사적 사건과 몇몇 저명한 인권 활동가의 생일들로 구성되었다. 이 목록은 완성되었거나 확정된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점이다. 자기 자신이 기억할만한 날들을 추가하도록 권장한다.

달력은 복사해서 포스터로 만들어 벽에 붙여두고 인권 문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이용하도록 한다. 특히 달력을 통해 인권이 다루는 범위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지침서가 된다. 사람들이 의견을 더하도록 초대한다. 이 모든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추가하고자 하는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주요한 날은 무엇인가?

2장에 있는 각각의 활동들에 관련된 기념일을 배치해두었다. 이는 일 년 단위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구로 사용하자는 의도이다. 각 주나 월을 시작점으로 '주제'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언론 자유의 날인 5월 3일에 '전면 기사' 활동을 해보거나, 여성폭력철폐의 날인 11월 25일에는 '가정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모둠이 다른 단체가 특정일에 주최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단체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한다.

실천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교육 패키지 [모두 다르고 – 모두 같다]의 "실천 A-Z(A-Z of Actions)"를 참고하라.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팁과 지침은 매뉴얼 3장을 참고하라.

매년 인권의 이해가 확장되는 만큼, 이 달력도 발전해야 한다. 이 매뉴얼의 사용자인 당신에게 주어진 도전과제는 일 년 중 하루도 빠짐없이 인권을 기념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일자	기념	일자 정보	관련 활동
1월 27일	세계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1월 27일은 나치 학살의 최대 수용소인 아우츠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의 해방일이다. 2005년 UN 총회에서 나치 시대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선택한 날이다.	메모리 태그
2월 8일	안전한 인터넷의 날	세계 안전한 인터넷의 날은 Insafe가 조직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휴대폰의 사용을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내 삶은 쇼가 아니다
2월 12일	소년병 반대의 날	소년병 상황에 대한 관심을 끌려는 레드핸드 캠페인을 지원하는 단체: 국제 인권감시기구,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독일청소년적십자, 테레 데 옴므스, 플랜인터내셔널	돌 던지기
2월 21일	국제 모국어의 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의 보존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과 언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유네스코가 선언하였다.	언어 장벽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과거, 현재, 미래 여성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성과를 기념하고자 3월 8일을 기념하고 있다. 첫 기념일은 1911년으로 거슬러 가며, UN에서는 1975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다.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
3월 12일	세계 사이버검열 반대의 날	세계 사이버검열 반대의 날은 2009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와 국제 앰네스티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일자	기념	일자 정보	관련 활동
3월 18일	유럽 내 보편적 참정권에 의한 첫 번째 선거	1917년 핀란드에서 실현되었다.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3월 21일	세계 시의 날	시를 읽고, 쓰고, 출판하고, 가르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 유네스코가 선언하였다.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1960년 이날에 남아프리카의 샤프빌에서 인종차별법인 "흑인 신분증 소지법"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에 경찰이 발포하여 69명을 사살했다. 1966년 UN총회는 국제사회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며 이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다.	인종차별에 맞서기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 및 개발에관한회의(UNCED)의 아젠다21로 처음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 1993년 경제생산력 증가와 사회복지의 발전에 수자원의 기여를 인식하기 위해 첫 기념행사를 가졌다.	
3월 23일	세계 기상의 날	세계기상기구(WMO): 이 기구의 기상 예보는 식량 안보, 수자원 및 운송 분야에서 필수적이다.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	1882년 이날에, 로베르트 고흐박사가 결핵균의 발견을 베를린 의사그룹에 결핵 발견을 발표했다. 1992년 WHO가 기념일로 선언하였다.	
4월 둘째 화요일	유럽 평등 임금의 날	BPW 유럽 (BPW: 여성 기업인 및 전문직협회)에 의해 선언되었다.	차별 임금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	불필요한 고통에 대한, 생명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195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하였다.	1분 토크
4월 8일	국제 롬인의 날	롬인(집시) 문화를 기념하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해 1990년 공식 선포되었다.	도스타(충분해)!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이 날을 전 세계에서 기념함으로써 유네스코는 독서, 출판 산업, 저작권을 통한 지적재산권보호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5년 처음 기념하였으며 '세계 책의 날'이라고도 불린다.	
4월 24일	아르메니아 대학살 추모의 날	1915년 4월 24일, 오스만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에서 아르메니아인 지식인과 지역 지도자 수백 명을 체포해 살해를 시작한 날이다. 이어진 학살과 기아로 아르메니아인 15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4월 28일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선언하였다.	
5월 1일	노동절	"노동절(May Day)"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의 노동조합 운동의 기념일이다.	노사 협상
5월 둘째 토요일	세계 공정무역의 날	세계 공정무역기구에서 선포되었다.	조심하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	언론자유를 증진시키고 자유롭고 다원적이며 독립적인 언론이 모든 민주사회에서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1993년 UN총회에서 채택하였다.	전면 기사

일자	기념	일자 정보	관련 활동
5월 5일	유럽 통합의 날	유럽의 평화와 통합의 연례기념행사. 두 개의 기념일: 유럽평의회는 5월 5일, 유럽연합(EU)는 5월 9일을 축하한다.	모두 평등하고 모두 다르다
5월 8일	세계 적십자와 적신월의 날	적십자와 적신월의 노력을 기억하고 경의를 표하는 날이다.	권리 빙고
5월 8-9일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위한 추모와 화해의 날	2004년 UN총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선포되었다.	메모리 태그
5월 15일	국제 가정의 날	가정문제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1993년 UN총회에서 선언했다.	일과 육아
5월 15일	국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날	전쟁 원인에 대항하는 비폭력 행동을 촉진하고, 전쟁에 참여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전쟁저항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에서 선언하였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UN후천성면역결핍증위원회(UNAID)와 UN합동프로그램(HIV/DAIS)이 공동 제정, 파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위원회(IDAHO Committee)가 협동해서 주관.	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5월 17일	세계정보통신사회의 날	2005년 인터넷과 신기술에 의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엔이 선언하였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5월 21일	세계 반테러의 날	이 날의 목적은 모든 형태의 테러와 폭력에 맞서는 것이다. 인도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테러 조직과 캠프에 잡혀있기 때문이다.	테러
5월 21일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지구 공존에 대한 약속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UN에 의해 선포되었다.	우리의 미래
5월 22일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생물다양성 이슈를 촉진하기 위해 2000년 UN총회에서 선언하였으며, 이전에는 12월 29일에 기념하였었다.	
5월 26일	세계 도전의 날	매년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에서 조직하고 있다. 이날 세계 각지의 공동체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활동적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체육대회를 연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5월 28일	유럽 이웃의 날	유럽평의회가 후원한다. 이 날은 이웃과 파티와 이벤트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꽃의 힘
5월 29일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의 날	평화유지 활동에 전문성과 헌신, 용기를 가지고 참여했고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남녀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2002년 유엔에서 선언하였다.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24시간 동안 모든 형태의 담배를 끊는 것을 장려하고 만연하는 흡연과 건강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만들었다.	
6월 4일	세계 침략 희생 아동의 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으로 인한 아동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동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기억하기 위해 1982년 이래로 기념하고 있다.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

일자	기념	일자 정보	관련 활동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환경보전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72년 UN총회에서 선언하였다.	손가락들
6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시작했다.	애시크 이야기
6월 17일	세계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	1995년 UN에 의해 사막화와 가뭄 피해를 맞서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이고, 사막화를 막기 위한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포되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50주년 행사를 기념하여 2000년 UN총회에서 선포하였다.	들어가도 될까요?
6월 23일	국제연합 공공 서비스의 날	개발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기여를 강조하기 위해 UN에서 지정했다.	
6월 26일	세계 약물 남용과 불법밀매 반대의 날	약물 남용 없는 국제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날을 제정하기로 1987년 UN총회에서 결정했다.	
6월 26일	UN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	1997년 UN에서 선포하였으며, 고문 근절과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혹,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UN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7년 6월 26일에 처음으로 기념되었다.	차할 대 영국정부
7월 첫째 토요일	국제 협동조합의 날	1992년 UN총회에서 선포된 날로 국제협동조합연맹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협동조합이 발전에 있어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	1989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인구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선포되었다.	
7월 18일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2009년 UN은 7월 18일을 넬슨 만델라의 날로 선포하였으며,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평화와 자유의 문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식하고자 한다.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
8월 2일	롬인(집시)과 신티족 학살 추모의 날	이 날은 소위 "집시 가족 캠프"의 청산을 의미하며, 나치가 약 3000명의 남녀와 아동을 비르케나우 가스실에서 죽였던 1944년 2월 2-3일 밤을 나타낸다.	
8월 6일	히로시마의 날	이 날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첫 번째 원자폭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8월 9일	세계 원주민의 날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1994년 UN총회에서 선포했다.	마카족 고래잡이
8월 12일	세계 청소년의 날	전 세계의 청소년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1999년 유엔에 의해 지정되었다.	우리의 미래
8월 23일	국제 노예무역과 그 철폐 기념의 날	대서양 노예무역을 기억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선언하였다. 이 날은 1791년 8월 23일 카리브해에서 산토 도밍고 노예들이 혁명을 조직하고 이것이 아이티 혁명으로 이어지고 인권의 명분을 촉진하였음을 기념한다.	연대표
8월 23일	유럽 스탈린주의와 나치즘 희생자 추모의 날	2008년 유럽의회에서 선포하였다.	

일자	기념	일자 정보	관련 활동
9월 8일	국제 문해의 날	1966년 유네스코에 의해 처음으로 선언되었는데, 개인, 지역사회와 사회를 위해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
9월 15일	세계 민주주의의 날	2007년 유엔에서 선포	관계 맺기
9월 19일	여성 참정권의 날	1893년 뉴질랜드에서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진 날이며, 뉴질랜드는 보편적 참정권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이다.	선거운동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	1981년에 UN총회에서 비폭력과 휴전의 날로 선포했다. UN은 이 날에는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한다.	우리 동네의 이슬람 사원
9월 28일	알 권리의 날	전 세계에서의 정보 접근권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식되기 위해 2003년 처음 기념되었다.	사다리에서
10월 첫째 월요일	세계 안락한 주거의 날(빈민가 없는 도시)	1986년 유엔에서 처음 도입한 기념일로 우리 도시와 마을의 상태와 적절한 주거라는 기본권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두 도시 이야기
10월 둘째 수요일	국제 자연재해 감소의 날	자연재해 예방, 감소, 대처와 대비 등에 대한 전 세계적 문화를 만들고자 2002년 유엔에서 도입하였다.	생명의 그물망
10월 1일	국제 노인의 날	1990년 유엔총회에서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이 연령층이 사회에 기여한 바를 인식하기 위해 이 날을 제정하였다.	
10월 1일	국제 음악의 날	사회 모든 분야에 음악을 촉진시키고자하는 국제음악위원회에서 1975년에 이 날을 시작하였다.	
10월 2일	국제 비폭력의 날	UN에서 제정한 이 국제적 기념일은 교육과 대중 인식증진을 통해 비폭력을 촉진한다. 또한 이 날은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탄생일이다.	내 삶에서의 폭력
10월 5일	세계 교사의 날	교사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4년 유네스코에서 만들었다.	곧 구식이 된다
10월 7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	2008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가 만들었으며, 전 세계에서 일자리를 위한 투쟁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일하고 싶다!
10월 둘째 목요일	세계 시각의 날	세계보건기구(WHO): 시각장애인, 시력 상실과 이들의 재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안경을 바꿔라
10월 10일	세계 사형제 반대의 날	2002년 세계 사형반대연합에서 조직하였다.	내일이 오면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	세계 정신건강연맹이 주도하여 1992년 처음 기념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10월 15일을 포함한 주	유럽 지역 민주주의 주간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지역차원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평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모든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일자	기념	일자 정보	관련 활동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	1979년 UN총회에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과 결핍을 근절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선언하였다.	한 걸음 앞으로
10월 17일	국제 빈곤 퇴치의 날	1992년 유엔 총회에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과 결핍을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선언하였다.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
10월 24일	국제연합일	1947년 유엔 헌장을 기념하기 위해 선포되었다. 이날의 목적은 "유엔의 목표와 성과를 세계인에게 알리고, 유엔 활동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10월 24-30일	군축 주간	1978년 유엔은 군비경쟁의 위험성과 이를 종식시킬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비 축소의 시급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었다.	
10월 25일	국제 예술가의 날	피카소의 탄생일이며, 관련 풀뿌리운동에 기초하고 있다.	“그림연상” 놀이
11월 3일	국제 남성의 날	1999년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시작되었다. 어린 소년과 남성의 건강을 증진하고, 젠더 관계를 개선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긍정적 남성역할 모델을 강조하기 위해 UN이 지지한다.	평등 세상으로 가는 길
11월 4일	유럽인권 협약	1950년 11월4일 체결되었다.	발전소
11월 6일	전쟁과 무력 충돌로 인한 환경 착취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날	2001년 UN이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우리 공동의 환경을 보호하도록 촉진하고, 분쟁과 국경을 넘어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및 천연자원의 파괴를 막기 위해 선포했다.	
11월 9일	국제 파시즘과 반유대주의 반대의 날(깨진 유리의 밤)	1938년 11월 9일, 나치는 유대인들에 반하는 박해를 시작했다. 유대인 상점들은 ‘깨진 유리의 밤’이 되었다. 이 기념일은 유럽평의회에서 승인되었다.	
11월 9일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 날은 동유럽과 서유럽 간 장벽 붕괴 시작을 상징한다.	
11월 11일	국제 과학 및 평화의 날	2001년 유네스코가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학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국가 간 과학 협력을 위한 국가 및 국제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수립했다.	
11월 16일	국제 관용의 날	1995년 유네스코가 불관용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언하였다.	신자들
11월 18일	인신매매방지의 날	2007년 유럽의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11월 20일	세계 아동의 날	1954년 유엔에서 전 세계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아동 간 박애와 이해를 위한 날로 선포했다.	아동의 권리
11월 21일	세계 텔레비전의 날	1996년 유엔 총회에 의해 평화, 안보, 경제 및 사회 발전과 문화 교류의 촉진에 초점을 맞춘 TV 프로그램의 세계적인 교류와 문화적 교류 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선언되었다.	‘그림 연상’ 놀이

일자	기념	일자 정보	관련 활동
11월 25일	국제 여성폭력추방의 날	1981년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11월 25일을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날로 정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고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하여 1999년에 유엔 공식기념일로 선포되었다.	가정사
11월 29일	국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연대의 날	1977년 팔레스타인의 권리에 관한 전시회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 1977년 유엔에 의해 선포되었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1988년 UN(WHO)에서 선포하였으며, 에이즈의 전 세계적 유행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의약품 접근성
12월 2일	국제 노예제 철폐의 날	1949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을 상기한다.	
12월 3일	국제 장애인의 날	1992년 UN에 의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선언되었다.	능력을 보라!
12월 5일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제 자원봉사자의 날	1985년 UN은 자원봉사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선포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12월 9일	국제 반부패의 날	2003년 UN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포한 날로 부패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였다.	
12월 10일	인권의 날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관심 있는 국가와 단체들이 1950년 UN총회에 초대되었다.	‘그림 연상’ 놀이 몸으로 표현하기 인권 수호자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2002년 UN이 모든 이주민의 인권 존중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선언했다.	세 가지 물건
12월 20일	국제 연대의 날	2005년 UN이 시작하고 주도하고 있는 투쟁의 주도록 부분으로, 다양성에 기초한 통합을 축하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취를 위한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었다.	얼마나 필요한가?

시작 활동

시작이 반이다.

그리스 속담

주제 인권 일반

난이도 2단계

시간 15분

개요 여기에 제공되는 시작 활동은 긍정적인 참가자 분위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방법으로 인권을 소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관련 권리 모든 권리

학습 목표
- 인권에 관련된 호기심을 일깨운다.
- 협력을 이끈다.
- 창의성과 활력 그리고 동기를 키운다.

나침반은 한 권의 책 이상이다.

이 활동은 비언어적 활동으로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나침반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방법이다.

진행

1. 강의실 바닥에 나침반을 두고 참가자들에게 빙 둘러서라고 요청한다.
2. 이 활동은 마임으로 참가자들이 나침반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언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마임의 의미가 책만 아니면 된다. 모임의 나머지 구성원은 이 책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추측하도록 한다.
3. 시범으로, 책을 들고 “이것은 책이 아니야 ….이게 뭘까?”라고 말한다. 그리고 샌드위치처럼 먹는 시늉을 한다. 누가 “샌드위치”라고 말하면, 책을 다시 바닥의 제자리에 놓는다.
4. 참가자들이 순서대로 마임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아이디어를 통해 서로 영감을 주도록 하고 준비가 되면 순서를 진행한다.

촉진자용 팁

또한 이 방법은 활동 평가를 시작할 때 그리고 훈련과정 중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앉아!

이 활동은 다양한 인권 문제를 소개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의견을 표현하도록 장려한다.

준비물
- 공감
- 의자, 참가자당 1개 + 여분 의자 1개
- 준비된 문장들

진행

1. 모든 사람들은 둥글게 의자에 앉는다. 여분의 빈 의자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
2. 첫 문장을 읽고, 동의하는 이들은 빨리 자리를 바꾸어 다른 의자에 앉는다.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그대로 앉아있고,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일어나서 한 번 빙 돌고 다시 앉는다.

촉진자용 팁

이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은 나름대로 즐겁고 재미있다. 아래 문장들이 인권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물으면서 활동을 마무리한다. 어쨌든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이므로, 어떤 논쟁도 끌어내지 말아야 함을 명심한다.

다른 방안으로, 이 활동을 깊이있는 토론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신의 목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문장들로 구성해야 한다. 문장에 대한 참가자들의 다른 반응과 그러한 다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다른 옵션으로, 특정 주제를 다루고자 하면, 참가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문장을 쪽지에 적도록 하고 이것을 상자나 모자에 모아서 하나씩 꺼내며 진행할 수 있다.

다음 목록에서 문장들을 고르거나 당신 자신의 문장들로 구성할 수 있다:

- 나쁜 평판을 받는 것은 남자 아이보다는 여자 아이에게 더 나쁘다.
- 젊은 여자가 몸에 난 털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만하다.
- 아이들에게 끈팬티를 파는 것은 잘못이다.
-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만하다.
- 여자는 남자에 비해 요리를 더 잘한다.
- 게이와 레즈비언은 결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친구가 나에게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해주더라도, 나는 계속 친구로 지낼 것이다.
- 마른 여자만이 아름다울 수 있다.
- 아름다움은 내적인 것이다.
- 어렸을 때부터, 여자 애들은 바느질을 더 잘하고 남자 애들은 기계를 다루는 것을 더 잘한다.
- 어떤 강간은 여성의 잘못인 경우가 있다.
- 근육이 있는 것이 남성적이다.
- 남자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잘한다.
- 이주자들은 그래야하기에 항상 열심히 일한다.
- 발레는 남자에게는 적당한 직업이 아니다.
- 남자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자연스럽다.
- 대통령이나 수상은 남성이 되는 것이 여성이 되는 것보다 낫다.
- 남편이 아내보다 수입이 적으면 안 된다.
-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친구에게 말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 사랑이 있어야 섹스를 한다.
- 성에 대한 어른들의 관점은 낡았다.
- 포르노 잡지에서 성에 대해 쓸만한 조언을 찾을 수 있다.
- 10대 잡지에서 성에 대해 쓸만한 조언을 찾을 수 있다.
- 모든 사람의 가치는 동등하다.

“나는 …를 잘한다”

이 활동은 모둠에서 다양성과 연대를 보여줌으로서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진행

1. 모두들 둥글게 큰 원으로 서도록 한다.
2. 한 사람(누구든)에게 원 안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말하도록 한다.
3. 이제 모둠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한 발짝 나와 자기 이름과 자기가 잘하는 것을 말하도록 한다.
4. 이제 한 바퀴를 돌았다면, 다른 사람을 청하여 다음 바퀴를 진행하고,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나간다.

촉진자용 팁

처음 원을 가능한 크게 만들어서, 각 바퀴를 돌 때마다 원이 조금씩 작아지더라도 아직 여유 공간이 남도록 한다.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서로 매우 가깝게 서게 된다.

아름다운 아람씨와 청아한 청명씨

이 활동을 첫 만남에 사용하라. 이름 소개는 차치하고 서로의 연대와 존중을 촉진한다.

진행

1. 모든 사람들을 원으로 서게 한다.
2. (누구든) 한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예, 아람)을 말하도록 한다.
3. 모둠의 다른 이들에게 이름 첫 자로 시작하는 긍정적인 형용사를 생각해내도록 한다.
4. 아람씨에게 제안 중 하나를 고르게 하라.
5. 이제 아람씨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람씨, 저는 청명이라고 해요.”
6. 모둠 구성원들에게 청명씨를 위한 형용사를 찾도록 요청한다.
7. 이제 다음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람씨와 청아한 청명씨, 저는 …입니다”
8. 모든 사람들이 소개될 때까지 원으로 돌아간다.

촉진자용 팁

해당 사람을 실제 표현하는 형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첫 글자와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제안된 표현 중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은 자신이 선택하도록 한다.

촉진자로서, 아무도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모둠 이름에 대한 긍정적인 형용사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재미있는 응용으로는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람씨는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모둠은 각각의 이름, 형용사, 행동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매듭

이 활동은 협동을 수반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상징한다.

진행

1. 참가자들을 6-8명의 소모둠으로 나눈다.
2. 모두 어깨를 맞대고 원으로 서서 팔을 앞으로 뻗는다.
3. 이제 뻗은 손이 다른 이의 손을 맞잡도록 한다. 조건은:
   a) 두 사람이 서로 양쪽 손을 맞잡지 않도록 하고
   b) 바로 옆 사람의 손은 잡지 않도록 한다.
   이 결과로 손은 맞잡은 큰 매듭의 형태가 될 것이다.
4. 이제 참가자들에게 손을 놓지 않은 채 매듭을 풀도록 한다.

촉진자용 팁

참가자들은 팔을 아래위로 넘나들어야 하고,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놀라운 결과로 하나 혹은 두 개의 큰 원으로 나타난다.

이 활동은 재미있는 활력소로 잘 작용한다. 요점을 정리하고 싶다면 매듭을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물어본다: 매듭을 푸는 것이 미친 짓이거나 답 없는 행동처럼 보였는가? 이를 완수했을 때, 결과에 놀랐는가? 이어서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차이는 세계 문제 대부분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다.”

바닥 닿기

이 활동은 협력과 모둠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 활동은 가까운 신체접촉을 필요로 한다.

진행

1.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신체의 9가지 “지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 한다: 두 발, 두 손, 두 팔꿈치, 두 무릎, 이마
2. 참가자들에게 교실 가운데 흩어져 서도록 한다. 1에서 9사이의 수를 부르고, 해당되는 숫자만큼 바닥에 닿도록 요청한다. 두 번 더 진행한다.
3. 참가자들에게 쌍을 구성하도록 하고, 2에서 18사이의 수를 부른다. 쌍은 함께 해당하는 숫자만큼 바닥에 닿도록 한다. 두 번 더 진행한다.
4. 참가자들에게 모둠의 크기를 4, 8, 16씩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의 모둠이 될 때까지 진행한다.

촉진자용 팁

말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수화로만 소통하도록 한다.

4명이 함께 할 때, 2명이 다른 2명을 든 채로 한쪽 다리로 서있다면 숫자는 2까지 낮아질 수 있다! 네 명이 할 때, 상징적인 최소수는 아마도 4이며, 가장 높은 수는 4x9=36이 된다. 매 회 가장 큰 수는 팀 구성원에 9를 곱한 수가 된다!

참가자들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한다. 큰 팀으로 진행하게 되면, 서로 누가 어떤 부위를 써야하는지 조정하기 위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8명의 팀에서 6 또는 8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바닥의 초성

이 활력소는 시작 부분의 “환영” 활동으로 매우 적합하다. 참가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서로 이름과 출신에 대해 알게 된다. 다양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다루는 토론의 출발점으로 좋다.

준비사항

- A4용지를 자른 조각에 한글 초성(자음) 문자를 써 놓는다.

진행

1. 각 글자를 바닥에 무작위로 흩어둔다. 참가자들에게 이 주위로 둘러서도록 한다.
2. 몇 가지 질문과 진행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면: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참가자들이 자기 이름의 첫 철자에 해당하는 글자에 발가락을 대고 서도록 한다. 예를 들어, 희수는 ‘ㅎ’에, 문수는 “ㅁ”에 서도록 한다.
3. 모두가 자신의 철자를 찾았으면, 철자별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빠르게 말하도록 한다.
4. 다른 질문으로 반복한다.

촉진자용 팁

특정 글자에 한 사람 이상이 서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글자 사이를 벌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사실 3명 이상의 사람이 한 글자에 서 있으려고 서로 붙들고 있어야 하는 재미가 있다.

글자를 무작위로 흩어두는 것은 참가자들이 서로 도우면서 글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둠 구성원이 국제적이라면, 알파벳의 선택에 주의해야 하며 글자를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사실 한 종이에 동등한 문자를 다른 알파벳으로 적어두는 것은 호기심도 일으킨다.

모둠의 크기에 따라, 더 많거나 적은 회수로 진행할 수 있다. 질질 끌지 않도록 한다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이름이 무엇인가요?
-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는?
- 당신이 태어난 나라는?
-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음료는?
- 당신이 좋아하는 색은?
- 당신이 좋아하는 책 / 음악은?
- 삶의 모토는 무엇인가?

추가 정보

다음의 사이트에서 보다 다양한 시작 활동을 찾을 수 있다:

- http://wilderdom.com/games/Icebreakers.html
- http://www1.umn.edu/humanrts/edumat/hreduseries/hrhandbook/activities/11.htm
- http://www.amnesty.ca/youth/youth_action_toolkit/icebreakers.php
- http://www.corrymeela.org/sitepage/icebreakers.aspx
- http://www.nationalserviceresources.org/taxonomy/term/183

인권 일반

1단계

제한 없음

10분

마무리 활동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일도 시간 낭비는 아니다.

오귀스트 로댕

난이도 1단계

모둠 크기 제한 없음

개요 리뷰는 본 인권교육 매뉴얼의 기초를 구성하는 경험기반 학습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어지는 활동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배우도록 하는 쉽고 재미있는 방법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은 하나의 나침반의 활동 진행 후에 사용되곤 하는데, 각 활동의 [자세한 디브리핑과 평가] 대신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하루의 학습훈련을 마무리할 때나 보다 긴 훈련과정의 마무리 그리고 촉진자가 빠른 피드백을 원할 때,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이 배운 내용과 배운 과정에 대해 나누는 데 가장 유용하다.

관련 권리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교육권
- 참여권

학습 목표
- 경험을 통해 인권 이슈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인다.
- 비판적 사고를 개발한다.
- 경험을 학습의 원천으로 하는 습관을 키운다.
- 학습과정의 평가를 지원한다.

마무리 게임

시간: 10분

진행

1. 세션(활동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간단히 돌아본다.
2. 참가자들을 둥글게 앉도록 한다.
3. 문장 하나를 골라, 돌아가면서 문장을 완성하도록 한다. 의견이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시간이 있거나 추가 피드백을 원하면, 더 진행한다.

촉진자용 팁

문장의 예:

- 활동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 , 최악이었던 점은 … .
- 가장 흥미로웠던 건 … , 가장 지루했던 건 … .
- 내가 가장 불쾌했던 건 … , 가장 고마웠던 건 … .
- 가장 재미있던 건 … , 가장 심각했던 건 … .
- 내가 더 좋아하게 된 건 … , 덜 좋아하게 된 건 … .
- 내가 배운 건 …. ,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건 … .
-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 , 바라는 건 …. .

- 내가 이해하는 건 … , 내가 필요한 … .
- 나는 … 에 대해서 가장 놀랐다.
- 내가 가장 즐기면서 했던 건 … , 덜 재밌던 건 … .
- 내가 하면서 가장 자신감을 느꼈던 건 … , 가장 자신감이 없었던 건 … .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함으로서 참가자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좋았던 건 … 인데, 왜냐하면 … 이기 때문이다.”

높고 낮다

이 활동은 매우 짧아서 시간이 거의 없을 때 유용하다!

시간: 2분

준비

- 3-4개의 질문을 생각해둔다. 예를 들어, 이 활동을 즐겼는가? 새롭게 배운 것이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진행

1. 사람들에게 이번 과정이 즐거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한다. 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몸을 사용하여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예”라는 답변을 하려면, 머리위로 팔을 들고, 더 긍정적인 답변을 표현하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팔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는 웅크리거나 심지어 바닥에 엎드려서 표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들에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자신만의 반응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찾아야 한다.
2. 첫 질문을 읽고 사람들이 표현할 시간을 1분 준다.
3. 둘러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머리로 기억하되 의견을 묻거나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4. 그런 후, 참가자들에게 긴장을 풀도록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관점

이 활동은 짧고 참가자들이 원할 경우 논평할 기회를 준다.

시간: 20분

준비

- 3-4개의 질문을 생각해둔다. 예를 들어, 이 활동을 즐겼는가? 새롭게 배운 것이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 A4 용지에 각각 4가지 표시를 해둔다: “예”, “아니오”, “모른다” 및 “발언권을 달라”. 이를 방의 네 벽에 각기 붙여둔다.

진행

1. 4개의 벽에 있는 표지를 가리키며, 4가지 다른 관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한다. “발언권을 달라”는 표지에 서있는 이들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2. 질문을 하면, 각자의 답변에 해당하는 위치에 서도록 한다. 활동 중에 자신의 위치를 옮길 수도 있다.
3. 이 활동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한다.
4.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위치를 결정할 시간을 준다: 그리고 논평을 하고자 하는 이를 청한다.

일기 예보

이 활동은 느낌의 은유로서 날씨를 사용한다.

시간: 30분

준비물

- 종이와 연필(선택)

진행

1. 참가자들은 날씨를 은유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게 된다.
2.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참여한 당일/ 훈련과정 / 프로젝트 / 업무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도록 5-10분의 시간을 준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즐기고 있나? 나는 무엇을 얻었나? 쓸모 있을까?
3. 그런 다음, 한 번에 한 가지씩 일기예보 형식으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촉진자용 팁

은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몇 가지 예를 들어준다. 예들 들어, "나의 하루는 옅은 안개로 시작했고, 오전 10시경부터 폭우가 내렸다. 점심이 지난 후 가벼운 소나기가 몇번 지나갔고, 오후에 햇살이 나왔다." 이 예는 약간 주저하거나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했고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심 후 상황이 나아졌고 마지막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낀다는 의미이다.

응용

참가자들은 말하는 대신 기상보고서를 그려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본 아이디어를 변형하여 축구나 야구 등 참가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해설을 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대서특필되다

참가자들이 소모둠으로 나누어 타블로이드판 신문의 제1면 기사를 구성한다.

시간: 60분

준비

- 소모둠 별로 A3 크기의 종이와 펠트펜

진행

1. 참가자들을 3-4명의 소모둠으로 나누도록 한다. 소모둠 별로 타블로이드 신문의 첫 장을 만들게 된다: 큰 제목들은 있지만 긴 기사는 없다!
2. 프로젝트나 활동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주요 지점과 최악인 지점에 브레인스토밍하도록 한다.
3. 소모둠 별로 5-6개 '이야기'를 함께 고르도록 한다. 각각의 이야기에 기사 제목(헤드라인)과 이야기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몇 문장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전체 이야기를 길게 써서는 안 된다. '사진'은 선택사항이지만 좋은 생각이다.
4. 작성한 기사를 진열한다.
5. 발표나 토론은 선택사항이다.

배낭

이 활동은 훈련 프로그램 마지막에 사용하기에 좋은 활동이다. 그림은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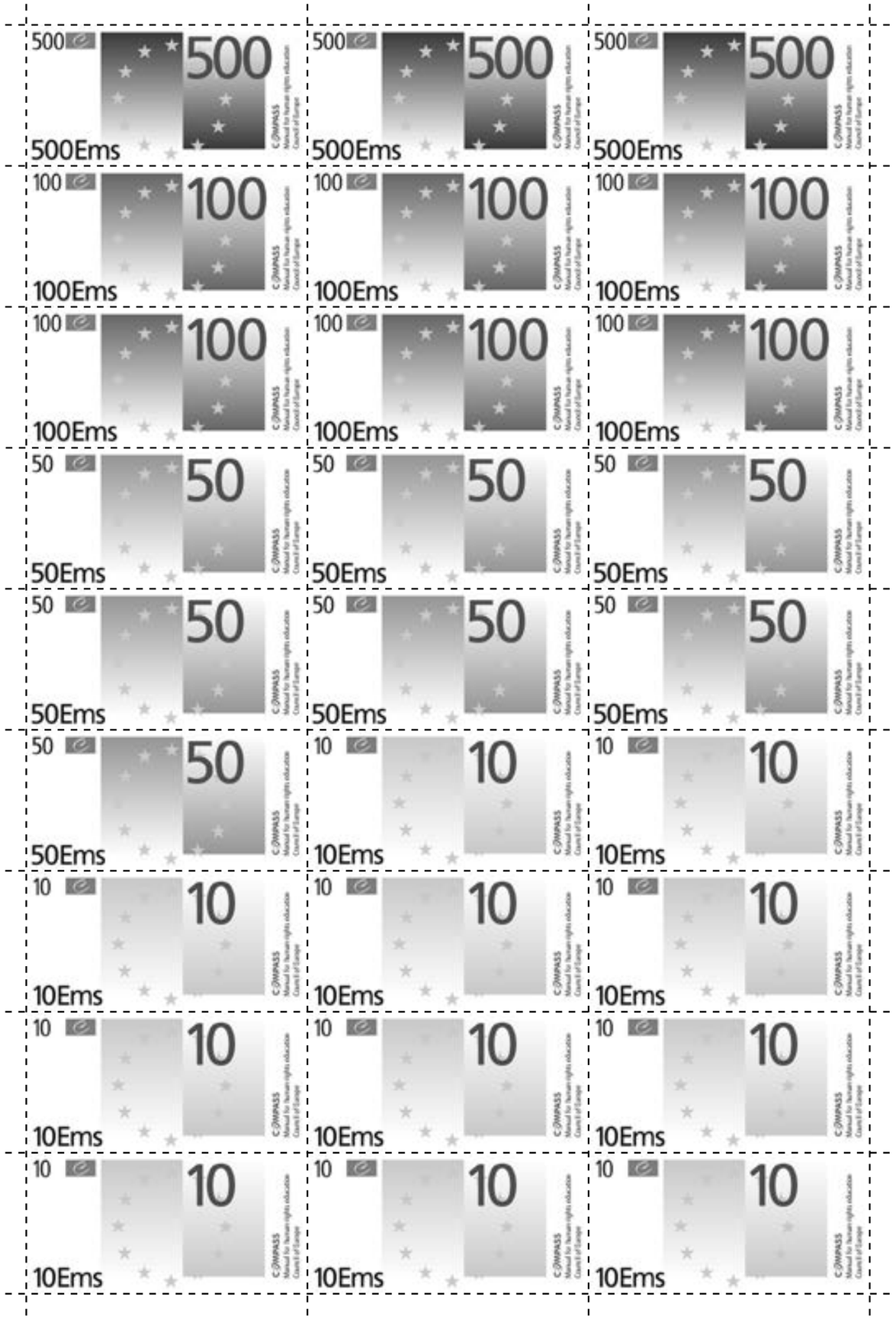
시간: 40분

준비물

- 종이와 칼라펜

진행

1. 참가자들에게 세션/미팅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떠나면서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 아이디어나 희망 등을 담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작별 인사를 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2. 그들이 배운 것과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책이나 그림, 감정, 사람, 아이디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얻은 힘, 그리고 가치관 등이 포함된다.
3. 또한 쓰레기통에 남겨두고 싶은 것도 보여줄 수 있다. 나쁜 습관, 낡은 생각, 어려운 순간, 나쁜 음식 등이 될 수 있다.
4. 참가자들이 훌륭한 화가가 될 필요는 없다. 스틱맨(졸라맨), 단어, 기호 등을 사용해도 된다.


500
500Ems
100
100Ems
50
50Ems
10
10Ems
C.I.M.P.A.S.S.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of Europe

제3장

인권을 위한 실천

제3장 목 차

들어가기 359

3.1 인권교육과 행동주의 360

행동주의란 무엇인가? 360
“실천하기”란 무엇인가? 361
언제 실천할 수 있는가? 363

3.2 인권을 위한 간단한 실천 364

대중 활동 364
청년 교육 365
스스로 하기 366
정책이나 정부 관료의 행동 바꾸기 367
다른 단체나 운동과 연대하기 368
증거 모으기 370

3.3 행동 계획 수립 371

시작하기 전에… 371
자신을 알자 – SWOT 분석 371
선택하기 372
문제 파악 373
문제 나무 374
문제 나무 예시 374
해결책 찾기 374
실천 계획 수립하기 375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은가? 376
목표 청중은 누구인가? 376
어떤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가? 376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려 하는가? 376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는가? 377
조직화하기 377
업무표 만들기 378
디브리핑 및 평가 379

들어가기

2장의 모든 활동에는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부문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이유는? 학급이나 청소년 센터에서 진행된 인권교육(HRE)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천하는 것이 HRE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부분적으로 그것이 인권이라는 주제가 젊은이들에게 ‘현실적’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 인권교육이 변화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HRE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의도된 것이다.

1장의 HRE는 인권에 관한, 인권을 통해 그리고 인권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함을 상기하라. 인권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추가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실천은 전통적인 교육 무대 밖에서 행동하고 인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더 나은 인권세계를 위하여.

이번 장은 HRE의 실질적 측면을 소개한다. 그것은 제 2장의 클럽이나 교실에 기반을 둔 활동과 4장에서 개요가 설명된 더욱 ‘전문적인’ 행동주의 간의 전환점으로서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청소년이 편안하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아직도 주로 교육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1절에서 행동주의의 의미, 실천의 의미 및 HRE와의 연계성을 살펴본다.
- 2절에서 청소년그룹과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간단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2장의 실천을 위한 대부분의 제안은 이 방법을 활용한다.
- 3절에서 어떤 이슈에 있어서 더울 장기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자신의 특별한 이익과 능력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그룹이 더욱 깊게 관여하도록 계획 도구를 제공한다.

3절의 이해는 1, 2절을 살펴봄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각 절은 독립적이다.

자유 대학

2008년 봄 리투아니아 학생과 다른 활동적인 청소년 그룹은 무료 고등교육 종료를 제안하는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일련의 항의체를 구성했다. 불만스러워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행동에 참가했고, 빌뉴스대학의 중앙광장을 점거했다. 비록 그들은 그 개정안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행동은 그들을 모이게 했고,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확신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인 대학교 규율에서 자유롭고 모두에게 열린 대체적인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자유대학(LUNI)은 배우거나 가르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배움의 센터, 민족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곳, 지식이 ‘전문가’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고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곳이 되었다.

추가 정보를 위해 ‘자유대학 Luni’를 검색해 보시오.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동정어린
행동에 대한 말과 생각은
화려하지만 향기없는 아름다운
꽃과 같다.

틱낫한

3.1 인권교육과 행동주의

행동주의란 무엇인가?

등장한 지 약 100년 밖에 되지 않은 "액티비즘(행동주의)"라는 단어는 '행동을 취하다'라는 동사로부터 유래했다. 활동가란 보통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변화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행동주의는 활동가들이 하는 일이자 그들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평화활동가들과 집회할 권리

두 명의 평화활동가들이 영국 총리가 거주하는 다우닝 가에서 이름 낭독회를 개최했다. 활동가 중 한 명인 23살 마야 에반스가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영국군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읽는 동안 그녀의 친구는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이라크인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불러 내려갔다. 마야는 경찰에 사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 시위는 전국적 언론의 관심을 받았으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할 권리에 대한 토론을 촉발했다. 이 집회와 다른 비슷한 활동들 덕분에 영국 정부는 경찰로부터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런던 중심부 집회를 금지한 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체포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저 이슬비가 내리는 어느 화요일에 내 동료와 함께 그곳에 서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다. 나는 이게 불법행위라고 보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체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마야 에반스

행동주의는 인권이 위협받고 침해되는 어느 곳에서든, 어느 차원에서든 인권을 옹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운동은 부당성, 학대, 폭력과 차별에 맞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다. 인권운동은 다른 사람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그들이 존중과 존엄성 있는 대우를 보장받도록 노력하며, 더 인간적이고, 평등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를 향한 움직임을 북돋는다. 역량 있는 활동가들은 끈기, 창의성, 헌신, 또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활동하며, 무엇보다도 인류와 인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활동가들은 인간의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 활동가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많은가? 당신은 활동가가 되기 위한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행동주의에는 믿음과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의지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헌신을 주로 요구한다. 다음은 몇몇 예시이다.

- 환경활동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한 후 곧바로 공항 활주로 연장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 평화활동가들은 지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해 30년간 노력해왔다.
- 병원이나 스포츠센터 폐쇄에 맞서는 활동가들은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다른 이들은 찾지 못했던 길을 모색한다.

옳은 일을 보고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살면서 다양한 이유로 투쟁에 관여하는 "작은 활동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내서에서는 행동주의가 아니라 실제 "행동하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활동가들도 "행동"을 하지만 이들은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며, 이들의 행동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당신이 함께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행동에 참여했다가도 멈추고, 때때로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하며,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홀로 뛰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

? 당신은 어떤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당신은 교육이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간디

"실천하기"란 무엇인가?

우리가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실천하기는 "공식적인" 활동보다 더 넓은 범위의 행동을 의미하며 관련 집단보다 더 큰 공동체와 결부된 행동일 수 있다. 인권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실천하기는 교육 측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자 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지역 노숙자 쉼터 또는 난민 쉼터 방문은 장벽과 편견을 허물고 쉼터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
- 인종차별과 불관용한 태도를 비판하는 청소년의 기고문은 청소년의 시각을 언론에 알리고 언론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반성하도록 만든다.
- 지역에서 환경오염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다른 이들을 일깨우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행동은 각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이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촉진한다. 실천적인 행동은 삶에 교훈을 준다. 실천은 인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권을 긍정적인 무언가로 만든다. 누군가의 실천이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교훈이며, 동기가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바꾸고자 한다면 바꿀 수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가 된다.

연극은 지식의 형태이다. 연극은 사회 변화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될 수 있다. 연극은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는 대신 미래를 만들도록 돕는다.

아우구스토 보알

? 당신이 어떠한 단체와 함께 행동한 적이 있다면, 주요 성과는 무엇이었는가? 영향력의 관점과 배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인권교육, 실천하기와 행동주의, 무엇이 다른가?

- 2장 학습활동은 주로 단체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활동의 목표는 개별 참가자의 교육이다.
- 바깥세상에서 실천하기는 세상의 실제 문제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단체에 주는 교육적 가치이다.
- 전문적인 및 "반상근" 활동가들의 유일하고 진정한 목표는 문제 그 자체이자 바깥세상이다. 활동가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활동과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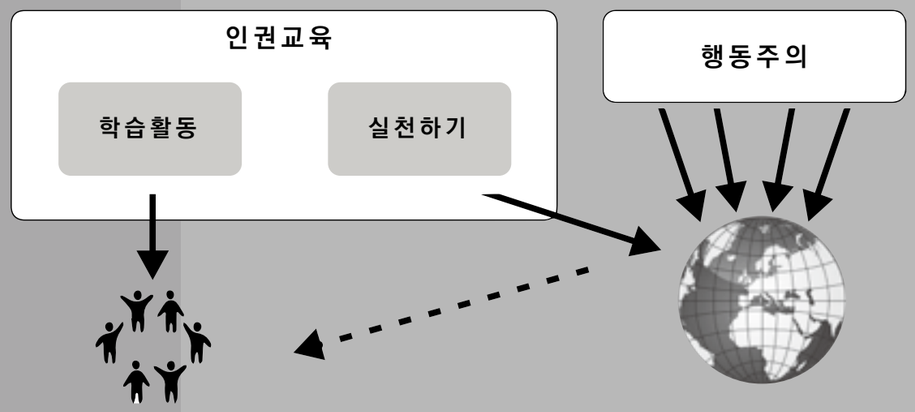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Putos que a ta cria)"

리스본 외곽에서 한 청소년 집단이 음악을 이용하여 사회에서 배제당한 느낌을 표현하고,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모두 아프리카 출신의 구성원들로 이뤄진 이 단체는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이민 2세대는 주로 "자신이 태어나고 살고 있는 나라의 사회에서 배제되는 동시에 부모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의 사회에서도 배제된다고" 느끼며, "이러한 딜레마와 그것이 가져오는 좌절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음악이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예술가들은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적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교육 수단으로 랩 같은 음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비트와 가사를 만들고 다른 래퍼들도 음악을 사회 변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했다. 몇 번의 훈련과 유럽연합의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힘입어 Putos que a ta cria라는 이 단체는 CD 앨범 2장을 녹음하고 DVD 영상 하나를 촬영했으며,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인권 관련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고, 다른 래퍼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힙합은 재미있는 일인 동시에 사회적 개입이다."

http://www.myspace.com/putosquiatacria

인권교육과 행동주의에서의 "목표"



언제 실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히 말하면 "언제 어느 때든"이다. 이 장의 2번째 절에서 묘사한 단체 행동 방법은 모임이나 학급에서 학습활동 이전 또는 이후 어느 때나 실천이 가능하다. 학습활동 후에 행동을 기획하면 단체가 사회문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행동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동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단체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문제의 중요성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주제와 모임 구성원의 관심 및 의식 수준, 그리고 그들과 활동 대상 집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제시한 여러 활동과 제2장에서 언급한 학습활동과 연관지어 설명해 두었다. 이 내용은 각 장의 본문 가장자리에 적혀있으며 대부분 각 활동 마지막 부분에 "행동을 위한 아이디어"로 정리되어 있다. 거의 모든 행동방법이 학습활동 도입부 또는 학습활동에서 다룬 문제를 실제로 경험해보는 실천 차원으로 이행할 수 있다.

시민 행동주의는 당신이 매일 조금씩 행동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때때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당신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때때로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반 콘드라텐코,
러시아 학생신문 페레코드
책임 편집인

3.2 인권을 위한 간단한 실천

? *어떤 정의롭지 못한 일이나 공정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겠는가? 당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강자와 약자 사이에 충돌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관여하지 않는 것은 강자의 편을 든다는 뜻이지, 결코 중립이 아니다.

파울로 프레이리

이번 장에서는 인권교육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접근법을 다룬다. 여기서 다루는 제안들은 급진적이지 않으며 현수막 제작, 토론, 문화행사개최, 다른 단체 방문, 편지쓰기 등 몇몇 사례의 경우 이미 당신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방법들은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활동가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다!

아래 목록 이외에도 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다만 이 목록은 행동을 위한 지침서라기보다 여러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나열해두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유용하고, 흥미로운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질문을 던져라.

대중 활동

거리 연극, 집회 및 행진, 탄원, 연좌 농성 등 대중 행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 목적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 언론 보도
- 정치인과 권력자들에게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대중 행동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사람들을 웃게 하거나, 멈춰서 바라보도록 하라. 때때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하라!

임계 대중(대중의 인식을 얻기 시작하는 시점)

여러 유럽 도시들에서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이 되면 수십 명, 때때로 수백 명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모여 자동차로부터 거리를 되찾자고 주장한다. 이 행동은 자발적이다. 이 행사를 조직하는 사람도 없고, 계획된 행진 경로도 없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함께 거리를 돌아다니며 교통 속도를 늦추고, 오염이나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야하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개선활동을 하며, 평범한 도시의 삶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시민의 힘을 주장하기도 하고, 공동의 목적과 지향점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축하하기도 한다. 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문제에 대한 그들만의 현수막이나 캠페인을 전개한다.

처음에는 몇몇 자전거 이용자들이 시작한 활동이 이제는 거대한 대중행동이 되었고, 여러 도시에서 매달 개최되는 전통이 되었다.

더 많은 정보는 www.critical-mass.info 참고하라.

모임/단체를 위한 제안:

- 노래나 뮤지컬, 연극을 제작해서 거리공연하기
- 현수막을 제작하여 기업 앞에서 환경오염, 아웃소싱 업무, 노동권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집회 열기
- 문제에 대한 포스터나 책자를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나눠주거나 비치해두기
-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다른 SNS를 사용하여 팔로워를 모으기

? **사람들은 종종 집회가 시간 낭비라고 말하지만, 만약 아무도 집회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99%의 목소리

2011년 80개 이상 나라 1,000여 개 도시에서 "점령하라"("Occupy") 운동이 등장했다. "아랍의 봄"에 자극을 받은 이 운동의 참여자들은 요구를 달성할 때까지 해산을 거부했으며, 활동가, 청소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자급자족 텐트촌을 만들어 전 세계 도시 중심부에 있는 공공장소를 "점령"하였다. "우리는 99%다"라는 구호를 통해 시위대는 극소수가 소유하는 엄청난 부의 문제와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왜곡, 다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긴축재정의 부당함에 대해 부각하였다.

청년 교육

앞서 말한 대중 행동은 사실 교육과는 큰 관련이 없다. 그보다는 직관적이고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식을 개선하고,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청년은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또래 집단이 청중인 경우 다른 청년들을 활동에 모집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두각을 보인다. 또래에게 문제를 설명하는 경험은 청년들이 그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더 많은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파워포드(Powerpod) 프로젝트 – www.edinburgh-powerpod.org

에딘버러 우드크래프드 포크(Woodcraft Folk) 팀은 태양광 전지와 풍차가 달린 트레일러 차를 가지고 스코틀랜드 로디언 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실천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다. 파워포드라고 알려진 이 트레일러는 지역 대학 학생들이 태양광 전기와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제작한 것이다.

첫 번째 우드크래프트 포크 또래 교육가 집단은 그들이 파워포드의 과학적 배경과 기술 특성에 대해 배운 대안기술센터를 방문했다.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그들의 나이 또래 청소년과 아동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기획했다. 이 활동은 다른 우드크래프트 팀들도 참여하는 전체 워크숍으로 이어졌다.

워크숍들은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분야 활동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출처: www.scotland.gov.uk/Topics/SustainableDevelopment/EWFenergytrailer

연계 활동:

여러 활동이 인식 개선 캠페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국제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애시크 이야기**(아동노동), **성에 대해 이야기하자!**(젠더/성소수자 혐오), **인종차별에 맞서기**(인종, 차별)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는 종종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애가 된다.

키케로

연계 활동: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찾고 그들이 주장을 펼치는 방법과 토론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당신은 어디에 서있는가?** 또는 **선거운동** 활동을 해보라.

행동하라 활동은 마임이나 드라마를 통해 인권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교육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는 활동이다.

모임/단체를 위한 제안:

-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기획하라. 예를 들어 교육 예산 삭감, 범죄자의 인권, 빈곤 퇴치를 위한 군비지출 축소 등이 주제가 될 수 있다. 공무원들과 친구들에게 참석을 권유하라.
- 인권을 주제로 한 영상이나 연극을 직접 만들어라.
- 지역 또는 전국 신문에 기고하거나 지역 라디오나 방송국와 인터뷰를 해라. 당신은 시선을 단번에 끌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가?
- 당신의 단체가 잘 알고 있는 의제를 골라 다른 단체나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함께 동료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라. 당신은 청소년들에게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제2장에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가?

사람책 도서관(리빙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폴란드 브로추아프에 있는 한 단체는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책이 되어 30분 동안 책을 "빌린"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사람책 도서관 활동을 기획했다. 책이 된 사람들은 주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예를 들면 동성애자, 롬인, 장애인, 소수 종교 신자 등이 있었다.

이틀 동안 600명이 도서관을 방문했고 100명 이상이 "책"을 빌렸다. 이 행사는 공영 및 민영 방송과 라디오, 신문에 보도되었다.

사람책 도서관의 목적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진 특정 공동체 구성원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다. 다음은 "독자"가 "책"과 대화를 나눈 뒤 남긴 감상이다.

"사람책 도서관은 제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많은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는 정말로 저의 선입견을 깨뜨렸어요."

사람책 도서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ww.coe.int/compass

스스로 하기

게릴라 연극은 예상치 못한 공공 장소에서 아무 기대없는 관객에게 즉흥적이고 놀라운 공연을 묘사하기 위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연은 풍자, 시위 및 카니발레스크 기법을 통해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위키피디아

당신의 단체가 정치인을 찾아가거나 대중 또는 다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러한 행동은 그 결과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단체는 행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많은 청년 단체들이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실 취약계층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 국가는 궁극적으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 종종 사회가 개입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청년들은 단지 곁에 있어주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동료나 대화상대가 되어주는 방법으로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양쪽 모두에게 풍부한 경험으로 남는다. 취약계층 방문과 국가의 실패를 깨닫는 일은 청년들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거나 언론을 통해 국가의 실패를 알리는 데 더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 특정 집단 하나를 떠올려보라. 청년들의 방문이 이 집단의 어떤 인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모임/단체를 위한 제안:

- 지역 사회에 방치된 장소를 관리하기. 꽃이나 식물을 심어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장소로 바꾸기.
- 원예나 다른 기술로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기여하기. 당신의 단체는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말했던 자유대학(Free University) 같은 학습의 중추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 오래된 미술 재료나 장식품을 얻어서 청소년 센터나 지역센터 혹은 누군가의 집을 단장하기.
- 빵을 구워서 노숙자 쉼터나 혼자 사는 이웃에게 나눠주기. 또는 당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책자 나눠주기

연계 활동:

우리의 미래는 사람들이 지역과 공간의 사용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활동이다.

사다리에서는 청소년들이 더 직접적으로 지역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다.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은 공평함과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이다

씨앗 심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치된 공공장소를 정원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 활동은 스페인어로 "소규모 전쟁"을 뜻하는 게릴라에서 명칭을 따서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브뤼셀 농부들(Brussels Farmers)이라고 불리는 한 단체는 매년 5월 1일을 세계 해바라기 게릴라 가드닝의 날로 선언했다. 2010년 전 세계 약 5,000명이 이 날 행사에 참여했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다.

정책이나 정부 관료의 행동 바꾸기

국가 또는 정부 관료들이 인권 존중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이나 법률 및 규제를 바꾸는 일이 주로 인권운동의 마지막 목표가 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다루기에 지나치게 "심각하게" 보일 수 있고, 청소년들이 변화를 만들기에 쉽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국제 또는 지역 수준의 정책 변화는 다양한 곳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압력의 결과이다. 인권문제를 다루는 청소년들은 활동가만큼이나 이 과정을 이끌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다만 청소년들은 네트워크 규모가 작고 정치인들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나 기관 수준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국내 및 심지어 국제 수준 활동도 청소년들이 결정했다면 배제하지 말라.

때로 정부 관료를 압박하는 최선의 방법은 협력을 통해 그들이 당신의 주장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반대로 시위와 압력이 최선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협력과 충돌 두 측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압력의 결과로 바뀐다.

? 당신이 함께 일하고 있는 청년/청소년들은 그들의 지방의회, 국회, 유럽의회 의원을 알고 있습니까?

세계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일을 방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학생 시위 결과로 유예된 교육 개혁

많은 나라가 강력한 학생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행동은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집단들이 정치적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2008년 프랑스 정부는 교사 인력 축소와 교육 시간 단축 등 교육체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추진했다. 이에 학생들은 프랑스 전역 도시의 거리로 나와 정부가 교육개혁을 유예하도록 만들었다.

연계 활동:

얼마나 필요한가? 활동은 새천년개발목표를 탐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알아본다.

차할 대 영국정부 역할극은 유럽인권재판소 소송 사례를 본떠서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나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국가의 정책에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지 알아본다.

노사 협상 활동을 통해 협상 기술을 연습하고 고용주-고용자 관계를 알아본다.

단체를 위한 제안:

- 어떤 특정 결정에 책임이 있는 지역 정치인에게 연락하라. 야당 정치인이나 정책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라. 면담을 요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들의 참여를 요구하라.
- 청원서를 만들어서 가능한 많은 서명을 받아라. 언론을 초청하여 당신이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의무와 어떤 인권 협약에 서명했는지 알아보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나 시민단체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문의하라. 또한 언론에 알리라!
-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다른 국가 또는 국제 메커니즘을 살펴보거나 공식 기구에 조사를 요청하기.

경찰 감시하기

"LegalTeam"은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법률 자문가, 활동가, 전문가 단체이다. 이들은 대중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비슷한 단체들이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LegalTeam"은 원래 2006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당시 발생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방지하고자 결성되었다. 그 후 활동가들에게 집회·시위 관련 법률과 공권력 남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여러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다. 이들의 LiveJournal 페이지는 토론과 자문의 공간이 되고 있으며 행동을 협의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http://community.livejournal.com/legal_team)

다른 단체나 운동과 연대하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더 큰 운동의 한 부분으로 활동하거나 또는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여러 "전문" 비정부기구들과 자발적인 풀뿌리운동단체들이 인권운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참여를 환영하고 그들의 지지를 기뻐할 것이다. 어떤 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인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숙자, 아동 빈곤, 가정 폭력, 인종주의와 차별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명시적으로 인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단체들이 조직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행사 기획에도 참여할 수 있다. 충분한 자금이 부족한 풀뿌리운동단체는 의지가 있는 자원활동가들의 손길을 언제나 반길 것이며 일반적으로 그들 스스로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규모가 큰 비정부기구에서 하는 자원활동은 실습 차원의 경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은 관련 분야 전문 활동가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와 업무 경험을 얻고, 제3부문(Third Sector) 활동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다.

행운이 있다면, 하나의 상상이 백만 개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마야 안젤루

? 당신은 지역인권단체를 알고 있는가? 효과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인권 문제가 있는가?

폭탄이 아닌 식량

'폭탄 대신 식량(Food not Bombs)'은 미국에서 시작한 풀뿌리평화운동단체로 이제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비슷한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이 단체는 식량과 폭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원활동가들이 모여서 노숙인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채식 음식을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이들은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식량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한편 군비 축소와 음식물 쓰레기 근절이 세계 기아를 철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이 운동은 공식 조직이 없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지역 모임"을 만들어 정치적 제스처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폭탄 대신 식량'은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 여러 도시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는 http://www.foodnotbombs.net 참고하라.

"나는 '폭탄 대신 식량' 캠페인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운동은 결실을 만들어내는 활동이고 사람들은 식사와 식료품 공유를 통해 식량을 모으고 사람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을 하면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운동의 지속을 보장하는 다른 측면은 지도자가 없고 각 조직이 합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있다. 자원활동가들은 그들이 명령에 따라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하는 동안 사무실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돈을 받는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이들은 '폭탄 대신 식량'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자 책임을 진다."

키스 맥헨리, 폭탄 대신 식량 캠페인 창립자

모임/단체를 위한 제안:

- 단체가 관심을 가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역 단체를 찾기. 단체 대표자들과 면담하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 국경없는 의사회, 국제앰네스티,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인권연맹, 그린피스와 같이 잘 알려진 인권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을 살펴보고 단체가 관심 있어 할만한 의제나 캠페인에 대해 토의하기
- 이 장에 있는 계획과 행동 부분을 살펴보고 단체가 특정 문제에 대해 직접 행동을 기획할지 생각해보기. 이를 위해 다른 청소년 단체나 친구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기술과 생각을 배우거나 참여자 수를 늘릴 수 있다. 이것이 결국 인권단체가 시작되는 방식이다!

국제청소년인권운동연대(International Youth Human Rights Movement)

국제청소년인권운동연대는 주로 중부 및 동부 유럽에 있는 청소년 단체들이 모인 국제 연대체이다. 청소년들은 인권 사상과 원칙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서로의 행동을 지지하고 새로운 인권활동가 세대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98년 작은 청소년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오늘날 37개국에서 1,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모인 단체가 되었다. 더 많은 정보는 www.yhrm.org 참고하라.

증거 모으기

청년과 참여 – "무엇이 필요한가?"

폴란드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청소년 단체는 낮은 청소년 참여율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지방정부가 도시정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들의 욕구와 참여에 대해 그다지 생각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더 큰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SNS, 문자메시지, 거리 인터뷰, 친구, 동료, 가족들과 대화 등 여러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 그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 시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보냈다. 처음으로 도시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순간이었다.

연구와 조사는 모든 활동가에게 중요한 수단으로, 다뤄야 할 문제들을 이해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한편 압력 수단 또는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효과적인 조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앞서의 예에서 보듯이, 정보 자체가 권력자에게 압력을 주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가 그룹뿐만 아니라 특정 문제를 다루는 데 유용하도록 만들 것인가? 즉 어떻게 하면 정보 수집이 교육 활동이자 행동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

- 새롭고, 때로는 충격적이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는 도시에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년의 수, 그들의 나이, 어떻게 거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들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 누가 정보를 필요로 하고 그 정보로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 생각해보기. 이 정보로 지역 정치인을 설득하려는지, 아니면 여론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압력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가?
-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을 고민하기. 폴란드 단체가 했던 전시회 방식은 통계자료보다 훨씬 쉽게 대중들에 접근할 수 있다!
- 연구 결과를 언론에 알리기. 언론이 행동의 직접 대상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를 통해 문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연계 활동:

투표 할 것인가? 말것인가?
활동은 청소년들이 조사에 경험을 쌓도록 돕는다.

생명의 그물망은 환경과 오염 관련 문제를 탐구하고 인터넷에서 "탄소 계산기"를 찾아 참여자들의 탄소 발자국을 알아보도록 한다.

선거를 감시하는 청소년들

아르메니아 국회의원 선거는 청소년들과 다른 사람들이 선거 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선 선거 과정 감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은 청소년 선거 감시 안내서가 제작되었다. 이 안내서는 법률, 선거의 개념과 필요성, 아르메니아 정당들, 선거 감시 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약 82명의 청소년이 선거 감시에 참여했다. 그 후 이들은 이 결과를 모아 보고서를 제작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보고서는 아르메니아 청소년 클럽 연맹(Federation of Youth Clubs in Armenia)에서 찾을 수 있다. www.youthclubs.am

3.3 행동 계획 수립

역사를 통한 인권 학습

러시아 플리우사 시에 사는 학생들은 스탈린 시대와 그 시절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어했다. 이들은 실제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기로 결정했고,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어떻게 인터뷰를 할 지, 어떻게 수집한 정보를 검증 후 대중에게 공개할 지 결정하기 위해 수차례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친척, 이웃, 학교 교사, 역사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타 사람들을 포함하여 총 70명을 인터뷰했다. 이 학생들은 프스코프 지역 여러 마을에서 사진과 각 인터뷰에서 따온 문구를 곁들인 전시회를 열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비록 어려웠지만 자신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 활동에 감사했다. 증언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에게 고통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두 세대는 서로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했으며, 행사 기획 취지와 동기,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 그 시절 경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생각해보았다.

인터뷰는 http://wiki.antarchia.org/tiki-index.php에서 볼 수 있다.

보통 모든 행동, 특히 좋은 사회운동이라면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 준비 활동은 정확히 무엇에 초점을 두고, 어떤 행동이 가능한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 야심찬 목표가 있다면 계획 준비 단계를 거치도록 조언한다. 원했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돌발 문제에 봉착한다면 실망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

이번 절은 계획을 짜고 단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앞부분에서 말했던 단기적 행동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행동을 통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장기적인 캠페인에도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전진"이란 명령을 내리려면 어느 방향으로 전진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도승과 혁명가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들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안톤 체호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알자 – SWOT 분석

? 당신은 단체에 있는 참여자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들의 관심사를 알고 있는가?

모든 집단은 숨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각 구성원은 호불호가 갈리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려워하는 일이 있다. 따라서 각 구성원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를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SWOT 분석은 이에 유용한 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은 단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환경도 검토할 수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부처

SWOT 약자는 다음을 뜻한다.

- 강점(**S**trength): 그룹이 잘 할 수 있는 일
- 약점(**W**eakness): 그룹이 잘 하지 못하는 일
- 기회(**O**pportunities): 그룹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조건
- 위협(**T**hreats): 그룹 활동에 방해될 수 있는 외부 조건

SWOT 분석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라. 최소 1시간이 필요하다. 집단을 4개의 소모임으로 나누고 각자 강점, 약점, 기회, 위협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그 후 전부 모여서 동료들의 분석에 대해 토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하거나 보완한다.

아래 표는 SWOT 분석 예시이고 단체가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래 예시에만 너무 연현하지는 말자! 각 단체는 각각의 특수성이 있으며 아래 제시한 것 이외에 스스로 찾아내야 할 다른 강점(그리고 약점)이 있을 것이다.

SWOT 분석 예시

우리 그룹의 장점은 ?	우리 그룹의 약점은 ?
• 규모가 크다! • 시간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 • 미샤의 아빠가 정치인이다 • 시내 중심에 모임 장소를 가지고 있다 • 가브리엘라가 대중 연설을 잘 한다 • 보즈카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 리더가 너무 많다! • 자금이 없다 • 남성이 적다 •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긴장된다 • 몇몇 구성원이 시내 중심까지 오기에 오래 걸린다 • 단체로서 매번 협력을 하지는 못 한다
그룹 외부 요인중 기회 요소는 ?	**우리 활동에 방해되는 외부 요소는 ?**
•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 난민 관련 프로젝트 지원금 공모가 여러 개 있다 • 최근 유럽인권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재소자 대우를 비판하는 판결을 내렸다 • 연극 행사에 적절한 새 시청사가 생겼다	• 경제상황이 불확실하다 • 몇몇 구성원의 시험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 시 의회가 대중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위협한다 • 사회에 난민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강한 인상이 있다 • 외부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춥다 • 부모님들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엮이지 않기를 바란다

선택하기

받아들일 수 있는 일보다 옳은 일부터 시작하라..

프란츠 카프카

어떤 문제를 다룰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단체 구성원들은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루고 싶어하는 사안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아이티 지진이나 수단 기근처럼 실제 상황과 관련이 있거나 어떤 가족이 그들의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았을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사안을 선택할지 여부와 이에 접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모든 결정은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토론을 성급하게 진행하지 마라. 많은 시간을 부여하여 그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말하고 해당 사안을 채택하여 생기는 장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도록 하라. 다른 때에는 다른 사안을 다룰 수 있다고 상기시켜라. 또한 무엇보다 단체가 함께 하는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사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면 그것은 채택할 수 없다는 사실도 상기시켜라. 다수결보다는 합의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라.

? **당신은 어떻게 내부 반대 의견이 방해가 되기보다 유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문제 파악

문제 나무(Problem Tree)

나무와 돌은 네가 절대로 대가로부터는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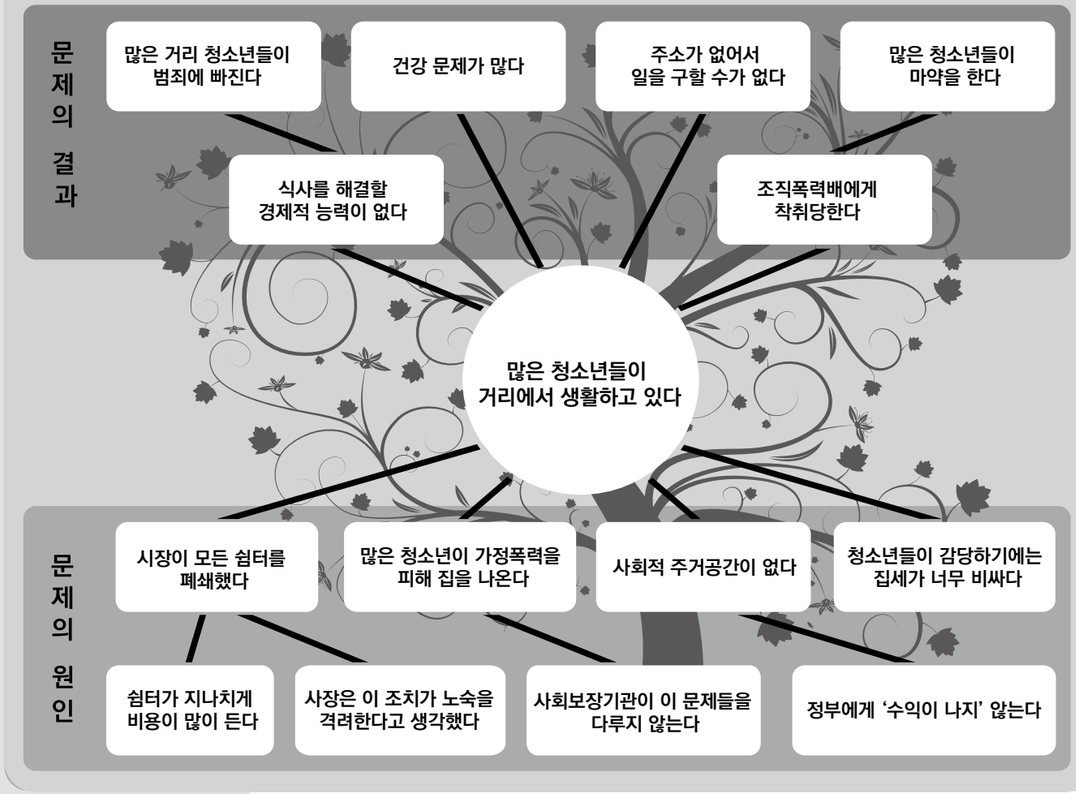
베르나르 드 클레르보 (12세기)

문제 나무는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다른 사회문제 맥락에 연결 짓는다. 문제 나무 분석은 문제를 더 자세히 이해하고 더 전략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쪽에서 거리 청소년 문제를 다룬 문제 나무 분석 예시를 볼 수 있다. 다음은 문제 나무 분석으로 문제를 다루는 순서이다.

- 큰 종이 가운데에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적는다.
- 그 밑에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요소들을 적고 문제 뿌리의 형태로 연결하라.
-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요소들을 그려넣고 각 뿌리를 하나씩 살펴보며 그 원인을 생각해본다.
- 추가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뿌리를 계속해서 뻗어나가라. 나무(문제)는 당신의 생각보다 더 심층 원인을 갖고 있을 수 있다.
- 같은 방식으로 "나뭇가지"도 뻗어나갈 수 있다. 여기서는 문제의 결과를 다룬다. 이를 통해 다루고자 했던 문제가 다른 나무의 뿌리이거나 가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 모든 단계를 마치면 나무를 살펴보라. 원래 다루고자 했던 문제를 다뤄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원인을 먼저 다뤄야 하는가? 문제 나무 분석이 당신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문제 나무 예시



해결책 찾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엇을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단체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성공의 척도로 삼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문제 나무 분석으로 돌아가서 적절한 해결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보통 원인을 다루면 나무 윗부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 주거공간이 더 많거나 집세가 낮다면 더 많은 청소년이 지붕이 있는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정책을 바꾸기가 어렵고 하나의 조치만으로는 더욱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한다. 단체는 무엇을 추구할 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작은' 결실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 성공적인 캠페인은 거의 언제나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했으며 당신의 단체가 달성한 결실에 힘입어 이 문제를 다루는 다른 활동가들이 그 결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이유를 떠올려보는 일도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이유를 고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몇 가지 목표를 생각해낼 수 있다.

지금 나에게 유감스러운 유일한 일은 우리가 이 집회를 매우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사실뿐이다.

로자 파크스

? 최근에 보았거나 들은 집회에 대해 떠올려보라. 집회 개최자들은 무엇을 달성하고자 했는가? 성공적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천 계획 수립하기

당신의 단체는 이제 어떤 사안을 다룰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결정했다.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순서도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단계별 문제들을 고려하고 사용하려는 행동방식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순서도는 가장 적절한 행동을 찾기 위한 5가지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5가지 질문에 따라 어떻게 의사결정이 진행되는지 보여준다.

각 단계는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실천계획 수립 – 진행 도표

A. 무슨 계획을 다루고자 했는가?
1. 화학기업이 강을 오염시켰다
2. 경찰에 구금되어 있던 망명신청자의 사망
3. 우리 사회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
4. 다국적 기업에 의한 아동 노동착취
5. 청소년 마약 중독

B. 주요 청중이 누구인가?
1. 시민과 기업책임자
2. 인권단체
3. 지역주민들
4. 여론
5. 지역 학교 당국

C. 어떤 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가?
1. 기업의 오염 정화
2. 인권단체가 정식 조사에 나선다
3. 몇몇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다
4. 사안에 대한 인식 개선
5. 학교시간표에 마약퇴치 교육 도입

D.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려 하는가?
1. 여론을 통해 기업을 압박한다
2. 인권단체가 증거가 명백하고 구제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3. 사람들이 차별받는 공동체 구성원 만나 그들의 인간성을 느낀다
4. 정보를 제공한다
5. 교장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의 도움을 받는다

E. 주요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선택하려 하는가?
1. 거리에서 집회를 열어 서명을 모은 후 기업 책임자들에게 전달
2. 전국 및 지역 인권단체에 연락하여 이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
3. 지역사회 사람들을 모아 사람책 도서관 행사 개최
4. 청소년센터에서 전시회를 열고 지역사회에 홍보
5. 마약중독에 관해 학교와 청소년센터에서 관련 교육 진행

저항 형태의 상징적 대중 행동
• 깃발이나 상징색 사용
• 상징 기호 착용
• 기도와 예배
• 상징물 전파
• 항의성 탈의
• 자기 재산 파괴
• 상징적 불
• 초상 걸기
• 항의 페인트 칠
• 새로운 기호와 이름
• 상징적 경적
• 상징적 재활용
• 무례한 제스처
198가지 비폭력행동 중 일부
www.peacemagazine.org/198.htm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은가?

이 단계는 간단하다. 문제 나무 분석 결과가 이 질문의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나무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은지 정하라.

목표 청중은 누구인가?

문제를 즉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행동의 목표 청중은 당신이 추구하는 최종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나 집단이 아닐 수 있다. 당신의 행동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한발짝, 그 이상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정부에 압력을 넣기 위해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행동할 수도 있다. 또는 당신이 관심 있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할 수도 있다.

B번 칸에 있는 주요 청중은 당신의 행동에 직접 대상이 되는 집단이다. 여러 집단이 주요 청중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순서도 첫 번째 경우처럼 시민들과 기업 책임자들이라는 두 집단이 행동의 주요 청중이 동시에 될 수 있다. 이 행동의 목적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서 기업 책임자에게 전달하여 기업이 오염된 강을 정화하도록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가?

이 질문도 행동과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화가 꼭 최종 목표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활동은 다국적 기업의 아동 노동 착취를 근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자극하며, 기업 정책을 바꾸거나 이러한 기업들에 정부 규제를 적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것이 성공했는가를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단체 구성원들이 성공적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장려하라. 앞 절의 "해결책 찾기"를 참고하라.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려 하는가?

이 질문은 단체가 사용하려는 방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고민하는 단계이며 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다른 행동을 할 필요성을 깨닫도록 만드는 심리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주 잊혀지는데 그 결과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민족주의 및 파시스트 단체의 성장을 염려하여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고 해보자. 이 단체는 이러한 민족주의 및 파시스트 단체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 앞에 소책자 배포를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사람들이 왜 민족주의 단체를 지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소책자는 의도했던 바와 정반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단체는 소책자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지, 어떤 메시지가 주요 청중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족주의 단체에 지지가 늘어나는 이유와 지지자들의 생각을 파악해야 한다.

이 상자는 실제 '점검' 상자이며,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진행한다.

인종차별에 맞선 학생들: 학교 당국 지원

포르투갈 한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출신 새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인종차별 발언과 행동 대상이 되었다. 교사들과 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의 등장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 모르고 있었다.

이 문제를 염려하던 몇몇 학생들은 도움과 조언을 얻기 위해 지역 레저 센터 청소년 담당자를 찾아갔다. 그들은 함께 "겉은 달라도, 속은 같다"(Diferente por fora, Igual por dentro) 캠페인을 학교에서 1주일 동안 진행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식사시간, 수업시간, 여가시간 등 학교 일과 모든 시간에 마련되었다. 연극 동아리는 포럼연극(Forum Theatre)을 했고, 손수 제작한 포스터와 배지를 나눠줬다. 지역 레저 센터에서는 예술 활동을 펼치고, 영화를 상영했으며, 여러 나라의 특색을 담은 케이크를 식당에서 제공했다. 이 캠페인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학교는 매년 비슷한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는가?

이 단계는 순서도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단체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선택지를 좁혀야 한다. 따라서 단체는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을 적어야 한다. 단체 구성원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 장 두 번째 부분에 적힌 제안사항과 실제 사례를 참고하라. 또한 단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들을 상기하도록 하라. 최종 선택은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노력하라.

인권을 위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전략"(New Tactics)은 국제인권공동체에서 전략적인 혁신과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기구, 자문단, 활동가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1999년부터 "인권을 위한 새로운 전략"은 구체적인 사안이나 지역, 대상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잠재적인 해결책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을 만들어왔다. 이 자료들은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상황이 가진 특이한 요소들을 알아보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접근법들을 살펴볼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 활동가들은 다양한 전략을 복잡한 계획에 결합시킬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www.newtactic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직화하기

거리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 실제 행동에 나서기 전에 조직 내부 사안들을 결정하기 위한 상세한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기를 권장한다. 비록 이 단계는 간단한 행동에는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유용한 습관이며, 각 구성원의 기술과 선호에 맞게 역할이 배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단체는 다음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

-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야 하는가?
- 누가 각 역할을 맡을 것인가?
- 언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업무표 만들기

행동 하나를 예시로 가정하여 앞선 세 가지 질문에 따라 아래에 업무표를 만들었다. 실제로 업무표를 만들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한다.

1. 계획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항을 기록한다. 큰 종이 두 장과 사인펜이 필요할 것이다.
2. 모든 참여자가 논의사안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한 명이 서기를 맡아서 종이 맨 위에 제목을 적도록 한다. 해야 하는 역할을 떠올려보고 모두가 볼 수 있게 종이 한 장에 전부 기록한다.
3.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황을 함께 생각하고 예측해본 다음 모든 역할을 다 검토했는지 다시 확인한다.
4. 이제 목록을 보면서 지금(Now), 곧(Soon) 또는 나중에(Later) 해야 하는지를 N, S, L로 표시한다.
5. 이제 다른 종이를 "최종판"으로 사용한다. 왼쪽에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적고, 그 옆줄에는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에는 각 업무별 최종 기한을 적는다.
6. 서로 업무를 공유하며 한 두 사람에게 모든 일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그들이 아프거나 다른 일에 과부하가 걸릴지 모르니까!

업무표 예시

이벤트: 소수자 권리에 대한 거리 행동

임무	누가	언제
배포용 소책자 제작	샐리, 존	9월 10일, 17일 모임
출판 기획	루멘, 벤	9월 20일 이후
현수막과 플랜카드 제작	전체	9월 24일로 시작하는 주
현수막 재료 구매	실라, 카렌, 이반	9월 17일로 시작하는 주
참여자 모으기	실라, 모카, 타니아	9월 17일로 시작하는 주
지방정부 연락	데미안, 수	확정 시
경찰 연락	데미안, 수	
저명한 인사 참석 초청	팀, 하나	
소수자 단체에 알리기	루시, 산치타	
연설 초안 작성	나탈리, 벤, 샐리	
다과 준비	페트라, 폴	
행동 이후 청소	나탈리, 벤, 루멘, 산치타	

디브리핑 및 평가

모든 인권교육 활동과 행동에 있어서 그 후에 후기를 공유하고 무엇이 잘 되었고, 잘 되지 않았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단체는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격한 감정을 가지고 행동을 마쳤을 것이다. 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이는 또한 다른 추가 행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질문들은 디브리핑을 진행하는 데 유용하다.

- 행동 당일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이 질문은 돌아가면서 간단히 말해볼 수 있다.
- 무엇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생각보다 어려웠던 일이 있는가?
-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는가?
-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배울 만한 교훈이 있는가?
-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무언가를 달성했는가?
- 스스로 만족했는지, 다음에 다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가?
-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로 축구화를

에밀은 덴마크 소뢰 프레데릭스베르그 학교에 다니는 7학년 학생이고, 아나클레이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초빙교사였다. 집과 학교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나클레이토는 덴마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남아공 학생들은 축구장은 물론 축구화조차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 이에 덴마크 학생들은 아나클레이토의 학교 학생들에게 중고 축구화를 기증하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은 아나클레이토에게 계획을 말했고, 그의 답변은 긍정적이었다. 학생들은 기증을 요청하는 포스터를 자신들의 학교와 주변 학교에 붙였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축구 구단에서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축구화를 기증했다.

에밀과 친구들은 순식간에 축구화 100켤레를 모았는데, 발송지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배송비가 500크로에(67유로)나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행동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축구화를 골라냈고 그 결과 총 75켤레가 남았다. 그 후 배송비를 모아야 했던 그들은 여러 원조단체와 지방정부에 편지를 썼고,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지역 신문과 라디오에 홍보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남아공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여행사에서 신문을 보고 그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6개월의 노력 끝에 에밀은 우체국으로 축구화를 가져가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아나클레이토의 학생들에게 보낼 수 있었다.

출처: Global Guest Teacher, AFS Interkultur, 덴마크

제4장

인권의 이해

제4장 목 차

들어가기 383

4.1 인권이란 무엇인가? 384

핵심가치 385
인권의 특성 385
역사적 개요 386
세계의 인권 390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392
인권의 딜레마 393

4,2 인권의 진화 397

약속, 약속… 397
우리의 권리란 무엇인가? 397
과학의 발전 401

4.3 인권의 법적 보호 403

국내 인권 403
인권은 협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404
주요 국제 문서 405
인권의 집행 413
이로서 충분한가? 419

4.4 인권 행동주의와 NGO의 역할 420

NGO란 무엇인가? 420
인권 NGO의 유형 421
NGO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421
성공적인 행동주의 사례 423

4.5 인권에 대한 질의응답(QnA) 426

4.6 퍼즐처럼 난해한 문제들 429

들어가기

인권 없는 인권교육은 있을 수 없다. 인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인권교육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인권은 동시에 매우 단순한 방식이나 복잡한 방식으로도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인권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 매우 사실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세계적인 관점이나 매우 지역적인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에 입문하는 이들은 누구나 인권을 소개하고 인권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촉진자의 주된 업무는 청소년들을 인권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지만, 이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권의 복잡성을 쉽게 설명해주며, 많은 딜레마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인권에 내재된 핵심 개념과 가치인 보편성, 불가분성 및 비양도성을 해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 촉진자는 또한 인권의 "대사"이자 옹호자이다. 인권에 관한 핵심 질문을 다루거나 대응하는 데 실패하면 해당 인권교육은 실패하게 된다. 많은 인권 관련 문제들처럼, 아무도 촉진자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촉진자가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알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곳에서 자신들의 답을 찾도록 초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맞다.

인권은 당신에게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르네 카생

인권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 특히 인권의 보편성, 적용성 및 시행에 대해 특히 서구적 본성에 기원한다는 오해의 추정은 좋은 의도의 인권교육활동을 인권을 명확하게 하기 보다는 의심과 오해를 확인하는 경험으로 변질시키기 쉽다. 인권이 없다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장에서, 우리는 나침반 사용자들에게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이 어떻게 진화했고, 어떻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는지 인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인권 개념과 시스템에 대한 정보 모두는 아니다. 어쨌든 나침반의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사용자에게 중요한 출발점과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특성과 참가자들의 요구에 따른 추가 정보를 찾는 것은 촉진자의 몫이다. 또한 이 장은 "모든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알아야 할 것"으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인권의 다양한 중요한 면들을 다루고 있다. 개인 학습자들과 촉진자들은 보다 더 혹은 덜, 특히 자신의 국가에서 인권이 발전하고 보호되고 있는 방식에 관련해서 알 필요가 있다.

인권은 전문가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장은 인권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난해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끝을 맺는다. 여기에서는 인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질문과 의문을 다루고 있다.

(불완전한) 인간의 (불완전한) 창조물로서의 인권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발전하며 개선되고 있다. 우리는 나침반의 사용자들이 특히 나침반이 출간된 이후 이루어진 발전에 관련된 정보를 최신화하는 데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인권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개발되고, 완벽해지고 있다

4.1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갑옷과 같다: 당신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인권은 규칙과 같다;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인권은 판사와 같다. 거기에 호소할 수 있으니까. 인권은 감정처럼 관념적이다. 그리고 감정처럼 누구에게나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존재한다.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은 자연과도 비슷한데,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영혼과 같다. 시간처럼, 인권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대해준다.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건 적건, 백인이든 흑인이든, 키가 크든 작든. 인권은 우리에게 존중을 제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으로 대하도록 요구한다. 선의, 진실과 정의처럼, 가끔 인권의 정의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인권을 인지한다.

? 당신은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개인의 권리로 부를 때는, 우리는 법의 힘이나, 교육과 의견의 힘에 의해 이러한 권리의 소유를 사회가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존 스튜어트 밀

권리는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내가 값을 낸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한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가 있고, 아동은 부모가 약속했다면 동물원에 데려가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이 한 약속이나 보장에 따라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인권은 상대방의 약속이나 보장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는 강력한 주장이다. 누군가의 생명권은 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다른 사람의 약속이 필요 없다. 누군가의 생명은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의 생명권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의 생명권은 오로지 한 가지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의거한다.

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음과 같이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나에게는 이러한 권리들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생득권으로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왜 그것을 뒷받침할 특정한 행위가 필요 없는가? 왜 인간에게 그들의 권리를 누릴 자격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가?

인권에 대한 주장은 궁극적으로는 도덕적인 주장이며, 도덕적 가치에 근거한다. 나의 생명권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누구도 내 생명을 뺏어서는 안 되며, 그런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인권에 대한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모든 독자가 아마 여기에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우리 존재에는 그 누구에게도 침범당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타인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들이 우리의 존재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런 측면들은 우리의 인간다움과 존엄성에 필수적이다. 인권이 없는 우리는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다. 개인적 차원의 이러한 이해를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로 확대해주는 것이 인권이다. 내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 누군가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왜 잘못인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왜 잘못인가? 이 두 질문은 똑같은 질문인가?

정의가 죽을 때 마다, 마치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호세 사라마고

핵심 가치

나는 사형제를 사회의 도덕적, 법적 기초를 보여주는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제도하고 생각한다. 나는 야만은 단지 야만을 낳을 뿐이라고 확신한다.

안드레이 사하로프

인권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핵심적 가치 두 가지는 인간존엄성과 평등이다. 인권은 존엄한 삶에 필요한 이 기본적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적어도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로부터 인권의 보편성이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되며 둘 수도 없다.

이 두 가지 믿음 또는 가치관은 인권사상에 동의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실상 전부이며, 이 믿음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권이 세계의 모든 다양한 문화, 모든 문명국가, 모든 주요 종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 권력은 무제한적이거나 독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은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적어도 그 국가 내의 모든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누리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가치관에서 다수의 다른 가치관들이 비롯될 수 있고, 이러한 다수의 가치관들은 사람들과 여러 사회가 실제로는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유: 인간의 의지는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의지에 반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타인 존중: 누군가에 대한 존중의 결여는 그들의 개성과 본질적인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무차별: 인간 존엄성에서의 평등이란 우리가 사람들의 특성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권리와 기회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 불관용은 차이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평등은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 인간적으로 평등한 사람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책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그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의 특성

고통이 당신에게 달갑지 않은 것과 같이, 다른 이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을 아는 것은 타인을 존중과 동정으로 대하게 한다.

수만 숫탐
(역주: 자이나교 수도승)

철학자들은 인권의 본질에 대해 계속 논쟁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국제사회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의 채택을 통해 인권에 대한 놀라운 헌신을 시작했다. 이후 국제 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의 강력한 개념을 수많은 국제, 지역, 국가별 법률 규정에서 구현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수많은 후속적인 조약(다르게는 "협약"이나 "규약"으로 알려진)들에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의심할 여지가 없는 법적 지위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인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인권은 상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권은 다름 아닌 인간 존재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상황에서 일부(전부는 아니지

만) 인권이 유보되거나 제한될 수는 있다. 예컨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 국가적 비상 시기에는 예를 들면 정부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행금지를 시행하는 것과 같이 이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일부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인권은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관련되어 있다.

다양한 인권들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가지씩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 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다수의 다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어느 한 가지 권리도 다른 권리들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권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시간상의 제한도 없다는 뜻이다. 모든 개인은 인종, 혹은 민족적 배경 피부색, 성별, 동성애, 장애,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의 구별 없이 자신의 인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인이나 다른 문화권의 풍부한 다양성을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보편성은 획일성과 동의어가 아니다. 다양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등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을 요구한다. 인권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기능하며, 모든 국가와 사회는 이보다 더 높고 더 구체적인 기준을 자유롭게 정의하고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 사회, 문화권 영역에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책무는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해서 규정된 지위는 없다. 이는 각 나라와 사회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자주권은 책무를 내포하고 있으며,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이 국가 자체에 있다.

국제 간섭 및 국가위원회(ICISS) 2001년 보고서

역사적 개요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많은 문화와 고대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존경받는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실천 강령들의 무수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으로 구현된 가치들은 "서양의 발명품"도 아니고 20세기의 발명품도 아니다. 이는 보편적 인간의 필요와 정의 구현에 대한 답변이다. 비록 이러한 전통 모두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구전되거나 기록된 전통에서 모든 인간사회는 정의를 보장하려는 이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고대 역사

-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라크, BCE 2000년경)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에 의해 제정된 최초의 성문 법전이었다. 이 법전은 "이 왕국에서 정의가 지배하게 하고, 사악하고 난폭한 자들을 근절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고, … 백성을 깨우치며, 백성들의 행복을 증진"할 것을 서약하였다.
- 고대 이집트의 한 파라오(BCE 2000년경)는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 것으로 나와 있다: "상(上)이집트나 하(下)이집트에서 청원자가 도착하면,…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처리되게 하고, 관습을 지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게 하라."
- 키루스 칙령(이란, BCE 539년경)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백성들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자유에 대한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종교적 관용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일부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 공자의 가르침(BCE 500년경)에는 중심 개념으로 인(仁)이나 연민과 타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공자) 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중국 유교전문가인 장펑춘 박사는 유교가 인권사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믿었다.
- 이맘 알리 이븐 알 후세인은 8세기 초에 권리에 대한 서간을 썼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서한은 그 시대에 인지한 주요 권리를 정한 최초의 문서이며, 권리의 개념을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서간에는 50개의 권리가 방법론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 권리들은 정신적으로 초기 이슬람 교리에 닿아있다.
- 서아프리카 지역 구전문화를 성문화한, 만데 헌장(CE 1222)와 쿠르칸푸가 헌장(CE 1236)은 지방분권, 환경보전, 인권과 문화 다양성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 아프리카 세계관 '우분투' 는 인간이 된다는 의미의 핵심을 담고 있다. 우분투는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에 대한 존중, 환대와 관대함을 강조한다. 우분투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된다." 이 개념은 인권에 대한 심오한 개념을 품고 있다. 우리가 다른 이를 통해서 인간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은 일은 우리 자신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다른 이의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람이 된다.

데스몬드 투투

?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정치적, 문학적 및 종교적으로 역사상 어떤 인물들이 인권 가치를 옹호했거나 이를 위해 싸웠는가?

13-18세기

보편적인 인권 사상의 진화는 수세기에 걸쳐 전 세계 문명들에서 존엄과 존중이라는 개념의 기초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존중이 법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더 많은 세대에 걸쳐 발전한 것이다. 우리는 종종 특정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리의 개념을 법률화하기 위한 결정을 이끌어내곤 했다. 이러한 점은 확실히 완전하지는 않다. 다른 문화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권리를 법제화한 역사적 추진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영국의 귀족과 성직자들은 국왕 존 1세의 권력 남용에 반기를 들고 자유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을 작성함으로써 왕으로 하여금 법률 준수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특권층 귀족의 자유만을 옹호했으므로 일반적 인권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왕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자유를 옹호하기 위하여 널리 인용되는 문서가 되었다.
- 1689년 영국의회는 의회의 업무에 국왕의 간섭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권리장전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군주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을 금하였고, 국회의원에 대한 자유선거를 명시하였으며, 의회에서의 발언의 자유는 법정이나 그 밖의 어느 곳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역사의 단계마다 억압에 반대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모든 시대에서 인간해방의 비전이 항상 숨겨져있었다. 우리가 현대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목소리와 비전은 사회적 행동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였으며, 때때로 국가 헌법에 통합되었다.

미쉐린 R. 아이싸이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이다.

휘그 데 그푸트

기본적 인권선언은 권리장전은 국민은 지구상의 모든 정부에, 일반적이거나 특별하거나 상관없이, 대항할 권리가 있으며, 정의로운 정부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을 말한다.

토마스 제퍼슨, 1787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스럽고 명백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과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 프랑스

- 후고 그로티우스(1583–1645)는 국제법을 창안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쟁과 평화의 법칙에 대한 그의 책은 '자연법'에 근거한 일반 원칙 체계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역법이나 관습법을 벗어나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17–18세기 동안 유럽 다수의 철학자들은 '자연권'이라는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나갔다.
- 존 로크(1689)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정부나 법률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특정 권리를 가진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사실 정부의 합법성 여부는 이러한 자연권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존중에 달려있다. 이러한 자연권이 사람들에게 구체적 법률 보호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보다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에 반영되었다. 인권은 이러한 생각을 재조명했고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
- 1776년, 북미 지역의 영국 식민지 대부분은 "미합중국 독립선언"을 통해 대영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자연권" 이론에 주로 기초를 두었다. 정부의 권한을 억제하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이 선언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탄원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 정당한 법적 절차, 법 앞에서의 평등 및 종교의 자유와 같은 빼앗을 수 없는 권리, 개인권리의 개념을 진보시키는 데 기여했다.
- 1789년, 프랑스인들은 군주제를 전복하고 최초의 프랑스 공화국을 설립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바로 그 혁명에서 나온 것으로 성직자와 귀족, 평민의 대표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볼테르, 몽테스키외, 백과사전학파, 루소 같은 계몽주의 인물들의 사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 선언은 군주제의 정치 및 법률 체제를 공격하고, 인간의 자연권을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으로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군주제하에서 존재해온 귀족의 특권 체제를 법 앞의 평등 원칙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주의 용어와 평등권이라는 이론적 개념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사회는 매우 불평등했고 실천에는 몇 세대가 필요했다.

초기 국제 협약: 노예제와 노동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므로, 어느 누구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존 로크

19–20세기 들어 수많은 인권 문제들이 대두되었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출발은 노예제, 농노제, 혹독한 근로 조건, 아동 노동 같은 문제들이었다. 인권에 대한 최초의 국제 조약들이 채택된 것이 이 무렵이었다. 유용한 보호를 제공하긴 했으나, 몇몇 국가 간의 상호 조약에 기초하였다. 이는 개인적 권리 보유자에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책무라는 현대 인권 협약과는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 노예제는 19세기 초반 영국과 프랑스에서 법으로 금지되었다. 1890년 "브뤼셀 회의"에서는 노예제 반대법에 서명했으며, 나중에 18개 국가에 의해 비준되었다. 이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끝내게 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이다.
- 하지만 이 조약은 강제노동과 과도하고 가혹한 노동 환경은 다루지 않았다. 심지어 1926년 국제노예제도협약은 모든 형태의 노예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1940년대까지 강제노동이라는 일반적 관행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살찐 노예보다 배고픈 자유인이 좋다.

이솝

지구상 어디에 있든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인류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피에르 다코

- 1919년의 국제노동기구(ILO)의 창설은 사회정의에 기반해야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했다. ILO는 적절하고 생산적인 노동, 자유, 공평, 안전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국제 노동 기준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 ILO가 다루고 있는 영역중 하나는 가장 가혹한 형태인, 아동 노동과 싸우기 위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오늘날까지 해당 영역에서 수많은 행동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협약의 증진을 포함하며,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철폐에 관한 ILO 협약과 제138호 고용최저연령에 관한 ILO 협약 등이 있다.
- 1899년부터 1977년 동안에 국제 인도주의법 분야에서 다수의 주요 조약이 채택되어, 국가 간 초기 협력 분야의 또 다른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 인도주의법은 무력분쟁에서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물론 많은 분야에서 국제 인도주의법에 따라 인권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소자들에 대한 대우 등이 있다. 그러나 국제 인도주의법은 분쟁 시에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다른 많은 우려들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면 무기와 군사 전술의 허용 범위 등이다.

? 개별 국가들이 각자 자체 기준을 수립하기보다 국제협약을 만들 필요성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세기

20세기에 들어서서 특히 국가 간의 연맹과 국제 노동기구들이 출현하고 소수자의 권리, 노동 및 다양한 일에 대한 그들의 과업으로 통치 권력남용에 맞서 인간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생각이 훨씬 더 폭넓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권리를 성문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이미 일부 국가들은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문서들은 오늘날 인권 조약들 대부분의 선례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인권을 국제무대 위로 밀어올린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사건들이었다. 홀로코스트와 대규모 전쟁 범죄를 포함하여 이 전쟁에서 저질러진 끔찍한 잔혹행위들은 국제법의 전신이 만들어지게 촉발했으며,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의 창설을 촉발시켰다.

1945년 6월 26일 조인된 "유엔헌장" 은 이러한 믿음을 반영하였다. 이 헌장은 유엔의 기본적인 목표를 "후손들을 전쟁의 재앙에서 구하고",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믿음을 재천명"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DHR)은 유엔 산하기관 중 한 곳인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UDHR은 의심의 여지없이 신기원을 이루었으며 가장 중요한 세계인권협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오고 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인권에 대한 수많은 공헌을 불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그 이후 그런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핵심 협정들이 국제 사회에 의해 고안되고 합의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 조약 중 몇 가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번 장의 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의 인권

세계인권선언 채택의 후속조치로서, 세계의 몇몇 지역은 인권 보호를 위한 자신만의 체제를 확립하였고, 유엔의 체제와 공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럽, 미주, 아프리카에는 지역 인권 협정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지역인권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해 아랍세계와 아시아지역(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는 몇 가지 단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세계 각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요 유엔 조약들과 협약들을 비준함으로써 인권 보호의 일반 원칙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고, 국제인권법 준수를 자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대륙의 인권감시기구인 유럽평의회가 다양한 인권 기준과 매커니즘을 옹호하고 있다. 특히 유럽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한 역할에 대해 아래에 더 상세히 설명한다.

유럽평의회와 함께 유럽연합(EU)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

인권보호에 대한 유럽연합의 공헌은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의 채택으로 힘을 얻었는데, 이 조약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 완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 헌장은 회원국들과 유럽연합 자체가 이러한 권리를 지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는 이 헌장을 위반하는 EU 입법을 폐지하고, 단기적 조치는 각국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EU회원국들이 이 헌장을 준수하는지 심리한다. 이 헌장은 여섯 '제목'아래에 권리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이는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시민권, 정의다. '존엄'이라는 제목은 생명권을 보장하고 고문, 노예, 사형을 금지한다; '자유'는 프라이버시, 결혼, 사상, 표현, 집회, 교육, 일, 재산 및 망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평등'은 아동과 노인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연대'는 사회권과 노동자 권리, 공정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보장한다; '시민권'은 투표권과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정의'는 효과적인 구제, 공정한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유럽연합 기본권위원회(FRA)는 유럽연합 전체의 기본권 상황에 대한 실태를 수집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이 기관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향유 증진에 도움을 주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http://www.osce.org/odihr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유럽, 중앙아시아, 북미지역 56개국이 함께 구성하고 있다. 인권 보호에 특별히 전념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인권, 소수 민족, 민주화, 치안 정책, 대테러, 경제 및 환경 활동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한다. 인권분야에서의 OSCE의 활동은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를 통해 진행된다. 바르샤바에 위치한 ODIHR는 선거감시, 민주 발전, 관용과 비차별, 법치 등의 분야에서 OSCE 국가 지역을 걸쳐 활동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반유대주의 투쟁, 이슬람혐오 대응 등이 포함된다.

미주기구

미주지역에서의 인권 기준과 체계는 1948년 미국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선언과 1969년 미주인권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난민, 고문 예방과 처벌, 사형제 폐지, 실종, 여성 폭력, 환경과 기타 문제에 관련된 특별 협정들 또한 채택되었다.

아프리카연합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은 1985년 10월에 발효되었으며 2007년 기준으로 53개 국가에 의해 비준되었다. 이 헌장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채택된 조약들과 강조점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 유럽 또는 미주 협약들과는 달리, 아프리카 헌장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들도 동일한 조약에서 다루고 있다.
- 아프리카 헌장은 개인적 권리를 넘어, 인민들의 집단적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 아프리카 헌장은 또 개인들에게 권리는 물론 의무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 사회, 국가, 국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인 의무를 열거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 왜 인권헌장에 의무들이 열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인권 문서에 의무가 열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랍인권헌장

아랍지역 인권위원회가 196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인권증진에 있어 매우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권한밖에 없다. 개정된 아랍인권헌장은 2004년 아랍국가연맹에서 채택되었으며, 2008년 발효되었다.

이 문서는 사회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정치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랍 국가들이 공유하는 "공동 문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헌장의 실행과 감독기구인 아랍인권위원회 자체로 아랍 지역의 인권 발전을 위한 희망적인 신호로서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잔혹한 처벌 금지의 결핍, 단지 시민에 국한된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이슬람 율법에 따른 일부 권리의 구성, 국내법이 허용하면 아동 사형을 허용하는 것, 법률에 의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과 같은 것에 대해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지역에서는 2009년 정부 간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기구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진행하여 왔다. 이 위원회에 대한 2009년 참조 약관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약하고 있다. "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 그리고 공평성, 객관성, 비선택성, 비차별성, 이중잣대와 정치화의 회피 등을 포함하는 국제 인권 원칙을 존중한다."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인권은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인권의 존재만으로 인권 침해를 종식시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권 침해가 매일, 지구 곳곳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권이 정말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인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 당신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바를 알고 있는가?

가치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뭇잎이 팔랑거리면 비로소 바람이 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가치를 깨닫게 된다.

에바 안젤

자신의 권리 인식

다음 섹션에서는 국제법 하에서 보호받는 다양한 종류의 권리를 살펴본다. 우리가 인간 존재의 어떤 영역이 인권법과 관련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면, 또 이런 인권법 하에서 정부가 지켜야 할 의무를 알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거의 모든 영역이 인권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소규모 빈곤부터 환경 피해, 건강, 근로 조건, 정치적 억압, 투표권, 유전공학, 소수자 문제, 분쟁, 집단학살 등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문제의 수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권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 몇 가지는 "질의응답" 섹션에서 직접 다루게 된다. 이 섹션에서는 인권에 대한 단골 질문들 중 몇 가지에 대해 간단한 답변을 제공한다. 어떤 특정 문제 – 예를 들면, 건강권, 교육권 혹은 정당한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면, www.coe.int/compass의 5장에서 그 문제에 관련된 배경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법체계 이용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다양한 영역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법 장치들도 살펴볼 것이다. 유럽의 경우 인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다루는 상설 법원인 "유럽인권재판소"를 두고 있다. 아프리카와 미주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를 다루는 법원이 있다. 심지어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이 아닌 소송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다른 장치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법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비록 의무를 준수하도록 국가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다.

로비, 캠페인 및 행동주의

국가에 압력을 가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여러 단체, NGO, 자선단체, 기타 시민주도그룹들이 수행한다. 이 내용이 행동주의와 NGO의 역할에 대한 섹션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단체들의 역할은 일반인들과 특히 관련이 깊다. 그런 단체들이 개인적 사례들을 자주 다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타인의 인권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그런 단체들은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들이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성공적인 몇 가지 행동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어떤 종류든 캠페인이나 인권 운동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가?

참여하기

3장 "행동하기"에서는 평소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의 여러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그룹들은 국가나 국제기구에 압력을 행사하고, 인권 침해 사례들을 방지하거나 여론화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섹션의 예들은 여러분의 그룹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공해줄 것이며 NGO들의 평소 활동 방법에 대한 더 큰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인권의 딜레마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다양한 장애를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일부 정부, 정당이나 후보자, 사회경제적 주체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인권목표에 대한 기여 없이 인권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는 가끔 인권 기준이 왜 요구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고의적인 남용 때문으로, 세상에 선하게 보이고 싶어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나타내고 싶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다른 이들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면서도 자신 스스로 인권기준을 지켜내는 것에 실패하기도 한다. 이는 종종 이중 잣대로 비판받는다. 셋째, 타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합법적일 수 있다. 인권은 무한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권리 향유를 침해하면서 당신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인권 보호'가 인권을 제한하기 위한 공허한 핑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를 감시하는 활동적인 시민사회와 독립적인 사법부가 중요하다. 넷째, 한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다른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예가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위에서 제시한 권리 제한과는 구별된다. 그러한 경우를 판별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적절한 인정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

권리의 충돌

하지만 권리도 충돌할 수 있다. '권리충돌'은 서로 다른 인권 간에 또는 서로 다른 이들의 동일한 인권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말한다. 한 가지 예로 생존을 위해 새로운 심장이 필요한 두 명의 환자가 있으나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은 하나뿐인 경우이다. 이 경우 한 환자의 생명권은 다른 이의 동일한 인권과 충돌한다. 또 다른 예는 안락사의 경우인데, 자신의 생명권과 자신 스스로 모멸적인 치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와 상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의 서로 다른 인권이 충돌하게 된다. 세 번째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인권들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된 사례로 오슬로 유대인 협회 등 대 노르웨이정부 건에 대한 것이다. 2000년에 '부트보이'로 알려진 그룹이 나치 지도자 루돌프 헤스를 기리는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준 군복을 입었으며 행진의 지도자인 테르제 졸리는 반유대인 연설을 하였으며 이어서 군중들은 나치식 경례와 "시그 힐" 외치기를 반복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졸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유대인 사회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간의 충돌이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졸리의 발언이 인종에 대한 우월의식과 증오를 담고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이고 공격적인 연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보호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여성들이 그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삶에 완전하고 동등한 참가자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여성생식기훼손(FGM), 명예 범죄, 강제결혼과 같은 관행들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할리마 엠바렉 화르자지[1]

문화 전통

> 전통적 문화 관습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여러 세대를 걸쳐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믿음을 반영한다. 세계 모든 사회적 집단은 각기 특정한 전통적 문화 관습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반면, 다른 일부는 여성과 같은 특정 집단에 피해를 준다. 이같이 유해한 전통 관습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여성생식기훼손(FGM), 여성 강제 급식, 조혼, 여성 스스로의 출산을 조절하는 것을 막는 여러 금기 사항이나 관습, 영양 측면의 금기사항과 전통적 출산 관행, 남아 선호와 여아의 낮은 지위, 여성 유아 살해, 조기 임신, 지참금 등. 이러한 관행의 유해성과 국제인권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은 지속되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실행하는 이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유해한 전통적 관습

여성과 아동들의 건강에 해롭고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여러 관행을 흔히 '유해한 전통적 관습'이라고 부른다. 이는 모든 전통 관습이 해롭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의심해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매결혼은 여러 문화에서 보편적인 관습이고, 이 경우에 젊은 여성은 그리고 남성도 또한 가족이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은 해야 한다. 중매결혼은 강제결혼과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자. 여성의 나이가 아주 어린 경우도 흔하다. 그러한 관습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문화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 될 것인가?

또 다른 예들은 여러 나라에서 여성 할례의 관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습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수천 명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이러한 관습들을 심각한 권리 침해로 여길 것이다. 여성 할례는 "허용되어야 하는" 문화적 특수성인가 아니면 인체의 완전성과 건강에 관한 인권의 침해인가?

유념해야 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체제와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비엔나 선언 (1993)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해로운 전통 관습의 거부로 이어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전통과 문화에 기초하여 부정당할 수 없다. 대체로 전통과 문화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고 진화한다. 20년 전 옳다고 여겨지던 것이 오늘 세대에는 종종 맞지 않곤 한다. 유해한 전통 관습은 인권증진 교육프로그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많은 해로운 전통 관습은 금지와 비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의 참여가 필요하다. 심지어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국가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관습은 개인의 행동으로 지속된다.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로부터" 강요가 아니라 관련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정기적 교육 활동이 요구되며, 이것이 특정 문화적 권리와 관습이 인권 증진이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문화적 관습이 인권의 보편성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가?

대의의 이름으로

제재는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권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 공동체가 가끔씩 이용하는 수단이다. 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인권 침해국과의 교역을 금한다. 인권 침해 행동을 수정하도록 해당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조치는 때로는 한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서 채택되기도 한다. 몇몇 국가는 국제 공동체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라는 혐오스러운 제도로 인해 수년간 고립되었고, 수십여 년 동안 이라크, 북한, 이란의 타국과의 교역에 제제를 가해오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러한 제재의 영향은 일반 국민들이 받게 되지만,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특히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특정 국가의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이러한 제제는 용납할만한 수단인가?

정의는 약자의 권리이다.

요셉 쥬베르

개입과 주권국제위원회(ICISS)는 '보호책임' 보고서에서 대응보다는 주의와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인명 보호를 위한 군사적 개입'이라는 '예외적이고 비상한 수단'의 대응이 필요할 때, 대규모 인명 손실이나 인종 청소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한계점을 강조한다. 심지어 그러한 경우에도 다음의 "사전 예방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올바른 의도: 개입하는 국가들이 가지는 다른 동기가 무엇이든 간, 개입의 일차적인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멈추거나 회피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올바른 의도는 다자 운영에서 더 잘 보장되는데, 명확하게 지역적 여론과 관련 피해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 최후의 수단: 군사적 개입은 위기 예방이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모든 비군사적 선택사항을 모색하고, 덜 과격한 수단들이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에서 정당화 될 수 있어야 한다.
- 비례적 수단: 계획된 군사적 개입의 규모, 기간, 강도는 정의된 인권 보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최소여야만 한다.
- 합리적 전망: 개입을 정당화시킨 원인의 중지나 회피가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이는 조치의 결과가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만, 다음 사례들과 관련된 사전예방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1995년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999년 코소보에서 NATO 주도 폭격이나 2001년 아프가니스탄 개입. 많은 사상자를 냈다면, 이러한 개입이 최종결과라는 측면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 인권 옹호를 명분으로 삼는 군사 작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내전, 반란, 억압이나 국가 파산의 결과로서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곳에서, 그럼에도 국가가 이를 멈추거나 피할 수 없거나 의지가 없다면, 불간섭 원칙은 보호라는 국제적 책무에 굴복하게 된다."

개입과 주권 국제위원회 (ICISS) 보고서, 2001

2001년 4월, "UN 인권위원회" 결의안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인권 보호를 희생하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거부하였다. 결의안 2001/24는 체첸 분쟁과 관련한 테러 공격과 체첸군의 인도주의 법률 위반은 물론, 체첸에서 러시아 연방군이 자주 사용한 특정 작전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러시아군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 차원의 독립된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하였다.

인권: 항상 변하고, 항상 진화한다.

앞의 섹션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어느 것 하나 딱 떨어지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질문들은 오늘도 여전히 열띤 논쟁의 주제들이다. 그런 논쟁들은 어느 선까지는 중요하다. 그런 논쟁들은 인권 개념에 필수적인 다원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인권이란 과학이 아니며, 고정된 '이념' 도 아니고, 도덕적 사고와 법사상의 한 영역으로서 계속 발전 중이라는 사실의 표시이기도 하다. 항상 흑백이 뚜렷한 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인권 문제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적절한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아예 없다거나, 동의되는 영역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영역은 많이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예제 문제는 과거에 논쟁을 벌였던 문제지만, 노예제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권리는 이제 기본적인 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여성 할례는 비록 일부 문화에서 옹호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형제 문제도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적어도 유럽에서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의 유예를 선언했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는 오늘날 유럽평의회 회원자격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사형제를 법률상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했다. 반면에 58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의 국가는 사형집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질문들 다수가 답을 찾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사이에 우리는 토론을 촉진하고 더 많은 논쟁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리 나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은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가치를 다시 불러내는 것이다. 개인의 인간 존엄성을 무시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권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다.

4.2 인권의 진화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비엔나 선언, 1993

약속, 약속…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를 위해 수많은 약속을 해왔다! 그들이 한 모든 약속이 지켜진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롭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편안할 것이다. 우리의 사법체제는 공정할 것이며,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호해줄 것이다. 우리의 정치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일 것이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일까? 사소하지만 잘못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정치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할 수만 있다면 지름길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며, 그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나가야 한다.

? 여러분은 한 번 하겠다고 말한 것은 항상 이행하는가? 아무도 그 약속을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우리의 권리란 무엇인가?

우리도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모든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협약을 비롯한 국제 조약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권리들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조약들을 살펴볼 것이며, 그 조약들이 개발되어 지역적으로 또는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은 순서대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분류하는 가장 확립된 방법은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권리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선은 이 방법을 따른다. 그러나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그 같은 분류는 용도에 제한이 있고,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범주 분류는 결국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서로 다른 권리들을 분류하는 많은 방법 중의 한 가지일 뿐이다. 대부분의 권리는 하나의 범주에만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신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시민권이자 정치적 권리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기본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제1세대 인권)

이 권리들은 17-18세기에 하나의 이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정치적 관심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 무렵에 인정받기 시작한 사상으로, 그것은 바로 무소불위의 통치자에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인민들은 자신들과 관련 있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중심 사상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상이었고, 국가의 인권침해에 맞서 개인을 보호하는 사상이었다.

투옥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항복하지 않는 것이다.

나짐 히크메트

오늘날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CHR)’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들은 정부 참여권과 고문금지와 같은 권리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전통적으로, 적어도 “서양” 에서는, 다수에 의해 가장 중요한 권리로 간주되어왔다. 이러한 관점이 잘못된 것임을 다음 섹션에서 확인한다.

인권은 정치적 학대를 받기 쉽다.

냉전시대에 소비에트연방 국가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경시한다는 이유로 맹비난을 받았다. 이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여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요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무시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본다. 양쪽의 비난에는 모두 최소한 일말의 진실이 들어 있었다. 또한 이는 인권이 어떻게 정치적 악용으로 쉽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 “충격적인 현실은 국가들과 국제 공동체 전체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계속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침해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한다면 공포와 분노의 표현들을 일으키게 되고, 즉각적인 개선 행동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
>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비엔나 회의 선언문, 1993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제2세대 인권)

먼저 타락한 후에 도덕이 뒤따른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이 권리들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 방법과 삶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권리들은 평등사상은 물론, 꼭 필요한 사회적 및 경제적 재화와 용역, 기회에 대한 접근권 보장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권리들은 초기 산업화와 노동자 계급의 출현에 영향을 받아 점차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 권리로 인해 존엄한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요구들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의해 제시된 국가의 최소한의 간섭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그리고 유럽평의회 유럽사회헌장에 요약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는 평등의 개념, 필수적인 사회적, 경제적 재화, 서비스 그리고 기회 접근권 보장에 근거한다.

- 사회적 권리는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데 필요한 권리들이다. 여기에는 교육에 대한 권리와 가정을 꾸려나갈 권리가 최소한의 권리로 포함되지만, 흔히 시민적 권리로 여겨지는 권리들도 다수 포함된다. 여가에 대한 권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그 예이다.
- 경제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일할 권리, 적정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주거권,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연금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는 최소 수준의 물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컨대 의미 있는 고용이나 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심리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권리이다.
- 문화적 권리는 공동체의 문화적 “생활 방식”을 가리키며, 대부분의 다른 권리들에 비해 관심을 덜 받는 편이다. 문화적 권리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며, 교육에 대한 권리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내 소수자 공동체들이 그들 특유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권리로 공식 분류되지 않은 다수의 다른 권리들이 꼭 필요할 것이다. 비차별에 대한 권리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그 예이다.

연대권 (제3세대 인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의 목록은 부단히 변화해왔다. 비록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권리들 중에는 5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무것도 문제가 된 것이 없었지만, 새로운 조약들과 문서들이 원래의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를 명백히 설명하며 그 개념들을 더욱 발전시켜왔다.

개발권, 평화권, 건강한 환경, 인도주의적 지원…

이러한 보완은 여러 가지 요인의 결과였다.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개념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고, 새로운 위협과 기회가 등장한 결과인 경우도 많았다. 제3세대 권리로 제안된 특유의 새로운 범주의 권리들은 제1세대 및 제2세대 권리의 실현을 방해할 수도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결과였다.

제3세대 인권의 기초에 놓인 사상은 연대의 사상이며, 제3세대 인권은 사회나 사람들의 집단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평화·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그 예이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도의 빈곤, 전쟁, 생태 및 자연재해 같은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권 존중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범주의 인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왔다. 이러한 인권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여 이미 인정된 제1세대 및 제2세대 인권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보장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세대 인권의 범주에 가장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구체적인 권리는 발전, 평화, 건강한 환경, 인류 공동 유산의 이용 공유, 소통,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범주의 권리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권리가 집단적 권리로서, 공동체나 심지어 국가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하기도 한다. 그들은 인권은 개인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언어적인 것 이상이다. 왜냐하면 일부는 그러한 용어상의 변화가 집단적 인권의 이름으로 (개인) 인권을 거부하는 특정 억압 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것을 우려한다. 예를 들어 ”경제 발전“을 위해 시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축소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가끔 제기되는 또 다른 우려가 있다: 제3세대 권리를 보호하도록 의도한 것은 국제사회이지 국가가 아니기에 권리보장에 대해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가 혹은 무엇이 카프카스지역이나 중동 평화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럼에도, 그 권리를 뭐라고 부르기로 결정하든,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국제 공동체의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일부 집단적 권리가 이미 인정되고 있는데, 특히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헌장’과 ‘원주민 권리 선언’에서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자체에 자기결정권과 발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1986년 유엔 총회 결의로 이를 성문화하였다.

발전의 권리는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을 누리고, 기여하고, 참여할 자격이 있음이 인정되기에, 그 안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권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다. (UN발전권 선언)

다른 종류의 권리들은 붙어 있는 이름에 비해 서로 훨씬 더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한 권리가 있는가?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념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최소 수준의 생활과 주거, 고용의 합리적 조건 같은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모두 필수적이란 것이 자명해보이지만,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이를 인정할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자원에 대한 대규모 재분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 한 가지 이유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표를 얻는 정책이 아니란 것을 정치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정치인들은 왜 제2세대 인권은 제1세대 인권과 다른지에 대한 수많은 변명을 내놓고 있다. 흔히 하는 첫 번째 주장은,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이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제2세대 인권을 향해서는 오로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취한 접근법이다. 즉, 각국 정부는 미래의 언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정치적 고려에 더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세계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

두 번째 주장은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 간에는 기본적인 이론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제1세대 권리는 정부에게 특정 활동만을 삼가도록 요구하는 반면(소위 '소극적' 권리), 제2세대 권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적극적' 권리). 이 주장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것과 같다. 의무를 책임져야 할 주체가 없다면 그 말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권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오해가 있다.

첫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순수하게 소극적인 권리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고문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을 고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분야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감찰 체제, 사법 장치, 정보의 자유, 구금 장소에 대한 접근 등 견제와 통제의 복잡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투표할 권리를 비롯한 모든 다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권리들은 정부가 부정적인 행동을 삼가는 것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둘째,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 역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특정 활동을 삼갈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기업들에게 거액의 세금을 감면해준다거나, 이미 상대적인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촉진한다거나, 개발도상국들에게 보복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삼갈 것을 요구한다.

? 진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을 정부가 인정해야 하는가?

사실, 다양한 종류의 권리들은 그 이름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 권리는 정치적 권리에 통합된다. 시민적 권리는 흔히 사회적 권리와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한 이름은 큰 그림을 제공할 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기능성도 매우 크다. 많은 권리는 어느 한 범주에 속하지만 그 한 범주에 속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른 범주에 속한 다른 권리의 이행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래서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실행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적절하다. 5항에서 다음을 인식하고 있다.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관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전 세계에서 같은 기초 동등한 역점에 기반을 두고서 인권을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핵심" 과 "기타" 권리에 대한 설명

'세대별 접근' 은 권리의 확산에 비추어 권리를 구분하려는 유일한 노력은 아니다. 어떤 권리들은 공적인 비상 상황에서 유예될 수 있는 반면, 어떤 권리들은 그렇지 않다. 일부 권리들은 국제기구에서 받아들이는 '강행규정'이나 규범으로 인식되며 이는 축소가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다; 대량학살, 노예제, 조직적 인종 차별에 대한 금지가 예가 될 것이다. 어떤 권리들은 구현에 있어서 유예나 제한이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인데, 고문방지가 그 예가 된다. "최소 핵심" 책무는 특정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관련되어 확인된다. 예를 들어 필수적인 1차 의료 서비스, 기본적인 보호소와 교육 제공 등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보호의 틀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권리가 핵심이라고 제시하곤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단일 이론은 없지만, 대부분의 관찰에서 권리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화시켜준다.

그러나 확산의 문제와는 별도로, 종종 과학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인권 규범의 필요성을 일으키곤 하며, 이러한 것을 이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과학의 발전

새로운 인권이 인정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건강과 의학 분야이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잇따르면서 특히 유전 공학 분야와 장기 및 조직 이식에 관련해서 윤리와 인권에 관한 수많은 질문을 야기시켰다. 이들 각 분야에서 거둔 기술적 진보의 결과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은 …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유럽평의회 오비에도 협약

유럽평의회는 이러한 도전에 새로운 국제 조약으로 대응해왔다. '생물학 및 의학의 응용과 관련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 협약(오비에도 협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협약은 1999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유럽평의회 35개 회원국에 의해 서명했으며 29개 회원국이 비준하였다. (2019년 5월 현재) 이 협약은 앞의 섹션에서 제기된 문제시되는 쟁점 몇 가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관련 있는 조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전적인 이유로 사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된다.
- 예측성 유전자 검사는 건강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아이의 향후 발달하게 되는 신체적 특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시될 수 없다.

자기결정권과 발전권 둘 다 … 개인적 권리이자 집단적인 권리이다.

치디 안셀름 오딘칼

- 인간 게놈을 수정하기 위한 개입은 예방이나 진단, 치료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의료지원 출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식을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또는 조직 제거는 수혜자 치료를 위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제21조 – 금전적 이익의 금지)

살아 있는 사람이든 고인이든, 한 인간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다른 인간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개입도 금지된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 협약 추가의정서, 파리, 1998

유전공학은 생명체의 유전물질을 변경함으로써 미리 결정한 방식대로 그 생명체의 유전형질을 바꾸는 방법이다. 유전공학 분야의 진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윤리 및 인권 관련 질문들에 대한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생식세포 조작이 그 생명체와 후손들에게 항구적인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경우 그 조작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또는 개체의 유전자를 이용한 생명체 복제가 쥐와 양의 경우처럼 인간의 경우에도 허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그 예이다.

? 과학자들의 연구에 제한이 있어야 하는가?

또한 생체의학 기술의 진보는 성인이나 태아의 장기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기능성을 보여준다. 유전공학과 마찬가지로, 생체의학도 일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진보에 의해 제기된 문제시되는 쟁점 몇 가지를 생각해보라.

- 사망자의 장기를 이용하여 한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장기 이식은 항상 시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망자들도 존중받아야 마땅한가?
- 장기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장기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이식 기회를 얻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장기 및 조직 보존과 관련한 법이 있어야 하는가?
- 유전자변형식품과 사료(GMOs)에 대한 권리적 접근법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무엇인가?

4.3 인권의 법적 보호

우리는 이미 인권은 모든 인간이 소유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인권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어떻게 실행되는가?

국내 인권

인권의 보호와 이해가 궁극적으로 그 국가 차원에서의 발달과 체제의 수준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해당 국가의 수준에 따른 법률, 정책, 절차 및 체제는 각 국가에서의 인권의 향유를 위한 핵심이다. 그러므로 인권이 그 국가의 헌법과 법률 체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사법전문가가 인권적용기준에 관한 정규교육을 받아 인권침해가 유죄선고를 받고 처벌받는 체제. 광역적이고 국제적 수준보다는 해당국가의 기준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 국가의 절차가 더 접근이 용이하다.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다음과 같이 말했듯이:

인권보호는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 매커니즘에 가장 의존하고 있다.

>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가정에 근접한 작은 장소들에서-너무 가깝고 작아서 세계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럼에도 개인에게는 세상인 곳: 함께 살고 있는 이웃, 다니는 학교 또는 대학, 일하는 공장, 농장 혹은 사무실, 그러한 장소들이 바로 남녀, 아동이 차별 없는 평등한 정의, 평등한 기회, 평등한 존엄성을 추구하는 곳이다. 만일 그곳에서 이러한 권리들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다른 어느 곳에서 의미를 갖겠는가?

그러므로 권리의 존중, 증진, 보호 및 충족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중요하며, 국가가 계획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곳에서만 주로 활동을 시작하는 광역적이거나 국제적인 조사위원회는 부수적이다. 광역적이고 국제적인 체제에 의지하는 방식의 사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시키는 인권침해를 인식하는 데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광역적이고 국제적인 체제에 의지하는 방식의 사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시키는 인권침해를 인식하는 데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광역적이고 세계적인 관심 또는 지원은 내국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촉발점이 될 수 있지만 단지 내국적인 모든 방안이 이용되고 소진되었을 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절의 나머지 부분을 정확히 시나리오에 할애한다. 내국적인 체제가 인권향유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떤 최후의 수단이 있는가?

? 인권에 관해 매우 취약한 기록을 가진 국가조차도 세계인권조약에 기꺼이 서명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인권은 협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행동들에 따라 심판받는다.

코란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가들은 함께 인권이라는 주제에 관해 특정된 협약을 작성한다. 이런 협약은 국가들에게 행정의 목표 기준을 확립시키고 개인에 대한 특정된 의무를 부과한다. 협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거나 구속력 없는 것.

흔히 조약, 협약 또는 규약으로 불리는 구속력있는 문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국가들의 약속을 나타낸다. 각 국가는 비준 또는 가입을 통해 이러한 기준에 구속됨을 표명한다. 단순히 협약에 서명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인권을 촉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일지라도, 구속력이 발현하지는 않는다.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서명하도록 하기 위한 생각에 협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던 조약법에 관한 1969년의 비엔나협약에 따라 국가들은 유보조항을 달거나 선언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어떤 국가가 어떤 인권 조항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때로는 남용될 수 있고 국가가 특정지역에 있어서 국제 정밀조사를 회피하도록 허용해서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핑계로 사용될 수도 있다.

어쨌든 인권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법률에 스며들었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을 국가의 헌법이나 다른 입법에 적용하도록 고취시켰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침해를 보상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대조적으로 비구속적 규정은 근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단순한 선언이거나 일련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시도로서 그렇게 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전혀 없는 취지의 정치적 협약이다. 이것은 보통 실질적으로 비록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약속은 있지만 공적인 또는 법률적인 시행 메커니즘이 없음을 의미한다.

? 법적 메커니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인권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단순한 "약속"의 가치는 무엇인가? 없는 것 보다는 나은가?

법이 마음을 바꿔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자비한 사람들을 제지해준다.

마틴 루터 킹

UN총회의 회의 또는 특별한 이슈로 개최된 UN 컨퍼런스는 종종 UN선언문 또는 비구속적 선언을 낳으며 이는 또한 "부드러운 법(소프트 로)"으로 언급된다. 모든 국가들은 단순히 UN 회원국이 되거나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이슈화되었던 선언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권에 관한 인식은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간의 합의의 결과이어야만 한다. 인권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되었을 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차적인 정치적 약속이 된다.

주요 국제 문서

인권의 중요성은 인권보호를 제시하는 폭넓은 문서를 통해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이는 인권운동가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승리로 보인다. 그러한 성공의 당연한 귀결은 인권문서와 실행 절차의 거대한 복합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인권문서는 보통 3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된다: 지질학적 범위(광역적 또는 전 세계적), 권리가 제공되는 범주, 권리의 보호가 제공되는 것과 관련 있는 특별한 범주의 사람 또는 그룹.

UN만의 차원에서 보면 백 개가 넘는 인권관련 문서가 있으며 만일 다른 지역적 차원에서 추가한다면 그 수효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이러한 문서들을 분별할 수는 없으므로 본 절에서는 나침반의 인권교육 목적에 가장 관련된 것들만 다루기로 한다.

- 널리 받아들여지고 다른 인권문서의 발전을 위한 정리 작업을 한 문서로서 가장 특별한 국제인권장전(난민협약, 집단학살협약 및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지향하는 문서와 같은 더 많은 특별한 문서를 위해서는 제5장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시오)
- 특별한 이슈에 관련된 문서 또는 수혜자는 본 매뉴얼에서 탐구한다.
- 유럽의 주요 인권 문서들

UN 문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권 문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세계 인권 문서는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 이다. 이 선언은 너무 폭 넓게 받아들여져서 최초의 비구속적 성격이 변했으며 많은 부분은 국제 관습법에 근거해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것은 인권문서의 시금석으로 수십의 국제적, 광역적 문서 그리고 수백 국가의 내국헌법과 다른 입법이 그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자격이 주어지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제시하는 조항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사회권, 경제권, 문화권에 더하여 시민권과 정치권 모두를 포함한다.

- 평등권
- 차별로부터의 자유
- 생명권, 자유권, 개인 안보권
- 노예제도로부터의 자유
- 고문과 굴욕적 대우로부터의 자유
- 법 앞에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권
- 관할 재판소에 의한 구제권
- 임의 체포와 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
- 공청회 공정권
-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과 통신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을 자유
- 국내외의 자유로운 이동권
- 박해로부터 타국으로 망명할 권리

- 국적을 가질 권리와 국적을 바꿀 권리
- 결혼과 가정을 이룰 권리
-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
- 믿음과 종교의 자유
- 의견과 정보에 대한 자유
-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
- 정부와 자유로운 선거에 참여할 권리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원하는 직업과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 휴식과 여가의 권리
-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적합한, 합당한 사회적 질서에 대한 권리

이 선언은 또한 공동체와 시민의 의무가 자유롭고 온전한 발전에 필수적이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언급하고 있다. 유사하게 선언문의 권리들은 사람들이나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데 원용될 수 없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ESCR)'**은 둘 다 1976년에 발효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주요 문서로서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두 규약은 세계인권선언문에 개요가 표현된 권리를 확장하고 그들에게 규약범위 내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세계인권선언문과 함께 그리고 각자의 선택의정서는 국제권리장전을 형성한다. 그들 각각은 그 이름이 표명하듯이 비록 예를 들면, 비차별에 관련하는 등 관심사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범주의 권리를 제시한다. 두 문서 모두 널리 비준되었으며 2010년 10월 현재 ICCPR은 166개국, ICESCR은 160개국의 비준을 이루었다.

국제권리장전에서 더 나아가 UN은 특정한 권리 또는 수혜자를 지향하는 추가적인 7개의 규약을 채택했다. 특정한 권리 또는 수혜자에 관한 아이디어가 동기화되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위한 아동권-모든 인권이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일반적인 권리에 평등한 접근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추가적 보호가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CRC, 1989)은 아동 또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사람은 충분한 발전, 생존이 보장되고 자신의 최고의 이익이 존중받기 위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공인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1965)은 인종차별을 금하고 비난하며, 당사국에게 그것이 공공기관에 의한 것이든 다른자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79)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 배제, 또는 제약으로 종종 조직적으로 일상적으로 고통받은 여성차별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의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다른 분야에서의 인식, 향유 또는 실행을 손상시키거나 무효화시키는 효과나 목적이 있다. (제1조) 국가는 그러한 차별을 규탄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1984)은 고문을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가혹한 고통과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고문은 형벌 또는 강압 또는 차별에 근거해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해진다.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그의 관할 구역에서 고문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수단을 취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그 사람이 고국에서 고문당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면 해당 인을 고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 이주노동자란 국적을 갖지 않은 나라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에 고용될 예정이거나 고용된 경우 또는 고용되어 온 경우의 사람과 (제2조.1) 그 가족 구성원을 지칭한다. 이 협약은 그러한 사람이 일반적인 인권의 혜택을 받아야함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문서로 작성되었든 아니든 정식적이고 합법적 상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유, 안보, 폭력이나 자유의 박탈에 대한 보호와 같은 권리의 향유에 관련된 차별을 겪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장애인권리협약(2006)은 장애인의 정의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충분하고 평등한 권리와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주체로 인식함으로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협약은 그런 사람에게의 권리의 적용을 명시하고 당사국(회원국) 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그들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예를 들면 그들의 공공서비스와 문화생활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했다.

강제실종협약(2006)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목했다. 협약은 "체포, 구금, 납치 또는 모든 형태의 자유의 박탈"을 금했다. (제2조) 그것이 국가기관에 의한 것이든 국가의 묵인하여 활동하는 다른 자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희생자의 존망과 소재를 은폐하는 등 그 무엇이든 어떠한 예외적 상황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목적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부정적인 술책과 시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주요 유엔 인권조약

협약	모니터링 기구	선택의정서
인종차별국제협약(1965)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시민권과 정치권에 관한 국제 협약(1966)	인권위원회	첫 번째는 개인 불만사항 매커니즘 두 번째는 사형제 폐지에 목표를 두었다.
경제, 사회 및 문화권에 관한 국제협약(1966)	경제 · 사회 및 문화권 위원회	선택 의정서는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제공되는 통신에 대한 위원회 수용능력 인식(2008)
아동인권협약(1989)	아동인권위원회	무력충돌의 아동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선택의정서(2000), 위원회 개인 청원 선택의전서(2011)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의 불평제기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1984)	고문방지위원회	고문방지분과위원회의 감시를 받는 독립된 국제적, 내국적 단체의 정기 방문 시스템 확립 선택의정서(2002)
이주노동자 권리협약(1990)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	
장애인 권리 협약(2006)	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과 그룹이 위원회에 탄원하는 통신허용 선택의정서
강제실종협약(2006)	강제실종협약위원회	

UN과 유럽 차원에서의 특정 집단의 보호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함에 더하여 몇몇 인권관련 문서는 특정 그룹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러한 특별 보호는 그룹에 대한 차별의 전례와 어떤 그룹이 사회에서 차지한 위치가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취약했기 때문에 실현하게 되었다. 이 특별한 보호는 그러한 새로운 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수자가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소수자를 위한 특별한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권리에 접근하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뿐이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룹의 예는 다음과 같다:

소수자

국가는 자기 영토 내에서 소수민족들의 존재와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정체성을 보호하고 그 정체성을 진흥하기 위한 조건을 장려해야 한다.

UN 소수자권리선언

소수자는 국제인권문서에 의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문서들에 공통적으로 묘사되기를 대다수의 주민들과는 다른 민족 또는 종족, 종교적 또는 언어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보호받는다:

- UN차원에서 제27항의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협약에 더하여 1922년에 채택된 민족적 또는 종족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유럽 차원에서의 구속력 있는 문서인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FCNM)”은 독립된 전문가의 감시기구를 만들었다: FCNM에 관한 자문위원회, 유럽평의회의 다른 부서들이 소수자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 지역 언어 또는 소수언어를 위한 유럽헌장, 유럽 인종차별위원회(ECRI), 유럽인권위원회 등이 도움을 주고 있다.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내에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고등 판무관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그리고 관련 유럽안보협력기구 문서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아동

당사국의 아동에 적용하는 별도의 법률적 규정이 없다면, 대다수는 국가에서는 18세 이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UN 아동권리협약

유엔 차원에서의 주요한 보호는 1989년에 발효된 아동권리협약(CRC)을 통해 제공되었으며 이 협약은 가장 폭넓게 비준된 협약이다(단지 미국과 소말리아만 비준하지 않았다). 이 협약의 4가지 핵심적인 원칙은 비차별: 아동의 최고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약속: 생명권, 생존권 및 발달권: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이다.

아프리카 차원의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은 대륙환경의 독특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기본적 아동권리를 제시한다. 그것은 1999년에 발효되었다. 이슬람지역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약이 2004년에 이슬람국가회의기구에 의해 채택되었다. 아시아위원회는 2010년 4월에 여성과 아동의 권리증진과 보호를 정식으로 선언했다.

유럽평의회의 성적착취와 성적학대로부터 아동보호협약은 201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가정 혹은 가족에서의 행해지는 학대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성적 학대를 형사상 범죄로 확립시킨 최초의 문서이다

난민

난민들의 권리는 1951년에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협약에서 UN의 난민고등판무관위원회(UNHCR)에 의해 특별히 보장되었다. 난민 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약을 광역적 체제로 가진 유일한 지역은 아프리카로 1969년에 ‘아프리카통일기구난민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유럽에서는 유럽인권협약(ECHR)이 난민들에게 몇 가지 추가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

성별 간 세계적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권리는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REDAW, 1979)에 의해 특별히 보호받는다.

유럽평의회에 있어서 2009년에 성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언문의 채택이 실현되었다. 이 선언문의 채택은 또 다른 남녀평등에 관한 선언문 이후 20년을 나타낸다. 2009년의 선언문의 목적은 법률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남녀 간의 평등의 간극에 다리를 놓기 위함이다. 그것은 회원국들에게 남녀 간의 권한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시키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권한 부여를 보장하며 확고하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배제시키고 성별에 기반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를 통해서 여성의 존엄성과 인권의 침해를 근절시키고 통치에 있어서 성적평등 관점의 통합을 촉구했다.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그룹 또한 더욱 학대받기 쉬운 취약한 위치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제공된다. 이것은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 확립되었으며 제5항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한다.

다른 그룹들 또한, 예를 들면 원주민은, 비록 아직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2007년의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UN선언문을 통해서 국제적 차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당신이 속한 사회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다른 그룹이 있는가?

지역 인권 문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적 · 광역적 문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지하지만 그것들은 그 초점이나 광역적으로 집중적인 관심사 야기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난민문제는 실제로 UN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이전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내부적 관심사로 시작되었다. 유사하게 고문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서 구금 장소를 방문하는 매커니즘은 UN위 고문방지 협약 하에 선택의정서가 동일한 매커니즘을 허용하기 전에 유럽 차원에서 처음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광역적 · 국제적 기준과 매커니즘이 어떻게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적 인권기준과 시스템을 갖는 실질적 장점은 그것들이 더욱 밀접한 지질학적,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및 사회적 친연성의 근간에서 더욱더 공들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고향에 더욱 밀접하고 더욱더 많은 지원을 향유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정책입안자, 정치인 및 희생자에게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인권을 지지하는 제2전선으로 간주한다. 첫 번째 전선은 국내적, 두 번째는 광역적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적이다.

다섯 개의 세계 영역 중 네 개 영역이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 시스템을 확립시켰다. 지역적 문서의 목적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시킴 없이 그 광역차원에서 인권기준과 매커니즘을 분명하게 표현할 것이다. 경제적인 자극에 기인하였든 더 많은 역사적 또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든 상관없이 광역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은 광역적 인권 약속을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며 종종 UN시스템의 매커니즘과 보장을 강화시킨다. 한 예로서 국제난민뿐만 아니라 국내의 난민도 보호할 필요성을 최초로 인식한 아프리카의 시스템이 있다.

지역인권표준안들은 종종 UN 표준을 넘어서서 UN표준을 강화시키곤 한다.

미주에는 미주기구가 있고 1969년의 미주인권협약이 주요한 구속력 있는 문서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1986년에 아프리카연합(전에는 아프리카 통일기구로 알려졌던)에 의해 채택된 인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이 있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유일한 지역인권문서(선언문)로 1998년에 시민사회에 의해 시작된 구속력 없는 인권아시아선언이 있다.

유럽 기구

유럽은 유럽평의회 내에 인권보호를 위한 확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주춧돌은 스트라스부르에 본사를 둔 유럽인권재판소를 가진 유럽인권협약이다.

? 상이한 지역들이 그들 자신만의 인권시스템을 확립할 필요성을 알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46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럽평의회는 유럽에서 인권증진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의 주된 인권문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이다. 이는 또한 인권유럽협약 ECHR 으로서 알려져 있다. 이것은, 회원자격에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유럽평의회의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승인되었다. 1950년에 채택되었으며 3년 후에 발효되었다. 시민권과 정치권을 제시했으며 주된 강점은 그 실행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이다. 이 재판소와 법학은 세계적으로 존중되며 종종 UN과 수많은 국가의 헌법재판소 및 다른 지역시스템에서 언급되곤 한다.

유엔 차원에서와 똑같이 유럽의 사회적 · 경제적 권리는 별도의 문서로서 규정된다. 유럽사회헌장(개정판)은 구속력 있는 문서로서 유럽에서 국민생활수준을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헌장은 45개의 회원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2010년까지 그들 중 30개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이러한 두 개의 주요문서에 더해서 인권분야에 있어서 유럽평의회의 조치는 특별한 상황 또는 취약한 그룹을 지향함으로써 ECHR의 보장과 규정을 실행하는 다른 특별한 문서와 협정을 포함한다. 협정 감시시스템은 유럽 인종차별위원회와 유럽인권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서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인권을 위한 유럽평의회의 과업은 사회적, 과학적 및 기술적 발전과 그들이 인권에 제시할 가능한 새로운 도전을 고려할 수 있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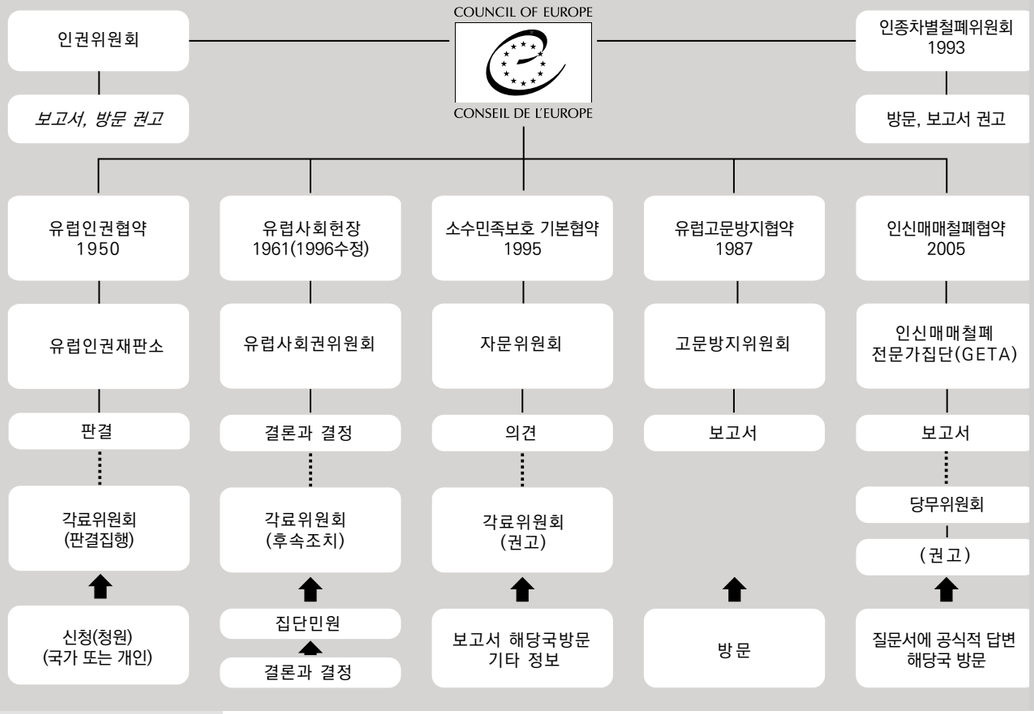
인권의 발전

인권관련 문서는 인간 존엄성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최근의 이해의 기록이다. 그러한 문서는 항상 한 걸음 늦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침투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직 권리로서 그리고 권리침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이미 인식된 도전을 지향한다.

유럽평의회에 있어서 조직의 기준설정과업은 회원국들의 각료위원회에 대한 권한 범위 내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다루는 사회대책에 대응하는 법적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책은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기준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제소절차가 진화해서 효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사형폐지규정이 채택된 방식이고 2005년에 채택된 인신매매금지협약과 같은 새로운 협약에 기반을 둔 문서가 알려지게 된 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관련 문서는 태고적부터 계속 수정되고 진보할 것이다. 우리의 이해, 판례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지는 계속해서 인권을 밀고 당기고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인권협약과 규약의 규정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어떤 인권이 인류를 위한 희망으로서 대변하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법은 종종 인권옹호자의 기대에 뒤처지지만 그것이 또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이 된다.

유럽평의회 주요 인권문서 및 집행 매커니즘



인종차별주의 및 불관용성과 싸우기

모든 인권관련 문서는, UN, 유럽평의회, EU, 또는 OSCE 기준에 상관없이 비차별과 평등보장을 포함한다. UN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1969년에 발효되었으며 전문가 단체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의해 감시된다. 위원회는 협약의 준수에 관한 국가의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고 갈등과 협약의 심각한 침해로 확대될 수도 있는 불관용성에 의해 야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국가가 허용하는 곳에서는 개인의 불만을 수용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EU의 인종지침은 결과적으로 국가와 민간주체에 의한 고용과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에도 적용된다.

유럽인종차별위원회(ECRI)는 유럽 평의회의 매커니즘이다. 1993년에 설립된 ECRI의 과업은 유럽 전체적 차원에서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및 불관용성을 방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ECRI의 구성원들은 불관용성을 대처하는 분야에서의 깊은 지식을 가진 이들을 해당 정부들이 지명한다. 그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명되며 독립적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

- 국가별 접근 방식 – 후속조치에 필적하는 특별하고 확고한 제안을 개발하기 위한 각 회원국의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 일반 주제 관련 활동 – ECRI의 권고 이행을 확실히 보여주는 특정 주제의 좋은 실행과 일반적 정책 권고의 수용 사례들을 수집하고 유포한다.
- 공동체와의 제휴 활동 – 회원국에 있어서의 인식증진과 설명회, 국가적, 지역적 NGO와 협동, 반인종차별 메시지의 유통 및 교육자료 창출 등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는 활동.

유럽인권협약 제12 선택의정서

2000년에 채택되었고 2005년에 발효된 ECHR의 추가 선택의정서는 바로 선택의정서12이다. 2011년 초 현재 19개의 국가가 서명했으며 18개국이 비준했다. 그의 주요 초점은 차별금지이다. ECHR은 이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했지만 (제14조) UDHR과 ICCPR과 같은 다른 문서의 규정에 비교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그 제14조가 다른 국제 문서와 달리 차별의 독립적 금지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그 협약에 제시된 '관리와 자유의 향유'에 한정된 차별을 금지했다.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을 때에야 그 차별금지가 ECHR의 다른 규정들로부터 독립된 생명을 획득했다. 인권재판소는 2009년에 처음으로 이 규정의 침해를 밝혔는데 이는 세이디크와 핀치 대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 간의 재판이다.(GC, 번호. 27996/06 과 34836/06, 2009년 12월22일)

인권의 집행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인권보호 매커니즘이 잘 작동하도록 보장할 수 있겠는가? 누가 또는 무엇이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 과업이 재판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 인권문서가 해당국에 의해 비준되었거나 국내법에 포함되었을 때 – 국가에 따라 인권보호관 사무소,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의회 위원회 등에서 수행된다.

주요 국제 감독 기구는 각종 위원회와 재판소이며, 그들 모두는 전문가나 판사들로 독립된 맴버로 구성되며, 그들 모두는 특정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구에 사용되는 매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 청원(개인, 집단, 국가들이 제기)
- 판례
- 보고 절차

모든 인권문서 또는 지역적 시스템이 인권 시행에 있어서 똑같은 절차를 사용하지 않기에, 몇 개의 사례가 명확한 설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청원

국가에 대한 청원은 보통 준사법적 절차로 언급되는 관계 위원회에 제기된다. 그리고 감독기구가 결정을 내리며 국가는 비록 법적인 강제절차는 없지만 그 결정에 따르리라 기대된다. 종종 해당국은 청원시스템의 수용을 의미하는 추가적 선언문을 제시하거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필요하다. 인권위원회(또는 ICCPR 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시스템 내에 있는) 및 미주 인권위원회(미주기구 내의)가 그러한 청원을 처리하는 기구의 예이다.

? 국제인권재판소를 설립하려면 어떤 승인이 있을 수 있는가?

법정 소송

유럽 인권재판소
미주 인권재판소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지금까지 특별히 인권의 실행을 위한 감독기구로서 존재하는 세 개의 영속적인 광역 재판소가 있다: 유럽 인권재판소, 미주간 인권재판소 및 인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재판소(ACJFR). 미주 인권재판소는 1979년에 미주기구에 의해서 미주인권협약을 해석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아프리카 재판소는 2004년 1월에 설립된 가장 최근의 광역재판소이다. 그것은 아프리카 연합의 회원국에 관련해서 인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헌장에 따라 사례를 결정한다. 탄자니아의 아루샤에 본사를 둔 재판소의 판사는 2006년에 선출되었으며 2009년 12월에 요고곰바예와 세네갈 간의 사례에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판결을 내렸다.

국제형사재판소

60개국에 의한 로마 규정의 비준 후에 전쟁 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및 집단학살에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영속적인 국제형사재판소가 2002년에 발효되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집단학살 및 전쟁범죄로 기소된 개인을 심리하지만 그것은 단지 해당국의 법원이 재판의지가 없거나 수사할 능력이 없거나 이러한 범죄가 기소된 경우에 한한다. 지금까지 ICC는 다섯 개의 상황을 조사했다. 북부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다르푸르)및 케냐. 그 획기적인 판례법은 인권에 대한 이해의 진보를 도왔다. 예를 들어 집단학살의 조장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에 관련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ICJ)는 UN의 주요한 재판기관이다. 그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국가에 의해 제소된 법률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조정하고, 법률적 질문에 조언적 견해를 제공한다. 오직 국가만이 다른 국가에 반하는 사건을 가져오며 대개의 사건들은 국가 간의 조약에 관련된 것이다. 이 조약은 국가 간의 기본적 관계에 관련한 것이거나 (예를 들면 상업적 또는 영토적) 인권 이슈와 관련된 것이다. ICJ는 개인이 인권 또는 다른 청구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자신에게 가져온 사례에서 인권규정과 원칙을 해석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인권증진에 기여해왔다. 그것은 민족자결권, 비차별, 이동의 자유, 고문금지 등등의 권리를 지향한다.

유럽인권재판소(ECHR), 유럽사법재판소(ECJ)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역할을 둘러싼 혼동이 종종 발생한다. 사실상 이 세 기구는 지질학적 관할권이나 그들이 검토하는 사례의 유형에서 매우 다르다.

ECJ는 EU의 가구이다. 이 재판소의 주된 의무는 유럽연합의 법이 각 회원국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권법이 아닌 유럽연합법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때로는 유럽연합법이 인권관련 이슈를 포함할 수도 있다.

ICJ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주요한 사법기구로 그의 역할은 위에서 언급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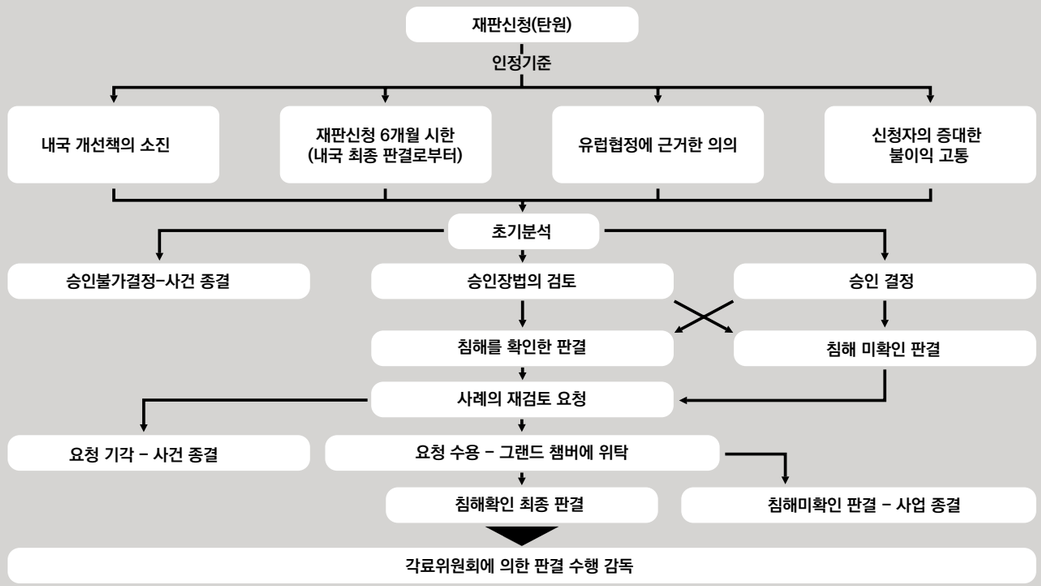
2009년 법원이 내린 판결은 1,625건으로 하루 4건 이상 (주말과 공휴일 포함!)이었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수많은 이유로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이 ECHR의 본문에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 주된 장점 중에 하나는 강제적인 관할권 시스템으로 어떤 국가가 ECHR을 비준하거나 가입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자신을 유럽재판소의 사법관할권에 놓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준하는 순간부터 해당국가에 대한 인권사례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의 성공의 또 다른 이유는 그 재판소 판결의 위력에 있다. 국가는 그 최종판결에 따라야만 한다. 그들의 판결준수를 유럽평의회의 각료위원회가 감독한다.

유럽재판소에 제기된 모든 사례에 있어서 그 절차 또한 당사국간의 조정에 기초한 친화적 합의를 성취할 가능성도 포함한다. 재판소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할 수 있었다. 1959년에 처음 설립되었을 때 재판소는 단지 유럽인권위원회와 함께 일하는 비상근 법원이었다. 제소사례의 증가에 따라 상근 법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1998년 11월에 하나의 상근 법정이 설치되었다. 제소사례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해당 재판소 성공의 확실한 증거이지만 이러한 업무량은 또한 시스템의 질과 효율성을 위태롭게 한다. 사람들은 재판소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으며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때 그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ECHR의 권위와 효율성은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적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를 바로잡을 주된 의무가 있음을 예견했다.

유럽 인권재판소 심리 절차



출처 :
www.echr.coe.int

유럽인권재판소의 상징적인 사례들

- **소어링(Soering) 대 영국정부**(1989.6): 이 사건은 한 남성을 미국으로 인도되게 하면 살인혐의로 기소되게 되며 그곳에서는 해당 범죄가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그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제3항, ECHR) 규정에 반한다는 관점에서 보았다. 이러한 결정의 결과는 유럽평의회의 회원국 내에 있는 개인의 보호가 유럽의 경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자바리 대 튀르키예(2000년 7월) 사건과 같은 다른 사례들이 뒤따랐다. 이 원칙은 망명신청자들을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나라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타이러(Tyrer) 대 영국정부**(1978.3):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서 체벌은 제3항에 보장되었듯이 고문 및 굴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ECHR에 반한다고 보았다. 판결문에서: "그의 처벌은 – 그에 따라 그는 권력에 의해 대상물로 취급되었다" – 제3조의 목적들 중 하나인 개인의 존엄성과 육체적 성실성을 정확하게 침해했다. 이 사례는 ECHR의 살아있는 본질의 좋은 예이며 인권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가치관에 보조를 맞출 것이다.

- **코키나키스(Kokkinakis) 대 그리스정부** (1993.4): 이것은 흥미로운 사건으로 서로 다른 사람의 권리 간의 충돌을 다뤘다. 개종시키려는 시도와 종교의 가르침 (ECHR 제9항에서 보장된) 이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가 하는 이슈에 근거한다. 법원은 가르침, 설교와 타인의 종교를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비도덕적이고 기만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무질적 또는 사회적 이익 제공, 폭력 사용, 세뇌 등) 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DH 대 체코 공화국** (2007년 11월): 이 사건은 롬인 학생들이 그들의 능력에 상관없이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에 차별 배정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18명의 롬인 아동에 의한 제소 건이다. 이것은 그들이 또한 나중에 고등교육과 취업기회에 있어서 확률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공적생활의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종족차별, 이 경우에는 공립학교에 있어서의 차별과 관련되어 제14조(차별금지) 침해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법원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종족적 분리의 체계적 유형은 ECHR(제14조)의 비차별 보호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것은 또한 중립적인 말로 표현된 일반적 정책 또는 조치가 아직도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그들에 대한 간접적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주목했다. 그 사례는 교육에 있어서 체계적 인종차별적 분리에 대한 최초의 도전이었다.

?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당신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중요한 재판사례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보고서와 평가

대부분의 인권문서들은 회원국들에게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보고서는 감독기구의 지침에 따라 국가가 작성한다. 그러한 보고서와 해당 감독기구의 후속 평가의 목적은 관련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서 직면하는 도전에 관한 솔직한 정보교환이다. 보고서는 '국가의 대화'라고 일컬어지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검증된다. 국가의 보고서는 국가의 기록에 대한 자신의 자료와 분석에 의거한 NGO의 "미행보고서"가 있다면 이와 함께 검증된다. 국가를 대리하는 대표와 감시기구의 독립된 전문가 간의 대화 후에 그 감시기구는 검토 중인 구속력 있는 문서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해당 국가가 준수했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견은 그 국가의 보고서에 관하여 긍정적인 면과 비판적인 면을 모두 공식적으로 언급한다. ICCPR, ICESCR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EDAW)이 그러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문서의 예이다.

감시기구는 국가와의 대화절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감시하거나 직접 인권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할 권한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그러한 방문은 사례별로 해당 국가의 명확한 허용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항시적인 공개초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UN의 모든 특별위임권한자의 방문에 대하여 국가들이 항시적 초대를 공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권의 침해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임의적이고 지속적인 방문을 허용하도록 수많은 문서에서 더욱 강력한 절차가 개발되어 오고 있다.

고문과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협약(1987)은 하나의 그러한 예를 제공한다. 그것은 고문방지위원회(CPT)의 구성원이 유치장소, 예를 들면 형무소와 소년원 유치장, 경찰서, 군대 막사 및 정신병원을 방문하는 시스템에 근거한다. CPT의 구성원은 억류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찰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준수하기 위한 개선을 권고한다. 이러한 매커니즘은 그 이후로 유사한 UN 매커니즘의 개발을 고취시켰다. CPT의 위임단은 협약 당사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만 필요하면 추가적인 특별 방문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 2012년 8월9일 현재 CPT는 323회의 방문을 수행했으며 272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고문방지위원회(CPT)는 유럽에서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학대를 방지한다.

CPT 과업의 중요한 한 기능이 2000-2001년의 튀르키예 형무소의 단식투쟁 사례에서 보여준다. 튀르키예 정부가 형무소 시스템의 변화를 시행했을 때 많은 죄수가 그 수정의 몇 가지에 반대하기 위해서 단식투쟁을 사용했다. 그들의 시위는 격렬해졌다. CPT는 단식투쟁을 둘러싼 사건들을 조사하고 그 입안 법률이 터키 형무소 시스템을 개혁시키는지 살펴보며 정부와 단식투쟁자 간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CPT는 1999년부터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튀르키예를 방문해왔다. 최근의 CPT 방문은 세르비아, 알바니아 및 그리스에도 실행되고 있다.

CPT 보고서는 항상 공식적이다:
http://www.cpt.coe.int

유럽 인권위원회

유럽인권위원회 사무소는 1999년에 설립되었다. 이 독립기구의 목적은 인권개념의 증진과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존중받고 온전하게 누리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위원은 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인권위원회는 비사법적 기구로 인권증진에 적극적인 유럽평의회의 다른 기구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독립적이고 공평무사하게 수행해야하는 반면에 유럽 인권협약 또는 유럽평의회 인권문서에 의해 설립된 다양한 감독기구들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www.coe.int/commissioner

인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인권의 효율적 준수를 조성하고 회원국이 유럽평의회 인권기준을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 유럽평의회 회원국에게 인권의 인식과 교육을 촉진시킨다.
- 인권에 관련된 법과 관행에 있어서의 가능한 단점을 확인한다.
- 국가의 행정감찰기구와 다른 인권기구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 지역 전역에 인권보호에 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위원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어떠한 이슈도 다룰 수 있다. 비록 개인적인 불만은 다루지 않지만 위원은 유럽평의회 문서에 명시된 인권보호의 일반적 측면에 관련해 상응하는 정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와 조치의 요청은 개인과 조직뿐만 아니라 정부, 국가의회, 국가 행정 감찰관 또는 유사한 기관에 의해서도 인권위원에게 제기될 수 있다. 위원의 주된 과업은 망명신청자, 이주자 및 롬인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 공표, 권고, 의견 및 견해를 포함한다.

유럽평의회 인권위원회는 UN 인권위원회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UN 인권고등판무관

많은 NGO들은 UN 인권고등판무관 자리의 신설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의 신설 결정은 1993년 비엔나에서의 국제연합 세계 인권컨퍼런스에서 합의되었다. 그 합의는 UN 총회가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고등판무관의 설립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이것은 같은 해에 이루어졌다.

UN의 인권활동에 주된 책임이 있는 UN사무관으로서 인권에 전문지식을 가진 “높은 도덕적 평판의 사람”을 UN사무총장이 지명하고 UN 총회에서 승인한다: 그의 역할은 모든 권리의 증진, 보호 및 효율적 향유, 인권보장에 관한 정부와의 약속 및 대화,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UN초정을 촉구하는 것을 아우른다. UN의 중요한 인권사무관으로서 고등판무관의 활동은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와 그 광역사무소, 국가사무소의 감독을 포함한다. OHCHR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 그리고 인권교육에 관한 세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세계 인권기준의 실행을 위한 광범위한 UN의 인권활동과 과업을 지원한다.

이로서 충분한가?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의 빈약한 인권실적은 적절한 집행 매커니즘의 결여의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 종종 권고를 실행할 것인지의 결정은 각 국가에 맡겨진다. 많은 경우에 개인이든 그룹이든 상관없이 권리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대부분 NGO의 노력에 의존해서 보장된다. 인권침해가 실제로 UN이나 유럽평의회에 의해 바로잡도록 지적되기 까지는 오래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첫째로 국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침해의 구제를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하도록 하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집행절차가 있는 그러한 매커니즘에 헌신하도록 국가에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

4.4 인권 행동주의와 NGO의 역할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결사하여, 국내와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촉진하고 노력할 권리를 가진다."

유엔 인권옹호자선언 제1조

NGO란 무엇인가?

일어나요, 일어서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해요.

밥 말리

비정부적, 또는 비영리적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반을 아우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런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이익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그들의 존재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 설명은 수많은 존재 이유들과 다양한 대규모사업 및 활동들을 빠뜨린다. 비정부 기구(NGO)들은 가령 특정한 환경 문제나 특정한 인권 침해에 대한 소규모 압력 단체들부터, 교육 자선단체, 여성들의 쉼터, 문화단체, 종교기관, 법률재단,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들까지(그 목록은 계속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 여러 곳에 수백, 심지어 수천 개의 지부나 회원을 두고 있는 거대한 국제기구들에까지 이른다.

이 섹션에서는 그러한 조직들이 세계 전역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지금까지 담당해왔고, 지금도 계속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간략히 살펴본다. 개별 시민의 존엄성이 국가권력에 의해 위협당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의 모든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서 NGO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인권의 개인적 침해에 직접적으로 투쟁하거나 관련 재판소를 통해 특별한 "시험 사례"로 지원
-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제공
- 국법, 광역법 또는 국제법 개정을 위한 로비
- 그러한 법률들의 내용 개발 지원
- 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인권 존중 증진

NGO들의 기여는 성취한 결과 측면에서,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세계 인권보호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낙관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NGO는 아주 직접적인 의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그룹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조직들이 그러하듯 NGO들은 개인들에 의해 관리되고 조정되지만, NGO들의 대의에 자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NGO들은 세계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들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인권 NGO의 유형

1993년 유엔세계인권 컨퍼런스(일명 '비엔나 컨퍼런스')에는 세계 각지로부터 841개의 NGO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인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자칭했다. 이 자체도 인상적인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 숫자는 사실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NGO들의 총수의 단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NGO가 고백했듯이 "인권 기구들"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와 관련된 경향이 있다. 그런 기구들 가운데 적어도 국제무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은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인권감시기구, 국제인권연맹, 인권 제일주의와 상호권리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제 공동체에 의해 인정된 다양한 인권 가운데 한 범주일 뿐이며, 새로운 권리들이 지금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고, 빈곤, 폭력, 인종주의, 건강문제, 노숙, 환경문제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까지 고려할 때, 이런 저런 형태로 인권 보호와 관련된 NGO들의 실제 숫자는 세계적으로 수십만에 이른다.

? 여러분의 나라에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NGO를 알고 있는가?

NGO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NGO들은 다양한 단계나 수준에서 인권 보호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이 용하는 전략은 목표의 성격에 따라, 즉 목표의 특수성이나 일반성, 장기 또는 단기적 성격, 지방, 국가, 지역 또는 국제적 범위 기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신은 우리에게 손을 주셨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아랍 속담

a. 직접적 지원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NGO들에게는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보편적이다. 그러한 서비스에는 여러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보호,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이 포함될 수 있다. 아니면, 그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을 경우에는 법률상의 보호 또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권침해의 피해자나 인권옹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NGO 자원의 최선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그리고 아마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NGO들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권 침해를 근절하거나 유사한 일이 앞으로 또 발생하는 것을 막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야 한다.

b. 정확한 정보 수집하기

다양한 형태의 NGO 행동주의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부당함의 가해자들을 '폭로' 하기 위해 시도하는 전략일 것이다. 각국 정부는 그들이 서명한 국제조약이나 다른 권리 기준의 의무를 빈번하게 회피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영향이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의 인권관련 기록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NGO들에 의해 자주 이용되고 있다. NGO들은 사람들의 불평등 의식에 호소할 이슈를 찾아내 공개함으로써 사람들 또는 정부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확한 감시와 보고로 정평이 나있는 NGO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곳은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ICRC)이다. 두 기구 모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도 권위를 가지고 있다. 유엔에서 두 기구의 보고서는 국제 조약의 조항들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정부들을 감시하는 공식 과정의일부분으로 참조되고 있다.

c. 캠페인 및 로비 활동

권위적이거나 억압적인 정권 지도자에게 글을 쓰고, 독재자를 펜팔 친구로 두고, 이러한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서 완벽한 골칫거리가 되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스팅(*Sting*)

국제적 활동가들은 정책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종종 캠페인 행사나 지지행위에 관여한다. 로비 활동에도 역시 수많은 종류가 있으며, NGO는 그들이 염두에 둔 "표적"의 특징, 그리고 물론 그들의 가용 자원을 감안하여 가장 적절한 종류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몇 가지 일반적인 로비 활동이 아래에 간단히 나와 있다.

- 편지쓰기 캠페인은 국제사면위원회와 그 밖의 NGO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해온 방법이다. 일반인들과 단체들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회원 수천 명이 편지를 보내 정부 관리들을 '폭격'하는 것이다.
- 길거리 활동이나 시위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은 보통 언론의 관심을 끌어 언론에 보도된다. NGO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자 할 때, 또는 정부에 '창피를 주기' 위해 무언가를 백일하에 드러내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다.
- 미디어는 로비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주 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은 이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NGO는 미행보고서를 제출하여 특정 국가의 인권의 실제 상황에 대한 NGO의 관점을 유엔 인권감시기구에 제공한다.

대중들의 분노 또는 지지 시위 외에도, NGO들은 공직자들과의 비공개회의나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다. 아래의 일화에서처럼 때로는 무엇인가를 대중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단순한 위협만으로도 정책이나 관행을 바꾸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 한 때는 음성 테이프나 포스터, 팩스를 통해, 지금은 이메일 캠페인과 청원,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와 SNS 등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대중들 또는 다른 영향력 있는 활동가들, 예를 들면 다른 정부의 지지가 더 클수록 캠페인의 본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더 높다. NGO들이 항상 이러 한 지지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대중운동이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NGO들의 메시지가 관철되게 할 수 있다.

? 여러분의 나라에서 세간의 이목을 끈 캠페인이 있었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d. 인권교육과 인식

인권교육의 과제는 참여, 접근성 그리고 포용성이라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인권을 위한 생활, 학습 및 행동 포럼(*Forum Learning, Living Acting for Human Rights) 2009*

다수의 인권 NGO들은 또 적어도 그들 활동의 일부분으로 일종의 대중 인식 제고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핵심임을 깨달은 NGO 들은 인권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대중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권 문제들 및 인권을 옹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인권을 더 존중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다시 인권 침해의 특정 사례에 대한 지원을 결집할 수 있는 기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인권 환경을 개선함에 있어서 NGO 공동체의 성공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지지, 또는 잠재적 지지이다.

성공적인 행동주의 사례

주거권리 및 퇴거 센터(COHRE)

이 인권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주거권과 강제퇴거 방지를 위해 1994년에 설립되었다. COHRE는 "주거"에 대해 머리 위 지붕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제인권법의 이해를 활용하고 있다. COHRE는 지금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이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장된 적절한 주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COHRE와 전세계 파트너들은 아래와 관련된 분석, 옹호, 대중 교육, 훈련, 법률 소송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강제 퇴거
- 거주권 보장
- 토지 접근권
- 식수와 위생
- 여성과 주거권
- 소송과 법률 변호
- 배상과 반환
- 대형 사건이 주거권에 미치는 영향

2010년 11월 COHRE 대 이탈리아 정부 재판에 대한 역사적 판결에서, 유럽사회권위원회(개정된 유럽사회헌장 감독기구)는 이탈리아가 롬인(집시) 수용소 폐쇄와 추방은 롬인(집시)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른 EU 회원국 시민이면서 이탈리아인이 아닌 롬인(집시)에 대한 이러한 대량 축출은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다음과 같은 침해들이 있었는데: 롬인(집시)의 적절한 주거권에 대한 차별과 침해; 사회적, 법적, 경제적 보호;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부터의 보호;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이주 롬인(집시)의 권리 등이다. 롬인(집시) 주거민들이 살기에 극도로 부적절한 분리된 주거 환경에서 살게 하는 이탈리아의 정책과 관행도 비판받았다.

COHRE 웹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www.cohre.org

제31조 – 주거권

주거권에 대해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적절한 수준의 주거에 대한 접근을 촉진한다.
2. 점진적 해소를 목표로 무주택상태를 방지하고 줄이도록 한다.
3. 주거비용이 적절한 재원이 부족한 이들에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 유럽사회헌장 (개정판) 1996

스위스의 환경 문제

화학산업의 독성 물질 유산이 후손들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테판 웨버, 그린피스 활동가

1961년부터 1976년 사이에 몇몇 거대 화학업체들이 11만4천 톤 이상의 유독성 산업 화학 폐기물을 스위스 본폴의 옛 점토 채굴장에 쏟아버렸다. 현재라면 그런 폐기물 투기가 불법이겠지만, 1961년 그 매립지가 생겼을 때만 해도 그러한 매립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 그때 버려진 유독성 폐기물은 계속 그곳에 잔존하여, 유기 및 무기 오염물질이 뒤섞인 상태로 주변 공동체들과 환경을 계속 오염시켰다.

2000년 5월 14일, 약 100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스위스 바젤 인근의 본폴 화학 물질 매립지를 점거하고, 유독성 폐기물을 그곳에 투기한 화학업체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매립지를 청소할 것을 요구했다. 활동가들은 그 화학업체들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더 이상 아무런 위험도 가하지 않도록 그 매립지를 청소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점거를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린피스 웹사이트 참고하라: www.greenpeace.org

매립지를 점거 당하자 화학업계는 공동체 대표들 및 그린피스와 만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화학업계는 마침내 청소 관련 연구를 2001년 2월까지 완료하고, 청소를 2001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화학업계는 또 청소 과정에 지역 공동체들과 환경단체들을 충분히 참여시기는 한편, 유독성 폐기물 투기로 인한 지하수 및 식수 오염에 대해서도 지역 공동체들에게 알리기로 합의했다. 2001년 7월 7일, 그린피스는 그 화학물질 매립지에 대한 점거를 풀었다.

차별 대처-유럽 로마 권리센터(ERRC)

ERRC 웹사이트 참고하라: www.errc.org

ERRC는 롬인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 이슈들이 유럽 및 그 외 지역에서의 정치적 의제로 제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ERRC의 세밀한 연구는 롬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그들이 직면하는 폭력, 그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 롬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제한 등이다. ERRC는 인식 개선, 정책 개발, 전략적 법률 행위를 통해 롬인 공동체의 인권상황에 기여하고자 한다. 캠페인을 통해 롬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 발언, 학교교육에서의 분리, 강제 퇴거, 강제 불임 등을 알리고 있다.

인권교육 활동을 통해, ERRC는 기본적으로 롬인 활동가들이 자신의 평등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인턴십, 연구회, 워크숍,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위해 싸우기: 롬인 활동가를 위한 지침(Knowing Your Rights and Fighting for Them: A guide for Romani activist)과 같은 매뉴얼 출판 등으로 나타난다.

"2010년 초 경찰, NGO, 반인신매매 전문가들과 함께 ERRC가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의 50-80%가 롬인(집시)이었으며, 헝가리에서는 40-80%, 슬로바키아에서는 70%, 체코에서는 70%에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롬인 권리 실태조사(Roma Rights Factsheet), EHRR

다이아몬드 전쟁

글로벌위트니스 웹사이트 참고하라: www.globlawitness.org

'영국에 위치한 글로벌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천연자원에 관련된 갈등과 오염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환경 훼손와 인권 유린 간의 연관성을 폭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NGO이다. 이것이 초래하는 잔혹함을 폭로하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의 캠페인 중 하나는 피의 다이아몬드 또는 분쟁의 다이아몬드에 대한 것이다. 즉, 합법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파벌들의 지배 지역에서 나오는 보석은 반군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반하는 자금으로 사용된다. 글로벌위트니스가 폭로한 증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난민을 초래한 아프리카 분쟁의 자금으로 그러한 자원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이아몬드는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의 활동자금이나 돈세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글로벌위트니스는 다른 NGO 단체와 협력해서, 세계적 산업이 산업체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로비를 해왔다.

2000년 5월 주요 다이아몬드 무역 및 생산국, 다이아몬드 산업 대표자, 글로벌위트니스를 포함한 NGO 등이 남아프리카 킴벌리에서 만났으며, 2003년에 킴벌리 프로세스로 알려진 국제 다이아몬드 인증제도를 만들었다. 이 계획 하에서 회원국들이 취급하는 모든 다이아몬드는 인증을 받으며, 이는 분쟁이 없는 지역 생산물이라는 것을 구매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위트니스는 이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감시자이며, 이 규칙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다이아몬드가 결코 분쟁의 연료가 되지 않고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힘이 되도록 한다.

글로벌위트니스는 분쟁의 다이아몬드를 퇴치한 공로로 2003년 노벨평화상에 후보에 공동 지명되었다.

투즐라의 휠체어 진입로

나는 투즐라가 보즈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가장 접성이 뛰어난 마을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투즐라 활동가

1996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도시 투즐라의 장애 관련 NGO인 로토스(Lotos)는 교통의식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로토스는 장애인과 교통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주자 공간 마련,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접근하기 쉬운 포장보도와 도로시공 등 몇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 이들은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직전 일주일 동안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대중들의 인식이 향상되었고, 투즐라의 모든 포장 보도는 휠체어 진입로를 갖춰 재시공되었다!

4.5 인권에 대한 질의응답 (QnA)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이 세상의 모든 개인이 단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덕적 권리이다. 우리의 인권을 주장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 정부 측에 나의 도덕적인 영역과 나의 개인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즉 어떠한 개인도, 어떠한 정부도 우리의 인권을 빼앗아갈 수 없다.

? 인권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인권은 우리가 육체적 존재일 뿐 아니라 도덕적·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인권은 모든 개인의 인간다움을 보호하고 지키며, 모든 개인이 존엄한 삶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 왜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모두가 인간이고, 따라서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개인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적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자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의한 도덕적 구속력 외에도,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정부들로 하여금 내키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률이 있다.

? 누가 인권을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모든 사람이다. 범죄자, 국가원수, 아동, 남자, 여자, 아프리카인, 아메리카인, 유럽인, 난민, 무국적자, 무직자, 직업이 있는 사람, 은행원, 테러행위 피의자, 자선단체 직원, 교사, 무희, 우주비행사…

? 범죄자와 국가원수도 가지고 있는가?

인권은 절대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있다. 범죄자들과 국가 원수들도 또한 인간이다. 인권의 힘은 모든 이들이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다. 이떤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에, 다른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간 그들의 권리를 제안할 수 있으나, 단지 특정한 한계 내에서만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는 존엄한 삶을 위해 최소한도로 규정한다.

? 왜 어떤 이들은 특정 인권을 요구하는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유럽의 롬인(집시)이나 인도의 세습 계급인 달리트(불가촉천민)계층과 같은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차별받아왔기에 다른 이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편적인 인권 기준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제도화된 차별과 고정 관념, 그리고 노골적인 증오와 장애를 겪어온 그들에게 단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평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 왜 인권을 말하면서 의무는 업급하지 않는가?

일부 사상가와 NGO들은 인간의무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심지어 이를 표명하는 규약이나 선언을 하였는데, 인권관련 공동체는 대체로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 이유는 많은 정부들이 국가나 통치자가 부여하는 특정 "의무"에 기초하여 인권을 "보장"을 하려하기 때문이며,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권리(생득권)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 생각을 무의미하게 만들게 된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개인과 집단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는 인권을 남용하지 않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사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에서는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2.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 누가 인권을 돌보는가?

우리 모두가 돌보아야 한다. 정부가 자국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을 가하는 국가적·국제적 수준의 법률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동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제재도 받지 않고 위반을 계속할 수 있다. 우리 개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타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정부 및 다른 사람들을 주시해야 한다.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모두를 위한 보호시스템도 있다.

? 어떻게 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지적하는 데 힘써라. 즉,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라. 그들에게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라.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협약, 그 밖의 국제 문서들의 관련 조항들을 지적하라. 국내법이 있으면 그것 역시 지적하라.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즉, 언론에 알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가원수에게 편지를 쓰고, 인권 행동주의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비정부기구(NGO)에게라도 알려라. 그들의 조언을 구하라. 기회가 된다면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라. 정부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인식시켜라.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그들이 깨닫게 하라.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최후에 가서는, 그리고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한 경우에는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좋다.

? 유럽인권재판소에 어떻게 호소하는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은 개인 청원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심리적격성 요건이 있어, 이 요건을 우선 통과해야 그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 법원(최고 법원까지!)에 먼저 청원을 제기한 다음에야 유럽인권재판소에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호소해보고 싶고, 또 심리적격성 요건도 충족시킨다는 생각이 들면 공식 신청서를 이용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청이 각하 판정을 받지 않도록 법률 자문이나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NGO들의 조언을 받아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

? 누구를 상대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국제 문서들에 열거된 거의 모든 기본적 인권은 여러분의 정부나 국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주장이다. 인권은 국가로부터 여러분의 이익을 보호해주므로 국가를 상대로 또는 그 대표자들을 상대로 여러분의 인권을 주장해야 한다. 여러분의 권리가 가령 고용주나 이웃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고용주나 이웃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 인권법에 직접 호소할 수 없다.

? 누가 내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가?

그렇다.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나 의무가 다른 사람들 쪽에 없으면 의미가 없다. 모든 개인에게는 여러분의 개인적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지만, 여러분의 정부는 국제 협약에 가입할 때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법적 의무도 함께 갖는다.

? 인권은 비민주적 국가들의 문제일 뿐인가?

인권에 관해 지금까지 아무런 오점도 남기고 있지 않은 국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어떤 나라에서는 인권 침해가 좀 더 빈발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범위가 더 큰 인권 침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건 한 건의 인권 침해 모두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그냥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한 곳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가 세계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은"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을 턱이 없다!

? 인권 침해를 줄이는 데 어떠한 진전이라도 있었는가?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비록 그 진전이 때로는 바다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노예제 폐지, 여성 참정권,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 국제적인 압력의 결과 양심수들의 석방, 남아프리카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정권의 붕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재판된 사건들과 그 결과 바뀌어야 했던 법률들을 생각해보라. 국제 문화의 점진적인 변화로 인해 심지어 가장 독재적인 정권들도 국제무대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제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그 동안 많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었고, 지난 50년 동안 특히 그랬지만, 해야 할 더 많은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4.6 퍼즐처럼 난해한 문제들

?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데 어떻게 인권이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도 여전히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그런 식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 규범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들 국가의 대표자들은 국제법 하에서 유죄이며,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국제 공동체에 의해 제재 형태로, 또는 심지어 군사적 수단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종종 자의적이어서, 규범 위반의 정도보다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출현은 이러한 간극을 어느 정도 채워주게 되었다. 최초의 연속적인 조약에 근거한 국제형사재판소가 로마규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재판소는 국제사회에서 우려되는 가장 심각한 범죄-집단학살, 비인도적 범죄 및 전쟁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한 무처벌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 세계인권선언의 이행을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비록 세계인권선언의 조항들에 따라 정부들을 재판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는 아직 없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엄청난 역사적 중요성을 지녀왔으며, 오늘날에도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제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권리들을 제멋대로 침해할 경우 다른 정부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 일종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과정이 항상 전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출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세계인권선언은 또 지금까지 작성된 다소간의 강제력이 있는 거의 모든 국제 조약들의 밑바탕을 이루었다.

? 우리 정부가 보통 사람들의 권리를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국제 공동체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으면 "인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권은 하나의 출발점이다. 인권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 낫고, 인권은 앞으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접근방식으로 정부에 영향을 끼쳐 정부의 관행 중 일부(전부는 아니더라도)를 바꿔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은 때로 아주 요원한 희망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정부에 의한 인권 침해가 특별히 심각 하거나 특별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라면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는 거듭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여태까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은 점진적일 수 있지만, 개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들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이 적어도 각국 정부의 관심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와 소중한 이점이 되고 있다.

? 타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인가?

만일 그들의 욕구가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 범위에 대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의 행동이 짜증나거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이 반드시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좀 더 아량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

?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대한 폭력 사용을 포함하여 무엇이든 해도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정한 정당방위라면, 여러분이 당하는 위협에 대해 적절한 선에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폭력은 용인될 수 있다. 여러분이 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허용될 수 있다. 고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 다른 사람들은 내 권리를 존중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하는가?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곤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단지 인간이기에 당신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됨으로써 그들이 당신을 존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당신과 당신이 되고자하는 유형 그리고 당신이 살고자 하는 세계의 모습에 달려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싫어하는 바로 그런 태도로 행동한다면 어떤 말을 듣게 될지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같은 방식으로 모두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떤 종류의 세상이 될지 생각해 보라.

? 가장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왜 "인간" 권리의 주체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아마 인권 이론 중에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수적이기도 한 부분일 것이다. 때로 어떤 개인들은 사람다운 구석이라고는 도무지 없어서 맹목적으로 믿어야만 그들을 인간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중요한 사항은 아마 다음과 같은 점들일 것이다:

- 첫째, 일부 사람들의 명백한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은 얼마간의 인간다움을 지니고 있다. 악당들도 그들의 어머니, 자녀, 남편이나 아내 등을 사랑한다. 악당들도 고통, 거절, 절망, 질투를 느낀다. 그들도 감사를 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격려와 사랑, 이해를 받고 싶어 한다. 그들 모두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오로지 인간만이 갖는 감정을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인 것이며 우리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 둘째, 악당들이 타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악당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한 감정은 또한 우리가 존중받을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다.
- 셋째, 비록 어떤 악당이 우연히 "인간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인간적 특징도 갖지 않은 채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아직 한 명도 없었다) 우리들 중 누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슨 기준으로? 혹시 그들이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을 줄 모른다는 것을 근거로? 그러나 그렇게 믿은 우리가 오해한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사항은 일부 사람들이 예단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의 결과가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을 경우, 인류 전체가 직면할 위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진정 그러한 판단이 내려지고, 일부 사람들은 인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비인간이라고 간단히 지정해버리는 세상을 원하는가? 모든 인권이 절대적인 보편성을 갖지 않으면,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세상이다.

참고자료

"Europe, Youth, Human Rights, Report of the Human Rights Week", by Yael Ohana (ed.), European Youth Centre, Budapest, 2000.

Garzón Valdés, E., "Confusiones acerca de la relevancia moral de la diversidad cultural", CLAVES de Razón Práctica, No.74, Madrid, Julio/Agosto, 1997.

Human Rights, a basic handbook for UN staff,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Geneva. 2001 Available at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HRhandbooken.pdf

Levin, L., Human Rights, Questions and Answers, Unesco, Paris, 1996.

Donnelly, Jack,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Freeman, Michael, Human Rights: Key Concepts, Polity Press, London, 2002.

Ishay, Micheline R. ed., The Human Rights Reader, Routledge, London, 1997.

Rishmawi, M., The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and the League of Arab States: An Update, Human Rights Law Review, 10.1, pp. 169–178

Symonides, Janusz ed., Human Rights: New Dimensions and Challenges, Manual on Human Rights, Unesco/ Dartmouth Publishing, Paris, 1998.

Robertson A. and Merrills J, Human rights in the worl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6. Council of Europe website on bioethics: www.legal.coe.int/bioethics

http://www.udhr.org/history/biographies/bioer.htm, for the quotation of Eleanor Roosevelt.

Hanski, R., Suksi, M. (ed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a textbook, Åbo Akademi University Institute for Human Rights, 1999.

Fact Sheet No. 2 (Rev. 1),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ww.unhchr.ch/html/menu6/2/fs2.htm.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ww.unhchr.ch.

Short Guide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ww.echr.coe.int.

The Committee for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ww.cpt.coe.int.

The Council of Europe Website on Gender Equality, www.coe.int/t/dghl/standardsetting/equality/default_en.asp

The European Social Charter, www. coe.int/T/DGHL/Monitoring/SocialCharter.

The Framework Convention on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www. coe.int/t/dghl/monitoring/minorities.

The site of the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www. coe.int/t/dghl/monitoring/ecri.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www.ohchr.org.

The Council of Europe's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ww. coe.int/t/commissioner

Risse T., Ropp S., Sikkink K., The Power of human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Forsythe, D.,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www.speaktruth.org

Hijab, Nadia, Human Rights and Human Development: Learning from Those Who Act, HDRO Background paper, 2000.

[1] Halima Embarek Warzazi : UN 여성과 여자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 관습에 관한 UN특별 보고관

제5장

전세계 인권주제에 대한 배경 정보

제5장 목 차

편집된 제5장 들어가기 435
건강 437
교육 438
노동 439
문화와 스포츠 440
미디어 441
민주주의 442
빈곤 443
세계화 444
시민권과 참여 445
아동 446
이주 447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448
전쟁과 테러 449
젠더 450
종교와 믿음 451
차별과 불관용 452
추모/기억 453
평화와 폭력 454
환경 455

편집된 제5장 들어가기

나침반 2012년판의 제5장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관련된 19개 세계적 인권주제들의 배경 정보에 대해 150여쪽에 걸쳐 다루고 있다. 해당 정보는 각 주제에 대한 전반적 개요를 제공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인권적 맥락에서 활동들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그러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상세하지 않고, 촉진자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데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한 정보가 되도록 의도했다.

이번 판의 나침반 책자판은 2012년판의 제5장을 생략하고 출간되었다. 이는 촉진자들이 배경정보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어서 라기보다 (배경정보는 확실히 가장 목적에 부합하고 매우 중요하다), 배경 정보가 현 시점의 사건들, 정책 변화 및 인권에 대한 생각에 뒤처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들이 전개됨에 따라 인권의 관심사는 시간을 따라 바뀐다. 과거에는 노예제도가 용인되고 사형이 옹호되었지만 현재는 개인의 인권 침해로 간주된다. 현재의 인권 딜레마에는,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권과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특정 문화적 관습 간의 충돌이 있다. 인권의 보편적 문화를 지향함에 따라 우리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

배경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련성 있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접근이 충분히 널리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침반의 일부 사용자들이 놓칠 수 있었다. 이제는 모든 이들이 보다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래서 온라인상(www.coe.int/compass)에 배경 정보를 올리는 것이 논리적 행동이다.

인권 옹호는 모든 이의 책임이며 나침반 사용자들에게 나침반 전체, 특히 제5장이 유용한 도구로 지속될 수 있도록 피드백해주기를 초대하고 참여를 촉구한다. 피드백 서식은 www.coe.int/compass에 있다.

주제와 배경정보

이번 판 나침반은 특별히 청소년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19개 세계적 인권 주제에 관하여 구성되었다. 주제들의 최종 목록은 유럽평의회, 나침반 운영위원회, 이 매뉴얼의 작가들 및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간의 토론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 편집되었다.

나침반은 사전 지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인권 교육 매뉴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해당 주제와 인권에 낯선 이들에게 필요한 배경정보의 작성을 요구된다. 해당 정보는 간단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하지 않고 집중적이며 충분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하며 균형 잡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위해 다양한 글들이 초안으로 작성되어 검토되며 오랜 과정을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한다. 19개 세계적 인권 주제가 각각 소개되고 포함된 제5장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 정의 및 핵심개념
- 인권문제, 문서 및 기구

- 특히 청년/청소년 관련 문제들
- 독자에게 딜레마와 이슈에 관한 반영에 도움을 주는 질문들
- 유럽평의회의 역할과 과업
- 참고자료, 유용한 단체들, 연결자료 및 추가자료

원래의 제5장 전체 내용은 www.coe.int/compass의 한국어판을 참조하라.

다음 내용은 위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요약이다. 이 "맛보기"를 통해 독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전 준비과정으로 www.coe.int/compass를 찾아가도록 북돋우길 바란다. 사용자는 온라인판상의 제5장 내용을 확정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해당 자료는 올린 시점의 이슈를 이해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배경정보의 최신화

우리는 사용자들이 배경정보를 갱신 및 최적화에 도움을 주리라 믿으며 사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환영한다. www.coe.int/compass에 있는 피드백 양식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바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역주) 한국어판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은 위의 피드백 서식을 이용하거나, 평화인권교육센터 이메일 phrcenter@daum.net으로 알려주길 바란다.

건강

건강권은 UDHR(제25조)와 유럽사회헌장을 포함한 수많은 국제적 및 지역적 인권문서에서 인정된다.

건강권은 건강할 권리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인간의 나쁜 건강의 모든 가능한 원인에 때한 보호는 불가능하다.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가능한 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생활조건 뿐만 아니라 유용하고 접근 가능하며 용인되는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가질 권리이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극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며 온라인의 제5장에 그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제5장에는 또한 청소년과 건강 그리고 건강한 생활양식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빈곤, 영양실조, 운동부족 및 중독의 조건에서의 성장은 건강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우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한 청소년은 직업적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하며 나이든 사람들보다 작업에서 다칠 가능성은 50% 더 높다.

온라인판 제5장은 마약, 성 및 생식건강, 정신건강, 빈곤 및 의약 접근성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관련 활동:
가족사
내 삶에서의 폭력
모두를 위한 스포츠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
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생명의 그물망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
우리의 미래
의약품 접근성

관련 활동:
아동의 권리
모두를 위한 교육?
얼마나 필요한가?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내 삶은 쇼가 아니다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
곧 구식이 된다

교육

교육은 사회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축적된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그것 자체가 권리인 동시에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필수적 수단이다.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UN의 새천년 발전 목표 중 2개가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목표2: 2015년까지 모든 곳에서 소년과 소녀 똑같이 모든 아동이 초등교육의 전 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목표3: 교육에 있어서 성차별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전 세계적으로 5,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아동이 아직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6,900만 명의 청소년이 중등교육을 통한 기초 기술 습득이 부족하고, 많은 국가들에 교육에서 성차별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 접근권은 모든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청소년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또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숙지하고 교육제도에 관해 정치적 및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의 제5장의 정보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 교육을 위한 4 A의 개념: 유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용인성(Acceptability) 및 적응성(Adaptability) 그리고 UNESCO의 실행 과제 4축: 함께 사는 법, 아는 법, 하는 법 및 되는 법의 학습 등이 서술되어 있다.

관련 활동:
내 삶은 쇼가 아니다
곧 구식이 된다
모두를 위한 교육
애시크 이야기
차별 임금
일하고 싶다!
두 도시 이야기
노사 협상
일과 육아

노동

노동권은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로서 종종 언급되는 인권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존엄한 삶에 필수적이며 우리의 생계를 제공해주고 개인발전에 기여하며 사회 전반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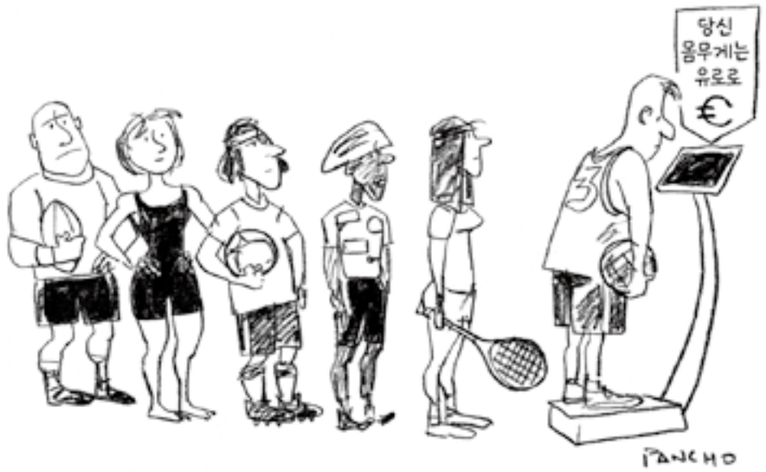
온라인판 제5장에서 노동권은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모든 사람은 조직할 권리와 단체교섭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유리한 근무조건, 직장에서의 안전, 공정한 임금, 평등한 가치와 평등한 기회의 일에 대한 평등한 보수, 적절한 근무시간 및 휴식 시간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합, 국제 노동기구 및 유럽 사회헌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2011년 EU에는 7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니트족(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상태도 아닌 청소년)이 있었다. 직업 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 범죄, 자살 및 마약과 알코올 남용과 같은 사회적 및 건강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청소년에게 직업을 갖는 것은 스스로 독립자활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생 경험의 도구가 된다. 인턴직은 그 간극을 채워주는 길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청소년은 종종 시스템에 의해 착취당했다고 느낀다.

아동노동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이슈다. 2010년 전 세계적으로 2억1,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아동들이 노예제, 강제노동, 성착취, 위험한 불법적 활동 또는 작업을 포함한 아동노동에 관련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법령이 있지만 많은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도 때로는 여분의 용돈을 벌기 위해 그러나 종종 가족의 수입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위해 '토요일에' 또는 '학교 또는 대학 방과 후에' 일해야만 한다.

관련 활동:
1분 토크
마카족 고래잡이
모두의 스포츠
메모리 태그
사다리에서
신자들
인종차별에 맞서기

문화와 스포츠



문화권은 UDHR 제27조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문화적 삶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반면에 스포츠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한 인권 선언이나 규약은 없다. 그러나 스포츠는 모든 문화에 보편적 요소이며 많은 다양한 인권과 관련이 있고 청소년에게 인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스포츠를 세계적 인권 주제로서 나침반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스포츠는 건강권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존엄성과 존중을 훼손하는 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 인터넷 상의 제5장에 묘사된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약물 사용을 증진시키는 성적주의, “프로의 반칙”, 축구에서의 인종 차별 등이 있다.

롤모델인 스포츠 선수에 관한 정보, 장애인 시합, “모든 문화적 관습은 존중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토론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관련 활동:
내 삶은 쇼가 아니다
내일이 오면
모두 동등하고 모두 다르다
인권 수호자들
전면 기사

미디어

미디어, 인쇄물, TV, 라디오, 영화, CD, DVD, 월드와이드웹 및 인터넷은 인식, 참여 및 세계적 인권행동주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현대 정보 고속도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증오, 편견 및 잘못된 정보를 부추길 내재된 위험도 있다.

미디어와 긴밀하게 관련된 인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다.

온라인판 제5장에서 표현의 자유권과 그에 대한 위협, 예를 들면 미디어를 조종하려는 정부 매커니즘, 기자에 대한 폭행, 상업적 압력 및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등에 관해 읽어볼 수 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UDHR의 제10조 2항에 부합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체계를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온라인판 제5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다른 인권들, 예를 들면 사생활권, 가정생활 및 차별금지와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읽어볼 수 있다. 또한 소비주의, 폭력, 가치관, 고정관념 및 매일 단체로 미디어를 몇시간씩 쓸 수 있는 청소년과 특별히 관련된 자부심에 관한 정보도 있다.

관련 활동:
관계 맺기
노사 협상
부정과 왜곡
선거운동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다. 가장 간단히 정의하자면 “대중의 힘”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간의 관련은 깊고 양방향성을 갖는다: 각각은 어떤 점에서는 다른 하나에 의존적이며 다른 하나가 없다면 불완전해진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UDHR 제18조), 표현의 자유(UDHR 제19조),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UDHR 제20조)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쨌든 다른 권리의 침해는 또한 사람들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에 영향을 끼친다. 빈곤, 허약한 건강 상태 또는 주택 부족은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 참여권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다. 인용문: “16살이 결혼하고 취업하기에 충분하고, 성숙했다고 여긴다면 왜 투표할 수 없는가?”

온라인판 제5장에서 모든 이런 관점에 관한 정보,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정보, 현대 세계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다른 유형들과 다양한 문제점을 볼 수 있다.

관련 활동:
당신은 어디에 서있는가?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
안경을 바뀌라
한 걸음 앞으로

빈곤

한 억만장자가 1년에 전체 국가의 연간 생산량만큼 많이 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온라인판 제5장에서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서로 다른 방법들을 읽어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 생활필수품, 예를 들면 안전한 식수, 음식 및 위생시설 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부족이다. 유럽에서 빈곤은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으로 이해된다. 개인이나 가정의 수입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적절하다고 간주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보다 더 나쁠 때 가난하다고 여긴다.

인권은 빈곤을 줄이는 데 특별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건강, 교육, 양호한 근로, 충분한 식량, 충분한 주거, 개인 안보 및 평등한 사법접근성 등의 권리의 침해는 많은 사람들을 빈곤하게 살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빈곤하게 자란 청소년은 허약한 건강상태, 학습 및 행동장애, 조기 임신, 더 낮은 기술 등등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다.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EU 내에는 20%이상의 24살 미만의 청소년이 빈곤하게 살고 있다.

1986년의 UN총회의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은 발전과 빈곤퇴치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가 된다. 2000년 그 첫 번째 목표가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퇴치인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뒤따랐다. 불행하게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관련 활동:
1분 토크
곧 구식이 된다
마카족 고래잡이
모두 동등하고 모두 다르다
부와 권력을 향한 투쟁
생명의 그물망
애시크 이야기
의약품 접근성
전면 기사
조심하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테러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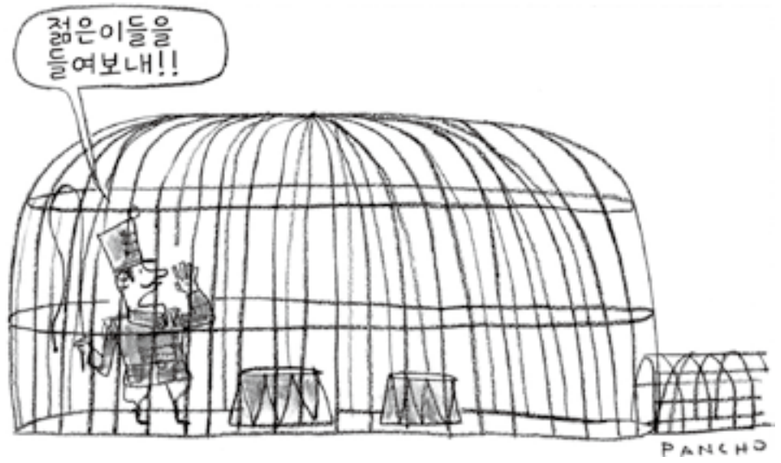
우리 대부분은 세계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지만 그 개념은 복잡하고 다양한 인권과 연결되어 있다.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도함과 부정적인 효과에 세계적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대응하는 인권운동을 허용한다. 온라인의 제5장에는 문화적 및 사회적 영향과 "사람을 생각하는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운동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경제적 영향과 세계의 국제 경제무역기관에 관하여 읽을 수 있다.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응이 인권의 여러 분야의 진전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발전할 권리의 명료화 그리고 UN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 사업을 위한 전략적 정책 구상이 있다.

세계화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정치적 질서의 변동은 성인이 된 청년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세계화는 여행, 일, 학업 및 다양한 생활방식과 문화의 경험에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한다. 유럽평의회는 폭넓고 다양한 청년기구들로부터 청년이 함께 모이도록 하는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련 활동:
1분 토크
마카족 고래잡이
모두의 스포츠
메모리 태그
사다리에서
신자들
인종차별에 맞서기

시민권과 참여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시민권의 전통과 접근방식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국가, 역사, 사회, 문화 및 이념에 따라 시민권 개념이 많은 서로 다른 이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시민권 개념은 가장 보편적으로 개인과 국가 간의 법률적 관계를 반영한다; 바로 국적이다. UDHR의 제15조는 국적권, 자신의 국적을 바꿀 권리 및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다.

문화적·정치적 삶에의 참여권은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된다. 허약한 건강 상태, 낮은 교육 수준, 표현의 자유 제한, 빈곤 등등 모든 것이 자신과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체제에 참여할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 마찬가지로 참여권 없이는 우리는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를 추구할 수 없다.

온라인판 제5장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현실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청소년 그룹이 자신의 시민권을 행사할 가능성, 그리고 "참여"하는 표제하에 공동의사결정의 조작으로부터의 파급영향.

유럽평의회는 매우 강력한 청소년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업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관련 활동:
꽃의 힘
능력을 보라
돌 던지기
모두를 위한 교육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몸으로 표현하기
아동의 권리
애시크 이야기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
우리의 미래

아동

인권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이라 정의한다. 2005년 유니세프(UNICEF)는 전 세계 아동은 22억 명, 유럽에는 약 2억 명이 있다고 추산했다.

아동은 보살핌과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런 이유로 아동 “자신만의”조약을 갖게 되었다. 아동인권협약(CRC)dl 1989년 UN에 의해 채택되었다. 전체 협약에는 4개의 지침이 기저를 이룬다: 비차별, 아동의 최선의 이익, 생명권, 생존•성장 및 아동 견해의 존중

온라인판 제5장은 거리 아동, 밀매, 체벌, 사이버 폭력, 성학대 영상, 성폭력 및 아동을 위한 인권보호관(옴부즈맨)과 같은 이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관련 활동:
들어가도 될까요?
세 가지 물건
손가락들
안경을 바꿔라
애시크 이야기

이주

오늘날의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한다. 어떤 사람은 여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공부할 기회를 찾아서, 다른 사람은 전쟁과 차별을 피해서. 그러나 소위 자발적 이주자와 강제 이주자 간의 차이는 실제는 명확하지 않다. 이주의 유형 또한 불명확하다: 1,20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자신들의 고국 밖에서 살고 있으며 1,200만 명의 외국 태생 사람들이 러시아 연방으로 이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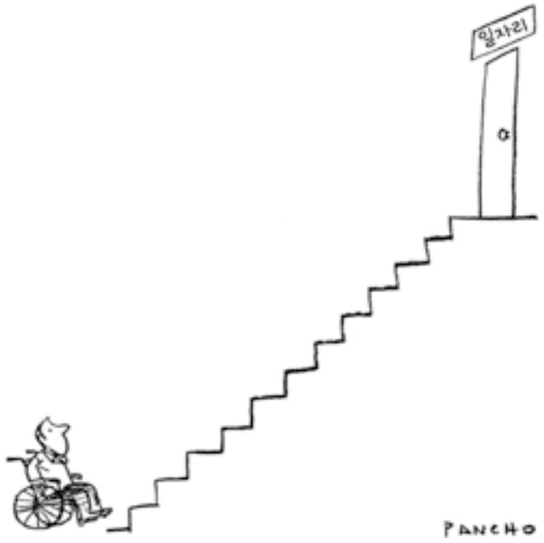
온라인판 제5장에서 난민, 피난민 및 망명 신청자뿐만 아니라 임시 노동 이주자(이주노동자), 고도로 숙련된 사업상 이주자, 불법체류자(미등록 또는 무허가), 강제 이주자, 가족 및 회귀 이주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이주자에 관한 정의와 서술을 읽어볼 수 있다.

또한 국제 이주기구와 EU 이주정책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 문서(2020년 의제)를 포함한 유럽평의회의 과업에 관한 정보도 제공된다.

에라스무스 문디(Erasmus Mundi)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에는 비록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신들의 부모가 이주자라는 이유로 이주자로 간주되는 청소년이 약 1,200만 명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이들 “제2세대” 이주자는 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자신들의 인권 침해를 겪는다. 청소년 피난민, 망명 신청자 및 난민은 또한 특별히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관련 활동:
능력을 보라!
모두를 위한 스포츠
안경을 바꿔라
일하고 싶다!

장애와 장애차별주의



장애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다. UN의 장애인권리협약(2006)은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장애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반에서, 온전하고 효율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고방식과 환경적 장벽이 상호작용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믿음에서 야기된 차별적, 억압적, 모욕적 행위로 정의했다.

장애는 예를 들면 직업, 문화 또는 가정생활의 접근권의 평등이 부정되거나 제한될 때 인권 문제가 된다. 20만 명의 장애인을 학살한 나치가 실행한 우생학은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태아 선별검사 절차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은 어떠한가? 이들은 온라인판 제5장에 제시된 논란이 많은 문제들이다.

제5장에서 다음의 질문을 제기한다: 누가 장애인인가? 그리고 장애의 의학적•사회적 모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인권운동과 장애인 차별교육 철폐론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 예를 들면 교육, 시설(청소년 단체 포함) 및 직업 접근권에 관하여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

관련 활동:
내 삶에서의 폭력
도스타(충분해)!
돌 던지기
메모리 태그
세 가지 물건
언어 장벽
얼마나 필요한가?
차할대 영국정부
테러

전쟁과 테러

전쟁 또는 테러 행위는 인권 체계가 거의 붕괴할 것으로 보일 정도까지 만든다. 그러나 인도주의의 와해 한 가운데에서도 인권은 계속 운용되며 최소한의 보호와 정의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제공한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판 제5장에 전쟁과 테러의 정의가 시도되었다. 국제법상의 무력사용과 보호할 책임이라는 논란이 많은 사상에 관한 토론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모든 수단을 포함해 어떤 국가를 폭격하는 것이 평화를 촉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인가? 그리고 종종 더 많은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교전법규, 제네바협정, 전쟁범죄 및 국제 형사재판소에 관한 정보 또한 제시되었다.

인권과 테러에 관련해서 인권과 테러의 개념이 충돌하게 되는 두 개의 핵심 분야가 있다. 첫째는 테러행위 자체이고, 둘째는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식기관에 의해 취해지는 수단이다. 인권법은 정부에 의한 권리와 자유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테러 집단을 인권재판소에 데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전쟁과 테러는 청소년과 특별히 관련 있는 주제다. 민간인 그리고 특히 여성과 아동이 전시에 특별히 취약하다. 아동은 소년병이 되도록 강요당할 수 있으며 청소년, 특히 자신의 주체성을 찾는 청소년은 종종 테러단체의 목표가 된다.

젠더

젠더는 복잡하고 미묘하며 노골적인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은 인간 본성의 통합적인 부분이다. 성, 젠더, 성주체성 및 성적 지향성 등의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나 종종 혼용된다. 온라인판 제5장에서 다른 관련어를 포함한 이들 용어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성평등은 기본적 인권이며 모든 국제 인권조약들은 남녀에 평등하게 적용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에 근거해서 인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지만 여성은 특히 취약하다. 핵심적 이슈의 몇 가지는 성적 권리와 생식권(강제결혼 및 산아제한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참여(교육, 고용 그리고 정치적 및 공공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참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예를 들면 가정폭력, 여성성기 절제, 밀매, 성선택적 낙태), 무력분쟁(사상자의 약 90%가 민간인이며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이다) 및 빈곤(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70% 이상이 여성이다)과 관련되어 있다. 여성들의 특수한 취약성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정(CEDAW)이 1979년에 채택되었다.

성소수자(LGBT)의 권리 또한 종종 침해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UN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UN은 아직도 2006년에 국제 법률가위원회와 다른 인권전문가 회의에서 개발된 요가카르타원칙(Yogyakarta Principles)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활동:
가정 문제
나는 누구인가?
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
일과 육아
차별 임금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

종교와 믿음

가장 간단한 의미로 종교는 “인간의 자신이 신성한, 성스러운, 정신적인 또는 신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관계”로 설명한다. 믿음은 더 폭넓은 의미이다: 비록 100% 확신하거나 그것을 입증할 수 없지만 어던 것을 진실이라고 여길 때의 마음 상태. 믿음은 종교적, 철학적 또는 이념적일 수도 있다. 우리가 자신을 종교적 또는 정신적이라고 믿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 환경에서 종교 및 다른 믿음체계는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은 UDHR과 많은 다른 인권문서들에 명기되어 있다. 모든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이 자유는 다른 자유에 “으뜸패”가 되지 않으며 때로는 그 자신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 성 또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다른 인권과 갈등관계에 있음을 발견한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종교적 특성들이 지역 문화에 내재되었으며 문학, 미술, 음악 등등에 반영되었다. 종교의 영향력은 국가가 종교를 국교로 채택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종종 종교와 종교적 주장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추론과 혼동된다.

온라인판 제5장에는 예를 들어 아동이 연루된 전통의식,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법률, 여성 성기절제, 무신론자의 더 강력한 종교집단에의 몇몇 권리의 배제에 관한 인권 사회 내에서의 토론의 많은 사례가 있다. 이런 관습이 문화와 전통에 박혀 그것들을 종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무슬림, 기독교인 및 유대인에 대한 불관용과 차별을, 특히 청소년에 있어서의, 유럽평의회의 과업에 있는 그대로 좀 깊게 다뤘다. 청소년을 위한 종교, 믿음, 교육 및 병역 관련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에 관련된 사례들을 제시했다.

관련 활동:
곧 구식이 된다
꽃의 힘
나는 누구인가?
신자들
연대표
우리 동네 이슬람 사원
향토 유적

관련 활동:
나는 누구인가?
능력을 보라
도스타(충분해)!
들어가도 될까요?
모두 평등하고 모두 다르다
부정과 왜곡
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신자들
언어 장벽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
우리 동네 이슬람 사원
의약품 접근성
인종차별에 맞서기
일과 육아
일하고 싶다!
차별 임금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
한 걸음 앞으로
향토 유적

차별과 불관용

차별과 불관용은 인권 침해에 이르는 가장 흔한 2가지의 행동 형태다. 차별은 비슷한 상황에서 그들이 특정 그룹이나 범주에 속하거나 속한다고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덜 호의적으로 대할 때 발생한다. 불관용은 자기 것 이외의 타인의 관습 또는 믿음에 대한 존중의 결여이다.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은 UDHR의 제1조와 2조에, 그리고 ECHR의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차별은 연령, 장애, 민족, 출신, 정치적 믿음, 종족, 종교, 성별, 동성애, 언어, 분화 등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나 그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해 긍정적차별(적극적 조치)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빈곤한 시골 지역 청소년을 돕기위해 취업 기회와 교육 지원을 증대시티는 데 더 많은 돈을 투여한다. 우리는 질문한다: 차별이 정당화된 적이 있는가?

온라인판 제5장에는 이 질문과 “다수의 횡포”를 통해 민주주의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매커니즘을 포함한 다른 문제에 관한 토론을 다룬다. 또한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위에 열거된 차별 유형에 더해서 반유대주의, 롬인(집시)혐오, 반집시주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관련 활동:
도스타(충분해)!
메모리 태그
부정과 왜곡
연대표

추모/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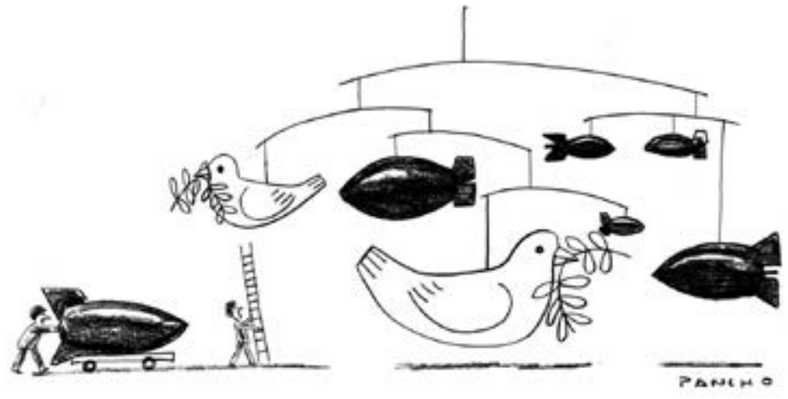
홀로코스트, 노예무역, 대학살 및 인종청소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쉽게 잊히지도, 용서되지도 않는다. 추모는 적절하게 행해지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종결감을 줄 수 있고,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 또는 무행동, 불관용, 종족차별주의 및 종교적 심한 편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추모는 사회에 경고신호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워서 미래에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추모행위에는 인권이 없지만 기억되는 사건들은 항상 개인들이나 그룹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된 사건들이다. 온라인판 제5장에 항상 기억되지는 않지만 기억될만한 가치가 있는 몇몇 사건들을 열거했으며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조치들을 제시했다. 또한 청소년이 증오를 극복하고 국제적 연대 촉진에 목적을 둔 몇몇 교육사업을 제시했다.

유럽평의회 자체는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출현했으며 민주주의, 인권 및 법의 지배를 촉진하는 과업은 20세 전반기를 지배했던 전체주의 이념의 결과를 상기시킨다. 1954년의 유럽문화협약은 유럽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의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1년 유럽평의회는 홀로코스트 추모 및 반인륜 범죄 예방의 날을 도입했다.

관련 활동:
가정사
내 삶은 쇼가 아니다
내 삶에서의 폭력
내일이 오면
돌 던지기
들어가도 될까요?
발전소
손가락들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
인종차별에 맞서기
차할 대 영국
테러

평화와 폭력



온라인판 제5장에 직접적인 “행동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포함한 폭력의 확장된 이해를 제시한다. 유사하게 폭력적 충돌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평, 권리와 지구에 대한 존중을 실현하는 더 폭넓은 개념의 평화 의미를 제시한다. 평화는 모든 인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그것은 또한 인권의 산물이며 점점 더 인권 자체로서, 새로 출현하는 권리 또는 소위 연대의 권리의 부분으로서 인식된다.

인간 안보는 평화와 폭력에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다. 그것은 자연재해와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 폭력의 직접적 위협과 빈곤 및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불평등에서 기인한 간접적 위협 모두로부터 개인보호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판 제5장에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폭력적 행동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과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위한 안전장치에 관한 토론이 제시되어 있다.

유럽평의회 청소년부서는 문화 간 학습, 갈등변화 및 인권교육에 40년 넘게 일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매년의 청소년평화캠프는 청소년이 때로는 처음으로, “다른 편”에서 온 청소년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준다.

관련 활동:
두 도시 이야기
마카족 고래잡이
생명의 그물망
세 가지 물건
손가락들
우리의 미래
전면 기사
조심하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환경

“인간은 자유, 평등 그리고 존엄한 삶과 행복을 허용하는 양질의 환경에서의 삶에 적합한 조건의 기본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인용구는 1972년의 인간 환경에 관한 UN컨퍼런스의 스톡홀름선언에서 나왔으며 환경보호에 대한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의 시작점으로 간주된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 광산, 벌목, 건축, 농경, 오염 – 우리의 행동은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현재와 미래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인간애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형평의 원칙, 권리 및 책임에 근거를 둔다.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상태에 큰 관심을 갖는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미래이다. 빈번히 그들의 즉각적인 관심은 지역 문제에 관련된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인지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인구 증가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다.

온라인판 제5장에서는 이런 청소년의 우려와 인권침해의 사례들,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의 공기 오염과 안전하고 적절한 급수에 대한 접근기회의 부족으로 야기된 조기 사망의 결과로서 생명권 침해의 사례를 읽어볼 수 있다. 바람직한 일을 할 권리, 식량권 및 문화생활 참여권의 침해는 농경, 채광, 다른 산업, 운송시스템 및 도시형성 등 우리가 땅을 사용하는 방법에 뒤따른다.

제시된 환경파괴죄에 관해서도 읽어볼 수 있다. 대규모 자연환경 파괴는 대량학살과 함께 평화에 반하는 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로서 인식될 수 있으며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부록

부 록 목 차

주요 국제인권협약

대한민국 및 주변국 가입현황 459
유럽 가입현황 460

UN 461

세계인권선언(요약 및 전문) 46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요약) 46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요약) 46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 465
아동권리협약(CRC, 요약) 46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요약) 467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 협약, 요약) 468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ICESCR, 요약) 468

유럽평의회 470

유럽인권협약(요약 및 전문) 470
유럽사회헌장(요약) 476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기본협약(요약) 477
유럽 지방언어 및 소수 언어 헌장(요약) 477
인신매매방지협약 478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을 위한 유럽평의회 헌장 479

용어 사전 481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대한민국 및 주변국)
(2024년 3월 기준)

국가	UN 인권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아동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협약발효일	1976 1.3	1976 3.23	1990 9.2	1969 1.4	2008 5.3	2010 12.23	1981 9.3	1987 6.26	2003 7.1
대한민국	✓	✓	✓	✓	✓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		✓		✓		
미국		✓		✓				✓	
일본	✓	✓	✓	✓	✓	✓	✓	✓	
중국	✓		✓	✓	✓		✓	✓	
러시아	✓	✓	✓	✓	✓		✓	✓	

*(역주)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은 국제인권협약 당사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treaties.un.org/Pages/Treaties.aspx?id=4&subid=A&lang=en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유럽문화협약 가입국)
(2023년 12월 1일 기준)

국가명	UN							유럽평의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아동권리협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장애인 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유럽인권협약	유럽사회헌장	유럽사회헌장(개정)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기본협약	고문 및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 협약	유럽 지방언어및 소수언어 헌장	인신매매방지협약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에 관한 협약
발효일	3.01. 1976	23.03. 1976	2.09. 1990	4.01. 1969	3.09. 1981	3.05. 2008	23.12. 2010	3.09. 1953	26.02. 1965	01.07. 1999	1.02. 1998	1.02. 1989	1.03. 1998	1.02. 2008	1.08. 2014
교황청			✓	✓											
그리스	✓	✓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	✓		✓	
러시아연방	✓	✓	✓	✓	✓	✓									
루마니아	✓	✓	✓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	✓		✓	
리히텐슈타인	✓	✓	✓	✓	✓			✓			✓	✓	✓	✓	✓
모나코	✓	✓	✓	✓	✓	✓		✓				✓		✓	✓
몬테니그로	✓	✓	✓	✓	✓	✓	✓	✓		✓	✓	✓	✓	✓	✓
몰도바공화국	✓	✓	✓	✓	✓	✓		✓		✓	✓	✓		✓	
몰타	✓	✓	✓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	✓
벨라루스	✓	✓	✓	✓	✓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	✓	✓	✓	✓		✓	✓	✓	✓	✓	✓
북마케도니아	✓	✓	✓	✓	✓	✓		✓	✓	✓	✓	✓		✓	✓
불가리아	✓	✓	✓	✓	✓	✓		✓		✓	✓	✓		✓	
산마리노	✓	✓	✓	✓	✓	✓		✓			✓	✓		✓	✓
세르비아	✓	✓	✓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	✓	✓
슬로바키아공화국	✓	✓	✓	✓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시프러스	✓	✓	✓	✓	✓	✓		✓	✓	✓	✓	✓	✓	✓	✓
아르메니아	✓	✓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	✓
아제르바이젠	✓	✓	✓	✓	✓	✓		✓		✓	✓	✓		✓	
안도라		✓	✓	✓	✓	✓		✓	✓	✓		✓		✓	✓
알바니아	✓	✓	✓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	✓
영국	✓	✓	✓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	✓	✓
우크라이나	✓	✓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		✓	✓
조지아	✓	✓	✓	✓	✓	✓		✓		✓	✓	✓		✓	✓
체코	✓	✓	✓	✓	✓	✓	✓	✓	✓		✓	✓	✓	✓	
카자흐스탄	✓	✓	✓	✓	✓	✓	✓								
크로아티아	✓	✓	✓	✓	✓	✓	✓	✓	✓		✓	✓	✓	✓	✓
튀르키예	✓	✓	✓	✓	✓	✓		✓	✓	✓		✓		✓	
포르투칼	✓	✓	✓	✓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	✓	✓	

세계인권선언
(요약)

제1조
평등권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3조
생명, 자유, 안전을 누릴 권리

제4조
노예나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

제5조
고문받지 않을 권리

제6조
법 앞의 인격, 법의 보호

제7조
법 앞의 평등

제8조
법적 구제

제9조
자의적 체포 금지

제10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11조
무죄 추정의 권리

제12조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제13조
이동과 거주의 자유

제14조
비호권

제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제16조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

제17조
재산권

제18조
사상과 종교의 자유

제19조
표현의 자유

제20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제22조
사회보장권

제23조
일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제24조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26조
교육받을 권리

제27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28조
세계인권선언이 실현되는 사회에 살 권리

제29조
자유롭고 온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지역공동체의 책무

제30조
상위 권리를 해치는 개인이나 국가의 간섭으로 부터의 자유

Copyright © 1999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Reproduced with permission.

세계인권선언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비공식 요약)

- 이 규약은 1996년 12월 16일의 유엔 정기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76년 3월 23일 발효되었다. 2001년말까지 협약은 147개국에서 비준되었다.(역주: 2020년 1월 기준 173개국 비준)
- 이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시한 시민,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 협약의 제1조에서, 당사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고 **자신의 자연적 부와 자원을 자유롭게 소유, 매매,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하도록 추구한다.

협약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면, 그 침해자가 공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지원을 받을 권리

제3조
시민과 정치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 보장

제6조
생명과 생존의 권리

제7조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8조
노예와 예속으로 부터의 자유

제9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임의 체포나 구금로 부터의 자유

제11조
부채로 인한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제12조
자유와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

제14조
법 앞의 평등권: 유죄 입증 전 무죄추정의 권리와 불편부당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제16조
법 앞에서 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

제17조
프라이버시권과 법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제18조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제20조
전쟁과 국가, 인종,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는 선동의 금지

제21조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제22조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

제23조
결혼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

제24조
아동을 위한 권리(소수자, 국적, 등록, 명칭 등에 대한)

제25조
공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투표나 선거 그리고 공공서비스 접근권

제26조
법앞의 평등과 평등한 보호에 대한 권리

제27조
종교, 출신 민족, 언어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문화, 종교, 언어를 향유할 권리

이 규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인권위원회에서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제1선택의정서는 ICCP를 위한 개인 진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기준 114개국이 비준하였다.(역주: 한국은 1990년 4월 10일 비준하였으며, 2020년 1월 기준 116개국이 비준하였다).

제2선택의정서는 1991년에 발효되었으며, 사형제 폐지를 다루고 있다. 2012년 5월 기준 74개국이 비준하였다.(역주: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며, 2020년 1월 기준 88개국이 비준하였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비공식 요약)

세계인권선언(1948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과 함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는 국제인권장전을 구성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이 규약은 "…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에서야만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꿈을 꿀 수있다는 자유 인류의 이상을 …"을 다루고 있다.
이 협약은 1976년에 발효되었으며, 2020년 1월 기준으로 170개국이 비준하였다.

제1조
모든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정치적 상황을 결정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를 포함한다.

제2조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의 모든 권리를 향휴할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제4조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은 해당 권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일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그 어느 개인이나, 그룹, 정부도 이러한 권리를 해칠 권리는 없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으며,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7조
모든 사람은 정당한 노동 조건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공정한 임금,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조건, 모두에게 동등한 승진 기회 제공,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 등이 포함된다.

제8조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 그리고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 안정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10조
보호와 지원은 가족에게 맡겨져야 한다. 결혼은 두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되어야만 한다.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차별없이, 아동들을 돕기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 고용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연령제한 아래의 아동들은 노동이 금지되어야 한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이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적절한 음식, 의류, 주택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은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최고로 도달가능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즐길 권리가 있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
의무적이고 무료의 초등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는 국가는 그러한 교육 제공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협약은 UN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한다.

자료원: 미네소타 인권센터(The Minnesota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based on UN Centre on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Fact Sheet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CERD, 비공식 요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은 1963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관한 국제연합선언에 기반하고 있다.
이 선언은 4개의 원칙을 구성하고 있다:
- 인종 차이나 우월성에 대한 모든 학설은 과학적으로 허위이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험하다.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정당성은 있을 수 없다;
- 인종차별, 더 나아가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에 근거한 정부 정책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사람간 우호 관계, 국가간 협력, 나아가 국제적 평화 안보를 위협한다;
- 인종차별은 차별 대상인 이들뿐만 아니라 차별하는 이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 증오와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인 인종 분리와 차별이 없는 세계 새회는 유엔의 기본 목표이다.

제1조
인종차별의 정의: 피부색, 가분 또는 민족이나 종족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평등한 인권 기반을 누리는 것을 훼손할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다. 적극적 조치 정책이나 수단은 인종차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제2조
당사국들은 인종차별을 비난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당사국들은 인종차별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권력과 공공기관이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행동해야만 한다. 당사국들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인종차별을 후원, 옹호 또는 지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당사국들은 정부, 국가 및 지역 정책을 검토하고 인종차별을 만들거나 영구화하는 법과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모든 개인, 단체 또는 단체에 의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종식시켜야 한다. 당사국들은 특정 인종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발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권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즐거움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당사국들은 인종분리정책을 규탄하고 그들의 영토에서 모든 그러한 행위를 예방, 금지,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제4조
당사국들은 인종적 우월성 이론에 기초한 모든 선전 및 단체를 규탄한다. 당사국들은 차별에 대한 모든 선동을 근절하고 특정 인종에 대한 인종적 우월성, 폭력 행위, 폭력 선동을 금지해야 한다.

제5조
당사국들은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없애기 위해, 그리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의 권리들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정부 관리에 의해 자행되거나 또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해 자행되거나간에 ,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 통·평등 선거의 기초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 각급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하는 권리 그리고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을 할 권리; 당사국 국경 애세어 거주 이전의 자유권; 자국을 포함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권리; 국적 취득권;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상속권;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는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 노동 동일임금, 정당하고 알맞는 보수 등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주거에 대한 권리;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제6조
당사국은 관할구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당사국들은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과 싸우기 위해 교육, 교육 등에서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진다.

자료원: 유엔 인권과인권학습민중운동센터(PDHRE) www.pdhre.org

아동권리협약
(CRC, 비공식 요약)

- 아동권리협약(CRC)은 가장 보편적인 인권 문서로서 두 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아동의 권리 모두-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권-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한 것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에 발효되었다.
- 이 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할 인권에 대해 41개 조항으로 요약하고 있다.

제1조
아동의 정의로서 아동은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으로 한다.

제2조
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언인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제5조
당사국은 부모와 확대 가족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

제6조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공유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아동은 출생후 등록되고,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아야 한다.

제8조
아동은 신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9조
아동은 사법당국이 부모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는 결정한 경우외에는, 자신의 부모와 떨어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은 적절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제13조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4조
당사국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15조
아동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당사국은 국내외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잘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1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
아동은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일차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강조와 예방적 건강 돌봄의 발전을 포함한다.

제26조
아동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
아동은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초등교육을 의무화하면서 모두가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국은 다양한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여 모든 아동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규율은 아동의 품격을 지키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은 아동의 성격, 재능, 능력,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평화, 우정, 이해, 관용과 평등에 기반한 자유 사회에서의 책임감있는 삶,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방식의 개발 등에 맞추어진 방향을 가지야 한다.

제30조
아동은 자기 고유의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31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 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2조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자신의 삶과 발전에 해로운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33조
아동은 향정신성 약물의 불젖벅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매춘이나 위법한 성적 활동, 외설스러운 공연이나 자료에 이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38조
당사국은 무력분쟁으로부터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위해 모든 적용가능한 수단을 이행해야 한다.

제40조
범죄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모든 아동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자신의 사건을 진술할 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증언을 하거나 죄를 고백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사생활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나이와 상황, 웰빙에 맞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없다.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전문은 유니세프 사이트(www.unicef.or.kr/crc) 와 같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참고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료원: 유엔 인권과인권학습민중운동센터(PDHRE) www.pdhre.org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비공식 요약)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81년 9월 3일 발효

제1조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평등이라는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2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제3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이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임시적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5조
모성의 사회적 기능과 양육에서의 남녀 책임을 인식시키는 가정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문화적 행동패턴을 수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

제7조
여성은 투표, 공직, 시민사회 참여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여성은 국제적 수준에서 일하고 정부를 대표하는 데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여성은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녀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제10조
당사국은 교육에서의 차별을 종식시킬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직과정 및 직업 훈련에서, 그리고 동등한 교육을 받기 위한 교과과정과 기타 수단의 접근성에서의 차별 철폐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정형화된 개념을 없애는 것을 포함한다.

제11조
일할 권리, 고용기회, 평등한 보수,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 사회보장, 보호를 포함한 고용 차별을 종식시키고, 이 분야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당사국이 취할 것이 촉구된다.

제12조
당사국은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서비스의 접근을 포함하여 의료의 차별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여성은 가족급부금, 주택담보대출, 은행대출,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스포츠 참여 등의 사회경제적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당사국은 시골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를 중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개발 계획에서의 여성의 참여, 적절한 의료, 신용 대부, 교육 및 적절한 생활 조건에 대한 접근성 등이 포함된다.

제15조
여자와 남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 여성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제16조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조치가 요구되는데, 자유롭게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남성과 동등한 권리, 자녀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책임, 자녀 수와 나이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재산에 대한 동일한 권리 등이다.

제17~30조
협약의 집행과 보고 절차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강제실종보호 협약)

(비공식 요약)

제1조 강제실종 방지;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 – 전쟁 상태든, 전쟁의 위협이든,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든, 또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에서도 강제실종의 이유로 제시될 수 없다.

"강제 실종"은 협약 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인가, 지지 또는 묵인 하에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체포, 구금, 납치 또는 기타 형태의 자유 박탈, 이어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행방을 감추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강제 실종의 확대나 체계적 이용은 제6조에서 반인륜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협약 가입 당사국은 다음을 수행한다:

- 강제 실종 행위 조사하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한다;
- 형법상 강제 실종이 위법행위로 간주되도록 보장한다;
- 심지어 가해자가 해당 국가의 시민 또는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국경내에 있는 경우 강제실종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한다;
- 가해자가 기소 또는 인도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강제 실종 피해자 또는 유골의 소재 파악 및 반환을 돕는다;
- 구금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자유의 박탈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
-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친척 및 변호인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강제 실종 피해자 또는 강제실졸으로 직접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에게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제24조 제4항)
- 배상권에는 물질적 보상과 권한을 다루고, 다음 같은 적정한 배상을 형태가 있다; a) 반환, b) 재활, c) 배상, 존엄성 회복과 보상을 포함 d) 재발방지.(제24조 제5항)

협약은 당사국들에 의해 선출된 강제실종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된다. 당사국들은 본 위원회의 권고 대상이 된 후, 2년 이내에 이에 대한 이행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협약은 당사자 시민들이 실종된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청원시스템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당사국은 언제든지 이러한 선택사항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서명이 있을 경우에만 탈퇴할 수 있다.

자료원: Wikipedia, accessed on 25 May 201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ICESCR, 비공식 요약)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누리게 하고, 보호받고,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정의
이 장은 협약에서 사용되는 일부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의사소통", "언어", "장애로 인한 차별", "합리적인 편의제공", "보편적인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

제3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은 다음의 원칙에 기초한다. 존엄성에 대한 존중; 비차별; 참여 및 통합; 차이의 존중; 기회 균등; 접근성; 남녀 평등; 이동 존중.

제4조: 일반 책무
당사국은 장애인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초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모든 장애인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5조: 평등과 비차별
모든 인간은 법 앞과 아래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법이 인정한 차별없이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6조: 장애여성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은 다중적 차별을 경험한다. 당사국은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장애아동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 장애아동에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인식제고
당사국은 장애인의 권리, 능력 및 기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당사국은 캠페인, 교육, 미디어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근절해야 한다.

제9조: 접근성
장애인은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 및 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제공되는 기타 시설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생명권
장애인들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무력 충돌,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및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상황에서 모든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법 앞의 평등
장애인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가진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사법권에 대한 접근
장애인은 적합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장애의 존재만으로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장애인은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장애인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개인 존엄성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장애인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고 이름을 가지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가 있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간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은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지원자와 매개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장애인은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에는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모든 접근간으한 의사소통 수단을 포함한다.

제22조: 사생활 존중
장애인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개인 정보와 건강 정보를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자녀 양육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하며, 직계 가족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장애 아동에게 대체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교육
장애인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양질의 무산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도록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건강
장애인들은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가까운 곳에서 동일한 범위, 품질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 훈련과 재활
당사국은 장애인이 훈련, 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 노동과 고용
장애인은 노동권을 가진다. 여기에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경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장애인들은 음식, 물, 의류, 주택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과 빈곤 감소와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포함한 효과적인 사회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9조: 정치 및 공직의 참여
장애인은 정치와 공적활동 수행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투표권과 선출권을 가진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트레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문화자료, 공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 활동 등이 포함된다.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장애인이 경험하는 장벽을 더 잘 이해하고 협약 권리를 현실화해야 한다.

제31~50조
32~50조는 협약 당사국들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설명한다. 또한 당사국들이 협약이 어떻게 발효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국가들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료원: 장애인인권센터(Centre on Human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ww.disabilityhumanrights.org

(역주: 한글 자료원: 미네소타대학교 인권도서관, hrlibrary.ume.edu)

유럽인권협약 및 의정서
선별된 조항의 요약버전[1]

전문 요약
유럽 평의회의 회원국 정부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기반을 둔 평화와 대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이 협약으로 세계 인권 선언에 포함된 많은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첫 발자국을 나아가리고 결정하였다.

제1조: 인권 존중의 의무
당사국은 모든 자들에게 이 협약애 제시된 권리들을 보장한다.

제2조: 생명권
당신은 생명권이 보장된다.

제3조: 고문 금지
누구도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고문할 권리가 없다. 구금 상태에서도 당신의 인간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 노예 및 강제노동 금지
당신을 노예로 취급하거나 당신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5조: 신체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당신은 자유의 권리가 있다. 당신이 체포된다면 당신은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 당신이 체포된다면 당신은 즉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재판이 열릴 때까지 석방될 권리가 있다.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당신은 편견이 없고 독립적인 판사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당신이 범죄 혐의로 피소되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이다. 당신이 가난하다면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죄형법정주의
당신이 힌 행위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없었다면, 당신은 해당 행위에 대해 유죄를 받을 수 없다.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당신의 사생활 및 가족 생활, 가족 및 서신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당신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종교를 실천할 권리가 있고 원한다면 종교를 바꿀 권리가 있다.

제10조: 표현의 자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책임감 있게 말하고 쓸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가 포함된다.

제1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당신은 평화로운 모임에 참여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포함한 협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혼인의 권리
당신은 결혼할 권리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13조: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당신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원이나 기타 공공 기관에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청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차별 금지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가 있다.

제15조: 비상시 의무 제외
전쟁이나 기타 공공 비상 사태 때, 정부는 여러분의 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매우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예를 들어 여러분을 고문하거나 자의적으로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6조: 외국인 정치활동의 제한
정부는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4조와 상충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권리 남용의 금지
협약의 어떤 것도 협약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제18조: 권리 제한의 한계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은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19-51조
이 조항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다.

제34조: 개별 제소
만약 회원국 중 한 나라에서 협약에 포함된 당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당신은 먼저 모든 권한 있는 국가 당국에 항소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항소가 부족하였다면,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재판소에 직접 항소할 수 있다.

제52조: 사무총장의 문의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요청할 경우, 정부는 자국의 국내법이 이 협약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협약 의정서

제1의정서 제1조: 재산의 보호
당신은 재산을 소유하고 소유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1의정서 제2조: 교육받을 권리
당신은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

제1의정서 제3조: 자유로운 선거권
당신은 비밀 투표로 당신 나라의 정부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제4의정서 제2조: 이동의 자유
합법적으로 한 국가 내에 있다면, 당신은 원하는 곳에 갈 권리가 있고 그 국가 내에서 원하는 곳에 살 권리가 있다.

제6의정서 제1조: 사형제 폐지
당신은 국가에 의해 사형이나 처형을 당할 수 없다.

제7의정서 제2조: 형사재판에서의 상소권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7의정서 제3조: 부당한 판결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임이 밝혀지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의정서 제1조: 일반적 차별 금지
당신은 피부색, 성, 언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 또는 출신 등의 이유로 공공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받을 수 없다.

[1] 이 요약 버전은 오직 교육적 목적으로 유럽 평의회 커뮤니케이션국에 의해 준비한 것이다. 유럽인권협약 및 의정서의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는 공식 발표된 버전에서 찾을 수 있다.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 협약
의정서 제15호에 의해 개정*

2021년 8월 1일 발표됨
Rome, 4.XI.1950

유럽평의회 가맹국인 **서명정부는,**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가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을 고려하고, 그 선언이 그 속에 선포된 권리의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유럽심의회의 목적이 가맹국간의 보다 강한 결합을 달성하는 것이며, 그 목적이 추구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유지와 보다 큰 실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한편으로는 실효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의존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준수에 의하여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에 대한 깊은 신념을 재확인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정치적 전통, 이상, 자유 및 법의 지배에 관한 공통의 유산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의 정부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특정 권리들을 집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첫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협약 체결국은 본 협약 및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를 확보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 인권 재판소[1]의 감독 관할권에 따라 감사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인권 존중의 의무)
체약국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이 협약 제1절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 1 절 권리와 자유

제2조(생명권)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법에 규정된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의 유죄확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생명의 박탈이 다음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의 행사의 결과인 때에는, 이 조에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b)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c)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

제3조(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
1. 어느 누구도 노예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2. 어느 누구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적용상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이 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구금 중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b) 군사적 성격의 역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신 실시되는 역무.
   (c)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d)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5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 권한 있는 법원의 유죄결정 후의 사람의 합법적 구금.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의 합법적 구금.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퇴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2. 체포된 모든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그의 체포 사유 및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이 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재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재판에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이 명령되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의 규정에 위반된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만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도기관 또는 공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 모든 형사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기소의 성격 내지 이유를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보받을 것.
   (b) 자신의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
   (c) 직접 또는 본인이 선택한 법적 조력을 통하여 자신을 변호할 것, 또는 법적 조력을 위한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법적 조력이 부여될 것.

(d)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받도록 할 것,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심문받도록 할 것.
(e)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제7조(죄형법정주의)

1. 어떤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그 행위시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범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제10조(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국가의 군대, 경찰 또는 행정부의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혼인의 권리)

혼인적령의 남녀는 이 권리행사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모든 사람은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당국 앞에서의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차별의 금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 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제15조(비상시의 의무 예외)

1. 전쟁 또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어떠한 체약국도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상의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2. 적법한 전쟁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및 제7조에 대하여는 이 조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이탈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어떠한 체약국도 자신이 취한 조치와 그 이유를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게 충분히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국가는 그러한 조치의 적용이 언제 중지되어 협약 규정이 재차 완전히 실행될 것인지 역시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의 정치활동의 제한)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외국인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7조(권리남용의 금지)

이 협약 중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8조(권리제한의 한계)

위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하여 이 협약하에서 허용되는 제한은, 이를 규정한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유럽인권재판소

제19조(재판소의 설립)

협약 및 의정서의 체약국이 행한 약속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함)를 설립한다. 이 재판소는 상설적으로 활동한다.

제20조(판사의 수)

재판소는 체약국 수와 같은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제21조(판사의 자격)

1. 판사는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국내의 고위 판사직으로 임명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거나 능력이 인정된 법률가이어야 한다.
2. 판사는 개인 자격으로 재판소에서 근무한다.
3. 판사는 임기 중 그의 독립성, 중립성 또는 상임직의 요구와 양립될 수 없는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항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2조(판사의 선출)

1. 판사는 각 체약국별로 체약국이 지명한 3명의 후보 명부로부터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다.
2. 새로운 체약국이 가입하는 경우와 임시적 공석을 채우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제23조(임기)

1. 판사의 임기는 9년이다. 판사는 연임할 수 없다.
2. 판사의 정년은 70세이다.
3. 판사는 교체될 때까지 직을 보유한다. 그러나 이미 심리 중인 사건은 계속하여 관여한다.
4. 판사는 다른 판사들이 3분의 2의 다수결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4조(사무처 및 조사관)

1. 재판소는 재판소 규칙에 규정된 기능과 조직이 있는 사무처가 있어야 한다.
2. 단독 판사 구성으로 진행될 때, 재판소는 재판소 소장의 권한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관에 의해 지원된다. 그들은 재판소 사무처의 구성원이다.

제25조(전원재판부)

판사 전원회의는,
(a) 3년 임기의 재판소 소장과 한 명 또는 두 명의 재판소 부소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연임할 수 있다.
(b) 지정된 임기로 구성되는 소재판부를 설치한다.
(c) 재판소 소재판부의 재판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연임할 수 있다.
(d) 재판소 규칙을 채택한다.
(e) 재판소 서기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부서기를 선임한다.

제26조(단독 판사 구성, 위원회, 소재판부 및 대재판부)

1. 제소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 7명의 판사로 구성된 소재판부 및 17명의 판사로 구성된 대재판부를 둔다. 각 소재판부는 지정된 임기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전원재판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원재판소의 재판관 수를 5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단독 판사로 앉아 있는 경우, 판사는 해당 판사가 선출된 고등 계약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신청도 심사할 수 없습니다.
4. 4. 고등 계약 당사자와 관련하여 선출된 판사는 회의장과 대회의장의 전 임원으로 앉습니다. 만약 판사가 없거나 그 판사가 앉을 수 없는 경우, 그 당이 미리 제출한 목록에서 법원장이 선택한 사람이 판사의 자격으로 앉습니다.
5. 대재판부는 재판소 소장, 재판소 부소장, 소재판부 각 재판장 및 재판소 규칙에 따라 선정된 기타의 판사를 포함한다. 사건이 제43조에 따라 대재판부에 회부된 경우, 판결을 내리는 소재판부의 판사는 대재판부에 참석할 수 없으나, 단 소재판부 재판장과 관련 당사국 측 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7조(단독 판사의 권한)

1. 단독 판사는 더 이상의 조사 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 전원일치로써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제소를 각하하거나, 사건목록에서의 삭제를 선언할 수 있다.
2. 결정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단독 판사가 승인불가능한 신청을 선언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 그 판사는 추가 심사를 위해 이를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제28조(위원회의 권한)

1. 제34조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a) 더 이상의 조사 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 제출된 제소를 각하하거나, 사건목록에서의 삭제를 선언할 수 있다.
(b) 이를 인정할 수 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본안 판단을 내린다. 단, 사건의 해석 또는 협약 또는 의정서의 적용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 이미 잘 확립된 법원의 판례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 그러하다.
2.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판단은 최종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관련된 고등 계약 당사자와 관련하여 선출된 판사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경우, 위원회는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해당 당사자가 제1.b항에 따른 절차 적용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판사가 위원회의 위원 중 한 명을 대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소재판부의 결정)

1.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결정이 없거나 제28조에 따른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없는 경우,소재판부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개별 제소의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하여 결정한다.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별도로 할 수 있다.
2. 소재판부는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간 제소의 심리적격 및 본안에 관하여 결정한다. 심리적격 문제는 예외적인 경우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결정된다.

제30조(대재판부에 대한 관할권의 포기)

소재판부에 계류된 사건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나 소재판부에 의한 사건해결이 재판소의 선례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 중의 일방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 한 소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 언제라도 대재판부로 관할권을 이양할 수 있다.

제31조(대재판부의 권한)

대재판부는,
(a)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사건으로 소재판부가 제30조에 따라 관할권을 이양한 사건이나 제43조에 따라 이에 제출된 사건을 판단한다.
(b) 제46조 제4항에 따라 장관위원회가 법원에 회부한 사안을 결정하고
(c) 제47조에 따라 제출된 권고적 의견부여 요청을 심리한다.

제32조(재판소의 관할권)

1. 재판소는 제33조, 제34조 및 제4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출된 협약 및 의정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결정한다.

제33조(국가간 사건)

모든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협약 및 의정서의 규정에 대한 어떠한 위반에 대하여도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제34조(개별 제소)

재판소는 협약 또는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를 체약국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비정부조직, 개인집단으로부터의 제소를 접수한다. 체약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권리의 실효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35조(심리적격의 기준)

1.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종료된 이후,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건만을 다룰 수 있다.
2. 재판소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다음과 같은 제소는 다루지 아니한다.
(a) 익명의 제소 또는,
(b) 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다루어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이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분쟁해결절차에 제기된 바 있었으나, 새로운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한 제소.
3. 제34조에 의한 개별적 제소로서 협약 또는 의정서의 규정과 양립

할 수 없는 경우,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제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소는 심리 부적격을 선언하여야 한다.
4. 재판소는 이 조에 따라 심리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제소도 각하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제36조(제3자 소송참가)

1. 소재판부 또는 대재판부가 다루는 모든 사건에서 원고의 출신 체약국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재판소 소장은 재판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소송의 당사국이 아닌 체약국이나 원고가 아닌 개인에게 서면자료의 제출이나 심리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3. 모든 경우에, 유럽인권위원회는소재판부 또는 대재판부 이전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37조(제소의 각하)

1. 재판소는 소송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경우 사건목록에서 제소를 삭제할 수 있다.
   (a) 원고가 그 제소를 계속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그 사안이 해결된 경우 또는,
   (c)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재판소는 협약 및 의정서에 규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재판소는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소를 사건목록에 회복시킬 수 있다.

제38조(사건의 조사)

재판소는 당사자 대표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된 고등 계약 당사자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행위를 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39조(우호적 해결)

1.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재판소는 협약 및 의정서에 규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사건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관하여는 관련 당사자들의 처리에 맡긴다.
2. 제1항에 따라 수행된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지면 재판소는 사안 및 그 해결에 대하여 간략한 서술만을 하는 결정을 통하여 해당 사건을 사건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4. 이 결정은 위원회에 전달되며, 위원회는 결정에 명시된 우호적 해결 조건의 실행을 감독한다.

제40조(심리의 공개 및 자료 접근)

1. 재판소가 예외적인 경우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공개되어야 한다.
2. 재판소 소장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서기국에 보관된 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41조(정당한 구제조치)

협약 또는 의정서의 위반이 있었으나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이 부분적인 보상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재판소는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정당한 구제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소재판부의 판결)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제43조(대재판부로의 회부)

1. 예외적인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는 사건이 대재판부로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대재판부의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그 사건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일반적인 중요성을 갖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3. 패널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대재판부는 판결로써 이 사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4조(최종판결)

1. 대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2. 소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최종적이다.
   (a) 당사자들이 그 사건을 대재판부에 회부하도록 요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또는,
   (b) 대재판부로의 회부 요청이 없이,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c) 대재판부의 패널이 제43조에 따른 회부요청을 각하하는 경우.
3. 최종판결은 공표되어야 한다.

제45조(판결 및 결정의 이유)

1. 제소적격 여부에 대한 판결 및 결정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2.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사들의 전원일치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어떠한 판사도 개별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46조(판결의 구속력 및 집행)

1. 체약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최종판결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2. 재판소의 최종판결은 그 집행을 감독하는 각료위원회로 송부된다.
3. 각료위원회가 판결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확정판결의 집행 감독이 방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석의 문제에 대한 판결을 위해 해당 사안을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회부 결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앉을 자격이 있는 대표자중 3분의 2의 다수결을 요구된다.
4. 각료 위원회가 체약국 당사자인 사건에서 최종 판결을 준수하기를 거부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에 공식 통지를 한 후, 위원회에 앉을 자격이 있는 대표자 3분의 2의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정에 해당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회부한다.
5. 재판소가 제1항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료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제1항의 위반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료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 사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한다.

제47조(권고적 의견)

1. 재판소는 각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협약 및 의정서의 해석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
2. 권고적 의견은 협약 제1절 및 의정서에 규정된 자유권의 내용이나 범위에 관련된 문제, 또는 재판소나 각료위원회가 협약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절차의 결과로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를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3.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기로 하는 결정은 각료위원회 재적과반수의 표결을 요한다.

제48조(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재판소는 각료위원회에 의하여 제출된 권고적 의견부여 요청이 제47조에서 규정된 권한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권고 의견의 이유)

1.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대하여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2. 권고 의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사의 전원일치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판사도 개별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재판소의 권고 의견은 각료위원회에 통보된다.

제50조(재판소의 비용)

재판소의 경비는 유럽평의회가 부담한다.

제51조(판사의 특권 및 면제)

판사는 직무수행 도중에 유럽평의회 규정 제40조 및 그에 따른 협정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된다.

제 3 절 일반 규정

제52조(사무총장의 문의)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으면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협약 규정의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3조(기존 인권의 보장)

이 협약 중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의 법률 또는 체약국이 당사국인 다른 협정에 따라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4조(각료위원회의 권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유럽평의회 규정에 의하여 각료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55조(다른 분쟁해결 수단의 배제)

체약국은 특별협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이 협약에 규정된 것 이외의 분쟁해결 수단에 일방적 신청을 통하여 회부할 목적으로 체약국간에 발효 중인 조약, 협약 또는 선언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제56조(적용 영역)

1. 이 조 제4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국가도 비준시 또는 이후 언제라도 유럽평의회의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유럽평의회의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접수 후 30일째부터 통고에서 지정된 영역에 적용된다.
3. 이 협약의 규정은 지역적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당 영역에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는 이후 언제라도 그 선언이 적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 있어서 이 협약 제34조에 따라 개인, 비정부조직 또는 개인 집단으로부터의 제소를 재판소가 수리할 권한을 수락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제57조(유보)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또는 비준서 기탁시 자국 영역에서 당시 유효한 국내법이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조항에 대한 유보를 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한 일반적 성격의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에 따라 행하여진 어떠한 유보도 관계법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8조(폐기)

1. 체약국은 당사국이 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서에 포함된 6개월간의 예고 후에만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 사실을 다른 체약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가 발효하기 이전에 체약국이 이행하였어야 한 행위에 관하여는 이 같은 폐기가 해당 체약국을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유럽평의회 가맹국에서 제외된 체약국은 같은 조건하에서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도 제외된다.
4. 협약은 제56조에 의하여 적용된다고 선언된 영역에 관하여도 위 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제56조(서명 및 비준)

1. 이 협약은 유럽심의회 가맹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유럽평의회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이 협약은 10번째 비준서의 기탁 이후 발효한다.
3. 그 이후에 비준하는 서명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 기탁일에 발효한다.
4. 유럽평의회의 사무총장은 모든 유럽평의회 가맹국에게 협약의 발효, 비준한 체약국명 및 그 후에 행하여진 모든 비준서의 기탁을 통고한다.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본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이는 유럽평의회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에게 송부한다.

---

1 2021년 8월 1일 발효되는 의정서 제15호(CETS No. 213)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본문.

(*) 본 페이지는 2021년 8월 1일 발효된 의정서 제15호(CETS No. 213)에 의해 개정된 협약 문안을 담고 있다.

협약문은 앞서 1970년 9월 21일 발효된 의정서 제3호(ETS 제45호)의 규정, 1971년 12월 20일 발효된 의정서 제8호(ETS 제118호)의 규정에 따라, 1990년 1월 1일 발효된 의정서 제11호(ETS 제155호)의 규정, 2010년 6월 1일 발효된 의정서 제14호(ETS 제194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바 있으며, 제5조 제3항에 따라 1970년 9월 21일 발효된 의정서 제2호(ETS 제44호) 및 의정서 제8호(ETS 제118호)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필수적 내용을으로 구성되었다.

의정서 제11호(ETS 제155호)의 발효에 따라, 1994년 10월 1일 발효된 의정서 제9호(ETS 제140호)는 폐기되었고, 의정서 제10호(ETS 제146호)는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유럽사회헌장 (개정판)
(요약)

1996년 (개정된) 유럽사회헌장은 1999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1961년 유럽사회헌장 및 1988년 추가 의정서에 의해 보장된 모든 권리를 하나의 문서로 구현하고 당사국이 채택한 새로운 권리와 수정 사항을 추가하였다. 개정된 헌장은 점차 초기 1961년 조약을 대체하고 있다.

헌장은 일상생활 속의 모든 개인과 관련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헌장에 명시된 기본권은 다음과 같다:

주거:
- 적절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 노숙자 감소; 모든 사회적 약자대상으로 한 주택 정책;
-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절차;
- 사회 공공 주택및 주거 해택 등에 대한 비국민의 동동한 접근성;
- 가족의 요구에 맞추어진 주택 건설및 주거 해택.

건강:
- 전국민을 위한 접근가능하고 효과적인 의료 시설;
- 건강한 환경 보장을 포함한 질병 예방 정책;
- 직장내 건강과 안전이 법에 의해 정의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직업적 위험의 제거;
- 모성 보호.

교육:
- 무료 초중등 교육;
- 무료이며 효과적인 직업 지도 서비스;
- 초기 교육(일반 및 직업 중등 교육), 대학 및 비대학 고등 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
- 외국인 거주민을 위한 특별 조치;
- 장애 아동의 학교 통합;
-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대한 접근성.

고용:

직업의 자유:
- 강제 노동 금지;
-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 금지;
- 만15세~18세 아동의 특별 근로 조건;
- 자유롭게 들어간 직업을 통한 생계 유지할 권리.

공정한 노동 조건:
- 완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경제 및 사회 정책;
- 장애인을 위한 업무 접근성;
- 임금 및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공정한 근로 조건;
- 해고 시 보호;
- 성적이고 정신적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단체권:
-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 공동협의, 단체교섭, 조정 및 자발적 중재 추진;
- 파업권.

법적, 사회적 보호:
- 아동의 법적 지위;
-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대우;
- 학대와 폭행으로부터 보호;
- 어떠한 형태로의 (성적 또는 기타) 착취의 금지;
- (부부간 자녀에 대한 배우자간 평등, 이혼 가정 자녀의 보호 등)의 가족의 법적 보호;
- 사회 보장, 사회 복지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권리;
-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육아;
- 노인돌봄을 위한 특별 조치.

사람의 이동:
- 가족 재결합의 권리;
- 국민의 나라를 떠날 권리;
- 추방시 절차적 안전장치;
- 출입국 수속의 간소화.

비차별:
- 여성과 남성이 고용에서 동등한 대우와 고용 기회를 가질 권리;
- 법적으로 거주 및 일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에게, 헌장에 명시된 모든 권리가 인종, 성별, 연령, 색상, 언어, 종교, 의견, 출신 국가, 사회적 출신, 건강 상태 또는 소수 민족에의 소속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보장;
- 가족의 책임에 근거한 차별 금지;
- 장애인의 사회 통합 및 지역 사회 생활 참여에 대한 권리.

사회헌장은 당사국(1991년 의정서)의 국가 보고서 제시를 기반으로 한 통제 메커니즘과 "내부적으로" 노동조합 및 비정부기구가 집단 청구를 제시할 수 있는 집단 불만 시스템(1995년 의정서)을 가지고 있다.
유럽사회권위원회(ECSR)는 헌장 당사국의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에서 선출한 15명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6년 임기로 재임할 수 있다.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기본협약
(요약)

이 협약은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다자간 기구이다. 그 목적은 당사국들이 자기 영토 내에서 소수민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은 소수민족이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들을 만듦으로써 그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평등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협약은 공공생활의 영역에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비차별
- 실질적 평등 증진
- 문화, 종교, 언어 및 전통의 진흥과 보존
-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결사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언론에 대한 접근 및 이용권
- 언어 및 교육 관련된 자유
- 국경을 넘어선 연락과 협력
- 경제, 문화, 사회 생활에서의 참여
- 강제적 동화 금지.

이 협약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당사국들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고서를 검토할 궁극적인 책임은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에 있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각료위원회를 지원한다.

자문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안한 후보자로부터 각료위원회가 선출한 최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국가가 그들의 지명자 중 한 명이 위원회에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선출되지 않은 후보자는 추가 위원의 예비 명단에 배치된다. 자문위원회는 국정 보고서 이외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예를 들어 정부 대표자 및 독립적인 출처와의 회의도 조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또한 보고서를 고려할 때 국가에 현장 방문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정부, NGO, 소수 커뮤니티, 학계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만날 수 있다.

유럽 지방 언어 및 소수 언어 헌장
(요약)

헌장은 한편으로는 지방 및 소수 언어를 위협받는 유럽 문화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또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인 생활과 공공 생활에서 자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지방 및 소수 언어, 비영토적 언어 및 덜 널리 사용되는 공식 언어를 다루고 있다.

헌장은 국가들이 그들의 정책, 입법 및 실천을 기반하여, 관련 언어의 보존에 필요한 틀을 제공하도록 하는 주요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8가지 기본 원칙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의 인식.
- 각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의 지리적 영역에 대한 존중.
- 해당 언어를 홍보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의 필요.
- 연설 및 글쓰기, 공적 및 사적 생활에서의 해당 언어 사용 촉진 및 장려.
- 모든 적절한 단계에서 해당 언어를 가르치고 연구하기 위한 적절한 형태와 수단의 제공.
- 관련 국가간 교류의 활성화.
-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당한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선호를 금지하고, 해당 언어의 유지 또는 발전을 저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도록 의도하는 것의 금지.
- 국가의 모든 언어 그룹 간의 상호 이해 촉진.

더욱이, 헌장은 공공 생활에서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한다. 이 조치들은 교육, 사법, 행정 당국 및 공공 서비스, 미디어, 문화 활동 및 시설, 경제 및 사회 활동 및 국경을 초월한 교류와 같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헌장은 당사국에서 헌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국의 입법, 정책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한다.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중심 요소는 독립적 전문가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의 정기 보고서를 검토한다;
-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당사국에게 질문을 제기한다;
- 헌장의 적용을 평가하기 위해 당국, 비정부기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을 만나기 위해 "현장" 국가 방문을 조직한다;
- 관련 국가에서 법률기반 협회 및 기타 기관이 언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제출한 추가 정보를 조사한다;
-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사국에 권고할 것을 제안하는 등 각료 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전달한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2년에 한 번씩 헌장 적용에 관한 상세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헌장 적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각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인신매매방지협약
(비공식 요약)

유럽인신매매방지행동협의회는 2005년 5월 16일 제3차 유럽평의회 국가정상회의(2007년 10월 24일, 바르샤바)를 계기로 구성되었다. 이 협약은 10번째 비준을 받아 2008년 2월 1일 발효 절차를 시작했다. 이 협약은 주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그 권리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조약이다. 또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범을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이 협약은 협약에 포함된 의무의 이행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시 메커니즘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은 유럽이사회 회원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회원국과 유럽연합도 대상국으로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협약의 목적 및 범위

이 협약은 인간에 대한 인신매매가 인권 침해와 인간의 존엄성과 진실성에 대한 범죄를 구성한다는 원칙을 인정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유럽평의회 협약은 다음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조약이다:

- 인신매매 방지
-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
- 밀매업자 기소.

이 협약은 다음에 적용된다:

-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국내, 국외, 조직 범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 피해자가 누구든: 여성, 남성, 아동
- 어떤 형태의 착취이든: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이나 서비스 등

협약에 의한 조치:

- 인신매매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소비자'를 억제하기 위한 행동. 이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이다.
- 경찰과 공권력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불법이주자나 범죄자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인식해야 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도움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의료, 상담 및 정보 제공은 물론 적절한 주거 제공도 포함된다.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피해자들은 인신매매범들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고 탈출할 수 있는 최소 30일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고 당국과의 협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만약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필요하거나, 범죄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머무를 공간이 필요하면, 갱신가능한 거주허가가 주어질 수 있다.
- 인신매매는 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인신매매범들과 그 공범들은 기소된다.
-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생활과 안전은 사법 절차 과정 전반에 걸쳐 보호되어야 한다.
- 피해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용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 협약은 피해자들이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시민사회는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이 협약은 공공 당국, 비정부 기구 및 시민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모니터링: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GRETA는 인신매매에 대한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과 협약 당사국 장관 위원회 및 유럽 이사회 비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당사국 위원회이다. GRETA는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당사국의 조치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협약에 포함된 조치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당사국은 해당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당사국위원회는 GRETA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당사국에 권고를 할 수도 있다.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을 위한 유럽평의회 헌장

각료위원회 권고 CM/Rec(2010)7 에서 채택

I부 – 일반 조항

범위

현 헌장은 제2항에서 정의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것이다. 문화간 교육, 평등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평화교육 등의 관련 영역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이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는 경우 외에는 다루고 있지 않다.

정의

현 헌장의 목적에서:

a. "민주시민교육"이란 학습자에게 지식, 기술, 이해를 갖추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에서 민주적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여, 다양성을 중시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훈련, 인식 제고, 정보, 실천 및 활동을 의미한다.

b. "인권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지식, 기술,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건설하고 방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훈련, 인식 제고, 정보, 실천 및 활동을 의미한다.

c. "정규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구조화된 교육 훈련 시스템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일반 또는 직업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종렵장이나 학위 등의 인증으로 이어진다.

d. "비정규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 환경을 벗어나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모든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 "비형식 교육"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서 교육적 영향과 자원으로부터, 일상적 경험(가족, 또래집단, 이웃, 만남, 도서관, 대중매체, 일, 놀이 등)으로부터 태도, 가치, 기술, 지식을 습득하는 평생의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간의 관계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고 상호 지지하는 관계이다. 이 둘은 목표와 실천보다는 초점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의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영역과 관련하여 주로 민주적 권리와 책임과 적극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권교육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더 넓히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회원국 헌법 체계 및 우선 순위

아래에 명시된 목표, 원칙과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a. 각 회원국의 헌법 체계에 따르며, 이러한 구조에서의 적절한 수단을 사용한다;

b. 각 회원국의 우선 순위와 니즈를 고려한다.

II부 – 목적과 원칙

목적과 원칙

다음의 목표와 원칙은 회원국들이 정책, 입법 및 실천의 구성에서 지침이 되어야 한다.

a. 자기 영토 내의 모든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교육은 평생학습과정이다. 이 분야에서 효과적인 학습은 정책 입안자, 교육 전문가, 학습자, 부모, 교육 기관, 교육 당국, 공무원, 비정부 기구, 청소년 단체, 미디어 및 일반 대중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c. 정규교육, 비정규, 비형식 교육과정이든 모든 교육과 훈련의 수단은 학습 과정에서의 역할을 가지며, 춰칙을 알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치가 있다.

d. 비정부기구와 청소년기구는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위해, 특히 비정규적이고 비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기회와 지원이 필요하다.

e. 교수학습 실천과 활동은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가치와 원칙을 따르고 증진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의 거버넌스는 인권적 가치를 반영하고 증진시켜야 하며, 학부모를 포함한 학습자, 교육진 및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f.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위한 모든 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사회적 응집력과 문화간 대화의 증진과 성평등을 포함한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갈등을 줄이고 종교과 민족간 차이에 대한 감사와 이해를 높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공유하며 대화를 장려하고 문제와 분쟁의 해결에 비폭력을 조장하는 지식, 개인적, 사회적 기술과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g.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교육을 위한 모든 교육의 기본 목표 중 하나는 학습자들에게 지식, 이해 및 기술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를 옹호하고 촉진하는 사회에서 행동할 준비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h.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의 원칙과 실천에서, 교육전문가와 청소년지도자는 물론 트레이너 자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은 이 분야에서 효과적인 교육의 전달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고 자원화되어야 한다.

i. 정책 입안자, 교육 전문가, 학습자, 학부모, 교육 기관, 비정부기구, 청소년 단체, 언론 및 일반 대중을 포함하여 주, 지역 및 지역 수준에서 민주 시민권 및 인권 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이 장려되어야 한다.

j. 인권의 가치와 의무의 국제적 성격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 공통의 원칙을 고려할 때, 회원국들은 현재 헌장에서 다루는 활동과 좋은 사례를 찾고, 이를 나눔으로서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III부 – 정책

정규 일반 및 직업 교육

회원국들은 일반 및 직업교육훈련 분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 수준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관련성을 보장하고 이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장려하기 위해 이 교육과정들에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계속 지원하고 검토하며 업데이트해야 한다.

고등 교육

회원국들은 학문의 자유 원칙을 존중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특히 미래의 교육 전문가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회원국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한 실용적인 수단이자 바람직하고 유익한 거버넌스 방법으로서 모든 교육 기관에서 민주적 거버넌스를 촉진해야 한다. 그들은 적절한 수단을 통해 학습자,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교육기관의 거버넌스에 참여한다.

훈련

회원국들은 교사들, 기타 교직원들, 청소년 지도자들과 트레이너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입무 및 지속적 훈련과 개발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교육과정의 목적과 원칙, 적절한 교수학습방법, 그리고 교육분야에 적합한 다른 주요 기술들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지식과 이해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부기구, 청소년단체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역할

회원국들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특히 비정규교육에서의 비정부기구와 청소년기구의 역할을 육성해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기구들과 그들의 활동을 교육 시스템의 가치 있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가능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형태의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다른 이해관계자들, 특히 언론과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 기준

회원국들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학습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은 이러한 평가 모두에서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 한다.

연구

회원국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추진하여 해당 지역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고 정책 입안자, 교육기관, 학교 지도자, 교사, 학습자, 비정부기구 및 청소년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비교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와 효율성을 측정하고 증가시키고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연구는 특히 교육과정, 혁신적인 관행, 교육 방법 및 평가 기준과 지표를 포함한 평가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포함할 수 있다.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다른 회원국 및 이해 관계자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한다.

사회적 통합, 다양성 중시, 차이와 갈등을 다루는 기술

모든 교육 분야에서 회원국들은 민주적이고 다문화사회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학습자들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다양성과 평등을 중시하며, 특히 다른 종교와 민족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의견 불일치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접근법과 교육 방법을 장려하도록 한다.

IV부 – 평가와 협력

평가와 검토

회원국들은 현행 헌장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수행한 전략과 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 전략과 정책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한다. 지역 단위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을 통해 할 수도 있다. 또한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유럽평의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후속활동에서의 협력

회원국들은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추구함에 있어 서로 그리고 유럽평의회를 통해 협력한다:

a. 확인된 공통 관심사와 우선순위의 주제를 추구한다;

b.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에 관한 기존 촉진자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자간, 국외 활동 육성;

c. 우수사례의 교환, 개발, 정리 및 전파 보장;

d. 헌장의 목적과 이행에 관해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

e. 비정부 기구, 청소년 단체, 교육 전문가들의 유럽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그들 간의 협력을 지원한다.

국가간 협력

회원국들은 유럽평의회의 틀안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한 그들의 활동 결과를 다른 국제기구들과 공유하도록 한다.

용어 사전

이 용어 사전은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 협약 및 용어에 대한 간략한 정의나 설명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제5장에서 관련 주제에 관한 배경정보 섹션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이용하라.

가입(Accession): 이미 발효 중인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전통적인 두 단계를 대체한다.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당사국은 가입 즉시 해당 조약에 구속된다. 가입 개념의 예로 유럽연합 가입국은 유럽인권협약 가입 의무화에 대한 이슈였다.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 기존의 무력 충돌의 수직적 확대(폭력의 격화)나 수평적 확대(영역적 확산)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

경제적 권리(Economic Right): 삶의 필수품을 위한 생산, 발전 및 물질적 수의 관리에 관한 권리. 이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과 유럽사회헌장에 의해 보장된다.

경제적(Economic): 생산, 발전 또는 물질적 부의 관리에 관한 요인들에 관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년 채택, 1976년 발표)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ICESCR은 모든 사람이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가졌음을 선언한다

고문이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유럽 지역 인권조약으로 1987년 유럽평의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형무소, 소년원, 경찰서, 난민촌이나 정신병원과 같은 곳에 공권력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을 갖는다.

고정관념(Stereotype): 지나친 단순화, 일반화 그리고 무의식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생각을 말한다. 집단의 일부가 가진 특성을 그룹 전체로 확대하는 일반화의 형태이다.

공청회(Hearing): 이해당사자 및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는 과정. 예를 들면 공청회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정부부처, 국제단체 또는 특별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다.

과두제(Oligarchy):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한 정부

관용(Tolerance): 비록 그것에 동의하거나 찬성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견해와 다른 행동과 믿음을 기꺼이 수용할 의향. 관용에 관한 원칙의 선언(UNESCO 1995).

교육가(Trainer): 학습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람. 예를 들면 참가자 그룹을 위한 토론, 연구 방문, 영화 관람과 나침반 활동 운영을 준비한다. 나침반 활동을 실행할 때 훈련사나 선생은 청소년 그룹과 민주적으로 작업하며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법적 권리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 EU와 같은 국제조직의 회원자격이 그러하듯이 국제인권문서는 자주권에 일정제한을 부여한다.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관습과 전통에 근거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관행. 국제관습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요소를 충족하는 관행이어야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획일적이고 일관된 국가 관행이며 그러한 관행이 의무적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법적 확신) 그것은 국제법의 중요하고 유용한 근원이다. 그것은 이 조약에 동의했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에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1919년 설립된 유엔기구로, 회원국 정부, 고용주, 노동자 3자가 함께 전세계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알려간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World Court); UN의 주된 사법기관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며, 주요 기능은 국가들에 의해 제소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조직, 수권 대리인 및 UN총회에서 제출한 법적 질문에 조언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ICJ를 ICC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에 설립된 국제적 정부 간 조직(IGO)이다.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유지, 국가 간 친선관계 발전, 사회적 진보의 촉진, 삶의 기준 및 인권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국제연합)의 창립 조약이다. 이 헌장은 1945년 6월 25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UN의 기관 및 절차의 확립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한다.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UDH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그들의 선택의정서들을 총칭하는 비공식적 명칭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2002년 설립되었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는 상설 재판소로 집단학살,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한 개인들을 기소한다.(ICC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권리장전(Bill of rights): 정부의 간섭에 대한 보호의 목록을 나열한 인권 또는 시민권에 관한 헌법의 성명서. 국제인권장전을 참조하라.

규약(Covenant): 당사국 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 협약(Convention) 그리고 조약(Treaty)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중요한 국제인권규약으로는 1966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두 가지가 있다.

금권정치(Plutocracy): 국가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 통치하거나 권력을 갖는 정부체제.

기본 협약(Framework convention): 국제적 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이슈를 다루는 데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준비를 다루는 과정을 정리한 협약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유럽연합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는 조약. 이 헌장은 EU회원국이 유럽연합법의 적용에 있어 구속력을 가진다.

난민(Refugee): 종족, 종교, 국적, 특정 단체의 회원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으리라는 근거가 충분한 공포로 인해 자신이 가진 국적의 나라 밖에 있으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꺼려하는 사람. 이 용어는 또한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면 망명신청자가 있다.

내부 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특히 무력 분쟁, 일상적 폭력과 인권침해 상황, 자연재해나 인재를 피하거나 재해의 결과로, 자신의 집이나 상시 거주지를 떠나야만 하는, 국제적 국경을 넘지 않는 사람이나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노동조합(Trade Union): 특정 무역이나 공예의 노동자들의 연대로서 노동자들의 공통의 이익, 예를 들면 노동환경개선을 도모한다. 임금단체교섭권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도 인권으로 널리 인식된다.

노예제도(Slavery): 권력과 복종의 관계에 기반하는 관행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그 사람에게 노동이나 다른 서비스를 강요할 수 있는 체제. 노예제도의 현대적 형태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노동착취, 무력분쟁에서의 아동 이용, 부채담보, 인신매매, 매춘과 강제노동착취를 포함한다.

다문화의(Multicultural):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이 공동체에 함께 살면서 다양한 상황에 상호교류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독특한 특성을 유지함.

도덕적 권리(Moral rights): 공평성과 정의와 같은 일반 윤리적 원칙에서 나오는 권리.

독재정치(Autocracy): 한 개인이나 소수 그룹이 무한의 권력이나 권한을 갖는 통치체제 또는 그러한 개인이나 그룹의 권력이나 권한.

디브리핑(Debriefing): 경험 및 참여 활동에서 참여자와 촉진자가 자신들의 피드백과 통찰 등을 구조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으로,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느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디브리핑의 목적은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역자 보완)

망명 신청자(Asylum-seeker):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개인으로 아직 공식적 난민지위의 요청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

모의실험(Simulation): 참가자를 낯선 상황에서 역할에 참여시키는 확장되고 구조화된 역할극.

무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 일상의 경험과 교육적 영향 그리고 자신의 환경자원들(가족, 또래 집단, 이웃, 시장, 도서관, 대중매체, 직장, 놀이 등)에서 습득한 태도, 가치, 기술 및 지식에 의한 평생의 과정

문화(Culture): 광범위한 공유된 태도, 가치관, 목표 및 관습. 기관, 조직 또는 단체에 의해 공유된 역사적 전통에 종종 근거한다.

문화권(Cultural rights): 자신의 주체성과 발전을 보존할 권리.

미등록 이주(Irregular migration): 대부분의 이주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불법", 무허가" 또는 "공인되지않은"이란 용어대신 어느 누구도 불법적이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

미주 인권협약(Ame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 (미주협약); 1969년 미주기구(OAS)에 의해 채택된 인권조약. 북부, 중앙, 남부 아메리카 대륙을 아우른다.

민주주의(Democracy): 직접적 국민투표에 의하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단의 방식에 의하든 국민으로부터 나온 통치권의 정부 형태

반유대주의(Antisemetism): 유대인 출신이거나 유대교인임을 자인한 사람들에 대한 공포, 증오, 분노, 불신, 편견, 차별 또는 부당한 대우.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부인하는 현대적 형태를 포함한다.

반평화 범죄(Crimes against peace): 국제법에서는 다음을 지칭한다. (i) 침략전쟁이나 국제 조약 및 협약 또는 확약을 위반하는 전쟁의 계획, 준비, 시작 또는 전개; (ii) 앞의 (i)에 언급된 행위의 공통의 계획이나 수행을 위한 모의의 참여. 뉘른베르크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발달 역량(Evolving Capacity): 아동권리협약(CRC)에서 사용하는 원칙으로, 인지적, 정서적 성숙에 따라 아동 권리를 더 많이 행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발전(Development):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정치적 과정으로, 발전과 그 결과의 혜택의 공정한 분배에 적극적이고 자유로우며 의미 있는 참여를 토대로 한 전 국민과 모든 개인 복지의 지속적인 향상을 목표로 한다. 발전권도 또한 살펴보라.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 자신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온전히 발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문화적•정치적 및 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할 집단의 권리. UN의 발전권 선언은 1986년 채택되었다.

발효(Entering into force):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에 대해 완전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다. 이는 조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준국 수가 달성됐을 때 발효된다.

법의 지배(Rule of Law): 정부 관료, 왕, 대통령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통치하는 사람과 통치받는 사람 모두에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법적 권리(Legal Rights): Statutory rights라고도 한다. 법에 규정된 권리로 옹호되며 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법적 과정에 관련된 권리, 예를 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할 때 사용된다.

보편성(Universality):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사회의 모든 사람은 모든 인권을 갖는다는 원칙.

분권(Separation of powers): 통치권을 서로 다른 부문으로 분리해서 누구도 절대적 통치를 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보통의 분리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 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독립된 사법부가 있다.

분쟁 변환(Conflict transformation): 전쟁, 민족 간 그리고 종교 간의 폭력과 같은 갈등을 평화로운 결과로 변화시키거나 변형시키는 과정. 관련된 당사자들의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장기간의 과정이다.

분쟁 예방(Conflict Prevention): 명백한 갈등을 줄이거나 폭력적 충돌의 발생이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해지는 조치.

분쟁 해결(Conflict resolution): 폭력적 충돌을 종결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해지는 조치.

불가분성(Indivisible): 모든 인권을 나누거나 분리시킬 수 없는, 전체의 부분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한 사람의 특정 인권을 다른 권리보다 "덜 중요하다"거나 "필수적이지 않다"는 근거로 부정할 수 없다.

불가침성(Inalienable):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비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폭력행위. 예를 들면 살인, 몰살, 노예화, 고문, 강간, 성노예, 강제 임신, 그 중에서도 인종, 민족, 젠더 등을 근거로 한 특정 집단에 대한 박해, 강제 실종, 아파르트헤이트 범죄 그리고 의도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야기하거나 신체나 정신에 또는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비인도적 행위들.

비정부기구(NGO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정부와는 별도로 설립된 기구로서 보통 로비, 자선활동이나 활동가 역할을 한다. 몇몇은 규모가 크고 국제적이다. 예를 들면 적십자(신월)사, 국제사면위원회, 세계 스카우트연맹, 국제 인권감시기구, 유럽 청소년 포럼 등이 있다. 다른 기구들은 작고 지역적이며, 그 예를 특정 도시의 장애인들을 옹호하는 기구, 한 난민캠프에서 여성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한 연합체. 당신 나라의 NGO에 관해 유럽평의회 데이터베이스 http://ngo-coe.org에서 검색할 수 있다.

비준, 비준하다(Ratification, to ratify): 조약에 서명한 정부의 조치를 해당 국가의 입법부가 인준하는 과정. 국가가 조약을 수락한 후, 조약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공식적인 절차. 비준 후에 국가는 해당 조약의 체결국이 된다.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 예를 들면 청소년 노동의 일련의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교육. 정규 교육 외에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 비정형 교육은 또한 비정형 학습도 지칭한다.

사형제(Death penalty):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에 의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의 승인. 유럽인권협약은 원래는 사형제를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그 영역 내에서 (선택의정서 6), 심지어 전시에도 (선택의정서 13) 금하고 있다.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 사형제를 폐지했다.

사회권(Social rights): 사회생활에 완전한 참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세계인권선언(UDH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ESCR) 그리고 유럽사회헌장이 이 사회권을 보장한다.

상호문화(Intercultural): 다양한 언어적, 민족적 공동체 간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영향을 지칭한다. 다른 문화적 관점은 현실이 다원적이고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상호 영향이 모든 삶과 문화에 있어 필수적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기를 요구한다.

상호의존성(Interdependent): 한 특정 권리의 향유는 모든 다른 권리의 향유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을 표현할 권리, 건강권, 이동의 자유 그리고 차별의 부재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섀도우 리포트(Shadow report): 시민 사회를 대변하는 기구나 개인이 작성한 비공식적 보고서로 인권 조약을 모니터링하는 위원회에 제출된다.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해당 조약 의무의 일환으로 제출되는 준수와 실행에 관한 공식 보고서와 모순되거나 추가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서명(Signature): 서명은 그 조약의 체결국이 되기 위한 첫 단계로 비준을 향한 의례적인 단계이다.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국가는 그 조약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무를 장차 수용할 것이며, 그 동안 이러한 책무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삼갈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선언(Declaration): 원칙과 기준에 관한 합의를 서술한 문서이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1993년 비엔나의 인권에 관한 UN컨퍼런스와 1995년 베이징의 여성을 위한 세계컨퍼런스와 같이, UN 컨퍼런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세트의 선언문을 만드는데, 하나는 정부 대표들이 작성하며, 다른 하나는 NGO에 의해 작성된다. UN 총회는 영향력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문을 선언하곤 한다.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원 조약에 추가적인 절차나 규정을 추가하여 보완 및 수정하는 조약이다. 원 조약을 비준한 정부는 의정서에서 변경된 사항을 비준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Optional)"이라 말한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수용된 정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별 관점을 보장하고 개발정책, 자원배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계획 수립, 실행 및 감시를 포함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성평등 목표가 중심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성(Sex):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로, 보편적이며 변하지 않는다. 주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학습되고 습득된 사회적 속성을 지칭하는 젠더와 대비된다.

성문화(하다)(Codification, codify): 법 또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과정.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첫 글자 단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sation): 전 세계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UN 산하 정부간 조직이다.

세계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선언(Universal Declaration)은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인권의 기준과 규범을 확립한 UN 최초의 문서이다. 모든 회원국은 UDHR의 지지에 동의했다. 비록 이 선언은 구속력이 없도록 의도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다양한 조항들이 폭넓게 인식되면서 이제는 국제관습법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세계화(Globalisation):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상호의존과 교환의 증가 과정을 뜻한다. – 특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 서. 또한 이 용어는 강대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적 권력, 제조회사 및 금융기관의 이익을 충족시키도록 계획된 특별한 형태의 국제통합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소수집단(Minority): 그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로 결정한 개인들로 구성된 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 내의 모든 민족적, 언어적 또는 종교적 집단.

시민권(Citizenship): a)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초래하는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관계 또는 b) 예상되는 행동과 태도의 형태를 포함한 "상호밀접한" 개인들과 국가 간의 일반적인 관계 묘사에 사용된다.

시민사회(Civil Society): 자발적인 시민사회단체, 협회 및 기관, 예를 들면 등록된 자선단체, NGO, 공동체 집단, 여성단체, 종교단체, 전문직 협회, 노동조합, 자조집단 및 변호단체의 통칭으로 민주사회기능의 토대를 이룬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상업조직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때로는 시민 자유권으로 알려져 있다. 원하지 않는 정부의 조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와 자유의 범주 그리고 국가의 시민 생활에 있어서 차별이나 탄압 없이 참여할 능력의 보장.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년 채택되었으며 1976년 발효되었다.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ICCPR은 모든 사람이 광범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졌음을 선언하고 회원국의 규약 준수를 감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나치주의(Neo-Nazism):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나치주의의 부활을 추구하는 극우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운동 등과 이념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민족주의에 기반하는 변이를 지칭한다.

실종(Disappearance): 정부나 기타 조직에 의해 살해되거나 비밀리에 투옥되어 사람이 사라졌을 때 사용되는 표현.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활동을 통해 국가나 조직의 부당한 체제와 원칙에 도전한다는 이류로 사라진다.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59년 UN총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10개의 일반적 원칙을 제시한다. 이 선언은 그 후 1989년에 채택된 아동권리협약(CRC)의 토대를 이루었다.

아랍 인권헌장(Arab Charter of Human Rights): 2004년 5월 22일 아랍국가연맹은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과 카이로의 이슬람인권선언에 포함된 원칙의 준수를 확인했다.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 한 종족에 의해 다른 종족이나 그룹에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행되는 체계적 억압과 지배의 제도화된 통치의 맥락에서 행해지는 살인, 강간, 고문, 노예화의 비인도적 행위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아프리카 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아프리카 헌장, 때로는 반줄 헌장으로 언급된다); 1981년 아프리카 통일기구(OAU)에 의해 채택된 아프리카대륙 지역인권조약이다.

역량(Competency):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인권 이슈에 대한 더욱 심화된 이해와 인권보호에 필요한 능력, 태도 및 가치관 획득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말한다.

역량(Skill): 특히 그것을 실행해보았기 때문에, 활동이나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인권을 옹호하는 능력은, 예를 들면 의사소통,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 협상 및 팀워크의 기량을 포괄한다.

역량강화(Empowerment):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적,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힘의 증진.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게, 예를 들면 입법, 긍정적인 행동과 훈련과 같은 사회 전반에 온전히 참여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쓰인다.

역할극(Role-play): 참가자가 연기하는 짧은 연극, 역할극의 상황에 참가자는 자신의 인생경험을 이용한다. 역할극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개선된다. 역할극의 목적은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황을 경험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연대권(Solidarity rights): 집단적 권리(collective right) 참조

연합(Association):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들의 집단이 형성한 조직. 그러한 조직은 또한 자발적 조직, 자발적 연합 및 비법인단체로도 불린다. 비정부기구(NGOs)도 연대이다. 연대는 이른바 "시민사회"의 근간을 형성한다.

옴브즈맨(옴브즈퍼슨, Ombudsman): 일반적으로 정부나 국회에 의해 지명된 독립적 관료로서 개별 시민이 제출한 불만사항을 조사한다. 옴부즈맨이라는 단어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로서 "대리인"이라는 의미이다.

옹호(Advocacy): 특정 아이디어, 개발 또는 일하는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제안함.

외국인 혐오(Xenophobia): 외국인, 타국 출신 사람 또는 외국에서 온 물건에 대한 (비이성적) 두려움. 외국인 혐오는 차별, 인종차별주의, 폭력 및 심지어 외국인에 대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우대 조치(Positive discrimination): 적극적 조치와 같은 의미의 용어이다.

원주민(Indigenous peoples): 그들이 가진 본질적 특성과 해당 지역과의 관계에 위해서 정의한다. 그들은 식민지화로 고통받았으며 그들 국가로부터 경시되며, 종종 부족 형태를 띠고 있다. 많은 원주민은 자기 결정권과 자기 사회의 발전에 대한 통제권을 포함한, 구분된 민족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정을 추구한다. 2007년 UN은 UN원주민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유니세프(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돕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 확장을 지원한다. UNICEF는 아동인권협약에 따라 아동에 대한 모든 행동이 국제적 기준으로 확립되도록 노력한다.

유럽 사회권 위원회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국가들의 유럽사회헌장 준수를 감시하는 책임이 있는 기구이다. 15명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회원국의 사회헌장에 대해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다.

유럽 안전보장협력기구(OSCE; 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안보 지향적 정부 간 기구로서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중앙아시아, 미국과 캐나다 모든 나라들을 망라한다. 권한은 무기 규제, 인권, 출판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와 같은 이슈들을 포괄한다.

유럽문화협약(European Cultural Convention): (유럽평의회에 의해 1954년에 채택되었으며 1955년에 발효되었다); 교육, 문화, 유산, 청소년 및 스포츠 영역에서 유럽평의회의 역할을 위한 공식적 체계를 제공하는 지역 협약이다. 유럽협약의 보완으로서 유럽문화협약은 유럽 문화의 보호와 여러 국민간 문화적 다양성의 상호 이해와 이익의 증진을 추구한다.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1962년 유럽평의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1996년에 개정되었다); 사회적•경제적 인권을 보장하는 지역 조약으로, 주로 시민권과 정치권을 다루면서 유럽인권협약을 보완한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종종 단순하게 재판소: "the Court"로 지칭된다); 1952년에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직무는 EU의 법이 EU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도록 확실히 함으로써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국의 법정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유럽 지역에 위치한 회원국들의 경제적•정치적 연합으로 광역적 통합과 사회적 협력을 추구한다. EU는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U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회제도. 의회는 스트라스부르와 브뤼셀 두 곳에 회의장이 있다. 유럽의회(EP)는 705명의 국회의원(MEPs)이 있다.

유럽인권위원회(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럽평의회 내의 독립된 기구로서 유럽평의회회원국들의 인권에 관한 인식과 보호 촉진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인권고등판무관도 참조하라.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하며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설립된 초국가적 법정이다. 협약 당사국에 의해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개인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의 법적 장치를 제공한다.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ECHR)) : 1950년 유럽평의회에 의해 채택된 유럽 지역 인권협약이다. 유럽평의회의 모든 회원국은 ECHR의 당사국이며 새로운 회원국은 가능한 한 빨리 협약을 비준하여야 한다.

유럽평의회 의회(PAC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며 PACE는 국부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1년에 4회 회합을 가지며 유럽 지역 정부들에게 솔선수범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318명의 대표는 유럽평의회의 47개 회원국 국가의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1949년에 인권,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47개 회원국은 사실상 유럽 전역을 망라한다. 스트라스부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보(Reservation): 조약 가입에서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조문에 대해 예외 조항으로 두는 것. 그러나 이러한 유보가 조약의 근본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유엔 안보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의 중요한 조직 중 하나로 세계평화와 안보유지를 책임진다. 각각은 안보이사회의 어떤 결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5개국 있으며, 비상임이사국이 10개국 있다.

유예(Derogation): 조약의 특정 회원국에게, 예를 들면 전시에는 특정 권리를 유예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선언. 그러나 어떤 특정 권리는, 예를 들면 고문으로부터의 자유권은 결코 유예될 수 없다.

이주자(Migrant): 유럽이주위원회의 업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맥락에 따라 출국 이주민, 회귀 이주민, 입국 이민자, 난민, 실향민 및 그리고 이주를 통해 만들어진 출신 배경에 따른 집단이나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들을 말한다.

인권(Human Rights):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소유하는 권리. 인권은 불가분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보편적이며 각 개인의 평등과 존엄을 존중한다.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의 인권 담당의 수장. 고등판무관은 UN의 인권 매커니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수장이다. (유럽평의회의 기구인 인권위원회; Commissioner for Human Right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인권 기구(instruments): 구속력이 없는 원칙으로 권리를 명시하거나 (선언), 비준한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 국가나 국가들의 공식 문서(규약, 조약 또는 협약)가 해당된다. 국가단위이거나 국제적 단위로 있다.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로, 현재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대체되었다.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UN체제 내의 정부 간 단체로서 전 세계의 인권 증진과 보호 강화에 책임 있는 47개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2006년 3월 UN총회에 의해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기 위해 창립되었으며 그 주된 목적은 인권 침해와 그들에게 권고하는 일을 다루는 것이다.

인권체계(Human Rights framework): 인권을 정의하고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체메카니즘을 확립하는 국제 및 지역단위 기구들로 구성된 체계로 계속 진화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인생관(Life Stance):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상 체계. 종교와 종교의 대안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표지.

인종차별주의(Racism): 사람의 질은 민족 집단이나 종족의 영향을 받으며 다른 집단이나 종족("인종")의 구성원은 자신의 구성원만큼 훌륭하지 않다는 믿음, 또는 다른 "인종"의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결과.

자연권(Natural rights):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갖는 권리. 또한 빼앗을 수 없는 권리로도 칭해지며 자연권은 자명하고 보편적이며 법, 관습이나 어떤 특정 문화권의 믿음이나 정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라고도 하며, UN에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162개국의 UN회원국이 자신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의 준수에 대해 제출한 5년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1년에 3회 회의를 가진다.

장애차별주의(Disablism): (때로는 disabilism 또는 ablism으로 쓰기도 한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하다는 믿음에서 야기된 차별적, 억압적 또는 학대적 행위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예를 들어 여성, 특정 인종의 사람, 원주민 그룹, 종교 또는 장애에 대해, 즉 교육과 고용에서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기업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 적극적 조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 평등을 제공하는 한 방식이다. 적극적 조치는 평등이 성취될 때까지의 임시적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전쟁 범죄(War crimes): 내국 또는 국제 분쟁 중에 저질러진 범죄로 인도주의 법이나 다른 무력분쟁에 관련된 법의 중대한 위반을 포함한다. 1949년의 제네바 협약과 함께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 협약은 전쟁과 전쟁 범죄 그리고 전쟁의 희생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 국제법들이다.

정부간 조직(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IGOs): 여러 국가가 각국의 노력을 함께 조정하고자 후원하는 조직으로, UN도 하나의 국제적 IGO이다. 일부는 지역 단위로 유럽평의회, 아프리카 통합기구 등이 있고, 일부는 동맹 단위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있다. 특정 목적을 헌신하는 IGO에는 국제이주기구(IOM) 등이 있다.

정치적 권리, 참정권(Political rights): 정부에 대한 투표권 행사와 같은 자신의 공동체와 사회의 정치 생활에 참여할 개인의 권리.

제1세대 권리(First-generation rights): 17-18세기 일반적으로 인권으로 인정된 권리. 여기에는 투표권, 생명권 및 자유권, 표현, 종교 및 집회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포함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주로 이런 권리들만을 성문화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제2세대 권리, 즉 경제적•사회적 권리보다 상위에 있다고 제시하여, 이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제2세대 권리(Second-generation rights): 적절한 생활 수준, 건강관리, 주거 및 교육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주로 포괄하는 권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은 이러한 권리를 주로 성문화하고 있다. 제2세대라는 용어가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우선한다고 암시하기에 점점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제3세대 권리(Third-generation rights): 이 권리는 20세기 후반에 출현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나 사회-경제적 권리처럼 용이하게 분류되지 않는다. 건강한 환경권, 평화권, 발전권 및 천연자원권을 포함한다. 연대권을 참고하라.

제네바 협정(Geneva Conventions): 194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적십자위원회(ICRC)는 4개의 조약을 채택했다. 그들은 무력분쟁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칙들, 특히 아프고 부상당한 병사, 해군, 공군, 포로 및 적의 지배하에 있는 민간인의 치료와 관련된 규정들을 제시했다.

젠더(Gender): 여성과 남성 간의 역할, 태도, 가치 및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관념. 반면에 성별(sex)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데, 즉, 남성과 여성간의 생물학적 차이인 반면, 젠더는 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종속되는 기능으로 나타난다.

조약(Treaty): 협약(Convention)과 규약(Covenant)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상호 의무와 책무를 정의하고 수정하는 국가 간의 공식적인 합의로, 국가가 채택된 조약을 비준하면, 해당 조약의 조항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Arbitration):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제3자가 그들의 주장을 듣고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한 과정.

중재(Mediation): 분쟁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자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 용어는 1983년 UN에 의해 소집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집단적 권리(Collective Rights): 자신들의 이익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의 권리; 때로는 "제3세대 권리"라 불린다. 이 권리는 개인의 권리에 부가되어 존재한다.

집단학살(Genocide): 그들의 국적, 인종, 민족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전체나 일부를 파멸시키려는 의도의 체계적인 학살. 또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야기시키고 해당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차별(Discrimination): 종족, 문화, 민족적 기원, 국적, 성적지향, 지체부자유 또는 문제의 이슈에 관련되지 않는 다른 특성 등을 근거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또는 선호

참여(Participation): 지역공동체나 사회의 공적 생활에의 참여. 지역적, 광역적 생활의 청소년 참여에 관한 수정 유럽헌장은 지역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는 국제 정책문서이다. 2003년 유럽평의회의 지역 및 지역 당국 의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책무(Accountability): 정부로 하여금 자국민에게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실행한 방법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이다.

청소년 참여(Youth participation): 참여(participation)을 참고하라.

촉진자(Facilitator): 나침반 활동을 준비하고 조정하는 사람. 촉진자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고", "돕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학습하고 발전시키도록 격려하는 사람이다. 촉진자의 역할은 참가자가 실험활동, 탐구, 주고받기, 타협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전문가"인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가자와 촉진자 모두는 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해야 한다.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UN인권이사회와 같은 인권 기구에서 선정한 사람으로, 예를 들면 적절한 주거, 아동매춘과 아동음란물, 여성에 대한 폭력와 같은 특정 주제나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에 관해 조사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파시즘(Fascism): 민족적 또는 종족적 우월과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의 이념에 근거한 지배체제. 반대와 비평의 강제 진압, 대중매체의 통제, 산업, 상업 등에 대한 국가의 통제 그리고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종종 인종차별주의로 특정지어진다.

판례(Jurisprudence): 특정한 법정의 사례와 이 사례들에 의해 확립된 원칙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 예를 들면, 유럽 인권재판소 판례.

평가(Evaluation): 참가자가 실험적이고 참여적인 활동에서 배운 것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잇게 해주는 촉진자와 참가자 간의 체계화된 대화. 이 과정에서 참가자는 이 학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관련짓는 방법과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평화구축(Peace-building): 분쟁 후 평화 구축 포함, 무력 분쟁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중•장기적 조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견해를 인쇄물과 다른 매체로 표현할 자유, 그리고 아이디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수신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용어는 세계인권선언(UDHR)의 제18조와 제19조의 하나 혹은 둘 모두를 언급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종종 사용된다.

헌법(Constitution): 국가나 조직이 지배받는 일련의 법률들.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헌법은 일국의 최상위 법률로서 명기되고 합의된다. 헌법은 국가와 국가의 정치적 체제에 기반을 구축한다. 성문헌법이 없는 4개 국가는 법률적 판단과 판례를 통한다.

헌장(Charter):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제시하는 문서.

협상(Negotiation): 분쟁 중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형식 교육(Formal education): 유치원, 초등학교로부터 중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이르는 체계적 교육 및 훈련. 정규 교육은 원칙적으로 일반 또는 직업교육기관에 적용되며 증명서가 제공된다.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생태계적으로 건전한 환경을 갖는 개인의 권리를 묘사할 때 사용된다. 때로는 동물, 식물 및 생태계가 인간 행동의 영향에서 생존하기 위한 권리를 포함한 환경 자체의 권리 언급에 사용된다.

회원국(Member States): 정부간 기구에 회원인 국가. 당사국으로도 표현된다. (예, UN 및 유럽평의회 회원국).

훈련(Training): 특정한 일이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학습하는 과정. 예를 들면 인권을 옹호할 수 있게 하는 훈련.